

# 코로나19 위기와 노동시장 충격

- 취약노동계층에 미친 영향과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황선자 · 임찬영 · 김난주



# 발간사

---

우리나라의 경제 및 고용창출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취업자를 감소시키고, IMF 이후 처음으로 임금노동자의 고용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위기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중소기업·사업장 및 대면산업 종사 노동자, 여성, 청년 등 취약노동계층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들 대다수가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에서, 고용 및 소득 위기가 이들 취약노동계층에게 집중되어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대체로 임금 불평등이 증가했는데, 임금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의 지속은 향후 노동시장 구조에 더 크고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향후 경제가 과거보다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2020년에 이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산업생태계와 노동시장에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고용회복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긴급한 위기대응에서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고용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구조적 문제로 고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및 노동문제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더 나아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이에 기인한 불평등 및 격차 해소, 양질의 일자리 촉진 정책 등 장기적 시각의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취약노동계층의 고용, 임금 및 노동조건, 사회보험 가입률 및 근로복지 수혜율, 노동조합 조직률 등 다양한 노동관련 실태에 미친

영향을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2020년의 변화정도를 상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이는 주요하게 이에 기초하여 취약노동 계층 보호 및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한편, 사회적 재난 이 취약노동계층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 기록으로 남기고, 향후 경제·사회적 재난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대응의 시급성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가 취약노동계층 보호 및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대안 모색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를 수행한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 임찬영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연구위원,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진의 개인 의견이며, 한국노총 또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2021년 12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 동 명

# 목차

요약 .....	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방법과 내용 .....	4
제2장 코로나19위기와 고용 및 임금불평등 동향 .....	9
제1절 머리말 .....	9
제2절 코로나19 위기와 고용 동향 .....	11
1. 한국의 경제 및 고용 동향 .....	11
2. 코로나19 팬데믹과 취업자 동향 .....	17
제3절 코로나19 위기와 임금소득불평등 .....	23
제4절 소결: 요약 및 시사점 .....	26
제3장 코로나19가 취약노동계층에 미친 영향: 종사상지위 및 고용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	28
제1절 머리말 .....	28
제2절 종사상지위별 고용과 노동실태에 미친 영향 .....	30
1. 종사상지위별 고용 영향 .....	30
2. 종사상지위별 임금수준 변화 .....	45
3. 종사상지위별 노동실태 변화 .....	56
4. 종사상지위별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 변화 .....	63
5. 종사상지위별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와 조직률 변화 .....	66

제3절 근로형태별 고용과 노동실태에 미친 영향 .....	67
1. 근로형태별 고용 영향 .....	67
2. 근로형태별 임금수준 변화 .....	89
3. 근로형태별 노동실태 변화 .....	107
4.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 변화 .....	120
5. 근로형태별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와 조직률 변화 .....	123
제4절 소결: 요약 및 시사점 .....	125

## 제4장 코로나19가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 성별 및 연령계층별

### 비교를 중심으로 .....

제1절 머리말 .....	131
제2절 성별 고용과 노동실태에 미친 영향 .....	134
1. 성별 고용 영향 .....	134
2. 성별 임금수준 변화 .....	153
3. 성별 노동실태 변화 .....	166
4. 성별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 변화 .....	175
5. 성별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와 조직률 변화 .....	177
제3절 연령별 고용과 노동실태에 미친 영향 .....	179
1. 연령별 고용 영향 .....	179
2. 연령별 임금수준 변화 .....	207
3. 연령별 노동실태 변화 .....	222
4. 연령별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 변화 .....	235
5. 연령별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와 조직률 변화 .....	238
제4절 소결: 요약 및 시사점 .....	240

## 제5장 코로나19가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 산업 및 사업체 규모별

<b>비교를 중심으로</b> .....	252
제1절 머리말 .....	252
제2절 산업별 고용과 노동실태에 미친 영향 .....	254
1. 산업별 고용 영향 .....	254
2. 산업별 임금수준 변화 .....	297
3. 산업별 노동실태 변화 .....	342
4. 산업별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 변화 .....	357
5. 산업별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와 조직률 변화 .....	366
제3절 기업규모별 고용과 노동실태에 미친 영향 .....	369
1. 기업규모별 고용 영향 .....	369
2. 기업규모별 임금 수준 변화 .....	395
3. 기업규모별 노동실태 변화 .....	416
4. 기업규모별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 변화 .....	426
5. 기업규모별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와 조직률 변화 .....	430
제4절 소결: 요약 및 시사점 .....	432

## 제6장 코로나19위기와 정책과제 .....

제1절 머리말 .....	437
제2절 종사상시위 및 고용형태별 취약노동계층과 정책과제 .....	438
1. 불안정노동계층과 고용유지정책 .....	438
2. 불안정노동계층의 소득지원정책 .....	442
3. 불안정노동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정책 .....	444
4. 일자리창출 및 양질의 일자리 촉진 정책 .....	446
5. 노동조합과 취약노동계층의 이해대변 및 대표성 강화 .....	450

제3절 여성 및 취약연령계층 정책과 과제 .....	452
1. 자녀 돌봄과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개선 .....	454
2. 성별 임금 격차 축소를 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	457
3.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 확대 .....	458
4.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여성 집중 돌봄 일자리 개선 ..	459
제4절 산업 및 기업규모별 취약노동계층 정책과 과제 .....	462
1. 영세 대면서비스업의 고용유지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462
2.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원 강화 .....	466
3.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기업 규모별 격차 완화 .....	470
4. 양과 질을 담보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 .....	473
5. 초기업적 노조운동으로 위기 극복 .....	476
 참고문헌 .....	 478
 〈부록〉 .....	 482



# 표 목차

〈표 3-1〉 임금노동자의 종사상지위별 규모 및 비중 변화 .....	31
〈표 3-2〉 종사상지위별 규모 및 비중 추이 .....	31
〈표 3-3〉 종사상지위별 규모변화 및 증감률 추이 .....	32
〈표 3-4〉 종사상지위별 고용안정성있는 근로자 비중 .....	33
〈표 3-5〉 종사상지위별·성별 규모 변화 .....	34
〈표 3-6〉 종사상지위별·성별 비중 변화 .....	35
〈표 3-7〉 종사상지위별·연령계층별 규모 변화 .....	36
〈표 3-8〉 종사상지위별·연령계층별 비중 변화 .....	37
〈표 3-9〉 종사상지위별·근로형태별 규모 변화 .....	38
〈표 3-10〉 종사상지위별·근로형태별 비중 변화 .....	39
〈표 3-11〉 종사상지위별·기업규모별 노동자 수 변화 .....	41
〈표 3-12〉 종사상지위별·기업규모별 비중 변화 .....	41
〈표 3-13〉 종사상지위별·산업별 노동자 규모 변화 .....	42
〈표 3-14〉 종사상지위별·산업별 노동자 비중 변화 .....	44
〈표 3-15〉 종사상지위별 월평균 임금수준 변화(경제활동인구조사) .....	45
〈표 3-16〉 종사상지위별 시간당 임금수준 변화(경제활동인구조사) .....	46
〈표 3-17〉 연도별 종사상지위별 월 평균 임금 및 격차(상용직=100) (경제활동인구조사) .....	47
〈표 3-18〉 연도별 종사상지위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상용직=100) (경제활동인구조사) .....	48
〈표 3-19〉 종사상지위별·임금수준별 노동자 규모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	49
〈표 3-20〉 종사상지위별·임금수준별 노동자 비중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	49

〈표 3-21〉 종사상지위별 임금수준별 노동자 규모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50
〈표 3-22〉 종사상지위별 임금수준별 노동자 비중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51
〈표 3-23〉 연도별 종사상지위별 저임금노동자 규모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52
〈표 3-24〉 연도별 종사상지위별 저임금노동자 규모 변화(전년 대비 증감률) (월평균임금 기준)	52
〈표 3-25〉 연도별 종사상지위별 저임금노동자 비중 변화(월평균임금 기준)	53
〈표 3-26〉 연도별 종사상지위별 저임금노동자 규모 변화(시간당임금 기준)	53
〈표 3-27〉 연도별 종사상지위별 저임금노동자 규모 변화(전년 대비 증감률) (시간당임금 기준)	54
〈표 3-28〉 연도별 종사상지위별 저임금노동자 비중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54
〈표 3-29〉 연도별 종사상지위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변화	57
〈표 3-30〉 연도별 종사상지위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변화(전년 대비 증감률)	57
〈표 3-31〉 종사상지위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별 노동자 규모 변화	58
〈표 3-32〉 종사상지위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분포 변화	59
〈표 3-33〉 종사상지위별 평균 근속년수별 노동자 규모 변화	61
〈표 3-34〉 종사상지위별 근속년수 평균값과 계층별 분포 변화	62
〈표 3-35〉 종사상지위별 비자발적 취업자 규모 및 비중 변화	63
〈표 3-36〉 종사상지위별 사회보험 가입률 변화	64
〈표 3-37〉 종사상지위별 근로복지 수혜율 변화	65
〈표 3-38〉 종사상지위별 노동조합 조합원 수 변화	66
〈표 3-39〉 종사상지위별 노동조합 가입률 변화	67

〈표 3-40〉 임금노동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및 비중 변화 .....	68
〈표 3-41〉 비정규직 형태별 노동자 수 변화 .....	69
〈표 3-42〉 근로형태별 규모 및 비중 추이 .....	70
〈표 3-43〉 근로형태별 규모변화 및 증감률 추이 .....	71
〈표 3-44〉 근로형태별 고용안정성있는 근로자 비중 .....	72
〈표 3-45〉 근로형태별·성별 규모 변화 .....	74
〈표 3-46〉 근로형태별·성별 비중 변화 .....	74
〈표 3-47〉 근로형태별·연령계층별 규모 변화 .....	76
〈표 3-48〉 근로형태별·연령계층별 비중 변화 .....	77
〈표 3-49〉 근로형태별·종사상지위별 규모 변화 .....	79
〈표 3-50〉 근로형태별·종사상지위별 비중 변화 .....	80
〈표 3-51〉 근로형태별·기업규모별 노동자 수 변화 .....	81
〈표 3-52〉 근로형태별·기업규모별 비중 변화 .....	82
〈표 3-53〉 근로형태별·산업별 노동자 규모 .....	85
〈표 3-54〉 근로형태별·산업별 노동자 규모 변화(2019년 대비 증감) .....	86
〈표 3-55〉 근로형태별·산업별 노동자 비중 .....	87
〈표 3-56〉 근로형태별·산업별 노동자 비중 변화(2019년 대비 증감) .....	88
〈표 3-57〉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수준 변화(경제활동인구조사) .....	90
〈표 3-58〉 근로형태별 시간당 임금수준 변화(경제활동인구조사) .....	91
〈표 3-59〉 연도별 근로형태별 월 평균 임금 및 격차(정규직=100) (경제활동인구조사) .....	93
〈표 3-60〉 연도별 근로형태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정규직=100) (경제활동인구조사) .....	94
〈표 3-61〉 근로형태별·임금수준별 노동자 규모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	97
〈표 3-62〉 근로형태별·임금수준별 노동자 비중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	98
〈표 3-63〉 근로형태별·임금수준별 노동자 규모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	99
〈표 3-64〉 근로형태별·임금수준별 노동자 비중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	100
〈표 3-65〉 연도별 근로형태별 저임금노동자 규모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	101

〈표 3-66〉 연도별 근로형태별 저임금노동자 규모 변화(전년 대비 증감률) (월평균임금 기준) .....	102
〈표 3-67〉 연도별 근로형태별 저임금노동자 비중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	103
〈표 3-68〉 연도별 근로형태별 저임금노동자 규모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	104
〈표 3-69〉 연도별 근로형태별 저임금노동자 규모 변화(전년 대비 증감률) (시간당임금 기준) .....	105
〈표 3-70〉 연도별 근로형태별 저임금노동자 비중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	106
〈표 3-71〉 연도별 근로형태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변화 .....	108
〈표 3-72〉 연도별 근로형태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변화(전년 대비 증감률) .....	109
〈표 3-73〉 근로형태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별 노동자 규모 변화 .....	110
〈표 3-74〉 근로형태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별 노동자 증감(률) .....	111
〈표 3-75〉 근로형태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분포 변화 .....	112
〈표 3-76〉 근로형태별 평균 근속년수별 노동자 규모 변화 .....	115
〈표 3-77〉 근로형태별 평균 근속년수별 노동자 규모 증감 .....	116
〈표 3-78〉 근로형태별 근속년수 평균값과 계층별 분포 변화 .....	117
〈표 3-79〉 근로형태별 비자발적 취업자 규모 및 비중 변화 .....	119
〈표 3-80〉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변화 .....	121
〈표 3-81〉 근로형태별 근로복지 수혜율 변화 .....	123
〈표 3-82〉 근로형태별 노동조합 조합원 수 변화 .....	124
〈표 3-83〉 근로형태별 노동조합 가입률 변화 .....	125
〈표 3-84〉 비정규직 중 고용증가 근로형태의 노동조건 변화 현황 .....	127
〈표 4-1〉 임금노동자의 성별 규모 및 비중 변화 .....	135
〈표 4-2〉 임금노동자의 성별 규모 및 비중 추이 .....	135
〈표 4-3〉 성별 연령계층별 규모 변화 .....	137

〈표 4-4〉 성별 연령계층별 규모 증감(2019년 대비 증감) .....	138
〈표 4-5〉 성별 연령계층별 비중 변화 .....	139
〈표 4-6〉 성별 종사상 지위별 규모 변화 .....	140
〈표 4-7〉 성별 종사상 지위별 비중 변화 .....	141
〈표 4-8〉 성별 기업 규모별 변화 .....	142
〈표 4-9〉 성별 기업 규모별 비중 변화 .....	143
〈표 4-10〉 성별 산업별 규모 변화 .....	144
〈표 4-11〉 성별 산업별 규모 증감(2019년 대비 증감) .....	145
〈표 4-12〉 성별 산업별 비중 변화 .....	146
〈표 4-13〉 성별 근로형태별 노동자 규모 변화 .....	148
〈표 4-14〉 성별 근로형태별 노동자 규모 증감 .....	149
〈표 4-15〉 성별 근로형태별 노동자 분포 변화 .....	151
〈표 4-16〉 성별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변화 .....	152
〈표 4-17〉 성별 고용안정성있는 근로자 비중 .....	153
〈표 4-18〉 성별 월평균 임금수준 변화(경제활동인구조사) .....	154
〈표 4-19〉 성별 시간당 임금수준 변화(경제활동인구조사) .....	154
〈표 4-20〉 연도별 성별 월 평균 임금 및 격차(남성=100) (경제활동인구조사) .....	156
〈표 4-21〉 연도별 성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남성=100) (경제활동인구조사) .....	156
〈표 4-22〉 성별 임금수준별 노동자 규모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	158
〈표 4-23〉 성별 임금수준별 노동자 비중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	159
〈표 4-24〉 성별 임금수준별 노동자 규모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	160
〈표 4-25〉 성별 임금수준별 노동자 비중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	161
〈표 4-26〉 연도별 성별 저임금노동자 규모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	162
〈표 4-27〉 연도별 성별 저임금노동자 비중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	162
〈표 4-28〉 연도별 성별 저임금노동자 규모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	163
〈표 4-29〉 연도별 성별 저임금노동자 비중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	164

〈표 4-30〉 연도별 성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변화 .....	167
〈표 4-31〉 성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변화 .....	168
〈표 4-32〉 성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별 비중 변화 .....	170
〈표 4-33〉 성별 근속년수 평균값과 계층별 분포 변화 .....	172
〈표 4-34〉 성별 근속년수 계층별 노동자 규모 변화 .....	173
〈표 4-35〉 성별 비자발적 취업자 규모 및 비중 변화 .....	174
〈표 4-36〉 성별 사회보험 가입률 변화 .....	175
〈표 4-37〉 성별 근로복지 수혜율 변화 .....	177
〈표 4-38〉 성별 노동조합 조합원 수 변화 .....	178
〈표 4-39〉 성별 노동조합 가입률 변화 .....	178
〈표 4-40〉 임금노동자의 연령별 규모 및 비중 추이 .....	180
〈표 4-41〉 임금노동자의 연령별 규모 및 비중 변화 .....	181
〈표 4-42〉 연령계층별 규모 변화 .....	182
〈표 4-43〉 연령계층별 비중 변화 .....	183
〈표 4-44〉 연령별 종사상 지위별 규모 변화 .....	184
〈표 4-45〉 연령별 종사상 지위별 비중 변화 .....	185
〈표 4-46〉 연령별 기업 규모별 규모 변화 .....	187
〈표 4-47〉 연령별 기업 규모별 증감 .....	188
〈표 4-48〉 연령별 기업 규모별 비중 변화 .....	189
〈표 4-49〉 연령별 산업별 노동자 수 변화(15세~44세) .....	191
〈표 4-50〉 연령별 산업별 노동자 수 변화(45세~60세 이상) .....	193
〈표 4-51〉 연령별 노동자의 산업 분포 변화(15세~44세) .....	195
〈표 4-52〉 연령별 노동자의 산업 분포 변화(45세~65세 이상) .....	197
〈표 4-53〉 연령별 근로형태별 노동자 규모 변화(15세~39세) .....	200
〈표 4-54〉 연령별 근로형태별 노동자 규모 변화(40세~65세 이상) .....	201
〈표 4-55〉 연령별 근로형태별 노동자 분포 변화(15세~39세) .....	202
〈표 4-56〉 연령별 근로형태별 노동자 분포 변화(40세~65세 이상) .....	203
〈표 4-57〉 연령별 비정규직 노동자 수 변화 .....	205

〈표 4-58〉 연령별 고용안정성있는 근로자 비중 .....	206
〈표 4-59〉 연령별 월평균 임금수준 변화(경제활동인구조사) .....	207
〈표 4-60〉 연령별 시간당 임금수준 변화(경제활동인구조사) .....	208
〈표 4-61〉 연도별 연령별 월 평균 임금 및 격차(45-49세=100) .....	211
〈표 4-62〉 연도별 연령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45-49세=100) .....	212
〈표 4-63〉 연령별 임금수준별 노동자 규모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	214
〈표 4-64〉 연령별 임금수준별 노동자 비중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	215
〈표 4-65〉 연령별 임금수준별 노동자 규모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	216
〈표 4-66〉 연령별 임금수준별 노동자 비중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	217
〈표 4-67〉 연도별 연령별 저임금노동자 규모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	218
〈표 4-68〉 연도별 연령별 저임금노동자 비중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	219
〈표 4-69〉 연도별 연령별 저임금노동자 규모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	220
〈표 4-70〉 연도별 연령별 저임금노동자 비중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	221
〈표 4-71〉 연도별 연령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변화 .....	223
〈표 4-72〉 연령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별 노동자 규모 변화 .....	225
〈표 4-73〉 연령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분포 변화 .....	226
〈표 4-74〉 연령별 근속년수 평균값과 중위값 변화 .....	228
〈표 4-75〉 연령별 근속년수 계층별 노동자 규모 변화 .....	230
〈표 4-76〉 연령별 근속년수 비중 변화 .....	232
〈표 4-77〉 연령별 비자발적 취업자 규모 및 비중 변화 .....	234
〈표 4-78〉 연령별 사회보험 가입률 변화 .....	236
〈표 4-79〉 연령별 근로복지 수혜율 변화 .....	238
〈표 4-80〉 연령별 노동조합 조합원 수 변화 .....	239
〈표 4-81〉 연령별 노동조합 가입률 변화 .....	240
〈표 4-82〉 성별 근로형태별 노동자 규모 변화 .....	241
〈표 4-83〉 성별 고용안정성있는 근로자 비중 변화 .....	242
〈표 4-84〉 월 평균 임금 수준별 성별 노동자 현황(2020년) .....	243
〈표 4-85〉 연도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성 격차 .....	243

〈표 4-86〉 성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15시간 미만 노동자 규모 및 비중 변화 .....	244
〈표 4-87〉 성별 연령별 임금 노동자 규모 및 비중 변화 .....	246
〈표 4-88〉 65세 이상 임금 노동자 노동실태 변화 .....	246
〈표 4-89〉 60세 이상 노동자 중 고용안정성있는 근로자 비중 추이 .....	247
〈표 5-1〉 임금노동자의 산업별 규모 및 비중 추이 .....	257
〈표 5-2〉 임금노동자의 산업별 노동자 규모 변화 및 증감률 추이 .....	258
〈표 5-3〉 임금노동자의 산업별 규모 및 비중 변화 .....	259
〈표 5-4〉 산업별 성별 규모 변화 .....	263
〈표 5-5〉 산업별 성별 비중 변화 .....	264
〈표 5-6〉 산업별 연령계층별 규모 변화 .....	266
〈표 5-6〉 산업별 연령계층별 규모 변화(계속) .....	267
〈표 5-7〉 산업별 연령계층별 비중 변화 .....	268
〈표 5-7〉 산업별 연령계층별 비중 변화(계속) .....	269
〈표 5-8〉 산업별 종사상 지위별 규모 변화 .....	274
〈표 5-9〉 산업별 종사상 지위별 분포 변화 .....	275
〈표 5-10〉 산업별 기업규모별 노동자 수 변화 .....	278
〈표 5-10〉 산업별 기업규모별 노동자 수 변화(계속) .....	279
〈표 5-11〉 산업별 노동자의 기업규모 분포 변화 .....	280
〈표 5-11〉 산업별 노동자의 기업규모 분포 변화(계속) .....	281
〈표 5-12〉 산업별 근로형태별 노동자 규모(2020년 8월) .....	285
〈표 5-13〉 산업별 근로형태별 노동자 규모(2019년 8월) .....	286
〈표 5-14〉 산업별 근로형태별 노동자수 변화(2019년 대비 증감) .....	287
〈표 5-15〉 산업별 근로형태별 노동자 분포(2020년 8월) .....	288
〈표 5-16〉 산업별 근로형태별 노동자 분포(2019년 8월) .....	289
〈표 5-17〉 산업별 근로형태별 노동자 분포 변화(2019년 대비 증감) .....	290
〈표 5-18〉 산업별 비정규직 노동자 수 변화 .....	293
〈표 5-19〉 산업별 고용안정성있는 근로자 비중 .....	296



〈표 5-20〉 산업별 월평균 임금 수준 변화(경제활동인구조사) .....	299
〈표 5-21〉 산업별 시간당 임금 수준 변화(경제활동인구조사) .....	302
〈표 5-22〉 연도별 산업별 월 평균 임금 및 격차(제조업=100) (경제활동인구조사) .....	307
〈표 5-23〉 연도별 산업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제조업=100) (경제활동인구조사) .....	309
〈표 5-24〉 산업별 임금수준별 노동자 규모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	318
〈표 5-25〉 산업별 임금수준별 노동자 비중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	319
〈표 5-26〉 산업별 임금 수준별 노동자 규모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	323
〈표 5-27〉 산업별 임금 수준별 노동자 비중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	324
〈표 5-28〉 연도별 산업별 저임금 노동자 규모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	328
〈표 5-29〉 연도별 산업별 저임금 노동자 규모 변화(전년 대비 증감률) (월평균 임금 기준) .....	329
〈표 5-30〉 연도별 산업별 저임금 노동자 비중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	330
〈표 5-31〉 연도별 산업별 저임금 노동자 규모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	334
〈표 5-32〉 연도별 산업별 저임금 노동자 규모 변화(전년 대비 증감률) (시간당 임금 기준) .....	335
〈표 5-33〉 연도별 산업별 저임금 노동자 비중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	336
〈표 5-34〉 연도별 산업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변화 .....	344
〈표 5-35〉 산업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별 노동자 규모 변화 .....	347
〈표 5-36〉 산업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분포 변화 .....	348
〈표 5-37〉 산업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별 노동자 규모 및 분포 변화 (2019년 대비 증감) .....	349
〈표 5-38〉 산업별 평균 근속년수별 노동자 규모 변화 .....	352
〈표 5-38〉 산업별 평균 근속년수별 노동자 규모 변화(계속) .....	352
〈표 5-39〉 산업별 근속년수 평균값과 계층별 분포 변화 .....	353
〈표 5-39〉 산업별 근속년수 평균값과 계층별 분포 변화(계속) .....	354
〈표 5-40〉 산업별 비자발적 취업자 규모 및 비중 변화 .....	356



〈표 5-65〉 기업규모별 임금수준별 노동자 비중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	405
〈표 5-66〉 기업규모별 임금수준별 노동자 규모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	408
〈표 5-67〉 기업규모별 임금 수준별 노동자 비중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	408
〈표 5-68〉 연도별 기업규모별 저임금 노동자 규모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	410
〈표 5-69〉 연도별 기업규모별 저임금 노동자 비중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	411
〈표 5-70〉 연도별 기업규모별 저임금 노동자 규모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	412
〈표 5-71〉 연도별 기업규모별 저임금 노동자 비중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	413
〈표 5-72〉 연도별 기업규모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변화 .....	417
〈표 5-73〉 기업규모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별 노동자 규모 .....	419
〈표 5-74〉 기업규모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분포 .....	419
〈표 5-75〉 기업규모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별 노동자 규모 및 분포 변화 (2019년 대비 증감) .....	420
〈표 5-76〉 기업규모별 평균 근속년수별 노동자 규모 변화 .....	422
〈표 5-77〉 기업규모별 근속년수 평균값과 계층별 분포 변화 .....	423
〈표 5-78〉 기업규모별 비자발적 취업자 규모 및 비중 변화 .....	426
〈표 5-79〉 기업규모별 사회보험 가입률 변화 .....	428
〈표 5-80〉 기업규모별 근로복지 수혜율 변화 .....	429
〈표 5-81〉 기업규모별 노동조합 조합원 수 변화 .....	431
〈표 5-82〉 기업규모별 노동조합 가입률 변화 .....	431
〈표 6-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4차 지원현황 .....	443
〈표 6-2〉 연령별 혼인상태별 여성 취업자 수 규모 및 증감(2019년, 2020년) .....	455
〈표 6-3〉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	459

〈2장 부표〉 .....	482
〈3장 부표〉 .....	514
〈4장 부표〉 .....	527
〈5장 부표〉 .....	537
〈6장 부표〉 .....	551





# 요약

---

##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 및 임금 등 노동 조건 등에 미친 영향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노동시장 취약계층 보호 및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20년 초 시작되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른 고용 충격은 통계상으로 1997년 IMF 외환위기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더불어 주로 통계자료 분석에 기초하여 코로나19가 취약노동계층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 취약노동계층을 일자리 속성 및 인적 속성에 기초하여 불안정 고용, 저임금 및 열악한 노동환경, 사회

안전망으로부터의 배제 및 미조직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시장 계층으로 봄.

- ◆ 통계자료는 제2장에서는 그동안의 고용동향 및 과거 경제위기와의 비교분석이 가능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간자료를 주로 사용했음. 제3장~5장에서는 임금노동자의 고용, 임금 및 노동실태, 사회보험 및 노동복지, 노조 조직률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조사자료를 사용했으며, 임금 동향에 대한 보완적 분석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6월 조사자료를 사용했음.
- ◆ 주요 분석 대상 기간 및 내용은 2019년 대비 2020년의 변화정도이고, 고용 및 임금 등 주요 통계에 대해서는 두 시기 간 변화가 코로나19 충격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유추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 간의 변화추이도 함께 살펴보았음. 주요 분석대상이 2장에서는 취업자, 3~5장에서는 임금노동자임. 동일 연도에 사용 데이터와 분석대상에 따라 통계수치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수치를 읽고 해석할 필요가 있음.

### 3. 연구내용

- ◆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서술함.
- ◆ 2장에서는 코로나19위기의 영향을 과거 두 번의 경제위기, 즉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영향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보는데, 먼저 전반적 고용동향을 살펴보고, 취업자 기준으로 일



자리 속성 및 인적 속성에 따른 영향을 살펴봄, 임금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

- 코로나19 위기의 고용충격을 과거 경제위기 시와 비교하면, 2020년 취업자 감소 규모는 IMF 외환위기 다음으로 크고, 취업자 중 일시휴직자 증가규모가 가장 크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증가규모는 가장 적음.
- 과거의 위기를 통해 확인되듯이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중소기업 사업장 및 대면산업 종사 노동자, 여성, 청년 등 취약노동계층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받았음, 고용 및 소득 위기가 이들 취약노동계층에게 집중되어 나타남에 따라 임금 격차 및 불평등이 커지고 있고, 임금불평등 증가는 소득 불평등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그리고 이러한 상황의 지속은 향후 노동시장 구조에 더 크고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2020년 취업자 감소는 주로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의 감소로 인한 것임. 이에 비해 1998년에는 상용직(74만 8천명)의 감소, 2009년에는 비임금근로자(31만 6천명)와 일용직(15만 7천명)의 감소가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음. 관련 통계가 제공된 이래 2020년 임시직의 감소규모가 가장 컸음. 2020년 취업자가 21만 9천명(-0.8%)이 감소했는데, 임금근로자는 10만 8천명(-0.5%), 비임금근로자는 11만 명(-1.6%)이 감소했음. 그리고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직은 30만 5천명(2.1%) 증가한데 비해, 임시직은 31만 2천명(-6.5%), 일용직은 10만 1천명(-7.1%) 감소했음.
- 임금노동자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19 위기가 1997년 외환위기 다음으로 노동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경제위기 시기에는 임시·일용

직에게 부정적 고용영향이 집중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줌. 관련 통계가 제공된 이래 임금노동자가 감소한 시기는 1964년, 1980년, 1998년, 2020년 총 네 차례인데, 고용충격이 1998년에는 임금노동자 중 상용 직에게 가장 컸던데 비해 나머지 시기에는 임시·일용직에 집중되었음.

- 임금불평등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인 임금의 지니계수와 분위배율을 살펴보면, 2020년 대체로 임금불평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과거 두 번의 경제위기 시기와 비교할 수 있는 사업체종사자 10인 이상의 자료를 살펴보면 대체로 임금불평등이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지니계수는 2020년 0.323으로 2009년(0.329)보다 낮지만 1998년(0.287)보다 높고, 분위수배율 P90/10 역시 3.90배로 2009년(4.65배)보다는 낮지만 1998년(3.83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P90/50은 2020년 2.21배로 과거 두 번의 경제위기 시기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 3장~5장에서는 코로나19가 취약노동계층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취약노동계층을 인적 속성(성별, 연령계층별)과 일자리 속성(종사상 지위, 근로형태별, 기업규모별, 산업별)에 따라 분류하고, 고용변화 임금수준상대적 임금격차저임금노동자 규모 및 비율, 취업시간근속기간비자발적 취업비율 등 노동실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퇴직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상여금교육훈련) 수혜율,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와 조직률 등에서의 변화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봄.

- ◆ 3장에서는 코로나19 위기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임시·일용직과 비정규직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데, 종사상지위(상용직/임시직·일용직) 및 근로형태(정규직/비정규직)별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2020년의 변화정도를 비교분석하고, 2020년의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봄.

**\* 고용변화**

- 코로나19위기와 가장 최근 두 번의 경제위기 시기의 고용충격을 비교하면,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발생했고 상용직의 고용충격이 가장 컸던 IMF 외환위기를 제외하면 경제 및 감염병 위기 시 고용충격이 주로 불안정노동계층인 임시·일용직과 비정규직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종사상지위별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임금노동자가 감소했는데, 이는 임시직(31만 8천명)과 일용직(7만 8천명), 주로 임시직의 큰 폭의 고용 감소로 인한 것이고, 이에 따라 임금노동자 중 상용직의 비중은 증가한 데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은 감소하였음.
- 근로형태별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감소했는데, 비정규직에게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 정규직이 5만 8천명(-0.4%), 비정규직은 5만 5천명(-0.7%)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비중이 감소했음.
- 종사상지위별로 성별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19위기 이후 상용직은 여자와 남자 모두 고용이 증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남자와 여자 모두 고용이 감소했음. 여자의 경우 임시직의 감소규모가 커 상용직에서 남자보다 증가규모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노동자 감소폭과 감소율이 남자보다 높았고, 이에 따라 임금노동자 중 여자의 비중이 감소하

였음. 임시직의 다수는 여성, 상용직과 일용직의 다수는 여성임.

- 근로형태별로 성별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19위기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여자와 남자 모두 감소했으나, 여자의 감소규모가 더 컸고, 정규직 중 여성의 비중이 감소하였음. 비정규직의 다수는 여자, 정규직의 다수는 남자로 나타났음.
- 종사상지위별로 연령계층별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상용직의 경우 30대 이하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40대 이상에서 고용이 증가하였음. 임시직의 경우는 50대 이하 모든 연령계층에서 고용이 감소하였고, 60세 이상에서만 고용이 증가했음. 일용직의 경우는 30대에서만 고용이 증가했음.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상용직, 임시직과 일용직 모두에서 고용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60세 이상의 비중이 높아졌고, 20대 이하의 비중이 감소했음.
- 근로형태별로 연령계층별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50대 이상, 비정규직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고용이 감소하였음. 비정규직은 60세 이상의 비중만이 2.8%p 증가했으며, 정규직은 50대와 60세이상의 비중만이 각각 0.8%p 증가했고 다른 연령대의 비중이 감소했는데, 특히 30대의 비중이 0.8%p로 가장 크게 감소했음.
- 종사상지위별로 근로형태별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임금노동자의 감소는 주요하게 임시직 중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노동자의 큰 폭 감소(25만 6천명)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음. 상용직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증가했고, 임시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감소했으며, 일용직은 정규직은 증가한 데 비해 비정규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근로형태별로 종사상지위별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경우 임시직과 일용직이 감소하고 상용직이 증가한데 비해, 정규직은 상용직

과 일용직이 증가하고, 임시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상용직의 비중이 증가하였음.

- 종사상지위별로 사업체규모별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임시직은 100-299인(5천명), 일용직은 300인이상(4천명)을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고용이 감소했는데, 특히 9인 이하(각각 20만 7천명, 5만 8천명)에서 크게 감소했음. 이에 비해 상용직의 경우 4인 이하와 100-299인을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고용이 증가했고, 30~99인(15만 3천명), 10-29인(9만 1천명), 300인 이상(6만명)의 순으로 고용이 크게 증가했음.
- 근로형태별로 사업체규모별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9인 이하 규모에서 고용이 크게 감소했음. 비정규직의 경우 5-9인(5만 6천명), 4인 이하(2만 5천명), 100-299인(1만 5천명)의 순으로 고용이 크게 감소했고, 30~99인(2만 2천명), 10-29인(1만 6천명), 300인 이상(4천명)의 순으로 고용이 많이 증가했음. 정규직은 5-9인(8만 명), 4인 이하(11만 명)에서 고용이 크게 감소했고, 30~99인(7만 9천명), 300인 이상(3만 6천명), 10-29인(1만 4천명), 100-299인(5천 명)의 순으로 고용이 많이 증가했음.
- 종사상지위별로 사업체규모별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임시직은 보건·사회복지업 8만 4천명(15.5%), 공공행정업 5만 2천명(16.4%), 가구내고용업 2만 6천명(41.3%), 건설업 1만 8천명(7.2%)의 순으로 크게 증가하고, 숙박음식업 11만 4천명(-15.0%), 교육서비스업 9만 3천명(-18.7%), 도소매업 7만 3천명(-11.6%), 제조업 5만 1천명(-13.6%)의 순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일용직은 기타개인서비스업 1만 4천명(31.1%), 도소매업 1만 1천명(9.6%) 등 8개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고용이 감소하였는데, 건설업 3만 9천명(-6.0%), 제조업 1만 6

천명(-14.7%), 숙박음식업 1만 5천명(-7.4%), 사업관리지원임대업 1만 3천명(-13.3%), 교육서비스업 1만 1천명(68.8%)의 순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이에 비해 상용직은 사업관리지원임대업 7만 6천명(9.1%), 보건·사회복지업 6만 9천명(4.3%), 건설업 5만 6천명(7.7%), 제조업 5만 2천명(1.5%)의 순으로 크게 증가하고, 도소매업과 기타개인서비스업에서 각각 1만 9천명(각각 -1.3%, -4.3%)이 감소했음.

- 근로형태별로 사업체규모별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비정규직은 고용감소가 숙박·음식업은 7만 1천명(-9.3%), 제조업은 6만 8천명(-10.2%), 교육서비스업 4만 2천명(-6.7%), 사업관리지원임대업 4만 2천명(-4.8%), 금융·보험업 2만 5천명(-8.9%), 부동산업 1만 8천명(-9.2%), 전문·과학기술업 1만 5천명(-7.7%), 예술·및·여가업 1만 3천명(-6.7%)의 순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이에 비해, 고용증가는 보건·사회복지업 15만명(15.3%), 공공행정업 4만명(10.7%), 도소매업 1만 6천명(2.3%), 운수·창고업 1만 4천명(6.5%), 가구·내·고용업 1만 2천명(19.0%), 건설업 8천명(0.9%), 수도·하수업 7천명(23.3%), 전기·가스·증기업 3천명(27.3%), 광업 2천명(200.0%), 국제기구업 1천명(25.0%)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음.

#### \* 임금격차 및 저임금노동자 규모 변화

- 종사상지위별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의하면 월평균임금의 경우 상용직은 증가한데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은 감소하고, 시간당 임금은 상용직의 상승폭이 임시직과 일용직보다 2.5~11.2배 높았음. 이에 따라 상용직과 임시·일용직간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는데, 상용

직 대비 임시직과 일용직의 임금수준이 월평균 임금 기준 각각 45.6%, 45.8%에 불과하고, 시간당 임금 기준 각각 59.4%, 56.8%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저임금노동자 수가 증가했고(시간당 임금기준), 저임금 노동자비중이 증가했음(월평균임금기준 상용직 제외). 2020년 기준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임시직의 45.2~58.1%, 일용직의 45.8%~61.1%인데 비해 상용직은 6.1%로 나타났다.

-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월평균 임금의 경우 정규직은 증가한데 비해 비정규직은 감소했고,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인상폭이 비정규직보다 약 17배 높았음.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 특수형태근로 및 일일근로 종사자는 월평균임금과 시간당 임금이 모두 하락했음.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는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월평균 임금 기준 52.9%, 시간당 임금 기준 67.0%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임금노동자 수가 월평균 임금기준으로는 비정규직은 증가한데 비해 정규직은 감소했고, 시간당 임금기준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증가했는데, 비정규직에서 증가규모가 훨씬 컸음.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비중이 증가했음(월평균임금기준 정규직 제외). 2020년 기준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정규직은 5.5~8.1%에 이르는데 비해 비정규직은 33.7~4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 변화**

- 종사상지위별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증가한데 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하락했고, 상용직과 임시직·일용직간 사회보험 가입률의 격차가 큼. 현 직장

에서 사회보험 가입률(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살펴보면, 상용직은 84.7%~98.0%에 이르는데 비해, 임시직은 22.3%~30.9%, 일용직은 0.4%~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근로복지수혜율을 살펴보면,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상여금 수혜비율이 감소했고, 임시직은 퇴직급여와 유급휴일 수혜비율이 하락했으며, 일용직은 퇴직급여와 교육훈련 경험 수혜비율이 하락했음. 그리고 상용직과 임시·일용직간 수혜율의 격차가 큼.
-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고용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증가한데 비해, 비정규직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이 하락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사회보험 가입률의 격차가 큼. 현 직장에서의 사회보험 가입률(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살펴보면, 정규직은 79.9%~92.6%에 이르는 데 비해, 비정규직은 37.8%~4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53.8~69.8%), 파견근로(58.8~76.0%) 및 용역근로(40.5~81.0%) 종사자의 사회보험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시간제(20.5~28.9%), 가정내근로(19.1~22.6%), 특수형태근로(4.6~7.6%), 일일근로(0.4~6.5%) 종사자는 매우 낮은 수준임.
- 근로형태별 근로복지수혜율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은 퇴직급여, 상여금, 교육훈련 경험 수혜비율이 하락한데 비해 정규직은 교육훈련경험 수혜비율이 감소하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복지 수혜율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퇴직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상여금·교육훈련 등 근로복지 수혜율이 정규직은 58.4~91.9%가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27.5~41.2%만이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노동조합 조합원 및 조직률 변화**

-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조합원 수와 조직률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임시직의 타격이 컸음. 이에 따라 전체 조합원 중 상용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임시직의 비중이 감소했음. 노조조직률은 상용직이 17.0%, 임시직이 0.8%, 일용직이 0.1%로 상용직이 훨씬 높고, 조합원의 대다수(98.5%)가 상용직임.
-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조합원 수가 감소하였는데, 비정규직의 타격이 더 컸음. 이에 따라 전체 조합원 중 정규직의 비중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의 비중이 감소했음. 노조조직률은 정규직이 17.6%, 비정규직이 3.0%로 정규직이 훨씬 높고, 조합원의 대다수(91.2%)가 정규직임.

◆ 4장에서는 임금노동자의 성별(남성, 여성) 및 연령별 비교분석을 통해 코로나19위기가 여성, 청년 및 고령층 등 취약노동계층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

**\* 고용변화**

- 성별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여성과 남성 모두 감소했는데, 여성이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았음. 남성은 3만 5천명(-0.3%)이 감소했고, 여성은 이 보다 2배 이상 많은 7만 8천명(-0.9%) 감소함. 이에 따라 임금노동자 중 여성의 비중이 감소하였음.
- 연령계층별 고용 증감을 살펴보면, 25-29세와 35-39세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만 3천명, 18만 7천명으로 10만명 이상 감소했고, 40대 이하는 47만 3천명 감소함. 60-64세, 65세 이상이 각각 11만 1천명, 18만 5천명으로 10만 명 이상 증가했고, 50대 이상이 36만 2천명 증

가함. 성별로 35-39세는 여성은 9만 1천명, 남성은 9만 6천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함. 여성은 50-54세와 60세 이상 중고령층에서 임금노동자 수가 증가함. 남성은 50세 이상 중고령층 뿐만 아니라 여성과 다르게 30-34세에서도 1만 1천명이 증가함.

- 여성은 정규직이 더 많이 감소한데 비해 남성은 비정규직이 더 많이 감소함. 남성은 정규직이 1만 3천명(-0.4%), 비정규직은 2만 1천명(-0.7%)로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8천명 더 감소함. 반면, 여성은 정규직 4만 4천명(-0.9%), 비정규직 3만 4천명(-0.8%)이 감소하여 정규직이 비정규직 보다 1만명 더 많이 감소함. 60-64세와 65세 이상은 비정규직이 각각 4만 9천명, 14만 5천명이 증가함. 65세 이상에서 증가한 비정규직 14만 5천명 중 시간제가 12만 1천명이 증가함.

#### **\* 임금격차 및 저임금노동자 규모 변화**

- 성별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의하면 여성과 남성 모두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였는데, 월평균 임금은 여성의 상승폭이 더 크고,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상승폭이 더 컸음. 남성노동자와의 임금격차는 감소했으나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수준이 월평균 임금 기준 64.7%, 시간당 임금은 72.7%로 나타났음. 저임금노동자의 수와 비중이 월평균 임금 기준으로는 남성은 증가한데 비해, 여성은 감소했고,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증가했음. 2020년 기준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여성은 24.1~32.2%에 이르는데 비해 남성은 12.0~1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계층별로 임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월 평균 임금은 24세 이하와 60-64세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함. 15-19세는 전년 동기 대비 17만 6천원 임금이 줄어들었고 하락폭도 16.9%p가장 큼. 시간당 임금은 45-19세가 18,147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44세가 18,147원으로 40대는 유일하게 시간당 임금이 18,000원을 상회함. 15-19세 시간당 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 8,590원과 비교하여 불과 78원 많음. 45-49세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임금 비율은 15-19세와 65세 이상이 가장 낮음. 월 평균 임금 기준으로는 20-30%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40-50%대로 낮음. 2020년은 전년 동기 대비 15-19세와 65세 이상은 40대와 임금 격차가 더 확대됨. 고령층에 상대적으로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높음.

**\*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 변화**

- 여성과 65세 이상은 사회보험가입률이 남성과 나머지 연령에 비해 낮은 편임. 성별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여성은 국민연금 65.7%, 건강보험 71.5%, 고용보험 63.1%로 전년 동기 대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각각 0.4%p, 1.1%p, 1.7%p 상승함. 남성은 국민연금 73%, 건강보험 80.9%, 고용보험 70.9%로 전년 동기 대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각각 0.3%p, 1%p, 1.6%p 상승함. 사회보험 가입률이 여성이 남성 보다 모두 낮은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가입률 상승은 여성이 남성보다 컸음.
- 연령별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가입률은 25-49세가 80%를 상회한 반면, 50대는 70%대, 60-64세 9.5%, 20-24세 56.8%, 15-19세 25.3%로 낮음. 국민연금 가입률의 전년 동기 대비 변화는

20-24세, 35-39세, 65세 이상만 하락하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승함. 건강보험 가입률은 25-49세에서 80%를 상회한 반면, 50대는 70%대, 60-64세 65.4%, 65세 이상 41.3%, 20-24세 57.2%, 15-19세 24.6%로 낮음. 건강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연령은 30-34세로 87.3%임. 건강보험 가입률의 전년 동기 대비 변화는 30대와 15-24세만이 하락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상승함. 고용보험 가입률은 25-49세가 70%를 상회함. 반면, 50-64세까지 60%, 15-19세 28.2%, 20-24세 56.7%, 65세 이상 78.4%으로 가입률이 낮음. 고용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연령은 35-39세로 78.4%임. 고용보험 가입률의 전년 동기 대비 변화는 30-34세가 유일하게 0.4%p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상승함.

- 성별 근로복지 수혜율을 살펴보면, 여성은 퇴직급여 67.3%, 시간외 수당 43.9%, 유급휴일(휴가) 58.3%, 상여금 63.3%, 교육훈련 경험 49.9%로 시간외수당과 교육훈련 경험 수혜율은 50% 미만임. 수혜율 변화는 전년 동기 대비 시간외수당(1.8%p)과 유급휴일(휴가)(1.5%p), 상여금(0.5%p)은 상승하고 퇴직급여(-1.1%p)와 교육훈련 경험(-1.4%p)은 하락함. 남성은 퇴직급여 78%, 시간외 수당 54.9%, 유급휴일(휴가) 69.7%, 상여금 73.2%, 교육훈련 경험 53.9%로 퇴직급여와 상여금의 수혜율이 70%를 초과함. 수혜율 변화는 전년 동기 대비 시간외수당과 유급휴일(휴가)이 1.8%p 상승하고 퇴직급여(-0.5%p), 상여금(-0.5%p), 교육훈련 경험(-1.9%p)은 하락함.
- 연령별 근로복지별 수혜율은 30대가 가장 높고 65세 이상이 가장 낮음. 퇴직급여 수혜율은 15-19세와 65세 이상이 각각 18.9%, 33.4%로 가장 낮음. 시간외 수당도 15-19세와 65세 이상이 각각 28.3%,

11.2%로 나머지 연령대 중 가장 낮음. 유급휴일(휴가) 수혜율은 15-19세가 18.1%, 65세 이상이 22.4%로 역시 가장 낮음. 상여금 수혜율은 15-19세가 18.2%, 65세 이상이 30.9%로 가장 낮음. 교육훈련 경험은 15-19세 22.5%와 함께 20-24세도 36.5%로 15-24세 임금노동자의 교육훈련 경험 비율이 60대 이상보다 낮음. 근로복지 수혜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교육훈련경험은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는데 특히 15-19세 임금노동자에서 4.8%p로 가장 크게 하락함.

**\* 노동조합 조합원 및 조직률 변화**

- 노조 조합원 수와 가입률이 여성은 상승하고 남성은 감소하였음. 이에 따라 전체 조합원 중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남성의 비중이 감소했음. 노조 가입률은 남성이 14.6%, 여성이 9.4%로 남성이 높고, 조합원의 다수(66.1%)가 남성임.
- 연령별 노동조합 가입율을 살펴보면, 45-49세가 16.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5-39세 15.7%, 30-34세와 40-44세가 각각 15.4%, 50-54세가 15.0%의 순으로 높음. 노조 가입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15-19세로 0.5%에 불과하고 다음으로는 65세 이상 1.8%, 20-24세 3.5%, 60-64세 4.8%로 5% 미만으로 낮음. 노동조합 가입자 수 변화는 55-59세가 2만 7천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고, 35-39세가 2만 3천명 감소로 감소폭이 가장 큼. 55-59세는 노동조합 가입자 수와 더불어 노동조합 가입률도 가장 크게 상승함.

◆ 제5장에서는 임금노동자의 종사 산업과 사업체 규모별 비교분석을 통해 코로나19위기가 중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및 대면산업 등 코로나19

위기에 민감하게 영향받은 산업 종사자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음.

**\* 고용변화**

- 업종별, 사업체규모별 고용변동을 보면, 코로나19가 가져 온 생산과 소비 및 생활 조건의 변화에 따른 고용 증감이 있었음. 이동제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행정적 조치로 주로 대면서비스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에서 노동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반면, 정부일자리 사업 분야와 코로나19 관련 수요가 있는 보건사회복지업, 공공행정업, 건설업, 사업관리지원업 대업, 운수창고업, 가구내고용업에서는 고용이 증가하였음.
- 사업체규모별로는 대부분 10인 미만(27만 2천명 감소) 규모에서 감소가 컸음. 10인 미만 규모에서 정보·통신업, 공공행정업, 보건사회복지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감소하였고, 업종 전체로 고용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소규모 업체에서는 감소하였음.
- 고용 감소가 큰 업종들이 대체로 여성 집중업종이다 보니 2020년 고용 충격은 여성에게 더 컸음.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에서 남녀 모두 크게 줄었고, 고용이 증가한 보건사회복지업과 공공행정업 역시 여성 위주로 증가함. 특히, 보건사회복지업에서는 남녀 모두 증가하였지만 여성의 증가가 남성보다 월등히 많았고, 공공행정업은 남성의 가시적인 증가는 없었음.
- 사업체규모별로 10인 미만 규모에서 남녀 모두 감소하였지만, 여성 감소가 남성의 2배가량 더 많았고, 한편, 300인 이상 규모에서 남성은 -3만 6천명 감소하고, 여성은 7만 5천명 증가하였는데, 이는 여성 고용이

켰던 보건사회복지업에서의 고용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코로나 19 충격으로 여성 일자리가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대면서비스업에서 보건사회복지업, 공공행정업 서비스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의 고용이 임시·일용직 등 단기적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성고용의 양과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연령별로는 20-30대 청년층 고용불안이 심화되었는데,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 대부분 업종에서 20대 후반의 감소가 컸고, 기타개인서비스업은 30~40대, 제조업은 30대가 감소한 반면 보건사회복지업에서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 증가하였음.
- 종사상 지위와 관련하여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의 고용 감소는 임시·일용직이 많았고, 보건사회복지업, 공공행정업, 가구내고용업의 고용 증가 역시 임시·일용직이 증가하여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고용조정이 일어남. 사업체규모별로는 전체 임시직의 감소의 65.1%, 일용직의 74.4%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감소하였음.
- 비정규직 변동 역시 2020년 고용감소가 컸던 10인 미만 규모에서 비정규직이 감소하였고, 10인 이상 규모에서는 비정규직이 증가하여 2020년 임금노동자 전체로는 비정규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업체 규모별, 업종별로는 코로나19 고용충격이 큰 업종 위주로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였음.

**\* 임금격차 및 저임금노동자 규모 변화**

- 20년 8월 기준, 월평균임금은 대부분 업종에서 하락하였는데 특히, 운수창고업, 공공행정업, 숙박음식업, 수도하수업, 전문·과학기술업, 보

건설사회복지업, 국제기구업 등에서 하락이 컸음. 이중 숙박·음식업은 156만 6천원으로 3만 8천원(하락률 -2.4%) 하락했고, 보건사회복지업은 204만 2천원으로 1만 5천원(하락률 -0.7%) 하락하여 임금이 낮았는데 2020년 임금 하락까지 겹침.

- 한편, 예술및여가업, 가구내고용업에서는 월평균임금이 상승하였는데, 예술및여가업에서 195만 2천원으로 11만 7천원(상승률 6.4%), 가구내고용업에서 101만 2천원으로 10만 1천원(상승률 11.1%) 상승하였음.
- 제조업(=100)을 기준으로 한 업종별 상대임금은 전기·가스·증기업에서 상승하여 151.4%로 가장 높고, 반면, 가구내고용업은 32.5% 수준으로 가장 낮았음. 숙박·음식업은 50.3%로 제조업의 절반 수준이며, 2020년 상대임금은 보건사회복지업과 숙박·음식업이 더 낮아져 업종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음.
- 300인 이상(=100)을 기준으로 한 1-4인 규모의 상대임금은 41.5%로 300인 이상 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2016년 36.1%에서 2017년-19년 각각 39.5%, 40.7%, 42.0%로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 하락으로 돌아섬.
- 월평균임금 기준 저임금노동자는 160만명 미만을 받는 노동자로 2020년 고용 증가 업종에서 저임금노동자가 증가하였고, 고용 감소 업종에서 저임금노동자도 감소하였음. 즉, 보건사회복지업(33.0%), 공공행정업(27.9%), 가구내고용업(78.6%), 국제기구업(20.2%)에서 저임금노동자가 증가하였고, 반면, 교육서비스업(23.0%), 제조업(8.1%), 예술및여가업(36.9%), 기타개인서비스업(32.8%), 숙박·음식업(51.0%)에서 감소하였음. 특히, 숙박·음식업과 가구내고용업은 2명 중 1명이 저임금노동자이고, 숙박·음식업은 7천명 감소하였지만 비중은 2.4%p 증



가하였고, 가구내고용업은 9천명 증가하였지만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10.8%p 감소하였음.

- 사업체규모별 임금수준별(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분포를 보면, 1-4인 규모에서 저임금과 중간임금 노동자는 95.0%이고,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중간임금과 고임금 노동자가 96.1%로 규모가 작을수록 저임금노동자가 많고, 규모가 클수록 고임금노동자가 많았음. 특히 1-4인 규모에서 저임금노동자는 46.5%, 고임금노동자는 5.0%인데 비해 300인 이상 규모에서 저임금노동자는 3.9%, 고임금노동자는 53.0%로 규모별 임금격차가 컸음.

**\*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 변화**

- 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문·과학기술업, 전기·가스·증기업에서 가장 높고, 정보·통신업, 제조업도 높은 편이며 반면, 숙박·음식업, 농림어업 등에서 낮고 가구내고용업은 매우 취약하였음. 2020년 부동산업, 예술·및·여가업, 건설업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가구내고용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에서도 미미하지만 증가하였음. 특히,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문·과학기술업 90.7%로 3.2%p 상승하여 유일하게 90%를 넘고, 반면, 가구내고용업 1.4%(+0.8%p), 공공행정업 22.7%(+2.9%p), 농림어업 29.9%(+1.7%p), 교육서비스업 31.5%(+2.2%p), 숙박·음식업 46.7%(+2.8%p)에서는 2020년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낮음.
- 사업체규모별 사회보험 수혜율은 1-4인 규모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37.9%, 44.1%, 41.1%로 모든 사회보험 가입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반면,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국민연금, 건

강보험 가입률이 각각 94.3%, 96.5%이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78.3%로 가장 높지만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낮은 편임.

- 유급휴일(휴가) 수혜율은 전기가스증기업 91.3%, 정보통신업 90.2%로 90% 이상이고, 반면, 가구내고용업 1.8%(-2.0%p), 농림어업 15.9%(+0.9%p), 숙박·음식업 27.3%(+0.1%p)에서 30% 미만임. 부동산업은 63.8%로 전년 동기 대비 9.8%p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예술및여가업 45.4%(+4.5%p), 건설업 40.7%(+4.2%p), 교육서비스업 68.8%(+3.9%p) 순으로 상승하였음. 교육훈련 수혜율은 공공행정업이 95.3%(+2.3%p)로 전년 동기 대비 2.3%p 상승하였고, 유일하게 90% 이상이었음.
- 사업체규모별 근로복지 수혜율은 사업체규모가 작을수록 수혜율이 낮고,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높아 300인 이상 규모에서 시간외수당을 제외하면 모두 90% 이상으로 높고, 특히, 교육훈련 수혜율은 99.1%로 매우 높으며,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모든 항목에서 증가하였고, 반면, 1-4인 규모는 근로복지 수혜율도 낮고 2020년 모든 항목의 근로복지 수혜율이 하락하여 사업체규모에 따른 근로복지 수혜율 차이가 컸음.

#### \* 노동조합 조합원 및 조직률 변화

- 업종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기가스증기업(46.0%)이 가장 높고, 그다음 국제기기업(42.0%), 운수창고업(32.8%), 금융·보험업(29.0%), 공공행정업(27.2%)에서 20% 이상이고, 조직률 변동은 운수창고업(32.8%)에서 -4.8%p 감소하여 가장 크게 떨어졌고, 반면, 사업관리지원임대업(8.6%)에서 1.9%p 증가하였음. 사업체규모별 조직률은 대체적으로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높았음.

- ◆ 제6장에서는 앞에서의 분석에 기초하여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주요 정부정책을 살펴보고, 취약노동계층 특성별 정책과제를 일자리 및 소득 지원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정책, 양질의 일자리 촉진정책, 이해대변기능 강화 측면을 중심으로 모색함.

#### 4.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 앞의 분석에 기초하여 정부의 정책과제와 노조의 대응과제를 도출함.
  - 향후 경제가 과거보다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2020년에 이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산업생태계와 노동시장에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고용회복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긴급한 위기대응에서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고용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구조적 문제로 고착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고용유지 및 생계안정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이에 기인한 불평등 및 격차를 해소하고 산업구조 변화를 통한 고용 창출 및 고용의 질을 제고하는 장기적 시각의 정책이 필요함.
- \* **임시직·일용직과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계층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불안정노동계층과 고용유지정책: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으로 고용과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불안정노동계층 등 취약노동계층의 보호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정책이 중요함. 다른 주요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고용감소 최소화 정책으로 대응했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전년 대비 33배에 달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의 급격한 증가를 통해 실직하거나 해고될 수 있는 노동자의 고용관계를 유지시킴으로써 고용지표상 취업자 수의 감소 규모를 줄였음. 그런데 고용유지지원제도의 실효성에 제약이 있어 여러 개선조치를 취했으나 여전히 신청 방식, 사업장 규모, 지원 수준의 제약으로 인해 파견 및 용역 노동자, 사내하청 및 소규모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대다수 불안정노동자들이 고용유지지원 제도의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위기 시 파견·용역을 비롯한 불안정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간접고용 사업장이나 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신청 요건을 설정하거나 사용사업주의 신청을 허용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유인하기 위하여 사업주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임금보전 비중을 높여 신청과 수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조정, 고용위기 시 한시적으로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환급, 사용사업주의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제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개선,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등을 통해 현재의 지원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강화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지원금 지급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대량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또한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등 다양한 노동형태를 포괄하는 좀더 확대된 고용유지 방안이 설계되어야 할 것임. 나아가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우수한 재정여력을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 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임.

- 둘째, 불안정노동계층의 소득지원정책: 위기 시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실질적 적용이 불가한 취약노동자의 소득과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가 중요함. 코로나19위기 속에서 광범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응하여 특별고용안정대책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되었는데, 지원 수준과 기간을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고용 위기 시 비자발적 휴업 상태에 있는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고용유지지원금에 준하는 소득과 고용안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임.

- 셋째, 불안정노동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정책: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속에서 취약노동계층에게 일자리 손실과 소득감소가 먼저 일어나는데 비해 이들 대다수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등 공적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어있음. 해외 많은 국가들이 실업급여 지원 대상자 확대·기간 연장·소득대체율 인상 등으로 실업자 지원을 강화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기존의 실업급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소득 실업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 지원 등 상대적으로 소극적 대응을 하였음. 향후에도 주기적 경제위기, 자연적 재난, 감염병 출현 등으로 인해 경제·사회적 위기가 반복될 수 있음. 따라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보장제도 정비를 통해 불안정 노동계층을 비롯한 취약노동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튼튼하게 정비해야 할 것임.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등 고용보험 확대정책과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최적결합을 통한 대응이 필요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불안정노동계층을 고려하여 소득파악과 보험료부과가 보다 쉬운 계층과 집단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단계적 확대 전략이 필요함.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취약노동계

층은 실업부조를 통해 소득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상병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일상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안전망의 정비가 필요함. 일상적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제대로 갖춰진 사회안전망은 다양한 경제·사회적 위기 시의 대비책이기도 함.

- 넷째, 일자리창출 및 양질의 일자리 촉진 정책: 향후 정부는 강력하고 회복력이 빠르며 포용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 개선 등 양질의 일자리 촉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코로나19로 인해 임시직과 일용직,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계층에 대한 부정적 일자리 충격이 컸고, 일자리 증가는 고용불안정성이 높고, 임금 및 노동조건이 열악한 일일근로 종사자, 기간제 및 시간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일자리 창출 및 인프라 개발, 친환경 부문 및 돌봄경제 등 주요 영역에 대한 공공투자 강화 등의 적극적인 정부정책이 요구됨. 그리고 정부는 권리와 적정임금 및 노동조건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인센티브와 적절한 강제조치의 조합을 통해 비공식경제를 공식화해야 함. 또한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통해 노동자들이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차지할 준비를 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범위한 노동시장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들 전략은 정부의 광범위한 산업정책의 일부가 되어야 함. 즉 정부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전환을 관리하고, 국내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 방향 및 조정을 제공하는데 선제적 역할을 해야 함. 한편, 모든 일자리 창출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임. 일자리창출 조치를 개발하는데 노동자의 직접적 대표로서 노동조합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노

동조합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임.

- 다섯째, 노동조합과 취약노동계층의 이해대변 및 대표성 강화: 임시직·일용직과 비정규직에게 고용 및 임금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이들의 노동기본권, 고용과 임금 및 노동조건을 보호하고 교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노동조합 가입률이 매우 낮고, 조합원 수가 감소하였음. 기업규모 및 종사상지위·고용형태 등에 따른 임금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노조 조직률 및 단체협약 적용률 확대, 산별 노조와 산별교섭체계를 통한 산업·업종 등 초기업단위의 교섭과 협의, 조정의 강화를 추진해야 함.

**\* 여성 및 취약연령계층 관련 주요 정책과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자녀 돌봄과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개선: 자녀돌봄 등으로 인한 여성노동자의 일 중단을 막기위한 고용유지정책으로 돌봄의 사회화와 근로시간단축 청구 사유 중 자녀 돌봄 추가를 제안함. 2020년 여성과 남성 모두 일자리 감소했는데, 여성이 7만 8천명(-0.9%) 감소하여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이 감소함. 그리고 여성취업자의 감소가 기혼여성 취업자의 감소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35-39세가 전체 기혼 여성 취업자 감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코로나19로 드러난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의 사회화와 더불어, 2020년부터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의 사유 개선이 필요함. 현재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임. ‘가족돌봄’ 사유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가 해당되는데 여기에 ‘자녀의 학업’을 위한 돌봄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성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실시: 노동시장에서의 상시적인 성별 격차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실시를 제안함. 경제위기 시 남성보다 여성의 일자리 및 소득 타격이 큰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ILO(2021)가 여성일자리 회복을 위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실현을 대책으로 제안한 것과 같이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 정부의 국정과제로 2018년 도입을 약속한 '성평등 임금공시'를 실시하여 임금 투명성 확보로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야 함. 기업의 임금정보는 주권상장법인은 금융감독원 DART, 공공기관은 알리오, 지방공사 및 공단은 클린아이를 통해 공개되고 있음. 2020년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이하 AA)대상 사업체는 남녀근로자 직급별 직종별 현황 외에 남녀 근로자 직급별 직종별 평균 임금과 평균 근속년수를 제출하고 있음. 임금을 공시하는 방법은 첫째, AA 대상 사업체의 AA 사이트를 별도로 구축하여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대상 개별 사업체의 남녀 근로자 정보와 임금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과 2014년에 시작된 300인 이상 대상 사업체의 근로자 정보가 제공되는 고용형태별 공시제 사이트에 남녀 임금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셋째,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 확대: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65세 이상 임금노동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020년 전체 임금노동자 수가 감소한 가운데 65세 이상 임금노동자는 18만 5천이 증가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중에도 6개월 미만보다 6개월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했음. 그런데 65세 이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17.4%로 전체 임금노동자



67.5%의 1/4 수준에 불과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65세 이상 노동자들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 의무 가입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여성 집중 돌봄 일자리 개선: 코로나19로 중요해진 돌봄의 사회화와 함께 저임금 여성집중 일자리인 돌봄 일자리 개선이 필요한데, 지역별 사회서비스원의 공통 기능으로 지역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담은 사회서비스원 운영 가이드라인을 「사회서비스원법」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 코로나19로 전체 일자리가 감소한 가운데 보건사회복지업은 15만 5천명이 증가했고, 보건사회복지업의 일자리 증가는 65세 이상 고령자 일자리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중장년층 취업 비율이 높은 돌봄일자리는 대표적인 저평가 저임금 일자리로 보건사회복지업의 일자리 증가는 여성고용률 상승에 기여했으나 노동시장에서 남성보다 낮은 여성의 일자리 지위 개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 중고령 여성뿐만 아니라 고령 여성들의 유입이 확대되고 있는 돌봄 일자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함. 사회서비스원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201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설립한 이후 코로나19로 지자체 설립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노인·아동 돌봄 등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사회서비스원법)이 2022년 3월부터 시행됨.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기회로 자치단체별로 이미 설립되었거나 설립 예정인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자치단체별 자율성을 허용하는 부분과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회서비스원 운영 가이드

드라인을 법을 통해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큰 대면산업 및 영세중소기업 종사 노동자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영세 대면서비스업의 고용유지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코로나19로 충격이 큰 영세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확대와 함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도입이 시급함. 코로나19로 외식, 여가, 오락, 여행, 교육 등 대면서비스업의 노동수요가 크게 감소하였고, 이들 업종 특성상 규모가 작은 소규모 업체라는 측면에서 대면서비스업의 영세 중소기업장에서 코로나19 충격이 컸음.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완화 및 개선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통해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정부대책 수혜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고 있음. 임금노동자의 32.5%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고, 특히, 가장 고용 충격이 컸던 숙박음식업 경우, 2020년 고용보험 가입률이 2.8%p 증가하였지만 미가입자 비율은 53.3%로 여전히 2명 중 1명 이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며, 1-4인 규모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1%에 불과함. 또한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무급휴가 또는 권고사직당할 가능성이 높음. 현재 고용유지 지원정책은 실업을 일시 휴직으로 전환시켜 놓은 상태로 고용유지 지원이 끝나면 언제든 실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실업 위험이 높음.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많은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보험의 법적 적용 범위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

고 실질적인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현재 전 국민을 포괄하는 고용보험이 되도록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중인데, 이번 위기를 계기로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시장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포괄하는 고용보험 제도로 신속히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 둘째,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원 강화: 대면서비스업 고용충격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업, 항공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였음.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몇 차례 추가 지정과 기간 연장 과정을 거쳐 현재 15개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였고, 적용기간을 2022년 3월 31까지로 연장하였음.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하나 정부는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명분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일시 증가한 사업의 규모와 지원 수준 등을 조정하고 내년까지 1조 6,000억 원을 감축한다고 밝히고 있어 그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업종의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큰 상황임.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우리 경제의 산업 생태계 불균형과 업종별 불평등 심화와 같은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 관련 업종의 경제 활동이 많은 부분 위축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19에 의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은 산업과 경제의 안정적 균형 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용위기 극복 및 생계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임. 코로나19로 심한 타격을 받은 업종의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이들 업종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임. 이와 더불어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

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을 매개하는 것 역시 중요함.

- 셋째,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기업 규모별 격차 완화: 위기 시에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데, 2020년 고용감소는 대부분 10인 미만(27만 2천명 감소) 규모에서 일어났는데, 특히 5인 미만 규모에서 13만 5천명(감소율 -3.6%)이 감소했음. 중소기업 고용유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많은 5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대출과 임금 지급에 대한 세금 공제 제도를 확대하는 등 고용유지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함. 이와 함께 기업규모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저임금근로자가 많은 소규모 사업체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강화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넷째, 양과 질을 담보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위기에 대응하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청년층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였음. 그러나 정부가 만든 일자리 가운데 최소 9만 8천개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8,720원) 이하이고, 근로기간도 최대 6개월로 너무 짧아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일자리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규 일자리 역시 신산업 분야와의 미스매칭이 여전했음. 또한 공공일자리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임시직을 양산하여 공공행정업의 임시직(32.6%) 증가, 저임금노동자(27.9%)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왔음.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디지털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향후 인력수요를 예상하고, 성장산업과 쇠퇴산업 간의 인력 대체와 보완관계를 고려하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보상 정책이 담겨 있어야 함. 일자리의 양과 질을 담보하는 일자리 창출이

절실함.

- 다섯째, 초기업적 노조운동으로 위기 극복: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타격을 받은 노동자들 대다수가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니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영세사업장의 개별화된 노동자들로 교섭력과 이해대변이 부재하여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와 이해가 보호 또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들의 권리 및 이해의 보호를 위해 노조운동은 기업별노조 수준이 아닌 적어도 산업별 혹은 총 노동차원의 대응을 강화해야 할 것임. 노동조합은 활동 범위를 기업에 국한하지 말고, 초기업적 노조운동에 대한 초석을 만들어 노동자 연대의 틀을 강화해야 함. 그것은 기업, 산업, 업종, 지역을 넘나드는 다양한 차원의 연대를 의미함. 사회적 연대와 타협에 기초하여 고용, 소득 등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 변화하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사회 개혁의 의제를 발굴하고 조직하는 것을 노동조합의 활동 목표이자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임.



# 제1장

---

##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경제·사회·문화에 커다란 변화를 발생시켰고,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코로나19 위기는 시장의 위기를 초래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고 공공성이 확장되는 등 각 나라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감염증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저고용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은 만성적 고용위기와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즉 노동시장이 원청·대기업, 정규직 등 고임금·고용안정·양호한 근무환경을 특징으로 하는 1차 노동시장(기업 내부노동시장)과 하청·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저임금·고용불안·열악한 근무환경의 2차 노동시장(기업 외부노동시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규모나 고용형태 등에 따라 임금, 고용안정성, 복지, 교육훈련의 기회 등에서 큰 격차가 존재하고, 상층 노동시장으로 노동이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각각이 서로 분리되는 이중구조의 형태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전병유, 2016). 이와 함께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높은 비중, 임금노동자 중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등 불안정노동계층의 비중이 높은 고용구조와 이들 대다수가 고용보험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안전망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악화가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주요 노동지표가 악화되었다. 2020년 초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른 고용위기는 통계상으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다음으로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그에 버금가는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지속되면 향후 노동시장 구조에 더 크고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19 재난의 위험이 차별적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실과 비대면·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진행과 비대면 업무방식 및 서비스의 활성화는 향후 산업 및 고용 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일자리의 양과 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으로 인해 초래된 중요한 현상 중 하나는 지금까지의 모든 위기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 여성, 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고, 고용 및 소득 위기가 이들 취약노동계층에게 집중되어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 격차 및 불평등이 커지고 있고, 임금 불평등 증가는 소득 불평등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sup>1)</sup>

흔히들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사회 및 자연 재난으로 인한 위기 시기에 재난자본주의가 나타나고, 이를 통해 기존 지배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불평

1)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OECD(2012)에 의하면 가구소득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증가의 75%가 임금불평등 확대에 의해 설명된다.



등이 심화되었다. 사회적, 자연적 대재난 이후에 도리어 지배세력을 위한 체제가 강화, 재생산되는 현상을 ‘재난자본주의’라고 한다. 재난으로 사회와 시민이 혼란한 시기에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확대 등을 통해 대자본을 비롯한 기존 기득권세력의 이익을 오히려 강화하는 재난자본주의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재난자본주의로 효율성만 추구하는 경제관료들이 그동안 추진하고자 했던 해묵은 과제들을 추진하거나, 재난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졌던 일시적 조치들이 이후에 제도로 정착되어버리곤 한다.

우리나라의 두 차례의 경제위기와 외국의 유행병위기 이후 경험에 의하면 이와 같은 재난 이후 예외 없이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이는 재난시기 취약계층의 대다수가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다수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위기 극복을 이유로 기업 및 노동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를 더욱 약화시켜 노동자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1997년 외환위기 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법 도입이 대표적 사례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위기에 직면해서도 규제 완화와 노동유연화 확대라는 자본의 위협적 공세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자본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정이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등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경제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이 되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 및 임금 등 노동조건 등에 미친 영향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노동시장 취약계층 보호 및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19가 취약노동계층에게 미친 영향을 코로나 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2020년의 변화정도에 대한 통계에 기초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재난이 취약노동계층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 기록으로 남기고, 향후 경제·사회적 재난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대응의 시급성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 제2절 연구방법과 내용

취약계층(vulnerable population)은 대개 사회의 권력자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동떨어져 주변부에 배제되어 있는 일련의 인구집단으로 빈곤층, 여성, 노인, 저학력자,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을 포함한다(권영준, 2009). 또한 취약계층(marginalised group)은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배제된 사각지대계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노대명, 2006).

취약노동자계층(vulnerable workers)은 이러한 취약성이 노동시장 혹은 노동환경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 ‘고용의 권리가 거부당할 위험이 높고, 그러한 문제(abuse)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나 수단을 갖지 못하는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DTI, 2006).

국내에서 취약노동계층이란 용어는 공식적으로 정의되어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다. 취약계층은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접근방법과 정책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은 크게 소득수준, 고용 또는 일자리의 속성, 인적 속성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 즉 취약계층을 소득수준에 기초해 빈곤계층으로 정의하거나, 일자리의 속성에 따라 비정규직, 영세업체 종사자를 포함할 수 있고, 인적 속성에 따라 여성(가구주), 청년

층, 고령층, 저학력층, 장애인, 이민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는 취약계층이 정책의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정의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이재성 외, 2016 재인용).<sup>2)</sup>

본 연구에서는 취약노동계층을 일자리의 속성과 인적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일자리의 속성, 즉 노동시장과 노동환경의 구조적 측면에서는 높은 고용 불안정성,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및 열악한 노동환경을 특징으로 하는 임시·일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사업장 노동자, 그리고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영향받는 산업 종사 노동자들을 취약노동계층으로 볼 수 있다. 인적 속성 측면에서는 노동시장 밖에서의 취약성과 노동시장에서의 주변부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여성, 청년층 및 고령층을 취약계층으로 본다. 그런데 이 두 범주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인적 속성상 취약계층에 속하는 개인들이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 및 열악한 노동환경의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또한 이들의 대다수가 노동조합과 같이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개선할 수단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취약노동계층을 일자리 속성 및 인적 속성에 기초하여 불안정 고용, 저임금 및 열악한 노동환경, 사회안전망으로부터의 배제 및 미조직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시장 계층으로 본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더불어 주로 통계자료 분석에 기초하여 코로나19가 취약노동계층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통계자료는 제2장에서는 그동안의 고용동향 및 과거 경제위기와의 비교분석이 가능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2)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2020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을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계층’이라고 정의하고, 취약계층의 범위에 저소득자(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자), 1년 이상 실업자, 여성가장(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 연간자료를 주로 사용했다. 제3장~5장에서는 임금노동자의 고용, 임금 및 노동실태, 사회보험, 노조 조직률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 사용했으며, 임금 동향에 대한 보완적 분석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사용했다. 주요 분석 대상 기간 및 내용은 2019년 대비 2020년의 변화정도이고, 고용 및 임금 등 주요 통계에 대해서는 두 시기간 변화가 코로나19 충격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유추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 간의 변화추이도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간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조사,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6월 조사가 함께 사용되고 있고, 주요 분석대상이 2장에서는 취업자, 3~5장에서는 임금노동자이다. 따라서 동일 연도에 사용 데이터와 분석대상에 따라 통계수치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수치를 읽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체 6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코로나19위기의 영향을 과거 두 번의 경제위기, 즉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영향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보는데, 먼저 전반적 고용동향을 살펴보고, 취업자 기준으로 일자리 속성 및 인적 속성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임금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3장~5장에서는 코로나19가 취약노동계층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취약노동계층을 인적 속성(성별, 연령계층별)과 일자리 속성(종사상 지위, 근로형태별, 기업규모별, 산업별)에 따라 분류하고, 고용규모, 임금수준 상대적 임금격차저임금노동자 규모 및 비율, 취업시간근속기간비자발적 취

업비율 등 노동실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퇴직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상여금·교육훈련) 수혜율,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와 조직률 등에서의 변화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임금노동자의 종사상 지위(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및 고용 형태별(정규직, 비정규직) 비교분석을 통해 코로나19위기가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계층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임금노동자의 성별(남성, 여성) 및 연령별 비교분석을 통해 코로나19위기가 여성, 청년 및 고령층 등 취약노동계층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임금노동자의 종사 산업과 사업체 규모(대기업, 중소기업)를 중심으로 코로나19위기가 중소기업 사업장 종사자 및 대면산업 등 코로나19 위기에 민감하게 영향받은 산업 종사자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제6장에서는 앞에서의 분석에 기초하여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주요 정부정책을 살펴보고, 취약노동계층 특성별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가 취약노동계층(임금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일자리 속성(종사상지위, 근로형태, 기업규모, 산업) 및 인적 속성(성별, 연령별)을 구분하여 고용, 임금 및 노동실태, 사회보험 및 근로복지, 노조 조직률 등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제공하는 기초보고서로서 다양한 통계표를 통해 실태 및 변화정도를 보여주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보고서 기술의 주요 초점으로 잡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데이터와 연구방법, 그리고 분석대상에 있어 일정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기초하여 코로나19가 취약노동계층에게 미친 영향을 2019년 대비

2020년의 노동시장 상황을 비교 분석하여 보여줌으로써 코로나19가 특히 취약노동계층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들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자료로서, 재난의 사회적 영향, 특히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찰하는데 있어 적합한 자료이다. 그러나 이들 데이터를 이용한 기술적(descriptive) 분석방법만으로는 2019년 대비 2020년의 노동시장 변화정도가 온전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것인지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전 두 번의 경제위기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재난의 위험이 집중되어 그들의 노동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되지만, 제도 변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동시장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취약노동계층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 더하여 구조화된 조사와 보다 세부적인 분석모델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코로나19가 취약노동계층에 미친 영향이 실재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해석하기에는 일정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영향 분석 항목과 관련한 데이터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취약노동계층을 임금노동자로 한정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사회·경제적 위기 시 자영업자 등 비임금노동자 역시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받으며 임금노동자에서 비임금노동자로의 이동이 상당한 규모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영향 분석이라는 측면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 제2장

## 코로나19위기와 고용 및 임금불평등 동향

### 제1절 머리말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1998년 다음으로 큰 고용 충격을 경험했으며, 이러한 위기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고용 및 소득 감소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중소기업 사업장 및 대면산업 종사 노동자, 여성,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게 충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까지 최근 세 번의 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 IMF 외환위기를 변곡점으로 경제 및 고용구조에 큰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디지털화·플랫폼산업의 활성화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등에 따라 인구구조, 산업 및 고용 구조의 큰 변화가 예측되고

있고,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위기는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경제·사회 구조의 근본적 재편이 이루어졌다. 주요한 변화 중 하나는 개발연대 고성장·고고용 구조로부터 저성장·저고용 구조의 시기로 전환되었고, 영미형 시장중심주의가 급격히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등 국민복지 증진으로 연결되었으나 경제구조의 변화로 이러한 연계가 약화되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성장의 고용흡수력 또한 감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의 도입으로 상시적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의 양산 등 노동시장 유연화가 급진전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증가에서 보듯이 포디즘적 노동시장구조 역시 급격히 해체되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이 비정규직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완전고용에 기초한 전통적인 케인즈주의적 복지 패러다임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 양극화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전병유외, 2007).

저성장 및 성장과 고용간의 연계 약화에 따른 고용창출의 문제와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에 따른 좋은 일자리의 문제,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문제, 디지털화의 급진전,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경제 및 고용에 대한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이 우리 사회 핵심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고용의 양과 질이 저하되는 고용의 위기는 거시경제적으로 소비와 투자의 침체를 초래하고 미시적으로는 노사관계 불안을 야기하며, 장기적으로는 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방해하여 경제의 악순환 구조를 초래한다(전병유외, 2007: 154).<sup>3)</sup>

3) '기업의 단기주의적 경영전략→고용불안심리 증가→소비감소 및 노사관계 불안→투자위축'이라는 악순환 고리가 강화되는 반면,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통한 기업특수적 숙련·신뢰·네트워크 등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 축적 그리고 이에 기초한 개인·국가·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선순환고리는 위축된다(전병유외, 2007: 154).



1997년 IMF 외환위기 다음으로 큰 고용충격을 초래한 코로나19위기가 지속되면서 외환위기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오상봉, 2020: 187).

본 장에서는 코로나19위기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1997년 IMF 외환위기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영향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제2절 코로나19 위기와 고용 동향

### 1. 한국의 경제 및 고용 동향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가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고, 노동시장은 1997년 IMF 경제위기 다음으로 큰 고용충격을 받고 있다.

한국은 과거에 두 번의 큰 경제위기를 겪은 바 있다. 이전의 위기와 코로나 19 위기는 각각 그 성격이 달라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 또한 다를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일시적인 위기이며 외부적인 상황이 호전되면서 빠르게 회복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는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였으며 경제 전반에 크고 깊은 영향을 미쳐 이를 분기점으로 경제·사회 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졌고, 그 영향 또한 오래 지속되어 경제 및 고용 지표가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아직 회복되지 못한 부분도 존재한다. 이에 비해 코로나19 위기는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비필수적인 대면 서비스에 영향이 집중되었다(오상봉, 2020: 187).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경제성장률은 -0.9%(잠정치)로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고, 취업자증가율은 -0.8%였으며, 실업률은 4.2%(4주 기준)를 기록했다(〈부표 2-1〉 참조). 이에 비해 IMF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 경제성장률은 -5.1%였고, 취업자증가율은 -6.0%였으며, 실업률은 7.0%(1주 기준)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sup>4)</sup>의 영향으로 2009년 경제성장률은 0.8%였고, 취업자증가율은 -0.4%였으며, 실업률은 3.4(1주 기준)~3.6%(4주 기준)를 기록했다.

한국경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변곡점으로 경제 및 고용구조에 큰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및 고용 지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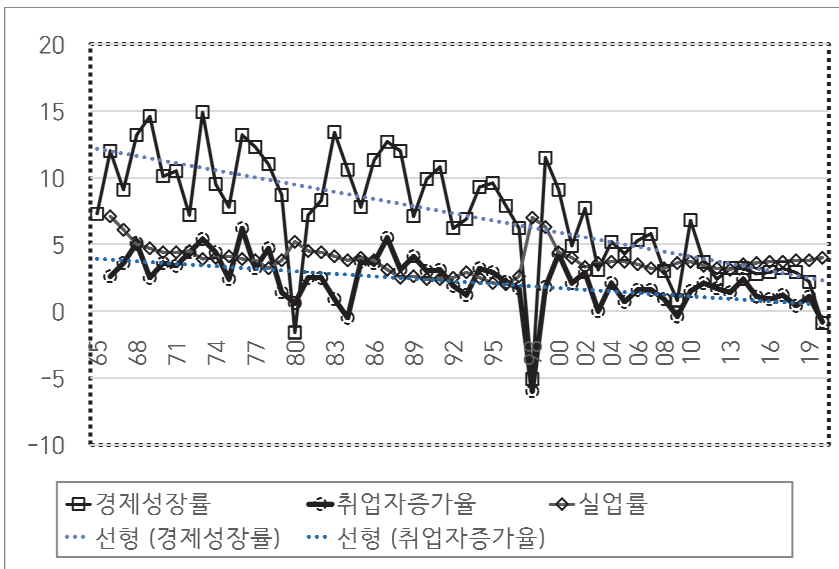
국민소득이 추계되기 시작한 1953년 이후 지난 67년간(1954~ 202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실질GDP 성장률)은 7.0%에 달하였다. 1954년부터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사이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8.7%이다. 이에 비해 고용관련 지표가 제공되고 있는 196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3%이다. 1966년부터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사이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9.7%였다. 반면, 1998년~2020년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8%에 머물렀다.

취업자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취업자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고용사정이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2-1〉 참조).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의 제공 시작연도인 1965년 811만 2천명이었던 취업자 수는 2020년에는 2,690만 4천명으로 3.3배로 늘어났다. 그리고 취업자가 1966년부터 2020년까지 55년간 연평균 2.2%, 약 34만 2천명이 증가했다.

4)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신청으로 본격화되었고,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대한 영향은 2009년에 나타났다.

1966년부터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까지 32년간 취업자가 연평균 3.1%, 약 40만 9천명씩 증가한데 비해, 외환위기 이후 1998년에서 2020년까지 23년간 연평균 1.1%, 24만 7천명씩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의 둔화와 성장과 고용의 연계 약화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림 2-1] 한국의 경제성장률·취업자증가율·실업률 추이(1966~2020)



주: 1) 실업률은 1999년까지는 구직기간 1주 기준, 이후는 구직기간 4주 기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도 대체로 증가 추이를 보였으나 큰 폭의 경기변동이나 대학정원의 확대 등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다. 고용률(15세 이상)은 고용관련 통계가 제공되고 있는 1966년 52.8%에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상승 추이를 보여 1978년 58.0%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어 1984년에는 53%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는 2차 오일

쇼크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졌고, 1980년대 초 대학정원을 크게 확대함에 따라 그만큼 노동공급이 줄어든 것에 기인한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 60.9%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에는 56.4%로 하락하였다. 이후 56.7~60.1% 수준을 기록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2009년 59.8%로 하락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율은 상승추세가 이어져 2019년에는 IMF 외환위기 이전 최고수준인 60.9%를 기록했다가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60.1%로 하락했다.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은 1965년 52.8%이었으나 꾸준히 상승하여 1978년 59.9%로까지 높아졌다.<sup>5)</sup> 그 후 경기침체와 대학정원 확대 등에 따라 하락세로 돌아서서 1984년에는 55.8%로까지 낮아졌다. 1985년부터 다시 회복세로 돌아선 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에 62.5%까지 상승했으나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이듬해 60.6%로 하락하였다. 이후 경제활동참가율은 60~63%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업률은 1966년 7.1%에서 꾸준히 하락하여 1978년 3.2%로 낮아졌으나 연이은 경기침체로 1980년 5.2%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최저에 달했던 1984년을 전후한 기간에 실업률이 4% 내외에서 안정을 보인 것은 고용의 악화가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수반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대학정원의 확대로 학업 중인 인구가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 것이다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2010: 160). 실업률은 1996년 2.0%까지 다시 하락했으나 IMF 외환위기로 1998년에는 7.0%로 급상승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1998년 고용률이 4.5%p 하락했음에도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은 1.9%p에 그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실업률은 그 후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대

5) 실업자의 구직기준이 1주에서 4주로 변경됨에 따라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1999년까지는 1주 기준,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두 개의 기준에 의한 지표 병행, 2015년부터는 4주 기준임.

체로 3%대를 유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창출은 양질의 일자리보다 낮은 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면서 성장과 고용, 그리고 빈곤 감소 간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고용의 양의 감소와 고용의 질의 하락은 일자리 구조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기업 규모 및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 부문 간의 이동도 제한되었다. 특히 질 낮은 고용의 질은 생산성 향상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저임금 근로계층의 증가는 복지부담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는 고용 불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취업자 증가율의 감소, 양질의 일자리 감소 및 질 낮은 일자리 증가, 고용의 양극화, 근로빈곤층의 확대 등 고용위기의 현상들은 모두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매우 구조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전병유, 2007).

이하에서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위기와 가장 최근 두 번의 큰 경제위기인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비교분석한다.

노동수요 측면을 살펴보면, 2020년 취업자 감소율이 고용통계가 생산된 이래 가장 높고, 취업자 감소 규모는 외환위기 시기 다음으로 큰 규모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전년 대비 취업자 감소율은 -0.8%로,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1만 9천명이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취업자 감소율은 -6.0%, 감소 규모는 127만 6천명이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에는 취업자 감소율이 -0.4%, 감소 규모는 8만 7천명이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고용율은 전년 대비 0.8%p 감소한 60.1%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전년 대비 4.5%p 감소한 56.4%, 1999년 56.7%를 기록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전년 대비 0.3%p 감소한 59.8%, 2009년 58.8%로 나타났다. OECD 기준(15-64세) 고용율은 2020년 전년 대비 0.9%p 감소한 65.9%인데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1.0%p 감소한 63.0%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2020년 실업률은 전년 대비 0.2%p 증가한 4.0%(4주기준)를 기록했는데 이는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 전년 대비 4.4%p 상승한 7.0%(1주기준), 1999년 6.3%(1주기준), 2000년 4.4%(4주기준), 2001년 4.0%(4주 기준)를 기록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전년 대비 0.4%p 상승한 3.6%(4주 기준), 2010년 3.7%(4주 기준)를 기록했다. 성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2020년 남자는 3.9%로 전년과 동일한데 비해 여자는 4.0%로 0.4%p 상승하였다. 2020년 실업자는 110만 8천명으로 전년 대비 4만 5천명(4.2%)이 증가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62만 4천명으로 전년 대비 3천명(-0.4%) 감소하였으나, 여자는 48만 4천명으로 4만 7천명(10.8%)이 증가했다.

노동공급 측면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은 실업자 기준의 변화로 외환위기 시기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고,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과 비교해서는 높다.<sup>6)</sup> 고용율(15세 이상) 또한 과거 두 번의 경제위기 시기와 비교하여 가장 높다. 이는 일시휴직자의 큰 증가가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6)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고용통계기준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연도별 자료의 경우 2000년부터 실업자의 구직기간 요건을 1주에서 4주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 연도와 비교시 주의를 요한다. 구직기간 1주 적용 시보다 4주 적용 시 실업자 수와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은 더 커진다. 실업통계 기준변경은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의 수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이전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던 사람들이 실업자로 잡혀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게 된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은 전년 대비 0.8%p 감소한 62.5%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전년 대비 1.9%p 감소한 60.6%를 기록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전년 대비 0.4~0.5%p 감소한 61.6~61.7%, 2009년 60.8~61.0%로 나타났다. OECD 기준(1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 전년 대비 0.9%p 감소한 68.6%인데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0.7%p 감소한 65.5%를 기록했다.

경제가 과거보다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고 취업자 증가율도 완만한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고용증대를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되고 있다.<sup>7)</sup> 특히, 구조변화로 인해 코로나19 전·후의 노동시장이 확연히 다른 모습을 띠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않다(Mckinsey, 2021; IMF, 2021; Emmerling et al., 2021 등; 송상윤·김하은, 2021 재인용).

## 2. 코로나19 팬데믹과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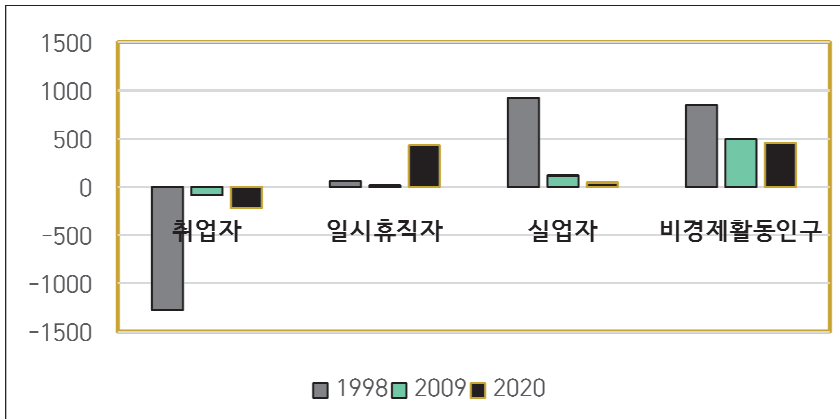
경제 및 재난 위기 시의 고용충격을 비교하면 세 시기 모두 취업자가 감소했는데, 2020년은 감소폭이 IMF 외환위기 시기 다음으로 크고, 감소율은 가장 컸다. 취업자 수의 감소 규모가 1998년 127만 6천명(-6.0%), 2020년 21만 9천명(-0.8%), 2009년 8만 7천명(-0.4%)의 순으로 컸다.

코로나19 위기의 고용영향을 외환위기 시와 비교하면, 취업자 감소는 상대적으로 적고 취업자 중 일시휴직자가 상당히 증가했으며, 비경제활동인구가 상당히 증가했으나 외환위기 시보다는 증가규모가 적다. 그리고 실업자

7) 코로나19로 인한 구조변화로는 디지털 경제 확산, 업무 자동화 가속화, 재택근무 확산, 사업장의 탈도시화에 따른 자영업 부진, 대기업 집중도 심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이 지목되고 있다 (Auto and Reynolds 2020; Mckinsey 2021 등).

수 증가규모가 외환위기 시기는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시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2), <부표 2-2>, <부표 2-4> 참조).

[그림 2-2] 경제위기별 취업자·일시휴직자·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감 규모  
(단위: 천명)



주: 1) 통계치는 전년 대비 증감임.

2) 실업자가 1998년은 구직기간 1주 기준, 2009년과 2020년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취업자 감소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은 정책적으로 실업이 휴직으로 전환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즉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는 일시휴직자<sup>8)</sup>가 큰 폭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일시휴직자는 내용상 실업자라 할 수 있는 잠재적 일자리 불안계층이다. 또한 취업자 수 감소 규모(21만 9천명 감소)에 비해 실업자 수 증가는 소폭(4만 5천명)에 그쳤는데, 이는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를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와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 실업자 기준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sup>9)</sup>의 증가에 따른 것이

8)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자를 말한다.

9) 만 15세 이상의 노동가능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로, 가정주부, 학생,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구직단념자 등이 포함된다.



다.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으로 이어져 고용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취업자<sup>10)</sup> 중 일시휴직자는 전년 대비 43만명(105.7%)이 증가한 83만 7천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여성이 전년 대비 25만 5천명(104.5%) 증가한 49만 9천명으로 일시휴직자의 59.6%에 달한다(〈부표 2-4〉 참조). 남성은 17만 5천명(107.4%) 증가한 33만 8천명이었다. 이에 비해 1998년에는 일시휴직자가 전년 대비 6만 1천명(34.3%)이 증가한 23만 9천명, 2009년에는 전년대비 1만 6천명(4.6%)이 증가한 36만 7천명이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020년 전년 대비 45만 5천명(2.8%)<sup>11)</sup>이 증가한 1,677만 3천명이었다(〈부표 2-3〉 참조).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를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전년 대비 28만 2천명(13.5%)이 증가한 237만 4천명, 구직단념자는 7만 3천명(13.5%) 증가한 60만 5천명으로 실업상태가 만성화될 소지가 있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취업준비자는 4만 3천명(5.7%)이 증가한 79만 1천명이었다. 이에 비해 1998년에는 전년 대비 84만 9천명(6.5%)<sup>12)</sup>이 증가한 1,391만 9천명이었고, 2009년에는 전년 대비 49만 4천명(3.2%)<sup>13)</sup>~51만 1천명(3.3%)<sup>14)</sup>이 증가한 1,571만 9천명<sup>15)</sup>~1,578만 명<sup>16)</sup>이었다.

2020년의 취업자 감소는 주로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특히 임시직의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부표 2-6〉 참조). 관련 통계가 제공된 이래 임시직의 감소규모가 가장 컸다. 2020년 취업자가 21만 9천명(-0.8%)이 감소했는

10) 취업자는 ①조사대상기간(1주)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일시휴직자 또는 ③18시간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된다.

11) 실업자 4주 기준

12) 실업자 1주 기준

13) 실업자 4주 기준

14) 실업자 1주 기준

15) 실업자 4주 기준

16) 실업자 1주 기준

데, 임금근로자는 10만 8천명(-0.5%), 비임금근로자는 11만 명(-1.6%)이 감소했다. 그리고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직은 30만 5천명(2.1%) 증가한데 비해, 임시직은 31만 2천명(-6.5%), 일용직은 10만 1천명(-7.1%) 감소했다.

이에 비해, 1998년 취업자 감소는 주로 임금근로자, 그중에서도 상용직의 감소로 인한 것이었다. 1998년 127만 6천명(-6.0%)이 감소했는데, 임금근로자는 110만 8천명(-8.3%)이 감소한데 비해 비임금근로자는 16만 9천명(-2.2%)이 감소했다. 그리고 임금근로자의 감소는 기업들의 도산 등으로 인한 상용직 일자리의 큰 감소에 의해 주도되었다. 상용직은 74만 8천명(-10.3%), 임시직은 19만 4천명(-4.6%), 일용직은 16만 6천 명(-8.8%)이 감소했다.

2009년의 취업자 감소는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 중 일용직의 감소에 기인한다. 2009년에는 8만 7천명(-0.4%)이 감소했는데, 임금근로자는 22만 9천명(1.4%) 증가한데 비해 비임금근로자는 31만 6천명(-4.3%)이 감소했다. 그리고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직은 37만 4천명(4.1%), 임시직은 1만 2천명(0.2%) 증가한데 비해, 일용직이 15만 7천명(-7.4%)이 감소했다. 2008년에는 임금근로자가 26만 2천명(1.6%)이 증가했는데, 이는 임시직·일용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용직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었다. 상용직이 39만명(4.5%) 증가한데 비해 임시직이 8만명(-1.5%) 감소했고, 일용직이 4만 8천명(-2.2%)이 감소했다.

임금노동자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19 위기가 노동시장에 1997년 외환위기 다음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경제위기 시기에는 임시·일용직 등 노동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관련 통계가 제공된 이래 임금노동자가 감소한 시기는 1964년, 1980년, 1998년, 2020년 총 네 차례인데, 고용충격이 1998년에는 임금노동자 중 상용직에게 가장 컸던데 비

해 나머지 시기에는 불안정노동계층인 임시·일용직에 집중됨을 확인할 수 있다. 1998년에는 임금노동자가 110만 8천명(-8.3%) 감소했는데, 상용직 74만 8천명(-10.3%), 임시직 19만 4천명(-4.6%), 일용직 16만 6천명(-8.8%)이 감소했다. 이에 비해 1964년 임금노동자가 2만명(-0.8%) 감소했는데, 일용직이 10만 2천명(-10.6%) 감소했다. 1980년에는 임금노동자가 1만 5천명(-0.2%) 감소했는데, 일용직이 12만 1천명(-8.5%) 감소했다.

2020년에는 임금노동자가 10만 8천명(1.6%) 감소했는데, 상용직이 30만 5천명(4.5%) 증가한데 비해 임시직이 31만 2천명(-1.5%) 감소했고, 일용직이 10만 1천명(-2.2%) 감소했다. 임시직의 고용감소가 가장 큰 상태인데, 취업상태는 유지되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일시휴직자도 임시직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가장 크게 충격을 입은 종사상 지위는 임시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다른 위기와 달리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 이번 위기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결과라는 특성상 조업단축으로 견디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성재민, 2021). 비정규직 등 취약한 특성을 가지는 취업집단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이들 취업집단의 회복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성별 취업자 동향을 비교하면, 다른 위기 시기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고용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2-8〉 참조). 2020년 여성 취업자는 1,152만 3천명으로 전년 대비 13만 7천명(-1.2%) 감소한데 비해, 남성은 1,538만 1천명으로 8만 2천명(-0.5%)이 감소했다. 1998년 여성은 809만명으로 전년 대비 64만 1천명(-7.3%)이 감소한데 비해, 남성은 1,184만 7천명으로 63만 6천명(-5.1%)이 감소했다. 2009년의 경우에는 여성은 984만 7천명으로 9만 3천명(-0.9%) 감소한 인데 비해, 남성은 5만명 증가한

1,384만명이었다.

연령별 취업자 동향을 비교하면, 위기 시 주로 20~30대의 고용충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2-9〉, 〈부표 2-10〉 참조). 2020년 30대 16만 5천명(-3.0%), 40대 15만 8천명(-2.4%), 20대 14만 6천명(-3.9%), 50대 8만 8천명(-1.4%), 10대 3만 6천명(-18.2%)의 순으로 감소규모가 컸고, 60세 이상에서만 취업자가 37만 5천명(8.0%)이 증가했다. 1998년에는 20대 56만 3천명(-11.3%), 30대 37만 8천명(-5.9%), 50대 13만 7천명(-4.7%), 60세 이상 7만 5천명(-4.1%), 40대 6만 9천명(-1.5%), 10대 5만 4천명(-14.0%)의 순으로 감소규모가 컸다. 2009년에는 30대 22만 1천명(-3.6%), 20대 13만 7천명(-3.5%), 40대와 10대 각각 1만명(각각 -0.2%, -5.3%)의 순으로 감소규모가 컸고, 50대 21만 8천명(5.1%), 60세 이상 7만 4천명(2.8%)이 증가했다. 10대와 20대를 합한 20대 이하의 고용충격이 1998년과 2020년에 가장 크고, 2009년에는 두 번째로 고용충격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규모별 취업자 동향을 살펴보면 2009년과 2020년 모두 300인 미만 일자리에 고용충격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2-12〉 참조). 2020년 300인 미만에서 29만 8천명(-1.2%)이 감소한데 비해, 300인 이상은 7만 9천명(3.0%)이 증가했다. 2009년에는 300인 미만에서 20만 5천명(-0.9%)이 감소한데 비해 300인 이상은 11만 8천명(6.3%)이 증가했다. 통계제공의 한계로 1998년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는다.

산업별 취업자 동향을 살펴보면 2020년 대면산업에 고용충격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2-13〉, 〈부표 2-14〉 참조).<sup>17)</sup> 도소매업 16만명(-4.4%), 숙박-음식업 15만 9천명(-6.9%), 교육서비스업 8만 5천명(-4.5%), 제조업 5만 3천명(-1.2%), 기타개인서비스업 4만 4천명(-3.6%), 부동산업 3

17)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변경에 따라 2013년 이후는 제10차 분류기준에 따른다. 2012년 이전과 2013년 이후는 시계열 연결이 되지 않는다.

만 9천명(-7.0%), 금융·보험업 2만 2천명(-2.8%), 정보·통신업 1만 4천명(-1.6%), 건설업 4천명(-0.2%), 광업 2천명(-13.3%)의 순으로 취업자 수 감소 규모가 컸다. 이에 비해 보건·사회복지 13만명(5.9%), 운수창고업 5만 1천명(3.6%), 농림어업 5만명(.6%), 공공행정업 3만 6천명(3.3%), 사업관리지원임대업 3만 5천명(2.7%), 가구내고용업 등 2만 3천명(30.7%), 수도하수업 1만 8천명(13.3%), 전문·과학기술업 7천명(0.6%), 전기·가스·증기업 6천명(8.8%), 국제기구업 5천명(41.7%), 예술 및 여가업 1천명(0.2%)의 순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 산업분류의 개편으로 과거 두 차례 위기 시와 산업별 취업자 변화를 비교하기 어렵다.

### 제3절 코로나19 위기와 임금소득불평등

임금불평등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인 임금의 지니계수<sup>18)</sup>와 분위배율<sup>19)</sup>을 살펴보면, 2020년 대체로 임금불평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의하면 지니계수는 2020년 0.325로 2019년과 동일하다(〈부표 2-16〉 참조). 분위수 배율 P90/10(하위 10%의 임금 대비 상위 90%의 임金的 비율)은 월평균 임금기준의 경우 2019년 5.39배에서 2020년 6.25배로 높아졌고, 시간당 임금 기준의 경우 같은 기간 3.59배에서 3.64배로 높아졌다. 최근 5년간 월평균 임금 기준 분위수 배율 P90/10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5.63배, 2017년 5.63배에서 2018년 5.04배로 하락했다가 2019년 5.39배, 2020년 6.25배

18)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고, 1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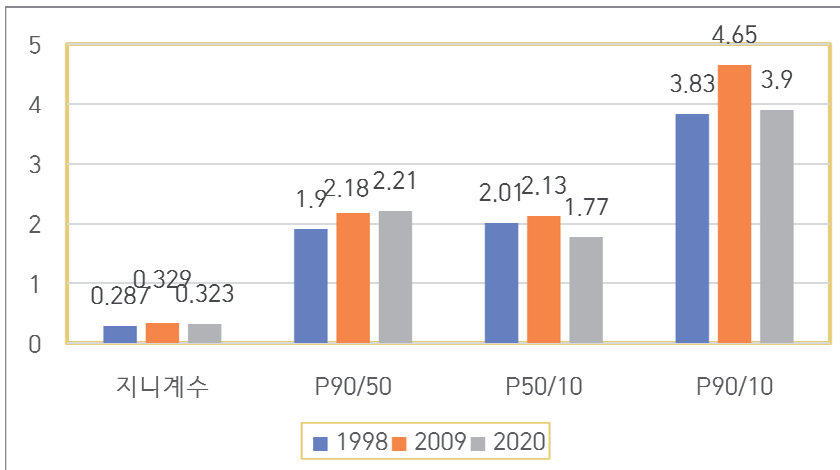
19) 분위수 배율은 대표적인 분위수를 배수화한 수치로 P90/10의 경우 하위 10%의 임금 대비 상위 90%의 임金的 비율을 의미한다. 수치가 작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것을 나타낸다.

로 상승했다. 분위수배율 P50/10(하위 10%의 임금 대비 중위임금의 비율)은 2019년 2.58배에서 2020년 3.00배로 높아졌다. 이에 비해 분위수배율 P90/50(중위임금 대비 상위 90%의 임금의 비율)은 2019년 2.09배에서 2020년 2.08배로 약간 낮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과 비교하면 지니계수와 분위수배율 P90/50은 낮아진데 비해, P90/10과 P50/10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의하면 사업체종사자 1인이상을 대상으로 할 때 지니계수는 2019년 0.366에서 2020년 0.370으로 높아졌다(〈부표 2-17〉 참조). 같은 기간 모든 분위수 배율이 높아졌는데, P90/10은 6.07배에서 6.59배, P50/10은 2.54배에서 2.75배, P90/50은 2.38배에서 2.40배로 높아졌다.

[그림 2-3] 경제위기별 지니계수와 분위수배율(10인 이상)



주: 1) 사업체종사자 10인 이상 대상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과거 두 번의 경제위기 시기와 비교할 수 있는 사업체종사자 10인 이상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니계수는 2020년 0.323으로 2009년(0.329)보다 낮지만 1998년(0.287)보다 높고, 분위수배율 P90/10 역시 3.90배로 2009년(4.65 배)보다는 낮지만 1998년(3.83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P90/50 은 2020년 2.21배로 과거 두 번의 경제위기 시기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임금불평등이 IMF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상반기 자료에 의하면 시간당 임금 기준 지니계수는 2019년 0.294에서 2020년 0.306으로 높아졌다. 최근 5년간 상반기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2016년 0.335, 2017년 0.317, 2018년 0.309, 2019년 0.294로 꾸준히 임금불평등이 줄어들다가 2020년 처음으로 상승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던 것이 임금불평등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니계수가 줄어들던 2018년과 2019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018년 16.4%, 2019년 10.9%였으나 2020년 2.9%로 크게 하락했다. P90/10은 2019년 3.49배에서 2020년 3.64배로 높아졌다. 최근 5년간 분위수 배율 P90/10을 살펴보면, 2016년 4.38배, 2017년 4.10배, 2018년 3.75배로 떨어졌다가 2019년 3.49배, 2020년 3.64배로 높아졌다(조민수, 2021).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노동자간 격차와 불평등이 높은 수준이었다.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에 의하면, 노동자간 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 지니계수는 일곱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이러한 경제구조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OECD, 2020).

## 제4절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제 및 고용관련 지표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경제성장률이 점차 하락하고, 고용창출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경제성장률은 -0.9%(잠정치)로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고, 취업자증가율은 -0.8%를 기록했다.

2020년 초 시작되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19 팬데믹은 통계상으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다음으로 큰 고용충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위기를 통해 확인되듯이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중소기업 사업장 노동자, 여성, 청년 등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 고용충격이 이들 취약노동계층에게 집중되어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체로 임금불평등이 증가했는데, 임금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의 지속은 향후 노동시장 구조에 더 크고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의 고용충격을 과거 경제위기 시와 비교하면, 2020년 취업자 감소 규모는 IMF 외환위기 다음으로 크고, 취업자 중 일시휴직자 증가규모가 가장 크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증가규모는 가장 적다. 2020년 취업자 감소는 주로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의 감소로 인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1998년에는 상용직(74만 8천명)의 감소, 2009년에는 비임금근로자(31만 6천명)와 일용직(15만 7천명)의 감소가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관련 통계가 제공된 이래 2020년 임시직의 감소규모가 가장 컸다.

이와 함께 모든 위기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취약노동계층에게 집중되었다. 임금노동자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19 위기가 노



동시장에 1997년 외환위기 다음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경제위기 시기에는 임시·일용직에게 고용충격이 집중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관련 통계가 제공된 이래 임금노동자가 감소한 시기는 1964년, 1980년, 1998년, 2020년 총 네 차례인데, 고용충격이 1998년에는 임금노동자 중 상용직에게 가장 컸던데 비해 나머지 시기에는 임시·일용직에게 집중되었다. 성별 취업자 동향을 비교하면, 다른 위기 시기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고용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불평등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인 임금의 지니계수와 분위배율을 살펴보면, 2020년 대체로 임금불평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제가 과거보다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2020년에 이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취약노동계층 특성별 지원정책과 더불어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이에 기인한 불평등 및 격차를 해소하고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변화를 통해 일자리 유지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장기적 시각의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코로나 19에 대응한 정책은 긴급한 위기대응에서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고용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구조적 문제로 고착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 제3장

### 코로나19가 취약노동계층에 미친 영향: 종사상지위 및 고용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 제1절 머리말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취업자 수 감소폭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 같은 고용충격이 임시·일용직, 비정규직에 집중되면서 종사상 지위나 고용형태 등에 따라 노동의 불평등과 격차가 심화되는 K자 양극화가 고착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19위기와 가장 최근 두 번의 경제위기 시기의 고용충격을 비교하면,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발생했고 상용직의 고용충격이 가장 컸던 IMF 외환위기를 제외하면 경제 및 감염병 위기 시 고용충격이 주로 불안정노동계층인 임시·일용직과 비정규직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연간자료에 기초해 종사상 지위별 영향을 살펴보면, 고용충격이 2020년에는 임시직이 가장 컸고, 2009년에는 일용직이 가장 컸으며, 1998년에는 상용직이 가장 컸다. 즉 2020년에는 임금노동자(10만 8천명)가 감소했는데, 임시직(31만 2천명)과 일용직(10만 1천명)이 감소했고, 특히 임시직

의 고용감소가 가장 큰데 비해, 상용직(30만 5천명)은 증가했다. 2009년에는 임금노동자(22만 9천명)가 증가했는데, 상용직(37만 4천명)과 임시직(1만 2천명)이 증가한데 비해 일용직이 15만 7천명 감소했다. 이에 비해 1998년에는 모든 종사상지위의 임금노동자(110만 8천명)가 감소했는데, 임시직(19만 4천명)과 일용직(16만 6천명)보다 상용직(74만 8천명)의 고용감소가 가장 컸다. 고용형태별 임금노동자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경제활동부가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자료에 기초해 살펴보면, 2020년 정규직은 5만 8천명 감소하였고, 비정규직은 5만 5천명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정규직은 49만 6천명 증가한데 비해, 비정규직은 24만 4천명이 감소했고, 다음 해인 2009년에는 정규직(5만 6천명)과 비정규직(29만 5천명)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에서는 코로나19 위기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임시·일용직과 비정규직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데, 종사상지위(상용직/임시직·일용직) 및 근로형태(정규직/비정규직)별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2020년의 변화정도를 비교분석하고, 2020년의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은 고용변화, 인적 속성(성별·연령별)·종사자 지위 특성(종사상지위·고용형태)·사업 특성(사업체규모·산업)별 고용변화, 임금수준 변화와 임금격차 및 저임금노동자 규모와 비율 변화, 취업시간·근속기간·비자발적 취업비율 등 노동실태 변화,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퇴직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상여금·교육훈련) 수혜율 변화,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와 조직률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변화 항목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기초하여 비교분석하고, 임금관련 항목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변화의 방향이 동일한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머리말에 이어 제2절에서 종사상지위별 고용과 노동실태에 미친 영향을 비교분석하고, 제3절에서는 근로형태별 고용과 노동실태에 미친 영향을 비교분석하며, 제4절에서는 각 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 제2절 종사상지위별 고용과 노동실태에 미친 영향

### 1. 종사상지위별 고용 영향

#### 1) 종사상지위별 규모 변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2020년 임금노동자가 감소했는데, 이는 임시직과 일용직, 주로 임시직의 큰 폭의 고용 감소로 인한 것이고, 이에 따라 임금노동자 중 상용직의 비중은 증가한데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2020년 8월 임금노동자는 2,044만 6천명으로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 8월과 비교하여 11만 3천명이 감소했다. 상용직은 2020년 8월 현재 1,457만명으로 같은 기간 28만 3천명(2.0%) 증가한데 비해, 임시직은 453만 9천명으로 31만 8천명(-6.5%)이 감소했, 일용직은 133만 7천명으로 7만 8천명(-5.5%)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임금노동자 가운데 상용직(71.3%)의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1.8%p 증가한데 비해, 임시직(22.2%)과 일용직(6.5%)은 각각 1.4%p, 0.4%p 감소했다.

〈표 3-1〉 임금노동자의 종사상지위별 규모 및 비중 변화

(단위: 천명, %)

구분	2019.8		2020.8		증감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증감률
임금노동자	20,559	100.0	20,446	100.0	-113	-0.5
상용직	14,287	69.5	14,570	71.3	283	2.0
임시직	4,857	23.6	4,539	22.2	-318	-6.5
일용직	1,415	6.9	1,337	6.5	-78	-5.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16년 이래 종사상지위별 노동자 수 증감추세를 살펴보면 상용직은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일용직 2019년 제외), 이에 따라 임금노동자 중 상용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표 3-2〉 종사상지위별 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규모					비중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임금노동자	19,743	20,006	20,045	20,559	20,446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직	13,050	13,517	13,795	14,287	14,570	66.1	67.6	68.8	69.5	71.3
임시직	5,213	5,046	4,859	4,857	4,539	26.4	25.2	24.2	23.6	22.2
일용직	1,480	1,443	1,391	1,415	1,337	7.5	7.2	6.9	6.9	6.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의 감소규모와 증감률을 살펴보면, 이전에 비해 감소규모와 감소율이 크게 높아 코로나19 충격이 임시직과 일용직의 고용에 영향을 미쳤음을 유추할 수 있다. 상용직은 2017년 46만 7천명(3.6%), 2018년 27만 8천명(2.1%), 2019년 49만 2천명(3.6%), 2020년 28만 3천명(2.0%)이 증가했다. 이에 비해 임시직은 2017년 16만 7천명(-3.2%), 2018년 18만 7천명

(-3.7%), 2019년 2천명(0%), 2020년 31만 8천명(-6.5%)이 감소했다. 일용직은 2017년 3만 7천명(-2.5%), 2018년 5만 2천명(-3.6%) 감소했다가 2019년 2만 4천명(1.7%) 증가하였으나 다시 2020년 7만 8천명(-5.5%)이 감소했다.

종사상지위별 비중변화를 살펴보면, 상용직은 증가추세를 보여왔는데, 2016년 66.1%에서 점차 증가해 2020년 71.3%로 증가한데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은 감소추세를 보여 같은 기간 임시직은 26.4%에서 22.2%로 감소했고, 일용직 역시 7.5%에서 6.5%로 감소했다.

〈표 3-3〉 종사상지위별 규모변화 및 증감률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증감규모				증감률			
	'17	'18	'19	'20	'17	'18	'19	'20
임금노동자	263	39	514	-113	1.3	0.2	2.6	-0.5
상용직	467	278	492	283	3.6	2.1	3.6	2.0
임시직	-167	-187	-2	-318	-3.2	-3.7	0.0	-6.5
일용직	-37	-52	24	-78	-2.5	-3.6	1.7	-5.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고용안정성 여부를 계속근로가능여부<sup>20)</sup>를 통해 살펴본 결과, 고용안정성 있는 노동자의 비율이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이 크게 낮고, 2019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떨어졌는데,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에서 더 크게 하락했다.

고용안정성 있는 노동자의 비중이 상용직은 2020년 8월 기준 96.9%로 전년 동기 대비 0.6%p 하락한데 비해, 같은 기간 임시직은 60.5%로 4.9%p 하

20) 즉, “회사가 아주 어려워져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 고용안정성이 있다고 보았다.

락했고, 일용직은 18.4%로 0.8%p 하락했다.

2016년 이래 비중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상용직은 2016년 96.6%에서 2018년 97.7%로 증가한 이후 하락하여 2020년에는 96.9%로 하락했다. 이에 비해, 임시직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여 같은 기간 75.6%에서 60.5%로 감소했으며, 일용직은 2016년 20.7%에서 2017년 23.6%로 증가했다가 이후 하락추세를 보여 2020년 18.4%로 감소했다.

〈표 3-4〉 종사상지위별 고용안정성있는 근로자 비중

(단위: %, %p)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85.4	86.4	86.1	84.5	83.7	-0.8
상용직	96.6	97.4	97.7	97.5	96.9	-0.6
임시직	75.6	75.0	71.3	65.4	60.5	-4.9
일용직	20.7	23.6	22.6	19.2	18.4	-0.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2) 종사상지위별 인적 및 사업 특성별 고용변화

종사상지위에 따라 인적(성별 및 연령별) 속성과 근로형태, 사업(기업규모 및 산업) 특성별로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 ① 성별 고용영향

종사상지위별로 성별 노동자 규모와 비중을 살펴보면 임시직의 다수는 여자, 상용직과 일용직의 다수는 남자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로나19위기 이후 상용직은 여자와 남자 모두 고용이 증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남자와 여자 모두 고용이 감소했다. 여자의 경우 임시직의 감소규모가 커 상용직에서

남자보다 증가규모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노동자 감소폭과 감소율이 남자보다 높았고, 이에 따라 임금노동자중 여자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2020년 8월 임금노동자 가운데 여성노동자가 908만 5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만 8천명(-0.9%) 감소하였고, 남성노동자는 1,136만 1천명으로 3만 5천명(-0.3%) 감소하였다.

종사상지위별로 성별 고용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8월 상용직 가운데 여자는 588만 8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만 6천명(2.9%)이 증가하였고, 남자는 868만 2천명으로 11만 7천명(1.4%)이 증가했다. 임시직의 경우 여자는 274만 8천명으로 같은 기간 20만 6천명(-7.0%)이 감소했고, 남자는 179만 1천명으로 11만 1천명(-5.8%)이 감소했다. 일용직의 경우 여자는 44만 8천명으로 같은 기간 3만 9천명(-8.0%)이 감소했고, 남자는 88만 9천명으로 3만 9천명(-4.2%)이 감소했다.

종사상지위별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임금노동자 가운데 여성의 비중은 44.4%로 전년 동기 대비 0.2%p 감소하였는데, 여성의 비중이 상용직은 40.4%로 0.3%p 증가한데 비해, 임시직은 60.6%, 일용직은 33.5%로 각각 0.2%p, 0.9%p 감소했다.

〈표 3-5〉 종사상지위별 성별 규모 변화

(단위: 천명, %)

구분	2019.8		2020.8		증감규모		증감률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임금노동자	9,163	11,396	9,085	11,361	-78	-35	-0.9	-0.3
상용직	5,722	8,565	5,888	8,682	166	117	2.9	1.4
임시직	2,954	1,902	2,748	1,791	-206	-111	-7.0	-5.8
일용직	487	928	448	889	-39	-39	-8.0	-4.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3-6〉 종사상지위별·성별 비중 변화

(단위: %, %p)

구분	2019.8		2020.8		증감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입급노동자	44.6	55.4	44.4	55.6	-0.2	0.2
상용직	40.1	60.0	40.4	59.6	0.3	-0.4
임시직	60.8	39.2	60.6	39.5	-0.2	0.3
일용직	34.4	65.6	33.5	66.5	-0.9	0.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② 연령계층별 고용영향

코로나19 위기 전후 연령계층별 고용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40대 이하에서는 고용이 감소한데 비해 50대 이상에서는 고용이 증가했다. 상용직의 경우 30대 이하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40대 이상에서 고용이 증가하였다. 임시직의 경우는 50대 이하 모든 연령계층에서 고용이 감소하였고, 60세 이상에서만 고용이 증가했다. 일용직의 경우는 30대에서만 고용이 증가했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상용직, 임시직과 일용직 모두에서 고용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60세 이상의 비중이 높아졌고, 20대 이하의 비중이 감소했다.

2020년 8월 상용직의 연령계층별 비중은 40대(27.3%), 30대(25.9%), 50대(22.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30대(-14만 2천명), 20대(-4만4천명), 10대(-7천명)의 순으로 고용감소가 컸고, 60세 이상(20만 2천명), 50대(19만 3천명), 40대(8만 1천명)의 순으로 고용증가가 컸다.

이에 비해 임시직의 연령계층별 비중은 60세 이상(30.8%), 20대(20.3%), 50대(18.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50대(-12만 4천명), 40대(-10만 명), 30대(-9만 5천명), 20대(-9만 4천명)의 순으로 고용감

소가 컸고, 60세 이상(10만 5천명)에서만 고용이 증가했다. 일용직의 연령계층별 비중은 50대(31.4%), 60세 이상(25.6%), 40대(15.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30대(2만 9천명)에서만 고용이 증가했다.

〈표 3-7〉 종사상지위별 연령계층별 규모 변화

(단위: 천명)

구분	2019. 08				2020. 08				증감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15-19세	194	33	111	49	164	26	103	35	-30	-7	-8	-14
20-24세	1,235	580	526	129	1,182	535	519	128	-53	-45	-7	-1
25-29세	2,320	1,753	492	75	2,217	1,754	405	58	-103	1	-87	-17
30-34세	2,208	1,837	310	61	2,186	1,829	285	72	-22	-8	-25	11
35-39세	2,482	2,074	347	61	2,295	1,940	277	79	-187	-134	-70	18
40-44세	2,384	1,904	380	99	2,347	1,924	345	78	-37	20	-35	-21
45-49세	2,594	1,989	443	162	2,553	2,050	378	125	-41	61	-65	-37
50-54세	2,378	1,686	509	182	2,413	1,783	424	205	35	97	-85	23
55-59세	2,057	1,372	444	241	2,088	1,468	405	215	31	96	-39	-26
60-64세	1,288	662	437	190	1,399	779	429	192	111	117	-8	2
65세 이상	1,418	397	856	165	1,603	482	969	151	185	85	113	-1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코로나19 전후 연령계층별 비중변화를 살펴보면, 임금노동자 가운데 40대 이하의 비중이 감소한 가운데, 상용직은 30대 이하의 비중이 감소하였고, 임시직은 60대이상의 비중이 증가했으며, 일용직은 30대와 50대 이상의 비중이 증가했다.

〈표 3-8〉 종사상지위별 연령계층별 비중 변화

(단위: %, %p)

구분	2019. 08				2020.08				증감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15-19세	0.9	0.2	2.3	3.5	0.8	0.2	2.3	2.6	-0.1	0.0	0.0	-0.9
20-24세	6.0	4.1	10.8	9.1	5.8	3.7	11.4	9.6	-0.2	-0.4	0.6	0.5
25-29세	11.3	12.3	10.1	5.3	10.8	12.0	8.9	4.3	-0.5	-0.3	-1.2	-1.0
30-34세	10.7	12.9	6.4	4.3	10.7	12.6	6.3	5.4	0.0	-0.3	-0.1	1.1
35-39세	12.1	14.5	7.2	4.3	11.2	13.3	6.1	5.9	-0.9	-1.2	-1.1	1.6
40-44세	11.6	13.3	7.8	7.0	11.5	13.2	7.6	5.9	-0.1	-0.1	-0.2	-1.1
45-49세	12.6	13.9	9.1	11.5	12.5	14.1	8.3	9.3	-0.1	0.2	-0.8	-2.2
50-54세	11.6	11.8	10.5	12.9	11.8	12.2	9.4	15.3	0.2	0.4	-1.1	2.4
55-59세	10.0	9.6	9.2	17.1	10.2	10.1	8.9	16.1	0.2	0.5	-0.3	-1.0
60-64세	6.3	4.6	9.0	13.4	6.8	5.4	9.4	14.3	0.5	0.8	0.4	0.9
65세 이상	6.9	2.8	17.6	11.6	7.8	3.3	21.4	11.3	0.9	0.5	3.8	-0.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③ 근로형태별 고용영향

근로형태별 고용 변화를 살펴보면, 임금노동자의 감소는 주요하게 임시직 중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노동자의 큰 폭 감소(25만 6천명)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1)</sup> 상용직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증가했고, 임시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감소했으며, 일용직은 정규직은 증가한 데 비해 비정규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2)</sup> 비정규직의 경우 상용직과 임시직은 기간제

21)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 규모 추정 방식에 기초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를 추계한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7개 설문 문항(한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한다. 이 방식에 의하면 임시직과 일용직에도 정규직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 비해 노동계에서는 임시직·일용직, 그리고 상용직 가운데 비정규직을 합쳐 전체 비정규직 규모를 추계한다. 이에 따라 2020년 8월 기준 비정규직의 규모를 정부는 743만 명(36.3%), 노동계는 850만 명(41.6%)으로 추계하고 있다.

22) 종사상 지위는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내지 가능상태에 따라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여섯

와 시간제를 중심으로 고용증가가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일용직은 일일근로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기간제를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하였다.

2020년 8월 기준 상용직의 경우 정규직이 1,183만 9천명으로 18만 8천명(1.6%) 증가하였고, 비정규직은 273만 1천명으로 9만 5천명(3.6%) 증가하였다.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34만 9천명)와 시간제(7만 1천명)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했고, 특수형태근로(4천명) 종사자만 고용이 감소했다.

〈표 3-9〉 종사상지위별·근로형태별 규모 변화

(단위: 천명)

구분	2019.8			2020.8			증감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임금노동자	14,287	4,857	1,415	14,570	4,539	1,337	283	-318	-78
정규직	11,651	1,335	92	11,839	1,079	102	188	-256	10
비정규직	2,636	3,521	1,323	2,731	3,460	1,235	95	-61	-88
•한시적 근로자	2,204	2,192	389	2,264	2,197	146	60	5	-243
-기간제	1,775	1,704	320	2,124	1,768	41	349	64	-279
-비기간제	429	488	69	140	429	105	-289	-59	36
•시간제	527	2,088	541	598	2,128	526	71	40	-15
•비전형근로자	467	751	827	478	664	931	11	-87	104
-파견근로	100	69	12	107	42	15	7	-27	3
-용역근로	336	186	94	344	154	54	8	-32	-40
-특수형태근로	24	480	25	20	445	34	-4	-35	9
-일일근로	0	0	748	0	0	896	0	0	148
-가정내근로	8	18	20	8	25	16	0	7	-4

주: 1) 임금노동자 전체 규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합임. 비정규직 각 유형(한시적, 비전형, 시간제)은 중복집계되므로, 비정규직 전체 규모 및 비중과 일치하지 않음. 비정규직 전체수는 이와 같은 중복을 제거하고 집계한 것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가치 범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임금근로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고용계약 미설정자 중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이고, 임시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또는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이며, 일용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이다.

임시직의 경우 정규직 25만 6천명(-19.2%), 비정규직이 6만 1천명(-1.7%) 감소했다.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6만 4천명), 시간제(4만명), 가정내근로(7천명) 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형태 종사자의 고용이 감소했다.

일용직의 경우는 정규직이 1만명(10.9%) 증가한데 비해, 비정규직은 8만 8천명(-6.7%) 감소했다. 비정규직 가운데 일일근로(14만 8천명), 특수형태근로(9천명), 파견근로(3천명)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형태 종사자의 고용이 감소했는데, 특히 기간제(27만 9천명)의 고용감소가 가장 컸다.

〈표 3-10〉 종사상지위별·근로형태별 비중 변화

(단위: %, %p)

구분	2019.8			2020.8			증감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임금노동자	69.5	23.6	6.9	71.3	22.2	6.5	1.8	-1.4	-0.4
정규직	81.6	27.5	6.5	81.3	23.8	7.6	-0.3	-3.7	1.1
비정규직	18.5	72.5	93.5	18.7	76.2	92.4	0.2	3.7	-1.1
•한시직 근로자	15.4	45.1	27.5	15.5	48.4	10.9	0.1	3.3	-16.6
-기간제	12.4	35.1	22.7	14.6	38.9	3.1	2.2	3.8	-19.6
-비기간제	3.0	10.1	4.8	1.0	9.5	7.8	-2.0	-0.6	3.0
•시간제	3.7	43.0	38.2	4.1	46.9	39.3	0.4	3.9	1.1
•비전형근로자	3.3	15.5	58.5	3.3	14.6	69.6	0.0	-0.9	11.1
-파견근로	0.7	1.4	0.9	0.7	0.9	1.1	0.0	-0.5	0.2
-용역근로	2.4	3.8	6.7	2.4	3.4	4.1	0.0	-0.4	-2.6
-특수형태근로	0.2	9.9	1.8	0.1	9.8	2.5	-0.1	-0.1	0.7
-일일근로	0.0	0.0	52.9	0.0	0.0	67.0	0.0	0.0	14.1
-가정내근로	0.1	0.4	1.4	0.1	0.6	1.2	0.0	0.2	-0.2

주: 1) 임금노동자 전체 규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합임. 비정규직 각 유형(한시직, 비전형, 시간제)은 중복집계되므로, 비정규직 전체 규모 및 비중과 일치하지 않음. 비정규직 전체수는 이와 같은 중복을 제거하고 집계한 것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8월 기준 근로형태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중이 상용직의 경우 18.7%로 전년 동기 대비 0.2%p 증가했고, 임시직은 76.2%로

3.7%p 증가했으며, 일용직은 92.4%로 1.1%p 감소했다.

#### ④ 사업체규모별 고용영향

사업체규모별 노동자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임시직은 100-299인(5천명), 일용직은 300인 이상(4천명)을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고용이 감소했는데, 특히 9인 이하(각각 20만 7천명, 5만 8천명)에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비해 상용직의 경우 4인 이하와 100-299인을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고용이 증가했다. 그 결과 300인 미만의 비중이 임시직은 증가했고, 일용직은 감소했으며, 상용직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규모별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상용직의 경우 4인 이하와 100-299인 사업체를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고용이 증가했고, 30~99인(15만 3천명), 10~29인(9만 1천명), 300인 이상(6만명)의 순으로 고용이 크게 증가했다. 임시직은 100-299인(5천명), 일용직은 300인 이상(4천명)을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고용이 감소했는데, 특히 9인 이하(각각 20만 7천명, 5만 8천명) 규모에서 크게 감소했다.

2020년 8월 기준 상용직은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 노동자가 1,202만 5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만 1천명(1.9%) 증가한데 비해 300인 이상은 254만 4천명으로 6만명(2.4%) 증가했다. 임시직의 경우는 300인 미만 439만 4천명으로 29만 4천명(-6.3%)이 감소했고, 300인 이상이 14만 4천명으로 2만 5천명(-14.8%)이 감소했다. 일용직의 경우는 300인 미만 노동자가 132만 5천명으로 8만 2천명(-5.8%)이 감소했고 300인 이상은 1만 2천명으로 4천명(50.0%)이 증가했다.

〈표 3-11〉 종사상지위별-기업규모별 노동자 수 변화

(단위: 천명)

구분	2019. 08				2020.08				증감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1-4인	3,783	1,433	1,701	650	3,648	1,420	1,596	631	-135	-13	-105	-19
5-9인	3,648	2,134	1,094	421	3,511	2,137	992	382	-137	3	-102	-39
10-29인	4,581	3,266	1,074	240	4,611	3,357	1,033	221	30	91	-41	-19
30-99인	3,896	3,199	622	75	3,997	3,352	571	73	101	153	-51	-2
100-299인	1,989	1,772	197	21	1,979	1,759	202	18	-10	-13	5	-3
300인 이상	2,661	2,484	169	8	2,700	2,544	144	12	39	60	-25	4
전체	20,559	14,288	4,857	1,415	20,446	14,570	4,539	1,337	-113	282	-318	-7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사업체규모별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8월 기준 상용직은 300인 미만의 비중이 82.6%(1202만 5천명)로 전년동기와 동일한데 비해 임시직은 96.9%(439만 4천명)로 0.4%p 증가했고, 일용직은 99.1%(132만 5천명)로 0.3%p 감소했다.

〈표 3-12〉 종사상지위별-기업규모별 비중 변화

(단위: %, %p)

구분	2019. 08				2020.08				증감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1-4인	18.4	10.0	35.0	45.9	17.8	9.8	35.2	47.2	-0.6	-0.2	0.2	1.3
5-9인	17.7	14.9	22.5	29.7	17.2	14.7	21.9	28.6	-0.5	-0.2	-0.6	-1.1
10-29인	22.3	22.9	22.1	17.0	22.6	23.0	22.8	16.5	0.3	0.1	0.7	-0.5
30-99인	19.0	22.4	12.8	5.3	19.5	23.0	12.6	5.5	0.5	0.6	-0.2	0.2
100-299인	9.7	12.4	4.1	1.5	9.7	12.1	4.4	1.3	0.0	-0.3	0.3	-0.2
300인 이상	12.9	17.4	3.5	0.6	13.2	17.5	3.2	0.9	0.3	0.1	-0.3	0.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⑤ 산업별 고용영향

산업별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상용직은 사업관리지원임대업 7만 6천명(9.1%), 보건·사회복지업 6만 9천명(4.3%), 건설업 5만 6천명(7.7%), 제조업 5만 2천명(1.5%)의 순으로 크게 증가하고, 도소매업과 기타개인서비스업에서 각각 1만 9천명(각각 -1.3%, -4.3%)이 감소했다.

〈표 3-13〉 종사상지위별·산업별 노동자 규모 변화

(단위: 천명)

구분	2019. 08				2020.08				증감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농림어업	123	34	43	45	120	36	44	40	-3	2	1	-5
광업	12	12	0	0	11	10	0	1	-1	-2	0	1
제조업	3,946	3,461	375	109	3,930	3,513	324	93	-16	52	-51	-16
전기가스증기	71	69	2	0	71	66	5	1	0	-3	3	1
수도하수	132	118	11	2	142	125	14	3	10	7	3	1
건설업	1,627	732	250	645	1,662	788	268	606	35	56	18	-39
도소매업	2,253	1,509	629	115	2,172	1,490	556	126	-81	-19	-73	11
운수창고	808	635	130	43	813	644	117	52	5	9	-13	9
숙박음식	1,446	483	759	204	1,306	472	645	189	-140	-11	-114	-15
정보통신	777	722	51	4	771	705	60	5	-6	-17	9	1
금융보험	761	509	248	4	749	520	227	2	-12	11	-21	-2
부동산업	406	263	132	11	363	268	87	7	-43	5	-45	-4
전문·과학기술	996	903	84	9	986	903	75	8	-10	0	-9	-1
사업관리지원임대	1,241	836	307	98	1,274	912	276	85	33	76	-31	-13
공공행정	1,079	755	317	7	1,134	761	369	4	55	6	52	-3
교육서비스	1,548	1,035	498	16	1,482	1,072	405	5	-66	37	-93	-11
보건·사회복지	2,173	1,622	542	9	2,328	1,691	626	12	155	69	84	3
예술·문화·여가	343	140	171	33	334	158	150	26	-9	18	-21	-7
기타개인서비스	726	437	245	45	677	418	200	59	-49	-19	-45	14
가구내고용 등	81	0	63	18	103	1	89	13	22	1	26	-5
국제기구	11	10	1	0	19	16	3	0	8	6	2	0
전 계	20,559	14,288	4,857	1,415	20,446	14,570	4,539	1,337	-113	282	-318	-78

주: 1)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임시직은 보건·사회복지업 8만 4천명(15.5%), 공공행정업 5만 2천명(16.4%), 가구내고용업 2만 6천명(41.3%), 건설업 1만 8천명(7.2%)의 순으로 크게 증가하고, 숙박음식업 11만 4천명(-15.0%), 교육서비스업 9만 3천명(-18.7%), 도소매업 7만 3천명(-11.6%), 제조업 5만 1천명(-13.6%)의 순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일용직은 기타개인서비스업 1만 4천명(31.1%), 도소매업 1만 1천명(9.6%) 등 8개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고용이 감소하였는데, 건설업 3만 9천명(-6.0%), 제조업 1만 6천명(-14.7%), 숙박음식업 1만 5천명(-7.4%), 사업관리지원임대업 1만 3천명(-13.3%), 교육서비스업 1만 1천명(68.8%)의 순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산업별 노동자 규모 및 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 8월 기준 상용직은 제조업 351만 3천명(24.1%), 보건·사회복지업 169만 1천명(11.6%), 도소매업 149만명(10.2%), 교육서비스업 107만 2천명(7.4%), 사업관리지원임대업 91만 2천명(6.3%), 전문과학기술업 90만 3천명(6.2%)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직의 경우는 5명 중 3명(260만 1천명, 57.2%)이 5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숙박음식업 64만 5천명(14.2%), 보건·사회복지업 62만 6천명(13.8%), 도소매업 55만 6천명(12.2%), 교육서비스업 40만 5천명(8.9%), 공공행정업 36만 9천명(8.1%)의 순으로 종사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직의 경우는 5명 중 3명(79만 5천명, 59.4%)이 2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설업 60만 6천명(45.3%), 숙박음식업 18만 9천명(14.1%), 도소매업 12만 6천명(9.4%), 제조업 9만 3천명(7.0%)의 순으로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종사상지위별 산업별 노동자 비중 변화

(단위: %, %p)

구분	2019. 08				2020.08				증감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농림어업	0.6	0.2	0.9	3.2	0.6	0.3	1.0	3.0	0.0	0.1	0.1	-0.2
광업	0.1	0.1	0.0	0.0	0.1	0.1	0.0	0.1	0.0	0.0	0.0	0.1
제조업	19.2	24.2	7.7	7.7	19.2	24.1	7.1	7.0	0.0	-0.1	-0.6	-0.7
전기가스증기	0.3	0.5	0.0	0.0	0.4	0.5	0.1	0.0	0.1	0.0	0.1	0.0
수도하수	0.6	0.8	0.2	0.2	0.7	0.9	0.3	0.2	0.1	0.1	0.1	0.0
건설업	7.9	5.1	5.2	45.6	8.1	5.4	5.9	45.3	0.2	0.3	0.7	-0.3
도소매업	11.0	10.6	13.0	8.2	10.6	10.2	12.2	9.4	-0.4	-0.4	-0.8	1.2
운수창고	3.9	4.5	2.7	3.0	4.0	4.4	2.6	3.9	0.1	-0.1	-0.1	0.9
숙박음식	7.0	3.4	15.6	14.4	6.4	3.2	14.2	14.1	-0.6	-0.2	-1.4	-0.3
정보통신	3.8	5.1	1.1	0.3	3.8	4.8	1.3	0.4	0.0	-0.3	0.2	0.1
금융보험	3.7	3.6	5.1	0.3	3.7	3.6	5.0	0.2	0.0	0.0	-0.1	-0.1
부동산업	2.0	1.8	2.7	0.8	1.8	1.8	1.9	0.6	-0.2	0.0	-0.8	-0.2
전문·과학기술	4.8	6.3	1.7	0.6	4.8	6.2	1.7	0.6	0.0	-0.1	0.0	0.0
사업관리지원임대	6.0	5.9	6.3	6.9	6.2	6.3	6.1	6.4	0.2	0.4	-0.2	-0.5
공공행정	5.2	5.3	6.5	0.5	5.6	5.2	8.1	0.3	0.4	-0.1	1.6	-0.2
교육서비스	7.5	7.2	10.3	1.1	7.3	7.4	8.9	0.4	-0.2	0.2	-1.4	-0.7
보건사회복지	10.6	11.4	11.2	0.6	11.4	11.6	13.8	0.9	0.8	0.2	2.6	0.3
예술및여가	1.7	1.0	3.5	2.3	1.6	1.1	3.3	2.0	-0.1	0.1	-0.2	-0.3
기타개인서비스	3.5	3.1	5.0	3.2	3.3	2.9	4.4	4.4	-0.2	-0.2	-0.6	1.2
가구내고용 등	0.4	0.0	1.3	1.3	0.5	0.0	2.0	1.0	0.1	0.0	0.7	-0.3
국제기구	0.1	0.1	0.0	0.0	0.1	0.1	0.1	0.0	0.0	0.0	0.1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코로나19 전후 산업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상용직의 경우 사업관리지원임대업(0.4%p)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도소매업(-0.4%p)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임시직의 경우는 보건사회복지업(2.6%p)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숙박음식업(-1.4%p)과 교육서비스업(-1.4%)의 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일용직은 도소매업(1.2%p)과 기타개인서비스업(1.2%p)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제조업(-0.7%p)과 교육서비스업(-0.7%p)의 비중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 2. 종사상지위별 임금수준 변화

### 1) 종사상지위별 임금수준

코로나19 이전 대비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의하면 월평균임금의 경우 상용직은 증가한데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은 감소하고, 시간당 임금은 상용직의 상승폭이 임시직과 일용직보다 2.5~11.2배 높았다.

2020년 6~8월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상용직은 317만 7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9천원(0.9%) 증가한데 비해, 임시직은 144만 9천원으로 같은 기간 4만 6천원(-3.1%) 감소했고, 일용직은 145만 6천원으로 1만 6천원(-1.1%) 감소했다.

시간당 임금은 상용직이 17,72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2원(1.7%) 증가하였고, 임시직은 10,529원으로 27원(0.3%) 증가했으며, 일용직은 10,069원으로 121원(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종사상지위별 월평균 임금수준 변화(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만원, %)

구분	'19.6-8월 평균	'20.6-8월 평균	증감	증감률
임금노동자	264.3	268.1	3.8	1.4
상용직	314.8	317.7	2.9	0.9
임시직	149.5	144.9	-4.6	-3.1
일용직	147.2	145.6	-1.6	-1.1

주: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3-16〉 종사상지위별 시간당 임금수준 변화(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원, %)

구분	'19.6-8월 평균	'20.6-8월 평균	증감	증감률
임금노동자	15,274	15,627	353	2.3
상용직	17,423	17,725	302	1.7
임시직	10,502	10,529	27	0.3
일용직	9,948	10,069	121	1.2

주: 1)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2)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2) 종사상지위별 임금격차와 저임금 비율 변화

코로나19 전후 상용직과 임시직·일용직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었으며,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저임금노동자 수가 증가했고(시간당임금기준), 저임금 노동자비중이 증가했다(월평균임금 기준 상용직 제외).

상용직의 월평균임금은 2016년 이래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2019년까지 상승하다 2020년 하락했다. 이에 따라 상용직과 임시직간의 월평균임금 격차는 2016년 이래 감소 및 증가를 반복했는데 2019년 감소했다가 2020년 다시 확대되었고, 상용직과 일용직간의 월평균임금 격차는 2019년까지 점차 감소했다가 2020년 확대되었다.

상용직의 월평균임금은 2016년 290만 9천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9년 314만 8천원, 2020년 317만 7천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임시직은 2016년 135만 8천원에서 2019년 149만 5천원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 114만 9천원으로 감소했다. 일용직은 2016년 121만 4천원에서 2019년 147만 2천원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 145만 6천원으로 감소했다.

상용직 대비 임시직의 월평균임금은 2016년 46.7%에서 2017년 48.1%로 격차 감소, 2018년 46.7%로 격차가 확대됐다가 2019년 47.5%로 격차가

약간 줄어들었으나 2020년 45.6%로 격차가 다시 커졌다. 상용직 대비 일용직의 월평균임금은 2016년 41.7%에서 점차 격차가 감소하여 2019년 46.8%가 되었으나 2020년 45.8%로 격차가 다시 확대되었다.

**〈표 3-17〉 연도별 종사상지위별 월 평균 임금 및 격차(상용직=100)**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만원, %)

구분	금액					격차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임금노동자	237.2	243.0	255.8	264.3	268.1	81.5	83.0	83.3	84.0	84.4
상용직	290.9	292.8	307.0	314.8	317.7	100.0	100.0	100.0	100.0	100.0
임시직	135.8	140.9	143.3	149.5	144.9	46.7	48.1	46.7	47.5	45.6
일용직	121.4	132.8	141.7	147.2	145.6	41.7	45.4	46.2	46.8	45.8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상용직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각 종사상지위별 상대임금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시간당임금은 상용직은 2017년 이래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2016년 이래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상용직과 임시직·일용직간의 시간당임금 격차는 2019년까지 줄다가 2020년 다시 확대되었다.

상용직의 시간당임금은 2016년 16,097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9년 17,423원, 2020년 17,725원으로 증가했다. 임시직은 2016년 8,541원에서 2019년 10,502원, 2020년 10,529원으로 증가했으며, 일용직은 2016년 7,882원에서 2019년 9,948원, 2020년 10,069원으로 증가했다.

상용직 대비 임시직의 시간당 임금은 2016년 53.1%에서 2019년 60.3%로 격차가 줄어들었다가 2020년 59.4%로 격차가 다시 커졌다. 상용직 대비 일용직의 시간당임금은 2016년 49.0%에서 2019년 57.1%로 격차가 줄어들었다가 2020년 56.8%로 격차가 다시 커졌다.

〈표 3-18〉 연도별 종사상지위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상용직=100)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원, %)

구분	금액					격차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임금노동자	13,486	13,754	14,607	15,274	15,627	83.8	85.5	86.3	87.7	88.2
상용직	16,097	16,078	16,930	17,423	17,725	100.0	100.0	100.0	100.0	100.0
임시직	8,541	9,022	9,581	10,502	10,529	53.1	56.1	56.6	60.3	59.4
일용직	7,882	8,529	9,121	9,948	10,069	49.0	53.0	53.9	57.1	56.8

주: 1)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2)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3) 상용직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각 종사상지위별 상대임금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코로나19 전후 임금수준별 노동자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월평균임금 기준으로는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저임금노동자와 고임금노동자 규모가 감소하였고, 시간당 임금기준으로는 모든 종사상지위에서 저임금노동자 규모가 증가하고, 고임금노동자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종사상지위에서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고(월평균임금기준 상용직 제외), 고임금노동자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2020년 기준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상용직은 6.1%인데 비해, 임시직은 45.2~58.1%, 일용직은 45.8~6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노동자 5명 중 약 1명이 저임금노동자이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2명 중 약 1명 이상이 저임금노동자이다.

코로나19 전후 월평균 임금기준 저임금노동자의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8월 기준 상용직 가운데 저임금노동자는 88만 4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7천명(-3.0%)이 감소했고, 임시직은 263만 8천명으로 6만 2천명(-2.3%)이 감소했으며, 일용직은 81만 8천명으로 9천명(-1.1%)이 감소했다. 그리고 고임금노동자는 상용직은 406만 3천명으로 43만 2천명(-9.6%)이 감소했고, 임시직은 14만명으로 5만 2천명(-27.1%)이 감소했으며, 일용직은 3만 1천명으로 2만명(-39.2%)이 감소했다.

〈표 3-19〉 종사상지위별 임금수준별 노동자 규모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천명)

구분	2019			2020			증감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임금노동자	4,438	11,383	4,738	4,339	11,873	4,234	-99	490	-504
상용직	911	8,882	4,495	884	9,623	4,063	-27	741	-432
임시직	2,700	1,965	192	2,638	1,761	140	-62	-204	-52
일용직	827	536	51	818	489	31	-9	-47	-20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위임금의 2/3 수준 이상~3/2 수준 미만, 고임금은 중위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월평균 임금기준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상용직은 6.1%로 전년 동기 대비 0.3%p 감소한데 비해, 임시직은 58.1%로 2.5%p 증가했고, 일용직은 61.1%로 2.6%p 증가했다. 고임금노동자의 비중은 상용직이 27.9%로 같은 기간 -3.6%p 감소했고, 임시직이 3.1%로 -0.8%p 감소했으며, 일용직이 2.3%로 -1.3%p 감소했다.

〈표 3-20〉 종사상지위별 임금수준별 노동자 비중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 %p)

구분	2019			2020			증감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임금노동자	21.6	55.4	23.0	21.2	58.1	20.7	-0.4	2.7	-2.3
상용직	6.4	62.2	31.5	6.1	66.1	27.9	-0.3	3.9	-3.6
임시직	55.6	40.5	3.9	58.1	38.8	3.1	2.5	-1.7	-0.8
일용직	58.5	37.9	3.6	61.1	36.5	2.3	2.6	-1.4	-1.3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위임금의 2/3 수준 이상~3/2 수준 미만, 고임금은 중위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코로나19 전후 시간당 임금 기준 저임금노동자의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8월 기준 상용직은 88만 4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 9천명(14.1%)이 증가하였고, 임시직은 205만 4천명으로 14만 3천명(7.5%)이 증가하였으며, 일용직은 61만 3천명으로 5만 7천명(10.3%)이 증가했다. 그리고 고임금노동자는 상용직은 440만 6천명으로 3만 2천명(-0.7%)이 감소했고, 임시직은 26만 1천명으로 5만 1천명(-16.3%)이 감소했으며, 일용직은 5만 5천명으로 2만명(-26.7%)이 감소했다.

〈표 3-21〉 종사상지위별·임금수준별 노동자 규모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천명)

구분	2019			2020			증감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임금노동자	3,242	12,492	4,824	3,550	12,172	4,723	308	-320	-101
상용직	775	9,074	4,438	884	9,279	4,406	109	205	-32
임시직	1,911	2,634	312	2,054	2,224	261	143	-410	-51
일용직	556	784	75	613	669	55	57	-115	-20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간은 중위임금의 2/3 수준 이상~3/2 수준 미만, 고임금은 중위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시간당 임금기준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상용직은 6.1%로 전년 동기 대비 0.7%p 증가한데 비해, 임시직은 45.2%로 5.8%p 증가했고, 일용직은 45.8%로 6.5%p 증가했다. 고임금노동자의 비중은 상용직이 30.2%로 같은 기간 -0.9%p, 임시직이 5.8%로 -0.6%p, 일용직이 4.1%로 -1.2%p 감소했다.



〈표 3-22〉 종사상지위별 임금수준별 노동자 비중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 %p)

구분	2019			2020			증감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임금노동자	15.8	60.8	23.5	17.4	59.5	23.1	1.6	-1.3	-0.4
상용직	5.4	63.5	31.1	6.1	63.7	30.2	0.7	0.2	-0.9
임시직	39.4	54.2	6.4	45.2	49.0	5.8	5.8	-5.2	-0.6
일용직	39.3	55.4	5.3	45.8	50.0	4.1	6.5	-5.4	-1.2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간은 중위임금의 2/3 수준 이상~3/2 수준 미만, 고임금은 중위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저임금노동자의 규모는 월평균 임금기준으로는 모든 종사상지위에서 2016년 이래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9년 증가, 2020년 다시 감소했고, 시간당 임금기준으로는 상용직과 임시직은 2018년까지 감소하다 이후 증가하였고, 일용직은 2019년까지 감소하다 2020년 증가하였다.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은 월평균 임금기준으로는 모든 종사상지위에서 2016년 이래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9년 증가했다가, 2020년 상용직은 감소한데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에서는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기준으로는 모든 종사상지위에서 2016년 이래 감소 추세를 보이다 상용직과 임시직은 2019년부터 증가하였고, 일용직은 2019년까지 감소하다 2020년 증가하였다.

월평균 임금기준으로 고용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상용직은 2017년 16만 3천명(-16.7%) 감소, 2018년 23만 9천명(-29.4%) 감소했다가 2019년 33만 8천명(59.0%) 증가했으나 다시 2020년 2만 7천명(-3.0%) 감소했다. 임시직은 2017년 30만 8천명(-10.9%) 감소, 2018년 17만 7천명(-7.1%) 감소했다가 2019년 37만 명(15.9%) 증가했으나 다시 2020년 6만 2천명(-2.3%) 감소했다. 일용직은 2017년 13만 6천명(-14.9%) 감소, 2018년 8만 5천명

(-11.0%) 감소했다가 2019년 13만 8천명(20.0%) 증가했으나 다시 2020년 9천명(-1.1%)이 감소했다.

**〈표 3-23〉 연도별 종사상지위별 저임금노동자 규모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임금노동자	4,699	4,093	3,591	4,438	4,339
상용직	975	812	573	911	884
임시직	2,815	2,507	2,330	2,700	2,638
일용직	910	774	689	827	818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3-24〉 연도별 종사상지위별 저임금노동자 규모 변화(전년 대비 증감률)  
(월평균임금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전년 동기 대비 규모 변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7	'18	'19	'20	'17	'18	'19	'20
임금노동자	-606	-502	847	-99	-12.9	-12.3	23.6	-2.2
상용직	-163	-239	338	-27	-16.7	-29.4	59.0	-3.0
임시직	-308	-177	370	-62	-10.9	-7.1	15.9	-2.3
일용직	-136	-85	138	-9	-14.9	-11.0	20.0	-1.1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월평균 임금기준으로 비중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상용직은 2016년 7.5%에서 2018년 4.2%까지 감소하다 2019년 6.4%로 증가했으나 2020년 6.1%로 다시 감소하였다. 임시직은 2016년 54.0%에서 2018년 48.0%까지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여 2019년 55.6%, 2020년 58.1%를 기록했다. 일용직은 2016년 61.5%에서 2018년 49.5%까지 감소했다가 2019년 58.5%, 2020

년 61.1%로 증가했다.

〈표 3-25〉 연도별 종사상지위별 저임금노동자 비중 변화(월평균임금 기준)

(단위: %, %p)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임금노동자	23.8	20.5	17.9	21.6	21.2
상용직	7.5	6.0	4.2	6.4	6.1
임시직	54.0	49.7	48.0	55.6	58.1
일용직	61.5	53.6	49.5	58.5	61.1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시간당 임금기준으로 저임금노동자의 고용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상용직은 2017년 7천명(-0.6%), 2018년 48만 명(-41.0%) 감소했다가 2019년 8만 3천명(12.0%), 2020년 10만 9천명(14.1%) 증가했다. 임시직은 2017년 19만 8천명(-7.6%), 2018년 52만 5천명(-21.7%) 감소했다가 2019년 1만 8천명(1.0%), 2020년 14만 3천명(7.5%) 증가했다. 일용직은 2017년 10만 1천명(-12.7%), 2018년 12만 8천명(-18.5%), 2019년 9천명(-1.6%) 감소하다 2020년 5만 7천명(10.3%)이 증가했다.

〈표 3-26〉 연도별 종사상지위별 저임금노동자 규모 변화(시간당임금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16	'17	'18	'19	'20
임금노동자	4,589	4,282	3,150	3,242	3,550
상용직	1,179	1,172	692	775	884
임시직	2,616	2,418	1,893	1,911	2,054
일용직	794	693	565	556	613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3-27〉 연도별 종사상시위별 저임금노동자 규모 변화(전년 대비 증감률)  
(시간당임금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전년 동기 대비 규모 변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7	'18	'19	'20	'17	'18	'19	'20
임금노동자	-307	-1,132	92	308	-6.7	-26.4	2.9	9.5
상용직	-7	-480	83	109	-0.6	-41.0	12.0	14.1
임시직	-198	-525	18	143	-7.6	-21.7	1.0	7.5
일용직	-101	-128	-9	57	-12.7	-18.5	-1.6	10.3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시간당 임금기준으로 비중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상용직은 2016년 9.0%에서 2018년 5.0%까지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여 2020년 6.1%로 나타났다. 임시직은 2016년 50.2%에서 2018년 39.0%까지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여 2020년 45.2%로 나타났다. 일용직은 2016년 53.7%에서 2019년 39.3%로 까지 감소했다가 2020년 45.8%로 증가했다.

〈표 3-28〉 연도별 종사상시위별 저임금노동자 비중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 %p)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임금노동자	23.3	21.4	15.7	15.8	17.4
상용직	9.0	8.7	5.0	5.4	6.1
임시직	50.2	47.9	39.0	39.4	45.2
일용직	53.7	48.0	40.6	39.3	45.8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고임금노동자의 규모와 비중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월평균임금 기준 상용직은 2017년 증가했다가 2018년부터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2017년 증가, 2018년 감소, 2019년 증가, 2020년 감소하는 등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시간당임금 기준으로 상용직은 2017년 감소했다가 2018년 증가했으나 2019년부터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임시직과 일용직은 2017년 감소한 후 2018년부터 증가했으나 2020년 다시 감소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 기초하여 월평균 임금기준으로 고임금노동자의 규모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상용직은 2017년 29만 3천명(5.6%) 증가했다가, 2018년 72만 2천명(-13.2%), 2019년 26만 7천명(-5.6%), 2020년 43만 2천명(-9.6%) 감소했다(〈부표 3-2〉 참조). 임시직은 2017년 3만 5천명(13.9%) 증가, 2018년 13만 2천명(-46.2%) 감소, 2019년 3만 8천명(24.7%) 증가했으나 다시 2020년 5만 2천명(-27.1%) 감소했다. 일용직은 2017년 9천명(13.6%) 증가, 2018년 2만 7천명(-36.0%) 감소했다가 2019년 3천명(6.3%) 증가했으나 다시 2020년 2만 명(-39.2%) 이 감소했다.

월평균 임금기준으로 고임금노동자의 비중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상용직은 2016년 39.8%에서 2017년 40.6%로 증가했다가 2018년부터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임시직은 2016년 4.8%에서 2017년 5.7%로 증가, 2018년 3.2%, 2019년 3.9%, 2020년 3.1%로 증감을 반복하였다. 일용직 역시 2016년 4.5%에서 2017년 5.2%, 2018년 3.5%, 2019년 3.6%, 2020년 2.3%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부표 3-3〉 참조).

시간당 임금기준으로 고임금노동자의 규모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상용직은 2017년 74만 3천명(-15.3%) 감소, 2018년 40만 2천명(9.8%) 증가, 2019년 8만 3천명(-1.8%) 감소, 2020년 3만 2천명(-0.7%) 감소했다(〈부표

3-5) 참조). 임시직은 2017년 5만 1천명(-17.0%) 감소, 2018년 9천명(3.6%) 증가, 2019년 5만 4천명(20.9%) 증가했다가, 2020년 5만 1천명(-16.3%) 감소했다. 일용직은 2017년 1만 3천명(-21.3%) 감소, 2018년 1만 2천명(25.0%) 증가, 2019년 1만 5천명(25.0%) 증가했다가 2020년 2만 명(-26.7%)이 감소했다.

시간당 임금기준으로 고임금노동자의 비중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상용직은 2016년 37.3%에서 2017년 30.5%로 감소, 2018년 32.8%로 증가했다가 2019년 31.1%, 2020년 30.2%로 감소추이를 보였다. 임시직은 2016년 5.8%에서 2017년 4.9%로 감소했다가 다시 2018년 5.3%, 2019년 6.4%로 증가한 후 2020년 5.8%로 감소했다. 일용직은 2016년 4.1%에서 2017년 3.3%로 감소했다가 다시 2018년 4.3%, 2019년 5.3%로 증가한 후 2020년 4.1%로 감소했다(〈부표 3-6〉 참조).

### 3. 종사상지위별 노동실태 변화

#### 1) 취업시간

코로나19 전후 주당 평균노동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임시직은 감소한 반면, 상용직과 일용직은 증가하였다.

2020년 8월 임금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임시직이 32.7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시간(-3.0%) 감소한 반면, 상용직은 42.7시간으로 0.3시간(0.7%), 일용직은 34.3시간으로 0.1시간(0.3%)이 증가했다.

〈표 3-29〉 연도별 종사상지위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변화

(단위: 시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임금노동자	40.9	40.9	40.4	39.8	39.1
상용직	43.7	43.9	43.5	42.4	42.7
임시직	35.2	34.8	34.1	33.7	32.7
일용직	37.6	37.4	36.0	34.2	34.3

주: 1) 주된 직장(일)의 평소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주당 평균노동시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상용직은 2017년 증가했다가 2018년부터, 임시직과 일용직은 2017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다 2020년 상용직과 일용직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표 3-30〉 연도별 종사상지위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변화(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천명, %)

구분	전년 동기 대비 규모 변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7	'18	'19	'20	'17	'18	'19	'20
임금노동자	0.0	-0.5	-0.6	-0.7	0.0	-1.2	-1.5	-1.8
상용직	0.2	-0.4	-1.1	0.3	0.5	-0.9	-2.5	0.7
임시직	-0.4	-0.7	-0.4	-1.0	-1.1	-2.0	-1.2	-3.0
일용직	-0.2	-1.4	-1.8	0.1	-0.5	-3.7	-5.0	0.3

주: 1) 주된 직장(일)의 평소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주당 평균 노동시간 계층별 변화를 살펴보면, 41시간 이상 노동자의 규모와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상용직은 36-40시간 종사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한데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노동자와 15-3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했다. 그리고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장시간 노동자가 크게 감소했는데, 상용직은 49-52시간(14만 2천명), 52시간 초과(12만 2천명)의 순으로 고용 감소규모가 컸고, 임시

직과 일용직 모두 52시간 초과(각각 12만 2천명, 2만 5천명) 노동자의 고용 감소규모가 가장 컸다.

〈표 3-31〉 종사상지위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별 노동자 규모 변화

(단위: 천명, %)

구분		15시간 미만	15-35 시간	36-40 시간	41-44 시간	45-48 시간	49-52 시간	52시간 초과	전체
2019	전체	932	2,422	11,497	438	2,313	1,542	1,414	20,559
	상용	25	603	9,508	346	1,744	1,167	894	14,288
	임시	777	1,361	1,433	84	445	303	453	4,857
	일용	130	457	555	9	125	72	67	1,415
2020	전체	992	2,569	11,849	410	2,157	1,324	1,145	20,446
	상용	28	700	10,028	331	1,687	1,025	772	14,570
	임시	831	1,400	1,337	69	346	224	331	4,539
	일용	133	469	484	10	124	75	42	1,337
증감	전체	60	147	352	-28	-156	-218	-269	-113
	상용	3	97	520	-15	-57	-142	-122	283
	임시	54	39	-96	-15	-99	-79	-122	-318
	일용	3	12	-71	1	-1	3	-25	-78
증감률	전체	6.4	6.1	3.1	-6.4	-6.7	-14.1	-19.0	-0.5
	상용	12.0	16.1	5.5	-4.3	-3.3	-12.2	-13.6	2.0
	임시	6.9	2.9	-6.7	-17.9	-22.2	-26.1	-26.9	-6.5
	일용	2.3	2.6	-12.8	11.1	-0.8	4.2	-37.3	-5.5

주: 1) 주된 직장(일)의 평소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상용직의 경우 49-52시간 14만 2천명(-12.2%), 52시간 초과 12만 2천명 (-13.6%), 45-48시간 5만 7천명(-3.3%), 41-44시간 1만 5천명(-4.3%)의 순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비해 36-40시간 52만 명(5.5%), 15-35시간 9만 7천명(16.1%), 15시간 미만 3천명(12.0%)이 증가했다. 임시직은 52시간 초과 12만 2천명(-26.9%), 45-48시간 9만 9천명(-22.2%), 36-40시간 9만 6천명 (-6.7%), 49-52시간 7만 9천명(-26.1%), 41-44시간 1만 5천명(-17.9%)의



순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비해 15시간 미만 5만 4천명(6.9%), 15-35시간 3만 9천명(2.9%)이 증가했다. 일용직은 36-40시간 7만 1천명(-12.8%), 52시간 초과 2만 5천명(-37.3%), 45-48시간 1천명(-0.8%)의 순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비해 15-35시간 1만 2천명(2.6%), 15시간 미만 3천명(2.3%), 49-52시간 3천명(4.2%), 41-44시간 1천명(11.1%)이 증가했다.

상용직은 2020년 8월 전년 동기 대비 41시간 이상 노동자가 33만 6천명 감소하고, 40시간 이하 노동자가 62만명 증가했다. 이에 비해 임시직은 41시간 이상 노동자가 31만 4천명, 40시간 이하 노동자가 3천명 감소했으며, 일용직은 40시간이하 노동자 5만 6천명, 41시간 이상 노동자 2만 2천명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41시간 이상 노동자의 비중이 감소했다. 상용직은 41시간 이상 노동자의 비중이 26.2%로 전년 대비 -3.1%p 감소했으며, 임시직은 21.4%로 -2.9%p, 일용직은 18.8%로 -0.5%p 감소했다.

〈표 3-32〉 종사상지위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분포 변화

(단위: %, %p)

구분	2019. 08				2020.08				증감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15시간 미만	4.5	0.2	16.0	9.2	4.9	0.2	18.3	9.9	0.4	0.0	2.3	0.7
15-35시간	11.8	4.2	28.0	32.3	12.6	4.8	30.8	35.1	0.8	0.6	2.8	2.8
36-40시간	55.9	66.6	29.5	39.3	58.0	68.8	29.5	36.2	2.1	2.2	0.0	-3.1
41-44시간	2.1	2.4	1.7	0.6	2.0	2.3	1.5	0.8	-0.1	-0.1	-0.2	0.2
45-48시간	11.3	12.2	9.2	8.8	10.6	11.6	7.6	9.3	-0.7	-0.6	-1.6	0.5
49-52시간	7.5	8.2	6.3	5.1	6.5	7.0	4.9	5.6	-1.0	-1.2	-1.4	0.5
52시간 초과	6.9	6.3	9.3	4.7	5.6	5.3	7.3	3.2	-1.3	-1.0	-2.0	-1.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주: 1) 주된 직장(일)의 평소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2) 근속기간

평균 근속기간은 상용직만 증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감소했다. 현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이 상용직은 7.8년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년 증가하였으나, 임시직은 1.9년으로 0.2년 감소하고, 일용직은 0.2년으로 0.1년 감소했다.

평균 근속년수별로 고용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6개월 미만, 5-10년 미만의 경우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고용이 감소했다. 그리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대체로 근속이 짧은 노동자들에게 고용충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6개월-1년 미만 임시직 제외).

상용직의 경우 6개월 미만 13만 4천명(-9.6%), 5-10년 미만 1만 6천명(-0.6%), 6개월-1년 미만 9천명(-0.8%)의 순으로 감소규모가 컸다. 이에 비해 10년 이상 19만 4천명(4.8%), 2-3년 미만 15만 7천명(12.3%), 1-2년 미만 6만 8천명(3.7%)의 순으로 증가규모가 컸다. 임시직의 경우 6개월-1년 미만에서 10만 6천명(12.2%)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기간에서 고용이 감소했는데, 6개월 미만 15만 1천명(-8.1%), 1-2년 미만 12만 5천명(-15.6%), 5-10년 미만 5만 5천명(-15.6%), 3-5년 미만 5만명(-13.2%)의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일용직의 경우는 3-5년 미만에서 6천명 증가(300.0%)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근속기간대에서 고용이 감소했고, 특히 6개월 미만 5만 3천명(-4.2%), 6개월-1년 미만 1만 3천명(-17.8%), 1-2년 미만 1만 2천명(-28.6%)의 순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 3-33〉 종사상지위별 평균 근속년수별 노동자 규모 변화

(단위: 천명, %)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
'19	전체	4,536	2,092	2,661	1,685	2,250	3,069	4,266	20,559
	상용	1,397	1,151	1,818	1,274	1,869	2,709	4,070	14,288
	임시	1,870	868	801	397	379	352	190	4,857
	일용	1,269	73	42	14	2	8	7	1,415
'20	전체	4,198	2,176	2,592	1,808	2,229	2,994	4,449	20,446
	상용	1,263	1,142	1,886	1,431	1,891	2,693	4,264	14,570
	임시	1,719	974	676	365	329	297	178	4,539
	일용	1,216	60	30	12	8	4	6	1,337
증감	전체	-338	84	-69	123	-21	-75	183	-113
	상용	-134	-9	68	157	22	-16	194	283
	임시	-151	106	-125	-32	-50	-55	-12	-318
	일용	-53	-13	-12	-2	6	-4	-1	-78
증감률	전체	-7.5	4.0	-2.6	7.3	-0.9	-2.4	4.3	-0.5
	상용	-9.6	-0.8	3.7	12.3	1.2	-0.6	4.8	2.0
	임시	-8.1	12.2	-15.6	-8.1	-13.2	-15.6	-6.3	-6.5
	일용	-4.2	-17.8	-28.6	-14.3	300.0	-50.0	-14.3	-5.5

주: 1) 주된 직장(일)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근속년수 계층별 분포를 살펴보면 2020년 8월 기준 상용직은 10년 이상(29.3%)이 가장 많고, 5-10년 미만(18.5%), 3-5년 미만(13.0%)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이에 비해 임시직은 6개월 미만(37.9%), 6개월-1년 미만(21.5%), 1-2년 미만(14.9%)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고, 근속 2년 미만자가 임시직의 7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직은 6개월 미만이 91.0%에 이르고, 2년 미만은 9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년수 계층별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상용직은 1-2년 미만, 2-3년 미만, 10년 이상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비중이 감소했는데, 특히 6개월 미만(-1.1%p)의 감소비중이 가장 컸다. 임시직의 경우 6개월-1년 미만(3.6%p)

의 비중만이 증가했고, 특히 1-2년 미만(-1.6%p)의 감소비중이 가장 컸다. 일용직은 6개월 미만(1.3%p)의 증가비중이 가장 컸고, 1-2년 미만(-0.8%p)의 감소비중이 가장 컸다.

〈표 3-34〉 종사상지위별 근속년수 평균값과 계층별 분포 변화

(단위: 년, %, %p)

구분	2019. 08				2020.08				증감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평균값	5.9	7.7	2.1	0.3	6.0	7.8	1.9	0.2	0.1	0.1	-0.2	-0.1
중위값	2.5	4.4	0.7	0.0	2.6	4.5	0.6	0.0	0.1	0.1	-0.1	0.0
6개월 미만	22.1	9.8	38.5	89.7	20.5	8.7	37.9	91.0	-1.6	-1.1	-0.6	1.3
6개월 -1년 미만	10.2	8.1	17.9	5.2	10.6	7.8	21.5	4.5	0.4	-0.3	3.6	-0.7
1-2년 미만	12.9	12.7	16.5	3.0	12.7	12.9	14.9	2.2	-0.2	0.2	-1.6	-0.8
2-3년 미만	8.2	8.9	8.2	1.0	8.8	9.8	8.0	0.9	0.6	0.9	-0.2	-0.1
3-5년 미만	10.9	13.1	7.8	0.2	10.9	13.0	7.3	0.6	0.0	-0.1	-0.5	0.4
5-10년 미만	14.9	19.0	7.2	0.6	14.6	18.5	6.6	0.3	-0.3	-0.5	-0.6	-0.3
10년 이상	20.8	28.5	3.9	0.5	21.8	29.3	3.9	0.5	1.0	0.8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주: 1) 주된 직장(일)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3) 비자발적 취업

상용직과 임시직 및 일용직 간 비자발적 취업자의 규모와 비중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과 임시직은 전년 동기 대비 비자발적 취업자의 규모와 비중이 감소한데 비해, 일용직은 비자발적 취업자의 규모는 감소했으나 비중은 증가했다.

지난주 일자리 형태를 비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노동자의 수가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감소하였다. 상용직은 23만 8천명(-8.6%), 임시직은 17만 7천명

(-7.7%), 일용직은 5만 8천명(-5.4%)이 감소했다.

비자발적 취업자의 비중이 상용직은 12.9%로 전년 동기 대비 1.9%p 감소했고, 임시직은 46.7%로 같은 기간 0.6%p 감소했으며, 일용직은 76.6%로 0.1%p 증가했다.

〈표 3-35〉 종사상지위별 비자발적 취업자 규모 및 비중 변화

(단위: 천명, %)

구분	2019.8		2020.8		증감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증감률
임금노동자	5,500	26.8	5,027	24.6	-473	-8.6
상용직	2,119	14.8	1,881	12.9	-238	-11.2
임시직	2,299	47.3	2,122	46.7	-177	-7.7
일용직	1,082	76.5	1,024	76.6	-58	-5.4

주: 1) 비자발적 사유는 주된 취업 사유가 ③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④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혹은 ⑤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인 경우이거나, 주된 취업 사유가 ⑥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⑦ 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⑧ 학업·학원수강·직업훈련·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⑨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⑩ 근무시간을 신중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⑪ 그 외 기타 사유인 응답자 중 취업동기가 비자발적이라고 응답한 경우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4. 종사상지위별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 변화

##### 1) 사회보험 가입률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증가한데 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하락했고, 상용직과 임시직·일용직간 사회보험 가입률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살펴보면, 상용직은 84.7%~98.0%에 이르는데 비해, 임시직은 22.3%~30.9%, 일용직

은 0.4%~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증가한데 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감소했다.

상용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84.7%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데 비해, 국민연금은 90.9%로 1.1%p, 건강보험은 98.0%로 0.3%p 하락하였다. 임시직은 고용보험 30.4%로 전년 동기 대비 0.4%p증가한데 비해, 국민연금은 22.3%로 0.8%p, 건강보험은 30.9%로 0.3%p 하락하였다. 일용직은 고용보험 5.7%로 전년 동기 대비 0.2%p증가한데 비해, 국민연금은 0.4%로 0.2%p, 건강보험은 0.5%로 0.1%p 하락하였다.

〈표 3-36〉 종사상지위별 사회보험 가입률 변화

(단위: %, %p)

구분	2019. 8				2020.8				증감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국민연금	69.5	92.0	23.1	0.6	69.8	90.9	22.3	0.4	0.3	-1.1	-0.8	-0.2
건강보험	75.7	98.3	31.2	0.6	76.7	98.0	30.9	0.5	1.0	-0.3	-0.3	-0.1
고용보험	65.8	84.0	30.0	5.5	67.5	84.7	30.4	5.7	1.7	0.7	0.4	0.2

주: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지역가입자, 의료수급권자 및 직장가입피부양자는 제외)

2) 국민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포함

3) 고용보험의 경우 통계청은 2010년부터 특수직역연금 대상(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을 제외한 고용보험가입률을 발표하고 있어 수치의 차이가 존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2) 근로복지 수혜율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상여금 수혜비율이 감소했고, 임시직은 퇴직급여와 유급휴일 수혜비율이 하락했으며, 일용직은 퇴직급여와 교육훈련 경험 수혜비율이 하락했다. 그리고 상용직과 임시직 및 일용직간 근로복지 수혜율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상여금 교육훈련 등 근로복지 수혜율을 살펴

보면 상용직은 61.0~99.0%가 적용받지만, 임시직은 12.0~36.2%, 일용직은 0.6~9.6%만이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은 시간외수당 64.8%, 유급휴일 86.7%, 퇴직급여 99.0%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p, 0.6%p, 0.1%p 증가한 반면, 상여금 88.8%, 교육훈련경험 61.0%로 각각 0.7%p, 3.3%p 하락했다.

임시직은 시간외수당 14.5%, 교육훈련경험 36.2%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8%p 증가한 반면, 유급휴일 12.6%, 퇴직급여 12.0%, 상여금 23.7%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3%p, 9.8%p, 3.1%p 하락했다.

일용직은 시간외수당 9.6%로 전년 동기 대비 0.2%p 증가했고, 퇴직급여 0.6%, 상여금 4.3%, 교육훈련경험 9.6%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p, 0.3%p, 2.4%p 하락했으며, 유급휴일은 0.9%로 변화가 없었다.

〈표 3-37〉 종사상지위별 근로복지 수혜율 변화

(단위: %, %p)

구분	2019. 08				2020.08				증감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퇴직급여	74.0	98.9	21.8	1.6	73.2	99.0	12.0	0.6	-0.8	0.1	-9.8	-1.0
시간외수당	48.2	63.8	13.7	9.4	50.0	64.8	14.5	9.6	1.8	1.0	0.8	0.2
유급휴일 (휴가)	62.9	86.1	12.9	0.9	64.6	86.7	12.6	0.9	1.7	0.6	-0.3	0.0
상여금	68.8	89.5	26.8	4.6	68.8	88.8	23.7	4.3	0.0	-0.7	-3.1	-0.3
교육훈련 경험	53.9	64.3	35.4	12.0	52.2	61.0	36.2	9.6	-1.7	-3.3	0.8	-2.4

- 주: 1) 퇴직급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2) 시간외 수당은 수당의 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시간외 수당은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체에만 적용됨.  
 3) 유급휴일(휴가)는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산전후휴가) 중 한 개 이상 수혜 대상인 경우. 유급휴가는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체에만 적용됨.  
 4)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법정임금은 아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5. 종사상지위별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와 조직률 변화

노조조직률은 상용직이 17.0%, 임시직이 0.8%, 일용직이 0.1%로 상용직이 훨씬 높고, 조합원의 대다수(98.5%)가 상용직이다.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전년 동기 대비 조합원 수와 조직률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임시직의 타격이 컸다. 이에 따라 전체 조합원 중 상용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임시직의 비중이 감소했다.

전체 조합원 251만 3천명 가운데 상용직은 247만 6천 명(98.5%), 임시직은 3만 5천명(0.4%), 일용직은 2천명(0.1%)으로 조합원 대다수가 상용직이다.

2020년 조합원 수 감소폭은 임시직이 1만 1천명(-23.9%)으로 가장 많았고, 상용직이 6천명(-0.2%), 일용직이 1천명(-33.3%)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조합원 가운데 상용직의 비중이 98.5%로 전년 동기 대비 0.5%p 증가한 데 비해, 임시직은 1.4%로 0.4%p 감소했으며, 일용직은 0.1%로 변화가 없었다.

〈표 3-38〉 종사상지위별 노동조합 조합원 수 변화

(단위: 천명)

구분	2019.08				2020.08				증감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노조 있음	가입	2,530	2,482	46	3	2,513	2,476	35	2	-17	-6	-11	-1
	미가입	1,238	1,203	33	2	1,368	1,332	34	1	130	129	1	-1
	가입대상 아님	1,475	990	458	26	1,454	1,024	400	30	-21	34	-58	4
노조없음	15,316	9,613	4,319	1,384	15,111	9,738	4,069	1,304	-205	125	-250	-8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체 12.3%로 전년 동기 대비 동일하였다. 상용직의 17.0%, 임시직의 0.8%, 일용직의 0.1%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4%p, 0.1%p, 0.1%p 감소했다. 한편, 노조가 있으나 가입하지 않았다는 비중이 상용직 9.1%, 임시직 0.8%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7%p, 0.1%p 증가했다.

〈표 3-39〉 종사상지위별 노동조합 가입률 변화

(단위: %)

구분	2019.08				2020.08				증감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노조 있음	가입	12.3	17.4	0.9	0.2	12.3	17.0	0.8	0.1	0.0	-0.4	-0.1	-0.1
	미가입	6.0	8.4	0.7	0.1	6.7	9.1	0.8	0.1	0.7	0.7	0.1	0.0
	가입대상 아님	7.2	6.9	9.4	1.9	7.1	7.0	8.8	2.3	-0.1	0.1	-0.6	0.4
노조없음	74.5	67.3	88.9	97.8	73.9	66.8	89.7	97.5	-0.6	-0.5	0.8	-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제3절 근로형태별 고용과 노동실태에 미친 영향

### 1. 근로형태별 고용 영향

#### 1) 근로형태별 규모 변화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감소했는데, 비정규직에게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 8월과 비교하여 2020년 8월 임금노동자가 감소했는데 비정규직의 감소율이 더 컸다. 정규직이 1,30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 8천명(-0.4%)이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742만 6천명으로 같은 기간 5만 5천명(-0.7%)이 감소하였다.

〈표 3-40〉 임금노동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및 비중 변화

(단위: 천명, %)

구분	2019.8		2020.8		증감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증감률
임금노동자 전체	20,559	100.0	20,446	100.0	-113	-0.5
정규직	13,078	63.6	13,020	63.7	-58	-0.4
비정규직 전체	7,481	36.4	7,426	36.3	-55	-0.7
•한시적 근로자	4,785	23.3	4,608	22.5	-177	-3.7
-기간제	3,799	18.5	3,933	19.2	134	3.5
-비기간제	986	4.8	675	3.3	-311	-31.5
•시간제	3,156	15.4	3,252	15.9	96	3.0
•비전형근로자	2,045	9.9	2,073	10.1	28	1.4
-파견근로	182	0.9	164	0.8	-18	-9.9
-용역근로	615	3.0	552	2.7	-63	-10.2
-특수형태근로	528	2.6	498	2.4	-30	-5.7
-일일근로(호출근로)	748	3.6	896	4.4	148	19.8
-가정내근로	46	0.2	49	0.2	3	6.5

주: 1) 임금노동자 전체 규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합임. 비정규직 각 유형(한시적, 비전형, 시간제)은 중복집계되므로, 비정규직 전체 규모 및 비중과 일치하지 않음. 비정규직 전체수는 이와 같은 중복을 제거하고 집계한 것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비정규직의 감소는 한시적 근로자 가운데 비기간제, 비전형 근로자 중 파견 및 용역,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증가는 비전형 근로자 중 일일근로 종사자와 가정내 근로 종사자, 그리고 한시적 근로자 중 기간제, 시간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비정규직 가운데 한시적 근로자(460만 8천명)는 전년 동기 대비 17만 7천명(-3.7%)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sup>23)</sup>(393만 3천명)는 13만 3천명(3.5%)이 증가한데 비해, 비기간제 근로자<sup>24)</sup>(67만 5천명)는 31만 1천명(-31.5%)이 감소했다. 시간제(325만 2천

23) 근로계약을 설정한 근로자

24)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일의 원로,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명)는 9만 7천명(3.0%)이 증가했다. 비전형 근로자(207만 3천명)는 2만 8천명(1.4%)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일근로 종사자(89만 6천명)가 14만 8천명(19.8%), 가정내근로 종사자(4만 9천명)가 3천 명(6.5%)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비해 용역근로(55만 2천명) 6만 3천명(-10.2%), 특수형태근로(49만 8천명) 3만명(-5.7%), 파견근로(16만 4천 명)는 1만 8천명(-9.9%)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은 36.3%로 전년 동기 대비 0.1%p 감소했다.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는 임금노동자 중 비중이 19.2%로 0.7%p 증가했고, 시간제는 15.9%로 0.5%p 증가했으며, 일일근로 종사자는 4.4%로 0.8%p 증가했다.

〈표 3-41〉 비정규직 형태별 노동자 수 변화

(단위: 천명, %)

구분	2019.8		2020.8		증감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비중
비정규직 전체	7,481	100.0	7,426	100.0	-55	-
•한시적 근로자	4,785	64.0	4,608	62.1	-177	-1.9
-기간제	3,799	50.8	3,933	53.0	133	2.2
-비기간제	985	13.2	675	9.1	-310	-4.1
•시간제	3,156	42.2	3,252	43.8	97	1.6
•비전형근로자	2,045	27.3	2,073	27.9	28	0.6
-파견근로	182	2.4	164	2.2	-18	-0.2
-용역근로	615	8.2	552	7.4	-63	-0.8
-특수형태근로	528	7.1	498	6.7	-30	-0.4
-일일근로(호출근로)	748	10.0	896	12.1	148	2.1
-가정내근로	46	0.6	49	0.7	3	0.1

주: 1) 비정규직 전체 규모와 구성비는 근로형태별 비정규직(한시적 근로, 시간제, 비전형 근로)의 중복 인원을 제외한 순계로 유형별 규모 및 구성비의 합계와 불일치함.

2) 비전형 근로자 전체 규모 및 구성비는 일부 중복되는 각 유형별 근로자를 제외한 순계로, 각 유형별 근로자 규모 및 비중의 합계와 불일치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비정규직의 구성을 살펴보면, 기간제가 비정규직의 절반이 넘는 53.0%를 차지하고 있고,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2.2%p 상승하였다. 시간제는 43.8%로 1.6%p 증가, 일일근로 종사자는 12.1%로 2.1%p, 가정내근로 종사자는 0.7%로 0.1%p 증가했다. 이에 비해 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비중은 감소했다.

2016년 이래 근로형태별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비정규직은 2016년 이래 증가추세를 보이다 2020년 감소하였고, 정규직은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9년부터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비중은 2019년까지 증가하다 2020년 감소한데 비해, 정규직의 비중은 2018년까지 감소하다 2019년부터 증가하였다.

〈표 3-42〉 근로형태별 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규모					비중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임금노동자	19,743	20,006	20,045	20,559	20,446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13,262	13,428	13,431	13,078	13,020	67.2	67.1	67.0	63.6	63.7
비정규직	6,481	6,578	6,614	7,481	7,426	32.8	32.9	33.0	36.4	36.3
•한시적 근로	3,671	3,725	3,823	4,785	4,608	18.6	18.6	19.1	23.3	22.5
-기간제	2,939	2,930	3,005	3,799	3,933	14.9	14.6	15.0	18.5	19.2
-비기간제	732	795	818	986	675	3.7	4.0	4.1	4.8	3.3
•시간제	2,488	2,663	2,709	3,156	3,252	12.6	13.3	13.5	15.4	15.9
•비전형 근로	2,245	2,112	2,071	2,045	2,073	11.4	10.6	10.3	9.9	10.1
-파견근로	201	188	189	182	164	1.0	0.9	0.9	0.9	0.8
-용역근로	702	694	596	615	552	3.6	3.5	3.0	3.0	2.7
-특수형태근로	502	497	506	528	498	2.5	2.5	2.5	2.6	2.4
-일일근로(호출근로)	874	801	801	748	896	4.4	4.0	4.0	3.6	4.4
-가정내근로	42	30	53	46	49	0.2	0.1	0.3	0.2	0.2

주: 1) 임금노동자 전체 규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합임. 비정규직 각 유형(한시적, 비전형, 시간제)은 중복집계되므로, 비정규직 전체 규모 및 비중과 일치하지 않음. 비정규직 전체수는 이와 같은 중복을 제거하고 집계한 것임.

2) 기간제근로, 한시적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규모는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는 증감 비교 불가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의 감소규모와 증감률을 살펴보면, 정규직의 경우 2019년에 비해 감소규모와 감소율이 낮고, 비정규직의 경우 이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 2020년 감소로 전환되어 코로나19 충격이 비정규직의 고용에 영향을 미쳤음을 유추할 수 있다. 비정규직은 2017년 9만 7천명(1.5%), 2018년 3만 6천명(0.5%), 2019년 86만 7천명(13.1%)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 5만 5천명(-0.7%)이 감소했다. 이에 비해 정규직은 2017년 16만 6천명(1.3%), 2018년 3천명(0.0%)이 증가했다가, 2019년 35만 3천명(-2.6%), 2020년 5만 8천명(-0.4%)이 감소했다.

〈표 3-43〉 근로형태별 규모변화 및 증감률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전년 동기 대비 규모변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7	'18	'19	'20	'17	'18	'19	'20
임금노동자	263	39	514	-113	1.3	0.2	2.6	-0.5
정규직	166	3	-353	-58	1.3	0.0	-2.6	-0.4
비정규직	97	36	867	-55	1.5	0.5	13.1	-0.7
•한시적 근로	54	98	962	-177	1.5	2.6	25.2	-3.7
-기간제	-9	75	794	134	-0.3	2.6	26.4	3.5
-비기간제	63	23	168	-311	8.6	2.9	20.5	-31.5
•시간제	175	46	447	96	7.0	1.7	16.5	3.0
•비전형 근로	-133	-41	-26	28	-5.9	-1.9	-1.3	1.4
-파견근로	-13	1	-7	-18	-6.5	0.5	-3.7	-9.9
-용역근로	-8	-98	19	-63	-1.1	-14.1	3.2	-10.2
-특수형태근로	-5	9	22	-30	-1.0	1.8	4.3	-5.7
-일일근로(호출근로)	-73	0	-53	148	-8.4	0.0	-6.6	19.8
-가정내근로	-12	23	-7	3	-28.6	76.7	-13.2	6.5

주: 1) 임금노동자 전체 규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합임. 비정규직 각 유형(한시적, 비전형, 시간제)은 중복집계되므로, 비정규직 전체 규모 및 비중과 일치하지 않음. 비정규직 전체수는 이와 같은 중복을 제거하고 집계한 것임.

2) 기간제근로, 한시적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규모는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는 증감 비교 불가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근로형태별 비증변화를 살펴보면, 비정규직은 2016년 32.8%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9년 36.4%였다가 2020년 36.3%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정규직은 2016년 67.2%에서 2019년 63.6%로까지 하락했으나 2020년 63.7%로 증가했다.

고용안정성 여부를 살펴본 결과, 고용안정성있는 노동자의 비율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에서 크게 낮고, 2019년과 비교해 정규직은 변화가 없는데 비해 비정규직은 감소했다.

〈표 3-44〉 근로형태별 고용안정성있는 근로자 비중

(단위: %, %p)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85.4	86.4	86.1	84.5	83.7	-0.8
정규직	98.7	99.2	99.1	99.2	99.2	0.0
비정규직	58.2	60.3	59.7	58.8	56.5	-2.3
•한시적 근로	53.8	55.6	54.4	54.2	52.9	-1.3
-기간제	56.3	54.6	53.8	52.3	55.9	3.6
-비기간제	43.7	59.5	56.6	61.6	35.3	-26.3
•시간제	57.2	60.0	58.7	56.4	52.6	-3.8
•비전형 근로	51.5	52.1	52.9	51.0	47.9	-3.1
-파견근로	70.6	70.2	76.9	74.8	69.6	-5.2
-용역근로	74.0	68.5	75.3	66.7	71.9	5.2
-특수형태근로	94.0	95.9	92.8	90.0	90.8	0.8
-일일근로(호출근로)	-	-	-	-	-	-
-가정내근로	35.2	51.2	62.4	48.5	65.6	17.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고용안정성있는 노동자의 비중이 정규직은 2020년 8월 기준 99.2%로 전년과 동일한데 비해,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56.5%로 2.3%p 하락했다.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와 파견근로 종사자는 고용안정성이 있는 근로자의 비중이 하락했다.

2016년 이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2016년 98.7%에서 2017년 이래 99.1~99.2%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비정규직은 2016년 58.2%에서 2017년 60.3%로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 가정내근로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형태 종사자에서 고용안정성있는 노동자의 비중이 감소했다.

## 2) 근로형태별 인적 및 사업 특성별 고용변화

근로형태에 따라 인적(성별 및 연령별) 속성과 종사상지위, 사업(기업규모 및 산업) 특성별로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 ① 성별 고용영향

근로형태별로 성별 노동자 규모와 비중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다수는 여자, 정규직의 다수는 남자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로나19위기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여자와 남자 모두 감소했으나, 여자의 감소규모가 더 컸고, 정규직 중 여성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근로형태별로 성별 고용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8월 비정규직 가운데 여자는 409만 1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4천명(-0.8%) 감소하였고, 남자는 333만 5천명으로 2만 1천명(-0.6%) 감소했다. 정규직의 경우 여자는 499만 4천명으로 같은 기간 4만 4천명(-0.9%)이 감소하였고, 남자는 802만 7천명으로 1만 3천명(-0.2%) 감소했다.

근로형태별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여성의 비중이 정규직은 38.4%로 전년 동기 대비 0.1%p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55.1%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5〉 근로형태별·성별 규모 변화

(단위: 천명, %)

구분	2019.8		2020.8		증감규모		증감률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임금노동자	9,163	11,396	9,085	11,361	-78	-35	-0.9	-0.3
정규직	5,038	8,040	4,994	8,027	-44	-13	-0.9	-0.2
비정규직	4,125	3,356	4,091	3,335	-34	-21	-0.8	-0.6
•한시적 근로	2,547	2,238	2,529	2,079	-18	-159	-0.7	-7.1
-기간제	2,013	1,786	2,133	1,800	120	14	6.0	0.8
-비기간제	534	452	396	279	-138	-173	-25.8	-38.3
•시간제	2,310	846	2,337	915	27	69	1.2	8.2
•비전형근로	920	1,125	861	1,212	-59	87	-6.4	7.7
-파견근로	93	89	69	95	-24	6	-25.8	6.7
-용역근로	283	333	247	305	-36	-28	-12.7	-8.4
-특수형태근로	347	182	313	185	-34	3	-9.8	1.6
-일일근로	187	561	214	682	27	121	14.4	21.6
-가정내근로	38	8	41	8	3	0	7.9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3-46〉 근로형태별·성별 비중 변화

(단위: %, %p)

구분	2019.8		2020.8		증감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임금노동자	44.6	55.4	44.4	55.6	-0.2	0.2
정규직	38.5	61.5	38.4	61.6	-0.1	0.1
비정규직	55.1	44.9	55.1	44.9	0	0
•한시적 근로	53.2	46.8	54.9	45.1	1.7	-1.7
-기간제	53.0	47.0	54.2	45.8	1.2	-1.2
-비기간제	54.2	45.8	58.7	41.3	4.5	-4.5
•시간제	73.2	26.8	71.9	28.1	-1.3	1.3
•비전형근로	45.0	55.0	41.5	58.5	-3.5	3.5
-파견근로	51.0	49.0	42.1	57.9	-8.9	8.9
-용역근로	45.9	54.1	44.8	55.2	-1.1	1.1
-특수형태근로	65.6	34.4	62.9	37.1	-2.7	2.7
-일일근로	25.0	75.0	23.9	76.1	-1.1	1.1
-가정내근로	82.7	17.3	83.3	16.7	0.6	-0.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② 연령계층별 고용영향

코로나19 위기 전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령계층별 고용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정규직은 50대 이상, 비정규직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고용이 감소하였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모두 30대(각각 8만 9천명, 12만 1천명), 20대(각각 7만 9천명, 7만 7천명), 40대(각각 3만 8천명, 4만 2천명)의 순으로 고용감소 규모가 컸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은 60세 이상의 비중만이 2.8%p 증가했으며, 정규직은 50대와 60세이상의 비중만이 각각 0.8%p 증가했고 다른 연령대의 비중이 감소했는데, 특히 30대의 비중이 0.8%p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비정규직의 연령계층별 비중은 60세 이상(28.7%), 50대(20.8%), 40대(17.6%), 20대(17.3%), 30대(13.8%), 10대(1.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년동기와 비교해 보면, 60세 이상에서만 19만 5천명(10.0%)이 증가하였고, 30대는 8만 9천명(-8.0%), 20대는 7만 9천명(-5.8%), 40대 3만 8천명(-2.8%), 50대 3만 2천명(-2.0%), 10대 1만 3천명(-8.5%)의 순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정규직은 40대(27.6%), 30대(26.6%), 50대(22.7%), 20대(16.3%), 60세 이상(6.7%), 10대(0.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60세 이상 10만 2천명(13.3%), 50대 9만 7천명(3.4%)이 증가했고, 30대 12만 1천명(-3.4%), 20대 7만 7천명(-3.5%), 40대 4만 2천명(-1.2%), 10대 1만 7천명(-40.5%)의 순으로 고용감소가 컸다.

〈표 3-47〉 근로형태별·연령계층별 규모 변화

(단위: 천명)

구분	임금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비전형	기간제				시간제		
				기간제	비기간제	파견		용역	특수 근로	일일 근로	가내 근로			
'19. 08	15-19세	194	42	151	69	47	21	15	2	3	0	9	1	127
	20-24세	1,235	556	679	375	303	72	66	4	19	15	26	4	408
	25-29세	2,320	1,637	683	497	386	111	100	14	21	34	32	3	225
	30-34세	2,208	1,707	502	355	265	90	94	19	13	27	32	4	150
	35-39세	2,482	1,873	609	417	321	96	137	16	30	60	36	3	194
	40-44세	2,384	1,747	638	379	278	101	198	17	43	77	62	7	240
	45-49세	2,594	1,886	708	420	306	114	237	21	47	85	91	5	242
	50-54세	2,378	1,617	761	443	328	115	258	19	53	86	100	4	252
	55-59세	2,057	1,244	813	461	359	101	328	25	100	72	148	2	263
	60-64세	1,288	530	758	468	374	93	288	19	111	42	120	1	283
	65세이상	1,418	238	1,180	902	832	70	324	26	175	30	91	12	771
전체	20,559	13,078	7,481	4,785	3,799	985	2,045	182	615	528	748	46	3,156	
'20. 08	15-19세	164	25	138	56	38	18	14	1	1	0	13	0	120
	20-24세	1,182	520	662	342	263	78	61	7	13	10	30	3	436
	25-29세	2,217	1,596	621	436	392	43	94	17	23	23	29	4	193
	30-34세	2,186	1,686	499	327	277	50	117	17	19	38	47	4	146
	35-39세	2,295	1,773	523	335	279	56	141	12	24	54	50	3	177
	40-44세	2,347	1,725	622	391	332	59	163	16	30	64	57	3	206
	45-49세	2,553	1,866	686	393	324	69	237	12	40	89	100	5	217
	50-54세	2,413	1,655	757	409	328	81	281	23	41	77	151	6	265
	55-59세	2,088	1,303	785	417	335	81	323	13	79	66	174	5	285
	60-64세	1,399	592	807	479	406	72	322	23	114	42	153	5	314
	65세이상	1,603	278	1,325	1,023	958	66	321	24	169	34	93	12	892
전체	20,446	13,020	7,426	4,608	3,933	675	2,073	164	552	498	896	49	3,252	
증감	15-19세	-30	-17	-13	-13	-9	-3	-1	-1	-2	0	4	-1	-7
	20-24세	-53	-36	-17	-33	-40	6	-5	3	-6	-5	4	-1	28
	25-29세	-103	-41	-62	-61	6	-68	-6	3	2	-11	-3	1	-32
	30-34세	-22	-21	-3	-28	12	-40	23	-2	6	11	15	0	-4
	35-39세	-187	-100	-86	-82	-42	-40	4	-4	-6	-6	14	0	-17
	40-44세	-37	-22	-16	12	54	-42	-35	-1	-13	-13	-5	-4	-34
	45-49세	-41	-20	-22	-27	18	-45	0	-9	-7	4	9	0	-25
	50-54세	35	38	-4	-34	0	-34	23	4	-12	-9	51	2	13
	55-59세	31	59	-28	-44	-24	-20	-5	-12	-21	-6	26	3	22
	60-64세	111	62	49	11	32	-21	34	4	3	0	33	4	31
	65세이상	185	40	145	121	126	-4	-3	-2	-6	4	2	0	121
전체	-113	-58	-55	-177	134	-310	28	-18	-63	-30	148	3	9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3-48〉 근로형태별·연령계층별 비중 변화

(단위: %, %p)

구분	임금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직	기간제		비전형	비정규직					시간제	
					기간제	비기간제		파견	용역	특수 근로	일일 근로	가내 근로		
'19. 08	15-19세	0.9	0.3	2.0	1.4	1.2	2.2	0.7	1.0	0.6	0.1	1.2	2.3	4.0
	20-24세	6.0	4.3	9.1	7.8	8.0	7.3	3.2	2.0	3.1	2.9	3.5	9.8	12.9
	25-29세	11.3	12.5	9.1	10.4	10.2	11.3	4.9	7.9	3.5	6.5	4.3	7.1	7.1
	30-34세	10.7	13.1	6.7	7.4	7.0	9.1	4.6	10.3	2.1	5.1	4.3	7.9	4.8
	35-39세	12.1	14.3	8.1	8.7	8.5	9.8	6.7	9.0	4.9	11.4	4.8	6.3	6.1
	40-44세	11.6	13.4	8.5	7.9	7.3	10.3	9.7	9.2	7.0	14.6	8.3	14.6	7.6
	45-49세	12.6	14.4	9.5	8.8	8.1	11.5	11.6	11.7	7.6	16.0	12.1	10.1	7.7
	50-54세	11.6	12.4	10.2	9.3	8.6	11.7	12.6	10.2	8.6	16.2	13.4	9.7	8.0
	55-59세	10.0	9.5	10.9	9.6	9.5	10.3	16.1	14.0	16.3	13.7	19.8	4.0	8.4
	60-64세	6.3	4.1	10.1	9.8	9.9	9.5	14.1	10.6	18.1	7.9	16.0	3.1	9.0
	65세이상	6.9	1.8	15.8	18.9	21.9	7.1	15.9	14.2	28.4	5.8	12.2	25.3	24.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 08	15-19세	0.8	0.2	1.9	1.2	1.0	2.7	0.7	0.5	0.1	0.0	1.4	0.0	3.7
	20-24세	5.8	4.0	8.9	7.4	6.7	11.6	3.0	4.0	2.4	2.1	3.3	5.6	13.4
	25-29세	10.8	12.3	8.4	9.5	10.0	6.4	4.5	10.5	4.2	4.5	3.2	8.1	5.9
	30-34세	10.7	13.0	6.7	7.1	7.0	7.4	5.7	10.2	3.4	7.7	5.3	7.7	4.5
	35-39세	11.2	13.6	7.0	7.3	7.1	8.3	6.8	7.1	4.3	10.8	5.6	6.5	5.5
	40-44세	11.5	13.3	8.4	8.5	8.5	8.8	7.9	9.7	5.4	12.9	6.3	5.4	6.4
	45-49세	12.5	14.3	9.2	8.5	8.2	10.3	11.4	7.5	7.2	17.9	11.2	9.7	6.7
	50-54세	11.8	12.7	10.2	8.9	8.3	12.0	13.5	14.2	7.5	15.5	16.8	11.4	8.2
	55-59세	10.2	10.0	10.6	9.0	8.5	12.1	15.6	8.2	14.4	13.3	19.4	9.8	8.8
	60-64세	6.8	4.6	10.9	10.4	10.3	10.7	15.5	13.7	20.6	8.4	17.0	10.3	9.7
	65세이상	7.8	2.1	17.8	22.2	24.4	9.8	15.5	14.6	30.6	6.9	10.4	25.4	27.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증감	15-19세	-0.1	-0.1	-0.1	-0.2	-0.2	0.5	0.0	-0.5	-0.5	-0.1	0.2	-2.3	-0.3
	20-24세	-0.2	-0.3	-0.2	-0.4	-1.3	4.3	-0.2	2.0	-0.7	-0.8	-0.2	-4.2	0.5
	25-29세	-0.5	-0.2	-0.7	-0.9	-0.2	-4.9	-0.4	2.6	0.7	-2.0	-1.1	1.0	-1.2
	30-34세	0.0	-0.1	0.0	-0.3	0.0	-1.7	1.1	-0.1	1.3	2.6	1.0	-0.2	-0.3
	35-39세	-0.9	-0.7	-1.1	-1.4	-1.4	-1.5	0.1	-1.9	-0.6	-0.6	0.8	0.2	-0.6
	40-44세	-0.1	-0.1	-0.1	0.6	1.2	-1.5	-1.8	0.5	-1.6	-1.7	-2.0	-9.2	-1.2
	45-49세	-0.1	-0.1	-0.3	-0.3	0.1	-1.2	-0.2	-4.2	-0.4	1.9	-0.9	-0.4	-1.0
	50-54세	0.2	0.3	0.0	-0.4	-0.3	0.3	0.9	4.0	-1.1	-0.7	3.4	1.7	0.2
	55-59세	0.2	0.5	-0.3	-0.6	-1.0	1.8	-0.5	-5.8	-1.9	-0.4	-0.4	5.8	0.4
	60-64세	0.5	0.5	0.8	0.6	0.4	1.2	1.4	3.1	2.5	0.5	1.0	7.2	0.7
65세이상	0.9	0.3	2.0	3.3	2.5	2.7	-0.4	0.4	2.2	1.1	-1.8	0.1	3.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코로나19 전후 연령계층별 비중변화를 살펴보면, 임금노동자 가운데 40대 이하의 비중이 감소한 가운데, 비정규직은 다른 연령대의 비중이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는 가운데 60세 이상의 비중만이 2.8%p 증가했다. 정규직은 50대와 60세이상의 비중만이 각각 0.8%p 증가했고, 다른 연령대의 비중은 감소했는데, 특히 30대의 비중이 0.8%p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 ③ 종사상지위별 고용영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종사상지위별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경우 임시직과 일용직이 감소하고 상용직이 증가한데 비해, 정규직은 상용직과 일용직이 증가하고, 임시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와 시간제는 상용직과 임시직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상용직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비정규직의 경우 상용직이 273만 1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만 5천명(3.6%) 증가한데 비해, 임시직이 345만명으로 6만 1천명(-1.7%), 일용직이 123만 5천명(-6.7%)으로 8만 8천명 감소했다. 기간제와 시간제는 주로 상용직과 임시직을 중심으로 증가했는데, 기간제의 경우 상용직이 212만 4천명으로 34만 9천명(19.7%)이 증가했고, 임시직이 176만 8천명으로 6만 4천명(3.8%)이 증가한데 비해, 일용직은 4만 1천명으로 27만 9천명(87.2%)이 감소했다. 시간제의 경우는 상용직이 59만 8천명으로 7만 1천명(13.5%)이 증가했고, 임시직이 212만 8천명으로 4만 명(1.9%)이 증가한데 비해, 일용직은 52만 6천명으로 1만 5천명(-2.8%)이 감소했다.

이에 비해 정규직은 상용직이 1,183만 9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만 8천명(1.6%)이 증가했고, 일용직이 10만 2천명으로 1만 명(10.9%)이 증가한

데 비해, 임시직은 107만 9천명으로 25만 6천명(-19.2%)이 감소했다.

〈표 3-49〉 근로형태별 종사상지위별 규모 변화

(단위: 천명)

구분	2019.8			2020.8			증감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임금노동자	14,287	4,857	1,415	14,570	4,539	1,337	283	-318	-78
정규직	11,651	1,335	92	11,839	1,079	102	188	-256	10
비정규직	2,636	3,521	1,323	2,731	3,460	1,235	95	-61	-88
•한시적 근로자	2,204	2,192	389	2,264	2,197	146	60	5	-243
-기간제	1,775	1,704	320	2,124	1,768	41	349	64	-279
-비기간제	429	488	69	140	429	105	-289	-59	36
•시간제	527	2,088	541	598	2,128	526	71	40	-15
•비전형근로자	467	751	827	478	664	931	11	-87	104
-파견근로	100	69	12	107	42	15	7	-27	3
-용역근로	336	186	94	344	154	54	8	-32	-40
-특수형태근로	24	480	25	20	445	34	-4	-35	9
-일일근로	0	0	748	0	0	896	0	0	148
-가정내근로	8	18	20	8	25	16	0	7	-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8월 기준 종사상지위별 비중을 살펴보면, 정규직의 경우 대다수가 상용직(90.9%)이고, 비정규직은 임시직(46.6%), 상용직(36.8%), 일용직(16.6%)의 순으로 비중이 크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상용직의 비중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각각 1.8%p, 1.6%p 증가했다. 상용직의 비중이 기간제의 경우 54.0%로 같은 기간 7.3%p, 시간제가 18.4%로 1.7%p, 파견근로가 65.1%로 10.0%p, 용역근로가 62.2%로 7.7%p 증가했다.

〈표 3-50〉 근로형태별·종사상지위별 비중 변화

(단위: %, %p)

구분	2019.8			2020.8			증감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임금노동자	69.5	23.6	6.9	71.3	22.2	6.5	1.8	-1.4	-0.4
정규직	89.1	10.2	0.7	90.9	8.3	0.8	1.8	-1.9	0.1
비정규직	35.2	47.1	17.7	36.8	46.6	16.6	1.6	-0.5	-1.1
•한시적 근로자	46.1	45.8	8.1	49.1	47.7	3.2	3.0	1.9	-4.9
-기간제	46.7	44.8	8.4	54.0	44.9	1.0	7.3	0.1	-7.4
-비기간제	43.5	49.5	7.0	20.8	63.6	15.6	-22.7	14.1	8.6
•시간제	16.7	66.2	17.1	18.4	65.4	16.2	1.7	-0.8	-0.9
•비전정근로자	22.8	36.7	40.4	23.1	32.0	44.9	0.3	-4.7	4.5
-파견근로	55.1	38.1	6.8	65.1	25.7	9.3	10.0	-12.4	2.5
-용역근로	54.5	30.2	15.3	62.2	28.0	9.8	7.7	-2.2	-5.5
-특수형태근로	4.5	90.8	4.7	3.9	89.3	6.7	-0.6	-1.5	2.0
-일일근로	0.0	0.0	100.0	0.0	0.0	100.0	0.0	0.0	0.0
-가정내근로	17.3	38.7	44.0	15.9	51.7	32.4	-1.4	13	-1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④ 사업체규모별 고용영향

사업체규모별 노동자 규모와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 노동자가 감소하고, 300인 이상에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300인 미만 노동자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사업체규모별 노동자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9인 이하 규모에서 고용이 감소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5-9인(5만 6천명), 4인 이하(2만 5천명), 100-299인(1만 5천명)의 순으로 고용이 크게 감소했고, 30~99인(2만 2천명), 10-29인(1만 6천명), 300인 이상(4천명)의 순으로 고용이 많이 증가했다. 정규직은 5-9인(8만 명), 4인 이하(11만 명)에서 고용이 크게 감소했고, 30~99인(7만 9천명), 300인 이상(3만 6천명), 10-29인(1만 4천명),

100-299인(5천 명)의 순으로 고용이 많이 증가했다.

2020년 8월 기준 비정규직은 300인 미만 노동자가 700만 2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 8천명(-0.8%) 감소한데 비해 300인 이상은 42만 4천명으로 4천명(1.0%) 증가했다. 정규직의 경우는 300인 미만 노동자가 1,074만 4천명으로 9만 2천명(-0.8%) 감소했고, 300인 이상은 227만 7천 명으로 3만 6천명(1.6%) 증가했다.

〈표 3-51〉 근로형태별·기업규모별 노동자 수 변화

(단위: 천명)

구분	임금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비전형										
				한시적	기간제		비기간제	파견	용역	특수 근로	일일 근로	가내 근로	시간제	
					기간제	비기간제								
'19. 08	1-4인	3,783	1,760	2,023	937	672	266	607	47	141	121	311	27	1,240
	5-9인	3,648	2,042	1,605	995	774	222	471	33	154	44	249	4	693
	10-29인	4,581	2,820	1,761	1,172	942	230	533	43	185	172	137	6	662
	30-99인	3,896	2,710	1,186	894	743	151	318	37	96	152	36	5	353
	100-299인	1,989	1,504	485	399	325	74	82	13	25	32	12	2	125
	300인 이상	2,661	2,241	420	387	343	44	35	9	14	8	2	2	82
	전체	20,559	13,078	7,481	4,785	3,799	985	2,045	182	615	528	748	46	3,156
'20. 08	1-4인	3,648	1,650	1,998	859	592	267	616	25	102	115	385	30	1,255
	5-9인	3,511	1,962	1,549	893	735	158	518	37	156	53	293	4	711
	10-29인	4,611	2,834	1,777	1,198	1,070	128	528	47	169	158	162	7	702
	30-99인	3,997	2,789	1,208	898	823	75	292	33	81	141	40	1	362
	100-299인	1,979	1,509	470	378	348	30	86	16	33	26	10	2	122
	300인 이상	2,700	2,277	424	381	365	16	33	6	11	6	5	5	101
	전체	20,446	13,020	7,426	4,608	3,933	675	2,073	164	552	498	896	49	3,252
증감	1-4인	-135	-110	-25	-78	-80	1	9	-22	-39	-6	74	3	15
	5-9인	-137	-80	-56	-102	-39	-64	47	4	2	9	44	0	18
	10-29인	30	14	16	26	128	-102	-5	4	-16	-14	25	1	40
	30-99인	101	79	22	4	80	-76	-26	-4	-15	-11	4	-4	9
	100-299인	-10	5	-15	-21	23	-44	4	3	8	-6	-2	0	-3
	300인 이상	39	36	4	-6	22	-28	-2	-3	-3	-2	3	3	19
	전체	-113	-58	-55	-177	134	-310	28	-18	-63	-30	148	3	9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사업체규모별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8월 기준 비정규직은 300인 미만의 비중이 94.3%(700만 2천명)로 전년 동기 대비 0.1%p 증가하였고, 정규직은 82.5%(1,074만 4천명)로 0.3%p 증가했다.

〈표 3-52〉 근로형태별·기업규모별 비중 변화

(단위: %, %p)

구분	임금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기간제		비기간제	비전형	기간제					시간제
					파견	용역			특수 근로	일일 근로	가내 근로			
'19. 08	1-4인	18.4	13.5	27.1	19.6	17.7	27.0	29.7	25.8	23.0	22.9	41.6	58.6	39.3
	5-9인	17.7	15.6	21.5	20.8	20.4	22.5	23.0	18.2	25.0	8.4	33.3	9.1	22.0
	10-29인	22.3	21.6	23.5	24.5	24.8	23.3	26.1	23.5	30.1	32.5	18.4	13.8	21.0
	30-99인	19.0	20.7	15.9	18.7	19.6	15.3	15.5	20.1	15.6	28.7	4.8	10.3	11.2
	100-299인	9.7	11.5	6.5	8.3	8.6	7.5	4.0	7.3	4.1	6.1	1.7	4.0	4.0
	300인 이상	12.9	17.1	5.6	8.1	9.0	4.5	1.7	5.2	2.2	1.5	0.3	4.3	2.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 08	1-4인	17.8	12.7	26.9	18.7	15.1	39.6	29.7	15.3	18.5	23.1	43	61.1	38.6
	5-9인	17.2	15.1	20.9	19.4	18.7	23.5	25	22.3	28.2	10.7	32.7	8.6	21.9
	10-29인	22.6	21.8	23.9	26	27.2	18.9	25.5	28.7	30.7	31.7	18.1	14.1	21.6
	30-99인	19.5	21.4	16.3	19.5	20.9	11.1	14.1	20.1	14.7	28.2	4.5	2.9	11.1
	100-299인	9.7	11.6	6.3	8.2	8.8	4.5	4.2	9.8	6	5.1	1.1	4.3	3.7
	300인 이상	13.2	17.5	5.7	8.3	9.3	2.4	1.6	3.9	1.9	1.2	0.6	9.2	3.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증감	1-4인	-0.6	-0.8	-0.2	-0.9	-2.6	12.6	0.0	-10.5	-4.5	0.2	1.4	2.5	-0.7
	5-9인	-0.5	-0.5	-0.6	-1.4	-1.7	1.0	2.0	4.1	3.2	2.3	-0.6	-0.5	-0.1
	10-29인	0.3	0.2	0.4	1.5	2.4	-4.4	-0.6	5.2	0.6	-0.8	-0.3	0.3	0.6
	30-99인	0.5	0.7	0.4	0.8	1.3	-4.2	-1.4	0.0	-0.9	-0.5	-0.3	-7.4	-0.1
	100-299인	0.0	0.1	-0.2	-0.1	0.2	-3.0	0.2	2.5	1.9	-1.0	-0.6	0.3	-0.3
	300인 이상	0.3	0.4	0.1	0.2	0.3	-2.1	-0.1	-1.3	-0.3	-0.3	0.3	4.9	0.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⑤ 산업별 고용영향

코로나19 위기 전후 산업별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비정규직은 고용증가가 보건사회복지업 15만명(15.3%), 공공행정업 4만명(10.7%), 도소매업 1만 6천명(2.3%), 운수창고업 1만 4천명(6.5%), 가구내고용업 1만 2천명(19.0%), 건설업 8천명(0.9%), 수도하수업 7천명(23.3%), 전기·가스·증기업 3천명(27.3%), 광업 2천 명(200.0%), 국제기구업 1천명(25.0%)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고용감소는 숙박·음식업은 7만 1천명(-9.3%), 제조업은 6만 8천명(-10.2%), 교육서비스업 4만 2천명(-6.7%), 사업관리지원임대업 4만 2천명(-4.8%), 금융·보험업 2만 5천명(-8.9%), 부동산업 1만 8천명(-9.2%), 전문·과학기술업 1만 5천명(-7.7%), 예술·및·여가업 1만 3천명(-6.7%)의 순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기간제의 경우 고용증가가 보건·사회복지업 18만 4천명(25.9%), 공공행정업 4만 3천명(12.1%), 운수창고업 2만 2천명(19.3%), 정보·통신업 2만 1천명(29.6%), 부동산업 2만 명(20.0%), 도소매업 1만 9천명(8.5%), 교육서비스업 1만 2천명(3.3%)의 순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비해 고용감소는 건설업 9만 8천명(-33.6%), 숙박·음식업 7만 1천명(-32.3%), 예술·및·여가업 1만 6천명(-16.8%), 금융·보험업 1만 5천명(-25.4%)의 순으로 크게 감소했다.

시간제의 경우는 고용증가가 보건·사회복지업 9만 5천명(15.3%), 공공행정업 5만 4천명(21.7%), 도소매업 4만 4천명(13.4%), 건설업 2만 6천 명(20.3%)의 순으로 크게 증가한데 비해, 고용감소는 숙박·음식업 4만 명(-7.1%), 제조업 3만 1천명(-17.7%), 교육서비스업 2만 7천명(-7.1%), 예술 및·여가업 1만 5천명(-12.8%), 금융·보험업 1만 1천명(-27.5%)의 순으로 고용이 크게 감소했다.

정규직의 경우는 고용증가가 사업관리지원임대업에서 7만 5천명(20.2%), 제조업 5만 4천명(1.6%), 건설업 2만 7천명(3.5%), 공공행정업 1만 5천명(2.1%), 금융·보험업 1만 3천명(2.7%), 가구내고용업 1만 명(55.6%), 국제기구업 7천명(100.0%), 전문·과학기술업 5천명(0.6%), 보건·사회복지업 5천명(0.4%), 예술및여가업 4천명(2.7%), 수도하수업 3천명(3.0%), 농림어업 1천명(2.2%), 정보·통신업 1천명(0.2%)의 순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고용감소는 도소매업 9만 7천명(-6.3%), 숙박·음식업 7만명(-10.3%), 기타개인서비스업 4만 4천명(-9.2%), 교육서비스업 2만 5천명(-2.7%), 부동산업 2만 5천명(-11.9%)의 순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산업별로 노동자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8월 기준 비정규직의 경우 5명 중 3명(422만 7천 명, 56.9%)이 5개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건·사회복지업 112만 8천명(15.2%), 건설업 85만 9천명(11.6%), 사업관리지원임대업 82만 4천명(11.1%), 도소매업 72만 2천명(9.7%), 숙박·음식업 69만 4천명(9.3%)의 순으로 종사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에 60만 1천명(8.1%), 교육서비스업에 58만 8천명(7.9%)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의 경우, 제조업 333만 명(25.6%), 도소매업 145만 명(11.1%), 보건·사회복지업 120만 명(9.2%), 교육서비스업 89만 4천명(6.9%), 전문·과학기술업 80만 7천명(6.2%)의 순으로 종사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3〉 근로형태별·산업별 노동자 규모

(단위: 천명)

구분	임금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직	기간제		비전형	파견			일일 근로	가내 근로	시간제	
					비기간제	파견		영역	특수 근로					
'19. 08	농림어업	123	45	78	45	38	7	32	0	0	2	30	0	17
	광업	12	11	1	1	1	0	0	0	0	0	0	0	0
	제조업	3,946	3,276	669	515	368	147	84	10	10	4	47	22	175
	전기가스증기	71	61	11	11	9	1	0	0	0	0	0	0	1
	수도하수	132	101	30	24	17	7	2	1	1	0	0	0	6
	건설업	1,627	776	851	369	292	77	481	10	33	0	450	1	128
	도소매업	2,253	1,547	706	357	224	133	175	26	1	115	30	5	329
	운수창고	808	591	217	151	114	36	58	4	10	26	20	0	51
	숙박음식	1,446	682	765	356	220	136	65	6	4	3	52	1	563
	정보통신	777	648	129	105	71	34	10	6	0	3	1	1	25
	금융보험	761	480	281	79	59	19	215	1	1	210	4	0	40
	부동산업	406	210	196	132	100	33	63	8	23	26	7	0	54
	전문과학기술	996	802	194	154	131	23	10	2	1	4	1	2	53
	사업관리지원임대	1,241	375	866	608	529	80	642	79	517	25	56	2	165
	공공행정	1,079	706	373	361	356	4	1	0	0	0	1	0	249
	교육서비스	1,548	919	630	430	369	61	69	2	2	61	3	2	379
	보건사회복지	2,173	1,195	978	805	711	95	39	19	11	3	3	4	621
	예술및여가	343	148	195	118	95	23	23	6	0	12	5	0	117
	기타개인서비스	726	480	246	130	84	46	61	3	0	34	26	2	131
	가구내고용 등	81	18	63	32	10	21	14	0	1	1	11	2	50
국제기구	11	7	4	4	1	3	0	0	0	0	0	0	0	
전 계	20,559	13,078	7,481	4,785	3,799	985	2,045	182	615	528	748	46	3,156	
'20. 08	농림어업	120	46	74	33	27	6	36	0	0	2	35	1	16
	광업	11	8	3	2	2	0	1	0	0	0	1	0	0
	제조업	3,930	3,330	601	452	376	76	64	3	4	6	42	15	144
	전기가스증기	71	57	14	10	10	0	3	0	0	2	0	1	1
	수도하수	142	104	37	32	27	5	4	0	1	0	2	1	11
	건설업	1,662	803	859	267	194	73	559	13	17	0	545	0	154
	도소매업	2,172	1,450	722	333	243	90	147	16	2	97	33	2	373
	운수창고	813	582	231	156	136	20	57	2	1	37	22	0	56
	숙박음식	1,306	612	694	285	149	136	88	6	4	4	74	2	523
	정보통신	771	649	121	99	92	7	12	5	2	3	0	2	29
	금융보험	749	493	256	55	44	11	206	1	0	203	2	1	29
	부동산업	363	185	178	134	120	14	45	8	22	11	5	0	47
	전문과학기술	986	807	179	142	125	17	12	2	2	3	4	1	47
	사업관리지원임대	1,274	450	824	574	531	44	632	88	493	23	67	2	160
	공공행정	1,134	721	413	404	399	5	4	0	0	0	2	2	303
	교육서비스	1,482	894	588	408	381	27	58	0	3	50	2	3	352
	보건사회복지	2,328	1,200	1,128	953	895	58	32	15	2	4	5	6	716
	예술및여가	334	152	182	107	79	28	21	1	0	13	6	1	102
	기타개인서비스	677	436	241	126	93	33	77	5	0	41	40	0	127
	가구내고용 등	103	28	75	30	6	24	17	0	0	0	10	9	59
국제기구	19	14	5	5	3	2	0	0	0	0	0	0	2	
전 계	20,446	13,020	7,426	4,608	3,933	675	2,073	164	552	498	896	49	3,252	

주: 1)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0.8.

〈표 3-54〉 근로형태별·산업별 노동자 규모 변화(2019년 대비 증감) (단위: 천명)

구분	임금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직	비전형		기간제					시간제	
					기간제	비기간제	파견	용역	특수 근로	일일 근로	가내 근로		
농림어업	-3	1	-4	-12	-11	-1	4	0	0	0	5	1	-1
광업	-1	-3	2	1	1	0	1	0	0	0	1	0	0
제조업	-16	54	-68	-63	8	-71	-20	-7	-6	2	-5	-7	-31
전기가스증기	0	-4	3	-1	1	-1	3	0	0	2	0	1	0
수도하수	10	3	7	8	10	-2	2	-1	0	0	2	1	5
건설업	35	27	8	-102	-98	-4	78	3	-16	0	95	-1	26
도소매업	-81	-97	16	-24	19	-43	-28	-10	1	-18	3	-3	44
운수창고	5	-9	14	5	22	-16	-1	-2	-9	11	2	0	5
숙박음식	-140	-70	-71	-71	-71	0	23	0	0	1	22	1	-40
정보통신	-6	1	-8	-6	21	-27	2	-1	2	0	-1	1	4
금융보험	-12	13	-25	-24	-15	-8	-9	0	-1	-7	-2	1	-11
부동산업	-43	-25	-18	2	20	-19	-18	0	-1	-15	-2	0	-7
전문과학기술	-10	5	-15	-12	-6	-6	2	0	1	-1	3	-1	-6
사업관리지원임대	33	75	-42	-34	2	-36	-10	9	-24	-2	11	0	-5
공공행정	55	15	40	43	43	1	3	0	0	0	1	2	54
교육서비스	-66	-25	-42	-22	12	-34	-11	-2	1	-11	-1	1	-27
보건사회복지	155	5	150	148	184	-37	-7	-4	-9	1	2	2	95
예술및여가	-9	4	-13	-11	-16	5	-2	-5	0	1	1	1	-15
기타개인서비스	-49	-44	-5	-4	9	-13	16	2	0	7	14	-2	-4
가구내고용 등	22	10	12	-2	-4	3	3	0	-1	-1	-1	7	9
국제기구	8	7	1	1	2	-1	0	0	0	0	0	0	2
전 체	-113	-58	-55	-177	134	-310	28	-18	-63	-30	148	3	96

주: 1)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9.8.

〈표 3-55〉 근로형태별·산업별 노동자 비중

(단위: %)

구분	임금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비전형	파견			특수 근로	일일 근로		시간제	
				기간제	비기간제			용역	용역	개내 근로					
'19. 08.	농림어업	0.6	0.3	1.0	0.9	1.0	0.7	1.6	0.0	0.0	0.4	4.0	0.4	0.6	
	광업	0.1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조업	19.2	25.1	9.0	10.8	9.7	14.9	4.1	5.7	1.6	0.8	6.2	48.0	5.5	
	전기·가스·증기	0.3	0.5	0.1	0.2	0.2	0.1	0.0	0.0	0.0	0.0	0.0	0.0	0.0	
	수도·하수	0.6	0.8	0.4	0.5	0.5	0.7	0.1	0.6	0.2	0.0	0.0	0.0	0.2	
	건설업	7.9	5.9	11.4	7.7	7.7	7.8	23.5	5.2	5.4	0.1	60.2	3.1	4.1	
	도소매업	11.0	11.8	9.4	7.5	5.9	13.5	8.5	14.3	0.1	21.8	4.0	12.0	10.4	
	운수·창고	3.9	4.5	2.9	3.2	3.0	3.7	2.8	2.0	1.6	4.9	2.7	0.0	1.6	
	숙박·음식	7.0	5.2	10.2	7.4	5.8	13.8	3.2	3.2	0.6	0.5	6.9	2.3	17.8	
	정보·통신	3.8	5.0	1.7	2.2	1.9	3.5	0.5	3.3	0.0	0.5	0.1	3.3	0.8	
	금융·보험	3.7	3.7	3.8	1.6	1.6	2.0	10.5	0.3	0.2	39.8	0.5	0.0	1.3	
	부동산업	2.0	1.6	2.6	2.8	2.6	3.3	3.1	4.5	3.7	5.0	1.0	0.0	1.7	
	전문·과학·기술	4.8	6.1	2.6	3.2	3.5	2.3	0.5	1.0	0.2	0.7	0.1	5.2	1.7	
	사업관리·지원·임대	6.0	2.9	11.6	12.7	13.9	8.1	31.4	43.5	84.0	4.8	7.5	4.3	5.2	
	공공행정	5.2	5.4	5.0	7.5	9.4	0.4	0.1	0.1	0.1	0.0	0.1	0.0	7.9	
	교육·서비스	7.5	7.0	8.4	9.0	9.7	6.2	3.4	0.9	0.3	11.6	0.4	3.4	12.0	
	보건·사회복지	10.6	9.1	13.1	16.8	18.7	9.6	1.9	10.3	1.8	0.5	0.4	8.7	19.7	
	예술·및·여가	1.7	1.1	2.6	2.5	2.5	2.3	1.2	3.4	0.1	2.2	0.7	0.0	3.7	
	기타·개인·서비스	3.5	3.7	3.3	2.7	2.2	4.6	3.0	1.6	0.0	6.5	3.5	4.1	4.1	
	가구·내·고용·등	0.4	0.1	0.9	0.7	0.3	2.2	0.7	0.2	0.1	0.1	1.5	5.2	1.6	
국제·기구	0.1	0.1	0.1	0.1	0.0	0.3	0.0	0.0	0.0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 08.	농림어업	0.6	0.4	1.0	0.7	0.7	0.9	1.8	0.0	0.0	0.3	3.9	2.4	0.5	
	광업	0.1	0.1	0.0	0.1	0.1	0.0	0.0	0.0	0.0	0.0	0.1	0.0	0.0	
	제조업	19.2	25.6	8.1	9.8	9.6	11.2	3.1	1.8	0.7	1.3	4.7	30.7	4.4	
	전기·가스·증기	0.4	0.4	0.2	0.2	0.3	0.0	0.2	0.0	0.0	0.4	0.0	3.0	0.0	
	수도·하수	0.7	0.8	0.5	0.7	0.7	0.7	0.2	0.1	0.1	0.0	0.2	2.6	0.3	
	건설업	8.1	6.2	11.6	5.8	4.9	10.8	27.0	8.0	3.1	0.1	60.8	0.0	4.7	
	도소매업	10.6	11.1	9.7	7.2	6.2	13.4	7.1	9.8	0.3	19.6	3.7	4.5	11.5	
	운수·창고	4.0	4.5	3.1	3.4	3.5	3.0	2.7	1.0	0.2	7.4	2.4	0.0	1.7	
	숙박·음식	6.4	4.7	9.3	6.2	3.8	20.1	4.2	3.4	0.7	0.7	8.3	3.7	16.1	
	정보·통신	3.8	5.0	1.6	2.2	2.4	1.0	0.6	3.0	0.3	0.5	0.0	4.9	0.9	
	금융·보험	3.7	3.8	3.5	1.2	1.1	1.6	9.9	0.4	0.0	40.8	0.3	1.9	0.9	
	부동산업	1.8	1.4	2.4	2.9	3.1	2.1	2.2	5.0	4.0	2.2	0.5	0.0	1.5	
	전문·과학·기술	4.8	6.2	2.4	3.1	3.2	2.5	0.6	1.2	0.4	0.7	0.4	1.1	1.5	
	사업관리·지원·임대	6.2	3.5	11.1	12.5	13.5	6.5	30.5	53.7	89.3	4.5	7.5	3.6	4.9	
	공공행정	5.6	5.5	5.6	8.8	10.2	0.7	0.2	0.0	0.0	0.0	0.2	3.1	9.3	
	교육·서비스	7.3	6.9	7.9	8.8	9.7	4.0	2.8	0.0	0.6	10.0	0.2	6.2	10.8	
	보건·사회복지	11.4	9.2	15.2	20.7	22.8	8.6	1.5	9.4	0.4	0.8	0.6	11.9	22.0	
	예술·및·여가	1.6	1.2	2.5	2.3	2.0	4.2	1.0	0.5	0.0	2.6	0.7	2.5	3.1	
	기타·개인·서비스	3.3	3.4	3.2	2.7	2.4	4.8	3.7	2.8	0.1	8.2	4.5	0.7	3.9	
	가구·내·고용·등	0.5	0.2	1.0	0.7	0.2	3.6	0.8	0.0	0.0	0.0	1.1	17.4	1.8	
국제·기구	0.1	0.1	0.1	0.1	0.1	0.3	0.0	0.0	0.0	0.0	0.0	0.0	0.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2) 각 근로형태별 근로자 중 해당 산업에 속하는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9.8.

코로나19 전후 산업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경우 보건·사회 복지업(2.1%p)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숙박·음식점(-0.9%p)과 제조업(-0.9%p)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정규직의 경우는 제조업(0.6%p)과 사업관리지원임대업(0.6%)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도소매업(-0.7%p), 숙박·음식업(-0.5%p)의 순으로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표 3-56〉 근로형태별·산업별 노동자 비중 변화(2019년 대비 증감) (단위: %p)

구분	임금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비전형					시간제				
				한시적	기간제	비기간제	파견	용역	특수 근로	일일 근로	가내 근로	시간제	
농림어업	0.0	0.1	0.0	-0.2	-0.3	0.2	0.2	0.0	0.0	-0.1	-0.1	2.0	-0.1
광업	0.0	0.0	0.0	0.1	0.1	0.0	0.0	0.0	0.0	0.0	0.1	0.0	0.0
제조업	0.0	0.6	-0.9	-0.9	-0.1	-3.7	-1.0	-3.9	-0.9	0.5	-1.5	-17.3	-1.1
전기가스증기	0.1	-0.1	0.1	0.0	0.1	-0.1	0.2	0.0	0.0	0.4	0.0	3.0	0.0
수도하수	0.1	0.0	0.1	0.2	0.2	0.0	0.1	-0.5	-0.1	0.0	0.2	2.6	0.1
건설업	0.2	0.3	0.2	-1.9	-2.8	3.0	3.5	2.8	-2.3	0.0	0.6	-3.1	0.6
도소매업	-0.4	-0.7	0.3	-0.3	0.3	-0.1	-1.4	-4.5	0.2	-2.2	-0.3	-7.5	1.1
운수창고	0.1	0.0	0.2	0.3	0.5	-0.7	-0.1	-1.0	-1.4	2.5	-0.3	0.0	0.1
숙박음식	-0.6	-0.5	-0.9	-1.2	-2.0	6.3	1.0	0.2	0.1	0.2	1.4	1.4	-1.7
정보통신	0.0	0.0	-0.1	0.0	0.5	-2.5	0.1	-0.3	0.3	0.0	-0.1	1.7	0.1
금융보험	0.0	0.1	-0.3	-0.4	-0.5	-0.4	-0.6	0.1	-0.2	1.1	-0.2	1.9	-0.4
부동산업	-0.2	-0.2	-0.2	0.1	0.5	-1.2	-0.9	0.5	0.3	-2.8	-0.5	0.0	-0.2
전문과학기술	0.0	0.1	-0.2	-0.1	-0.3	0.2	0.1	0.2	0.2	0.0	0.3	-4.1	-0.2
사업관리지원임대	0.2	0.6	-0.5	-0.2	-0.4	-1.6	-0.9	10.3	5.3	-0.3	0.0	-0.7	-0.3
공공행정	0.4	0.1	0.6	1.3	0.8	0.3	0.1	-0.1	-0.1	0.0	0.1	3.1	1.4
교육서비스	-0.2	-0.1	-0.5	-0.2	0.0	-2.2	-0.6	-0.9	0.3	-1.6	-0.2	2.8	-1.2
보건사회복지	0.8	0.1	2.1	3.9	4.1	-1.0	-0.4	-0.9	-1.4	0.3	0.2	3.2	2.3
예술및여가	-0.1	0.1	-0.1	-0.2	-0.5	1.9	-0.2	-2.9	-0.1	0.4	0.0	2.5	-0.6
기타개인서비스	-0.2	-0.3	-0.1	0.0	0.2	0.2	0.7	1.2	0.1	1.7	1.0	-3.4	-0.2
가구내고용 등	0.1	0.1	0.2	0.0	-0.1	1.5	0.1	-0.2	-0.1	-0.1	-0.4	12.2	0.2
국제기구	0.1	0.1	0.1	0.0	0.1	0.0	0.0	0.0	0.0	0.0	0.0	0.0	0.1

주: 1)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2) 각 근로형태별 근로자 중 해당 산업에 속하는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9.8.

한편, 기간제는 보건·사회복지업(4.1%)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건설업(-2.8%p)의 비중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시간제는 보건·사회복지업(2.3%)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숙박·음식업(-1.7%p)의 비중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 2. 근로형태별 임금수준 변화

### 1) 근로형태별 임금수준

코로나19 충격 이전 대비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의하면 월평균 임금의 경우 정규직은 증가한데 비해 비정규직은 감소했고,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인상폭이 비정규직보다 약 17배 높았다.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 특수형태근로 및 일일근로 종사자는 월평균임금과 시간당 임금이 모두 하락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의하면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증가했는데, 정규직의 인상분이 비정규직 인상분의 약 5배에 달하고, 시간당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가운데 일일근로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이 하락했고, 기간제, 단시간,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시간당 임금이 하락하였다.

2020년 6~8월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은 323만 4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 9천원(2.2%) 증가한데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171만 1천원으로 1만 8천원(-1.0%)이 감소하였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는 90만 3천원으로 2만 4천원(-2.6%), 특수형태근로자는 214만 9천원으로 1만 7천원(-0.8%), 일일근로 종사자는 160만 8천원으로 3만 5천원(-2.1%)이 감소했다.

〈표 3-57〉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수준 변화(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만원, %)

구분	'19.6-8월 평균	'20.6-8월 평균	증감	증감률
임금노동자	264.3	268.1	3.8	1.4
정규직	316.5	323.4	6.9	2.2
비정규직	172.9	171.1	-1.8	-1.0
•한시적 근로자	186.0	185.7	-0.3	-0.2
-기간제	180.6	187.7	7.1	3.9
-비기간제	207.0	174.1	-32.9	-15.9
•시간제	92.7	90.3	-2.4	-2.6
•비전형근로자	185.8	185.4	-0.4	-0.2
-파견/용역	187.0	196.3	9.3	5.0
-파견근로	207.1	217.3	10.2	4.9
-용역근로	181.1	190.1	9	5.0
-특수형태근로	216.6	214.9	-1.7	-0.8
-일일근로	164.3	160.8	-3.5	-2.1
-가정내근로	93.4	110.9	17.5	18.7

주: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이 17,72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0원(3.1%)이 증가하였고, 비정규직은 11,895원으로 32원(0.3%)이 증가했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는 12,364원으로 503원(4.2%) 증가한데 비해, 시간제는 10,827원으로 256원(-2.3%), 특수형태근로자는 12,724원으로 352원(-2.7%), 일일근로 종사자는 10,511원으로 208원(-1.9%)이 감소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의하면 임금노동자(특수형태 포함)의 2020년 6월 정액급여는 272만 7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만 3천원(2.8%)이 증가하였다(〈부표 3-7〉 참조). 정규직은 311만 6천원으로 11만 원(3.7%)이 증가하였고, 비정규직(특수형태 포함)은 175만 3천원으로 2만 3천 원(1.3%)이 증가하였다. 비정규직 가운데 일일근로 종사자의 경우 148만 1



천원으로 8만 3천원(-5.3%)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8〉 근로형태별 시간당 임금수준 변화(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원, %)

구분	'19.6-8월 평균	'20.6-8월 평균	증감	증감률
임금노동자	15,274	15,627	353	2.3
정규직	17,225	17,755	530	3.1
비정규직	11,863	11,895	32	0.3
•한시적 근로자	11,946	12,236	290	2.4
-기간제	11,861	12,364	503	4.2
-비기간제	12,271	11,491	-780	-6.4
•시간제	11,083	10,827	-256	-2.3
•비전형근로자	11,252	11,297	45	0.4
-파견/용역	10,536	11,225	689	6.5
-파견근로	11,932	12,635	703	5.9
-용역근로	10,122	10,806	684	6.8
-특수형태근로	13,076	12,724	-352	-2.7
-일일근로	10,719	10,511	-208	-1.9
-가정내근로	8,404	9,926	1522	18.1

주: 1)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2)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의하면 시간당 임금은 2020년 6월 임금노동자(특수형태 포함)가 17,42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0원(-5.8%)이 감소했다. 정규직은 18,210원으로 1,223원(-6.3%)이 감소했고, 비정규직(특수형태 포함)은 15,156원으로 663원(-4.2%)이 감소했다(〈부표 3-8〉 참조). 비정규직의 경우 기간제, 단시간,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시간당 임금이 하락하였다.

## 2) 근로형태별 임금격차와 저임금 비율

코로나19 전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저임금노동자 수(월평균임금 기준 정규직 제외)와 비중이 증가했다.

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2016년 이래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고, 비정규직은 2019년까지 상승하다 2020년 하락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월평균임금 격차는 2017년 감소했다가 이후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2016년 279만 9천원에서 점차 상승하여 2019년 316만 5천원, 2020년 323만 4천원으로 인상되었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2016년 149만 8천원에서 2019년 172만 9천원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 171만 1천원으로 하락하였다.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와 일일근로 종사자의 월평균임금은 2019년까지 상승하다 2020년 하락하였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2017년 상승, 2018년 하락, 2019년 상승했다가 2020년 다시 하락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2016년 53.5%에서 2017년 55.0%로 격차가 줄어들었다가 이후 격차가 확대되어 2019년 54.6%, 2020년 52.9%로 감소하였다.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2016년 대비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와 일일근로 종사자의 월평균임금은 2019년까지 격차가 감소하다 2020년 확대되었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2017년 축소, 2018년 확대, 2019년 축소되었다가 2020년 다시 확대되었다.

〈표 3-59〉 연도별 근로형태별 월 평균 임금 및 격차(정규직=100)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만원, %)

구분	금액					격차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임금노동자	237.2	243.0	255.8	264.3	268.1	84.7	85.2	85.0	83.5	82.9
정규직	279.9	285.1	300.9	316.5	323.4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전체	149.8	156.9	164.4	172.9	171.1	53.5	55.0	54.6	54.6	52.9
•한시적 근로자	167.0	174.2	181.8	186.0	185.7	59.7	61.1	60.4	58.8	57.4
-기간제	166.3	170.8	176.2	180.6	187.7	59.4	59.9	58.6	57.1	58.0
-비기간제	169.9	186.8	202.3	207.0	174.1	60.7	65.5	67.2	65.4	53.8
•시간제	74.3	80.3	86.7	92.7	90.3	26.5	28.2	28.8	29.3	27.9
•비전형근로자	157.3	170.3	174.7	185.8	185.4	56.2	59.7	58.1	58.7	57.3
-파견/용역	152.5	160.6	175.5	187.0	196.3	54.5	56.3	58.3	59.1	60.7
-파견근로	174.5	175.1	193.2	207.1	217.3	62.3	61.4	64.2	65.4	67.2
-용역근로	146.2	156.7	169.9	181.1	190.1	52.2	55.0	56.5	57.2	58.8
-특수형태근로	200.1	215.2	201.3	216.6	214.9	71.5	75.5	66.9	68.4	66.5
-일일근로	137.7	154.4	159.2	164.3	160.8	49.2	54.2	52.9	51.9	49.7
-가정내근로	77.6	76.5	98.0	93.4	110.9	27.7	26.8	32.6	29.5	34.3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각 비정규직 형태별 상대임금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시간당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2017년 이래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시간당임금 격차는 2019년까지 줄다가 2020년 다시 확대되었다.

정규직의 시간당임금은 2016년 15,215원에서 점차 상승하여 2019년 17,225원, 2020년 17,755원으로 인상되었고, 비정규직은 2016년 9,948에서 점차 상승하여 2019년 11,863원, 2020년 11,895원으로 인상되었다.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의 시간당임금은 2016년 이래 꾸준히 인상되었다. 그리고 시간제와 일일근로 종사자는 2019년까지 상승하다 2020년 하락하였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2017년 상승, 2018년 하락, 2019년 상승했다가

2020년 다시 하락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016년 65.4%에서 2019년 68.9%로까지 격차가 줄었다가 2020년 67.0%로 격차가 다시 커졌다.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는 2017년 확대, 2018년 감소, 2019년 확대되었다가 2020년 다시 감소하였다. 기간제는 2019년까지 격차가 줄어들다가 2020년 다시 확대되었으며, 특수형태근로와 일일근로 종사자는 2017년 감소, 2018년 확대, 2019년 감소되었다가 2020년 다시 확대되었다.

〈표 3-60〉 연도별 근로형태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정규직=100)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원, %)

구분	금액					격차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임금노동자	13,486	13,754	14,607	15,274	15,627	88.6	89.1	89.4	88.7	88.0
정규직	15,215	15,432	16,337	17,225	17,755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전체	9,948	10,328	11,093	11,863	11,895	65.4	66.9	67.9	68.9	67.0
•한시적 근로자	10,489	10,757	11,646	11,946	12,236	68.9	69.7	71.3	69.4	68.9
-기간제	10,603	10,728	11,530	11,861	12,364	69.7	69.5	70.6	68.9	69.6
-비기간제	10,032	10,864	12,074	12,271	11,491	65.9	70.4	73.9	71.2	64.7
•시간제	9,002	9,198	10,157	11,083	10,827	59.2	59.6	62.2	64.3	61.0
•비전형근로자	9,308	9,863	10,240	11,252	11,297	61.2	63.9	62.7	65.3	63.6
-파견/용역	8,740	9,014	9,862	10,536	11,225	57.4	58.4	60.4	61.2	63.2
-파견근로	10,237	10,844	11,402	11,932	12,635	67.3	70.3	69.8	69.3	71.2
-용역근로	8,311	8,518	9,373	10,122	10,806	54.6	55.2	57.4	58.8	60.9
-특수형태근로	11,886	12,257	11,548	13,076	12,724	78.1	79.4	70.7	75.9	71.7
-일일근로	8,419	9,336	9,856	10,719	10,511	55.3	60.5	60.3	62.2	59.2
-가정내근로	6,578	7,123	7,600	8,404	9,926	43.2	46.2	46.5	48.8	55.9

주: 1)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2)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3)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각 비정규직 형태별 상대임금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의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특

수형태 포함)의 월평균임금은 2016년 이래 상승하였으나 정규직의 상승폭이 2배 이상 컸고,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점차 확대되었다(〈부표 3-9〉 참조). 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2016년 267만 4천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9년 300만 6천원, 2020년 311만 6천원으로 인상된데 비해 비정규직(특수형태 포함)은 2016년 155만 3천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9년 173만원, 2020년 175만 3천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정규직 증가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비정규직 가운데 일일근로 종사자만이 2020년 월평균임금이 하락했는데, 2016년 138만 3천원에서 점차 상승하여 2019년 156만 4천원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 148만 1천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특수형태 포함)은 2016년 58.1%에서 점차 하락하여 2019년 57.1%, 2020년 56.3%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비정규직 가운데 일일근로 종사자는 2016년 51.7%에서 2018년 53.6%로 격차가 감소했다가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19년 52.0%, 2020년 47.5%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기간제는 2019년 72.3%에서 2020년 71.8%로 하락했고, 단시간 종사자는 같은 기간 30.6%에서 29.9%로 하락, 용역종사자는 62.8%에서 62.2%로 하락, 재택/가내근로는 49.6%에서 48.8%로 하락하여 격차가 확대되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의하면 시간당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특수형태 포함) 모두 2016년 이래 2019년까지 상승하다가 2020년 하락하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시간당임금 격차는 2017년 축소되었다가 2019년까지 확대되다 2020년 다시 축소되었다(〈부표 3-10〉 참조).

정규직의 시간당임금은 2016년 15,648원에서 2019년 19,433원까지 상승했다가, 2020년 18,210원으로 하락했다. 비정규직(특수형태 포함)은

2016년 12,452에서 2019년 15,819원까지 상승했다가, 2020년 15,156원으로 하락했다. 비정규직 가운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2016년부터, 그리고 일일근로종사자는 2020년부터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근로형태에서 2020년 시간당임금이 하락한 것과 달리 일일근로와 재택/가내근로 종사자의 경우는 2020년 시간당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특수형태 포함)의 시간당 임금은 2016년 79.6%에서 2017년 83.3%로 축소되었다가 점차 하락하여 2019년 81.4%로 확대되었다가 2020년 83.2%로 격차가 축소되었다. 재택/가내근로 종사자는 2016년 64.9%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 74.6%로 격차가 축소되었다. 모든 근로형태에서 2019년 대비 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전후 임금수준별 노동자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월평균 임금 기준으로는 비정규직은 저임금노동자는 증가하고 고임금노동자는 감소한데 비해, 정규직은 저임금노동자와 고임금노동자 모두 감소하였다. 그리고 시간당 임금기준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저임금노동자가 증가하고 고임금노동자가 감소했는데, 비정규직에서 저임금노동자의 증가규모가 훨씬 컸다. 2020년 기준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정규직은 5.5~8.1%에 이르는데 비해 비정규직은 33.7~4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전후 월평균 임금 기준 저임금노동자의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8월 기준 정규직 가운데 저임금노동자는 71만 4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 2천명(-13.6%) 감소한데 비해, 비정규직은 362만 5천명으로 1만 3천명(0.4%)이 증가하였다.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 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형태근로, 가정내 근로 종사자의 경우 저임금노동자 수가 감소한데 비해, 시간제와 일일근로 종사자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8만 8천명(3.2%), 10

만 1천명(27.0%)이 증가했다. 이에 비해 고임금노동자는 정규직이 379만 4천명으로 같은 기간 42만 7천명(-10.6%)이 감소하였고, 비정규직은 44만 명으로 7만 7천명(-14.9%)이 감소하였다.

〈표 3-61〉 근로형태별·임금수준별 노동자 규모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천명)

구분	2019			2020			증감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임금노동자	4,438	11,383	4,738	4,339	11,873	4,234	-99	490	-504
정규직	826	8,030	4,221	714	8,513	3,794	-112	483	-427
비정규직 전체	3,612	3,353	517	3,625	3,360	440	13	7	-77
•한시적 근로자	1,929	2,491	365	1,860	2,404	343	-69	-87	-22
-기간제	1,553	1,996	250	1,538	2,091	304	-15	95	54
-비기간제	376	495	115	322	313	39	-54	-182	-76
•시간제	2,766	344	45	2,854	372	27	88	28	-18
•비전형근로자	826	1,078	142	864	1,109	100	38	31	-42
-파견/용역	257	507	33	206	481	29	-51	-26	-4
-파견근로	51	117	14	40	112	12	-11	-5	-2
-용역근로	206	390	19	166	369	17	-40	-21	-2
-특수형태근로	202	248	79	198	252	48	-4	4	-31
-일일근로	374	344	30	475	397	23	101	53	-7
-가정내근로	39	6	1	37	10	2	-2	4	1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위임금의 2/3 수준 이상~3/2 수준 미만, 고임금은 중위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월평균임금 기준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정규직은 5.5%로 전년 동기 대비 0.8%p 감소한데 비해, 비정규직은 48.8%로 0.5%p 증가했다.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 특수형태근로 및 일일근로 종사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했다. 고임금노동자의 비중은 정규직이

29.1%로 같은 기간 3.2%p 감소했고, 비정규직이 5.9%로 1.0%p 감소했다.

〈표 3-62〉 근로형태별 임금수준별 노동자 비중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 %p)

구분	2019			2020			증감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임금노동자	21.6	55.4	23.0	21.2	58.1	20.7	-0.4	2.7	-2.3
정규직	6.3	61.4	32.3	5.5	65.4	29.1	-0.8	4.0	-3.2
비정규직 전체	48.3	44.8	6.9	48.8	45.3	5.9	0.5	0.5	-1.0
•한시적 근로자	40.3	52.1	7.6	40.4	52.2	7.4	0.1	0.1	-0.2
-기간제	40.9	52.5	6.6	39.1	53.2	7.7	-1.8	0.7	1.1
-비기간제	38.2	50.2	11.6	47.8	46.4	5.8	9.6	-3.8	-5.8
•시간제	87.7	10.9	1.4	87.8	11.4	0.8	0.1	0.5	-0.6
•비전형근로자	40.4	52.7	6.9	41.7	53.5	4.8	1.3	0.8	-2.1
-파견/용역	32.2	63.6	4.2	28.7	67.2	4.1	-3.5	3.6	-0.1
-파견근로	27.9	64.2	7.9	24.3	68.1	7.6	-3.6	3.9	-0.3
-용역근로	33.5	63.4	3.1	30.1	66.9	3.0	-3.4	3.5	-0.1
-특수형태근로	38.2	46.9	14.9	39.9	50.5	9.6	1.7	3.6	-5.3
-일일근로	49.9	46.0	4.0	53.0	44.4	2.6	3.1	-1.6	-1.4
-가정내근로	85.7	12.8	1.6	75.5	20.0	4.6	-10.2	7.2	3.0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  
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위임금의 2/3 수준 이상~3/2 수준 미만, 고임금은 중위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시간당 임금 기준 저임금노동자의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8월 기준 정규직 가운데 저임금노동자는 105만 1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명 (6.1%) 증가하였고, 비정규직은 249만 9천명으로 24만 7천명(11.0%)이 증가하였다. 비정규직 가운데 파견과 용역근로 종사자는 감소한 반면, 기간제, 시간제, 특수형태근로, 일일근로, 가정내 근로 종사자 수는 증가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일일근로 13만 5천명(57.7%), 시간제 12만 명(8.2%), 기간



제 6만 9천명(6.5%)의 순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비해 고임금노동자는 정규직이 403만 8천명으로 같은 기간 4만 9천명(-1.2%)이 감소하였고, 비정규직은 68만 6천명으로 5만 1천명(-6.9%)이 감소하였다.

〈표 3-63〉 근로형태별 임금수준별 노동자 규모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천명)

구분	2019			2020			증감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임금노동자	3,242	12,492	4,824	3,550	12,172	4,723	308	-320	-101
정규직	991	8,001	4,087	1,051	7,931	4,038	60	-70	-49
비정규직 전체	2,252	4,492	737	2,499	4,241	686	247	-251	-51
•한시적 근로자	1,300	3,035	450	1,359	2,802	446	59	-233	-4
-기간제	1,056	2,407	336	1,125	2,408	399	69	1	63
-비기간제	244	627	114	234	394	47	-10	-233	-67
•시간제	1,458	1,405	293	1,578	1,421	254	120	16	-39
•비전형근로자	586	1,278	181	718	1,214	141	132	-64	-40
-파견/용역	215	549	33	184	503	30	-31	-46	-3
-파견근로	39	127	16	33	122	10	-6	-5	-6
-용역근로	176	422	17	152	380	20	-24	-42	3
-특수형태근로	140	297	91	179	250	69	39	-47	-22
-일일근로	234	458	55	369	485	42	135	27	-13
-가정내근로	25	17	4	29	14	5	4	-3	1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간은 중위임금의 2/3 수준 이상~3/2 수준 미만, 고임금은 중위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8월 시간당 임금 기준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정규직은 8.1%로 전년 동기 대비 0.5%p 증가하였고, 비정규직은 33.7%로 3.6%p 증가했다.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 시간제, 특수형태근로·일일근로·가정내근로 종사자

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했다. 고임금노동자의 비중은 정규직이 31.0%로 같은 기간 0.3%p 감소했고, 비정규직이 9.2%로 0.7%p 감소했다.

〈표 3-64〉 근로형태별 임금수준별 노동자 비중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 %p)

구분	2019			2020			증감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임금노동자	15.8	60.8	23.5	17.4	59.5	23.1	1.6	-1.3	-0.4
정규직	7.6	61.2	31.3	8.1	60.9	31.0	0.5	-0.3	-0.3
비정규직 전체	30.1	60.0	9.9	33.7	57.1	9.2	3.6	-2.9	-0.7
•한시적 근로자	27.2	63.4	9.4	29.5	60.8	9.7	2.3	-2.6	0.3
-기간제	27.8	63.4	8.8	28.6	61.2	10.1	0.8	-2.2	1.3
-비기간제	24.7	63.7	11.6	34.6	58.4	7.0	9.9	-5.3	-4.6
•시간제	46.2	44.5	9.3	48.5	43.7	7.8	2.3	-0.8	-1.5
•비전형근로자	28.7	62.5	8.9	34.6	58.6	6.8	5.9	-3.9	-2.1
-파견/용역	27.0	68.9	4.2	25.7	70.2	4.1	-1.3	1.3	-0.1
-파견근로	21.4	69.8	8.8	19.8	74.4	5.9	-1.6	4.6	-2.9
-용역근로	28.6	68.6	2.8	27.5	68.9	3.6	-1.1	0.3	0.8
-특수형태근로	26.5	56.2	17.3	35.9	50.3	13.9	9.4	-5.9	-3.4
-일일근로	31.3	61.3	7.4	41.2	54.2	4.6	9.9	-7.1	-2.8
-가정내근로	54.4	36.9	8.7	59.6	29.3	11.1	5.2	-7.6	2.4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간은 중위임금의 2/3 수준 이상~3/2 수준 미만, 고임금은 중위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저임금노동자의 규모와 비중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월평균임금 기준일 때 비정규직은 2016년이래 2018년까지 감소했다가 2019년부터 증가추이를 보인데 비해, 정규직은 2018년까지 감소하다 2019년 증가했으나 2020년 다시 감소했다. 시간당 임금기준일 때는 비정규직은 2018년까지 감소했다가

2019년부터 증가했고, 정규직은 2019년까지 감소하다 2020년 증가했다.

월평균 임금기준으로 저임금노동자의 규모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2017년 36만 5천명(-26.2%) 감소, 2018년 34만 명(-33.1%) 감소했다가 2019년 13만 8천명(20.1%) 증가했으나 다시 2020년 11만 2천명(-13.6%) 감소했다. 비정규직은 2017년 24만 1천명(-7.3%) 감소, 2018년 16만 2천명(-5.3%) 감소했다가 2019년 70만 9천명(24.4%), 2020년 1만 3천명(0.4%) 증가했다.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는 2017년 증가했다가 2018년 감소했으나 2019년부터 다시 증가했다. 가정내 근로 종사자는 2018년까지 감소하다 2019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표 3-65〉 연도별 근로형태별 저임금노동자 규모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임금노동자	4,699	4,093	3,591	4,438	4,339
정규직	1,393	1,028	688	826	714
비정규직 전체	3,306	3,065	2,903	3,612	3,625
•한시적 근로자	1,555	1,388	1,350	1,929	1,860
-기간제	1,244	1,113	1,080	1,553	1,538
-비기간제	311	275	269	376	322
•시간제	2,223	2,326	2,299	2,766	2,854
•비전형근로자	985	735	670	826	864
-파견/용역	382	285	204	257	206
-파견근로	61	50	39	51	40
-용역근로	321	235	165	206	166
-특수형태근로	162	136	139	202	198
-일일근로	454	330	324	374	475
-가정내근로	38	25	38	39	37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월평균 임금기준으로 비증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2016년 10.5%에서 2018년 5.1%까지 감소하다 2019년 6.3%로 증가했으나 2020년 5.5%로 다시 감소하였다. 비정규직은 2016년 51.0%에서 2018년 43.9%까지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여 2019년 48.3%, 2020년 48.8%를 차지하였다. 비정규직 가운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경우는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2017년 감소했다가 2018년부터 증가하였고, 일일근로 종사자의 경우는 2018년까지 감소하다 2019년부터 증가하였다.

**〈표 3-66〉 연도별 근로형태별 저임금노동자 규모 변화(전년 대비 증감률)**  
(월평균임금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전년 동기 대비 규모변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7	'18	'19	'20	'17	'18	'19	'20
임금노동자	-606	-502	847	-99	-12.9	-12.3	23.6	-2.2
정규직	-365	-340	138	-112	-26.2	-33.1	20.1	-13.6
비정규직	-241	-162	709	13	-7.3	-5.3	24.4	0.4
•한시적 근로	-167	-38	579	-69	-10.7	-2.7	42.9	-3.6
-기간제	-131	-33	473	-15	-10.5	-3.0	43.8	-1.0
-비기간제	-36	-6	107	-54	-11.6	-2.2	39.8	-14.4
•시간제	103	-27	467	88	4.6	-1.2	20.3	3.2
•비전형 근로	-250	-65	156	38	-25.4	-8.8	23.3	4.6
-파견근로	-97	-81	53	-51	-25.4	-28.4	26.0	-19.8
-용역근로	-11	-11	12	-11	-18.0	-22.0	30.8	-21.6
-특수형태근로	-86	-70	41	-40	-26.8	-29.8	24.8	-19.4
-일일근로	-26	3	63	-4	-16.0	2.2	45.3	-2.0
-가정내근로	-124	-6	50	101	-27.3	-1.8	15.4	27.0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3-67〉 연도별 근로형태별 저임금노동자 비중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 %p)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임금노동자	23.8	20.5	17.9	21.6	21.2
정규직	10.5	7.7	5.1	6.3	5.5
비정규직 전체	51.0	46.6	43.9	48.3	48.8
•한시적 근로자	42.4	37.3	35.3	40.3	40.4
-기간제	42.3	38.0	36.0	40.9	39.1
-비기간제	42.4	34.5	32.9	38.2	47.8
•시간제	89.4	87.3	84.9	87.7	87.7
•비전형근로자	43.9	34.8	32.4	40.4	41.7
-파견/용역	42.3	32.4	26.0	32.2	28.7
-파견근로	30.3	26.5	20.5	27.9	24.3
-용역근로	45.7	33.9	27.8	33.5	30.1
-특수형태근로	32.2	27.4	27.5	38.2	39.9
-일일근로	52.0	41.2	40.5	49.9	53.0
-가정내근로	89.6	85.0	72.3	85.7	75.5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시간당 임금기준으로 저임금노동자의 고용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2017년 19만 명(-9.9%), 2018년 56만 7천명(-32.8%), 2019년 17만명(-14.6%) 감소했다가 2020년 6만 명(6.1%)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2017년 11만 8천명(-4.4%), 2018년 56만 5천명(-22.1%) 감소했다가 2019년 26만 3천명(13.2%), 2020년 24만 7천명(11.0%) 증가했다.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는 저임금노동자의 규모가 2018년까지 감소하다 201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고, 시간제는 2017년 증가했다가 2018년 감소했으나 201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일일근로 종사자의 경우는 2017년 감소했다가 2018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고, 가정내근로 종사자의 경우는 2019년까지 감소하다

2020년 증가했다.

〈표 3-68〉 연도별 근로형태별 저임금노동자 규모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16	'17	'18	'19	'20
임금노동자	4,589	4,282	3,150	3,242	3,550
정규직	1,918	1,728	1,161	991	1,051
비정규직 전체	2,672	2,554	1,989	2,252	2,499
•한시적 근로자	1,378	1,333	1,030	1,300	1,359
-기간제	1,081	1,050	808	1,056	1,125
-비기간제	297	283	222	244	234
•시간제	1,435	1,488	1,162	1,458	1,578
•비전형근로자	929	764	614	586	718
-파견/용역	409	360	215	215	184
-파견근로	68	52	34	39	33
-용역근로	341	308	181	176	152
-특수형태근로	131	118	130	140	179
-일일근로	397	299	269	234	369
-가정내근로	31	22	29	25	29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균 1주당 근로시간\*30.4/7)

3)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시간당 임금기준으로 비중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2016년 14.5%에서 2019년 7.6%로까지 감소했으나 2020년 8.1%로 증가하였다. 비정규직은 2016년 41.2%에서 2018년 30.1%까지 감소하다 2020년 33.7%로 증가하였다.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와 시간제는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2018년까지 감소하다 201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2017년 감소했다가 2018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일일근로 및 가정내근로 종사자는 2019년까지 감소하다 2020년 증가하였다.

〈표 3-69〉 연도별 근로형태별 저임금노동자 규모 변화(전년 대비 증감률)  
(시간당임금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전년 동기 대비 규모변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7	'18	'19	'20	'17	'18	'19	'20
임금노동자	-307	-1,132	92	308	-6.7	-26.4	2.9	9.5
정규직	-190	-567	-170	60	-9.9	-32.8	-14.6	6.1
비정규직	-118	-565	263	247	-4.4	-22.1	13.2	11.0
•한시적 근로	-45	-303	270	59	-3.3	-22.7	26.2	4.5
-기간제	-31	-242	248	69	-2.9	-23.0	30.7	6.5
-비기간제	-14	-61	22	-10	-4.7	-21.6	9.9	-4.1
•시간제	53	-326	296	120	3.7	-21.9	25.5	8.2
•비전형 근로	-165	-150	-28	132	-17.8	-19.6	-4.6	22.5
-파견근로	-49	-145	0	-31	-12.0	-40.3	0.0	-14.4
-용역근로	-16	-18	5	-6	-23.5	-34.6	14.7	-15.4
-특수형태근로	-33	-127	-5	-24	-9.7	-41.2	-2.8	-13.6
-일일근로	-13	12	10	39	-9.9	10.2	7.7	27.9
-가정내근로	-98	-30	-35	135	-24.7	-10.0	-13.0	57.7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고임금노동자의 규모와 비중추이를 살펴보면, 월평균임금 기준으로 정규직은 규모와 비중 모두 2017년 증가했다가 2018년부터 감소추이를 보여왔고, 비정규직은 규모는 2017년부터 매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고, 비중은 2017년 증가한 이후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시간당임금 기준으로 고임금노동자의 규모변화 추이가 정규직은 2017년 감소, 2018년 증가한 이후 감소하였고, 비정규직은 2017년 감소, 2018년, 2019년 증가했다가 2020년 감소했다. 그리고 고임금노동자의 비중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2017년 감소, 2018~2019년 증가했다가 2020년 감소했다.

〈표 3-70〉 연도별 근로형태별 저임금노동자 비중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 %p)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임금노동자	23.3	21.4	15.7	15.8	17.4
정규직	14.5	12.9	8.7	7.6	8.1
비정규직 전체	41.2	38.8	30.1	30.1	33.7
•한시적 근로자	37.6	35.8	27.0	27.2	29.5
-기간제	36.8	35.8	26.9	27.8	28.6
-비기간제	40.6	35.6	27.2	24.7	34.6
•시간제	57.7	55.9	42.9	46.2	48.5
•비전형근로자	41.4	36.2	29.7	28.7	34.6
-파견/용역	45.3	40.9	27.4	27.0	25.7
-파견근로	33.9	27.7	17.7	21.4	19.8
-용역근로	48.6	44.4	30.4	28.6	27.5
-특수형태근로	26.2	23.7	25.7	26.5	35.9
-일일근로	45.5	37.4	33.6	31.3	41.2
-가정내근로	74.4	75.6	54.4	54.4	59.6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 기초하여 월평균 임금기준으로 고임금노동자의 고용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2017년 23만 4천명(4.7%)이 증가했다가 2018년 69만 9천명(-13.5%), 2019년 26만 7천명(-5.9%), 2020년 42만 7천명(-10.1%)이 감소했다(〈부표 3-12〉 참조). 비정규직은 2017년 10만 2천명(18.3%)이 증가, 2018년 18만 1천명(-27.5%) 감소했다가 2019년 4만 명(8.4%) 증가, 2020년 7만 7천명(-14.9%)이 감소했다.

월평균 임금기준으로 고임금노동자의 비중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2016년 37.3%에서 2018년 38.6%로 증가했다가 점차 하락하여 2020년



29.1%로 감소했다(〈부표 3-13〉 참조). 비정규직은 2016년 8.6%에서 2017년 10.0%로 증가했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0년 5.9%까지 감소했다. 2016년 대비 2.7%p 감소하였다. 2016년과 비교하여 비정규직 가운데 용역근로 종사자만 고임금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기준으로 고임금노동자의 규모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2017년 70만 9천명(-15.5%)이 감소했다가 2018년 33만 7천명(8.7%)이 증가했으나 2019년 10만 6천명(-2.5%), 2020년 4만 9천명(-1.2%) 감소했다(〈부표 3-15〉 참조). 비정규직은 2017년 9만 8천명(-14.9%) 감소, 2018년 8만 6천명(15.4%), 2019년 9만 1천명(14.1%)이 증가했다가 2020년 5만 1천명(-6.9%) 감소했다.

시간당 임금기준으로 고임금노동자의 비중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2016년 34.4%에서 2017년 28.7%로 감소했다가 이후 증가하여 2019년 31.3%까지증가했으나 2020년 29.1%로 감소했다(〈부표 3-16〉 참조). 비정규직은 2016년 10.2%에서 2017년 8.5%로 감소했다가 이후 증가하여 2019년 9.9%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 9.2%로 감소했다.

### 3. 근로형태별 노동실태 변화

#### 1) 취업시간

코로나19 전후 주당 평균노동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노동시간이 감소했다.

2020년 8월 정규직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2.7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시간(-1.4%) 감소하였고, 비정규직은 32.7시간으로 0.9시간(-2.7%) 감

소하였다. 비정규직 가운데 특수형태근로와 가정내근로 종사자만이 각각 0.1시간(0.3%), 0.2시간(0.7%) 증가했다.

주당 평균노동시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2017년 증가했다 2018년부터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고, 비정규직은 2017년부터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가운데 파견근로 종사자는 2019년까지 증가하다 2020년 감소하였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2019년 감소했다가 2020년 증가했으며, 가정내 근로 종사자는 2019년 감소했다가 2020년 증가했다.

〈표 3-71〉 연도별 근로형태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변화

(단위: 시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임금노동자	40.9	40.9	40.4	39.8	39.1
정규직	43.7	43.9	43.5	43.3	42.7
비정규직	35.2	34.8	34.1	33.6	32.7
•한시적 근로	37.6	37.4	36.0	35.4	34.3
-기간제	37.0	36.8	35.2	34.7	34.0
-비기간제	40.0	39.7	38.9	38.6	35.6
•시간제	20.9	20.9	20.5	20.0	19.6
•비전형근로	40.0	40.3	39.8	38.8	38.2
-파견근로	39.1	39.3	39.7	39.8	39.0
-용역근로	43.5	43.8	43.2	42.1	41.5
-특수형태근로	39.3	40.3	40.3	38.9	39.0
-일일근로	37.8	37.8	37.1	36.1	35.6
-가정내근로	30.1	27.7	31.4	28.1	28.3

주: 1) 주된 직장(일)의 평소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3-72〉 연도별 근로형태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변화(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시간, %)

구분	전년 동기 대비 규모변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7	'18	'19	'20	'17	'18	'19	'20
임금노동자	0.0	-0.5	-0.6	-0.7	0.0	-1.2	-1.5	-1.8
정규직	0.2	-0.4	-0.2	-0.6	0.5	-0.9	-0.5	-1.4
비정규직	-0.4	-0.7	-0.5	-0.9	-1.1	-2.0	-1.5	-2.7
•한시적 근로	-0.2	-1.4	-0.6	-1.1	-0.5	-3.7	-1.7	-3.1
-기간제	-0.2	-1.6	-0.5	-0.7	-0.5	-4.3	-1.4	-2.0
-비기간제	-0.3	-0.8	-0.3	-3.0	-0.7	-2.0	-0.8	-7.8
•시간제	0.0	-0.4	-0.5	-0.4	0.0	-1.9	-2.4	-2.0
•비전형 근로	0.3	-0.5	-1.0	-0.6	0.7	-1.2	-2.5	-1.5
-파견근로	0.2	0.4	0.1	-0.8	0.5	1.0	0.3	-2.0
-용역근로	0.3	-0.6	-1.1	-0.6	0.7	-1.4	-2.5	-1.4
-특수형태근로	1.0	0.0	-1.4	0.1	2.5	0.0	-3.5	0.3
-일일근로	0.0	-0.7	-1.0	-0.5	0.0	-1.9	-2.7	-1.4
-가정내근로	-2.4	3.7	-3.3	0.2	-8.0	13.4	-10.5	0.7

주: 1) 주된 직장(일)의 평소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주당 평균 노동시간 계층별 노동자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45시간 이상 노동자 규모와 비중이 감소했다. 정규직은 36-40시간과 15-35시간 종사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한데 비해, 비정규직은 15-35시간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했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장시간 노동자가 크게 감소했다.

정규직의 경우 52시간 초과 22만 3천명(-22.0%), 49-52시간 13만 1천명(-11.4%), 45-48시간 9만 2천명(-5.5%), 41-44시간 3만 2천명(-9.2%)의 순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비해 36-40시간 39만 1천명(4.4%), 15-35시간 2만 8천명(27.2%)이 증가했다.

〈표 3-73〉 근로형태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별 노동자 규모 변화

(단위: 천명)

구분		15 미만	15-35	36-40	41-44	45-48	49-52	52 초과
'19.08	임금노동자	932	2,422	11,497	438	2,313	1,542	1,414
	정규직	1	103	8,792	347	1,678	1,145	1,014
	비정규직 전체	932	2,320	2,706	91	636	397	400
	•한시적 근로자	633	966	2,027	80	480	287	312
	-기간제	573	746	1,651	62	342	208	218
	-비기간제	60	220	376	18	138	80	93
	•시간제	930	2,199	22	0	3	0	1
	•비전형근로자	86	463	925	27	229	151	164
	-파견근로	9	27	90	3	22	18	14
	-용역근로	17	106	268	13	74	50	88
	-특수형태근로	18	115	256	6	56	39	38
	-일일근로	41	217	331	4	79	46	29
	-가정내근로	6	26	5	2	2	4	1
'20.08	임금노동자	992	2,569	11,849	410	2,157	1,324	1,145
	정규직	1	131	9,183	315	1,586	1,014	791
	비정규직 전체	992	2,438	2,667	95	571	310	354
	•한시적 근로자	660	1,022	1,945	75	419	219	267
	-기간제	601	820	1,725	60	345	173	209
	-비기간제	59	202	220	15	74	46	58
	•시간제	990	2,255	7	0	0	1	0
	•비전형근로자	91	503	949	33	217	130	149
	-파견근로	9	29	82	1	22	12	10
	-용역근로	10	103	245	17	65	41	71
	-특수형태근로	15	97	277	7	35	26	41
	-일일근로	50	295	362	8	96	54	31
	-가정내근로	13	15	12	3	3	3	1

주: 1) 주된 직장(일)의 평소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3-74〉 근로형태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별 노동자 증감(률)

(단위: 천명, %)

구분		15 미만	15-35	36-40	41-44	45-48	49-52	52 초과
증감	임금노동자	60	147	352	-28	-156	-218	-269
	정규직	0	28	391	-32	-92	-131	-223
	비정규직 전체	60	118	-39	4	-65	-87	-46
	•한시적 근로자	27	56	-82	-5	-61	-68	-45
	-기간제	28	74	74	-2	3	-35	-9
	-비기간제	-1	-18	-156	-3	-64	-34	-35
	•시간제	60	56	-15	0	-3	1	-1
	•비전형근로자	5	40	24	6	-12	-21	-15
	-파견근로	0	2	-8	-2	0	-6	-4
	-용역근로	-7	-3	-23	4	-9	-9	-17
	-특수형태근로	-3	-18	21	1	-21	-13	3
	-일일근로	9	78	31	4	17	8	2
	-가정내근로	7	-11	7	1	1	-1	0
증감률	임금노동자	6.4	6.1	3.1	-6.4	-6.7	-14.1	-19.0
	정규직	0.0	27.2	4.4	-9.2	-5.5	-11.4	-22.0
	비정규직 전체	6.4	5.1	-1.4	4.4	-10.2	-21.9	-11.5
	•한시적 근로자	4.3	5.8	-4.0	-6.3	-12.7	-23.7	-14.4
	-기간제	4.9	9.9	4.5	-3.2	0.9	-16.8	-4.1
	-비기간제	-1.7	-8.2	-41.5	-16.7	-46.4	-42.5	-37.6
	•시간제	6.5	2.5	-68.2	-	-100.0	-	-100.0
	•비전형근로자	5.8	8.6	2.6	22.2	-5.2	-13.9	-9.1
	-파견근로	0.0	7.4	-8.9	-66.7	0.0	-33.3	-28.6
	-용역근로	-41.2	-2.8	-8.6	30.8	-12.2	-18.0	-19.3
	-특수형태근로	-16.7	-15.7	8.2	16.7	-37.5	-33.3	7.9
	-일일근로	22.0	35.9	9.4	100.0	21.5	17.4	6.9
	-가정내근로	116.7	-42.3	140.0	50.0	50.0	-25.0	0.0

주: 1) 주된 직장(일)의 평소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비정규직은 49-52시간 8만 7천명(-21.9%), 45-48시간 6만 5천명 (-10.2%), 52시간 초과 4만 6천명(-11.5%), 36-40시간 3만 9천명(-1.4%)

의 순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비해 15-35시간 11만 8천명(5.1%), 15시간 미만 6천명(6.4%), 41-44시간 4천명(4.4%)이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주로 35시간 단시간 노동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간제는 15시간 미만 2만 8천명, 15-35시간 7만 4천명, 36-40시간 7만 4천명, 45-48시간 3천 명이 증가하였다. 시간제는 15시간 미만 6만 명, 15-35시간 5만 6천명, 49-52시간 1천 명이 증가하였다. 일일근로 종사자는 모든 노동 시간대에서 고용이 증가했는데, 특히 15-35시간 종사자가 7만 8천명으로 증가규모가 가장 컸다.

정규직은 2020년 8월 전년 동기 대비 41시간 이상 노동자가 47만 8천명 (-11.4%) 감소하고, 40시간 이하 노동자가 41만 9천명(4.7%) 증가했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41시간 이상 노동자가 19만 4천명(-12.7%) 감소하고, 40시간 이하 노동자가 13만 9천명(2.3%) 증가했다. 이에 따라 모든 근로형태에서 41시간 이상 노동자의 비중이 감소했다. 정규직은 41시간 이상 노동자의 비중이 28.5%로 전년 대비 -3.6%p 감소했으며, 비정규직은 18.0%로 -2.3%p 감소했다.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는 15시간 미만 종사자의 비중만이 30.4%로 0.9%p 증가했다. 가정내 근로 종사자의 경우에는 41시간 이상 노동자의 비중이 19.9%로 1.6%p 증가했다.

〈표 3-75〉 근로형태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분포 변화

(단위: %, %p)

구분		15 미만	15-35	36-40	41-44	45-48	49-52	52 초과
'19. 08	임금노동자	4.5	11.8	55.9	2.1	11.3	7.5	6.9
	정규직	0.0	0.8	67.2	2.7	12.8	8.8	7.8
	비정규직 전체	12.5	31.0	36.2	1.2	8.5	5.3	5.3
	•한시적 근로자	13.2	20.2	42.4	1.7	10.0	6.0	6.5
	-기간제	15.1	19.6	43.5	1.6	9.0	5.5	5.8
	-비기간제	6.1	22.3	38.2	1.9	14.0	8.1	9.4

구 분		15 미만	15-35	36-40	41-44	45-48	49-52	52 초과
'19. 08	•시간제	29.5	69.7	0.7	0.0	0.1	0.0	0.0
	•비전형근로자	4.2	22.6	45.3	1.3	11.2	7.4	8.0
	-파견근로	4.9	14.7	49.6	1.5	11.9	9.9	7.6
	-용역근로	2.8	17.2	43.6	2.1	12.0	8.1	14.3
	-특수형태근로	3.5	21.7	48.5	1.1	10.7	7.3	7.2
	-일일근로	5.6	29.1	44.3	0.6	10.5	6.2	3.8
	-가정내근로	13.3	56.6	11.9	3.5	4.4	7.9	2.5
'20. 08	임금노동자	4.9	12.6	58.0	2.0	10.6	6.5	5.6
	정규직	0.0	1.0	70.5	2.4	12.2	7.8	6.1
	비정규직 전체	13.4	32.8	35.9	1.3	7.7	4.2	4.8
	•한시적 근로자	14.3	22.2	42.2	1.6	9.1	4.8	5.8
	-기간제	15.3	20.9	43.9	1.5	8.8	4.4	5.3
	-비기간제	8.8	30.0	32.7	2.2	10.9	6.8	8.6
	•시간제	30.4	69.3	0.2	0.0	0.0	0.0	0.0
	•비전형근로자	4.4	24.3	45.8	1.6	10.5	6.3	7.2
	-파견근로	5.4	17.6	49.8	0.3	13.6	7.0	6.4
	-용역근로	1.8	18.6	44.4	3.0	11.9	7.4	12.9
-특수형태근로	3.1	19.4	55.6	1.3	7.1	5.3	8.2	
-일일근로	5.5	33.0	40.4	0.8	10.7	6.1	3.5	
-가정내근로	25.7	30.6	23.8	5.6	5.5	6.0	2.8	
증감	임금노동자	0.4	0.8	2.1	-0.1	-0.7	-1.0	-1.3
	정규직	0.0	0.2	3.3	-0.3	-0.6	-1.0	-1.7
	비정규직 전체	1.0	1.8	-0.3	0.1	-0.8	-1.1	-0.5
	•한시적 근로자	1.1	2.0	-0.2	-0.1	-0.9	-1.2	-0.7
	-기간제	0.2	1.3	0.4	-0.1	-0.2	-1.1	-0.5
	-비기간제	2.7	7.7	-5.5	0.3	-3.1	-1.3	-0.8
	•시간제	0.9	-0.4	-0.5	0.0	-0.1	0.0	0.0
	•비전형근로자	0.2	1.7	0.5	0.3	-0.7	-1.1	-0.8
	-파견근로	0.6	2.9	0.2	-1.2	1.7	-2.9	-1.2
	-용역근로	-1.0	1.5	0.9	0.9	-0.1	-0.7	-1.4
-특수형태근로	-0.4	-2.3	7.1	0.2	-3.6	-2.0	1.0	
-일일근로	0.0	3.9	-3.9	0.2	0.2	-0.1	-0.3	
-가정내근로	12.4	-26.0	11.9	2.1	1.1	-1.9	0.3	

주: 1) 주된 직장(일)의 평소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2) 근속기간

평균 근속기간은 정규직만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전년과 동일하였다. 현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이 정규직은 8년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년 증가하였으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2.4년으로 동일하였다. 비정규직 가운데 다른 근로형태와 달리 파견근로 종사자는 평균 근속이 3.2년으로 0.1년 감소하였다.

평균 근속년수별로 고용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6개월 미만, 1-2년 미만, 5-10년 미만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고용이 감소했다. 대체로 근속이 짧은 노동자들에게 고용충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규직은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한데 비해, 비정규직은 6개월-1년 미만 단기근속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했다.

정규직의 경우 6개월 미만 14만 1천명(-10.1%), 5-10년 미만 7만 2천명(-3.0%), 6개월-1년 미만 6만 9천명(-6.7%), 1-2년 미만 6만 3천명(-3.8%)의 순으로 고용이 크게 감소했다. 이에 비해 10년 이상 16만 6천명(4.3%), 2-3년 미만 9만 1천명(7.9%), 3-5년 미만 2만 8천명(1.7%)의 순으로 고용이 크게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경우는 6개월 미만 19만 8천명(-6.3%), 3-5년 미만 4만 9천명(-7.7%), 1-2년 미만 7천명(-0.7%), 5-10년 미만 3천명(-0.5%)의 순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비해 6개월-1년 미만 15만 2천명(14.2%), 2-3년 미만 3만 2천명(6.0%), 10년 이상 1만 6천명(3.6%)의 순으로 고용이 크게 증가했다.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의 경우 6개월 미만에서만 34만 7천명(-21.9%)이 감소하고, 나머지 근속년수 계층에서는 고용이 증가하였다. 한편 기간제의 경우는 6개월-1년 미만에서 가장 큰 규모인 15만 명(27.3%)이 증가했고, 일일근로의 경우는 6개월 미만에서 가장 큰 규모인 14만 7천명(20.3%)이 증가하였다.



〈표 3-76〉 근로형태별 평균 근속년수별 노동자 규모 변화

(단위: 년, 천명)

구분	근속년수		규모							
	평균값	중위값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19	임금노동자	5.9	2.5	4,536	2,092	2,661	1,685	2,250	3,069	4,266
	정규직	7.9	4.5	1,390	1,026	1,637	1,155	1,614	2,437	3,820
	비정규직 전체	2.4	0.6	3,147	1,067	1,024	530	636	632	446
	•한시적 근로자	2.5	0.7	1,861	790	678	335	415	427	279
	-기간제	2.2	0.6	1,582	656	529	250	302	293	187
	-비기간제	3.6	1.4	278	134	149	84	113	134	92
	•시간제	1.7	0.5	1,457	549	455	205	218	174	99
	•비전형근로자	2.5	0.4	1,031	165	240	127	164	167	152
	-파견근로	3.3	1.3	52	24	30	13	19	30	14
	-용역근로	2.5	1.1	211	78	110	59	66	54	36
	-특수형태근로	5.5	2.7	87	48	86	51	78	76	101
	-일일근로	0.1	0.0	723	13	8	1	0	2	0
	-가정내근로	1.6	0.4	24	4	9	3	1	3	1
'20	임금노동자	6.0	2.6	4,198	2,176	2,592	1,808	2,229	2,994	4,449
	정규직	8.0	4.6	1,249	957	1,574	1,246	1,642	2,365	3,986
	비정규직 전체	2.4	0.6	2,949	1,219	1,017	562	587	629	462
	•한시적 근로자	2.3	0.7	1,496	968	713	370	391	380	289
	-기간제	2.4	0.8	1,235	870	602	314	342	334	236
	-비기간제	2.5	0.8	261	98	111	56	49	46	53
	•시간제	1.7	0.5	1,424	699	403	215	203	202	106
	•비전형근로자	2.4	0.3	1,113	153	181	136	149	191	151
	-파견근로	3.2	1.2	49	27	25	17	14	17	15
	-용역근로	2.9	1.6	160	65	88	59	60	87	32
	-특수형태근로	5.5	3.0	87	47	61	53	71	78	101
	-일일근로	0.1	0.0	870	15	4	3	2	2	0
	-가정내근로	2.5	0.4	27	3	2	4	4	7	2

주: 1) 주된 직장(일)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3-77〉 근로형태별 평균 근속년수별 노동자 규모 증감

(단위: 년, 천명, %)

구분	근속년수		규모							
	평균값	중위값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증감	임금노동자	0.1	0.1	-338	84	-69	123	-21	-75	183
	정규직	0.1	0.1	-141	-69	-63	91	28	-72	166
	비정규직 전체	0.0	0.0	-198	152	-7	32	-49	-3	16
	•한시적 근로자	-0.2	0.0	-365	178	35	35	-24	-47	10
	-기간제	0.2	0.2	-347	214	73	64	40	41	49
	-비기간제	-1.1	-0.6	-17	-36	-38	-28	-64	-88	-39
	•시간제	0.0	0.0	-33	150	-52	10	-15	28	7
	•비전형근로자	-0.1	-0.1	82	-12	-59	9	-15	24	-1
	-파견근로	-0.1	-0.1	-3	3	-5	4	-5	-13	1
	-용역근로	0.4	0.5	-51	-13	-22	0	-6	33	-4
	-특수형태근로	0.0	0.3	0	-1	-25	2	-7	2	0
	-일일근로	0.0	0.0	147	2	-4	2	2	0	0
	-가정내근로	0.9	0.0	3	-1	-7	1	3	4	1
	증감률	임금노동자	1.7	4.0	-7.5	4.0	-2.6	7.3	-0.9	-2.4
정규직		1.3	2.2	-10.1	-6.7	-3.8	7.9	1.7	-3.0	4.3
비정규직 전체		0.0	0.0	-6.3	14.2	-0.7	6.0	-7.7	-0.5	3.6
•한시적 근로자		-8.0	0.0	-19.6	22.5	5.2	10.4	-5.8	-11.0	3.6
-기간제		9.1	33.3	-21.9	32.6	13.8	25.6	13.2	14.0	26.2
-비기간제		-30.6	-42.9	-6.1	-26.9	-25.5	-33.3	-56.6	-65.7	-42.4
•시간제		0.0	0.0	-2.3	27.3	-11.4	4.9	-6.9	16.1	7.1
•비전형근로자		-4.0	-25.0	8.0	-7.3	-24.6	7.1	-9.1	14.4	-0.7
-파견근로		-3.0	-7.7	-5.8	12.5	-16.7	30.8	-26.3	-43.3	7.1
-용역근로		16.0	45.5	-24.2	-16.7	-20.0	0.0	-9.1	61.1	-11.1
-특수형태근로		0.0	11.1	0.0	-2.1	-29.1	3.9	-9.0	2.6	0.0
-일일근로		0.0	-	20.3	15.4	-50.0	200.0	-	0.0	-
-가정내근로		56.3	0.0	12.5	-25.0	-77.8	33.3	300.0	133.3	100.0

주: 1) 주된 직장(일)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근속년수 계층별 분포를 살펴보면 2020년 8월 기준 정규직은 10년 이상 (30.6%)이 가장 많고, 5-10년 미만(18.2%), 3-5년 미만(12.6%)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약 3명 중 1명이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이고, 2명 중 1명이 5년 이상의 근속을 가진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6개월 미만(39.7%), 6개월-1년 미만(16.4%), 1-2년 미만(13.7%)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고, 근속 2년 미만자가 비정규직의 6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년수 계층별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6개월 미만자의 비중(각각 -1.0%p, -2.4%p)이 감소했다. 정규직은 2년 미만과 5-10년 미만 근속자의 비중이 감소했고, 10년 이상(1.4%p) 근속자의 증가비중이 가장 컸다. 비정규직은 6개월 미만(-2.4%p)과 3-5년 미만(-0.6%p)에서만 비중이 감소했고, 6개월-1년 미만(2.1%p) 근속자의 증가비중이 가장 컸다.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10.3%p), 시간제(-2.4%p), 용역근로(-5.3%p) 종사자의 경우 6개월 미만 근속자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표 3-78〉 근로형태별 근속년수 평균값과 계층별 분포 변화

(단위: %, %p)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19.8. 임금노동자	22.1	10.2	12.9	8.2	10.9	14.9	20.8
정규직	10.6	7.8	12.5	8.8	12.3	18.6	29.2
비정규직 전체	42.1	14.3	13.7	7.1	8.5	8.5	6.0
•한시적 근로자	38.9	16.5	14.2	7.0	8.7	8.9	5.8
-기간제	41.7	17.3	13.9	6.6	8.0	7.7	4.9
-비기간제	28.2	13.6	15.1	8.6	11.5	13.6	9.4
•시간제	46.2	17.4	14.4	6.5	6.9	5.5	3.1
•비전형근로자	50.4	8.1	11.7	6.2	8.0	8.1	7.4
-파견근로	28.8	13.2	16.2	7.3	10.7	16.4	7.5
-용역근로	34.3	12.7	18.0	9.6	10.7	8.8	5.9
-특수형태근로	16.5	9.1	16.3	9.7	14.8	14.5	19.2
-일일근로	96.7	1.8	1.1	0.1	0.0	0.3	0.0
-가정내근로	53.1	8.3	19.2	6.3	2.9	7.5	2.7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20. 8.	임금노동자	20.5	10.6	12.7	8.8	10.9	14.7	21.8
	정규직	9.6	7.4	12.1	9.6	12.6	18.2	30.6
	비정규직 전체	39.7	16.4	13.7	7.6	7.9	8.5	6.2
	•한시적 근로자	32.5	21.0	15.5	8.0	8.5	8.2	6.3
	-기간제	31.4	22.1	15.3	8.0	8.7	8.5	6.0
	-비기간제	38.7	14.6	16.5	8.4	7.3	6.8	7.8
	•시간제	43.8	21.5	12.4	6.6	6.2	6.2	3.3
	•비전형근로자	53.7	7.4	8.7	6.5	7.2	9.2	7.3
	-파견근로	29.5	16.3	15.2	10.4	8.7	10.6	9.3
	-용역근로	29.0	11.7	16.0	10.7	10.9	15.8	5.9
	-특수형태근로	17.5	9.4	12.3	10.7	14.3	15.6	20.3
	-일일근로	97.1	1.7	0.5	0.4	0.2	0.2	0.0
	-가정내근로	54.9	6.7	3.3	9.1	7.5	13.8	4.8
	증 감.	임금노동자	-1.6	0.4	-0.2	0.6	0.0	-0.2
정규직		-1.0	-0.4	-0.4	0.8	0.3	-0.4	1.4
비정규직 전체		-2.4	2.1	0.0	0.5	-0.6	0.1	0.2
•한시적 근로자		-6.4	4.5	1.3	1.0	-0.2	-0.7	0.5
-기간제		-10.3	4.8	1.4	1.4	0.7	0.8	1.1
-비기간제		10.5	1.0	1.4	-0.2	-4.2	-6.8	-1.6
•시간제		-2.4	4.1	-2.0	0.1	-0.7	0.7	0.2
•비전형근로자		3.3	-0.7	-3.0	0.3	-0.8	1.1	-0.1
-파견근로		0.7	3.1	-1.0	3.1	-2.0	-5.8	1.8
-용역근로		-5.3	-1.0	-2.0	1.1	0.2	7.0	0.0
-특수형태근로		1.1	0.3	-4.0	1.0	-0.5	1.1	1.1
-일일근로		0.4	-0.1	-0.6	0.3	0.2	-0.1	0.0
-가정내근로		1.8	-1.6	-15.9	2.8	4.6	6.3	2.2

주: 1) 주된 직장(일)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3) 비자발적 취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비자발적 취업자의 규모와 비중의 격차가 크고, 전

년 동기 대비 비자발적 취업자의 규모와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와 일일근로 및 가정내근로 종사자는 비자발적 취업자의 규모와 비중이 증가하였다.

지난주 일자리 형태를 비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노동자의 수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감소한 가운데, 비정규직 중 시간제는 6만 8천명(4.4%), 일일근로 종사자는 11만 8천명(19.5%), 가정내근로 종사자는 3천명(15.0%)이 증가했다.

〈표 3-79〉 근로형태별 비자발적 취업자 규모 및 비중 변화

(단위: 천명, %)

구분	2019.8		2020.8		2019년 대비 변화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증감	증감률
임금노동자	5,500	26.8	5,027	24.6	-473	-8.6
정규직	2,150	16.4	1,802	13.8	-348	-16.2
비정규직	3,350	44.8	3,225	43.4	-125	-3.7
•한시적 근로자	1,982	41.4	1,770	38.4	-212	-10.7
-기간제	1,595	42.0	1,445	36.7	-150	-9.4
-비기간제	387	39.3	326	48.3	-61	-15.8
•시간제	1,537	48.7	1,605	49.3	68	4.4
•비전형근로자	1,151	56.3	1,180	56.9	29	2.5
-파견근로	62	34.1	55	33.3	-7	-11.3
-용역근로	336	54.7	286	51.8	-50	-14.9
-특수형태근로	183	34.7	159	32.0	-24	-13.1
-일일근로(호출근로)	605	80.9	723	80.7	118	19.5
-가정내근로	20	44.6	23	47.7	3	15.0

주: 1) 비자발적 사유는 주된 취업 사유가 ③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④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혹은 ⑤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인 경우가거나, 주된 취업 사유가 ⑥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⑦ 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⑧ 학업·학원수강·직업훈련·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⑨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⑩ 근무시간을 신중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⑪ 그 외 기타 사유인 응답자 중 취업동기가 비자발적이라고 응답한 경우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비자발적 취업자의 비중이 정규직은 13.8%로 전년 동기 대비 2.6%p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43.4%로 같은 기간 1.4%p 감소했다.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는 49.3%로 0.6%p 증가했고<sup>25)</sup>, 가정내근로 종사자는 47.7%로 3.1%p 증가했다.

#### 4.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 변화

##### 1) 사회보험 가입률

비정규직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이 하락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사회보험 가입률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 직장에서의 사회보험 가입률(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살펴보면, 정규직은 79.9%~92.6%에 이르는 데 비해, 비정규직은 37.8%~4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53.8~69.8%), 파견근로(58.8~76.0%) 및 용역근로(40.5~81.0%) 종사자의 사회보험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시간제(20.5~28.9%), 가정내근로(19.1~22.6%), 특수형태근로(4.6~7.6%), 일일근로(0.4~6.5%) 종사자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비정규직에서 국민연금 가입률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가입률이 증가했다.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79.9%로 전년 동기 대비 1.8%p, 국민연금은 88.0%로 0.5%p, 건강보험은 92.6%로 1.1%p 증가하였다. 비정

25)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2020년 지난 주 일자리 형태의 비자발적 선택사유로는 '당장 수입이 필요'(71.3%)가 가장 많았고,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자리가 없어서'(15.5%), '경력을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학업·학원수강·직업훈련·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10.6%),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근무시간을 신중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기타'(2.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규직은 국민연금이 37.8%로 전년 동기 대비 0.1%p 하락한데 비해, 고용보험 45.7%로 1.3%p, 건강보험은 49.0%로 1.0%p 증가하였다. 비정규직 가운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국민연금(-2.9%p), 건강보험(-4.6%p), 고용보험(-2.0%p) 가입률이 모두 하락하였고, 일일근로 종사자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0.1%p 하락했다.

〈표 3-80〉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변화

(단위: %, %p)

구분	2019. 8			2020. 8			증감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임금노동자	69.5	75.7	65.8	69.8	76.7	67.5	0.3	1.0	1.7
정규직	87.5	91.5	78.1	88.0	92.6	79.9	0.5	1.1	1.8
비정규직	37.9	48.0	44.4	37.8	49.0	45.7	-0.1	1.0	1.3
•한시적 근로자	49.0	61.7	56.0	50.5	65.2	59.1	1.5	3.5	3.1
-기간제	49.0	63.1	56.4	53.8	69.8	62.5	4.8	6.7	6.1
-비기간제	49.1	56.3	54.6	31.4	38.5	39.2	-17.7	-17.8	-15.4
•시간제	19.8	26.7	25.9	20.5	28.9	27.5	0.7	2.2	1.6
•비전형근로자	19.1	32.3	29.0	17.2	29.4	26.9	-1.9	-2.9	-2.1
-파견근로	58.3	75.6	72.5	58.8	76.0	72.6	0.5	0.4	0.1
-용역근로	38.3	75.2	59.2	40.5	81.0	61.8	2.2	5.8	2.6
-특수형태근로	7.5	9.5	9.6	4.6	4.9	7.6	-2.9	-4.6	-2
-일일근로	0.5	0.3	5.7	0.4	0.5	6.5	-0.1	0.2	0.8
-가정내근로	15.3	17.9	16.2	21.4	19.1	22.6	6.1	1.2	6.4

주: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지역가입자, 의료수급권자 및 직장가입피부양자는 제외)

2) 국민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포함

3) 고용보험의 경우 통계청은 2010년부터 특수직역연금 대상(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을 제외한 고용보험가입률을 발표하고 있어 수치의 차이가 존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2) 근로복지 수혜율

비정규직은 퇴직급여, 상여금, 교육훈련 경험 수혜비율이 하락한데 비해 정규직은 교육훈련경험 수혜비율이 감소하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복지 수혜율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상여금·교육훈련 등 근로복지 수혜율을 살펴보면 정규직은 58.4~91.9%가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27.5~41.2%만이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교육훈련경험만 58.4%로 전년 동기 대비 1.7%p 감소한데 비해, 시간외수당 62.8%로 1.9%p, 유급휴일 82.1% 2.0%p, 상여금이 86.6%로 0.2%p, 퇴직급여 91.9%로 0.2%p 증가하였다.

비정규직은 퇴직급여 40.4%, 상여금 37.6%, 교육훈련경험 41.2%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5%p, -0.6%p, -0.1%p 감소한데 비해, 시간외수당 27.5%, 유급휴일 34.1%로 각각 1.6%p, 1.1%p 증가했다.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2.5%p), 용역근로(-0.4%p), 특수형태근로(-1.6%p), 일일근로(-0.7%p), 가정내근로(-1.4%p) 종사자는 퇴직급여 적용률이 감소하였다. 상여금 수혜율이 파견근로(-2.8%p), 특수형태(-1.9%p), 일일근로(-1.9%p) 종사자는 하락했다. 또한 교육훈련경험이 파견근로(-3.1%p), 용역근로(-1.3%p), 특수형태(-5.2%p), 일일근로(-0.3%p) 종사자의 경우 하락하였다.



〈표 3-81〉 근로형태별 근로복지 수혜율 변화

(단위: %, %p)

구분	2019. 8					2020.8					증감				
	퇴직 급여	시간외 수당	유급 휴일 (휴가)	상여금	교육 훈련 경험	퇴직 급여	시간외 수당	유급 휴일 (휴가)	상여금	교육 훈련 경험	퇴직 급여	시간외 수당	유급 휴일 (휴가)	상여금	교육 훈련 경험
임금노동자	74.0	48.2	62.9	68.8	53.9	73.2	50.0	64.6	68.8	52.2	-0.8	1.8	1.7	0	-1.7
정규직	91.7	60.9	80.1	86.4	61.0	91.9	62.8	82.1	86.6	58.4	0.2	1.9	2	0.2	-2.6
비정규직	42.9	25.9	33.0	38.2	41.3	40.4	27.5	34.1	37.6	41.2	-2.5	1.6	1.1	-0.6	-0.1
•한시적	54.5	31.9	44.4	45.7	48.9	53.3	34.0	46.4	46.0	50.7	-1.2	2.1	2	0.3	1.8
-기간제	54.4	31.6	45.7	44.6	52.8	57.7	35.7	50.7	48.3	55.1	3.3	4.1	5	3.7	2.3
-비기간제	54.9	33.0	39.3	50.2	33.8	27.8	24.3	21.8	32.3	24.6	-27.1	-8.7	-17.5	-17.9	-9.2
•시간제	23.7	15.1	13.3	22.4	33.6	21.2	15.2	14.5	22.7	35.5	-2.5	0.1	1.2	0.3	1.9
•비전행	29.5	15.6	20.2	26.6	36.5	25.8	17.4	20.7	24.2	32.5	-3.7	1.8	0.5	-2.4	-4
-파견근로	68.7	39.4	55.1	53.8	52.6	70.5	47.1	62.2	51.0	49.5	1.8	7.7	7.1	-2.8	-3.1
-용역근로	70.6	31.5	46.5	50.8	42.1	70.2	38.4	54.6	55.3	40.8	-0.4	6.9	8.1	4.5	-1.3
-특수형태	6.2	1.7	3.9	18.2	58.5	4.6	1.8	2.7	16.3	53.3	-1.6	0.1	-1.2	-1.9	-5.2
-일일근로	0.8	6.8	0.5	4.4	11.4	0.1	8.0	0.5	2.5	11.1	-0.7	1.2	0	-1.9	-0.3
-가정내근로	16.7	1.5	9.0	12.3	13.1	15.3	1.8	17.1	31.0	26.9	-1.4	0.3	8.1	18.7	13.8

주: 1) 퇴직급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2) 시간외 수당은 수당의 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시간외 수당은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체에만 적용됨.  
 3) 유급휴일(휴가)는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산전후휴가) 중 한 개 이상 수혜 대상인 경우. 유급휴가는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체에만 적용됨.  
 4)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법정임금은 아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5. 근로형태별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와 조직률 변화

노조조직률은 정규직이 17.6%, 비정규직이 3.0%로 정규직이 훨씬 높고, 조합원의 대다수(91.2%)가 정규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조합원 수가 감소하였는데, 비정규직의 타격이 더 컸다. 이에 따라 전체 조합원 중 정규직의 비중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의 비중이 감소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조직률에는 변화가 없다.

전체 조합원 251만 3천명 가운데 정규직은 229만 1천 명(91.2%), 비정규직은 22만 1천명(8.8%)으로 조합원 대다수가 정규직이다. 정규직은 전년 동

기 대비 1만 3천명(-0.6%), 비정규직은 6천명(-2.6%)이 감소하였다.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6천 명)와 시간제(1만 1천명)를 중심으로 조합원이 증가했고, 나머지 근로형태에서는 조합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조합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이 8.8%로 전년 동기 대비 0.2%p 감소하고, 정규직의 비중이 그만큼 증가하였다. 비정규직 가운데 파견근로(7.2%), 기간제(3.9%), 용역근로(3.7%), 시간제(1.4%), 특수형태(0.4%)의 순으로 조직률이 높고, 파견근로와 시간제는 조직률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3%p, 0.2%p 상승했다.

〈표 3-82〉 근로형태별 노동조합 조합원 수 변화

(단위: 천명)

규모	2019. 8.				2020. 8.				증감			
	노조있음			노조 없음	노조있음			노조 없음	노조있음			노조 없음
	가입	미가입	가입 대상 아님		가입	미가입	가입 대상 아님		가입	미가입	가입 대상 아님	
임금노동자	2,530	1,238	1,475	15,316	2,513	1,368	1,454	15,111	-17	130	-21	-205
정규직	2,304	1,073	781	8,920	2,291	1,195	783	8,752	-13	122	2	-168
비정규직	227	165	693	6,396	221	173	672	6,359	-6	8	-21	-37
•한시적	184	143	620	3,837	174	141	581	3,712	-10	-2	-39	-125
-기간제	147	119	584	2,949	153	130	552	3,098	6	11	-32	149
-비기간제	38	24	36	888	21	10	29	614	-17	-14	-7	-274
•시간제	36	31	266	2,822	47	47	275	2,883	11	16	9	61
•비전형	40	18	69	1,918	34	18	81	1,940	-6	0	12	22
-파견근로	13	6	9	154	12	9	4	139	-1	3	-5	-15
-용역근로	23	11	23	558	20	7	26	499	-3	-4	3	-59
-특수형태	3	1	28	495	2	0	37	458	-1	-1	9	-37
-일일근로	1	0	8	739	0	0	13	883	-1	0	5	144
-가정내근로	0	0	2	44	0	1	1	47	0	1	-1	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3-83〉 근로형태별 노동조합 가입률 변화

(단위: %)

규모	2019. 8.				2020. 8.				증감			
	노조있음			노조 없음	노조있음			노조 없음	노조있음			노조 없음
	가입	미가입	가입대상 아님		가입	미가입	가입대상 아님		가입	미가입	가입대상 아님	
임금노동자	12.3	6.0	7.2	74.5	12.3	6.7	7.1	73.9	0.0	0.7	-0.1	-0.6
정규직	17.6	8.2	6.0	68.2	17.6	9.2	6.0	67.2	0.0	1.0	0.0	-1.0
비정규직	3.0	2.2	9.3	85.5	3.0	2.3	9.0	85.6	0.0	0.1	-0.3	0.1
●한시직	3.9	3.0	13.0	80.2	3.8	3.1	12.6	80.6	-0.1	0.1	-0.4	0.4
-기간제	3.9	3.1	15.4	77.6	3.9	3.3	14.0	78.8	0.0	0.2	-1.4	1.2
-비기간제	3.8	2.4	3.6	90.1	3.1	1.6	4.3	91.0	-0.7	-0.8	0.7	0.9
●시간제	1.2	1.0	8.4	89.4	1.4	1.4	8.5	88.7	0.2	0.4	0.1	-0.7
●비전형	2.0	0.9	3.4	93.8	1.7	0.9	3.9	93.6	-0.3	0.0	0.5	-0.2
-파견근로	6.9	3.3	5.1	84.8	7.2	5.7	2.5	84.7	0.3	2.4	-2.6	-0.1
-용역근로	3.7	1.7	3.7	90.8	3.7	1.3	4.7	90.4	0.0	-0.4	1.0	-0.4
-특수형태	0.6	0.2	5.4	93.8	0.4	0.0	7.5	92.1	-0.2	-0.2	2.1	-1.7
-일일근로	0.1	0.0	1.1	98.8	0.0	0.0	1.5	98.5	-0.1	0.0	0.4	-0.3
-가정내근로	0.0	0.0	3.9	96.2	0.0	3.0	1.6	95.4	0.0	3.0	-2.3	-0.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제4절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코로나19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임시직·일용직과 비정규직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 결과,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듯 재난과 위기의 영향은 평등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위기는 임시·일용직, 비정규직에게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전반적으로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에 따라 고용, 임금 및 노동조건, 사회보험, 노동조합 조직률 등에서 격차가 확대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먼저, 코로나 19에 따른 고용충격이 임시직·일용직과 비정규직에게 집중되었다. 2020년 8월 기준 임금노동자가 감소하였는데, 상용직은 증가한 반면 임

시작·일용직은 감소했고,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감소율이 높았다. 그리고 비정규직 내에서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했다.

고용감소가 임시직은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의 순으로 컸고, 일용직은 건설업, 제조업, 숙박음식업, 사업관리지원임대업, 교육서비스업의 순으로 컸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숙박음식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사업관리지원임대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업, 예술및여가업의 순으로 부정적 고용충격이 컸다.

둘째, 임시직·일용직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이 하락하였다. 평균 근속이 상용직은 7.8년, 정규직은 8년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데 비해, 임시직은 1.9년, 일용직은 0.2년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그리고 임시직과 일용직, 비정규직은 대체로 근속이 짧은 노동자들에게 고용충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속 2년 미만자가 임시직은 74.3%, 일용직은 97.7%, 비정규직은 6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시직·일용직과 비정규직 가운데 고용안정성있는 노동자의 비중이 하락하였고, 고용안정성있는 노동자의 비중이 상용직은 96.9%, 정규직은 99.2%에 이르는데 비해 임시직은 60.5%, 일용직은 18.4%, 비정규직은 56.6%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리고 비자발적 취업자의 비중이 일용직은 증가했고, 상용직은 12.9%, 정규직은 13.8%인데 비해, 임시직은 46.7%, 일용직은 76.6%, 비정규직은 4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정규직에서 고용이 증가한 근로형태는 일일근로 종사자, 기간제 및 시간제 등이었는데, 이는 낮은 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임금 등 주요 노동조건 현황과 코로나19 영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3-84〉 참조). 또한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국민연금건

강보험·고용보험)을 살펴보면, 일일근로 0.4~6.5%, 기간제 53.8~69.8%, 시간제 20.5~28.9%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3-84〉 비정규직 중 고용증가 근로형태의 노동조건 변화 현황

(단위: %, 만원, 원, 천명, 시간)

구분	일일근로 종사자			기간제			시간제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고용안정성	-	-	-	52.3	55.9	3.6	56.4	52.6	-3.8
월평균임금	164.3	160.8	-3.5	180.6	187.7	7.1	92.7	90.3	-2.4
월평균 임금격차	51.9	49.7	-2.2	57.1	58.0	0.9	29.3	27.9	-1.4
시간당임금	10,719	10,511	-208	11,861	12,364	503	11,083	10,827	-256
시간당 임금격차	62.2	59.2	-3.0	68.9	69.6	0.7	64.3	61.0	-3.3
저임금노동자 수(월평균임금기준)	374	475	101	1,553	1,538	-15	2,766	2,854	88
저임금노동자 비중(월평균임금기준)	49.9	53.0	3.1	40.9	39.1	-1.8	87.7	87.8	87.8
저임금노동자 수(시간당임금기준)	234	369	135	1,056	1,125	69	1,458	1,578	120
저임금노동자 비중(시간당임금기준)	31.3	41.2	9.9	27.8	28.6	0.8	46.2	48.5	2.3
주당 평균 취업시간	36.1	35.6	-0.5	34.7	34.0	-0.7	20.0	19.6	-0.4
평균 근속년수	0.1	0.1	0.0	2.2	2.4	0.2	1.7	1.7	0.0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	80.9	80.7	-0.2	42.0	36.7	-5.3	48.7	49.3	0.6
퇴직급여	0.8	0.1	-0.7	54.4	57.7	3.3	23.7	21.2	-2.5
상여금	4.4	2.5	-1.7	44.6	48.3	3.7	22.4	22.7	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주당 평균 노동시간대별 노동자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36-40시간과 15-35시간 종사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한데 비해, 비정규직은 15-35시간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했다.

상용직은 300인 미만에서 고용이 증가한데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은 300인 미만에서 고용이 감소했다. 300인 미만의 비중이 임시직은 96.9%(439만

4천명)로 0.4%p 증가했고, 일용직은 99.1%(132만 5천명)로 0.3%p 감소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 노동자가 감소했는데, 비정규직은 300인 미만의 비중이 94.3%(700만 2천명)로 전년 동기 대비 0.1%p 증가했다.

상용직과 정규직은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한데 비해, 임시직과 비정규직은 6개월-1년 미만 단기근속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했다.

넷째, 임금 감소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상승 등 임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임시직·일용직과 비정규직에게 더 크게 나타남에 따라 종사 지위에 따른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저임금노동자가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 수혜율의 하락과 상용직과 임시직·일용직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복지 수혜율의 격차는 이들 간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상용직과 정규직의 임금이 증가한 반면 임시직·일용직 및 비정규직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상용직과 정규직의 임금상승폭이 임시직·일용직이나 비정규직보다 훨씬 높음에 따라 상용직과 임시직·일용직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

근로복지(퇴직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상여금·교육훈련) 수혜율의 경우 상용직은 61.0~99.0%, 정규직은 58.4~91.9%가 적용받지만, 임시직은 12.0~36.2%, 일용직은 0.6~9.6%, 비정규직은 27.5~41.2%만이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직은 전년 동기 대비 상여금, 퇴직급여와 유급휴일 수혜비율이 하락했고, 일용직은 상여금, 퇴직급여, 교육훈련 수혜비율이 하락했으며, 비정규직은 상여금, 퇴직급여, 교육훈련 수혜율이 감소했다.

그리고 임시직·일용직(시간당임금 기준)과 비정규직 가운데 저임금노동자의 수와 비중이 증가했다.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상용직은 6.1%, 정규직은

5.5~8.1%인데 비해, 임시직은 45.2~58.1%, 일용직은 45.8%~61.1%, 비정규직은 33.7~4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가운데 비자발적 취업자의 비중이 시간제는 49.3%로 0.6%p 증가했고, 가정내근로 종사자는 47.7%로 3.1%p 증가했다.

다섯째, 임시직·일용직과 비정규직에게 고용충격이 집중되었고, 이들의 고용불안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다수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적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 가입률(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살펴보면, 상용직은 84.7%~98.0%, 정규직은 79.9%~92.6%에 이르는데 비해, 임시직은 22.3%~30.9%, 일용직은 0.4%~5.7%, 비정규직은 37.8%~4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시직·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이 증가한데 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감소했고, 비정규직에서 국민연금 가입률이 감소했다.

여섯째, 임시직·일용직과 비정규직에게 고용 및 임금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이들의 고용 및 임금을 보호하고 교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노동조합 가입률이 매우 낮고, 조합원 수가 감소하였다.

노동조합원이 상용직은 17.0%, 정규직은 17.6%인데 비해, 임시직이 0.8%, 일용직이 0.1%, 비정규직이 3.0%에 불과하다. 전체 조합원 중 상용직이 98.5%(251만 3천명), 정규직이 91.2%(229만 1천명)를 차지하고, 임시직은 0.4%(3만 5천명), 일용직은 0.1%(2천명), 비정규직은 8.8%(22만 1천명)에 불과하다. 상용직이나 일용직보다 임시직에서 조합원 감소규모가 가장 컸고, 비정규직의 감소율이 더 컸다.

위와 같은 결과는 코로나 19위기로 인한 고용충격이 임시직·일용직과 비정규직에게 집중되어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위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상

용직과 임시직·일용직,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시장에서의 종사상 지위나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 임금 및 노동조건, 사회안전망으로부터의 보호, 계층 이해대변 등에서 불평등과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K자 양극화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안정 노동계층에 집중된 고용 및 임금 충격과 낮은 근로복지 수혜율, 그리고 종사 지위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와 이들의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은 코로나19 확산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된 임시직과 일용직,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계층을 중심으로 이들의 고용과 소득 보호에 중점을 둔 위기 대응 필요성과 정책의 신속성, 그리고 취약노동계층 맞춤형의 보다 세밀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종사 지위에 따른 노동의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확대 및 노동자의 권리와 협상력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임시직·일용직 및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양질의 일자리 촉진정책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고용 및 임금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할 노동기본권 및 교섭력이 취약한 취약노동계층의 이해대변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제4장

## 코로나19가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 성별 및 연령계층별 비교를 중심으로

### 제1절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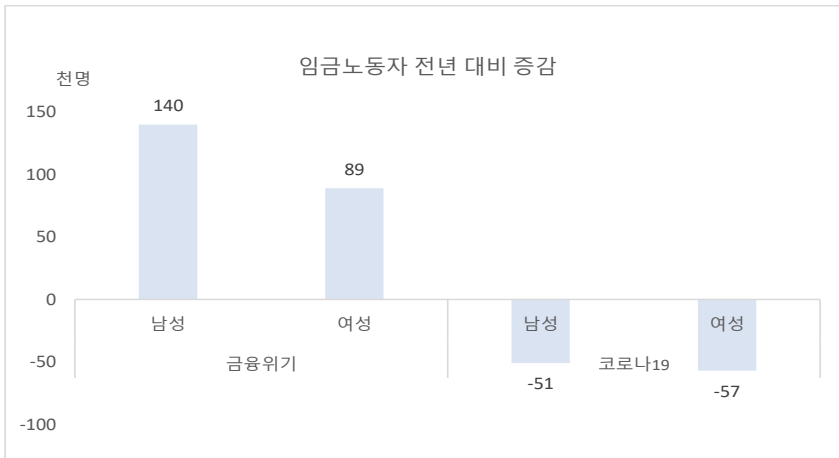
2020년 OECD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타격이 여성, 청년,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들(Vulnerable workers)에게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OECD, 2020a). 또한 숙박 및 식품 서비스와 같은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은 일자리 종사 비율이 높은 것과 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에 대한 신규 채용 감소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울 것을 전망했다. 영국에서는 25세 미만 청년들이 코로나19로 문을 닫는 일자리에서 일할 가능성이 나머지 연령층에 비해 약 2.5배 높았다(R. J., et al., 2020).

OECD는 코로나19는 이전 위기보다 여성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학교 및 보육시설 폐쇄로 인한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 노동시장을 퇴장하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많기 때문이다. OECD 국가 평균적으로 여성은 식음료 서비스(카페,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 일자리의 약 53%를 차지하고 호텔 등 숙박 서비스 및 소매 부문 일자리의 62%를 차지하는 것에서

대면서비스 일자리 폐쇄는 이 분야 종사 비중이 높은 여성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OECD, 2020d).

코로나19 팬데믹이 취약계층 고용에 더 큰 타격을 미친 것은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간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전체 임금노동자가 감소한 가운데 여성은 5만 7천명, 남성은 5만 1천명이 감소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6천명 더 많이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남성 노동자는 전년 동기 대비 14만명 증가하고 여성은 8만 9천명 증가하였다. 증가 규모는 여성이 남성보다 5만 1천명 적지만 코로나19와 다르게 임금노동자 수는 여성과 남성 모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 금융위기, 코로나19 성별 임금노동자 변화(2009, 2020)



주: 연간 기준 금융위기는 2008년 대비 2009년 증감. 코로나19는 2019년 대비 2020년 증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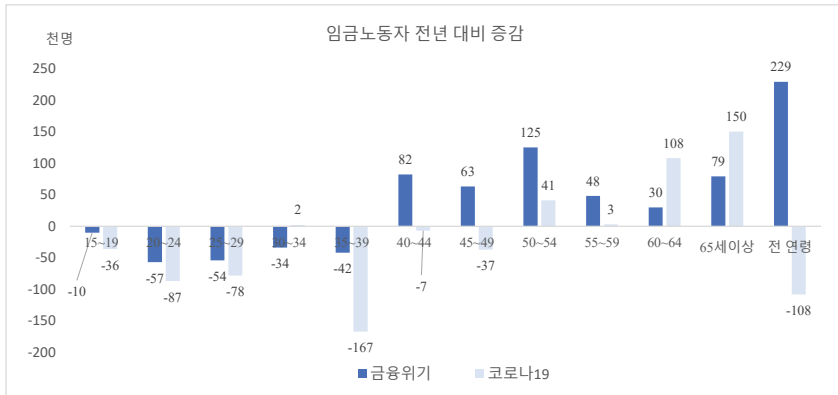
코로나19와 연령별 임금노동자 수 증감을 보면 55세 이상은 증가하고 54세 이하는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16만 7천명이 감소한 35-39세는 임금노동자 전체 감소 10만 7천명을 상회한다. 임금노동자

가 증가한 연령 중에서 특히 60-64세 10만 8천명, 65세 이상에서 15만명이 나 증가하였다.

과거 금융위기 시기에는 39세 이하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40세 이상은 증가하여 코로나19 시기와 다르게 40대의 고용감소는 없었다. 금융위기 시에는 50-54세가 전년 대비 12만 5천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컸다.

코로나19로 인한 임금노동자 감소는 남성보다 여성, 30대 이하에서 발생했다. 50세 이상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임금노동자 수가 증가했다.

[그림 4-2]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시기 연령별 임금노동자 변화(2009, 2020)



주: 연간 기준 금융위기는 2008년 대비 2009년 증감. 코로나19는 2019년 대비 2020년 증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본 장에서는 코로나19 위기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여성과 청년 및 고령층 등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데, 성별 및 연령계층별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2020년의 변화정도를 비교분석하고, 2020년의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은 고용변화, 인적 속성(성별·연령별)·종사자 지위 특성(종사상지위·고용형태)·사업 특성(사업체규모·산업) 별 고용변화, 임금수준 변화와 임금격차 및 저임금노동자 규모와 비율 변화,

취업시간·근속기간·비자발적 취업비율 등 노동실태 변화,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퇴직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상여금·교육훈련) 수혜율 변화,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와 조직률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변화 항목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기초하여 비교분석하고, 임금관련 항목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변화의 방향이 동일한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여성일자리 변화와 특성, 연령별로 청년 일자리 변화와 고용이 증가한 50대 이상의 일자리 변화와 특성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격차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머리말에 이어 제2절에서 성별 고용과 노동실태에 미친 영향을 비교분석하고, 제3절에서는 연령계층별로 고용과 노동실태에 미친 영향을 비교분석하며, 제4절에서는 각 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 제2절 성별 고용과 노동실태에 미친 영향

### 1. 성별 고용 영향

#### 1) 성별 규모 변화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8월 전년 동기 대비 전체 임금노동자는 11만 3천명(-0.5%)이 감소하였는데, 남성은 3만 5천명(-0.3%)이 감소했고, 여성은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7만 8천명(-0.9%)이 감소하였다. 코로나19가 여성 임금노동자 일자리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 임금노동자의 성별 규모 및 비중 변화

(단위: 천명,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8		2020.8		증감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증감률
임금노동자	20,559	100.0	20,446	100.0	-113	-0.5
남성	11,396	55.4	11,361	55.6	-35	-0.3
여성	9,163	44.6	9,085	44.4	-78	-0.9

주: 1) 임금노동자 전체 규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합임. 비정규직 각 유형(한시직, 비전형, 시간제)은 중복 집계되므로, 비정규직 전체 규모 및 비중과 일치하지 않음. 비정규직 전체수는 이와 같은 중복을 제거하고 집계한 것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최근 5년간 임금노동자 성별 규모는 2016년 8월 기준 1,974만 3천명 중 남성이 1,108만 6천명(56.2%), 여성이 865만 8천명(43.9%)이다. 2020년 8월 기준 임금노동자는 2,044만 6천명이고 이 중 남성은 1,136만 1천명(55.6%), 여성은 908만 5천명(44.4%)이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43.9%에서 2017년 44.1%로 처음으로 44%대에 진입하여 2019년까지 전체 임금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4.6%로 상승하다 2020년 8월에는 44.4%로 전년 동기 대비 0.2%p 하락하였다.

〈표 4-2〉 임금노동자의 성별 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규모					비중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임금노동자	19,743	20,006	20,045	20,559	20,446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성	11,086	11,188	11,171	11,396	11,361	56.2	55.9	55.7	55.4	55.6
여성	8,658	8,818	8,874	9,163	9,085	43.9	44.1	44.3	44.6	44.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2) 성별 특성별 고용변화

### ① 연령계층별 고용영향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월과 2020년 8월 임금노동자 연령별 규모변화는 35-39세가 18만 7천명이 감소하여 전체 임금노동자 11만 3천명 감소보다 7만 4천명이 많았다. 35-39세 다음으로는 25-29세가 10만 3천명이 감소하여 20대 후반, 30대 후반 연령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4세 5만 3천명 감소, 30-34세 2만 2천명 감소까지 합하면 20대는 15만 6천명, 30대는 20만 9천명으로 20-30대 청년층 일자리가 36만 5천명이나 감소하였다. 반면, 50세 이상 연령에서는 임금노동자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60-64세에서 11만 1천명, 65세 이상에서 18만 5천명이 증가하였다.

성별로 연령별 임금노동자 규모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임금노동자가 35-39세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것과 동일하게 35-39세에서 여성은 9만 1천명, 남성은 9만 6천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35-39세 다음으로 많이 감소한 연령대는 여성은 40-44세로 2만 9천명이 감소하였고 남성은 25-29세로 8만 1천명이 감소하였다. 성별로 2019년 8월 대비 임금노동자가 증가한 연령은 여성은 50-54세와 60세 이상에서 증가한 반면, 남성은 30-34세와 50세 이상에서 증가하였다. 여성과 다르게 남성은 30-34세 청년층에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월보다 1만 1천명 증가하였다.

〈표 4-3〉 성별 연령계층별 규모 변화

(단위: 천명)

구분	2019.8			2020.8		
	임금노동자	남성	여성	임금노동자	남성	여성
전체	20,559	11,396	9,163	20,446	11,361	9,085
15-19세	194	78	116	164	73	90
20-24세	1,235	511	724	1,182	478	704
25-29세	2,320	1,230	1,090	2,217	1,149	1,068
30-34세	2,208	1,297	911	2,186	1,308	878
35-39세	2,482	1,526	956	2,295	1,430	865
40-44세	2,384	1,403	981	2,347	1,395	952
45-49세	2,594	1,485	1,110	2,553	1,462	1,091
50-54세	2,378	1,313	1,065	2,413	1,338	1,074
55-59세	2,057	1,155	902	2,088	1,191	897
60-64세	1,288	712	576	1,399	773	626
65세 이상	1,418	686	732	1,603	764	83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연령별 임금노동자 증감률은 15-19세가 15.5% 감소로 감소율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35-39세가 7.5%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60-64세와 65세 이상은 각각 8.6%, 1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성별로는 여성도 전체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15-19세가 22.1%로 감소율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35-39세가 9.5%로 감소율이 컸다. 65세 이상은 14.5%, 60-64세는 8.8% 증가하였다. 남성은 25-29세가 6.6%로 감소율이 가장 컸고 30-34세를 포함하여 50세 이상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양의 증가율을 보였고 65세 이상은 11.5%로 증가율이 가장 컸다.

〈표 4-4〉 성별 연령계층별 규모 증감(2019년 대비 증감)

(단위: 천명, %)

구분	증감			증감률		
	임금노동자	남성	여성	임금노동자	남성	여성
전체	-113	-35	-78	-0.5	-0.3	-0.9
15-19세	-30	-5	-26	-15.5	-5.7	-22.1
20-24세	-53	-33	-20	-4.3	-6.5	-2.8
25-29세	-103	-81	-22	-4.5	-6.6	-2.1
30-34세	-22	11	-33	-1.0	0.8	-3.6
35-39세	-187	-96	-91	-7.5	-6.3	-9.5
40-44세	-37	-8	-29	-1.6	-0.6	-3.0
45-49세	-41	-23	-19	-1.6	-1.5	-1.7
50-54세	35	25	9	1.5	1.9	0.9
55-59세	31	36	-5	1.5	3.1	-0.5
60-64세	111	61	50	8.6	8.5	8.8
65세 이상	185	78	106	13.0	11.5	14.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전체 임금노동자 중 연령별 임금노동자 비중은 45-49세가 2019년 8월 12.6%, 2020년 8월 12.1%로 가장 높다. 2019년 8월 남성은 35-39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3.4%로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45-49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2.1%로 가장 높다. 2020년 8월 기준으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45-49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2.9%, 12.0%로 가장 높다. 성별 연령별 임금노동자 비중에서 남성은 30-3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11.4%, 2020년 11.5%로 1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여성은 30-3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9.9%, 2020년 9.7%로 10%로 미만이다. 코로나19로 여성은 2020년 전년동기대비 30-34세와 35-39세가 각각 3만 3천명, 9만 1천명으로 전체 여성 임금노동자 감소 7만 8천명을 주도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2020년 8월 여성임금노동자 중 30-34세와 함께 35-39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9.5%로 10%를 상회하지 못했다.



〈표 4-5〉 성별 연령계층별 비중 변화

(단위: %, %포인트)

구분	2019.8			2020.8			증감		
	임금 노동자	남성	여성	임금 노동자	남성	여성	임금 노동자	남성	여성
15-19세	0.9	0.7	1.3	0.8	0.6	1.0	-0.1	0.1	-0.3
20-24세	6.0	4.5	7.9	5.8	4.2	7.7	-0.2	-0.3	-0.2
25-29세	11.3	10.8	11.9	10.8	10.1	11.8	-0.4	-0.7	-0.1
30-34세	10.7	11.4	9.9	10.7	11.5	9.7	0.0	0.1	-0.3
35-39세	12.1	13.4	10.4	11.2	12.6	9.5	-0.8	-0.8	-0.9
40-44세	11.6	12.3	10.7	11.5	12.3	10.5	-0.1	0.0	-0.2
45-49세	12.6	13.0	12.1	12.5	12.9	12.0	-0.1	-0.2	-0.1
50-54세	11.6	11.5	11.6	11.8	11.8	11.8	0.2	0.3	0.2
55-59세	10.0	10.1	9.8	10.2	10.5	9.9	0.2	0.3	0.0
60-64세	6.3	6.2	6.3	6.8	6.8	6.9	0.6	0.6	0.6
65세 이상	6.9	6.0	8.0	7.8	6.7	9.2	0.9	0.7	1.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연령별 비중 증감을 보면 전체 임금노동자는 30-34세가 0.8%p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반면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0.9%p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 남성과 여성도 30-3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남성 0.8%p, 여성 0.9%p로 가장 많이 하락하였고 65세 이상 비중은 남성과 여성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크게 상승하였는데 남성은 0.7%p, 여성은 1.2%p로 여성의 증가폭이 남성보다 컸다. 30-34세 연령의 비중이 남성은 0.1%p 상승한 반면, 여성은 0.3%p 하락하여 30대에서 남성보다 여성 일자리가 코로나19의 타격을 더 크게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② 종사상지위별 고용영향

성별로 종사상지위별 규모변화를 살펴보면, 남성 노동자는 2020년 8월 상

용근로자는 868만 2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 7천명(1.4%)증가하고, 임시노동자는 179만 1천명으로 11만 1천명(-5.8%)이 감소하였다. 남성 일용노동자는 88만 9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9천명(-4.2%) 감소하였다. 여성은 상용노동자는 588만 8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만 6천명(2.9%) 증가하였고, 임시노동자는 274만 8천명으로 남성 임시직 감소분보다 9만 5천 명이 많은 20만 6천명(-7.0%)이 감소했으며, 일용노동자는 44만 8천명으로 3만 9천명(-8.0%)이 감소하였다.

여성은 남성보다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고 임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배 가까이 높으며, 코로나19로 여성 임시직이 남성 임시직보다 더 많이 감소하였다.

〈표 4-6〉 성별 종사상 지위별 규모 변화

(단위: 천명,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임금노동자	남성	여성
2019.8	상용	14,288	8,565	5,722
	임시	4,857	1,902	2,954
	일용	1,415	928	487
2020.8	상용	14,570	8,682	5,888
	임시	4,539	1,791	2,748
	일용	1,337	889	448
증감	상용	282	117	166
	임시	-318	-111	-206
	일용	-78	-39	-39
증감률	상용	2.0	1.4	2.9
	임시	-6.5	-5.8	-7.0
	일용	-5.5	-4.2	-8.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성별로 종사상지위별 비중을 살펴보면, 남성은 2020년 8월 기준 상용직 76.4%, 임시직 15.8%, 일용직 7.8%로 전년 동기 대비 상용직이 1.3%p 상승

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0.9%p, 0.3%p 하락하였다. 여성은 2020년 8월 기준 상용직 64.8%, 임시직 30.2%, 일용직 4.9%로 전년 동기 대비 상용직은 2.4%p 상승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2.0%p, 0.4%p 하락하였다.

〈표 4-7〉 성별 종사상 지위별 비중 변화

(단위: %, %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8			2020.8			증감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임금노동자	69.5	23.6	6.9	71.3	22.2	6.5	1.8	-1.4	-0.4
남성	75.2	16.7	8.1	76.4	15.8	7.8	1.3	-0.9	-0.3
여성	62.4	32.2	5.3	64.8	30.2	4.9	2.4	-2.0	-0.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③ 기업 규모별 고용영향

성별로 사업체규모별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남성은 1-4인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이 7만 5천명(-4.4%)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다음으로는 10-29인이 3만 6천명(-1.4%)으로 많이 감소하였다. 반면 30-99인, 300인 이상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는데 각각 7만 6천명(3.6%), 6만명(4.9%)이 증가하였다. 여성은 5-9인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이 11만 3천명(-6.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0-299인이 7만 1천명(-9.3%)으로 많이 감소하였다. 반면 10-29인, 30-99인, 300인 이상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는데 특히 300인 이상은 7만 5천명(9.5%) 증가하였다.

성별로 사업체규모별 노동자 수를 살펴보면, 2020년 8월 기준 남성 노동자 수는 10-29인이 251만 8천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99인이 220만 1천명, 5-9인 189만 4천명, 300인 이상 183만 2천명, 1-4인 162만 9천명, 100-299인 128만 7천명 순서로 많다. 여성 노동자 수는 10-29인이 209만

3천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99인이 220만 1천명, 5-9인 189만 4천명, 300인 이상 183만 2천명, 100-299인 128만 7천명 순서로 많다.

〈표 4-8〉 성별 기업 규모별 변화

(단위: 천명,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임금 노동자	1-4인	5-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19. 8	전체	20,559	3,783	3,648	4,581	3,896	1,989	2,661
	남성	11,396	1,704	1,918	2,554	2,125	1,227	1,868
	여성	9,163	2,080	1,730	2,027	1,771	762	793
'20. 8	전체	20,446	3,648	3,511	4,611	3,997	1,979	2,700
	남성	11,361	1,629	1,894	2,518	2,201	1,287	1,832
	여성	9,085	2,019	1,617	2,093	1,796	691	868
증감	전체	-113	-135	-137	30	101	-10	39
	남성	-35	-75	-24	-36	76	60	-36
	여성	-78	-61	-113	66	25	-71	75
증감 률	전체	-0.5	-3.6	-3.8	0.7	2.6	-0.5	1.5
	남성	-0.3	-4.4	-1.3	-1.4	3.6	4.9	-1.9
	여성	-0.9	-2.9	-6.5	3.3	1.4	-9.3	9.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성별로 사업체규모별 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 8월 기준 남성의 경우 10-29인이 22.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99인 19.4%, 5-9인 16.7%, 300인 이상 16.1%, 1-4인 14.3%, 100-299인 11.3%로 2019년 8월에 비해 29인 이하와 300인 이상의 비중은 하락하고 30-299인 비중은 상승했다. 전년 동기 대비 비중 변화는 1-4인에서 0.6%p로 가장 크게 하락하였고 다음으로는 300인 이상에서 0.3%p 하락하였다.

여성의 경우는 10-29인이 2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4인이 22.2%, 30-99인 19.8%, 5-9인 17.8%, 300인 이상 9.6%, 100-299인 7.6%로 2019년 8월에 비해 9인 이하와 100-299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고

10-99인, 300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하였다. 여성 노동자 중 1-4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8월 22.2%, 2019년 8월 22.7%로 남성이 15% 이하인 것보다 7%p 이상 높다. 코로나19가 5인 미만 숙박 음식업의 영세자 영업 일자리에 직격탄을 끼친 것을 감안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코로나19로 일자리 감소가 컸던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표 4-9〉 성별 기업 규모별 비중 변화

(단위: %, %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8			2020.8			증감		
	임금 노동자	남성	여성	임금 노동자	남성	여성	임금 노동자	남성	여성
1-4인	18.4	15.0	22.7	17.8	14.3	22.2	-0.6	-0.6	-0.5
5-9인	17.7	16.8	18.9	17.2	16.7	17.8	-0.6	-0.2	-1.1
10-29인	22.3	22.4	22.1	22.6	22.2	23.0	0.3	-0.2	0.9
30-99인	19.0	18.6	19.3	19.5	19.4	19.8	0.6	0.7	0.4
100-299인	9.7	10.8	8.3	9.7	11.3	7.6	0.0	0.6	-0.7
300인 이상	12.9	16.4	8.7	13.2	16.1	9.6	0.3	-0.3	0.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④ 산업별 고용영향

성별로 산업별 규모를 살펴보면, 남성은 2020년 8월 기준 제조업이 281만 2천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건설업 148만 3천명, 도소매업 113만 6천명의 순으로 많다. 이에 비해 여성은 보건사회복지업이 193만 4천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조업이 111만 9천명, 도소매업이 103만 6천명의 순으로 많다.

〈표 4-10〉 성별 산업별 규모 변화

(단위: 천명,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8			2020.8		
	임금노동자	남성	여성	임금노동자	남성	여성
전체	20,559	11,396	9,163	20,446	11,361	9,085
농림어업	123	65	58	120	72	48
광업	12	10	2	11	9	2
제조업	3,946	2,823	1,123	3,930	2,812	1,119
전기가스증기	71	63	8	71	60	11
수도하수	132	110	22	142	121	21
건설업	1,627	1,453	173	1,662	1,483	179
도소매업	2,253	1,154	1,099	2,172	1,136	1,036
운수창고	808	662	146	813	643	170
숙박음식	1,446	512	934	1,306	437	869
정보통신	777	540	237	771	565	206
금융보험	761	339	421	749	350	399
부동산업	406	265	141	363	233	130
전문과학기술	996	633	362	986	618	367
사업관리지원임대	1,241	678	563	1,274	731	543
공공행정	1,079	633	447	1,134	633	501
교육서비스	1,548	512	1,037	1,482	507	975
보건사회복지	2,173	369	1,804	2,328	394	1,934
예술및여가	343	164	179	334	158	176
기타개인서비스	726	398	328	677	384	292
가구내고용 등	81	5	76	103	3	99
국제기구	11	8	3	19	12	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성별로 산업별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020년 8월 전년 동기 대비 숙박음식업이 7만 5천명(-14.6%)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부동산업 3만 2천명(-12.1%), 기타개인서비스업 1만 4천명(-3.5%)의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반면 사업관리지원임대업에서 5만 3천명(7.8%), 건설업에서 3만명(2.2%), 정보통신업에서 2만 5천명(4.6%)이 증가하였다.

여성은 2020년 8월 전년 동기 대비 숙박음식업에서 6만 5천명(-7%), 도소매업에서 6만 3천명(-5.7%), 교육서비스업에서 6만 2천명(-6.0%)이 감소하

는 등 세 산업에서 19만명이 줄어들어 코로나19 충격이 여성 집중 일자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면서비스업 중에서도 보건사회복지업은 13만명(7.2%)이 증가하였고 가구내고용업도 2만 3천명(30.3%)이 증가하여 대면 필수노동자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정보통신업은 남성 노동자는 2만 5천명 증가한 반면, 여성 노동자는 3만 1천명(-13.1%) 감소하여 코로나19로 ICT 분야 디지털 일자리 증가가 여성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표 4-11〉 성별 산업별 규모 증감(2019년 대비 증감)

(단위: 천명,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증감			증감률		
	임금노동자	남성	여성	임금노동자	남성	여성
전체	-113	-35	-78	-0.5	-0.3	-0.9
농림어업	-3	7	-10	-2.4	10.8	-17.2
광업	-1	-1	0	-8.3	-10.0	0.0
제조업	-16	-11	-4	-0.4	-0.4	-0.4
전기가스증기	0	-3	3	0.0	-4.8	37.5
수도하수	10	11	-1	7.6	10.0	-4.5
건설업	35	30	6	2.2	2.1	3.5
도소매업	-81	-18	-63	-3.6	-1.6	-5.7
운수창고	5	-19	24	0.6	-2.9	16.4
숙박음식	-140	-75	-65	-9.7	-14.6	-7.0
정보통신	-6	25	-31	-0.8	4.6	-13.1
금융보험	-12	11	-22	-1.6	3.2	-5.2
부동산업	-43	-32	-11	-10.6	-12.1	-7.8
전문과학기술	-10	-15	5	-1.0	-2.4	1.4
사업관리지원임대	33	53	-20	2.7	7.8	-3.6
공공행정	55	0	54	5.1	0.0	12.1
교육서비스	-66	-5	-62	-4.3	-1.0	-6.0
보건사회복지	155	25	130	7.1	6.8	7.2
예술및여가	-9	-6	-3	-2.6	-3.7	-1.7
기타개인서비스	-49	-14	-36	-6.7	-3.5	-11.0
가구내고용 등	22	-2	23	27.2	-40.0	30.3
국제기구	8	4	4	72.7	50.0	133.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성별로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 8월 남성의 산업별 비중은 제조업이 24.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건설업 13.1%, 도소매업 10% 순서로 높다. 전년 동기 대비 산업별 비중 변화는 숙박음식점업이 4.5%에서 3.8%로 -0.6%p로 가장 크게 하락하였다. 반면, 사업관리지원임대업은 5.9%에서 6.4%로 0.5%p 상승하였다.

〈표 4-12〉 성별 산업별 비중 변화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8			2020.8			증감		
	임금 노동자	남성	여성	임금 노동자	남성	여성	임금 노동자	남성	여성
농림어업	0.6	0.6	0.6	0.6	0.6	0.5	0.0	0.1	-0.1
광업	0.1	0.1	0.0	0.1	0.1	0.0	0.0	0.0	0.0
제조업	19.2	24.8	12.3	19.2	24.8	12.3	0.0	0.0	0.1
전기가스증기	0.3	0.6	0.1	0.4	0.5	0.1	0.1	0.0	0.0
수도하수	0.6	1.0	0.2	0.7	1.1	0.2	0.1	0.1	0.0
건설업	7.9	12.8	1.9	8.1	13.1	2.0	0.2	0.3	0.1
도소매업	11.0	10.1	12.0	10.6	10.0	11.4	-0.3	-0.1	-0.6
운수창고	3.9	5.8	1.6	4.0	5.7	1.9	0.0	-0.1	0.3
숙박음식	7.0	4.5	10.2	6.4	3.8	9.6	-0.6	-0.6	-0.6
정보통신	3.8	4.7	2.6	3.8	5.0	2.3	0.0	0.2	-0.3
금융보험	3.7	3.0	4.6	3.7	3.1	4.4	0.0	0.1	-0.2
부동산업	2.0	2.3	1.5	1.8	2.1	1.4	-0.2	-0.3	-0.1
전문과학기술	4.8	5.6	4.0	4.8	5.4	4.0	0.0	-0.1	0.1
사업관리지원임대	6.0	5.9	6.1	6.2	6.4	6.0	0.2	0.5	-0.2
공공행정	5.2	5.6	4.9	5.6	5.6	5.5	0.4	0.0	0.6
교육서비스	7.5	4.5	11.3	7.3	4.5	10.7	-0.2	0.0	-0.6
보건사회복지	10.6	3.2	19.7	11.4	3.5	21.3	0.8	0.2	1.6
예술및여가	1.7	1.4	2.0	1.6	1.4	1.9	0.0	0.0	0.0
기타개인서비스	3.5	3.5	3.6	3.3	3.4	3.2	-0.2	-0.1	-0.4
가구내고용 등	0.4	0.0	0.8	0.5	0.0	1.1	0.1	0.0	0.3
국제기구	0.1	0.1	0.0	0.1	0.1	0.1	0.0	0.0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여성의 산업별 비중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21.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조업 12.3%, 도소매업 11.4%, 교육서비스업 10.7% 순서로 높다. 전년 동기 대비 산업별 비중 변화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이 -0.6%p 하락하였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1.6%p 상승하였다. 한편, 전년 동기 대비 비중이 하락한 산업은 코로나19로 일자리가 많이 감소한 산업과 일치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여성 노동자 일자리 감소가 해당 산업의 비중도 하락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근로형태별 고용영향

성별로 근로형태별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8월 기준 남성 노동자 1,136만 1천명 중 정규직은 802만 7천명, 비정규직은 333만 5천명이다. 비정규직 중 한시적근로자는 207만 9천명이고 이 중 기간제가 180만명이다. 시간제는 91만 5천명이며 비전형근로자는 121만 2천명이다. 비전형근로자 중 일일근로가 68만 2천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용역근로 30만 5천명, 특수형태근로 18만 5천명, 파견근로 9만 5천명, 가정내근로 8천명의 순으로 많다.

2020년 8월 기준, 여성 노동자 908만 5천명 중 정규직은 499만 4천명, 비정규직은 409만 1천명이다. 비정규직 중 한시적 근로자는 252만 9천명이고 이 중 기간제가 213만 3천명이다. 시간제는 233만 7천명이며 비전형근로자는 86만 1천명이다. 비전형근로자 중에서는 특수형태근로가 31만 3천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용역근로가 24만 7천명, 일일근로 21만 4천명, 파견근로 6만 9천명, 가정내근로 4만 1천명의 순으로 많다.

〈표 4-13〉 성별 근로형태별 노동자 규모 변화

(단위: 천명)

구분	2019.8			2020.8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임금노동자	20,559	11,396	9,163	20,446	11,361	9,085
정규직	13,078	8,040	5,038	13,020	8,027	4,994
비정규직	7,481	3,356	4,125	7,426	3,335	4,091
•한시적 근로자	4,785	2,238	2,547	4,608	2,079	2,529
-기간제	3,799	1,786	2,013	3,933	1,800	2,133
-비기간제	986	452	534	675	279	396
•시간제	3,156	846	2,310	3,252	915	2,337
•비전형근로자	2,045	1,125	920	2,073	1,212	861
-파견근로	182	89	93	164	95	69
-용역근로	615	333	283	552	305	247
-특수형태근로	528	182	347	498	185	313
-일일근로	748	561	187	896	682	214
-가정내근로	46	8	38	49	8	4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0.8.

성별로 근로형태별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은 2020년 8월 전년 동기 대비 정규직이 1만 3천명(-0.4%) 감소하였고, 비정규직은 이보다 8천명 많은 2만 1천명(-0.7%)이 감소하였다. 반면, 여성은 비정규직이 3만 4천명(-0.8%) 감소하였고, 정규직은 이보다 1만명이 많은 4만 4천명(-0.9%)이 감소하여 전체 여성 노동자 감소분 7만 8천명의 절반 이상이 정규직인 것을 확인하였다. 남성 노동자는 비정규직 중심으로 여성 노동자는 정규직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성별로 비정규직 유형별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 노동자는 한시적근로자가 15만 9천명(-7.1%)이 감소하였고 이 중 기간제는 1만 4천명(0.8%)이 증가한데 비해, 비기간제는 17만 3천명(-38.3%) 감소하였다. 시간제는 6만 9천명(8.2%), 비전형근로자는 8만 7천명(7.7%) 증가하였다. 비전형근로자

중 파견근로 6천명(6.7%), 특수형태근로 3천명(1.6%), 일일근로 12만 1천명(21.6%)이 증가한 반면, 용역근로만이 2만 8천명(-8.4%) 감소하였다.

〈표 4-14〉 성별 근로형태별 노동자 규모 증감

(단위: 천명, %)

구분	증감			증감률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임금노동자	-113	-35	-78	-0.5	-0.3	-0.9
정규직	-58	-13	-44	-0.4	-0.2	-0.9
비정규직	-55	-21	-34	-0.7	-0.6	-0.8
•한시적 근로자	-177	-159	-18	-3.7	-7.1	-0.7
-기간제	134	14	120	3.5	0.8	6.0
-비기간제	-311	-173	-138	-31.5	-38.3	-25.8
•시간제	96	69	27	3.0	8.2	1.2
•비전형근로자	28	87	-59	1.4	7.7	-6.4
-파견근로	-18	6	-24	-9.9	6.7	-25.8
-용역근로	-63	-28	-36	-10.2	-8.4	-12.7
-특수형태근로	-30	3	-34	-5.7	1.6	-9.8
-일일근로	148	121	27	19.8	21.6	14.4
-가정내근로	3	0	3	6.5	0.0	7.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0.8.

여성 노동자는 한시적근로자가 1만 8천명(-0.7%) 감소하였고 이 중 기간제는 12만명(6%)이 증가한데 비해, 비기간제는 13만 8천명(-38.3%)이 감소하였다. 시간제는 2만 7천명(1.2%) 증가하고 비전형근로자는 5만 9천명(-6.4%) 감소하였다. 비전형근로자 중 파견근로 2만 4천명(-25.8%), 용역근로 3만 6천(-12.7%), 특수형태근로 3만 4천명(-9.8%) 감소하고 일일근로는 2만 7천명(14.4%), 가정내근로는 3천명(7.9%)이 증가하였다. 남성 비전형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여성은 감소한 가운데 비전형근로자 중 일일근로는 여성도 남성과 같이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이 여성은 2만 7천

명, 남성은 12만 1천명으로 차이가 크다.

성별로 근로형태별 비중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8월 기준 남성은 정규직이 70.7%, 비정규직이 29.4%로 정규직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0.1%p 상승했다. 비정규직 중에서 한시적근로자는 18.3%를 차지하고 이 중 기간제가 15.8%로 비기간제는 2.5%를 차지한다. 전년 동기 대비 한시적근로자 비중은 -1.3%p 하락하였는데 기간제 비중은 0.2%p 상승하여 비기간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1.5%p 하락하였다. 남성노동자 중 시간제 비중은 8.1%로 전년 동기 대비 0.6%p 상승하였다. 비전형근로자 비중은 10.7%로 전년 동기 대비 0.8%p 상승하였다. 전체 남성노동자 중 비전형근로자 각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일근로가 6.0%, 용역근로가 2.7%, 특수형태근로 1.6%, 파견근로 0.8%, 가정내근로 0.1%이다. 전년 동기 대비 비중 증감은 일일근로와 파견근로가 각각 1.1%p, 0.1%p 상승한 것 외에 나머지 비전형근로자 비중은 용역근로는 하락하고 가정내근로, 특수형태는 전년 동기 대비 비중에 변화가 없었다.

2020년 8월 기준 여성은 정규직이 55.0%, 비정규직이 45.0%로 전년과 동일하다. 비정규직 중에서 한시적근로자는 27.8%를 차지하고 이 중 기간제가 23.5%로 비기간제는 4.4%를 차지한다. 전년 동기 대비 한시적근로자 비중은 변화가 없었는데 기간제 비중은 1.5%p 상승, 비기간제는 -1.5%p 하락하였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 시간제 비중은 25.7%로 전년 동기 대비 0.5%p 상승하였다. 비전형근로자 비중은 9.5%로 전년 동기 대비 0.8%p 하락하였다. 전체 여성노동자 중 비전형근로자 각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특수형태근로 3.4%, 용역근로가 2.7%, 일일근로가 2.4%, 파견근로 0.8%, 가정내근로 0.5%이다. 전년 동기 대비 비중 증감은 일일근로가 전년 동기 대비 0.3% 상승하고 가정내근로는 비중에 변화가 없었다. 나머지 비전형근로인 파견근

로, 용역근로, 특수형태근로는 전년 동기 대비 비중이 하락하였다.

〈표 4-15〉 성별 근로형태별 노동자 분포 변화

(단위: %, %포인트)

구분	2019.8			2020.8			증감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정규직	63.6	70.6	55.0	63.7	70.7	55.0	0.1	0.1	0.0
비정규직	36.4	29.4	45.0	36.3	29.4	45.0	-0.1	-0.1	0.0
•한시적 근로자	23.3	19.6	27.8	22.5	18.3	27.8	-0.7	-1.3	0.0
-기간제	18.5	15.7	22.0	19.2	15.8	23.5	0.8	0.2	1.5
-비기간제	4.8	4.0	5.8	3.3	2.5	4.4	-1.5	-1.5	-1.5
•시간제	15.4	7.4	25.2	15.9	8.1	25.7	0.6	0.6	0.5
•비전형근로자	9.9	9.9	10.0	10.1	10.7	9.5	0.2	0.8	-0.6
-파견근로	0.9	0.8	1.0	0.8	0.8	0.8	-0.1	0.1	-0.3
-용역근로	3.0	2.9	3.1	2.7	2.7	2.7	-0.3	-0.2	-0.4
-특수형태근로	2.6	1.6	3.8	2.4	1.6	3.4	-0.1	0.0	-0.3
-일일근로	3.6	4.9	2.0	4.4	6.0	2.4	0.7	1.1	0.3
-가정내근로	0.2	0.1	0.4	0.2	0.1	0.5	0.0	0.0	0.0

주: 1) 비정규직 전체 규모와 구성비는 근로형태별 비정규직(한시적 근로, 시간제, 비전형 근로)의 중복 인원을 제외한 순계로 유형별 규모 및 구성비의 합계와 불일치함.

2) 비전형 근로자 전체 규모 및 구성비는 일부 중복되는 각 유형별 근로자를 제외한 순계로, 각 유형별 근로자 규모 및 비중의 합계와 불일치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0.8.

성별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8월 남성 비정규직은 333만 5천명으로 남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29.4%이다. 여성 비정규직은 409만 1천명으로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45.0%이다. 전년 동기 대비 남성 비정규직은 2만 1천명, 여성 비정규직은 3만 4천명이 감소하고 비정규직 비중은 남성은 -0.1%p 하락한 반면 여성은 전년 동기와 동일하여 변화가 없다.

〈표 4-16〉 성별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변화

(단위: 천명,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8		2020.8		전년 동기 대비 차	
	규모	비정규직 비율	규모	비정규직 비율	규모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전체	7,481	36.4	7,426	36.3	-55	-0.1
남성	3,356	29.5	3,335	29.4	-21	-0.1
여성	4,125	45.0	4,091	45.0	-34	0.0

주: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⑥ 고용안정성<sup>26)</sup>

임금 노동자 중 계속 근로가 가능한 고용안정성이 있는 노동자 비중은 2020년 8월 83.7%로 2019년 84.5%에 비해 0.8%p 하락하였다. 고용안정성이 있는 노동자 비율은 2016년 85.4%, 2017년 86.4%, 2018년 86.1%에서 2019년 84.5%로 2019년 85% 미만으로 하락하고 코로나19로 일자리 타격이 컸던 2020년 84% 미만으로 2018년 8월 이후 3년 연속 하락 추세이다.

고용안정성이 있는 노동자 성별 비중은 2020년 8월 남성은 84.8%, 여성은 82.3%로 남성이 여성보다 2.5%p 높다. 고용안정성 노동자 비중 성별 격차는 2019년 8월 2%p로 2018년 8월 1%p 보다 확대되었는데 2020년 8월 2.4%p로 더 확대되었다.

2019년 8월 대비 고용안정성이 있는 노동자 비중은 남성은 0.6%p 하락하였고 여성은 1%p 하락하여 여성의 하락폭이 남성보다 0.4%p 컸다

26) 폐업,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근로가 가능한 근로자

〈표 4-17〉 성별 고용안정성있는 근로자 비중

(단위: %, %포인트)

구분	2016.8	2017.8	2018.8	2019.8	2020.8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85.4	86.4	86.1	84.5	83.7	-0.8
남성	86.0	87.0	86.5	85.4	84.8	-0.6
여성	84.6	85.6	85.6	83.4	82.3	-1.0
여성-남성	-1.4	-1.4	-1.0	-2.0	-2.4	-0.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2. 성별 임금수준 변화

### 1) 성별 임금수준

코로나19 충격 이전 대비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의하면 여성과 남성 모두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였는데, 월평균 임금은 여성의 상승폭이 더 크고,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상승폭이 더 컸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의하면 월평균 임금은 여성과 남성 모두 증가했는데, 남성의 인상분이 여성 인상분의 2.5배에 달하고, 시간당임금은 여성과 남성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의하면, 2020년 6~8월 3개월 간 월평균 임금은 268만 1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8천원 상승하여 임금 상승률은 1.4%이다.

남성 노동자는 318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4천원 상승하였고 여성 노동자는 205만 7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원 상승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임금 상승률은 남성이 1.1%, 여성이 2%로 여성이 0.9%p 높다.

**〈표 4-18〉 성별 월평균 임금수준 변화(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만원,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19.6-8월 평균	'20.6-8월 평균	증감	증감률
임금노동자	264.3	268.1	3.8	1.4
남성	314.6	318.0	3.4	1.1
여성	201.7	205.7	4.0	2.0

주: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6-8월 3개월 평균 임금노동자 시간당 임금은 15,627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3원 상승하였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2.3%이다.

남성 노동자 3개월 평균 시간당 임금은 17,78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8원, 2.2% 상승하였다. 여성 노동자는 12,924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6원, 2.4% 상승하였다.

**〈표 4-19〉 성별 시간당 임금수준 변화(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원,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19.6-8월 평균	'20.6-8월 평균	증감	증감률
임금노동자	15,274	15,627	353	2.3
남성	17,410	17,788	378	2.2
여성	12,618	12,924	306	2.4

주: 1)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2)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의하면 2020년 6월 임금노동자 평균 정액급여는 272만 7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만 3천원, 2.8% 상승하였다.

남성 노동자는 2020년 6월 월 평균 정액급여는 313만 6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만 7천원, 3.2% 상승하였다. 여성 노동자는 217만 2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9천원, 1.8% 상승하였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여성



임금 상승률은 남성보다 1.4%p 낮았는데,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여성 노동자 임금 상승률이 남성보다 0.9%p 높은 것과는 상반된다(〈부표 4-1〉 참조).

2020년 6월 기준 임금노동자 평균 시간당 임금은 17,34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1원, 5.8%p 하락하였다. 남성 노동자 평균 시간당 임금은 19,49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1원, 5.8% 하락하였다. 여성 노동자는 14,30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2원, 5.8% 하락하였다. 2020년 6월 기준 임금노동자 전년 동기 대비 임금 상승률은 전체 임금노동자와 여성과 남성 노동자 모두 5.8%p 하락으로 동일하다(〈부표 4-2〉 참조).

## 2) 성별 임금격차와 저임금 비율

### ① 임금 격차

코로나19 이후 여성과 남성 간 임금격차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의하면 월평균 임금 기준과 시간당 임금 기준 모두 축소되었다. 그리고 저임금노동자의 수와 비중이 월평균 임금 기준 남성은 모두 증가하고, 여성은 모두 감소했으며,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증가했다.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성별 임금격차 축소는 여성의 임금 상승과 더불어 여성의 저임금노동자 큰 폭 감소와 남성의 저임금노동자 증가 및 고임금노동자 큰 폭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의 임금노동자 3개월 평균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로 본 성별 격차는 2020년 64.7%로 전년 동기 64.1% 보다 0.6%p 좁혀졌다. 2016년 성별 임금 격차는 61.5%에서 최근 5년

간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상승하였다. 최근 5년 간 성별 임금 격차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30% 이상 임금이 낮은 것으로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갈 길이 멀다.

**〈표 4-20〉 연도별 성별 월 평균 임금 및 격차(남성=100)(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만원, %)

구분	금액					격차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임금노동자	237.2	243.0	255.8	264.3	268.1	83.1	83.7	84.0	84.0	84.3
남성	285.4	290.4	304.7	314.6	318.0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성	175.5	182.7	194.4	201.7	205.7	61.5	62.9	63.8	64.1	64.7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남성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여성의 상대임금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의 남성 임금노동자 시간당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로 본 성별 격차는 2020년 72.7%로 전년 동기 72.5% 보다 0.2%p 좁혀졌다. 시간당 임금 기준 2016년 성별 임금 격차는 66.9%에서 이후 5년 연속 성별 임금 격차는 축소되었다. 2018년에는 남성 시간당 임금 대비 여성 임금 수준이 70.7%로 처음으로 70%대로 진입했다.

**〈표 4-21〉 연도별 성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남성=100)(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원, %)

구분	금액					격차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임금노동자	13,486	13,754	14,607	15,274	15,627	85.5	86.3	87.0	87.7	87.9
남성	15,780	15,933	16,781	17,410	17,788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성	10,550	10,989	11,870	12,618	12,924	66.9	69.0	70.7	72.5	72.7

주: 1)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2)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3) 남성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여성의 상대임금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의하면 2020년 6월 기준 남성 월 평균 정액급여 대비 여성 월 평균 정액급여 비율로 본 성별 격차는 2020년 69.3%로 전년 동기 70.2% 보다 0.4%p 확대되었다(〈부표 4-3〉 참조). 최근 5년 간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16년 67.0%에서 2019년까지 축소되다 2020년 확대되었다.

시간당 임금의 성별 격차는 73.4%로 전년 동기 대비 0.1%p 상승했다. 최근 5년 간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16년 68.4%에서 점차 축소되어 2019년 73.3%, 2020년 73.4%로 축소되었다(〈부표 4-4〉 참조).

## ② 저임금 및 고임금 노동자 비율

2020년 임금수준별 임금노동자 규모는 저임금노동자 433만 9천명, 중간임금 1,187만 3천명, 고임금노동자 423만 4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저임금과 고임금 노동자는 각각 9만 9천명, 50만 4천명씩 감소한데 비해 중간임금은 49만명이 증가했다.

성별로 남성노동자는 저임금은 140만 9천명, 중간임금 654만 1천명, 고임금 341만 1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고임금이 40만 4천명 감소하고 저임금과 중간임금은 각각 2만 2천명, 34만 6천명 증가했다. 여성노동자는 저임금 292만 6천명, 중간임금 533만 6천명, 고임금 82만 2천명이다. 전년 동기 대비 저임금과 고임금이 각각 12만 6천명, 10만 3천명 감소하고 중간임금은 14만 9천명 증가했다.

중간임금에서 남녀 노동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은 동일하나 남성이 34만 6천명 증가한 것에 여성은 14만 9천명이 증가하여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반대로 고임금에서는 남녀 노동자 모두 감소했는데 남성의 감소 규모가 여성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표 4-22〉 성별 임금수준별 노동자 규모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천명)

구분	2019			2020			증감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임금노동자	4,438	11,383	4,738	4,339	11,873	4,234	-99	490	-504
남성	1,387	6,195	3,815	1,410	6,539	3,411	23	344	-404
여성	3,052	5,187	925	2,928	5,335	822	-124	148	-103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위임금의 2/3 수준 이상~3/2 수준 미만, 고임금은 중위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월 평균 임금 기준 임금수준별 임금노동자 비중은 중간임금이 58.1%이고 저임금과 고임금이 각각 21.2%, 20.7%이다. 전년 동기 대비 비중 변화는 저임금과 고임금은 각각 0.4%p, 2.3%p 하락하고 중간임금은 2.7%p 상승했다.

남성노동자는 중간임금 57.6%, 고임금 30.0%, 저임금 12.4%로 전년 동기 대비 고임금이 3.4%p 하락하고 저임금과 중간임금은 각각 0.2%p, 3.2%p 상승했다. 여성노동자는 중간임금 58.7%, 저임금 32.2%, 고임금 9.1%로 전년 동기 대비 저임금과 고임금은 각각 1.1%p, 1.0%p 하락하고 중간임금은 2.1%p 상승했다.

2020년 임금수준별 비중에서 성별 격차는 중간임금이 1.1%p 여성이 높아 가장 적고 여성 고임금 비중은 남성보다 20.9%p 낮아 격차가 가장 컸다. 저임금은 반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19.8%p 비중이 커서 고임금과 함께 격차가 컸다.

**〈표 4-23〉 성별 임금수준별 노동자 비중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 %포인트)

구분	2019			2020			증감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임금노동자	21.6	55.4	23.0	21.2	58.1	20.7	-0.4	2.7	-2.3
남성	12.2	54.4	33.5	12.4	57.6	30.0	0.2	3.2	-3.4
여성	33.3	56.6	10.1	32.2	58.7	9.1	-1.1	2.1	-1.1
여성-남성	21.1	2.2	-23.4	19.8	1.1	-20.9	-1.3	-1.1	2.3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위임금의 2/3 수준 이상~3/2 수준 미만, 고임금은 중위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시간당 임금 기준 임금수준별 임금노동자 규모는 저임금 355만 명, 중간임금 1217만 2천명, 고임금 472만 3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중간임금과 고임금은 각각 32만명, 10만 1천명 감소하였다. 반면, 저임금은 30만 8천명 증가했다.

시간당임금 기준 남성노동자는 저임금은 136만 3천명, 중간임금 638만 5천명, 고임금 361만 3천명이다. 전년 동기 대비 저임금이 13만 1천명 증가한 반면 중간임금과 고임금은 각각 12만 2천명, 5만 8천명 감소했다. 여성노동자는 저임금 218만 7천명, 중간임금 578만 7천명, 고임금 111만 1천명이다. 남성과 동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저임금은 17만 7천명 증가하고 중간임금과 고임금은 각각 19만8천명, 4만 2천명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노동자는 증가폭이 컸고 중간임금 노동자 감소폭은 여성이 남성보다 컸다.

〈표 4-24〉 성별 임금수준별 노동자 규모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천명)

구분	2019			2020			증감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임금노동자	3,242	12,492	4,824	3,550	12,172	4,723	308	-320	-101
남성	1,232	6,507	3,671	1,363	6,385	3,613	131	-122	-58
여성	2,010	5,985	1,153	2,187	5,787	1,111	177	-198	-42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  
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간은 중위임금의 2/3 수준 이상~3/2 수준 미만, 고임금은 중  
위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시간당 임금 기준 임금수준별 임금노동자 비중은 중간임금이 59.5%, 저임금과 고임금이 각각 17.4%, 23.1%이다. 전년 동기 대비 비중 변화는 저임금은 1.6%p 상승하고 중간임금과 고임금은 각각 1.3%p, 0.4%p 하락했다.

시간당 임금 기준 임금 수준별 비중이 남성노동자는 중간임금 56.2%, 고임금 31.8%, 저임금 12.0%이다. 전년 동기 대비 고임금과 중간임금은 각각 -0.9%p, -0.4%p 하락하고 저임금은 1.2%p 상승했다. 여성노동자는 중간임금 63.7%, 저임금 24.1%, 고임금 12.2%로 전년 동기 대비 저임금이 2.2%p 상승하고 중간임금과 고임금은 각각 -1.6%p, -0.4%p 하락했다.

2020년 시간당 임금수준별 비중에서 성별 격차는 고임금 비중이 여성이 남성보다 19.6%p 낮아 격차가 가장 컸다. 나머지 저임금과 중간임금은 여성이 남성보다 12.1%p, 7.5%p 높았다.

〈표 4-25〉 성별 임금수준별 노동자 비중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

구분	2019			2020			증감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임금노동자	15.8	60.8	23.5	17.4	59.5	23.1	1.6	-1.3	-0.4
남성	10.8	57.1	32.2	12.0	56.2	31.8	1.2	-0.9	-0.4
여성	21.9	65.3	12.6	24.1	63.7	12.2	2.2	-1.6	-0.4
여성-남성	11.1	8.2	-19.6	12.1	7.5	-19.6	1.0	-0.7	0.0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간은 중위임금의 2/3 수준 이상~3/2 수준 미만, 고임금은 중위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월 평균 임금 기준 저임금 노동자 규모는 433만 9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만 9천명(-2.2%)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저임금 노동자 규모는 2016년 469만 9천명에서 2018년 359만 1천명으로 3백만명 대로 감소하다 2019년 443만 8천명으로 4백만명까지 증가했다.

2020년 월 평균 임금 기준 남성 저임금 노동자 규모는 140만 9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2천명(1.6%)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남성 저임금 노동자 규모는 2016년 144만 6천명에서 2018년 115만 2천명으로 11만명 대로 감소하다 2019년 138만 7천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2020년 월 평균 임금 기준 여성 저임금 노동자 규모는 292만 6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만 2천명(-4.6%)이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여성 저임금 노동자 규모는 2016년 325만 3천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9년 305만 2천명 까지 증가하다 2020년 3백만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표 4-26〉 연도별 성별 저임금노동자 규모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천명, %포인트)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4,699	4,204	3,591	4,438	4,339	-99
남성	1,446	1,234	1,084	1,387	1,409	22
여성	3,253	2,970	2,507	3,052	2,926	-126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월 평균 임금 기준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1.2%로 전년 동기 대비 0.4%p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16년 23.8%에서 2018년 17.9%로 하락하다 2019년 다시 20%대로 상승했다.

남성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20년 12.4%로 전년 동기 대비 0.2%p 상승했다. 최근 5년간 비중 변화는 2016년 12.7%에서 2018년 11%까지 하락하다 2019년 12.2%로 다시 12%대로 상승했다.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20년 32.2%로 전년 동기 대비 1.4%p 하락했다. 최근 5년간 비중 변화는 2016년 35.5%에서 2018년 28.3%로 처음으로 30% 미만까지 하락하였으나 2019년 다시 33.6%로 상승했다.

〈표 4-27〉 연도별 성별 저임금노동자 비중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 %포인트)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23.8	21.0	17.9	21.6	21.2	-0.4
남성	12.7	11.0	9.7	12.2	12.4	0.2
여성	35.5	33.7	28.3	33.6	32.2	-1.4
여성-남성	22.8	22.7	18.5	21.4	19.8	-1.6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저임금 노동자 비중 성별 격차는 2020년 19.8%로 최근 5년 동안 2016년 22.8%p에서 2018년 18.5%p로 20%p 미만으로 좁혀졌으나 2019년 다시 21.4%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2020년 시간당 임금 기준 저임금 노동자 규모는 355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만 8천명(9.5%)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저임금 노동자 규모는 2016년 458만 9천명에서 2018년 315만명으로 3백만명 대로 감소했다. 2019년에는 324만 2천명으로 2018년 대비 9만 2천명 증가했다.

2020년 시간당 임금 기준 남성 저임금 노동자 규모는 136만 3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4천명(1%) 증가했다. 여성 저임금 노동자 규모는 2020년 218만 7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명(5.4%)이 감소했다.

〈표 4-28〉 연도별 성별 저임금노동자 규모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16	'17	'18	'19	'20	'19년 대비 증감	
						규모	비율
임금노동자	4,589	4,282	3,150	3,550	3,550	308	9.5
남성	1,683	1,550	1,191	1,349	1,363	14	1.0
여성	2,906	2,731	1,959	2,201	2,187	-14	-0.6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시간당 임금 기준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7.4%로 전년 동기 대비 1.1%p 상승했다. 최근 5년간 비중은 2016-2017년 20%를 상회하다 2018년 이후 20% 미만으로 하락하였는데 하락세는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1.6%p 상승하여 끊겼다.

2020년 시간당 임금 기준 남성 노동자 저임금 비중은 2020년 12%로 전년

동기 대비 0.2%p 상승했다. 2016년 14.8%에서 2018년 10.5%까지 하락하다 2020년 12%대로 다시 상승했다. 여성노동자 저임금 비중은 2020년 24.1%로 전년 동기 대비 0.1%p 상승하였다. 2016년 31.7%에서 2017년 29.8%로 30% 미만으로 하락한 후 2018년 21.4%에서 2020년 24.1%로 상승했다.

시간당 임금 기준 저임금 노동자 비중 성별 격차는 2016년 16.9%에서 2020년 12.1%로 4.8%p 축소되었다.

〈표 4-29〉 연도별 성별 저임금노동자 비중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23.3	21.4	15.7	15.8	17.4	1.6
남성	14.8	13.6	10.5	11.8	12.0	0.2
여성	31.7	29.8	21.4	24.0	24.1	0.1
여성-남성	16.9	16.2	10.9	12.2	12.1	-0.1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월 평균 임금 기준 고임금 노동자 규모는 423만 4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만 4천명(-10.6%) 감소했다. 2016년 550만 8천명에서 2017년 4백만명 미만으로 감소했고 이후 4백만명 수준에서 증가, 감소하고 있다. 2020년 월 평균 임금 기준 남성 고임금 노동자 규모는 341만 1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만 4천명(-10.6%) 감소했다. 최근 5개년 남성 고임금 노동자 규모는 2017년 3백만명 미만으로 감소한 이후 3백만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여성 고임금 노동자 규모는 2020년 82만 2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 3천명(-11.1%) 감소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여성 고임금 노동자 규모로 가장

적은 수치이다(〈부표 4-5〉 참조).

2020년 월 평균 임금 기준 고임금 노동자 비중은 20.7%로 전년 동기 대비 2.3%p 하락했다. 고임금 노동자 비중은 2016년 27.9%에서 2020년 20.7%로 7.2%p 하락했다. 2020년 월 평균 임금 기준 남성 노동자 고임금 비중은 2020년 30%로 전년 동기 대비 3.5%p 하락했다. 남성 고임금 노동자 비중은 2016년 38.7%에서 2020년 30.0%로 8.7%p 하락했다. 월 평균 임금 기준 여성 노동자 저임금 비중은 2020년 9.1%로 전년 동기 대비 1.1%p 하락했다. 여성 고임금 노동자 비중은 2016년 12.0%에서 2020년 9.1%로 2.9%p 하락했다. 월 평균 임금 기준 고임금 노동자 비중 성별 격차는 2016년 26.7%에서 2020년 20.9%로 5.8%p 축소되었다(〈부표 4-6〉 참조).

2020년 시간당 임금 기준 고임금 노동자 규모는 472만 3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 1천명(-2.1%) 감소했다. 2016년 522만 3천명에서 2020년 472만 3천명으로 50만명 감소했다. 2020년 시간당 임금 기준 남성 고임금 노동자 규모는 361만 3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 7천명(-1.6%) 감소했다. 남성 고임금 노동자 규모는 2016년 406만 3천명으로 2020년은 2016년 대비 45만명 감소했다. 여성 고임금 노동자 규모는 2020년 111만 1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2천명(-3.6%) 감소했고 2016년 115만 9천명에 비해서는 4만 8천명 감소했다(〈부표 4-7〉 참조).

2020년 시간당 임금 기준 고임금 노동자 비중은 23.1%로 전년 동기 대비 0.4%p 하락했다. 고임금 노동자 비중은 2016년 26.5%에서 2020년 23.1%로 3.4%p 하락했다. 2020년 시간당 임금 기준 남성 노동자 고임금 비중은 2020년 31.8%로 전년 동기 대비 0.4%p 하락했다. 2016년 남성 고임금 노동자 비중은 35.7%로 2020년과 비교하여 3.9%p 하락했다. 시간당 임금 기준 여성 노동자 고임금 비중은 2020년 12.2%로 전년 동기 대비 0.4%p 하락

했다. 여성 고임금 노동자 비중은 2016년 12.6%에서 2020년 12.2%로 큰 변화가 없다. 시간당 임금 기준 저임금 노동자 비중 성별 격차는 2016년 23.1%에서 2020년 19.6%로 3.5%p 축소되었다(〈부표 4-8〉 참조).

### 3. 성별 노동실태 변화

#### 1) 노동시간

2020년 8월 임금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9.1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시간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2016년과 2017년은 40.9시간으로 동일하였고, 2018년 40.4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시간 감소하였으며, 2019년은 39.8시간으로 처음으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이 되었다.

남성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2020년 8월 41.5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시간 감소하였다. 남성 노동자 최근 5년간 노동시간은 2016년 42.9시간, 2017년 43시간, 2018년 42.6시간, 2019년 42.2시간으로 2017년을 제외하고 3년 연속 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있다.

2020년 8월 여성 노동자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6.1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시간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38.5시간, 2017년 38.3시간, 2018년 37.7시간, 2019년 36.7시간으로 5년 연속 노동시간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의 성 격차는 2020년 5.4시간으로 2019년 5.5시간에 비해 0.1시간 줄어들었으나 2016년 4.4시간에 비해서는 1시간이나 격차가 확대되었다. 최근 5년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 성 격차는 2016년 4.4시간에서

매년 커져서 2019년 5.5시간까지 확대되었다. 2020년 노동시간 성 격차는 남성보다 여성이 13% 작다. 최근 5년간 노동시간 성 격차는 2016년 10.2%에서 2019년 13.1%까지 확대되었다.

〈표 4-30〉 연도별 성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변화

(단위: 시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40.9	40.9	40.4	39.8	39.1	-0.7
남성	42.9	43.0	42.6	42.2	41.5	-0.7
여성	38.5	38.3	37.7	36.7	36.1	-0.6
여성-남성	-4.4	-4.7	-4.9	-5.5	-5.4	0.1
노동시간 성격차	10.2	10.9	11.6	13.1	13.0	-0.1

주: 1) 주된 직장(일)의 평소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함.

2) 노동시간 성격차 산식  $100 - (\text{여성노동시간} / \text{남성노동시간} *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8월 노동시간별 노동자 수는 36-40시간이 1,184만 9천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5-35시간 256만 9천명, 45-48시간이 215만 7천명, 49-52시간 132만 4천명, 52시간 초과 114만 5천명, 15시간 미만이 99만 2천명이다. 전년 동기 대비 노동시간대별 노동자 수 변화는 40시간 이하 구간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41시간 이상 구간은 감소하여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감소와 증가가 나뉘었다. 노동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노동시간 구간은 36-40시간으로 35만 2천명이 증가하였고 반대로 노동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노동시간은 52시간 초과로 26만 9천명이 감소하였다. 52시간 초과 구간의 감소가 가장 컸던 것은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작된 주 52시간 상한제가 2020년 50-299인까지 확대된 제도 변화에 영향을 받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sup>27)</sup>

27) 2021년 7월부터는 5-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주 52시간 상한제가 실시된다.

2020년 8월 노동시간별 남성 노동자 수는 36-40시간이 683만 5천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5-48시간이 146만 3천명, 49-52시간 96만 4천명, 52시간 초과 83만 4천명, 15-35시간 78만 5천명, 15시간 미만이 26만 4천명이다. 전년 동기 대비 노동시간별 남성 노동자 수 변화도 40시간 이하 구간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41시간 이상 구간은 감소하여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감소와 증가가 나뉘었다. 남성 노동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노동시간 구간은 36-40시간으로 26만 2천명이 증가하였고, 반대로 노동자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노동시간은 52시간 초과로 17만 8천명이 감소하였다.

〈표 4-31〉 성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변화

(단위: %)

구분	2019.8			2020.8			증감		
	임금 노동자	남성	여성	임금 노동자	남성	여성	임금 노동자	남성	여성
전체	20,559	11,396	9,163	20,446	11,361	9,085	-113	-35	-78
15시간 미만	932	243	689	992	264	728	60	21	39
15-35시간	2,422	679	1,743	2,569	785	1,784	147	106	41
36-40시간	11,497	6,573	4,925	11,849	6,835	5,014	352	262	89
41-44시간	438	238	200	410	218	192	-28	-20	-8
45-48시간	2,313	1,528	785	2,157	1,463	694	-156	-65	-91
49-52시간	1,542	1,122	419	1,324	964	360	-218	-158	-59
52시간 초과	1,414	1,012	402	1,145	834	311	-269	-178	-91

주: 1) 주된 직장(일)의 평소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8월 노동시간별 여성 노동자 수는 36-40시간이 501만 5천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5-35시간 178만 4천명, 15시간 미만이 72만 8천명, 45-48시간이 69만 4천명, 49-52시간 36만명, 52시간 초과 31만 1천명이다. 전년 동기 대비 노동시간별 여성 노동자 수 변화도 40시간 이하 구간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41시간 이상 구간은 감소하였다. 여성 노동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노동시간 구간은 36-40시간으로 8만 9천명이 증가하였고 반대로 노동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노동시간은 45-48시간과 52시간 초과 구간이 동일하게 9만 1천명으로 49-52시간 5만 9천명 감소보다 컸다.

노동시간별 노동자 수 비중은 2020년 8월 36-40시간이 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15-35시간 12.6%, 45-48시간 10.5%, 49-52시간 6.5%, 52시간 초과 5.6%, 15시간 미만 4.9%이다. 전년 동기 대비 비중 변화를 보면 노동자 수 증감에서 40시간 이하는 증가하고 40시간 초과에서는 감소한 것과 동일하게 40시간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고 40시간 초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였다. 36-40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2%p 가장 크게 상승하였고 52시간 초과는 전년 동기 대비 1.3%p 가장 크게 하락하였다.

노동시간별 남성 노동자 수 비중은 2020년 8월 36-40시간이 60.2%로 남성 노동자 10명 중 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45-48시간 12.9%, 49-52시간 8.5%, 52시간 초과 7.3%, 15-35시간 6.9%, 15시간 미만 2.3%이다. 전년 동기 대비 비중 변화를 보면 전체 노동자 수 비중 증감과 동일하게 40시간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고 40시간 초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였다. 36-40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2.5%p 가장 크게 상승하였고 52시간 초과는 전년 동기 대비 1.5%p 가장 크게 하락하였다.

노동시간별 여성 노동자 수 비중은 2020년 8월 36-40시간이 55.2%로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15-35시간 19.6%, 45-48시간 7.6%, 49-52시간 4%, 52시간 초과 3.4%, 15시간 미만 8%이다. 여성 노동자 수 노동시간별 비중 변화도 전체 노동자 수 비중 증감과 동일하게 40시간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고 40시간 초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였다. 36-40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1.5%p 가장 크

계 상승하였고 52시간 초과는 전년 동기 대비 1%p 가장 크게 하락하였다.

여성과 남성의 양극단의 노동시간 구간별 비중을 보면 15시간 미만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비중이 3.5배 높고 반대로 52시간 초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다. 전체 주 평균 노동시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것은 15시간 미만과 52시간 초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성별 격차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32〉 성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별 비중 변화

(단위: %, %포인트)

구분	2019.8			2020.8			증감		
	임금 노동자	남성	여성	임금 노동자	남성	여성	임금 노동자	남성	여성
15시간 미만	4.5	2.1	7.5	4.9	2.3	8.0	0.3	0.2	0.5
15-35시간	11.8	6.0	19.0	12.6	6.9	19.6	0.8	0.9	0.6
36-40시간	55.9	57.7	53.7	58.0	60.2	55.2	2.0	2.5	1.5
41-44시간	2.1	2.1	2.2	2.0	1.9	2.1	-0.1	-0.2	-0.1
45-48시간	11.3	13.4	8.6	10.5	12.9	7.6	-0.7	-0.5	-0.9
49-52시간	7.5	9.8	4.6	6.5	8.5	4.0	-1.0	-1.4	-0.6
52 시간 초과	6.9	8.9	4.4	5.6	7.3	3.4	-1.3	-1.5	-1.0

주: 1) 주된 직장(일)의 평소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2) 근속기간

임금노동자 현재 직장 근속 년수는 2020년 8월 기준 평균값은 6년이고 중위값은 2.6년이다. 전년 동기에 비해 평균값과 중위값 모두 0.1년이 증가하였다. 남성 노동자 현재 직장 근속년수는 평균값은 7년, 중위값은 3.3년으로 전년 동기 대비 평균값과 중위값 모두 0.1년 증가하였다. 여성 노동자의 현재 직장 근속 년수는 평균값은 4.8년이고 중위값은 2.1년으로 전년 동기 대비



여성노동자도 평균값, 중위값 모두 0.1년이 증가하였다.

현재 직장 근속년수의 평균값과 중위값의 격차가 2배 이상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 근속년수 분포가 긴 집단과 짧은 집단 양극단에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근속년수 중위값은 2.1년으로 남성 중위값 3.3년보다 1.1년 짧은 것에 비해 여성의 근속년수 평균값은 4.8년으로 남성의 7년보다 2.2년이나 짧았다. 이는 여성 노동자가 남성 노동자에 비해 근속년수 분포가 가장 긴 집단과 가장 짧은 집단에 집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서 근속년수별 노동자 비중을 보면 2020년 8월 기준 10년 이상이 21.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6개월 미만이 20.5%를 차지하여 근속년수가 가장 긴 집단과 가장 짧은 집단에 집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년 동기 대비 근속년수별 비중 변화는 6개월 미만은 1.5%p 하락한 반면 10년 이상은 1%p 상승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비정규직 단기간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0년 8월 남성 노동자 근속년수별 비중을 보면 10년 이상이 26.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6개월 미만이 19.7%로 많은데 전체 노동자 중 6개월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상회한 것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전년 동기 대비 비중 변화는 10년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0.9%p 가장 크게 상승하고 1-2년 미만이 0.4%p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20년 8월 여성 노동자 근속년수별 비중을 보면 6개월 미만이 21.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년 이상이 15.8%로 많다. 전년 동기 대비 비중 변화는 10년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1.1%p 가장 크게 상승하고 6개월 미만이 2.5%p 가장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6개월 미만 일자리 감소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집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33〉 성별 근속년수 평균값과 계층별 분포 변화

(단위: 년, %, %포인트)

구분		2019.8			2020.8			증감		
		임금 노동자	남성	여성	임금 노동자	남성	여성	임금 노동자	남성	여성
근속 년수	평균값	5.9	6.9	4.6	6.0	7.0	4.8	0.1	0.1	0.1
	중위값	2.5	3.2	1.9	2.6	3.3	2.1	0.1	0.1	0.1
분포	6개월 미만	22.1	20.4	24.1	20.5	19.7	21.6	-1.5	-0.8	-2.5
	6개월-1년 미만	10.2	8.9	11.7	10.6	8.9	12.8	0.5	0.0	1.1
	1-2년 미만	12.9	11.6	14.6	12.7	11.2	14.5	-0.3	-0.4	0.0
	2-3년 미만	8.2	7.7	8.8	8.8	8.3	9.5	0.6	0.6	0.7
	3-5년 미만	10.9	10.2	11.9	10.9	10.4	11.5	0.0	0.2	-0.4
	5-10년 미만	14.9	15.5	14.2	14.7	15.0	14.2	-0.3	-0.5	0.0
	10년 이상	20.8	25.6	14.8	21.8	26.5	15.8	1.0	0.9	1.1

주: 1) 주된 직장(일)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8월 기준 근속년수 계층별 노동자 규모는 10년 이상이 444만 9천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6개월 미만이 419만 8천명으로 10년 이상과 6개월 미만이 전체 노동자 중 8백만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5-10년 미만 299만 4천명, 1-2년 미만 259만 2천명, 3-5년 미만 222만 9천명, 6개월-1년 미만 217만 6천명, 2-3년 미만 180만 8천명 순서로 많다. 전년 동기 대비 규모 변화는 6개월 미만이 33만 8천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반면 10년 이상은 18만 3천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전체 노동자수 11만 3천명 감소는 6개월 미만 일자리에서 주도한 것을 확인하였다.

2020년 8월 기준 근속년수 계층별 남성 노동자 규모는 10년 이상이 301만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6개월 미만이 223만 6천명으로 많다. 이 외에 5-10년 미만 170만 2천명, 1-2년 미만 127만 2천명, 3-5년 미만 118만 4천명, 6개월-1년 미만 101만명이고 2-3년 미만이 94만 7천명으로 가장 적다. 전년 동기 대비 규모 변화는 6개월 미만이 9만 4천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

하였고 10년 이상은 9만 7천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전체 남성 노동자수 3만 5천명 감소도 전체 노동자 증감과 동일하게 6개월 미만 일자리에선 주도하였다.

2020년 8월 기준 근속년수 계층별 여성 노동자 규모는 6개월 미만이 196만 3천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년 이상이 143만 8천명으로 많다. 이 외에 1-2년 미만 131만 9천명, 5-10년 미만 129만 3천명, 6개월-1년 미만 116만 5천명, 3-5년 미만 104만 5천명이고 2-3년 미만이 86만천명으로 가장 적다. 전년 동기 대비 규모 변화는 6개월 미만이 24만 3천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고 10년 이상은 8만 5천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전체 여성 노동자 수 7만 8천명 감소도 6개월 미만 일자리에선 주도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여성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 등의 대면서비스 일자리 감소가 6개월 미만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34〉 성별 근속년수 계층별 노동자 규모 변화

(단위: 천명)

구분	2019.8			2020.8			증감		
	임금 노동자	남성	여성	임금 노동자	남성	여성	임금 노동자	남성	여성
전체	20,559	11,396	9,163	20,446	11,361	9,085	-113	-35	-78
6개월 미만	4,536	2,330	2,206	4,198	2,236	1,963	-338	-94	-243
6개월- 1년 미만	2,092	1,016	1,076	2,176	1,010	1,165	84	-6	89
1- 2년 미만	2,661	1,326	1,334	2,592	1,272	1,319	-69	-54	-15
2-3년 미만	1,685	882	803	1,808	947	860	123	65	57
3-5년 미만	2,250	1,161	1,089	2,229	1,184	1,045	-21	23	-44
5-10년 미만	3,069	1,767	1,302	2,994	1,702	1,293	-75	-65	-9
10년 이상	4,266	2,913	1,353	4,449	3,010	1,438	183	97	85

주: 1) 주된 직장(일)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3) 비자발적 취업

2020년 8월 기준 임금노동자 중 비자발적 취업자 규모는 502만 7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만 3천명(-8.6%) 감소했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자발적 취업 비중은 24.6%로 전년 동기 26.8% 보다 2.2%p 하락했다.

남성 노동자 중 비자발적 취업자 규모는 251만 9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만 9천명(-5.4%) 감소했고 여성 노동자 중 비자발적 취업자 규모는 250만 8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 4천명(-5.4%) 감소했다. 비자발적 취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이 22.2%, 여성이 27.6%로 여성이 남성보다 5.4%p 높다. 2019년 8월과 비교하여 남성은 비자발적 취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8%p 하락한 반면, 여성은 1.3%p 하락하는 것에 그쳐 남성의 자발적 취업 비율이 더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35〉 성별 비자발적 취업자 규모 및 비중 변화

(단위: 천명, %, %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8		2020.8		증감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증감률
임금노동자	5,500	26.8	5,027	24.6	-473	-8.6
남성	2,848	25.0	2,519	22.2	-329	-11.6
여성	2,652	28.9	2,508	27.6	-144	-5.4

주: 1) 비자발적 사유는 주된 취업 사유가 ③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④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혹은 ⑤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인 경우가거나, 주된 취업 사유가 ⑥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⑦ 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⑧ 학업·학원수강·직업훈련·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⑨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⑩ 근무시간을 신중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⑪ 그 외 기타 사유인 응답자 중 취업동기가 비자발적이라고 응답한 경우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4. 성별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 변화

### 1) 사회보험 가입률

2020년 8월 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69.8%, 건강보험 76.7%, 고용보험 67.5%로 전년 동기 대비 국민연금 0.3%p, 건강보험 1%p, 고용보험 1.7%p 상승하였고 고용보험 상승률이 가장 컸다.

남성 노동자의 2020년 8월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73%, 건강보험 80.9%, 고용보험 70.9%로 전년 동기 대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각각 0.3%p, 1%p, 1.6%p 상승하였다. 여성 노동자는 국민연금 65.7%, 건강보험 71.5%, 고용보험 63.1%로 전년 동기 대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각각 0.4%p, 1.1%p, 1.7%p 상승하였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가입률 상승은 여성이 남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6〉 성별 사회보험 가입률 변화

(단위: %, %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 8			2020. 8			증감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임금노동자	69.5	75.7	65.8	69.8	76.7	67.5	0.3	1.0	1.7
남성	72.7	79.9	69.3	73.0	80.9	70.9	0.3	1.0	1.6
여성	65.4	70.5	61.5	65.7	71.5	63.1	0.4	1.1	1.7
여성-남성	-7.3	-9.4	-7.8	-7.3	-9.4	-7.8	-	-	-

주: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지역가입자, 의료수급권자 및 직장가입피부양자는 제외)

2) 국민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포함

3) 고용보험의 경우 통계청은 2010년부터 특수직역연금 대상(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을 제외한 고용보험가입률을 발표하고 있어 수치의 차이가 존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사회보험 가입률 성별 격차는 건강보험이 9.4%p 여성이 낮아 가장 크고 다음으로 고용보험 7.8%p, 국민연금 7.3%p로 여성이 남성보다 낮고 이 격차 수치는 2019년과 2020년 모두 동일하다.

## 2) 근로복지 수혜율

2020년 8월 임금노동자의 근로복지 수혜율은 퇴직급여 73.2%, 시간외 수당 50%, 유급휴일(휴가) 64.6%, 상여금 68.8%, 교육훈련 경험 52.2%로 퇴직급여만이 70% 이상 수혜율을 보였다. 시간외 수당과 교육훈련 경험 수혜율은 50% 대로 가장 낮았다. 전년 동기 대비 근로복지 수혜율 변화는 퇴직급여(-0.8%p)와 교육훈련 경험(-1.7%p)은 하락하고 시간외 수당(1.8%p), 유급휴일(휴가)(1.7%p)은 수혜율이 상승하였다. 상여금 수혜율은 전년 동기 대비 변화가 없다.

남성 노동자 2020년 8월 기준 근로복지 수혜율은 퇴직급여 78%, 시간외 수당 54.9%, 유급휴일(휴가) 69.7%, 상여금 73.2%, 교육훈련 경험 53.9%로 퇴직급여와 상여금의 수혜율이 70%를 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수혜율 변화는 시간외수당과 유급휴일(휴가)이 1.8%p 상승하고 나머지 퇴직급여(-0.5%p), 상여금(-0.5%p), 교육훈련 경험(-1.9%p) 수혜율은 하락하였다.

여성 노동자 2020년 8월 기준 근로복지 수혜율은 퇴직급여 67.3%, 시간외 수당 43.9%, 유급휴일(휴가) 58.3%, 상여금 63.3%, 교육훈련 경험 49.9%로 시간외수당과 교육훈련 경험 수혜율은 50%를 넘지 못했다. 전년 동기 대비 수혜율 변화는 시간외수당(1.8%p)과 유급휴일(휴가)(1.5%p), 상여금(0.5%p) 수혜율은 상승하고, 퇴직급여(-1.1%p)와 교육훈련 경험(-1.4%p) 수혜율은 하락하였다.

근로복지 수혜율 성별 격차는 시간외수당과 유급휴일(휴가)이 11%p 이상 여성이 남성보다 낮아 가장 크고 교육훈련 경험이 4%p로 격차가 가장 작았다. 2019년 근로복지 수혜율 성별 격차도 2020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sup>28)</sup>

〈표 4-37〉 성별 근로복지 수혜율 변화

(단위: %, %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 8					2020. 8					증감				
	퇴직 급여	시간외 수당	유급 휴일 (휴가)	상여금	교육 훈련 경험	퇴직 급여	시간외 수당	유급 휴일 (휴가)	상여금	교육 훈련 경험	퇴직 급여	시간외 수당	유급 휴일 (휴가)	상여금	교육 훈련 경험
임금 노동자	74.0	48.2	62.9	68.8	53.9	73.2	50.0	64.6	68.8	52.2	-0.8	1.8	1.7	0.0	-1.7
남성	78.4	53.1	67.9	73.7	55.9	78.0	54.9	69.7	73.2	53.9	-0.5	1.8	1.8	-0.5	-1.9
여성	68.4	42.1	56.8	62.9	51.4	67.3	43.9	58.3	63.3	49.9	-1.1	1.8	1.5	0.5	-1.4

주: 1) 퇴직급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2) 시간외 수당은 수당의 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시간외 수당은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체에만 적용됨.(?)

3) 유급휴일(휴가)은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산전후휴가) 중 한 개 이상 수혜 대상인 경우. 유급휴가는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체에만 적용됨.

4)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법정임금은 아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5. 성별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와 조직률 변화

노동조합 조합원 수와 가입률이 여성은 모두 증가한데 비해, 남성은 모두 감소했고, 이에 따라 전체 조합원 중 여성의 비중이 증가했다. 남성의 조직률이 여성보다 높고, 조합원의 다수(66.1%)가 남성이다.

28) 임금노동자 근로복지 수혜율 성별 격차

단위:%p	2019. 8					2020. 8				
	퇴직 급여	시간외 수당	유급 휴일 (휴가)	상여금	교육 훈련 경험	퇴직 급여	시간외 수당	유급 휴일 (휴가)	상여금	교육 훈련 경험
여성-남성	-10.0	-11.0	-11.2	-10.8	-4.5	-10.7	-11.0	-11.4	-9.9	-4.0

〈표 4-38〉 성별 노동조합 조합원 수 변화

(단위: 천명)

구분	전체	노조있음			노조없음	
		가입	미가입	가입대상 아님		
'19.8	임금노동자	20,559	2,530	1,238	1,475	15,316
	남성	11,396	1,686	709	923	8,078
	여성	9,163	845	529	552	7,238
'20.8	임금노동자	20,446	2,513	1,368	1,454	15,111
	남성	11,361	1,661	760	883	8,057
	여성	9,085	852	608	571	7,054
증감	임금노동자	-113	-17	130	-21	-205
	남성	-35	-25	51	-40	-21
	여성	-78	7	79	19	-18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4-39〉 성별 노동조합 가입률 변화

(단위: %, %포인트)

구분		노조있음			노조없음
		가입	미가입	가입대상 아님	
2019.8	임금노동자	12.3	6	7.2	74.5
	남성	14.8	6.2	8.1	70.9
	여성	9.2	5.8	6	79
2020.8	임금노동자	12.3	6.7	7.1	73.9
	남성	14.6	6.7	7.8	70.9
	여성	9.4	6.7	6.3	77.6
증감	임금노동자	0	0.7	-0.1	-0.6
	남성	-0.2	0.5	-0.3	0
	여성	0.2	0.9	0.3	-1.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전체 조합원 251만 3천명 가운데 남성은 166만 1천 명(66.1%), 여성은 85만 2천명(39.9%)으로 조합원 다수가 남성이다. 노동조합 가입자 수가 남성은 전년 동기 대비 2만 5천명(-1.5%) 감소한 반면 여성은 7천명(0.8%)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조합원 가운데 여성의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0.5%p 증가했다.

남성의 노동조합 가입 비율은 14.6%로 전년 동기 대비 0.2%p 하락하였고, 여성은 9.4%로 0.2%p 상승하였다.

## 제3절 연령별 고용과 노동실태에 미친 영향

### 1. 연령별 고용 영향

#### 1) 연령별 규모 변화

본 절에서는 연령 단위를 15세-65세 이상까지 5세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2020년 8월 기준 임금노동자 연령별 규모는 45-49세가 255만 3천명으로 가장 많고(12.5%), 다음으로 50-54세 241만 3천명(11.8%), 40-44세 234만 7천명(11.5%), 35-39세 229만 5천명(11.2%), 25-29세 221만 7천명(10.8%), 30-34세 218만 6천명(10.7%), 55-59세 208만 8천명(10.2%)까지 2백만명을 상회한다. 나머지 연령 중에서는 65세 이상이 160만 3천(7.8%), 60-64세 139만 9천명(6.8%), 20-24세 118만 2천명(5.8%), 15-19세 16만 4천명(0.8%)이다.

최근 5년간 연령별 임금노동자 비중 변화를 보면 15-19세, 20-24세, 30-34세는 5년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비중이 하락하고 60-64세, 65세 이상은 5년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나머지 연령대는 전년 동

기 대비 비중이 상승과 하락, 변화 없음이 모두 나타난다. 특히, 2020년 8월엔 65세 이상이 전체 임금 노동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8%로 처음으로 7%대에 진입하였다. 반면, 20-24세는 5.8%로 처음으로 6% 미만이 되었다.

〈표 4-40〉 임금노동자의 연령별 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규모					비중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임금노동자	19,743	20,006	20,045	20,559	20,446	100.0	100.0	100.0	100.0	100.0
15~19세	262	244	204	194	164	1.3	1.2	1.0	0.9	0.8
20~24세	1,365	1,338	1,219	1,235	1,182	6.9	6.7	6.1	6.0	5.8
25~29세	2,090	2,160	2,258	2,320	2,217	10.6	10.8	11.3	11.3	10.8
30~34세	2,356	2,261	2,183	2,208	2,186	11.9	11.3	10.9	10.7	10.7
35~39세	2,386	2,492	2,534	2,482	2,295	12.1	12.5	12.6	12.1	11.2
40~44세	2,505	2,412	2,337	2,384	2,347	12.7	12.1	11.7	11.6	11.5
45~49세	2,534	2,632	2,633	2,594	2,553	12.8	13.2	13.1	12.6	12.5
50~54세	2,227	2,229	2,233	2,378	2,413	11.3	11.1	11.1	11.6	11.8
55~59세	1,872	1,976	2,014	2,057	2,088	9.5	9.9	10.0	10.0	10.2
60~64세	1,031	1,085	1,182	1,288	1,399	5.2	5.4	5.9	6.3	6.8
65세 이상	1,116	1,179	1,248	1,418	1,603	5.7	5.9	6.2	6.9	7.8

주: 1) 임금노동자 전체 규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합임. 비정규직 각 유형(한시적, 비전형, 시간제)은 중복 집계되므로, 비정규직 전체 규모 및 비중과 일치하지 않음. 비정규직 전체수는 이와 같은 중복을 제거하고 집계한 것임.

2) 기간제근로, 한시적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규모는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는 증감 비교 불가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연령별 임금노동자 규모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20년은 전년과 비교하여 35-39세가 18만 7천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다음으로 25-29세가 10만 3천명, 20-24세 5만 3천명 순서로 청년층 임금노동자가 크게 줄었다. 반면, 50세 이상 연령구간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임금노동자 수가 증가하였다. 65세 이상 임금노동자 수는 18만 5천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35-39세 임금노동자 감소 18만 7천명보다 2천명이 부족

한 수치이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에서도 35-39세가 7.5% 감소하여 감소율이 가장 컸고 50세 이상은 전년 동기 대비 임금노동자 수가 증가율을 보였는데 65세 이상은 13% 증가하여 증가율이 가장 컸다.

〈표 4-41〉 임금노동자의 연령별 규모 및 비중 변화

(단위: 천명,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8		2020.8		증감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증감률
임금노동자 전체	20,559	100.0	20,446	100.0	-113	-0.5
15~19세	194	0.9	164	0.8	-30	-15.5
20~24세	1,235	6.0	1,182	5.8	-53	-4.3
25~29세	2,320	11.3	2,217	10.8	-103	-4.4
30~34세	2,208	10.7	2,186	10.7	-22	-1.0
35~39세	2,482	12.1	2,295	11.2	-187	-7.5
40~44세	2,384	11.6	2,347	11.5	-37	-1.6
45~49세	2,594	12.6	2,553	12.5	-41	-1.6
50~54세	2,378	11.6	2,413	11.8	35	1.5
55~59세	2,057	10.0	2,088	10.2	31	1.5
60~64세	1,288	6.3	1,399	6.8	111	8.6
65세 이상	1,418	6.9	1,603	7.8	185	13.0

주: 1) 임금노동자 전체 규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합임. 비정규직 각 유형(한시직, 비전형, 시간제)은 중복 집계되므로, 비정규직 전체 규모 및 비중과 일치하지 않음. 비정규직 전체수는 이와 같은 중복을 제거하고 집계한 것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2) 연령별 특성별 고용변화

### ① 성별 고용영향

연령별로 성별 임금노동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4장 1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여성과 남성 모두 35-39세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하고 65세

이상에서는 남녀 모두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49세 이하 연령구간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임금노동자 수가 여성은 모두 감소하고 남성은 30-34세는 1만 1천명 증가하고 나머지 연령 구간에서는 여성과 동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여 차이가 있었다. 30-34세 구간 임금노동자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은 남성은 전술한 바와 같이 1만 1천명 증가, 여성은 3만 3천명 감소하여 대조를 이루었다. 여성과 남성의 임금노동자 증감이 상이한 연령은 30대 초반 이외에 남성은 전년 동기 대비 3만 6천명 증가, 여성은 5천명 감소를 한 55-59세이다.

〈표 4-42〉 연령계층별 규모 변화

(단위: 천명)

구분	2019.8			2020.8			증감		
	임금 노동자	남성	여성	임금 노동자	남성	여성	임금 노동자	남성	여성
전체	20,559	11,396	9,163	20,446	11,361	9,085	-113	-35	-78
15-19세	194	78	116	164	73	90	-30	-5	-26
20-24세	1,235	511	724	1,182	478	704	-53	-33	-20
25-29세	2,320	1,230	1,090	2,217	1,149	1,068	-103	-81	-22
30-34세	2,208	1,297	911	2,186	1,308	878	-22	11	-33
35-39세	2,482	1,526	956	2,295	1,430	865	-187	-96	-91
40-44세	2,384	1,403	981	2,347	1,395	952	-37	-8	-29
45-49세	2,594	1,485	1,110	2,553	1,462	1,091	-41	-23	-19
50-54세	2,378	1,313	1,065	2,413	1,338	1,074	35	25	9
55-59세	2,057	1,155	902	2,088	1,191	897	31	36	-5
60-64세	1,288	712	576	1,399	773	626	111	61	50
65세 이상	1,418	686	732	1,603	764	838	185	78	10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8월 기준 연령별로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임금노동자 중 여성 비중은 20-24세가 59.6%로 가장 높고 35-39세가 37.7%로 가장 낮다. 2019

년도 여성 비중이 가장 낮은 연령은 35-39세로 2020년과 동일하다. 30-34세 연령구간 임금노동자 중 여성 비중은 40.2%로 25-29세 연령대 임금노동자 중 여성 비중 48.2%에서 8%p가 급락한다. 이후 30대 후반에서는 여성 비중이 37.7%까지 하락하다 40-44세에 40.6%로 다시 상승한다. 30대 초반 여성 비중 하락과 30대 후반 연령대 여성 비중 최저 수준은 30대 여성 임금노동자들의 임신 및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노동시장에서 대거 퇴장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연령별 여성 비중 변화는 30-34세가 1.1%p 하락하여 가장 크게 하락하였고 30-59세까지 5세 구간별로 여성 비중은 모두 하락하였다. 60세 이상 연령 구간에서는 여성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다.

〈표 4-43〉 연령계층별 비중 변화

(단위: %)

구분	2019.8			2020.8			증감		
	임금노동자	남성	여성	임금노동자	남성	여성	임금노동자	남성	여성
15-19세	100.0	40.1	59.9	100.0	44.7	55.3	0.0	4.7	-4.7
20-24세	100.0	41.4	58.6	100.0	40.4	59.6	0.0	-0.9	0.9
25-29세	100.0	53.0	47.0	100.0	51.8	48.2	0.0	-1.2	1.2
30-34세	100.0	58.8	41.2	100.0	59.8	40.2	0.0	1.1	-1.1
35-39세	100.0	61.5	38.5	100.0	62.3	37.7	0.0	0.8	-0.8
40-44세	100.0	58.8	41.2	100.0	59.4	40.6	0.0	0.6	-0.6
45-49세	100.0	57.2	42.8	100.0	57.3	42.7	0.0	0.1	-0.1
50-54세	100.0	55.2	44.8	100.0	55.5	44.5	0.0	0.2	-0.2
55-59세	100.0	56.2	43.8	100.0	57.0	43.0	0.0	0.9	-0.9
60-64세	100.0	55.3	44.7	100.0	55.2	44.8	0.0	-0.1	0.1
65세 이상	100.0	48.4	51.6	100.0	47.7	52.3	0.0	-0.7	0.7
전체	100.0	55.4	44.6	100.0	55.6	44.4	0.0	0.1	-0.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② 종사상지위별 고용영향

연령별로 종사상 지위별 임금노동자 수를 살펴보면, 15-19세와 65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상용직이 수가 가장 많다. 15-19세와 65세 이상은 상용직보다 임시직이 2배~5배 가까이 많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은 45-49세가 205만명으로 가장 많고 임시직은 65세 이상이 96만 9천명으로 나머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다. 일용직은 55-59세가 21만 5천명으로 가장 많다.

〈표 4-44〉 연령별 종사상 지위별 규모 변화

(단위: 천명,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8			2020.8			증감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임금노동자	14,288	4,857	1,415	14,570	4,539	1,337	282	-318	-78
15-19세	33	111	49	26	103	35	-7	-8	-14
20-24세	580	526	129	535	519	128	-45	-7	-1
25-29세	1,753	492	75	1,754	405	58	1	-87	-17
30-34세	1,837	310	61	1,829	285	72	-8	-25	11
35-39세	2,074	347	61	1,940	277	79	-134	-70	18
40-44세	1,904	380	99	1,924	345	78	20	-35	-21
45-49세	1,989	443	162	2,050	378	125	61	-65	-37
50-54세	1,686	509	182	1,783	424	205	97	-85	23
55-59세	1,372	444	241	1,468	405	215	96	-39	-26
60-64세	662	437	190	779	429	192	117	-8	2
65세 이상	397	856	165	482	969	151	85	113	-1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연령별로 종사상 지위별 노동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8월 전년 동기 대비 상용직은 35-39세가 13만 4천명 감소하여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 60-64세는 상용직이 11만 7천명 증가하여 유일하게 상용직이 10만명 이상

증가한 연령이기도 하다. 임시직은 25-29세가 8만 7천명 감소하여 50-54세 8만 5천명 감소와 함께 8만명 이상 가장 크게 감소한 연령이다. 임시직이 증가한 연령대는 65세 이상으로 11만 3천명이 증가하였다. 일용직은 35-39세가 1만 8천명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45-49세는 3만 7천명 가장 크게 감소했다. 30-34세와 35-39세는 전년 동기 대비 상용직과 임시직은 감소한 반면, 일용직은 증가하여 상용직과 임시직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일용직 일자리로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55-59세는 임시직(-3만 9천명), 일용직(-2만 6천명)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상용직 수(9만 6천명)는 증가하였다. 15-19세, 20-24세는 종사상 지위별 노동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하였다.

〈표 4-45〉 연령별 종사상 지위별 비중 변화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8			2020.8			증감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임금노동자	69.5	23.6	6.9	71.3	22.2	6.5	1.8	-1.4	-0.3
15-19세	17.0	57.5	25.4	15.8	62.8	21.4	-1.3	5.3	-4.0
20-24세	47.0	42.6	10.4	45.2	43.9	10.8	-1.7	1.3	0.4
25-29세	75.6	21.2	3.2	79.1	18.3	2.6	3.6	-2.9	-0.6
30-34세	83.2	14.0	2.8	83.7	13.1	3.3	0.5	-1.0	0.5
35-39세	83.5	14.0	2.5	84.5	12.1	3.4	1.0	-1.9	1.0
40-44세	79.9	16.0	4.2	82.0	14.7	3.3	2.1	-1.3	-0.8
45-49세	76.7	17.1	6.2	80.3	14.8	4.9	3.6	-2.3	-1.4
50-54세	70.9	21.4	7.7	73.9	17.6	8.5	3.0	-3.8	0.8
55-59세	66.7	21.6	11.7	70.3	19.4	10.3	3.6	-2.2	-1.4
60-64세	51.3	33.9	14.7	55.7	30.6	13.7	4.3	-3.3	-1.0
65세 이상	28.0	60.4	11.6	30.1	60.5	9.4	2.1	0.1	-2.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연령별 종사상 지위별 임금노동자 비중을 보면 15-19세와 65세 이상은

임시직 비중이 각각 62.8%, 60.5%로 가장 많고 20-64세까지는 상용직 비중이 가장 높다. 20-64세까지 상용직 비중이 임시직, 일용직 비중보다 높은 가운데 연령별로 비중에 차이는 있는데 35-39세는 상용직 비중이 84.5%로 가장 높다. 30-49세까지는 5세 구간별로 상용직 비중이 80%를 상회하고 25-29세와 50대는 상용직 비중이 70%대로 30대와 40대보다는 낮다.

연령별로 종사상지위별 임금노동자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상용직 비중은 15-24세를 제외하고 25세 이상 연령대에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다. 반면 임시직 비중은 15-24세와 65세 이상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하락하였다. 일용직 비중은 30대와 50-54세 연령대에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하락하였다. 30대와 50-54세는 전년 동기 대비 임시직 수가 증가하여 비중도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다.

### ③ 기업 규모별 고용영향

연령별 사업체 규모별 임금노동자 수는 2020년 8월 기준 15-19세, 20-24세, 60-64세, 65세 이상은 4명 이하 규모 종사 노동자 수가 5인 이상 규모보다 많다. 25-39세와 45-59세 연령 구간은 10-29인 종사 노동자 수가 나머지 규모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보다 많다. 40-44세는 유일하게 30-99인 종사 노동자 수가 가장 많다.

연령별로 사업체 규모별 임금노동자 수 변화를 보면 2020년 8월 기준 15-19세는 30-99인, 300인 이상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나머지 규모에서는 모두 감소하였다. 20-24세는 모든 규모에서 전년 동기 대비 노동자수가 감소했고 특히 5-9인이 2만 7천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30-34세는 5-9인, 30-99인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나머지 규모에서는 모두 감소하였고 100-299인에서 1만 9천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35-39세는 모든 규모



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40-44세는 10-99인과 300인 이상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고 나머지 규모에서는 감소하였는데 5-9명에서 7만 8천명 감소하여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표 4-46〉 연령별 기업 규모별 규모 변화

(단위: 천명)

구분	전체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19.8	임금노동자	20,559	3,783	3,648	4,581	3,896	1,989	2,661
	15~19세	194	76	62	31	14	7	3
	20~24세	1,235	366	278	238	160	91	101
	25~29세	2,320	344	431	524	458	248	315
	30~34세	2,208	267	331	494	416	258	441
	35~39세	2,482	341	343	519	516	280	483
	40~44세	2,384	369	436	463	490	263	363
	45~49세	2,594	431	434	589	511	262	367
	50~54세	2,378	439	382	546	495	231	284
	55~59세	2,057	406	367	473	394	198	218
	60~64세	1,288	319	271	335	236	82	46
65세이상	1,418	425	313	369	205	68	38	
'20.8	임금노동자	20,446	3,648	3,511	4,611	3,997	1,979	2,700
	15~19세	164	59	52	26	16	6	4
	20~24세	1,182	346	251	228	181	77	99
	25~29세	2,217	301	366	493	445	256	357
	30~34세	2,186	255	345	486	433	239	429
	35~39세	2,295	301	331	482	469	272	440
	40~44세	2,347	360	358	505	507	253	365
	45~49세	2,553	379	456	545	513	273	388
	50~54세	2,413	407	409	560	488	239	308
	55~59세	2,088	394	324	489	463	203	215
	60~64세	1,399	368	278	351	257	88	57
65세이상	1,603	479	341	447	226	73	37	

〈표 4-47〉 연령별 기업 규모별 증감

(단위: 천명,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전체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113	-135	-137	30	101	-10	39
	15~19세	-30	-17	-10	-5	2	-1	1
	20~24세	-53	-20	-27	-10	21	-14	-2
	25~29세	-103	-43	-65	-31	-13	8	42
	30~34세	-22	-12	14	-8	17	-19	-12
	35~39세	-187	-40	-12	-37	-47	-8	-43
	40~44세	-37	-9	-78	42	17	-10	2
	45~49세	-41	-52	22	-44	2	11	21
	50~54세	35	-32	27	14	-7	8	24
	55~59세	31	-12	-43	16	69	5	-3
	60~64세	111	49	7	16	21	6	11
65세이상	185	54	28	78	21	5	-1	
'19년 대비 증감률	임금노동자	-0.5	-3.6	-3.8	0.7	2.6	-0.5	1.5
	15~19세	-15.5	-22.4	-16.1	-16.1	14.3	-14.3	33.3
	20~24세	-4.3	-5.5	-9.7	-4.2	13.1	-15.4	-2.0
	25~29세	-4.4	-12.5	-15.1	-5.9	-2.8	3.2	13.3
	30~34세	-1.0	-4.5	4.2	-1.6	4.1	-7.4	-2.7
	35~39세	-7.5	-11.7	-3.5	-7.1	-9.1	-2.9	-8.9
	40~44세	-1.6	-2.4	-17.9	9.1	3.5	-3.8	0.6
	45~49세	-1.6	-12.1	5.1	-7.5	0.4	4.2	5.7
	50~54세	1.5	-7.3	7.1	2.6	-1.4	3.5	8.5
	55~59세	1.5	-3.0	-11.7	3.4	17.5	2.5	-1.4
	60~64세	8.6	15.4	2.6	4.8	8.9	7.3	23.9
65세이상	13.0	12.7	8.9	21.1	10.2	7.4	-2.6	

〈표 4-48〉 연령별 기업 규모별 비중 변화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19.8	임금노동자	18.4	17.7	22.3	19	9.7	12.9
	15~19세	39.3	32.1	15.9	7.4	3.8	1.6
	20~24세	29.6	22.5	19.3	13	7.4	8.2
	25~29세	14.8	18.6	22.6	19.7	10.7	13.6
	30~34세	12.1	15	22.4	18.8	11.7	20
	35~39세	13.7	13.8	20.9	20.8	11.3	19.5
	40~44세	15.5	18.3	19.4	20.6	11	15.2
	45~49세	16.6	16.7	22.7	19.7	10.1	14.1
	50~54세	18.5	16.1	23	20.8	9.7	11.9
	55~59세	19.7	17.8	23	19.2	9.6	10.6
	60~64세	24.8	21	26	18.3	6.4	3.6
65세이상	30	22.1	26	14.5	4.8	2.7	
'20.8	임금노동자	17.8	17.2	22.6	19.5	9.7	13.2
	15~19세	36.1	31.9	16.1	9.8	3.5	2.6
	20~24세	29.3	21.2	19.3	15.3	6.5	8.4
	25~29세	13.6	16.5	22.2	20.1	11.5	16.1
	30~34세	11.7	15.8	22.2	19.8	10.9	19.6
	35~39세	13.1	14.4	21	20.4	11.9	19.2
	40~44세	15.3	15.3	21.5	21.6	10.8	15.6
	45~49세	14.8	17.9	21.3	20.1	10.7	15.2
	50~54세	16.9	16.9	23.2	20.2	9.9	12.8
	55~59세	18.9	15.5	23.4	22.2	9.7	10.3
	60~64세	26.3	19.9	25.1	18.4	6.3	4.1
65세이상	29.9	21.3	27.9	14.1	4.6	2.3	
'19년 대비 비율변화	임금노동자	-0.6	-0.6	0.3	0.6	0	0.3
	15~19세	-3.2	-0.1	0.2	2.4	-0.3	1.1
	20~24세	-0.4	-1.3	0	2.3	-0.9	0.2
	25~29세	-1.3	-2.1	-0.3	0.3	0.9	2.5
	30~34세	-0.4	0.8	-0.1	1	-0.8	-0.3
	35~39세	-0.6	0.6	0.1	-0.4	0.6	-0.3
	40~44세	-0.1	-3	2.1	1	-0.3	0.3
	45~49세	-1.8	1.1	-1.4	0.4	0.6	1
	50~54세	-1.6	0.9	0.2	-0.6	0.2	0.8
	55~59세	-0.9	-2.3	0.4	3	0.1	-0.3
	60~64세	1.5	-1.2	-0.9	0	-0.1	0.5
65세이상	-0.1	-0.8	1.9	-0.4	-0.2	-0.4	

4인 이하와 10-29인을 제외한 나머지 규모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노동자 수가 증가하였는데 300인 이상에서 2만 1천명이 증가하였다. 50-54세는 4인 이하와 30-99인을 제외하고 전년 동기 대비 노동자 수가 증가하였는데 5-9인과 300인 이상에서 2만명 증가하였다. 55-59세는 10-299인을 제외한 나머지 규모에서 전년 동기 대비 노동자 수가 감소하였다. 60-64세 이상은 모든 규모에서 전년 동기 대비 노동자 수가 증가하였다. 65세 이상은 300인 이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증가하였다. 코로나 19로 전체 노동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1만 3천명 감소한 가운데 300인 이상은 3만 9천명이 증가하였는데 15-19세, 25-29세, 45-54, 60-64세 연령대에서 300인 이상 규모에서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핵심 노동력 집단인 30대는 300인 이상 규모에서 전년 동기 대비 노동자 수 증가는 없었다.

2020년 연령별로 사업체 규모별 비중을 살펴보면, 15-24세, 60세 이상은 4인 이하 비중이 26-36%로 가장 높고, 25-39세, 45-59세는 10-29인 규모 비중이 21-27%로 가장 높다. 40-44세는 30-99인 규모에서 비중이 가장 높다.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 비중은 35-39세가 19.6%로 가장 높다.

2020년 연령별 사업체 규모별 비중 변화는 4인 이하는 60-64세를 제외하고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는데 특히, 15-19세가 3.2%p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300인 이상 규모에서의 비중 변화는 30대와 55-59세, 65세 이상을 제외하고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고 이중 25-29세가 2.5%p로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

#### ④ 산업별 고용영향

2020년 8월 산업별 임금노동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숙박·음식업에서 14만명이 감소하여 전체 임금노동자 수 감소 11만 3천명을 주도한 가운데 연령

별로는 25-29세에서 4만 8천명, 30-34세에서 2만 5천명, 40-44세에서 1만 3천명, 45-49세에서 1만 7천명, 50-54세에서 3만 6천명, 50-59세에서 1천명이 감소하였다.

〈표 4-49〉 연령별 산업별 노동자 수 변화(15세~44세)

(단위: 천명, 전년 동기 대비)

구분	임금노동자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19.8	전체	20,559	194	1,235	2,320	2,208	2,482	2,384
	농림어업	123	0	9	9	10	7	8
	광업	12	0	1	0	1	1	4
	제조업	3,946	17	150	372	495	618	531
	전기가스증기	71	0	2	12	8	7	8
	수도하수	132	0	0	8	20	13	15
	건설업	1,627	6	42	101	108	146	199
	도소매업	2,253	26	190	310	283	277	277
	운수창고	808	1	31	71	62	85	76
	숙박음식	1,446	92	277	204	123	76	94
	정보통신	777	4	45	138	150	134	97
	금융보험	761	1	27	80	94	124	108
	부동산업	406	0	3	25	18	28	54
	전문과학기술	996	5	45	172	174	183	118
	사업관리지원임대	1,241	7	47	110	97	112	124
	공공행정	1,079	1	22	84	103	129	116
	교육서비스	1,548	13	98	217	161	205	214
	보건사회복지	2,173	2	134	272	205	223	217
	예술및여가	343	14	78	60	22	35	32
	기타개인서비스	726	3	36	75	73	80	90
	가구내고용 등	81	2	0	0	0	0	1
국제기구	11	0	0	0	1	0	2	
'20.8	전체	20,446	164	1,182	2,217	2,186	2,295	2,347
	농림어업	120	0	2	12	9	14	9
	광업	11	0	1	1	0	0	2
	제조업	3,930	19	134	393	474	588	537
	전기가스증기	71	0	2	7	9	4	10
	수도하수	142	0	1	7	16	11	11
	건설업	1,662	5	37	114	123	147	189
	도소매업	2,172	25	181	273	283	276	253
	운수창고	813	6	25	77	79	76	89
	숙박음식	1,306	77	288	156	98	78	81

## 192 | 코로나19 위기와 노동시장 충격-취약노동계층에 미친 영향과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구분	임금노동자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정보·통신	771	2	30	133	156	117	114
	금융·보험	749	0	14	81	96	101	116
	부동산업	363	0	5	22	11	23	41
	전문·과학기술	986	1	52	165	156	153	133
	사업관리지원임대	1,274	1	52	107	104	129	127
	공공행정	1,134	2	16	87	113	108	111
	교육서비스	1,482	9	107	166	165	163	207
	보건사회복지	2,328	3	124	303	197	194	192
	예술·문화·여가	334	7	68	44	36	37	37
	기타개인서비스	677	5	42	68	57	72	81
	가구내고용 등	103	0	0	0	1	4	2
	국제기구	19	0	1	2	1	0	3
'19년 대비 증감	전체	-113	-30	-53	-103	-22	-187	-37
	농림어업	-3	0	-7	3	-1	7	1
	광업	-1	0	0	1	-1	-1	-2
	제조업	-16	2	-16	21	-21	-30	6
	전기가스증기	0	0	0	-5	1	-3	2
	수도하수	10	0	1	-1	-4	-2	-4
	건설업	35	-1	-5	13	15	1	-10
	도소매업	-81	-1	-9	-37	0	-1	-24
	운수창고	5	5	-6	6	17	-9	13
	숙박음식	-140	-15	11	-48	-25	2	-13
	정보·통신	-6	-2	-15	-5	6	-17	17
	금융·보험	-12	-1	-13	1	2	-23	8
	부동산업	-43	0	2	-3	-7	-5	-13
	전문·과학기술	-10	-4	7	-7	-18	-30	15
	사업관리지원임대	33	-6	5	-3	7	17	3
	공공행정	55	1	-6	3	10	-21	-5
	교육서비스	-66	-4	9	-51	4	-42	-7
	보건사회복지	155	1	-10	31	-8	-29	-25
	예술·문화·여가	-9	-7	-10	-16	14	2	5
	기타개인서비스	-49	2	6	-7	-16	-8	-9
	가구내고용 등	22	-2	0	0	1	4	1
	국제기구	8	0	1	2	0	0	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보건사회복지업과 공공행정업은 코로나19 고용타격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만 5천명, 5만 5천명이 증가하였는데 두 산업의 임금노동자 수 증가는 45세 이상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보건사회복지업은 65세 이상

이 전년 동기 대비 9만 7천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보건사회복지업 임금노동자 증가수치인 15만 5천명의 62.5%에 이른다.

〈표 4-50〉 연령별 산업별 노동자 수 변화(45세~60세 이상)

(단위: 천명, 전년 동기 대비)

구분	임금노동자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이상	
'19.8	전체	20,559	2,594	2,378	2,057	1,288	1,418
	농림어업	123	12	13	13	12	30
	광업	12	0	2	3	1	1
	제조업	3,946	553	516	405	183	106
	전기·가스·증기	71	15	10	7	3	1
	수도·하수	132	21	11	26	12	6
	건설업	1,627	266	257	253	176	73
	도소매업	2,253	301	256	172	91	68
	운수·창고	808	98	123	126	91	43
	숙박·음식	1,446	123	160	151	101	46
	정보·통신	777	100	65	29	10	5
	금융·보험	761	137	80	67	28	15
	부동산업	406	54	50	52	46	76
	전문·과학·기술	996	120	75	53	31	21
	사업관리·지원업	1,241	105	121	152	150	217
	공공행정	1,079	120	141	114	46	205
	교육서비스	1,548	217	172	146	53	53
	보건·사회복지	2,173	227	213	191	148	341
	예술·및·여가	343	29	29	17	14	13
	기타개인서비스	726	93	74	71	63	67
	가구내·고용 등	81	2	7	10	28	31
국제기구	10	1	3	2	0	1	
'20.8	전체	20,446	2,553	2,413	2,088	1,399	1,603
	농림어업	120	13	9	10	15	26
	광업	11	0	1	1	2	2
	제조업	3,930	553	509	417	193	114
	전기·가스·증기	71	10	14	14	1	1
	수도·하수	142	20	28	15	20	12
	건설업	1,662	245	266	271	182	82
	도소매업	2,172	286	243	165	96	89

194 | 코로나19 위기와 노동시장 충격-취약노동계층에 미친 영향과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구분	임금노동자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이상
운수창고	813	92	115	127	76	51
숙박음식	1,306	106	124	150	104	46
정보·통신	771	102	59	37	9	10
금융·보험	749	140	81	76	28	16
부동산업	363	44	57	34	52	74
전문·과학·기술	986	119	76	46	55	29
사업관리지원업대	1,274	106	121	141	149	235
공공행정	1,134	142	160	119	64	211
교육서비스	1,482	213	189	141	70	51
보건·사회복지	2,328	247	233	225	172	438
예술·및·여가	334	28	28	17	15	17
기타개인서비스	677	77	83	61	67	62
가구내고용 등	103	4	12	15	29	34
국제기구	19	4	2	4	1	2
전체	-113	-41	35	31	111	185
농림어업	-3	1	-4	-3	3	-4
광업	-1	0	-1	-2	1	1
제조업	-16	0	-7	12	10	8
전기·가스·증기	0	-5	4	7	-2	0
수도·하수	10	-1	17	-11	8	6
건설업	35	-21	9	18	6	9
도소매업	-81	-15	-13	-7	5	21
운수창고	5	-6	-8	1	-15	8
숙박음식	-140	-17	-36	-1	3	0
정보·통신	-6	2	-6	8	-1	5
금융·보험	-12	3	1	9	0	1
부동산업	-43	-10	7	-18	6	-2
전문·과학·기술	-10	-1	1	-7	24	8
사업관리지원업대	33	1	0	-11	-1	18
공공행정	55	22	19	5	18	6
교육서비스	-66	-4	17	-5	17	-2
보건·사회복지	155	20	20	34	24	97
예술·및·여가	-9	-1	-1	0	1	4
기타개인서비스	-49	-16	9	-10	4	-5
가구내고용 등	22	2	5	5	1	3
국제기구	9	3	-1	2	1	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4-51〉 연령별 노동자의 산업 분포 변화(15세~44세)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임금노동자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19.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0.6	0.0	0.7	0.4	0.5	0.3
	광업	0.1	0.0	0.1	0.0	0.0	0.0
	제조업	19.2	8.8	12.1	16.0	22.4	24.9
	전기가스증기	0.3	0.0	0.2	0.5	0.4	0.3
	수도하수	0.6	0.0	0.0	0.3	0.9	0.5
	건설업	7.9	3.1	3.4	4.4	4.9	5.9
	도소매업	11.0	13.4	15.4	13.4	12.8	11.2
	운수창고	3.9	0.5	2.5	3.1	2.8	3.4
	숙박음식	7.0	47.4	22.4	8.8	5.6	3.1
	정보통신	3.8	2.1	3.6	5.9	6.8	5.4
	금융보험	3.7	0.5	2.2	3.4	4.3	5.0
	부동산업	2.0	0.0	0.2	1.1	0.8	1.1
	전문과학기술	4.8	2.6	3.6	7.4	7.9	7.4
	사업관리지원임대	6.0	3.6	3.8	4.7	4.4	4.5
	공공행정	5.2	0.5	1.8	3.6	4.7	5.2
	교육서비스	7.5	6.7	7.9	9.4	7.3	8.3
	보건사회복지	10.6	1.0	10.9	11.7	9.3	9.0
	예술및여가	1.7	7.2	6.3	2.6	1.0	1.4
	기타개인서비스	3.5	1.5	2.9	3.2	3.3	3.2
	가구내고용 등	0.4	1.0	0.0	0.0	0.0	0.0
국제기구	0.1	0.0	0.0	0.0	0.0	0.0	
'20.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0.6	0.00	0.2	0.5	0.4	0.6
	광업	0.1	0.00	0.1	0.0	0.0	0.0
	제조업	19.2	11.5	11.3	17.7	21.7	25.6
	전기가스증기	0.4	0.0	0.2	0.3	0.4	0.2
	수도하수	0.7	0.0	0.1	0.3	0.7	0.5
	건설업	8.1	3.2	3.1	5.1	5.6	6.4
	도소매업	10.6	15.5	15.3	12.3	12.9	12.0
	운수창고	4.0	3.9	2.1	3.5	3.6	3.3
	숙박음식	6.4	47.4	24.4	7.0	4.5	3.4
	정보통신	3.8	0.9	2.5	6.0	7.1	5.1
	금융보험	3.7	0.0	1.2	3.7	4.4	4.4
	부동산업	1.8	0.0	0.4	1.0	0.5	1.0
	전문과학기술	4.8	0.7	4.4	7.4	7.1	6.7
사업관리지원임대	6.2	0.7	4.4	4.8	4.8	5.6	

구분	임금노동자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전체	공공행정	5.6	1.3	1.4	3.9	5.2	4.7	4.7
	교육서비스	7.3	5.6	9.1	7.5	7.5	7.1	8.8
	보건사회복지	11.4	2.0	10.5	13.7	9.0	8.5	8.2
	예술및여가	1.6	4.2	5.8	2.0	1.6	1.6	1.6
	기타개인서비스	3.3	3.1	3.6	3.1	2.6	3.1	3.5
	가구내고용 등	0.5	0.0	0.0	0.0	0.0	0.2	0.1
	국제기구	0.1	0.0	0.1	0.1	0.0	0.0	0.1
'19년 대비 증감	전체							
	농림어업	0.0	0.0	-0.6	0.2	0.0	0.3	0.0
	광업	0.0	0.0	0.0	0.0	0.0	0.0	-0.1
	제조업	0.0	2.7	-0.8	1.7	-0.7	0.7	0.6
	전기가스증기	0.1	0.0	0.0	-0.2	0.0	-0.1	0.1
	수도하수	0.1	0.0	0.1	0.0	-0.2	0.0	-0.2
	건설업	0.2	0.1	-0.3	0.8	0.7	0.5	-0.3
	도소매업	-0.3	2.1	-0.1	-1.0	0.1	0.9	-0.8
	운수창고	0.0	3.4	-0.4	0.4	0.8	-0.1	0.6
	숙박음식	-0.6	-0.1	1.9	-1.8	-1.1	0.3	-0.5
	정보통신	0.0	-1.1	-1.1	0.1	0.3	-0.3	0.8
	금융보험	0.0	-0.5	-1.0	0.2	0.1	-0.6	0.4
	부동산업	-0.2	0.0	0.2	-0.1	-0.3	-0.1	-0.5
	전문과학기술	0.0	-1.9	0.8	0.0	-0.7	-0.7	0.7
	사업관리지원임대	0.2	-3.0	0.6	0.1	0.4	1.1	0.2
	공공행정	0.4	0.8	-0.4	0.3	0.5	-0.5	-0.1
	교육서비스	-0.2	-1.1	1.1	-1.9	0.3	-1.2	-0.2
	보건사회복지	0.8	0.9	-0.4	1.9	-0.3	-0.5	-0.9
	예술및여가	0.0	-3.0	-0.6	-0.6	0.7	0.2	0.2
	기타개인서비스	-0.2	1.6	0.6	-0.2	-0.7	-0.1	-0.3
가구내고용 등	0.1	-1.0	0.0	0.0	0.0	0.2	0.0	
국제기구	0.0	0.0	0.1	0.1	0.0	0.0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5-29세와 35-39세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만 3천명, 18만 7천명이 감소하여 나머지 연령에 비해 가장 많이 감소했다. 25-29세는 특히, 도소매업 3만 7천명, 숙박·음식업 4만 8천명, 교육서비스업에서 5만 1천명이 감소했는데, 이들 산업에서의 감소가 전체 25-29세 임금노동자 수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35-39세는 제조업 3만명, 금융·보험업 2만 3천명, 전문과학

기술업 3만명, 교육서비스업 4만 2천명, 보건사회복지업에서 2만 9천명이 감소했는데, 25-29세에 비해 감소한 산업이 다양하다. 25-29세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큰 대면서비스업인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35-39세는 제조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업에서 임금노동자가 감소하여 차이가 있다.

〈표 4-52〉 연령별 노동자의 산업 분포 변화(45세~65세 이상)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임금노동자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이상	
'19.8	전체	100.0	100.0	100.2	100.0	100.0	100.0
	농림어업	0.6	0.5	0.5	0.6	0.9	2.1
	광업	0.1	0.0	0.1	0.1	0.1	0.1
	제조업	19.2	21.3	21.7	19.7	14.2	7.5
	전기가스증기	0.3	0.6	0.4	0.3	0.2	0.1
	수도하수	0.6	0.8	0.5	1.3	0.9	0.4
	건설업	7.9	10.3	10.8	12.3	13.7	5.1
	도소매업	11.0	11.6	10.8	8.4	7.1	4.8
	운수창고	3.9	3.8	5.2	6.1	7.1	3.0
	숙박·음식	7.0	4.7	6.7	7.3	7.8	3.2
	정보·통신	3.8	3.9	2.7	1.4	0.8	0.4
	금융·보험	3.7	5.3	3.4	3.3	2.2	1.1
	부동산업	2.0	2.1	2.1	2.5	3.6	5.4
	전문·과학기술	4.8	4.6	3.2	2.6	2.4	1.5
	사업관리지원임대	6.0	4.0	5.1	7.4	11.6	15.3
	공공행정	5.2	4.6	5.9	5.5	3.6	14.5
	교육서비스	7.5	8.4	7.2	7.1	4.1	3.7
	보건사회복지	10.6	8.8	9.0	9.3	11.5	24.0
	예술및여가	1.7	1.1	1.2	0.8	1.1	0.9
	기타개인서비스	3.5	3.6	3.1	3.5	4.9	4.7
가구내고용 등	0.4	0.1	0.3	0.5	2.2	2.2	
국제기구	0.0	0.0	0.1	0.1	0.0	0.1	
'20.8	전체	100.0	100.0	100.2	100.0	100.0	100.0
	농림어업	0.6	0.5	0.4	0.5	1.1	1.6
	광업	0.1	0.0	0.0	0.0	0.1	0.1
	제조업	19.2	21.7	21.1	20.0	13.8	7.1
	전기가스증기	0.3	0.4	0.6	0.7	0.1	0.1

구분	임금노동자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이상	
	수도하수	0.7	0.8	1.2	0.7	1.4	0.7
	건설업	8.1	9.6	11.0	13.0	13.0	5.1
	도소매업	10.6	11.2	10.1	7.9	6.9	5.6
	운수창고	4.0	3.6	4.8	6.1	5.4	3.2
	숙박·음식	6.4	4.2	5.1	7.2	7.4	2.9
	정보·통신	3.8	4.0	2.4	1.8	0.6	0.6
	금융·보험	3.7	5.5	3.4	3.6	2.0	1.0
	부동산업	1.8	1.7	2.4	1.6	3.7	4.6
	전문·과학·기술	4.8	4.7	3.1	2.2	3.9	1.8
	사업관리지원업대	6.2	4.2	5.0	6.8	10.7	14.7
	공공행정	5.5	5.6	6.6	5.7	4.6	13.2
	교육서비스	7.2	8.3	7.8	6.8	5.0	3.2
	보건사회복지	11.4	9.7	9.7	10.8	12.3	27.3
	예술·문화·여가	1.6	1.1	1.2	0.8	1.1	1.1
	기타개인서비스	3.3	3.0	3.4	2.9	4.8	3.9
	가구내고용 등	0.5	0.2	0.5	0.7	2.1	2.1
	국제기구	0.1	0.2	0.1	0.2	0.1	0.1
	전체						
	'19년 대비 증감	농림어업	0.0	0.0	-0.2	-0.2	0.1
광업		0.0	0.0	0.0	-0.1	0.1	0.1
제조업		0.0	0.3	-0.6	0.3	-0.4	-0.4
전기·가스·증기		0.0	-0.2	0.2	0.3	-0.2	0.0
수도하수		0.1	0.0	0.7	-0.5	0.5	0.3
건설업		0.2	-0.7	0.2	0.7	-0.7	0.0
도소매업		-0.3	-0.4	-0.7	-0.5	-0.2	0.8
운수창고		0.0	-0.2	-0.4	0.0	-1.6	0.1
숙박·음식		-0.6	-0.6	-1.6	-0.2	-0.4	-0.4
정보·통신		0.0	0.1	-0.3	0.4	-0.1	0.3
금융·보험		0.0	0.2	0.0	0.4	-0.2	-0.1
부동산업		-0.2	-0.4	0.3	-0.9	0.1	-0.7
전문·과학·기술		0.0	0.0	0.0	-0.4	1.5	0.3
사업관리지원업대		0.2	0.1	-0.1	-0.6	-1.0	-0.6
공공행정		0.3	0.9	0.7	0.2	1.0	-1.3
교육서비스		-0.3	0.0	0.6	-0.3	0.9	-0.6
보건사회복지		0.8	0.9	0.7	1.5	0.8	3.3
예술·문화·여가		0.0	0.0	-0.1	0.0	0.0	0.1
기타개인서비스		-0.2	-0.6	0.3	-0.5	-0.1	-0.9
가구내고용 등		0.1	0.1	0.2	0.2	-0.1	-0.1
국제기구	0.0	0.1	0.0	0.1	0.1	0.1	

2020년 8월 산업별 연령별 비중은 제조업은 30대-50대까지 20% 이상을 차지하여 높고, 숙박·음식업은 15-19세 47.4%, 20-24세 24.4%로 나머지 연령보다 비중이 높다. 보건사회복지업은 65세 이상에서 27.3%로 높다.

전년 동기 대비 비중은 산업별로 도소매업(-0.3%p), 숙박·음식업(-0.6%p), 보건사회복지업(0.8%p), 공공행정업(0.4%p)에서 나머지 산업보다 변화가 상대적으로 컸다. 도소매업에서 15-19세와 65세 이상이 각각 2.1%p, 0.8%p 비중이 상승했다. 숙박·음식업 비중은 20-24세가 1.9%p 상승하여 나머지 연령보다 변화폭이 컸다. 보건사회복지업 비중은 65세 이상에서 3.3%p 상승하며 변화폭이 가장 컸다. 공공행정업 비중도 65세 이상에서 13.2%p 상승하여 변화폭이 나머지 연령보다 컸다.

### ⑤ 근로형태별 고용영향

2020년 8월 기준 연령별 근로형태별 임금노동자 수는 정규직은 45-49세가 186만 6천명으로 가장 많고 비정규직은 65세 이상이 132만 5천명으로 가장 많다. 비정규직 유형별로 한시적 근로자도 65세 이상이 102만 3천명으로 가장 많고 시간제도 65세 이상이 89만 2천명으로 가장 많다. 비전형근로자는 55-59세가 32만 3천명으로 많고, 특수형태근로는 45-49세가 8만 9천명으로 가장 많다. 일일근로는 55-59세가 17만 4천명으로 가장 많다. 나머지 파견근로(2만 4천명), 용역근로(16만 9천명), 가정내근로(1만 2천명)는 65세 이상이 가장 많다. 전체 비정규직 742만 6천명 중 65세 이상이 132만 5천명, 17.8%로 비중이 가장 높아 나머지 비정규직 근로형태에서도 65세 이상 노동자 수가 많다.

〈표 4-53〉 연령별 근로형태별 노동자 규모 변화(15세~39세)

(단위: 천명)

구분		전 연령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19.8	임금노동자	20,559	194	1,235	2,320	2,208	2,482
	정규직	13,078	42	556	1,637	1,707	1,873
	비정규직	7,481	151	679	683	502	609
	•한시적 근로자	4,785	69	375	497	355	417
	-기간제	3,799	47	303	386	265	321
	-비기간제	985	21	72	111	90	96
	•시간제	3,156	127	408	225	150	194
	•비전형근로자	2,045	15	66	100	94	137
	-파견근로	182	2	4	14	19	16
	-용역근로	615	3	19	21	13	30
	-특수형태근로	528	0	15	34	27	60
	-일일근로	748	9	26	32	32	36
	-가정내근로	46	1	4	3	4	3
	'20.8	임금노동자	20,446	164	1,182	2,217	2,186
정규직		13,020	25	520	1,596	1,686	1,773
비정규직		7,426	138	662	621	499	523
•한시적 근로자		4,608	56	342	436	327	335
-기간제		3,933	38	263	392	277	279
-비기간제		675	18	78	43	50	56
•시간제		3,252	120	436	193	146	177
•비전형근로자		2,073	14	61	94	117	141
-파견근로		164	1	7	17	17	12
-용역근로		552	1	13	23	19	24
-특수형태근로		498	0	10	23	38	54
-일일근로		896	13	30	29	47	50
-가정내근로		49	0	3	4	4	3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113	-30	-53	-103	-22
	정규직	-58	-17	-36	-41	-21	-100
	비정규직	-55	-13	-17	-62	-3	-86
	•한시적 근로자	-177	-13	-33	-61	-28	-82
	-기간제	134	-9	-40	6	12	-42
	-비기간제	-310	-3	6	-68	-40	-40
	•시간제	96	-7	28	-32	-4	-17
	•비전형근로자	28	-1	-5	-6	23	4
	-파견근로	-18	-1	3	3	-2	-4
	-용역근로	-63	-2	-6	2	6	-6
	-특수형태근로	-30	0	-5	-11	11	-6
	-일일근로	148	4	4	-3	15	14
	-가정내근로	3	-1	-1	1	0	0

주: 1)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0.8.

〈표 4-54〉 연령별 근로형태별 노동자 규모 변화(40세~65세 이상)

(단위: 천명)

구분		전 연령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이상
'19.8	임금노동자	20,559	2,384	2,594	2,378	2,057	1,288	1,418
	정규직	13,078	1,747	1,886	1,617	1,244	530	238
	비정규직	7,481	638	708	761	813	758	1,180
	•한시적 근로자	4,785	379	420	443	461	468	902
	-기간제	3,799	278	306	328	359	374	832
	-비기간제	985	101	114	115	101	93	70
	•시간제	3,156	240	242	252	263	283	771
	•비전형근로자	2,045	198	237	258	328	288	324
	-파견근로	182	17	21	19	25	19	26
	-용역근로	615	43	47	53	100	111	175
	-특수형태근로	528	77	85	86	72	42	30
	-일일근로	748	62	91	100	148	120	91
	-가정내근로	46	7	5	4	2	1	12
	'20.8	임금노동자	20,446	2,347	2,553	2,413	2,088	1,399
정규직		13,020	1,725	1,866	1,655	1,303	592	278
비정규직		7,426	622	686	757	785	807	1,325
•한시적 근로자		4,608	391	393	409	417	479	1,023
-기간제		3,933	332	324	328	335	406	958
-비기간제		675	59	69	81	81	72	66
•시간제		3,252	206	217	265	285	314	892
•비전형근로자		2,073	163	237	281	323	322	321
-파견근로		164	16	12	23	13	23	24
-용역근로		552	30	40	41	79	114	169
-특수형태근로		498	64	89	77	66	42	34
-일일근로		896	57	100	151	174	153	93
-가정내근로		49	3	5	6	5	5	12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113	-37	-41	35	31	111
	정규직	-58	-22	-20	38	59	62	40
	비정규직	-55	-16	-22	-4	-28	49	145
	•한시적 근로자	-177	12	-27	-34	-44	11	121
	-기간제	134	54	18	0	-24	32	126
	-비기간제	-310	-42	-45	-34	-20	-21	-4
	•시간제	96	-34	-25	13	22	31	121
	•비전형근로자	28	-35	0	23	-5	34	-3
	-파견근로	-18	-1	-9	4	-12	4	-2
	-용역근로	-63	-13	-7	-12	-21	3	-6
	-특수형태근로	-30	-13	4	-9	-6	0	4
	-일일근로	148	-5	9	51	26	33	2
	-가정내근로	3	-4	0	2	3	4	0

〈표 4-55〉 연령별 근로형태별 노동자 분포 변화(15세~39세)

(단위: %)

구분	전연령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2019.8	임금노동자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63.6	21.9	45.0	70.6	77.3
	비정규직	36.4	78.1	55.0	29.4	22.7
	•한시적 근로자	23.3	35.4	30.3	21.4	16.1
	-기간제	18.5	24.3	24.5	16.6	12.0
	-비기간제	4.8	11.1	5.8	4.8	4.1
	•시간제	15.4	65.5	33.0	9.7	6.8
	•비전형근로자	9.9	7.6	5.3	4.3	4.3
	-파견근로	0.9	1.0	0.3	0.6	0.8
	-용역근로	3.0	1.8	1.5	0.9	0.6
	-특수형태근로	2.6	0.2	1.2	1.5	1.2
	-일일근로	3.6	4.5	2.1	1.4	1.5
	-가정내근로	0.2	0.5	0.4	0.1	0.2
2020.8	임금노동자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63.7	15.5	44.0	72.0	77.2
	비정규직	36.3	84.5	56.0	28.0	22.8
	•한시적 근로자	22.5	34.3	28.9	19.7	14.9
	-기간제	19.2	23.2	22.3	17.7	12.7
	-비기간제	3.3	11.1	6.6	2.0	2.3
	•시간제	15.9	73.5	36.9	8.7	6.7
	•비전형근로자	10.1	8.3	5.2	4.2	5.4
	-파견근로	0.8	0.5	0.6	0.8	0.8
	-용역근로	2.7	0.4	1.1	1.0	0.9
	-특수형태근로	2.4	0.0	0.9	1.0	1.8
	-일일근로	4.4	7.8	2.5	1.3	2.2
	-가정내근로	0.2	0.0	0.2	0.2	0.2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0.0	0.0	0.0	0.0	0.0
	정규직	0.1	-6.4	-1.1	1.4	-0.1
	비정규직	-0.1	6.4	1.1	-1.4	0.1
	•한시적 근로자	-0.7	-1.1	-1.4	-1.8	-1.1
	-기간제	0.8	-1.2	-2.2	1.1	0.7
	-비기간제	-1.5	0.0	0.8	-2.8	-1.8
	•시간제	0.6	7.9	3.9	-1.0	-0.1
	•비전형근로자	0.2	0.6	-0.1	-0.1	1.1
	-파견근로	-0.1	-0.5	0.3	0.2	-0.1
	-용역근로	-0.3	-1.3	-0.4	0.1	0.3
	-특수형태근로	-0.1	-0.2	-0.4	-0.4	0.5
	-일일근로	0.7	3.3	0.4	-0.1	0.7
	-가정내근로	0.0	-0.5	-0.1	0.0	0.0

주: 1) 비정규직 전체 규모와 구성비는 근로형태별 비정규직(한시적 근로, 시간제, 비전형 근로)의 중복 인원을 제외한 순계로 유형별 규모 및 구성비의 합계와 불일치함.

2) 비전형 근로자 전체 규모 및 구성비는 일부 중복되는 각 유형별 근로자를 제외한 순계로, 각 유형별 근로자 규모 및 비중의 합계와 불일치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0.8.



〈표 4-56〉 연령별 근로형태별 노동자 분포 변화(40세~65세 이상)

(단위: %)

구분		전연령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이상
'19.8	임금노동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63.6	73.3	72.7	68.0	60.5	41.2	16.8
	비정규직	36.4	26.7	27.3	32.0	39.5	58.8	83.2
	●한시적 근로자	23.3	15.9	16.2	18.6	22.4	36.3	63.6
	-기간제	18.5	11.7	11.8	13.8	17.5	29.0	58.7
	-비기간제	4.8	4.2	4.4	4.8	4.9	7.2	4.9
	●시간제	15.4	10.1	9.3	10.6	12.8	22.0	54.4
	●비전형근로자	9.9	8.3	9.1	10.8	16.0	22.4	22.9
	-파견근로	0.9	0.7	0.8	0.8	1.2	1.5	1.8
	-용역근로	3.0	1.8	1.8	2.2	4.9	8.7	12.3
	-특수형태근로	2.6	3.2	3.3	3.6	3.5	3.2	2.2
	-일일근로	3.6	2.6	3.5	4.2	7.2	9.3	6.4
	-가정내근로	0.2	0.3	0.2	0.2	0.1	0.1	0.8
'20.8	임금노동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63.7	73.5	73.1	68.6	62.4	42.3	17.3
	비정규직	36.3	26.5	26.9	31.4	37.6	57.7	82.7
	●한시적 근로자	22.5	16.7	15.4	16.9	20.0	34.2	63.9
	-기간제	19.2	14.2	12.7	13.6	16.1	29.0	59.7
	-비기간제	3.3	2.5	2.7	3.4	3.9	5.2	4.1
	●시간제	15.9	8.8	8.5	11.0	13.7	22.4	55.6
	●비전형근로자	10.1	6.9	9.3	11.6	15.4	23.0	20.1
	-파견근로	0.8	0.7	0.5	1.0	0.6	1.6	1.5
	-용역근로	2.7	1.3	1.6	1.7	3.8	8.1	10.5
	-특수형태근로	2.4	2.7	3.5	3.2	3.2	3.0	2.1
	-일일근로	4.4	2.4	3.9	6.3	8.3	10.9	5.8
	-가정내근로	0.2	0.1	0.2	0.2	0.2	0.4	0.8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0.0	0.0	0.0	0.0	0.0	0.0	0.0
	정규직	0.1	0.3	0.4	0.6	1.9	1.2	0.5
	비정규직	-0.1	-0.3	-0.4	-0.6	-1.9	-1.2	-0.5
	●한시적 근로자	-0.7	0.8	-0.8	-1.7	-2.4	-2.1	0.2
	-기간제	0.8	2.5	0.9	-0.2	-1.4	0.0	1.0
	-비기간제	-1.5	-1.7	-1.7	-1.5	-1.0	-2.1	-0.8
	●시간제	0.6	-1.3	-0.8	0.4	0.9	0.4	1.3
	●비전형근로자	0.2	-1.4	0.2	0.8	-0.5	0.6	-2.8
	-파견근로	-0.1	0.0	-0.3	0.2	-0.6	0.1	-0.3
	-용역근로	-0.3	-0.5	-0.2	-0.5	-1.1	-0.5	-1.8
	-특수형태근로	-0.1	-0.5	0.2	-0.4	-0.3	-0.3	0.0
	-일일근로	0.7	-0.2	0.4	2.0	1.1	1.6	-0.6
	-가정내근로	0.0	-0.2	0.0	0.0	0.1	0.3	0.0

전년 동기 대비 연령별 근로형태별 노동자 수 변화를 보면 15-19세, 20-24세, 30-34세, 35-39세, 40-44세는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더 많이 감소했다. 특히, 35-39세에서 비정규직은 8만 6천명 감소한 반면 정규직은 10만명 감소하여 정규직이 1만 4천명 더 감소했다. 25-29세와 45-49세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이 감소했다. 정규직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연령도 있는데 55-59세(5만 9천명), 60-64세 (6만 2천명), 65세 이상(4만 명)이다. 60-64세(4만 9천명)와 65세 이상(14만 5천명)은 비정규직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는데 65세 이상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3배 이상 많이 증가하였다. 65세 이상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18만 5천명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비정규직이 14만 5천명으로 65세 이상 노동자 수 증가를 주도하였다. 비정규직 유형별로도 65세 이상은 전년 동기 대비 한시적 근로자 12만 1천 명, 시간제 12만 1천명으로 10만명 이상 증가했다.

2020년 8월 연령별 근로형태별 노동자 수 비중은 15-24세와 60세 이상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나머지 25-59세 연령구간은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비중이 높다. 비정규직은 15-19세가 84.5%로 가장 높고 정규직은 30대가 77.2%로 가장 높다. 비정규직 유형별로는 한시적 근로자 비중은 15-19세 34.3%에서 35-39세 14.6%까지 하락하다 40대부터 다시 상승하여 65세 이상에서 63.9%로 가장 높다. 시간제와 비전형 근로자들은 40대를 전후로 40대 이후는 40대 이전보다 비중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8월 65세 이상이 132만 5천명으로 가장 많다. 연령별 비정규직 비율도 65세 이상이 82.7%로 15-19세 84.5%와 함께 80%를 초과하고 있다. 30대는 비정규직 비율이 22.8%로 가장 낮다.

〈표 4-57〉 연령별 비정규직 노동자 수 변화

(단위: 천명, %, %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8		2020.8		전년 동기 대비 차	
	규모	비정규직 비율	규모	비정규직 비율	규모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전체	7,481	36.4	7,426	36.3	-55	-0.1
15-19세	151	78.1	138	84.5	-13	6.4
20-24세	679	55.0	662	56.0	-17	1.1
25-29세	683	29.4	621	28.0	-62	-1.4
30-34세	502	22.7	499	22.8	-3	0.1
35-39세	609	24.5	523	22.8	-86	-1.8
40-44세	638	26.7	622	26.5	-16	-0.3
45-49세	708	27.3	686	26.9	-22	-0.4
50-54세	761	32.0	757	31.4	-4	-0.6
55-59세	813	39.5	785	37.6	-28	-1.9
60-64세	758	58.8	807	57.7	49	-1.2
65세 이상	1,180	83.2	1,325	82.7	145	-0.5

주: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전년 동기 대비 연령별 비정규직 변화를 살펴보면, 15-59세까지 5세 연령 구간별로 감소하였고, 60세 이상에서 19만 4천명이 증가하였다. 연령별 비정규직 비중 변화를 보면 15-19세(6.4%p), 20-24세(1.1%p), 30-34세(0.1%p)에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고 나머지 연령 구간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하락하였다. 55-59세는 전년 동기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1.9%p로 가장 크게 하락하였다.

## ⑥ 고용안정성

2020년 8월 연령별로 고용안정성이 있는 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35-39세가 92.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34세 91.8%, 40-44세 91.7%,

45-49세 89.8%, 25-29세 89.5%, 55-59세 83%로 고용안정성이 있는 근로자 비중이 80% 이상이다. 나머지 연령 구간에서는 20-24세와 60-64세가 각각 74.4%, 73%이고 15-19세와 65세이상은 각각 53.5%, 47.3%로 65세 이상에서는 고용안정성이 있는 근로자 비율이 50%가 안 된다. 전년 동기 대비 고용안정성이 있는 근로자 비중은 25-29세(0.6%p), 40-44세(0.4%p), 45-49세(0.4%p), 60-64세(0.3%p)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 구간에서 하락하였다.

최근 5년간 연령별로 고용안정성 있는 근로자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30-34세가 유일하게 5년 기간 동안 반등 없이 하락 추세이다.

〈표 4-58〉 연령별 고용안정성있는 근로자 비중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입급노동자	85.4	86.4	86.1	84.5	83.7	-0.8
15-19세	62.5	65.8	64.0	59.6	53.5	-6.2
20-24세	78.3	81.0	78.0	74.4	74.4	-0.1
25-29세	91.3	91.6	90.5	88.9	89.5	0.6
30-34세	94.1	93.7	93.7	92.3	91.8	-0.5
35-39세	93.1	93.4	94.6	93.4	92.3	-1.1
40-44세	91.4	91.7	92.2	91.4	91.7	0.4
45-49세	88.9	89.7	89.8	89.4	89.8	0.4
50-54세	85.2	86.7	87.7	87.8	86.1	-1.7
55-59세	80.7	84.7	83.6	83.4	83.0	-0.4
60-64세	71.7	73.8	74.9	72.7	73.0	0.3
65세 이상	53.0	54.2	51.6	48.1	47.3	-0.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2. 연령별 임금수준 변화

### 1) 연령별 임금수준

#### ① 월평균임금

2020년 6-8월 3개월 평균 임금노동자 연령별 임금 수준은 45-49세가 325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44세가 318만 1천원으로 높았다. 35-59세까지 연령대는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을 보였다. 15-19세가 86만 7천원으로 가장 적었고 20-24세 153만 2천원, 65세 이상 118만 8천 원으로 나머지 연령대는 월 평균 임금이 200만원 대 수준이다.

〈표 4-59〉 연령별 월평균 임금수준 변화(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만원,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19.6-8월 평균	'20.6-8월 평균	증감	증감률
임금노동자	264.3	268.1	3.8	1.4
15-19세	104.3	86.7	-17.6	-16.9
20-24세	155.7	153.2	-2.5	-1.6
25-29세	221.7	233.3	11.6	5.2
30-34세	272.8	278.8	5.9	2.2
35-39세	305.0	306.3	1.4	0.4
40-44세	309.9	318.1	8.2	2.6
45-49세	318.6	325.0	6.4	2.0
50-54세	310.4	312.5	2.0	0.6
55-59세	288.1	300.0	11.9	4.1
60-64세	222.5	221.2	-1.4	-0.6
65세 이상	115.3	118.8	3.5	3.0

주: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전년 동기 대비 월 평균 임금 증감은 24세 이하와 60-64세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였다. 금액 기준으로는 55-59세와 25-29세가 각각 11만 9천원, 11만 6천원으로 11만원 이상 많이 상승했고 증가율도 25-29세 5.2%, 55-59세 4.1%로 컸다. 반면, 15-19세는 전년 동기 대비 17만 6천원이 하락하였고, 감소율이 -16.9%로 20-24세 -1.6%, 60-64세 -0.6% 보다 컸다.

15-19세의 가장 큰 임금 하락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음식점의 자영업 경기 악화가 단시간 노동 비중이 높은 15-19세의 근로시간과 일자리 감소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60〉 연령별 시간당 임금수준 변화(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원,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19.6-8월 평균	'20.6-8월 평균	증감	증감률
임금노동자	15,274	15,627	353	2.3
15-19세	9,628	8,668	-960	-10.0
20-24세	10,225	10,261	36	0.4
25-29세	12,606	13,335	729	5.8
30-34세	15,286	15,724	438	2.9
35-39세	17,200	17,283	83	0.5
40-44세	17,594	18,147	553	3.1
45-49세	17,885	18,419	534	3.0
50-54세	17,448	17,745	298	1.7
55-59세	16,299	17,202	903	5.5
60-64세	13,419	13,295	-124	-0.9
65세 이상	9,291	9,614	323	3.5

주: 1)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2)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연령별 시간당 임금 수준은 45-19세가 18,147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44세가 18,147원으로 40대는 유일하게 시간당 임금이

18,000원을 상회하였다. 40대 다음으로는 50-54세 17,745원, 35-39세 17,283원, 55-59세 17,202원으로 35-59세까지는 시간당 임금이 나머지 연령대에 비해서 천원 이상 많다. 15-19세는 8,668원으로 가장 적고 다음으로 65세 이상이 9,614원, 20-24세가 10,261원 순서로 적었다. 15-19세의 시간당 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 8,590원과 비교하여 불과 78원 많은 수준이다.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시간당 임금 증감은 월 평균 임금과 동일하게 55-59세가 903원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다음으로 25-29세가 729원으로 많이 상승하였다. 반면 15-19세는 960원이 하락하여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60-64세도 124원 감소하였는데, 시간당 임금이 감소한 연령은 15-19세와 60-64세 뿐이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에서는 월 평균 임금과 동일하게 25-29세가 5.8%로 상승률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55-59세도 5.5% 상승하여 나머지 연령과 다르게 5% 이상 상승하였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기초하여 2020년 6월 기준 임금노동자 평균 정액급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316만 4천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대가 295만 4천원, 30대 283만 9천원, 60세 이상 226만 2천원, 29세 이하 195만 1천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은 40대가 11만 2천원 상승하여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다음으로 60세 이상이 10만 2천원 상승하였다. 30대와 50대는 각각 7만 2천원, 7만 1천원이 상승하였고, 29세 이하는 1만 7천원으로 30대 이상 보다 5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증감률에서도 29세 이하는 0.9% 상승으로 상승폭이 가장 작았고 60세 이상은 4.7%로 가장 컸다(〈부표 4-9〉 참조).

2020년 6월 기준 임금노동자 연령별 평균 시간당 임금 수준은 40대가 19,659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대가 18,959원, 30대 17,403원, 60세

이상 15,765원, 29세 이하 12,912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을 보면, 시간당 임금은 전 연령에서 하락하였는데 특히 30대가 1,390원(-7.4%)으로 금액과 하락률 기준으로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다음으로는 40대 1,186원, 50대 1,042원, 29세 이하 906원, 60세 이상 354원으로 30-50대 연령은 시간당 임금이 천원 이상 하락하였다(〈부표 4-10〉 참조).

## 2) 연령별 임금격차와 저임금 비율

### ① 임금격차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 기초하여 2020년 월 평균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45-49세 임금 대비 나머지 연령의 임금 비율을 보면 40-44세가 97.9%로 격차가 가장 적고 15-19세가 26.7%로 격차가 가장 크다. 45-49세가 100만원 받을 때 15-19세는 26만 7천원을 받는 셈이다. 15-19세 다음으로는 65세 이상이 45-49세 임금 대비 36.6%로 두 번째로 격차가 컸다.

최근 5년간 연령간 월 평균 임금 격차 추이를 보면 15-19세는 2016년 28.6%에서 2017년 30.4%로 30%까지 격차가 1.8%p 좁혀졌다. 이후 2019년 32.8%까지 높아지다 2020년 26.7%로 전년 동기 대비 6.1%p 격차가 확대되었다. 15-19세는 최근 5년 중 2020년 45-49세와 임금 격차가 가장 컸다. 15-19세와 함께 45-49세 대비 임금비율이 낮은 65세 이상의 최근 5년간 격차 추이는 2016년 35.6%에서 2018년 38.3%까지 격차가 축소되었는데 2019년 36.6%로 다시 확대되었다. 2020년은 전년 동기 대비 0.4%p 45-49세 대비 격차 축소되었다. 45-49세는 2016년을 제외하고 2017-2020년까지 5세 구간 연령별 월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연령이다.



〈표 4-61〉 연도별 연령별 월 평균 임금 및 격차(45-49세=100)

(단위: 만원, %)

구분	금액					격차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임금노동자	237.2	243.0	255.8	264.3	268.1	83.8	84.1	84.5	83.0	82.5
15-19세	81.1	87.9	91.6	104.3	86.7	28.6	30.4	30.3	32.8	26.7
20-24세	139.9	143.5	148.0	155.7	153.2	49.4	49.7	48.9	48.9	47.1
25-29세	201.2	204.6	216.7	221.7	233.3	71.0	70.8	71.6	69.6	71.8
30-34세	248.2	260.8	263.9	272.8	278.8	87.6	90.2	87.2	85.6	85.8
35-39세	276.3	281.4	293.2	305.0	306.3	97.5	97.4	96.8	95.7	94.3
40-44세	283.9	283.7	299.1	309.9	318.1	100.3	98.2	98.8	97.3	97.9
45-49세	283.2	289.0	302.8	318.6	325.0	100.0	100.0	100.0	100.0	100.0
50-54세	279.9	283.9	295.4	310.4	312.5	98.8	98.2	97.6	97.4	96.1
55-59세	247.1	256.5	283.2	288.1	300.0	87.3	88.8	93.5	90.4	92.3
60-64세	174.8	187.4	211.5	222.5	221.2	61.7	64.8	69.9	69.8	68.1
65세 이상	100.7	107.5	115.9	115.3	118.8	35.6	37.2	38.3	36.2	36.6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남성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여성의 상대임금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 기초하여 2020년 시간당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45-49세 임금 대비 나머지 연령의 임금 비율을 보면 40-44세가 98.9%로 격차가 가장 적고 15-19세가 47.1%로 격차가 가장 크다. 45-49세가 만원 받을 때 15-19세는 4,710원을 받는 셈이다. 15-19세 다음으로는 65세 이상이 45-49세 임금 대비 52.2%로 두 번째로 격차가 컸다. 확인한 바와 같이 15-19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45-49세 대비 시간당 임금 비율이 50%를 상회한다.

최근 5년간 연령간 시간당 임금 격차를 45-49세 대비 임금 비율로 살펴보면, 15-19세는 2016년 43%에서 2017년 49.3%까지 좁혀지다 2018년 46.8%로 확대, 2019년 53.8%까지 축소되다 2020년 다시 47.1%로 50% 미만으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15-19세와 함께 45-49세 대비 임금비율이 낮은

65세 이상의 최근 5년간 격차 추이는 2016년 47.8%, 2017년 47.3%에서 2018년 52.7%로 격차가 축소되었다. 이후 2019년 51.9%로 전년 동기 대비 0.8%p 격차가 확대되었다가 2020년 52.2%로 전년 동기 대비 0.3%p 격차가 축소되었다.

〈표 4-62〉 연도별 연령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45-49세=100)

(단위: 원, %)

구분	금액					격차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임금노동자	13,486	13,754	14,607	15,274	15,627	85.7	85.4	86.8	85.4	84.8
15-19세	6,765	7,946	7,888	9,628	8,668	43.0	49.3	46.8	53.8	47.1
20-24세	8,498	8,979	9,419	10,225	10,261	54.0	55.7	55.9	57.2	55.7
25-29세	11,186	11,395	12,198	12,606	13,335	71.1	70.7	72.4	70.5	72.4
30-34세	13,778	14,471	14,658	15,286	15,724	87.6	89.8	87.1	85.5	85.4
35-39세	15,547	15,699	16,465	17,200	17,283	98.8	97.5	97.8	96.2	93.8
40-44세	15,971	15,834	16,708	17,594	18,147	101.5	98.3	99.2	98.4	98.5
45-49세	15,736	16,110	16,837	17,885	18,419	100.0	100.0	100.0	100.0	100.0
50-54세	15,682	15,719	16,601	17,448	17,745	99.7	97.6	98.6	97.6	96.3
55-59세	13,875	14,426	15,975	16,299	17,202	88.2	89.5	94.9	91.1	93.4
60-64세	10,470	10,735	12,479	13,419	13,295	66.5	66.6	74.1	75.0	72.2
65세 이상	7,519	7,624	8,869	9,291	9,614	47.8	47.3	52.7	51.9	52.2

주: 1)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2)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3) 남성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여성의 상대임금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기초하여 2020년 6월 기준 정액급여의 연령별 격차를 정액급여 수준이 가장 높은 40대를 100으로 보고 분석한 결과, 29세 이하가 61.7%로 격차가 가장 크고 50대가 93.4%로 격차가 가장 적었다. 29세 이하 다음으로 40대와 임금 격차가 큰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40대 대비 월 정액급여 임금비율이 71.5%이다. 최근 5년간 40대 대

비 나머지 연령대 임금비를 격차가 큰 29세 이하와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9세 이하는 2019년까지 격차가 좁혀지다 2020년 다시 전년 동기 대비 0.8%p 확대되었다. 60세 이상은 2016년 67.5%에서 매년 격차가 축소되어 2020년은 40대 대비 임금비가 71.5%까지 올라왔다. 2020년 40대 대비 임금 격차는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29세 이하와 30대, 50대가 2019년 보다 모두 격차가 확대되었다(〈부표 4-11〉 참조).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기초하여 2020년 6월 기준 시간당 임금의 연령별 격차를 시간당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40대를 100으로 보고 살펴본 결과, 29세 이하가 65.7%로 격차가 가장 크고 50대가 96.4%로 격차가 가장 적었다. 29세 이하 다음으로 40대와 임금 격차가 큰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40대 대비 80.2%이다. 최근 5년간 40대 대비 임금 격차가 큰 29세 이하와 60세 이상으로 보면 29세 이하는 2019년까지 격차가 좁혀지다 2020년 다시 전년 동기 대비 0.6%p 확대되었다. 60세 이상은 2016년 73%에서 매년 격차가 축소되어 2020년은 40대 대비 임금비가 처음으로 80.2%로 80%를 넘었다.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40대 대비 임금 격차는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29세 이하와 30대, 50대가 모두 2019년에 비해 격차가 확대되었다(〈부표 4-12〉 참조).

## ② 저임금 및 고임금 노동자 비율

2020년 연령별로 월 평균 임금수준별 임금노동자 규모를 보면, 저임금은 65세 이상이 109만 3천명으로 가장 많고, 중간임금은 25-29세가 178만 9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임금은 45-49세가 84만 2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동기 대비 규모 변화는 저임금에서 65세 이상이 10만 7천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여 65세 이상 임금노동자 증가가 저임금 집단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간임금은 40-44세가 11만 2천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고임금은 모든 연령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가운데 35-39세가 17만 2천명으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2020년 연령별로 월 평균 임금수준별 임금노동자 비중을 보면 저임금 비중은 15-19세가 80.1%로 가장 높고 30대가 9.3%로 가장 낮았다. 중간임금 비중은 25-29세가 80.7%로 가장 높고 15-19세가 19.9%로 가장 낮았다. 고임금 비중은 45-49세가 33%로 가장 높고 15-19세가 0%로 가장 낮았다. 15-19세 외에 20-24세와 65세 이상도 고임금 비중이 각각 0.6%, 2.5%로 전체 고임금 비중 20.7%의 1/10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이다.

〈표 4-63〉 연령별 임금수준별 노동자 규모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천명)

구분	2019			2020			증감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임금노동자	4,438	11,383	4,738	4,339	11,873	4,234	-99	490	-505
15-19세	150	40	4	131	33	0	-19	-7	-4
20-24세	504	715	15	522	652	8	18	-63	-7
25-29세	333	1,834	153	279	1,789	149	-54	-45	-4
30-34세	223	1,509	477	203	1,580	402	-20	71	-75
35-39세	227	1,446	810	214	1,444	638	-13	-2	-172
40-44세	314	1,236	834	264	1,348	735	-50	112	-99
45-49세	371	1,309	914	319	1,392	842	-52	83	-72
50-54세	405	1,196	777	411	1,279	723	6	83	-54
55-59세	473	1,034	550	427	1,117	544	-46	83	-6
60-64세	453	676	160	474	773	153	21	97	-7
65세 이상	986	386	45	1,093	471	40	107	85	-5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위임금의 2/3 수준 이상~3/2 수준 미만, 고임금은 중위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연령별로 임금수준별 비중 변화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저임금 비중이 상승한 연령은 15-19세(2.5%), 20-24세(3.4%), 35-39세(0.2%)이고 나머지 연령은 저임금 비중이 하락하였다. 중간임금은 15-19세(-0.6%)와 20-24세(-2.8%)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 모두에서 비중이 상승하였고, 이중 40-44세가 5.6%p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고임금은 25-29세가 2019년 대비 0.1%p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비중이 하락하였다. 특히, 35-39세가 4.8%p로 고임금 비중 하락폭이 가장 컸다.

〈표 4-64〉 연령별 임금수준별 노동자 비중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

구분	2019			2020			증감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임금노동자	21.6	55.4	23.0	21.2	58.1	20.7	-0.4	2.7	-2.3
15-19세	77.6	20.5	1.9	80.1	19.9	0.0	2.5	-0.6	-1.9
20-24세	40.8	57.9	1.3	44.2	55.2	0.6	3.4	-2.8	-0.6
25-29세	14.3	79.1	6.6	12.6	80.7	6.7	-1.8	1.6	0.1
30-34세	10.1	68.3	21.6	9.3	72.3	18.4	-0.8	3.9	-3.2
35-39세	9.1	58.3	32.6	9.3	62.9	27.8	0.2	4.6	-4.8
40-44세	13.2	51.8	35.0	11.3	57.4	31.3	-1.9	5.6	-3.7
45-49세	14.3	50.4	35.2	12.5	54.5	33.0	-1.8	4.1	-2.3
50-54세	17.0	50.3	32.7	17.0	53.0	30.0	0.0	2.7	-2.7
55-59세	23.0	50.3	26.7	20.4	53.5	26.1	-2.5	3.2	-0.7
60-64세	35.1	52.5	12.4	33.8	55.2	10.9	-1.3	2.8	-1.5
65세 이상	69.6	27.2	3.2	68.1	29.4	2.5	-1.4	2.2	-0.7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위임금의 2/3 수준 이상~3/2 수준 미만, 고임금은 중위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연령별로 시간당 임금수준별 임금노동자 규모를 살펴보면, 저임금은 65세 이상이 90만 9천명으로 가장 많고 중간임금은 25-29세가 173만 9

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임금은 45-49세가 90만 8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동기 대비 규모 변화는 저임금은 65세 이상이 7만 8천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중간임금은 25-29세가 4만 8천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고임금은 35-39세가 10만 5천명으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고임금 노동자가 증가한 연령은 25-29세, 55-59세, 60-64세의 세 집단이다.

〈표 4-65〉 연령별 임금수준별 노동자 규모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천명)

구분	2019			2020			증감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임금노동자	3,242	12,492	4,824	3,550	12,172	4,723	308	-320	-101
15-19세	102	86	4	95	67	1	10	-2	-3
20-24세	362	844	26	423	734	26	34	-22	0
25-29세	263	1,881	183	270	1,739	207	25	-48	24
30-34세	151	1,570	496	186	1,528	472	14	-40	-24
35-39세	139	1,552	799	164	1,438	694	13	-40	-105
40-44세	190	1,356	843	205	1,326	815	18	-35	-28
45-49세	251	1,438	910	247	1,397	908	24	-37	-2
50-54세	314	1,288	775	335	1,318	760	30	-33	-15
55-59세	343	1,168	544	350	1,149	589	33	-30	45
60-64세	307	807	170	366	854	179	29	-21	9
65세 이상	820	502	74	909	622	71	78	-13	-3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간은 중위임금의 2/3 수준 이상~3/2 수준 미만, 고임금은 중위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연령별로 시간당 임금수준별 임금노동자 비중을 살펴보면, 저임금은 15-19세가 58.3%로 가장 높고 30대가 7.1%로 가장 낮았다. 중간임금 비중은 25-29세가 78.5%로 가장 높고 65세 이상이 38.8%로 가장 낮았다. 고

임금 비중은 45-49세가 35.6%로 가장 높고 15-19세가 0.5%로 가장 낮았다. 15-19세 외에 20-24세와 65세 이상도 고임금 비중이 각각 2.2%, 4.4%로 전체 고임금 비중 23.7% 보다 21.5%p, 19.2%p 낮다.

전년 동기 대비 비중 변화는 저임금은 25-29세가 6.5%p 상승하여 상승폭이 가장 컸다. 중간임금도 25-29세가 -6.2%p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고임금은 35-39세가 -2.4%p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표 4-66〉 연령별 임금수준별 노동자 비중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 %포인트)

구분	2019			2020			증감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임금노동자	15.8	60.8	23.5	17.4	59.5	23.1	1.6	-1.3	-0.4
15-19세	52.5	44.2	2.1	58.3	41.1	0.5	5.8	-3.1	-1.6
20-24세	29.3	68.3	1.2	35.8	62.1	2.2	6.5	-6.2	1.0
25-29세	11.3	81.1	6.6	12.2	78.5	9.4	0.9	-2.6	2.8
30-34세	6.8	71.1	21.6	8.5	69.9	21.6	1.7	-1.2	0.0
35-39세	5.6	62.5	32.6	7.1	62.6	30.2	1.5	0.1	-2.4
40-44세	8.0	56.9	35.0	8.7	56.5	34.7	0.7	-0.4	-0.3
45-49세	9.7	55.4	35.2	9.7	54.7	35.6	0.0	-0.7	0.4
50-54세	13.2	54.2	32.7	13.9	54.6	31.5	0.7	0.4	-1.2
55-59세	16.7	56.8	26.7	16.8	55.0	28.2	0.1	-1.8	1.5
60-64세	23.9	62.7	12.4	26.2	61.0	12.8	2.3	-1.7	0.4
65세 이상	57.8	35.4	3.2	56.7	38.8	4.4	-1.1	3.4	1.2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간은 중위임금의 2/3 수준 이상~3/2 수준 미만, 고임금은 중위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최근 5년간 월 평균 임금 기준 저임금 노동자는 2016년-2020년까지 65세 이상이 가장 많은데 규모는 2016년 80만 8천명에서 2018년 8만명 미만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 98만 6천명, 2020년 109만 3천명까지 증가했다. 2019년 대비 2020년 저임금 노동자 규모가 증가한 연령은 20-24세 1만 8천명, 50-54세 6천명, 60-64세 2만 2천명, 65세 이상 10만 7천명이다.

〈표 4-67〉 연도별 연령별 저임금노동자 규모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천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규모	비율
임금노동자	4,699	4,204	3,591	4,438	4,339	-99	-2.2
15-19세	205	191	142	150	131	-19	-12.6
20-24세	591	559	448	504	522	18	3.6
25-29세	284	286	256	333	279	-54	-16.2
30-34세	240	176	144	223	203	-20	-8.9
35-39세	283	239	213	227	214	-13	-5.7
40-44세	403	305	239	314	264	-50	-15.9
45-49세	447	373	301	371	319	-52	-14.0
50-54세	465	399	329	405	411	6	1.6
55-59세	525	457	392	473	427	-46	-9.7
60-64세	448	412	363	453	474	21	4.7
65세 이상	808	808	763	986	1,093	107	10.8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최근 5년간 월 평균 임금 기준 연령별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5-19세는 70% 내외로 15-19세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저임금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5-19세 다음으로 저임금 비중이 높은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2016년 57%에서 2017년 68.5%로 상승한 이후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저임금 비중이 가장 낮은 연령은 30-34세로 2016년 10.8%에서 2018년 6.6%까지 하락하다 2019년 10.1%, 2020년 9.3%가 되었다.



연령별 저임금 노동자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15-19세(2.3%p), 20-24세(3.4%p), 35-39세(0.2%p)를 제외하고 하락하였다.

〈표 4-68〉 연도별 연령별 저임금노동자 비중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23.8	21.0	17.9	21.6	21.2	-0.4
15-19세	78.2	78.2	69.7	77.6	79.9	2.3
20-24세	47.8	41.8	36.7	40.8	44.2	3.4
25-29세	13.6	13.3	11.3	14.3	12.6	-1.7
30-34세	10.8	7.8	6.6	10.1	9.3	-0.8
35-39세	11.4	9.6	8.4	9.1	9.3	0.2
40-44세	16.1	12.6	10.2	13.2	11.3	-1.9
45-49세	17.2	14.2	11.4	14.3	12.5	-1.8
50-54세	19.5	17.9	14.7	17.0	17.0	0
55-59세	28.1	23.1	19.5	23.0	20.5	-2.5
60-64세	34.8	37.9	30.7	35.1	33.9	-1.2
65세 이상	57.0	68.5	61.2	69.6	68.2	-1.4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최근 5년간 시간당 임금 기준 연령별 저임금노동자 수는 15-19세가 20만 명 미만으로 가장 적고 65세 이상이 60만 이상으로 가장 많다. 15-19세에서 저임금 노동자 규모는 2016년 18만 2천명, 2017년 17만명, 2018년 12만 6천명, 2019년 10만 2천명에서 2020년 9만 5천명까지 감소하였다. 반면, 64세 이상은 2016년 77만 1천명에서 2018년 67만 3천명까지 감소하다 2018년 82만명, 2020년 90만 9천명까지 증가하였다.

15-19세와 65세 이상은 월 평균 임금으로도 저임금 노동자 규모가 큰 연

령인테 15-19세는 최근 5년간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5세 이상과 추이가 다르다.

〈표 4-69〉 연도별 연령별 저임금노동자 규모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규모					'19년 대비 증감	
	'16	'17	'18	'19	'20	규모	비율
임금노동자	4,589	4,282	3,150	3,242	3,550	308	9.5
15-19세	182	170	126	102	95	-7	-6.6
20-24세	578	525	343	362	423	61	17.0
25-29세	351	334	223	263	270	7	2.8
30-34세	222	192	142	151	186	35	23.0
35-39세	254	239	184	139	164	25	18.3
40-44세	342	294	192	190	205	15	7.9
45-49세	441	389	258	251	247	-4	-1.6
50-54세	469	439	297	314	335	21	6.7
55-59세	520	477	363	343	350	7	2.0
60-64세	458	427	348	307	366	59	19.1
65세 이상	771	794	673	820	909	89	10.9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시간당 임금 기준 연령별 저임금 노동자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15-19세는 2016년 93.8%에서 2019년 52.5%까지 하락하다 2020년 58.3%로 다시 상승하였다. 15-19세 다음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은 65세 이상은 2016년 54.4%에서 2018년 47.5%로 50% 미만까지 하락하다 2019년 57.8%으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 2020년 56.7%로 전년 동기 대비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65세 이상은 2020년 저임금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유일한 연령대이다.

〈표 4-70〉 연도별 연령별 저임금노동자 비중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23.3	21.4	15.7	15.8	17.4	1.6
15-19세	93.8	88.0	64.9	52.5	58.3	5.5
20-24세	46.8	42.5	27.8	29.3	35.8	6.5
25-29세	16.8	15.5	9.9	11.3	12.2	0.9
30-34세	10.0	8.7	6.4	6.8	8.5	1.7
35-39세	10.2	9.6	7.4	5.6	7.1	1.6
40-44세	13.7	12.2	8.2	8.0	8.7	0.8
45-49세	17.0	15.0	9.9	9.7	9.7	0.0
50-54세	19.7	18.5	12.5	13.2	13.9	0.7
55-59세	27.8	24.2	18.0	16.7	16.8	0.1
60-64세	35.6	33.2	27.0	23.9	26.2	2.3
65세 이상	54.4	56.0	47.5	57.8	56.7	-1.1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최근 5년간 월 평균 임금 기준 연령별 고임금 노동자 규모는 2016년에 40-44세가 106만 4천명으로 가장 많고 2017년-2020년은 45-49세가 가장 많다. 30-34세는 고임금 노동자 규모가 2016년 100만명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0년은 63만 8천명으로 70만명 미만이 되었다(〈부표 4-13〉 참조).

최근 5년간 월 평균 임금 기준 연령별 고임금 노동자 비중도 2016-2018년까지는 40-44세가 각각 42.5%, 34.7%, 37.4%이고, 2019년과 2020년은 45-49세가 각각 35.2%, 33%로 가장 높다. 최근 5년 동안 고임금 노동자 수가 감소한 30-34세는 비중도 하락하여 2016년 30.8%에서 2020년에 처음으로 20% 미만인 18.4%까지 줄어들었다. 60-64세는 2018년 12.4%로 10%를 초과한 이후 고임금 노동자 중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부표

4-14) 참조).

최근 5년간 시간당 임금 기준 연령별 고임금 노동자 규모는 2016년은 40-44세가 99만 8천명으로 가장 많고, 2017년-2020년은 45-49세가 가장 많다. 45-49세는 2018년 고임금 노동자 규모가 92만 9천명으로 이후 90만 명을 상회하며 나머지 연령보다 고임금 노동자 수가 가장 많다. 2016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49세 이하 연령은 고임금 노동자 규모가 감소하였고 50세 이상 연령은 고임금 노동자 규모가 증가하였다(〈부표 4-15〉 참조).

최근 5년간 시간당 임금 기준 연령별 고임금 노동자 비중도 40대가 높는데 40-44세는 2016년 39.8%, 2017년 32.5%, 2019년 35.4%로 가장 높고 45-49세는 2018년 35.8%, 2020년 35.6%로 전체 고임금 노동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0-34세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19년 반등 외에 나머지 연도에서는 전체 고임금 노동자 비중이 하락하였는데 2016년 27.5%에서 2020년 21.6%까지 줄어들었다(〈부표 4-16〉 참조).

### 3. 연령별 노동실태 변화

#### 1) 노동시간

2020년 8월 임금노동자의 연령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0-34세가 41.2시간으로 가장 길고 다음으로 35-39세가 41.1시간으로 30대의 평균 노동시간이 41시간을 초과하였다. 30대 다음으로 40-44세와 45-49세가 40.8시간으로 길었고 다음으로 25-29세와 50-54세가 40.6시간, 55-59세가 40.4시간, 60-64세 38.8시간, 20-24세 33.3시간, 65세 이상 28.1시간, 15-19세 23.1시간의 순으로 길었다.

전년 동기 대비 연령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변화를 보면, 15-19세에서 2.5시간 감소하여 변화폭이 가장 컸고, 40-44세가 0.2시간 감소로 변화폭이 가장 작았다. 코로나19로 숙박·음식점업의 자영업 경영 피해가 15-19세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일자리 감소로 나타나면서 주당 평균 노동시간 감소도 나머지 연령대보다 컸다.

최근 5년간 연령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변화를 보면 20-24세, 25-29세, 45-49세, 65세 이상은 노동시간이 연속 하락하였고, 나머지 연령대는 증가와 하락을 반복하였다. 2019년 8월 연령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2020년 8월과 동일하게 모든 연령대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여 주당 평균 노동시간의 하락세는 2019년 8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표 4-71〉 연도별 연령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변화

(단위: 시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40.9	40.9	40.4	39.8	39.1	-0.7
15-19세	27.6	27.0	27.2	25.7	23.1	-2.5
20-24세	38.1	36.7	36.1	34.7	33.3	-1.4
25-29세	42.3	41.7	41.4	40.9	40.6	-0.3
30-34세	42.2	42.3	42.0	41.6	41.2	-0.5
35-39세	41.6	42.0	41.7	41.4	41.1	-0.3
40-44세	41.5	41.8	41.5	41.0	40.8	-0.2
45-49세	42.3	42.0	41.9	41.2	40.8	-0.4
50-54세	42.3	42.6	41.8	41.5	40.6	-0.9
55-59세	41.6	41.9	41.5	41.1	40.4	-0.7
60-64세	41.2	41.8	40.6	39.7	38.8	-0.9
65세 이상	32.8	32.2	30.0	28.8	28.1	-0.7

주: 1) 주된 직장(일)의 평소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8월 기준 주당 노동시간별로 연령별 임금노동자 수를 보면, 15시

간 미만은 65세 이상이 50만 6천명으로 가장 많고 15-35시간은 60-64세가 30만 1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36-40시간은 45-49세가 166만 8천명으로 가장 많고, 41-44시간은 50-54세가 5만 6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45-48시간은 45-49세가 28만 5천명으로 가장 많고 49-52시간도 45-49세가 18만 7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52시간 초과는 55-59세가 15만 3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 주당 노동시간별 임금노동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15-19세는 36-40시간에서 1만 4천명이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고, 20-24세는 35시간 이하와 41-44시간에서 각각 3만 3천명, 5천명이 증가하였고, 36-40시간과 45시간 이상에서는 감소했다. 25-29세는 15시간 미만에서 3천명 증가하고 나머지 노동시간에서는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임금노동자 수가 감소하였다. 30-34세는 노동시간별로 증가와 감소가 엇갈렸는데 36-40시간은 2만 9천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52시간 초과에서는 4만 5천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40-44세는 36-40시간에서만 전년 동기 대비 8만 5천명 증가하고 나머지 노동시간 구간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45-49세는 15시간 미만과 36-40시간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천명, 6만 9천명이 증가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모두 감소하였다. 50-54세는 15-44시간 구간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 나머지 구간에서는 모두 감소하였다. 55-59세는 40시간 이하 구간에서는 증가하고 41시간 이상 구간에서는 감소하였다. 60-64세는 44시간 이하 구간에서는 증가하고 45시간 이상 구간에서는 노동자 수가 감소하였다. 65세 이상은 52시간 초과 구간만 전년 동기 대비 1만 7천명 감소하고 52시간 이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하였는데 15-35시간에서 가장 많은 규모인 9만 7천명이 증가하였다.

〈표 4-72〉 연령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별 노동자 규모 변화

(단위: %)

구분		15 미만	15-35시간	36-40시간	41-44시간	45-48시간	49-52시간	52시간 초과
'19.8	임금노동자	932	2,422	11,497	438	2,313	1,542	1,414
	15-19세	57	70	44	2	12	3	6
	20-24세	151	268	561	22	108	73	53
	25-29세	43	184	1,476	51	288	143	135
	30-34세	20	143	1,423	56	256	162	146
	35-39세	29	185	1,571	51	296	208	142
	40-44세	37	221	1,446	61	266	212	142
	45-49세	27	249	1,599	54	287	219	159
	50-54세	35	237	1,355	47	318	190	197
	55-59세	25	266	1,140	44	242	173	167
60-64세	39	267	567	29	156	102	127	
65세 이상	469	333	314	21	84	58	139	
'20.8	임금노동자	992	2,569	11,849	410	2,157	1,324	1,145
	15-19세	52	69	30	2	7	3	1
	20-24세	158	293	528	27	89	48	39
	25-29세	46	157	1,467	43	272	130	102
	30-34세	19	154	1,452	44	262	154	101
	35-39세	27	182	1,483	53	251	163	137
	40-44세	36	195	1,531	47	256	157	126
	45-49세	30	221	1,668	45	285	187	117
	50-54세	27	283	1,473	56	271	166	136
	55-59세	40	284	1,192	41	224	155	153
60-64세	52	301	664	32	147	93	110	
65세 이상	506	430	361	23	92	69	122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60	147	352	-28	-156	-218	-269
	15-19세	-5	-1	-14	0	-5	0	-5
	20-24세	7	25	-33	5	-19	-25	-14
	25-29세	3	-27	-9	-8	-16	-13	-33
	30-34세	-1	11	29	-12	6	-8	-45
	35-39세	-2	-3	-88	2	-45	-45	-5
	40-44세	-1	-26	85	-14	-10	-55	-16
	45-49세	3	-28	69	-9	-2	-32	-42
	50-54세	-8	46	118	9	-47	-24	-61
	55-59세	15	18	52	-3	-18	-18	-14
60-64세	13	34	97	3	-9	-9	-17	
65세 이상	37	97	47	2	8	11	-17	

연령별로 노동시간별 임금노동자 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 8월 15-19세와 20-24세, 65세 이상에서는 각각 92.1%, 82.8%, 80.9%로 40시간 이하에 집중되어 있다. 25-54세까지 5세 구간별로는 36-40시간에 해당 연령 노동자의 61~66%, 즉 10명 중 6명 이상이 집중해 있다. 52시간 초과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64세로 52시간 초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7.9%이다. 55세 이상은 52시간 초과 비중이 7% 이상으로 나머지 연령대보다 높다. 15시간 미만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15-19세로 32%를 차지하고, 65세 이상에서는 31.6%로 두 연령대에서 15시간 미만 비중이 높다.

〈표 4-73〉 연령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분포 변화

(단위: %, %포인트)

구분		15시간 미만	15- 35시간	36- 40시간	41- 44시간	45- 48시간	49- 52시간	52시간 초과
'19.8	임금노동자	4.5	11.8	55.9	2.1	11.3	7.5	6.9
	15-19세	29.5	36.0	22.7	0.9	6.1	1.8	3.0
	20-24세	12.2	21.7	45.4	1.8	8.7	5.9	4.3
	25-29세	1.9	7.9	63.6	2.2	12.4	6.2	5.8
	30-34세	0.9	6.5	64.5	2.6	11.6	7.3	6.6
	35-39세	1.2	7.5	63.3	2.1	11.9	8.4	5.7
	40-44세	1.5	9.3	60.6	2.5	11.2	8.9	6.0
	45-49세	1.0	9.6	61.6	2.1	11.1	8.4	6.1
	50-54세	1.5	10.0	57.0	2.0	13.4	8.0	8.3
	55-59세	1.2	12.9	55.4	2.2	11.8	8.4	8.1
	60-64세	3.0	20.7	44.0	2.3	12.1	7.9	9.9
65세 이상	33.1	23.5	22.1	1.5	6.0	4.1	9.8	
'20.8	임금노동자	4.9	12.6	58.0	2.0	10.5	6.5	5.6
	15-19세	32.0	42.0	18.5	0.9	4.1	1.6	0.8
	20-24세	13.4	24.8	44.7	2.2	7.6	4.0	3.3
	25-29세	2.1	7.1	66.2	1.9	12.3	5.9	4.6
	30-34세	0.9	7.1	66.4	2.0	12.0	7.0	4.6
	35-39세	1.2	7.9	64.6	2.3	10.9	7.1	6.0



구분		15시간 미만	15- 35시간	36- 40시간	41- 44시간	45- 48시간	49- 52시간	52시간 초과
	40-44세	1.6	8.3	65.2	2.0	10.9	6.7	5.4
	45-49세	1.2	8.7	65.3	1.8	11.2	7.3	4.6
	50-54세	1.1	11.7	61.1	2.3	11.2	6.9	5.6
	55-59세	1.9	13.6	57.1	1.9	10.7	7.4	7.3
	60-64세	3.7	21.5	47.5	2.3	10.5	6.7	7.9
	65세 이상	31.6	26.8	22.5	1.4	5.7	4.3	7.6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0.3	0.8	2.0	-0.1	-0.7	-1.0	-1.3
	15-19세	2.5	6.0	-4.2	0.0	-2.0	-0.2	-2.2
	20-24세	1.2	3.1	-0.8	0.5	-1.1	-1.8	-1.0
	25-29세	0.2	-0.8	2.6	-0.3	-0.1	-0.3	-1.2
	30-34세	-0.1	0.6	2.0	-0.6	0.4	-0.3	-2.0
	35-39세	0.0	0.5	1.3	0.3	-1.0	-1.3	0.3
	40-44세	0.0	-1.0	4.6	-0.6	-0.3	-2.2	-0.6
	45-49세	0.1	-0.9	3.7	-0.3	0.1	-1.1	-1.6
	50-54세	-0.4	1.8	4.1	0.3	-2.1	-1.1	-2.6
	55-59세	0.7	0.7	1.6	-0.2	-1.0	-1.0	-0.8
	60-64세	0.6	0.8	3.4	0.0	-1.6	-1.2	-2.0
65세 이상	-1.5	3.4	0.4	0.0	-0.2	0.2	-2.2	

주: 1) 주된 직장(업)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연령별로 노동시간 구간별 비중변화를 보면, 2020년 8월 15-24세는 35시간 이하 비중이 상승하였고, 55-64세는 40시간 이하 비중이 상승하였다. 36-40시간 이하 비중은 24세 이하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다. 52시간 초과는 35-39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비중이 하락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근속기간

2020년 8월 연령별 근속년수 평균값은 55-59세가 9.9년, 50-54세 9.6년으로 9년을 상회하여 가장 길고, 15-19세는 0.3년, 20-24세는 0.9년으로 1년 미만으로 가장 짧다. 연령이 많을수록 오래 일한 경력 영향으로 근속년수가 길어질 수 있지만 연령이 많을수록 근속년수가 길어지는 연령은 59세까지로 60-64세는 5.5년, 65세 이상은 3.1년으로 50대에 비해 최대 4년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대부분 기업의 정년이 60세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균값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근속년수 증감은 30-34세, 50-54세만이 전년 동기 대비 0.1년 감소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었다. 55-59세는 전년 동기 대비 0.5년이 증가하여 근속년수 증가가 가장 컸다.

〈표 4-74〉 연령별 근속년수 평균값과 중위값 변화

(단위: 년)

구분	2019.8		2020.8		증감	
	평균값	중위값	평균값	중위값	평균값	중위값
임금노동자	5.9	2.5	6.0	2.6	0.1	0.1
15-19세	0.4	0.2	0.3	0.2	0.0	0.0
20-24세	0.9	0.5	0.9	0.5	0.0	0.0
25-29세	2.0	1.4	2.0	1.5	0.1	0.1
30-34세	3.8	2.9	3.7	2.7	-0.1	-0.2
35-39세	5.6	4.2	5.7	4.2	0.0	0.0
40-44세	7.2	5.0	7.3	5.1	0.1	0.1
45-49세	8.5	5.2	8.6	5.4	0.1	0.2
50-54세	9.6	5.1	9.6	5.0	-0.1	-0.1
55-59세	9.4	4.0	9.9	5.1	0.5	1.1
60-64세	5.3	1.8	5.5	2.0	0.2	0.2
65세 이상	3.1	.6	3.1	0.6	0.0	0.1

주: 1) 주된 직장(일)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8월 연령별 근속년수 중위값은 45-49세(5.4년), 40-44세(5.1년), 55-59세(5.1년), 50-54세(5년)으로 이 연령대에서는 전체 중위값 2.6년보다 2배 가까이 길다. 평균값과 중위값 간의 격차가 큰 연령대는 50대로 장기간 근속자만큼 단기간 근속자가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값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근속년수 증감은 평균값 증감과 동일하게 30-34세, 50-54세만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2년, 0.1년이 감소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었다. 55-59세도 평균값 증가와 동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1.1년이 증가하여 근속년수 증가가 가장 컸다.

2020년 8월 근속년수별로 연령별 노동자 규모를 보면, 6개월 미만은 20-24세가 57만 4천명으로 가장 많다. 6개월-1년 미만은 65세 이상이 42만 4천명으로 가장 많다. 25-29세가 1-2년 미만이 46만 8천명, 2-3년 미만 35만 1천명, 3-5년 미만 37만 4천명으로 가장 많다. 5-10년 미만은 30-34세가 57만 6천명으로 가장 많고 45-49세는 10년 이상이 93만 4천명으로 가장 많다.

연령별로 근속년수별 노동자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15-19세는 전 규모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다. 20-24세는 6개월-1년 미만은 2만명, 2-3년 미만은 1만명 증가하고 나머지 근속년수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다. 25-29세는 3년 이상에서 1만 5천명 증가하고 3년 미만에서는 감소하였다. 30-34세는 5-10년 미만에서 5만 6천명이 감소하여 경력자들 감소가 컸다. 40-44세는 10년 이상은 1만 2천명 증가하였지만 3-5년 미만과 5-10년 미만은 각각 1만명, 2만 2천명 감소하였다. 5-10년 미만 구간에 노동력 핵심 연령 40대 초반이 2만 명 이상 감소한 것은 코로나 이후 한국 경기 회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5-49세는 3년 이상이 2만 8천명 증가하여 40대 초반과는 달랐다. 50-54세는 3년 미만 구간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3-10년 미만은 2만 9천명 감소, 10년 이상은 2만 7천명 증가하였다. 55-59세는 5년 이상이 9만 6천명 증가하고 1년 미만이 5만 7천명 감소하였다. 60-64세는 6개월 미만이 4천 명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속년수 구간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임금노동자 수가 증가하였다. 10년 이상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많은 3만 8천명이 증가하였다. 65세 이상은 6개월 미만이 4만 6천명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60-64세와 동일하게 6개월 이상 근속년수 구간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임금노동자 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6개월-1년 미만은 12만 4천명이 증가하여 전체 연령별 근속년수별 임금노동자 수 변화에서 가장 증가폭이 컸다.

〈표 4-75〉 연령별 근속년수 계층별 노동자 규모 변화

(단위: 년, %)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19.8	임금노동자	4,536	2,092	2,661	1,685	2,250	3,069	4,266
	15-19세	144	33	13	2	2	0	0
	20-24세	600	238	252	83	51	12	0
	25-29세	580	321	508	354	365	189	4
	30-34세	351	186	354	226	367	632	94
	35-39세	333	193	295	223	319	561	559
	40-44세	326	179	247	172	268	430	763
	45-49세	407	203	247	168	257	385	928
	50-54세	424	157	226	138	233	320	880
	55-59세	443	160	191	134	172	261	696
	60-64세	386	123	164	105	125	160	225
65세 이상	543	300	166	80	93	120	118	
'20.8	임금노동자	4,198	2,176	2,592	1,808	2,229	2,994	4,449
	15-19세	124	29	9	2	0	0	0
	20-24세	574	258	200	93	48	10	0
	25-29세	522	304	468	351	374	191	8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30-34세	338	215	333	247	358	576	119
35-39세	282	149	285	237	305	500	538
40-44세	304	167	237	199	258	408	775
45-49세	333	185	274	165	264	400	934
50-54세	435	170	233	153	214	300	907
55-59세	409	137	205	136	148	297	756
60-64세	382	138	179	115	144	178	263
65세 이상	497	424	169	112	116	135	149
임금노동자	-338	84	-69	123	-21	-75	183
15-19세	-20	-4	-4	0	-2	0	0
20-24세	-26	20	-52	10	-3	-2	0
25-29세	-58	-17	-40	-3	9	2	4
30-34세	-13	29	-21	21	-9	-56	25
35-39세	-51	-44	-10	14	-14	-61	-21
40-44세	-22	-12	-10	27	-10	-22	12
45-49세	-74	-18	27	-3	7	15	6
50-54세	11	13	7	15	-19	-20	27
55-59세	-34	-23	14	2	-24	36	60
60-64세	-4	15	15	10	19	18	38
65세 이상	-46	124	3	32	23	15	31

2020년 8월 연령별 임금노동자 근속년수별 비중을 보면, 15-19세, 20-24세, 25-29세는 6개월 미만 비중이 각각 76.1%, 48.5%, 23.6%로 가장 높다. 30-34세는 5-10년 미만 26.4% 비중이 높고 이후 35세부터 59세까지는 10년 이상 비율이 가장 높다. 10년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대 이상에서 연령이 많아질수록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50-54세는 37.6%, 55-59세는 36.2%로 55세 이상이 10년 미만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50-54세 보다 1%p 낮았다. 반대로 6개월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은 50-54세 18%, 55-59세 19.6%로 55-59세가 0.4%p 높다. 60-64세와 65세 이상에서는 6

개월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27.3%, 31%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 근속년수별 비중의 2019년 대비 2020년 변화는 25-29세 이상에서는 10년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고 20-49세, 55세 이상에서는 6개월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6개월 미만 단기 일자리가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감소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76〉 연령별 근속년수 비중 변화

(단위: 년, %)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19.8	임금노동자	22.1	10.2	12.9	8.2	10.9	14.9	20.8
	15-19세	74.2	17.1	6.7	1.0	1.0	0.0	0.0
	20-24세	48.6	19.3	20.4	6.7	4.1	0.9	0.0
	25-29세	25.0	13.8	21.9	15.3	15.7	8.1	0.2
	30-34세	15.9	8.4	16.0	10.2	16.6	28.6	4.2
	35-39세	13.4	7.8	11.9	9.0	12.9	22.6	22.5
	40-44세	13.7	7.5	10.3	7.2	11.3	18.0	32.0
	45-49세	15.7	7.8	9.5	6.5	9.9	14.8	35.8
	50-54세	17.8	6.6	9.5	5.8	9.8	13.5	37.0
	55-59세	21.5	7.8	9.3	6.5	8.4	12.7	33.9
	60-64세	29.9	9.6	12.8	8.2	9.7	12.4	17.5
65세 이상	38.3	21.1	11.7	5.6	6.5	8.4	8.3	
'20.8	임금노동자	20.5	10.6	12.7	8.8	10.9	14.6	21.8
	15-19세	76.1	17.6	5.3	0.9	0.0	0.0	0.0
	20-24세	48.5	21.8	16.9	7.8	4.1	0.8	0.0
	25-29세	23.6	13.7	21.1	15.8	16.8	8.6	0.4
	30-34세	15.5	9.8	15.2	11.3	16.4	26.4	5.4
	35-39세	12.3	6.5	12.4	10.3	13.3	21.8	23.4
	40-44세	12.9	7.1	10.1	8.5	11.0	17.4	33.0
	45-49세	13.0	7.2	10.7	6.5	10.3	15.7	36.6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50-54세	18.0	7.1	9.6	6.3	8.9	12.5	37.6
	55-59세	19.6	6.5	9.8	6.5	7.1	14.2	36.2
	60-64세	27.3	9.9	12.8	8.2	10.3	12.7	18.8
	65세 이상	31.0	26.5	10.6	7.0	7.3	8.4	9.3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1.5	0.5	-0.3	0.6	0.0	-0.3	1.0
	15-19세	1.9	0.5	-1.4	-0.1	-1.0	0.0	0.0
	20-24세	-0.1	2.6	-3.5	1.1	0.0	-0.1	0.0
	25-29세	-1.4	-0.1	-0.8	0.6	1.1	0.5	0.2
	30-34세	-0.4	1.4	-0.8	1.1	-0.2	-2.2	1.2
	35-39세	-1.2	-1.3	0.5	1.4	0.4	-0.8	0.9
	40-44세	-0.7	-0.4	-0.2	1.3	-0.3	-0.6	1.0
	45-49세	-2.6	-0.6	1.2	0.0	0.4	0.8	0.8
	50-54세	0.2	0.4	0.2	0.5	-0.9	-1.0	0.6
	55-59세	-2.0	-1.2	0.5	0.0	-1.2	1.5	2.4
	60-64세	-2.7	0.3	0.1	0.0	0.6	0.3	1.3
	65세 이상	-7.3	5.3	-1.1	1.4	0.7	0.0	1.0

주: 1) 주된 직장(일)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3) 비자발적 취업

2020년 8월 연령별 비자발적 취업자 규모는 65세 이상이 82만명으로 가장 많고, 15-19세가 5만 5천명으로 가장 적다. 전년 동기 대비 비자발적 취업자 규모 변화는 45-49세가 11만 7천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60-64세와 65세는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비자발적 취업자 수가 각각 2천명, 6만명 증가하여 60대 이상에서는 비자발적 취업자가 6만 2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은 65세 이상이 51.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60-64세 41.6%, 15-19세 33.9%, 55-59세 30.7%로 30% 이상으로 나머지는

연령구간에 비해 높았다. 반면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이 낮은 연령은 35-39세 14.9%, 30-34세 15.2%, 40-44세 17.1%, 25-29세 18.3%, 45-49세 18.8%로 25-49세까지 비자발적 취업 비율은 20% 미만으로 전체 평균 24.6% 보다 낮았다. 15-19세와 60대 이상의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에서 비자발적 취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4-77〉 연령별 비자발적 취업자 규모 및 비중 변화

(단위: 천명,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8		2020.8		증감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증감률
임금노동자	5,500	26.8	5,027	24.6	-473	-8.6
15-19세	71	36.8	55	33.9	-16	-22.5
20-24세	411	33.3	342	28.9	-69	-16.8
25-29세	506	21.8	405	18.3	-101	-20.0
30-34세	372	16.8	333	15.2	-39	-10.5
35-39세	405	16.3	343	14.9	-62	-15.3
40-44세	473	19.8	401	17.1	-72	-15.2
45-49세	597	23.0	480	18.8	-117	-19.6
50-54세	656	27.6	625	25.9	-31	-4.7
55-59세	669	32.5	641	30.7	-28	-4.2
60-64세	580	45.0	582	41.6	2	0.3
65세 이상	760	53.6	820	51.2	60	7.9

주: 1) 비자발적 사유는 주된 취업 사유가 ③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④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혹은 ⑤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인 경우가거나, 주된 취업 사유가 ⑥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⑦ 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⑧ 학업·학원수강·직업훈련·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⑨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⑩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⑪ 그 외 기타 사유인 응답자 중 취업동기가 비자발적이라고 응답한 경우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전년 동기 대비 비자발적 취업 비율 증감은 15-19세가 22.5%p 하락하여 변화폭이 가장 컸다. 60-64세와 65세 이상은 유일하게 비자발적 취업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0.3%p, 7.9%p 상승하여 코로나19로 가구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60대 이상의 비자발적 취업이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4. 연령별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 변화

##### 1) 사회보험 가입률

2020년 8월 기준 연령별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25-49세에서 5세 구간별로 80%를 상회한 반면, 50대는 70%대, 60-64세 9.5%, 20-24세 56.8%, 15-19세 25.3%로 낮았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가장 높은 연령은 30-34세로 87.4%이다. 연령별로 국민연금 가입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가입률이 전년 동기 대비 20-24세, 35-39세, 65세 이상만 하락하고 나머지 연령 구간에서는 상승하였다. 35-39세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것은 코로나19로 30대 일자리가 크게 감소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2020년 8월 기준 연령별 건강보험 가입률은 25-49세에서 5세 구간별로 80%를 상회한 반면, 50대는 70%대, 60-64세 65.4%, 65세 이상 41.3%, 20-24세 57.2%, 15-19세 24.6%로 낮았다. 건강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연령은 30-34세로 87.3%이다. 연령별로 건강보험 가입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30대와 15-24세만이 하락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상승하였다.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30대의 건강보험 가입률이 하락한 것은 코로나 19로 30대 일자리가 크게 감소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2020년 8월 기준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률은 25-49세에서 5세 구간별로 70%를 상회하였다. 반면, 50-64세까지 60%대, 15-19세 28.2%, 20-24세 56.7%, 65세 이상 78.4%으로 가입률이 낮았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

은 연령은 35-39세로 78.4%이다. 연령별로 고용보험 가입률의 변화를 살펴 보면, 전년 동기 대비 30-34세가 유일하게 0.4%p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구간에서는 고용보험 가입률은 상승하였다.

〈표 4-78〉 연령별 사회보험 가입률 변화

(단위: %, %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 8			2020. 8			증감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임금노동자	69.5	75.7	65.8	69.8	76.7	67.5	0.3	1.1	1.7
15-19세	25.1	24.8	26.9	25.4	24.6	28.2	0.3	-0.3	1.2
20-24세	57.2	57.4	55.2	56.8	57.2	56.7	-0.4	-0.3	1.5
25-29세	82.3	82.3	74.5	84.9	84.9	77.5	2.7	2.7	2.9
30-34세	87.3	87.7	78.7	87.4	87.3	78.3	0.1	-0.4	-0.4
35-39세	87.3	87.3	77.1	87.2	86.9	78.4	-0.1	-0.4	1.3
40-44세	83.6	83.3	72.2	85.2	85.3	75.6	1.6	1.9	3.4
45-49세	80.8	80.7	70.2	83.8	83.2	73.3	3.0	2.5	3.1
50-54세	77.0	77.1	66.3	79.0	78.7	68.5	1.9	1.7	2.2
55-59세	72.0	72.8	62.6	75.8	76.0	66.9	3.8	3.2	4.3
60-64세	8.9	64.2	59.6	9.5	65.4	62.4	0.6	1.3	2.8
65세 이상	0.1	39.2	16.9	0.0	41.3	17.4	-0.1	2.2	0.5

주: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지역가입자, 의료수급권자 및 직장가입피부양자는 제외)

2) 국민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지역 연금 포함

3) 고용보험의 경우 통계청은 2010년부터 특수지역연금 대상(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을 제외한 고용보험가입률을 발표하고 있어 수치의 차이가 존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2) 근로복지 수혜율

2020년 8월 연령별 근로복지별 수혜율은 30대가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퇴직급여 수혜율은 35-39세가 86.2%로 가장 높고, 시간외 수당 수혜율은 30-34세가 62.2%, 유급휴일(휴가) 수혜율은 35-39세가 79.4%, 상여금과

교육훈련 경험은 35-39세가 각각 81.3%, 58.7%로 가장 높았다. 퇴직급여 수혜율은 15-19세와 65세 이상이 각각 18.9%, 33.4%로 가장 낮았다. 시간 외 수당도 15-19세와 65세 이상이 각각 28.3%, 11.2%로 나머지 연령대 중 가장 낮은 편이다. 유급휴일(휴가) 수혜율은 15-19세가 18.1%, 65세 이상이 22.4%로 역시 가장 낮았다. 상여금 수혜율은 15-19세가 18.2%, 65세 이상이 30.9%로 가장 낮았다. 교육훈련 경험은 15-19세가 22.5%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60-64세의 41.9%, 65세 이상의 45.3%보다 낮은 수준이다. 교육훈련 경험 비율은 15-19세와 함께 20-24세도 36.5%로 15-24세의 교육훈련 경험 비율이 60대 이상보다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연령별로 근로복지 수혜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퇴직급여는 24세 이하, 30대, 60대 이상은 하락하고 40-59세 연령은 상승하였다. 시간 외 수당은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고, 특히 15-19세가 5%p로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 유급 휴일(휴가)은 20-24세만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고 나머지 연령구간에서는 모두 상승하였다. 상여금은 20-24세, 30대, 55-59세만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 경험은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하였는데 특히 15-19세에서 4.8%p로 가장 크게 하락하였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서 교육훈련 경험은 현재 직장에서 경험한 직업교육훈련으로 이는 기업이 제공하거나 기업이 정부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시간 활용을 허용한 훈련일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의 일 경험과 직업교육 훈련 경험의 부족이 포스트코로나19 이후 산업 현장의 인력 활용에 제약이 되지 않기 위해 직업교육 훈련의 공적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4-79〉 연령별 근로복지 수혜율 변화

(단위: %, %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 8					2020. 8					증감				
	퇴직 급여	시간외 수당	유급 휴일 (휴가)	상여금	교육 훈련 경험	퇴직 급여	시간외 수당	유급 휴일 (휴가)	상여금	교육 훈련 경험	퇴직 급여	시간외 수당	유급 휴일 (휴가)	상여금	교육 훈련 경험
임금노동자	74.0	48.2	62.9	68.8	53.9	73.2	50.0	64.6	68.8	52.2	-0.8	1.8	1.7	0.0	-1.7
15-19세	20.5	23.2	16.7	17.4	27.4	18.9	28.3	18.1	18.2	22.5	-1.6	5.0	1.4	0.8	-4.8
20-24세	54.1	39.8	47.9	49.5	38.7	49.1	41.4	44.9	46.5	36.5	-5.0	1.6	-3.0	-3.0	-2.2
25-29세	80.8	55.8	73.5	75.7	56.4	81.1	60.5	76.6	77.6	57.2	0.3	4.7	3.1	2.0	0.8
30-34세	86.1	60.3	77.4	81.3	60.8	84.9	62.2	78.8	80.9	58.7	-1.2	1.9	1.3	-0.5	-2.1
35-39세	86.5	59.2	77.1	81.7	60.6	86.2	61.6	79.4	81.3	57.9	-0.3	2.4	2.2	-0.4	-2.6
40-44세	82.6	56.1	72.6	78.2	57.8	82.9	58.2	74.2	79.4	56.0	0.2	2.1	1.5	1.2	-1.8
45-49세	79.8	53.6	69.1	74.0	57.0	81.4	55.2	72.0	75.9	55.0	1.6	1.5	2.9	1.9	-2.0
50-54세	75.4	49.0	62.2	70.0	54.6	75.6	51.3	66.4	70.8	51.7	0.1	2.4	4.2	0.7	-3.0
55-59세	71.6	42.8	57.0	67.1	50.0	72.5	45.6	59.9	65.8	49.8	1.0	2.8	3.0	-1.2	-0.3
60-64세	60.2	26.4	41.2	51.5	43.2	59.3	30.3	44.8	54.3	41.9	-0.9	3.9	3.6	2.8	-1.3
65세 이상	34.6	11.2	19.7	30.6	45.7	33.4	11.2	22.4	30.9	45.3	-1.3	0.0	2.7	0.3	-0.4

- 주: 1) 퇴직급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2) 시간외 수당은 수당의 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시간외 수당은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체에만 적용됨. (?)  
 3) 유급휴일(휴가)은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산전후휴가) 중 한 개 이상 수혜 대상인 경우. 유급휴가는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체에만 적용됨.  
 4)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법정임금은 아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5. 연령별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와 조직률 변화

2020년 8월 기준 연령별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45-49세가 41만 5천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44세가 36만 2천명으로 많아 40대 노동조합 가입자 수가 나머지 연령대에 비해서 가장 많은 편이다. 노동조합 가입자 수가 10만명 미만인 연령대는 15-19세(1천명), 20-24세(4만 1천명), 60-64세(6만 8천명), 65세 이상(1만 9천명)이다. 연령별 노동조합 가입자 수 변화는 전년 동기 대비 55-59세가 2만 7천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고 35-39세가 2만 3천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표 4-80〉 연령별 노동조합 조합원 수 변화

(단위: 천명)

구분	2019.8				2020.8				증감			
	노조있음			노조 없음	노조있음			노조 없음	노조있음			노조 없음
	가입	미가입	가입 대상 아님		가입	미가입	가입 대상 아님		가입	미가입	가입 대상 아님	
임금노동자	2,531	1,238	1,475	15,316	2,513	1,368	1,454	15,111	-18	130	-21	-205
15-19세	3	2	7	181	1	3	10	150	-2	1	3	-31
20-24세	57	50	75	1,053	41	49	77	1,014	-16	-1	2	-39
25-29세	249	194	149	1,728	252	199	134	1,632	3	5	-15	-96
30-34세	328	171	147	1,563	336	211	109	1,529	8	40	-38	-34
35-39세	384	212	167	1,719	361	202	147	1,585	-23	-10	-20	-134
40-44세	346	174	136	1,727	362	184	150	1,651	16	10	14	-76
45-49세	436	146	172	1,840	415	178	174	1,787	-21	32	2	-53
50-54세	372	144	188	1,674	361	163	204	1,684	-11	19	16	10
55-59세	259	109	173	1,517	286	114	180	1,508	27	5	7	-9
60-64세	72	22	98	1,095	68	45	118	1,168	-4	23	20	73
65세 이상	24	13	162	1,218	29	19	152	1,403	5	6	-10	18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8월 기준 연령별 노동조합 가입 비율은 45-49세가 16.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5-39세 15.7%, 30-34세와 40-44세가 각각 15.4%, 50-54세가 15%로 나머지 연령대에 비해 높다. 노조 가입 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15-19세로 0.5%에 불과하고, 다음으로는 65세 이상 1.8%, 20-24세 3.5%, 60-64세 4.8%로 5% 미만으로 낮았다. 연령별 노조 가입 비율의 변화는 전년 동기 대비 55-59세가 1.1%p 상승하여 상승폭이 가장 컸고 15-19세와 20-24세는 각각 1%p, 1.1%p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표 4-81〉 연령별 노동조합 가입률 변화

(단위: %)

구분	2019.8				2020.8				증감			
	노조있음			노조 없음	노조있음			노조 없음	노조있음			노조 없음
	가입	미가입	가입대상 아님		가입	미가입	가입대상 아님		가입	미가입	가입대상 아님	
임금노동자	12.3	6.0	7.2	74.5	12.3	6.7	7.1	73.9	0.0	0.7	-0.1	-0.6
15-19세	1.5	1.3	3.7	93.5	0.5	2.1	6.0	91.4	-1.0	0.8	2.3	-2.1
20-24세	4.6	4.0	6.1	85.2	3.5	4.2	6.5	85.8	-1.1	0.2	0.4	0.5
25-29세	10.7	8.4	6.4	74.5	11.4	9.0	6.1	73.6	0.6	0.6	-0.4	-0.9
30-34세	14.9	7.7	6.6	70.8	15.4	9.7	5.0	70.0	0.5	1.9	-1.7	-0.8
35-39세	15.5	8.6	6.7	69.2	15.7	8.8	6.4	69.1	0.3	0.2	-0.3	-0.2
40-44세	14.5	7.3	5.7	72.5	15.4	7.8	6.4	70.3	0.9	0.5	0.7	-2.1
45-49세	16.8	5.6	6.6	70.9	16.2	7.0	6.8	70.0	-0.6	1.3	0.2	-0.9
50-54세	15.6	6.1	7.9	70.4	15.0	6.8	8.5	69.8	-0.7	0.7	0.6	-0.6
55-59세	12.6	5.3	8.4	73.8	13.7	5.5	8.6	72.2	1.1	0.2	0.2	-1.5
60-64세	5.6	1.7	7.6	85.0	4.8	3.2	8.5	83.5	-0.8	1.5	0.8	-1.6
65세 이상	1.7	0.9	11.5	85.9	1.8	1.2	9.5	87.6	0.1	0.2	-2.0	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제4절 소결: 요약 및 시사점

### 1) 성별

코로나19 이전보다 여성 임금노동자는 7만 8천명 감소하고 남성은 3만 5천 감소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일자리가 감소하였다. 남성은 3만 5천명 감소 중 비정규직에서 2만 1천명 감소하여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에 비해 여성은 7만 8천명 중 정규직에서 4만 4천이 감소하여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감소 규모가 컸다. 전체 일자리가 감소한 가운데 시간제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9만 6천명 증가하였고, 이중 남성이 6만 9천명 증가하여 여성의 2만

7천명보다 3배 이상 많이 증가하였다. 일일근로도 증가했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4.5배 많이 증가했다.

〈표 4-82〉 성별 근로형태별 노동자 규모 변화

(단위: 천명)

구분	2019.8			2020.8			2020.8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임금노동자	20,559	11,396	9,163	20,446	11,361	9,085	-113	-35	-78
정규직	13,078	8,040	5,038	13,020	8,027	4,994	-58	-13	-44
비정규직	7,481	3,356	4,125	7,426	3,335	4,091	-55	-21	-34
시간제	3,156	846	2,310	3,252	915	2,337	96	69	27
일일근로	748	561	187	896	682	214	148	121	27

일자리 특성별로는 여성은 5-9인 이하 규모에서 10만명 이상 감소하였고 남성은 4인 이하 규모에서 7만 5천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9인 이하로 보면 여성은 17만 4천명, 남성은 9만 9천명 감소하여 10인 미만 일자리 감소는 여성이 주도한 것을 확인하였다.

여성이 9인 이하 영세사업체에서 17만 4천명이 감소한 것은 9인 이하 사업체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업(6만 5천명)과 도소매업(6만 3천명)에서 여성 일자리가 12만 8천명 감소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여성 임금노동자가 증가한 산업도 있는데 보건사회복지업은 13만명, 가구내고용업은 2만 3천명이 증가하였다. 정보통신업은 6천명이 감소했는데 성별로는 남성이 2만 5천명 증가한 반면, 여성은 3만 1천명 감소하여 양상이 달랐다.

계속 근로가 가능한 고용안정성이 있는 노동자 비율은 코로나19 이전보다 0.8%p 하락했는데 여성은 1%p 하락하여 남성의 0.6%p 보다 하락폭이 컸다. 고용안정성 비율이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가운데 2018년에는 1%p까지 격차가 축소되었는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격차가 연속 확대되고 있다.

〈표 4-83〉 성별 고용안정성있는 근로자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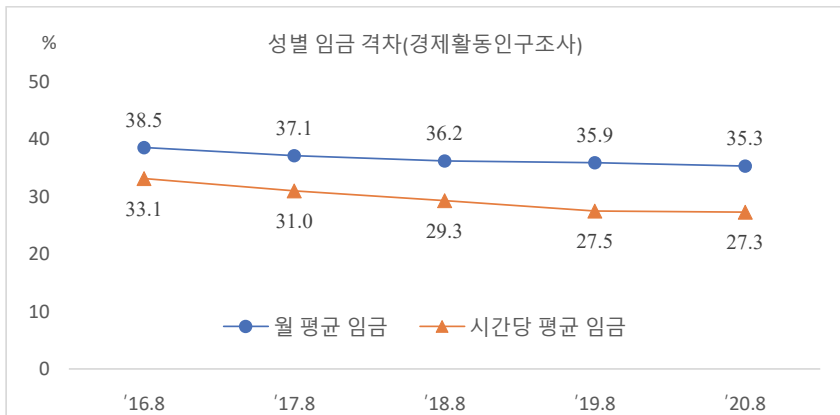
(단위: %, %p)

구분	2016.8	2017.8	2018.8	2019.8	2020.8
임금노동자	85.4	86.4	86.1	84.5	83.7
남성	86.0	87.0	86.5	85.4	84.8
여성	84.6	85.6	85.6	83.4	82.3
여성-남성	-1.4	-1.4	-1.0	-2.0	-2.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성별 임금 격차는 월 평균 임금 기준 35.3%, 시간당 임금 기준 27.4%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6%p, 0.2%p 하락했다.

[그림 4-3] 성별 임금 격차



주: 본문 〈표 4-22〉, 〈표 4-23〉 재구성

저임금 노동자 규모는 여성이 코로나19 이전보다 12만 4천명이 감소한 반면 남성은 2만 3천명 증가하였다. 남성과 다르게 여성은 저임금 노동자 수가 감소하였지만 여성 저임금 노동자 수는 292만 8천명으로 남성의 141만명보다 151만 8천명이 많다. 저임금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남성은 0.2%p 상승한 반면, 여성은 -1.1%p 하락하였다. 저임금 비



올변화에서 남성은 상승, 여성은 하락하였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 중 저임금 비율이 32.2%로 남성의 12.4%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은 변화가 없다.

〈표 4-84〉 월 평균 임금 수준별 성별 노동자 현황(2020년)

(단위: 천명, %)

구분	천명			%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임금노동자	4,339	11,873	4,234	21.2	58.1	20.7
남성	1,410	6,539	3,411	12.4	57.6	30
여성	2,928	5,335	822	32.2	58.7	9.1

주: 본문 〈표 4-26〉, 〈표 4-27〉 재구성

2020년 8월 임금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9.1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시간 감소하였다. 남성은 전년 동기 대비 0.7시간 감소하고 여성은 0.6시간 감소하였다. 성별 임금 격차는 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30%를 초과하고,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27%를 상회한다. 이에 비해 근로시간 격차는 20% 미만으로 임금 격차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성별 임금 격차는 최근 5년간 축소 추세인데 근로시간 성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표 4-85〉 연도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성 격차

(단위: 시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여성-남성	-4.4	-4.7	-4.9	-5.5	-5.4
노동시간 성 격차	10.2	10.9	11.6	13.1	13.0

주: 1) 주된 직장(일)의 평소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함.

2) 노동시간 성 격차 산식 100-(여성 노동시간/남성 노동시간\*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보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는 여성이 72만 8천명으로 남성 26만 4천명보다 2.8배 많다. 15시간 미만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성이 8%로 남성의 2.3%보다 3.5배 높다.

〈표 4-86〉 성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15시간 미만 노동자 규모 및 비중 변화

(단위: 천명, %)

구분	규모		비중	
	2019.8	2020.8	2019.8	2020.8
전체	932	992	4.5	4.9
남성	243	264	2.1	2.3
여성	689	728	7.5	8

주: 본문 〈표 4-39〉, 〈표 4-40〉 재구성

현재 직장 근속 년수는 2020년 8월 기준 평균값은 6년이고, 중위값은 2.6년이다. 전년 동기에 비해 평균값과 중위값 모두 0.1년이 증가하였다. 남성 노동자 현재 직장 근속년수는 평균값은 7년, 중위값은 3.3년으로 전년 동기 대비 평균값과 중위값 모두 0.1년 증가하였다. 여성 노동자의 현재 직장 근속년수는 평균값은 4.8년이고 중위값은 2.1년으로 전년 동기 대비 여성노동자도 평균값, 중위값 모두 0.1년이 증가하였다.

남성 노동자 중 비자발적 취업자 규모는 251만 9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만 9천명(-5.4%)이 감소했고, 여성 노동자 중 비자발적 취업자 규모는 250만 8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 4천명(-5.4%)이 감소했다. 비자발적 취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이 22.2%, 여성이 27.6%로 여성이 남성보다 5.4%p 높다. 2019년 8월과 비교하여 남성은 비자발적 취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8%p 하락한 반면, 여성은 1.3%p 하락하는 것에 그쳐 남성의 자발적 취업 비율이 더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모두 낮은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가입률이 여성과 남성 모두 상승했다. 이때 상승폭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0.1%p 더 많이 상승했다. 퇴직급여, 시간외 수당, 유급휴일(휴가), 상여금, 교육훈련 경험 등의 수혜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모두 낮았다.

2020년 8월 남성 임금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비율은 14.6%로 전년 동기 대비 0.2%p 하락하였고, 여성 임금노동자는 9.4%로 전년 동기 대비 0.2%p 상승하였다. 여성은 남성과 상이하게 노동조합 가입률과 노동조합 가입 노동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다.

## 2) 연령별

2020년 연령별 임금노동자 수는 여성과 남성 모두 35-39세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하고 65세 이상은 남녀 모두 가장 많이 증가하였는데, 규모에서 여성은 10만 6천명으로 10만명 이상 증가했다. 남성은 30-34세에서도 1만 1천명 증가하였다. 여성노동자 중 65세 이상 노동자는 83만 8천명이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p 상승한 9.2%를 차지한다. 이는 35-39세의 비율인 9.5%보다 불과 0.3%p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위기에도 65세 이상 노동자는 18만 5천명이 증가하면서 전체 임금노동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여성의 경우 9.2%로 전년 동기 대비 1.2%p 상승했다. 증가한 65세 이상 일자리 18만 5천명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임시직에서 11만 3천명, 4인 이하에서 5만 4천명, 보건사회복지업 9만 7천명, 비정규직 14만 5천명, 시간제 12만 1천명, 주 15시간 미만 3만 7천명, 근속년수 6개월-1년 미만 12만 3천명, 비자발적 취업 6만명, 노동조합 없음 18만 5천명, 저임금 노동자 10만 7천명이다.

65세 이상 임금노동자 18만 5천명 증가는 임시직, 보건사회복지, 비정규직, 시간제, 노조 없음, 저임금 부분이 주도하였다. 일자리 증가가 고용 조건이 열악한 일자리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65세 이상 노동자들 중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은 20%~88%에 달한다.

〈표 4-87〉 성별 연령별 임금 노동자 규모 및 비중 변화

(단위: 천명, %)

구분	2020.8		2019.8 대비 증감		2019.8 분포		2020.8 분포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11,361	9,085	-35	-78	100.0	100.0	100.0	100.0
15-19세	73	90	-5	-26	0.7	1.3	0.6	1.0
20-24세	478	704	-33	-20	4.5	7.9	4.2	7.7
25-29세	1,149	1,068	-81	-22	10.8	11.9	10.1	11.8
30-34세	1,308	878	11	-33	11.4	9.9	11.5	9.7
35-39세	1,430	865	-96	-91	13.4	10.4	12.6	9.5
40-44세	1,395	952	-8	-29	12.3	10.7	12.3	10.5
45-49세	1,462	1,091	-23	-19	13.0	12.1	12.9	12.0
50-54세	1,338	1,074	25	9	11.5	11.6	11.8	11.8
55-59세	1,191	897	36	-5	10.1	9.8	10.5	9.9
60-64세	773	626	61	50	6.2	6.3	6.8	6.9
65세 이상	764	838	78	106	6.0	8.0	6.7	9.2

주: 본문 〈표 4-50〉 재구성

〈표 4-88〉 65세 이상 임금 노동자 노동실태 변화

(단위: 천명, %, %p)

구분	고용 규모			분포		
	2019.8	2020.8	증감	2019.8	2020.8	증감
65세 이상 전체	1,418	1,603	185	100.0	100.0	-
상용	397	482	85	28.0	30.1	2.1
임시	856	969	113	60.4	60.4	0.0
일용	165	151	-14	11.6	9.4	-2.2
1-4명	425	479	54	30.0	29.9	-0.1
보건사회복지	341	438	97	24.0	27.3	3.3
비정규직	1,180	1,325	145	83.2	82.7	-0.5
시간제	771	892	121	54.4	55.6	1.2
주 15시간 미만	469	506	37	33.1	31.6	-1.5
6개월-1년 미만	300	424	124	21.2	26.5	5.3
비자발적	760	820	60	53.6	51.2	-2.4
노동조합없음	1,218	1,403	185	85.9	87.5	1.6
저임금(월 임금 기준)	986	1,093	107	69.5	68.2	-1.3

주: 본문 〈표 4-53〉, 〈표 4-54〉, 〈표 4-57〉, 〈표 4-59〉, 〈표 4-71〉, 〈표 4-84〉, 〈표 4-87〉 재구성

고용안정성 있는 노동자 비중도 60세 이상이 나머지 연령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코로나19로 하락폭이 더 컸다.

〈표 4-89〉 60세 이상 노동자 중 고용안정성있는 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임금노동자	85.4	86.4	86.1	84.5	83.7
60-64세	71.7	73.8	74.9	72.7	73.0
65세 이상	53.0	54.2	51.6	48.1	47.3

주: 본문 〈표 4-62〉 재구성

2020년 연령별 월 평균 임금수준별 임금노동자 규모는 저임금은 65세 이상이 109만 3천명으로 가장 많고, 중간임금은 25-29세가 178만 9천명으로 가장 많다. 고임금은 45-49세가 84만 2천명으로 가장 많다. 저임금은 65세 이상이 10만 7천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여 65세 이상 임금노동자 수 증가는 저임금 집단에서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중간임금은 40-44세가 11만 2천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고 고임금은 모든 연령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가운데 35-39세가 17만 2천명으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저임금 비중이 상승한 연령은 15-19세(2.5%), 20-24세(3.4%), 35-39세(0.2%)이고 나머지 연령은 저임금 비중이 2019년 대비 하락하였다. 고임금은 25-29세가 2019년 대비 0.1%p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다. 특히, 35-39세에서 고임금 비중이 -4.8%p로 가장 크게 하락하였다.

노동시간별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은 15-19세는 36-40시간에서 1만 4천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20-24세는 35시간 이하와 41-44시간에서는 증가하였고 36-40시간과 45시간 이상에서는 감소하였다. 25-29세는 15시간 미만에서 3천명 증가하고 나머지 노동시간에서는 모두 감소하였다. 30-34세

는 노동시간별로 증가와 감소가 엇갈렸는데 36-40시간은 2만 9천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52시간 초과에서는 4만 5천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40-44세는 36-40시간에서만 전년 동기 대비 8만 5천명 증가하고 나머지 노동시간에서는 모두 감소하였다. 45-49세는 15시간 미만과 36-40시간에서 증가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모두 감소하고 50-54세는 15-44시간 구간에서는 증가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모두 감소하였다. 55-59세는 40시간 이하에서는 증가하고 41시간 이상에서는 감소하였다. 60-64세는 44시간 이하에서는 증가하고 45시간 이상에서는 감소하였으며, 65세 이상은 52시간 초과 구간만 전년 동기 대비 1만 7천명 감소하고 52시간 이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하였는데 15-35시간에서 9만 7천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연령별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은 65세 이상이 51.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60-64세 41.6%, 15-19세 33.9%, 55-59세 30.7%로 30% 이상으로 나머지 연령에 비해 높다. 전년 동기 대비 비자발적 취업 비율 증감은 15-19세가 22.5%p 하락하여 변화폭이 가장 크다. 60-64세와 65세 이상은 유일하게 비자발적 취업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3%p, 7.9%p 상승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구 경제로 인해 60대의 비자발적 취업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년 8월 기준 임금노동자 연령별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은 25-49세에서 5세 구간별로 80%를 상회한 반면, 50대는 70%대, 60-64세 9.5%, 20-24세 56.8%, 15-19세 25.3%로 낮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가장 높은 연령은 30-34세로 87.4%이다.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률 변화는 전년 동기 대비 20-24세, 35-39세, 65세 이상만 하락하고 나머지 연령 구간에서는 상승하였다. 35-39세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것은 코로나19로 30대 일자리가 크게 감소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2020년 8월 기준 연령별 건강보험 가입률은 25-49세에서 5세 구간별로 80%를 상회한 반면, 50대는 70%대, 60-64세 65.4%, 65세 이상 41.3%, 20-24세 57.2%, 15-19세 24.6%로 낮다. 30-34세는 건강보험 가입률이 87.3%로 가장 높다. 연령별 건강보험 가입률 변화는 전년 동기 대비 30대와 15-24세만이 하락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상승하였다.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30대의 건강보험 가입률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것은 코로나19로 30대 일자리가 크게 감소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8월 기준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률은 25-49세에서 5세 구간별로 70%를 상회한다. 반면, 50-64세까지 60%, 15-19세 28.2%, 20-24세 56.7%, 65세 이상 78.4%으로 낮다. 35-39세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78.4%로 가장 높다. 고용보험 가입률 변화는 전년 동기 대비 30-34세가 유일하게 0.4%p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 구간에서는 상승하였다.

퇴직급여, 시간외 수당, 유급휴일(휴가), 상여금의 수혜율 모두 15-19세와 65세 이상이 나머지 연령에 비해 가장 낮은 편이다. 교육훈련 경험은 15-19세가 22.5%로 60-64세 41.9%, 65세 이상 45.3%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15-19세와 함께 20-24세도 36.5%로 15-24세 임금노동자의 교육훈련 경험 비율이 60대 이상보다 낮다.

2020년 8월 기준 연령별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45-49세가 41만 5천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44세가 36만 2천명으로 많아 40대 노동조합 가입자 수가 나머지 연령대에 비해서 가장 많은 편이다. 노동조합 가입자 수가 10만명 미만인 연령대는 15-19세(1천명), 20-24세(4만 1천명), 60-64세(6만 8천명), 65세 이상(1만 9천명)이다. 전년 동기 대비 연령별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55-59세가 2만 7천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고 35-39세가 2만 3천명 가장 많이 감소했다. 2020년 8월 기준 연령별 임금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비율

은 45-49세가 16.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5-39세 15.7%, 30-34세와 40-44세가 각각 15.4%, 50-54세가 15%로 노조 가입 비율이 15% 이상으로 나머지 연령대에 비해 높다. 노조가입 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15-19세로 0.5%에 불과하고 다음으로는 65세 이상 1.8%, 20-24세 3.5%, 60-64세 4.8%로 5% 미만으로 낮았다. 노조 가입을 변화는 전년 동기 대비 55-59세가 1.1%p 상승하여 상승폭이 가장 컸고 15-19세와 20-24세는 각각 1%p, 1.1%p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55-59세는 전년 동기 대비 노동조합 가입 노동자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노동조합 가입률도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

### 3) 시사점

코로나19가 성별 연령별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30-40대 고용이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한 가운데 여성은 특히 정규직 위주의 고용 감소가 확인되었다. 남성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감소가 컸던 것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코로나19로 영세업체 대면산업 종사 비정규직의 감소는 예측된 면이 있지만 여성 정규직 감소가 산업 전반에서 발생한 것은 대면 업종의 영업 중단으로 인한 고용 감소와는 다른 측면으로 보아야 한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과 학교 등교가 전면 금지된 것에서 자녀돌봄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이 정규직 여성 노동자 고용 감소로 나타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돌봄의 사회화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과제이고, 자녀돌봄 등으로 인한 여성노동자의 일 중단을 막기위한 고용정책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코로나19로 다시 한번 확인된 한국의 성 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코로나19 이후 전체 임금 노동자 고



용은 감소했지만 연령별로 60대 이상 고령층의 고용 증가가 확인되었다. 60대 이상 임금노동자 증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주도되었다. 코로나19 이후로도 한국은 60대 이상 임금노동자 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들을 위한 고용 안전망의 강화와 더불어 60대 이상 여성들 다수가 종사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 제5장

### 코로나19가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 산업 및 사업체 규모별 비교를 중심으로

#### 제1절 머리말

본 장에서는 산업과 사업체규모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주요 분석내용으로는 산업별·사업체 규모별로 고용과 임금수준의 변화, 노동실태(노동시간, 근속 등), 사회보험과 근로복지수혜 여부, 노동조합 조직률 등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의 고용 규모와 비중 변화, 고용 증감을 등을 살펴보고, 대상을 구분하여 성별, 연령계층별, 종사상지위별, 사업체규모별, 근로형태별 고용동향과 비정규직과 고용안정성에 따른 고용 변동을 살펴보았다. 임금관련 분석에는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구분하여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을 살펴보고, 임금의 상대적 변화로 임금격차, 저임금과 고임금 노동자의 규모와 비중을 업종과 사업체 규모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노동시간, 근속기간, 비자발적 취업 여부 등 2020년 노동실태를 살펴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과 유급휴일(휴가), 퇴직급여, 시간외 수당 등 근로복지 수혜율,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와 조직률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으로는 코로나19 충격이 고용과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9년 대비 2020년의 변화 여부를 주요하게 다루었고, 변화 추이를 보기 위해 2016~2020년까지 5개년 간의 변동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에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였고,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하여 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에 동일한 지표에 서로 다른 자료를 분석하고 있어 자료에 따라 집계된 수치에 다소간 통계상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자료 출처 확인 후 수치를 읽고 해석해 주기 바란다.

산업 구분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고, 대분류에 근거하여 구분하였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분석에는 21개 산업으로 구분되었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 분석에는 3개(공공행정업, 가구내고용업, 국제기구업) 산업이 빠진 28개 산업이 분석 대상이다.

사업체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 분석 시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등 6개 규모를 사용하였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분석에는 1-4인, 5-29인, 30-299인, 300인 이상으로 하여 4개 규모로 구분하였다.

제2절에서 산업별 고용과 노동실태에 미친 영향을 비교분석하고, 제3절에서는 사업체 규모별 고용과 노동실태에 미친 영향을 비교분석하며, 제4절에서는 각 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 제2절 산업별 고용과 노동실태에 미친 영향

### 1. 산업별 고용 영향

#### 1) 산업별 규모 변화

코로나19 충격이 고용에 미친 영향은 업종별로 상이하였다. 감염병 특성에 따라 이동제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행정적 조치가 취해지면서 주로 대면서비스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제조업, 예술및여가업 등에서 노동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반면, 정부일자리 사업 분야와 코로나19 관련 노동수요가 있는 보건사회복지업, 공공행정업, 건설업, 사업관리지원임대업, 운수창고업, 가구내고용업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도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2020년 8월 기준, 임금노동자의 업종별 분포는 제조업 19.2%(393만 명), 보건사회복지업 11.4%(232만 8천 명), 도소매업 10.6%(217만 2천 명) 순으로 이들 업종에서 각각 10% 이상을 차지한다.

한편, 건설업 8.1%(166만 2천명), 교육서비스업 7.3%(148만 2천명), 숙박·음식업 6.4%(130만 6천명), 사업관리지원임대업 6.2%(127만 4명), 공공행정업 5.6%(113만 4천 명), 전문·과학기술업 4.8%(98만 6천명), 운수창고업 4.0%(81만 3천명), 정보·통신업 3.8%(77만 1천명), 금융·보험업 3.7%(74만 9천명), 기타개인서비스업 3.3%(67만 7천명), 부동산업 1.8%(36만 3천명), 예술및여가업 1.6%(33만 4천명)로 이들 업종에서는 1%~10%에 속한다.

이외에, 수도하수업 0.7%(14만 2천명), 농림어업 0.6%(12만 명), 가구내 고용업 0.5%(10만 3천명), 전기가스증기업 0.4%(7만 1천 명), 광업 0.1%(1

만 1천명), 국제기구업 0.1%(1만 9천명) 순으로 1% 미만의 비중을 보인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2019년 8월과 2020년 8월 두 시점을 집중 비교하여 고용변동을 살펴보았다. 2020년 전체 임금노동자는 2,044만 6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 3천 명(감소율 -0.5%) 감소하였다.

2020년 업종별 고용변동은 코로나19 충격과 관련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숙박·음식업 임금노동자는 130만 6천명(6.4%)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 명(감소율 -9.7%) 감소하여 가장 많은 감소가 있었다. 그 다음 도소매업이 217만 2천명(10.6%)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 1천명(감소율 -3.6%) 감소하였고, 교육서비스업이 148만 2천명(7.3%)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 6천명(감소율 -4.3%) 감소하였다. 이외에 기타개인서비스업은 67만 7천명(3.3%)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9천명(감소율 -6.7%) 감소하였으며, 부동산업은 36만 3천명(1.8%)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3천명(감소율 -10.6%) 감소하였고, 제조업은 393만 명(19.2%)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6천명(감소율 -0.4%)이 감소하였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업은 232만 8천명(11.4%)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만 5천명(증가율 7.1%) 증가하였고, 공공행정업 역시 113만 4천명(5.6%)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 5천명(증가율 5.1%) 증가하였다. 또한 사업관리지원임대업은 127만 4천명(6.2%)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3천명(증가율 2.7%) 증가하였고, 건설업은 166만 2천명(8.1%)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5천명(증가율 2.2%) 증가하였으며, 가구내고용업은 10만 3천명(0.5%)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2천명(증가율 27.2%) 증가하였다.

업종별 고용변동 통계는 코로나19가 가져 온 생산과 소비 및 생활 조건의 변화에 따른 고용 증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

은 행정적 조치로 대인대면 서비스를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노동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한편, 2020년 전 세계에 휘몰아친 코로나19 충격을 국가차원에서 대응하다보니 보건사회복지업과 공공행정업에서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고, 또한, 학교, 보육시설, 노인보호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가구내고용업에서도 고용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고용 감소와 증가 경향이 코로나19에 의해 야기된 것인지 보기 위해 최근 5개년 간의 업종별 고용 규모와 비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숙박·음식업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각각 148만 3천명(7.5%), 144만 8천명(7.2%), 136만 2천명(6.8%) 수준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 144만 6천명(7.0%)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 다시 130만 6천명(6.4%)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 명(감소율 -9.7%)이 감소하였다.

도소매업은 ('16년) 223만 6천명(11.3%), ('17년) 232만 1천명(11.6%), ('18년) 225만 1천명(11.2%), ('19년) 225만 3천명(11.0%)으로 각각 감소하였고, 2020년 81만 명(감소율 -3.6%)이 감소하여 217만 2천명(10.6%) 수준이다.

교육서비스업은 ('16년) 149만 4천명(7.6%), ('17년) 153만 8천명(7.7%), ('18년) 150만 5천명(7.5%), ('19년) 154만 8천명(7.5%)에서 ('20년) 148만 2천명(7.3%)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만 명(감소율 -4.3%) 감소하여 20년에 감소폭이 커졌다. 증가와 감소를 반복한 경우라도 20년 많은 업종에서 감소세로 돌아섰고, 감소폭은 다른 해에 비해 컸다.

한편, 보건사회복지업의 고용은 최근 증가 추세에서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증가폭이 더욱 커졌다. ('16년) 181만 7천명(9.2%), ('17년) 185만 2천명(9.3%), ('18년) 199만 8천명(10.0%), ('19년) 217만 3천명(10.6%)에

서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15만 5천명(증가율 7.1%)이 증가하여 232만 8천명(11.4%)으로 늘었다.

〈표 5-1〉 임금노동자의 산업별 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규모					비중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임금노동자	19,743	20,006	20,045	20,559	20,446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130	122	115	123	120	0.7	0.6	0.6	0.6	0.6
광업	19	24	18	12	11	0.1	0.1	0.1	0.1	0.1
제조업	3,989	4,018	3,941	3,946	3,930	20.2	20.1	19.7	19.2	19.2
전기가스증기	73	67	71	71	71	0.4	0.3	0.4	0.3	0.4
수도하수	108	106	124	132	142	0.6	0.5	0.6	0.6	0.7
건설업	1,480	1,513	1,584	1,627	1,662	7.5	7.6	7.9	7.9	8.1
도소매업	2,236	2,321	2,251	2,253	2,172	11.3	11.6	11.2	11.0	10.6
운수창고	775	783	791	808	813	3.9	3.9	4.0	3.9	4.0
숙박음식	1,483	1,448	1,362	1,446	1,306	7.5	7.2	6.8	7.0	6.4
정보통신	710	718	784	777	771	3.6	3.6	3.9	3.8	3.8
금융보험	776	758	804	761	749	3.9	3.8	4.0	3.7	3.7
부동산업	324	366	356	406	363	1.6	1.8	1.8	2.0	1.8
전문과학기술	950	901	925	996	986	4.8	4.5	4.6	4.8	4.8
사업관리지원임대	1,292	1,306	1,193	1,241	1,274	6.5	6.5	6.0	6.0	6.2
공공행정	1,025	1,103	1,131	1,079	1,134	5.2	5.5	5.6	5.2	5.6
교육서비스	1,494	1,538	1,505	1,548	1,482	7.6	7.7	7.5	7.5	7.3
보건사회복지	1,817	1,852	1,998	2,173	2,328	9.2	9.3	10.0	10.6	11.4
예술및여가	263	273	289	343	334	1.3	1.4	1.4	1.7	1.6
기타개인서비스	731	722	756	726	677	3.7	3.6	3.8	3.5	3.3
가구내고용 등	54	52	39	81	103	0.3	0.3	0.2	0.4	0.5
국제기구	17	14	9	11	19	0.1	0.1	0.0	0.1	0.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공공행정업 역시 ('16년) 102만 5천명(5.2%), ('17년) 110만 3천명(5.5%), ('18년) 113만 1천명(5.6%)으로 증가하다가 ('19년) 107만 9천명(5.2%)으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 113만 4천명(5.6%)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만 명(증가율 +5.1%) 증가하여 다시 증가로 전환되었다. 향후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면 고용이 감소했던 업종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20년 고용이 증가한 분야에서는 고용이 어떻게 재배치되는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표 5-2〉 임금노동자의 산업별 노동자 규모 변화 및 증감률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전년 동기 대비 규모 변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7	'18	'19	'20	'17	'18	'19	'20
임금노동자	263	39	514	-113	1.3	0.2	2.6	-0.5
농림어업	-8	-7	8	-3	-6.2	-5.7	7.0	-2.4
광업	5	-6	-6	-1	26.3	-25.0	-33.3	-8.3
제조업	29	-77	5	-16	0.7	-1.9	0.1	-0.4
전기가스증기	-6	4	0	0	-8.2	6.0	0.0	0.0
수도하수	-2	18	8	10	-1.9	17.0	6.5	7.6
건설업	33	71	43	35	2.2	4.7	2.7	2.2
도소매업	85	-70	2	-81	3.8	-3.0	0.1	-3.6
운수창고	8	8	17	5	1.0	1.0	2.1	0.6
숙박음식	-35	-86	84	-140	-2.4	-5.9	6.2	-9.7
정보통신	8	66	-7	-6	1.1	9.2	-0.9	-0.8
금융보험	-18	46	-43	-12	-2.3	6.1	-5.3	-1.6
부동산업	42	-10	50	-43	13.0	-2.7	14.0	-10.6
전문과학기술	-49	24	71	-10	-5.2	2.7	7.7	-1.0
사업관리지원임대	14	-113	48	33	1.1	-8.7	4.0	2.7
공공행정	78	28	-52	55	7.6	2.5	-4.6	5.1
교육서비스	44	-33	43	-66	2.9	-2.1	2.9	-4.3
보건사회복지	35	146	175	155	1.9	7.9	8.8	7.1
예술및여가	10	16	54	-9	3.8	5.9	18.7	-2.6
기타개인서비스	-9	34	-30	-49	-1.2	4.7	-4.0	-6.7
가구내고용 등	-2	-13	42	22	-3.7	-25.0	107.7	27.2
국제기구	-3	-5	2	8	-17.6	-35.7	22.2	72.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3〉 임금노동자의 산업별 규모 및 비중 변화

(단위: 천명, %, %p,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8		2020.8		증감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임금노동자	20,559	100.0	20,446	100.0	-113	0.0
농림어업	123	0.6	120	0.6	-3	0.0
광업	12	0.1	11	0.1	-1	0.0
제조업	3,946	19.2	3,930	19.2	-16	0.0
전기가스증기	71	0.3	71	0.4	0	0.1
수도하수	132	0.6	142	0.7	10	0.1
건설업	1,627	7.9	1,662	8.1	35	0.2
도소매업	2,253	11.0	2,172	10.6	-81	-0.4
운수창고	808	3.9	813	4.0	5	0.1
숙박음식	1,446	7.0	1,306	6.4	-140	-0.6
정보·통신	777	3.8	771	3.8	-6	0.0
금융·보험	761	3.7	749	3.7	-12	0.0
부동산업	406	2.0	363	1.8	-43	-0.2
전문·과학기술	996	4.8	986	4.8	-10	0.0
사업관리지원임대	1,241	6.0	1,274	6.2	33	0.2
공공행정	1,079	5.2	1,134	5.6	55	0.4
교육서비스	1,548	7.5	1,482	7.3	-66	-0.2
보건사회복지	2,173	10.6	2,328	11.4	155	0.8
예술·문화·여가	343	1.7	334	1.6	-9	-0.1
기타개인서비스	726	3.5	677	3.3	-49	-0.2
가구내고용 등	81	0.4	103	0.5	22	0.1
국제기구	11	0.1	19	0.1	8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2) 산업별 특성별 고용변화

보고서의 표의 수치를 설명함에 있어 노동자 수를 중심으로 한 규모 변화와 비중을 나타내는 분포의 증감 방향은 일치하지 않는다. 규모는 노동자 수 증가와 감소이고, 분포는 규모 변화에 따른 업종 내 할당된 크기이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업종 내 여성이 증가하거나 남성이 감소하게 되면, 여성 비중은 증가하고, 여성이 감소하거나 남성이 증가하면 여성 비중은 감소하게 된다. 해당 값의 상호작용에 의해 규모와 비중의 증감이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함에 유의해야 한다.

### ① 성별 고용영향

고용 감소가 컸던 업종들이 대체로 여성 집중업종이다 보니 20년 고용충격은 여성에게 더 크게 작용하였다.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에서 남녀 모두 크게 줄었고, 도소매업에서는 여성의 감소가 컸으며, 고용이 증가한 보건사회복지업과 공공행정업에서는 주로 여성 위주로 고용이 증가하였다. 특히, 보건사회복지업에서는 남녀 모두 증가하였지만 여성의 증가가 남성보다 월등히 많았고, 공공행정업은 남성의 가시적인 증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행정업의 여성 비중은 더욱 커졌다.

2020년 8월 기준, 임금노동자 중 여성은 전년 동기 대비 7만 8천명(-0.2%p) 감소하였고, 남성은 3만 5천명(+0.2%p) 감소하였다. 업종별로 여성 고용은 숙박·음식업(-6만 5천명), 도소매업(-6만 3천명), 교육서비스업(-6만 2천명), 기타개인서비스업(-3만 6천명), 정보·통신업(-3만 1천명), 금융보험업(-2만 2천명), 사업관리지원임대업(-2만 명)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업(+13만 명), 공공행정업(+5만 4천명), 운수창고업(+2만 4천명), 가구내고용업(+2만 3천명)에서는 크게 증가하였다.

남성은 숙박·음식업(-7만 5천명), 부동산업(-3만 2천명), 운수창고업(-1만 9천명), 도소매업(-1만 8천명), 전문·과학·기술업(-1만 5천명), 기타개인서비스업(-1만 4천명), 제조업(-1만 1천명)에서 감소가 컸고, 반대로 사업관리지

원임대업(+5만 3천명), 건설업(+3만 명), 정보·통신업(+2만 5천명), 보건사회복지업(+2만 5천명)에서는 증가하였다.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에서 남녀 모두 크게 줄었지만, 특히, 도소매업에서 여성 감소가 컸고, 보건사회복지업에서는 남녀 모두 증가하였지만 여성의 증가가 남성보다 월등히 많았다.

성별 고용 우위 업종을 보면, 남성의 고용 우위 업종은 건설업(89.2%), 수도하수업(85.3%), 전기·가스·증기업(84.6%), 광업(84.6%), 운수창고업(79.1%), 정보·통신업(73.3%), 제조업(71.5%) 등이고, 여성은 가구내고용업(96.7%), 보건사회복지업(83.1%), 교육서비스업(65.8%), 숙박·음식업(66.6%), 금융·보험업(53.3%), 예술및여가업(52.7%) 등으로 남녀 간 고용 우위 업종의 차이가 뚜렷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충격은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들 업종은 대체로 여성 우위 업종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충격이 미친 성별 고용변동의 영향은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여성은 86만 9천명(66.6%)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 5천명 감소하였으나 숙박·음식업의 여성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2.0%p 더 증가하였고, 이에 반해 남성은 43만 7천명(33.4%)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만 5천명(-2.0%p) 감소하였다.

도소매업 여성은 103만 6천명(47.7%)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 3천명(-1.1%p) 감소하였고, 남성은 113만 6천명(52.3%)으로 역시 1만 8천명(+1.1%p) 감소하였지만 도소매업의 남성 비중은 증가하였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여성은 97만 5천명(65.8%)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 2천명(-1.1%p) 감소하였고, 남성은 50만 7천명(34.2%)으로 5천명

(+1.1%p) 감소하였으며, 기타개인서비스업 여성은 29만 2천명(43.2%)로 3만 6천명(-2.0%p) 감소하였고, 남성은 38만 4천명(56.8%)으로 1만 4천명(+2.0%p) 감소하였다. 고용 감소가 컸던 대면 서비스업에서 대부분 여성의 감소가 남성보다 컸다.

한편, 2020년 고용이 증가한 보건사회복지업과 공공행정업에서는 여성 위주로 증가하였다. 이 중 보건사회복지업의 여성은 193만 4천명(83.1%)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 명(+0.1%p) 증가하여 여성 비중이 높아졌고, 남성은 39만 4천명(16.9%)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5천명(-0.1%p) 증가하였음에도 보건사회복지업의 남성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 외에 공공행정업에서 여성은 50만 1천명(44.2%)로 전년 동기 대비 5만 4천명(+2.8%p) 증가하였고, 남성의 가시적인 증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행정업 전체로 봤을 때 여성 비중은 증가하였다.

반면, 남성은 사업관리지원임대업에서 73만 1천명(57.4%)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 3천명(+2.8%p) 증가하였고, 건설업에서 158만 3천명(89.2%)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명(+0.1%p) 증가하였으며, 정보·통신업에서 56만 5천명(73.3%)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5천명(+3.8%p)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여성 일자리가 기존의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대면서비스업에서 보건사회복지업, 공공행정업 서비스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나 여성 고용이 단기적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성 고용의 양과 질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표 5-4〉 산업별 성별 규모 변화

(단위: 천명,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8		2020.8		증감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임금노동자	9,163	11,396	9,085	11,361	-78	-35
농림어업	58	65	48	72	-10	7
광업	2	10	2	9	0	-1
제조업	1,123	2,823	1,119	2,812	-4	-11
전기가스증기	8	63	11	60	3	-3
수도하수	22	110	21	121	-1	11
건설업	173	1,453	179	1,483	6	30
도소매업	1,099	1,154	1,036	1,136	-63	-18
운수창고	146	662	170	643	24	-19
숙박음식	934	512	869	437	-65	-75
정보·통신	237	540	206	565	-31	25
금융·보험	421	339	399	350	-22	11
부동산업	141	265	130	233	-11	-32
전문·과학기술	362	633	367	618	5	-15
사업관리지원임대	563	678	543	731	-20	53
공공행정	447	633	501	633	54	0
교육서비스	1,037	512	975	507	-62	-5
보건사회복지	1,804	369	1,934	394	130	25
예술및여가	179	164	176	158	-3	-6
기타개인서비스	328	398	292	384	-36	-14
가구내고용 등	76	5	99	3	23	-2
국제기구	3	8	7	12	4	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5〉 산업별 성별 비중 변화

(단위: %, %p,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8		2020.8		증감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임금노동자	44.6	55.4	44.4	55.6	-0.2	0.2
농림어업	47.4	52.6	40.3	59.7	-7.1	7.1
광업	12.9	87.1	15.5	84.6	2.6	-2.5
제조업	28.5	71.5	28.5	71.5	0.0	0.0
전기가스증기	11.4	88.6	15.4	84.6	4.0	-4.0
수도하수	16.9	83.1	14.7	85.3	-2.2	2.2
건설업	10.7	89.3	10.8	89.2	0.1	-0.1
도소매업	48.8	51.2	47.7	52.3	-1.1	1.1
운수창고	18.0	82.0	20.9	79.1	2.9	-2.9
숙박음식	64.6	35.4	66.6	33.4	2.0	-2.0
정보·통신	30.5	69.5	26.7	73.3	-3.8	3.8
금융·보험	55.4	44.6	53.3	46.7	-2.1	2.1
부동산업	34.7	65.3	35.8	64.2	1.1	-1.1
전문·과학기술	36.4	63.6	37.3	62.7	0.9	-0.9
사업관리지원임대	45.4	54.6	42.6	57.4	-2.8	2.8
공공행정	41.4	58.6	44.2	55.8	2.8	-2.8
교육서비스	66.9	33.1	65.8	34.2	-1.1	1.1
보건사회복지	83.0	17.0	83.1	16.9	0.1	-0.1
예술·문화·여가	52.1	47.9	52.7	47.3	0.6	-0.6
기타개인서비스	45.2	54.8	43.2	56.8	-2.0	2.0
가구내고용 등	94.4	5.6	96.7	3.3	2.3	-2.3
국제기구	25.4	74.6	38.3	61.7	12.9	-12.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② 연령계층별 고용영향

연령별로는 20~30대 청년층의 고용불안이 심화되었는데,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 대부분 업종에서 20대 후반의 감소가 컸고, 기타개인서비스업 30~40대, 제조업 30대가 감소한 반면 보건사회복지업에서는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연령계층별 고용변동 특징은 대체적으로 50대 미만 노동자의 고용은 감소하고 50대 이상에서는 증가한 점이다. 50대 미만 가운데, 특히 30대 후반과 20대 후반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고, 고용 증가는 60세 이상에서 두드러졌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20대 후반은 15만 6천명(11.9%)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8천명(-2.2%p) 감소하였고, 50대 초반은 12만 4천명(9.5%)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6천명(-1.6%p) 감소하였으며, 30대 초반은 9만 8천명(7.5%)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5천명(-1.0%p) 감소하였다. 전 연령층에서 감소하였지만 특히 20대 청년층의 감소가 컸다.

도소매업 역시 20대 후반은 27만 3천명(12.6%)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7천명(-1.2%p) 감소하였고, 40대 초반은 25만 3천명(11.7%)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4천명(-0.6%p) 감소하였다.

교육서비스업은 20대 후반이 16만 6천명(11.2%)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 1천명(-2.8%p) 감소하였고, 30대 후반은 16만 3천명(11.0%)으로 4만 2천명(-2.2%p) 감소하여 20대 후반과 30대 후반에서 감소가 컸다.

기타개인서비스업에서 30대 초반은 5만 7천명(8.5%)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6천명(-1.6%p) 감소하였고, 40대 후반은 7만 7천명(11.4%)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6천명(-1.5%p) 감소하였다.

제조업은 30대 초반이 47만 4천명(12.1%)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1천명(-0.4%p) 감소하였고, 30대 후반은 58만 8천명(15.0%)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명(-0.7%p) 감소하여 30대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대체로 고용 감소는 20~30대 청년층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표 5-6〉 산업별 연령계층별 규모 변화

(단위: 천명, 전년 동기 대비)

구분	임금 노동자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가 가스 증기	수도 하수	건설업	도소 매업	운수 창고	숙박 음식	정보 통신	
'20. 08	15-19세	164	0	0	19	0	0	5	25	6	77	2
	20-24세	1,182	2	1	134	2	1	37	181	25	288	30
	25-29세	2,217	12	1	393	7	7	114	273	77	156	133
	30-34세	2,186	9	0	474	9	16	123	283	79	98	156
	35-39세	2,295	14	0	588	4	11	147	276	76	78	117
	40-44세	2,347	9	2	537	10	11	189	253	89	81	114
	45-49세	2,553	13	0	553	10	20	245	286	92	106	102
	50-54세	2,413	9	1	509	14	28	266	243	115	124	59
	55-59세	2,088	10	1	417	14	15	271	165	127	150	37
	60-64세	1,399	15	2	193	1	20	182	96	76	104	9
	65세 이상	1,603	26	2	114	1	12	82	89	51	46	10
전체	20,446	120	11	3,930	71	142	1,662	2,172	813	1,306	771	
'19. 08	15-19세	194	0	0	17	0	0	6	26	1	92	4
	20-24세	1,235	9	1	150	2	0	42	190	31	277	45
	25-29세	2,320	9	0	372	12	8	101	310	71	204	138
	30-34세	2,208	10	1	495	8	20	108	283	62	123	150
	35-39세	2,482	7	1	618	7	13	146	277	85	76	134
	40-44세	2,384	8	4	531	8	15	199	277	76	94	97
	45-49세	2,594	12	0	553	15	21	266	301	98	123	100
	50-54세	2,378	13	2	516	10	11	257	256	123	160	65
	55-59세	2,057	13	3	405	7	26	253	172	126	151	29
	60-64세	1,288	12	1	183	3	12	176	91	91	101	10
	65세 이상	1,418	30	1	106	1	6	73	68	43	46	5
전체	20,559	123	12	3,946	71	132	1,627	2,253	808	1,446	777	
증감	15-19세	-30	0	0	2	0	0	-1	-1	5	-15	-2
	20-24세	-53	-7	0	-16	0	1	-5	-9	-6	11	-15
	25-29세	-103	3	1	21	-5	-1	13	-37	6	-48	-5
	30-34세	-22	-1	-1	-21	1	-4	15	0	17	-25	6
	35-39세	-187	7	-1	-30	-3	-2	1	-1	-9	2	-17
	40-44세	-37	1	-2	6	2	-4	-10	-24	13	-13	17
	45-49세	-41	1	0	0	-5	-1	-21	-15	-6	-17	2
	50-54세	35	-4	-1	-7	4	17	9	-13	-8	-36	-6
	55-59세	31	-3	-2	12	7	-11	18	-7	1	-1	8
	60-64세	111	3	1	10	-2	8	6	5	-15	3	-1
	65세 이상	185	-4	1	8	0	6	9	21	8	0	5
전체	-113	-3	-1	-16	0	10	35	-81	5	-140	-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6〉 산업별 연령계층별 규모 변화(계속)

(단위: 천명, 전년 동기 대비)

구분	금융 보험	부동 산업	전문 과학 기술	사업관 리지원 임대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	보건 사회 복지	예술및 여가	기타 개인 서비스	가구내 고용 등	국제 기구	
'20. 08	15-19세	0	0	1	1	2	9	3	7	5	0	0
	20-24세	14	5	52	52	16	107	124	68	42	0	1
	25-29세	81	22	165	107	87	166	303	44	68	0	2
	30-34세	96	11	156	104	113	165	197	36	57	1	1
	35-39세	101	23	153	129	108	163	194	37	72	4	0
	40-44세	116	41	133	127	111	207	192	37	81	2	3
	45-49세	140	44	119	106	142	213	247	28	77	4	4
	50-54세	81	57	76	121	160	189	233	28	83	12	2
	55-59세	76	34	46	141	119	141	225	17	61	15	4
	60-64세	28	52	55	149	64	70	172	15	67	29	1
65세 이상	16	74	29	235	211	51	438	17	62	34	2	
전체	749	363	986	1274	1,134	1,482	2,328	334	677	103	19	
'19. 08	15-19세	1	0	5	7	1	13	2	14	3	2	0
	20-24세	27	3	45	47	22	98	134	78	36	0	0
	25-29세	80	25	172	110	84	217	272	60	75	0	0
	30-34세	94	18	174	97	103	161	205	22	73	0	1
	35-39세	124	28	183	112	129	205	223	35	80	0	0
	40-44세	108	54	118	124	116	214	217	32	90	1	2
	45-49세	137	54	120	105	120	217	227	29	93	2	1
	50-54세	80	50	75	121	141	172	213	29	74	7	3
	55-59세	67	52	53	152	114	146	191	17	71	10	2
	60-64세	28	46	31	150	46	53	148	14	63	28	0
65세 이상	15	76	21	217	205	53	341	13	67	31	1	
전체	761	406	996	1,241	1,079	1,548	2,173	343	726	81	10	
증감	15-19세	-1	0	-4	-6	1	-4	1	-7	2	-2	0
	20-24세	-13	2	7	5	-6	9	-10	-10	6	0	1
	25-29세	1	-3	-7	-3	3	-51	31	-16	-7	0	2
	30-34세	2	-7	-18	7	10	4	-8	14	-16	1	0
	35-39세	-23	-5	-30	17	-21	-42	-29	2	-8	4	0
	40-44세	8	-13	15	3	-5	-7	-25	5	-9	1	1
	45-49세	3	-10	-1	1	22	-4	20	-1	-16	2	3
	50-54세	1	7	1	0	19	17	20	-1	9	5	-1
	55-59세	9	-18	-7	-11	5	-5	34	0	-10	5	2
	60-64세	0	6	24	-1	18	17	24	1	4	1	1
65세 이상	1	-2	8	18	6	-2	97	4	-5	3	1	
전체	-12	-43	-10	33	55	-66	155	-9	-49	22	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7〉 산업별 연령계층별 비중 변화

(단위: %, %p, 전년 동기 대비)

구분	임금 노동자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가 가스 증기	수도 하수	건설업	도소 매업	운수 창고	숙박 음식	정보 통신	
'20. 08	15-19세	0.8	0.0	0.0	0.5	0.0	0.0	0.3	1.2	0.8	5.9	0.2
	20-24세	5.8	2.1	5.4	3.4	2.6	0.4	2.3	8.4	3.1	22.0	3.9
	25-29세	10.8	9.7	5.1	10.0	9.9	5.1	6.9	12.6	9.4	11.9	17.3
	30-34세	10.7	7.2	3.6	12.1	12.7	11.6	7.4	13.1	9.7	7.5	20.3
	35-39세	11.2	11.8	3.8	15.0	5.4	8.1	8.9	12.7	9.4	6.0	15.2
	40-44세	11.5	7.4	17.1	13.7	14.6	7.7	11.4	11.7	10.9	6.2	14.9
	45-49세	12.5	11.1	3.6	14.1	13.6	14.0	14.7	13.2	11.4	8.1	13.2
	50-54세	11.8	7.6	11.7	13.0	19.9	19.7	16.0	11.2	14.1	9.5	7.7
	55-59세	10.2	8.2	12.2	10.6	19.3	10.7	16.3	7.6	15.6	11.5	4.9
	60-64세	6.8	12.9	19.3	4.9	0.8	14.2	10.9	4.4	9.3	8.0	1.1
	65세 이상	7.8	21.9	18.4	2.9	1.1	8.4	5.0	4.1	6.3	3.5	1.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 08	15-19세	0.9	0.0	0.0	0.4	0.0	0.0	0.4	1.2	0.1	6.4	0.5
	20-24세	6.0	7.3	5.9	3.8	2.5	0.0	2.6	8.4	3.8	19.2	5.8
	25-29세	11.3	7.1	0.0	9.4	16.9	5.9	6.2	13.8	8.8	14.1	17.8
	30-34세	10.7	8.5	4.9	12.5	11.1	15.4	6.6	12.6	7.7	8.5	19.3
	35-39세	12.1	5.9	6.4	15.7	9.6	9.8	9.0	12.3	10.5	5.2	17.3
	40-44세	11.6	6.4	29.6	13.5	11.5	11.5	12.3	12.3	9.5	6.5	12.5
	45-49세	12.6	9.7	3.3	14.0	20.5	16.0	16.3	13.4	12.2	8.5	12.9
	50-54세	11.6	10.6	15.2	13.1	14.1	8.0	15.8	11.4	15.3	11.1	8.4
	55-59세	10.0	10.6	22.3	10.3	9.3	19.8	15.5	7.6	15.6	10.4	3.7
	60-64세	6.3	9.6	7.8	4.6	3.6	9.2	10.8	4.0	11.3	7.0	1.2
	65세 이상	6.9	24.4	4.7	2.7	1.0	4.5	4.5	3.0	5.4	3.2	0.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증감	15-19세	-0.1	0.0	0.0	0.1	0.0	0.0	-0.1	0.0	0.7	-0.5	-0.3
	20-24세	-0.2	-5.2	-0.5	-0.4	0.1	0.4	-0.3	0.0	-0.7	2.8	-1.9
	25-29세	-0.5	2.6	5.1	0.6	-7.0	-0.8	0.7	-1.2	0.6	-2.2	-0.5
	30-34세	0.0	-1.3	-1.3	-0.4	1.6	-3.8	0.8	0.5	2.0	-1.0	1.0
	35-39세	-0.9	5.9	-2.6	-0.7	-4.2	-1.7	-0.1	0.4	-1.1	0.8	-2.1
	40-44세	-0.1	1.0	-12.5	0.2	3.1	-3.8	-0.9	-0.6	1.4	-0.3	2.4
	45-49세	-0.1	1.4	0.3	0.1	-6.9	-2.0	-1.6	-0.2	-0.8	-0.4	0.3
	50-54세	0.2	-3.0	-3.5	-0.1	5.8	11.7	0.2	-0.2	-1.2	-1.6	-0.7
	55-59세	0.2	-2.4	-10.1	0.3	10.0	-9.1	0.8	0.0	0.0	1.1	1.2
	60-64세	0.5	3.3	11.5	0.3	-2.8	5.0	0.1	0.4	-2.0	1.0	-0.1
	65세 이상	0.9	-2.5	13.7	0.2	0.1	3.9	0.5	1.1	0.9	0.3	0.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7〉 산업별 연령계층별 비중 변화(계속)

(단위: %, %p, 전년 동기 대비)

구분	금융 보험	부동산 업	전문 과학 기술	사업관 리지원 임대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	보건 사회 복지	예술및 여가	기타 개인 서비스	가구내 고용 등	국제 기구	
'20. 08	15-19세	0.0	0.0	0.1	0.1	0.2	0.6	0.1	2.1	0.8	0.0	0.0
	20-24세	1.8	1.5	5.3	4.1	1.4	7.2	5.3	20.4	6.3	0.0	3.5
	25-29세	10.8	6.0	16.7	8.4	7.7	11.2	13.0	13.2	10.1	0.4	8.3
	30-34세	12.8	3.2	15.9	8.2	10.0	11.1	8.5	10.8	8.5	0.9	7.8
	35-39세	13.4	6.3	15.5	10.2	9.6	11.0	8.3	11.0	10.6	3.5	0.0
	40-44세	15.5	11.2	13.5	10.0	9.8	14.0	8.3	11.0	12.0	2.4	15.1
	45-49세	18.8	12.1	12.1	8.4	12.5	14.4	10.6	8.5	11.4	4.2	21.5
	50-54세	10.9	15.8	7.8	9.5	14.1	12.7	10.0	8.5	12.3	12.0	11.7
	55-59세	10.2	9.3	4.7	11.1	10.5	9.5	9.7	5.1	9.1	15.1	21.1
	60-64세	3.7	14.2	5.6	11.7	5.7	4.7	7.4	4.4	9.9	28.6	3.1
	65세 이상	2.2	20.5	2.9	18.5	18.6	3.5	18.8	5.2	9.2	32.9	8.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 08	15-19세	0.1	0.1	0.5	0.6	0.1	0.9	0.1	4.1	0.4	1.9	0.0
	20-24세	3.6	0.7	4.5	3.8	2.0	6.3	6.2	22.9	4.9	0.0	0.0
	25-29세	10.5	6.1	17.3	8.9	7.8	14.0	12.5	17.5	10.4	0.0	0.0
	30-34세	12.4	4.4	17.5	7.8	9.5	10.4	9.4	6.5	10.1	0.6	13.5
	35-39세	16.3	7.0	18.3	9.1	11.9	13.2	10.3	10.1	11.1	0.0	0.0
	40-44세	14.2	13.3	11.9	10.0	10.7	13.8	10.0	9.5	12.4	1.3	16.0
	45-49세	18.0	13.2	12.0	8.5	11.2	14.0	10.5	8.4	12.9	1.9	13.2
	50-54세	10.6	12.4	7.5	9.7	13.0	11.1	9.8	8.3	10.2	9.1	24.7
	55-59세	8.8	12.7	5.3	12.2	10.5	9.4	8.8	4.8	9.8	12.8	18.2
	60-64세	3.7	11.4	3.2	12.1	4.3	3.4	6.8	4.2	8.7	34.3	4.3
	65세 이상	2.0	18.7	2.1	17.5	19.0	3.4	15.7	3.8	9.3	38.1	10.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증감	15-19세	-0.1	-0.1	-0.4	-0.5	0.1	-0.3	0.0	-2.0	0.4	-1.9	0.0
	20-24세	-1.8	0.8	0.8	0.3	-0.6	0.9	-0.9	-2.5	1.4	0.0	3.5
	25-29세	0.3	-0.1	-0.6	-0.5	-0.1	-2.8	0.5	-4.3	-0.3	0.4	8.3
	30-34세	0.4	-1.2	-1.6	0.4	0.5	0.7	-0.9	4.3	-1.6	0.3	-5.7
	35-39세	-2.9	-0.7	-2.8	1.1	-2.3	-2.2	-2.0	0.9	-0.5	3.5	0.0
	40-44세	1.3	-2.1	1.6	0.0	-0.9	0.2	-1.7	1.5	-0.4	1.1	-0.9
	45-49세	0.8	-1.1	0.1	-0.1	1.3	0.4	0.1	0.1	-1.5	2.3	8.3
	50-54세	0.3	3.4	0.3	-0.2	1.1	1.6	0.2	0.2	2.1	2.9	-13
	55-59세	1.4	-3.4	-0.6	-1.1	0.0	0.1	0.9	0.3	-0.7	2.3	2.9
	60-64세	0.0	2.8	2.4	-0.4	1.4	1.3	0.6	0.2	1.2	-5.7	-1.2
	65세 이상	0.2	1.8	0.8	1.0	-0.4	0.1	3.1	1.4	-0.1	-5.2	-2.1
전체	-	-	-	-	-	-	-	-	-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총고용이 증가한 공공행정업 역시 30대 후반은 10만 8천명(9.6%)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1천명(-2.3%p) 감소하여 30대 후반의 감소가 컸고, 40대 후반은 14만 2천명(12.5%)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2천명(+1.3%p) 증가하였다.

보건사회복지업에서는 65세 이상이 43만 8천명(18.8%)으로 전년 동기 대비 9만 7천명(+3.1%p) 증가하였고, 50대 후반은 22만 5천명(9.7%)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4천명(+0.9%p) 증가하였다. 또한 20대 후반이 30만 3천명(13.0%)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1천명(+0.5%p) 증가하였다. 보건사회복지업에서 고연령층의 증가가 큰 것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와 자활근로 등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가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0년 고용변동이 심했던 연령층은 20대 후반으로, 이들은 주로 사회초년생으로서 인턴과 수습을 거쳐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 시기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청년들의 직장 진입과 직장 유지에 어려움이 심해져 청년층의 고용불안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보인다.

### ③ 종사상지위별 고용영향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되는 종사상 지위는 기업이 위기 시에 상용직에 비해 고용탄력성이 큰 임시·일용직을 줄이거나 늘림으로써 대응하기 때문에 경제 불안이나 외부충격이 있을 시 고용변동이 큰 지표이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고용조정 역시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의 고용 감소는 임시·일용직이 많았고, 보건사회복지업, 공공행정업, 가구내고용업의 고용 증가 역시 임시·일용

직에서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고용조정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임금노동자 중 상용직은 늘고 임시·일용직은 감소하였는데, 먼저, 상용직 변동을 보면, 상용직은 사업관리지원임대업(+7만 6천명), 보건사회복지업(+6만 9천명), 건설업(+5만 6천명), 제조업(+5만 2천명), 교육서비스업(+3만 7천명), 예술및여가업(+1만 8천명), 금융·보험업(+1만 1천명)에서 증가하였고, 반면, 도소매업(-1만 9천명), 기타개인서비스업(-1만 9천명), 정보·통신업(-1만 7천명)에서 감소하였다.

한편, 임시·일용직은 대부분 업종에서 감소하였는데, 특히, 숙박·음식업(임시직 -11만 4천명, 일용직 -1만 5천명), 교육서비스업(임시직 -9만 3천명), 도소매업(임시직 -7만 3천명), 제조업(임시직 -5만 1천명, 일용직 -1만 6천명), 부동산업(임시직 -4만 5천명), 기타개인서비스업(임시직 -4만 5천명), 건설업(일용직 -3만 9천명), 사업관리지원임대업(임시직 -3만 1천명), 금융·보험업(임시직 -2만 1천명), 예술및여가업(임시직 -2만 1천명)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업(임시직 +8만 4천명), 공공행정업(임시직 +5만 2천명), 가구내고용업(임시직 +2만 6천명), 건설업(임시직 +1만 8천명), 기타개인서비스업(일용직 +1만 4천명), 도소매업(일용직, 1만 1천명), 운수창고(일용직 +9천명)에서는 임시·일용직이 증가하였다. 이 중 보건사회복지업, 공공행정업, 가구내고용업에서는 임시직 증가가 컸고, 기타개인서비스업과 도소매업에서는 일용직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종합하면,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기타개인서비스업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모두 감소하였고, 사업관리지원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운수창고업, 예술및여가업에서는 상용직은 증가하

고, 임시·일용직은 감소하였으며, 보건사회복지업, 수도하수업, 공공행정업, 가구내고용업에서는 상용직, 임시·일용직 모두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상용직은 증가하고, 임시·일용직이 감소한 경우는 제조업, 사업관리지원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예술및여가업으로 이 가운데, 제조업은 상용직이 351만 3천명(89.4%)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 2천명(+1.7%p) 증가하였고, 임시직은 32만 4천명(8.2%)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 1천명(-1.3%p) 감소하였으며, 일용직은 9만 3천명(2.4%)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6천명(-0.4%p) 감소하여 상용직 증가 규모보다 임시·일용직 감소가 컸다.

사업관리지원임대업 역시 상용직 91만 2천명(71.6%)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만 6천명(+4.2%p) 증가하였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만 1천명(-3.0%p), 1만 3천명(-1.2%p) 감소하였다.

한편, 교육서비스업은 상용직이 107만 2천명(72.3%)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7천명(+5.4%p) 증가하였고, 임시직은 40만 5천명(27.3%)으로 전년 동기 대비 9만 3천명(-4.9%p) 감소하였으며, 일용직은 5천명(0.4%)으로 1만 1천명(-0.6%p) 감소하면서 상용직은 증가한 반면 임시직은 감소하였다.

둘째,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모두 감소한 경우로, 숙박음식업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모두 감소하였고, 도소매업과 기타개인서비스업에서는 상용직과 임시직이 감소하였다. 특히, 숙박음식업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63.9%로 높고 상용직 비중은 낮다. 상용직은 47만 2천명(36.2%)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1천명(+2.8%p) 감소하였고, 임시직은 64만 5천명(49.4%)으로 모든 업종을 망라하여 가장 많은 11만 4천명(-3.1%p)이 감소했다. 일용직은 18만 9천명(14.5%)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5천명(+0.4%p) 감소하였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임시직 감소가 커서 종사상 지위별 비중으로는 상용직과 일용직 비

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개인서비스업은 상용직이 41만 8천명(61.7%)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9천명(+1.6%p) 감소하였고, 임시직이 20만 명(29.6%)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5천명(-4.1%p) 감소하였으며, 일용직은 5만 9천명(8.7%)으로 1만 4천명(+2.5%p) 증가하였으나 임시직 감소가 컸다.

도소매업 역시 상용직과 임시직 감소가 컸고, 일용직은 증가하였다. 상용직은 149만 명(68.6%)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9천명(+1.6%p) 감소하였고, 임시직은 55만 6천명(25.6%)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만 3천명(-2.3%p) 감소하였으며, 일용직은 12만 6천명(5.8%)으로 1만 1천명(+0.7%p) 증가하였다.

셋째,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이 모두 증가한 업종으로 보건사회복지업, 수도하수업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이 모두 증가하였고 공공행정업과 가구내 고용업은 상용직과 임시직이 증가하였다. 이중 보건사회복지업 상용직은 169만 1천명(72.6%)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 9천명(-2.1%p) 증가하였고, 임시직은 62만 6천명(26.9%)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 4천명(+1.9%p) 증가하였으며, 일용직은 1만 2천명(0.5%)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명(+0.1%p) 증가하였다. 업종 내 임시·일용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보건사회복지업의 상용직 비중은 감소하였다.

공공행정업은 상용직이 76만 1천명(67.1%)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천명(-2.9%p) 증가하였고, 임시직은 36만 9천명(32.6%)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 2천명(+3.2%p) 증가하였다.

한편, 가구내고용업은 상용직이 1천명(1.1%)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천명(+1.1%p) 증가하였고, 임시직은 8만 9천명(86.4%)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6천명(+8.2%p) 증가하였다.

종사상 지위 측면에서 코로나19의 충격은 고용불안이 큰 계층의 고용안정성을 더욱 떨어뜨린 것으로 보인다. 농림어업, 건설업, 숙박음식업, 예술및여가업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다. 농림어업의 임시·일용직은 70.0%에 달하고, 건설업은 임시직과 일용직 비중이 각각 16.1%, 36.5%로 일용직의 비중이 특히 높으며, 숙박음식업은 임시, 일용직이 각각 49.4%, 14.5%로 임시직이 고용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예술및여가업 역시 임시, 일용직이 각각 44.8%, 7.9%로 임시직 비중이 많다.

〈표 5-8〉 산업별 종사상 지위별 규모 변화

(단위: 천명,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8			2020.8			2019년 대비 증감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임금노동자	14,288	4,857	1,415	14,570	4,539	1,337	282	-318	-78
농림어업	34	43	45	36	44	40	2	1	-5
광업	12	0	0	10	0	1	-2	0	1
제조업	3,461	375	109	3,513	324	93	52	-51	-16
전기·가스·증기	69	2	0	66	5	1	-3	3	1
수도·하수	118	11	2	125	14	3	7	3	1
건설업	732	250	645	788	268	606	56	18	-39
도소매업	1,509	629	115	1,490	556	126	-19	-73	11
운수·창고	635	130	43	644	117	52	9	-13	9
숙박·음식	483	759	204	472	645	189	-11	-114	-15
정보·통신	722	51	4	705	60	5	-17	9	1
금융·보험	509	248	4	520	227	2	11	-21	-2
부동산업	263	132	11	268	87	7	5	-45	-4
전문·과학기술	903	84	9	903	75	8	0	-9	-1
사업관리·지원업·대	836	307	98	912	276	85	76	-31	-13
공공행정	755	317	7	761	369	4	6	52	-3
교육서비스	1,035	498	16	1,072	405	5	37	-93	-11
보건·사회복지	1,622	542	9	1,691	626	12	69	84	3
예술·및·여가	140	171	33	158	150	26	18	-21	-7
기타·개인서비스	437	245	45	418	200	59	-19	-45	14
가내·고용 등	0	63	18	1	89	13	1	26	-5
국제기구	10	1	0	16	3	0	6	2	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9〉 산업별 종사상 지위별 분포 변화

(단위: %, %p,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8			2020.8			2019년 대비 증감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임금노동자	69.5	23.6	6.9	71.3	22.2	6.5	1.8	-1.4	-0.4
농림어업	28.1	35.1	36.8	30.0	36.8	33.2	1.9	1.7	-3.6
광업	100.0	0.0	0.0	92.4	0.0	7.6	-7.6	0.0	7.6
제조업	87.7	9.5	2.8	89.4	8.2	2.4	1.7	-1.3	-0.4
전기가스증기	97.4	2.7	0.0	92.7	6.6	0.8	-4.7	3.9	0.8
수도하수	89.7	8.6	1.7	88.0	9.9	2.1	-1.7	1.3	0.4
건설업	45.0	15.4	39.6	47.4	16.1	36.5	2.4	0.7	-3.1
도소매업	67.0	27.9	5.1	68.6	25.6	5.8	1.6	-2.3	0.7
운수창고	78.7	16.0	5.3	79.2	14.5	6.4	0.5	-1.5	1.1
숙박음식	33.4	52.5	14.1	36.2	49.4	14.5	2.8	-3.1	0.4
정보·통신	92.9	6.6	0.5	91.5	7.8	0.7	-1.4	1.2	0.2
금융·보험	66.9	32.5	0.6	69.4	30.3	0.3	2.5	-2.2	-0.3
부동산업	64.9	32.5	2.6	73.9	24.1	2.0	9.0	-8.4	-0.6
전문·과학기술	90.7	8.5	0.9	91.6	7.6	0.8	0.9	-0.9	-0.1
사업관리지원업	67.4	24.7	7.9	71.6	21.7	6.7	4.2	-3	-1.2
공공행정	70.0	29.4	0.7	67.1	32.6	0.3	-2.9	3.2	-0.4
교육서비스	66.9	32.2	1.0	72.3	27.3	0.4	5.4	-4.9	-0.6
보건사회복지	74.7	25.0	0.4	72.6	26.9	0.5	-2.1	1.9	0.1
예술및여가	40.8	49.8	9.5	47.3	44.8	7.9	6.5	-5.0	-1.6
기타개인서비스	60.1	33.7	6.2	61.7	29.6	8.7	1.6	-4.1	2.5
가구내고용 등	0.0	78.2	21.9	1.1	86.4	12.6	1.1	8.2	-9.3
국제기구	95.2	4.8	0.0	83.8	16.2	0.0	-11.4	11.4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결과적으로 2020년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임시직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임시직 위주로 전체 고용이 감소하였고, 새로운 일자리 역시 보건사회복지업, 공공행정업, 가구내고용업 등에서 임시·일용직 위주로 만들어지면서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의 임시·일용직이 감소하는 대신 보건사회복지업과 공공행정업, 가구내고용업에서 임시·일용

직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 ④ 기업규모별 고용영향

한국의 경우 특히, 사업체 규모에 따라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도와 양상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업규모는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임금 노동자의 고용 감소는 주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업종을 고려하면, 보건사회복지업, 공공행정업, 가구내고용업, 제조업에서는 1-4인 규모에서도 고용이 증가하였다. 특히 보건사회복지업은 대체로 전규모에서 증가하였다.

10인 미만 소규모 업체가 많고 2020년 고용변동이 컸던 숙박음식업은 전년 동기 대비 업종 전체 총 14만 명의 고용 감소가 있었다. 이 중 30-99인(+8천명) 규모를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감소하였다. 규모별로 5-9인에서 6만 4천명(-1.4%p)이 감소하였고, 1-4인 규모에서 5만 7천명(+0.5%p)이 감소하였으며, 10-29인에서 4천명(+1.1%p), 100-299인에서 9천명(-0.5%p), 300인 이상 규모에서 1만 4천명(-0.8%p)이 감소하여 대부분의 규모에서 고용 감소가 있었지만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감소가 컸다. 이로 인해 숙박음식업의 10인 미만 비중은 2019년 77.9%에서 2020년 77.0%로 0.9%p 감소하였다.

도소매업 역시 1-4인 규모에서 1만 명(+0.8%p)이 감소하였고, 5-9인 4만 3천명(-1.2%p) 감소하였으며, 100-299인 2만 6천명(-1.0%p) 감소하였고, 300인 이상에서 1만 2천명(-0.4%p) 감소하여 10인 미만 규모에서만 5만 3천명에 달하는 절반 이상이 감소하였다.

교육서비스업은 업종 전체 총 6만 6천명의 감소가 있었는데, 이 중 1-4인

규모에서 2만 5천명(-1.2%p), 5-9인 규모 3만 4천명(-1.8%p), 10-29인 2만 명(-0.6%p) 등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6만 6천명이 모두 감소하였다.

이외에 기타개인서비스업에서는 총 4만 9천명이 감소했는데, 이 중 1-4인에서 4만 6천명(-3.7%p)이 감소하였고, 5-9인에서 1만 4천명(-0.7%p)이 감소하여 100인 이상 규모에서는 미미하게나마 고용이 증가하였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업종 전체로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도 규모별로 서로 다른 증감을 발견할 수 있다. 사업관리지원임대업은 업종 전체로 보면 총고용이 3만 3천명 증가했지만 1-4인 규모에서는 3만 5천명(-3.2%p)이 감소하였고, 대체로 고용 증가는 30인 이상 규모에서 있었다.

건설업 역시 10인 미만 규모에서 5만 2천명이 감소하였고, 10인 이상 규모에서는 고용이 증가하여 건설업 전체로 총 3만 5천 명이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의 충격은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한 고용 감소를 가져왔다. 업종 전체로 고용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소규모 업체에서는 고용이 감소하였고, 대부분 고용 증가는 일정 규모 이상에서 일어났다. 사업체 규모는 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에 있어 중요한 원인이다. 자본력과 경쟁에 취약한 소규모 업체 노동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고용충격에 대비해 소규모 업체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5-10〉 산업별 기업규모별 노동자 수 변화

(단위: 천명, 전년 동기 대비)

구분	임금 노동자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가 가스 증기	수도 하수	건설업	도소매 업	운수 창고	숙박 음식	정보 통신	
'20. 08	1-4인	3,648	59	1	264	0	9	319	809	80	601	51
	5-9인	3,511	36	2	448	3	18	490	454	65	405	79
	10-29인	4,611	16	6	838	8	58	479	448	160	199	178
	30-99인	3,997	6	1	945	19	43	224	242	222	69	154
	100-299인	1,979	2	0	608	14	11	90	118	157	17	142
	300인 이상	2,700	0	1	828	27	2	60	100	129	15	166
	전체	20,446	120	11	3,930	71	142	1,662	2,172	813	1,306	771
'19. 08	1-4인	3,783	50	1	256	0	11	340	819	81	658	46
	5-9인	3,648	48	1	450	2	18	521	497	74	469	59
	10-29인	4,581	13	5	882	8	48	447	440	158	203	183
	30-99인	3,896	9	3	909	26	40	192	241	218	61	181
	100-299인	1,989	2	0	610	14	12	69	144	161	26	139
	300인 이상	2,661	0	1	839	22	2	58	112	116	29	168
	전체	20,559	123	12	3,946	71	132	1,627	2,253	808	1,446	777
증감	1-4인	-135	9	0	8	0	-2	-21	-10	-1	-57	5
	5-9인	-137	-12	1	-2	1	0	-31	-43	-9	-64	20
	10-29인	30	3	1	-44	0	10	32	8	2	-4	-5
	30-99인	101	-3	-2	36	-7	3	32	1	4	8	-27
	100-299인	-10	0	0	-2	0	-1	21	-26	-4	-9	3
	300인 이상	39	0	0	-11	5	0	2	-12	13	-14	-2
	전체	-113	-3	-1	-16	0	10	35	-81	5	-140	-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10〉 산업별 기업규모별 노동자 수 변화(계속)

(단위: 천명, 전년 동기 대비)

구분		금융 보험	부동 산업	전문 과학 기술	사업관 리지원 임대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	보건사 회복지	예술및 여가	기타 개인 서비스	가구내 고용 등	국제 기구
'20. 08	1-4인	34	106	118	209	95	119	307	96	268	103	0
	5-9인	53	111	178	295	74	144	475	59	122	0	1
	10-29인	255	87	189	335	223	254	621	93	163	0	1
	30-99인	220	34	155	249	183	664	429	48	79	0	9
	100-299인	72	13	102	96	145	125	203	29	32	0	2
	300인 이상	115	12	244	90	415	176	294	9	12	0	5
	전체	749	363	986	1,274	1,134	1,482	2,328	334	677	103	19
'19. 08	1-4인	36	112	125	244	88	144	279	100	314	81	0
	5-9인	49	138	160	261	54	178	476	55	136	0	0
	10-29인	264	91	204	346	192	274	570	84	165	0	1
	30-99인	226	38	160	215	169	663	399	61	81	0	3
	100-299인	78	10	95	90	163	120	205	25	24	0	2
	300인 이상	107	17	252	84	413	169	245	17	6	0	4
	전체	761	406	996	1,241	1,079	1,548	2,173	343	726	81	10
증감	1-4인	-2	-6	-7	-35	7	-25	28	-4	-46	22	0
	5-9인	4	-27	18	34	20	-34	-1	4	-14	0	1
	10-29인	-9	-4	-15	-11	31	-20	51	9	-2	0	0
	30-99인	-6	-4	-5	34	14	1	30	-13	-2	0	6
	100-299인	-6	3	7	6	-18	5	-2	4	8	0	0
	300인 이상	8	-5	-8	6	2	7	49	-8	6	0	1
	전체	-12	-43	-10	33	55	-66	155	-9	-49	22	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11〉 산업별 노동자의 기업규모 분포 변화

(단위: %, %p, 전년 동기 대비)

구분	임금 노동자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가 가스 증기	수도 하수	건설업	도소매 업	운수 창고	숙박 음식	정보 통신	
'20. 08	1-4인	17.8	49.1	9.1	6.7	0.5	6.6	19.2	37.2	9.8	46.0	6.6
	5-9인	17.2	30.3	15.0	11.4	4.2	12.8	29.5	20.9	8.0	31.0	10.2
	10-29인	22.6	13.6	55.4	21.3	11.2	40.8	28.8	20.7	19.6	15.2	23.1
	30-99인	19.5	4.8	10.7	24.0	27.1	30.6	13.5	11.2	27.3	5.3	20.0
	100-299인	9.7	1.7	0.0	15.5	19.3	7.5	5.4	5.4	19.4	1.3	18.5
	300인 이상	13.2	0.4	9.9	21.1	37.8	1.6	3.6	4.6	15.9	1.2	21.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 08	1-4인	18.4	40.8	10.2	6.5	0.0	8.5	20.9	36.4	10.0	45.5	6.0
	5-9인	17.7	39.3	5.8	11.4	3.0	14.0	32.0	22.1	9.1	32.4	7.6
	10-29인	22.3	10.7	44.3	22.4	11.4	36.5	27.5	19.5	19.5	14.1	23.5
	30-99인	19.0	7.6	28.6	23.0	35.8	30.7	11.8	10.7	27.0	4.2	23.4
	100-299인	9.7	1.6	0.0	15.5	19.4	9.0	4.2	6.4	19.9	1.8	17.9
	300인 이상	12.9	0.0	11.2	21.3	30.5	1.3	3.6	5.0	14.4	2.0	21.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증감	1-4인	-0.6	8.3	-1.1	0.2	0.5	-1.9	-1.7	0.8	-0.2	0.5	0.6
	5-9인	-0.5	-9	9.2	0.0	1.2	-1.2	-2.5	-1.2	-1.1	-1.4	2.6
	10-29인	0.3	2.9	11.1	-1.1	-0.2	4.3	1.3	1.2	0.1	1.1	-0.4
	30-99인	0.5	-2.8	-17.9	1.0	-8.7	-0.1	1.7	0.5	0.3	1.1	-3.4
	100-299인	0.0	0.1	0.0	0.0	-0.1	-1.5	1.2	-1.0	-0.5	-0.5	0.6
	300인 이상	0.3	0.4	-1.3	-0.2	7.3	0.3	0.0	-0.4	1.5	-0.8	-0.1
	전체	-	-	-	-	-	-	-	-	-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11〉 산업별 노동자의 기업규모 분포 변화(계속)

(단위: %, %p, 전년 동기 대비)

구분		금융 보험	부동산 업	전문 과학 기술	사업관 리지원 임대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	보건 사회 복지	예술및 여가	기타 개인 서비스	가구내 고용 등	국제 기구
'20. 08	1-4인	4.6	29.1	12.0	16.4	8.4	8.1	13.2	28.9	39.6	100.0	0.0
	5-9인	7.1	30.7	18.0	23.2	6.5	9.7	20.4	17.5	18.0	0.0	5.1
	10-29인	34.0	23.9	19.2	26.3	19.7	17.1	26.7	27.8	24.2	0.0	7.8
	30-99인	29.4	9.3	15.8	19.5	16.1	44.8	18.4	14.5	11.7	0.0	49.7
	100-299인	9.6	3.5	10.4	7.6	12.8	8.4	8.7	8.7	4.8	0.0	12.0
	300인 이상	15.3	3.4	24.7	7.1	36.6	11.9	12.6	2.6	1.8	0.0	25.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 08	1-4인	4.7	27.7	12.5	19.6	8.1	9.3	12.8	29.2	43.3	99.6	0.0
	5-9인	6.5	34.0	16.1	21.1	5.0	11.5	21.9	16.1	18.7	0.0	0.0
	10-29인	34.8	22.5	20.5	27.9	17.8	17.7	26.2	24.5	22.8	0.4	13.5
	30-99인	29.7	9.3	16.0	17.4	15.7	42.8	18.4	17.9	11.2	0.0	32.5
	100-299인	10.3	2.4	9.6	7.3	15.1	7.8	9.4	7.3	3.3	0.0	16.0
	300인 이상	14.1	4.2	25.3	6.8	38.3	10.9	11.3	5.0	0.8	0.0	38.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증감	1-4인	-0.1	1.4	-0.5	-3.2	0.3	-1.2	0.4	-0.3	-3.7	0.4	0.0
	5-9인	0.6	-3.3	1.9	2.1	1.5	-1.8	-1.5	1.4	-0.7	0.0	5.1
	10-29인	-0.8	1.4	-1.3	-1.6	1.9	-0.6	0.5	3.3	1.4	-0.4	-5.7
	30-99인	-0.3	0.0	-0.2	2.1	0.4	2.0	0.0	-3.4	0.5	0.0	17.2
	100-299인	-0.7	1.1	0.8	0.3	-2.3	0.6	-0.7	1.4	1.5	0.0	-4.0
	300인 이상	1.2	-0.8	-0.6	0.3	-1.7	1.0	1.3	-2.4	1.0	0.0	-12.5
	전체	-	-	-	-	-	-	-	-	-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⑤ 근로형태별 고용영향

2020년 임금노동자 전체로 보면 비정규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컸던 업종에서는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였다.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제조업, 금융보험업, 사업관리지원임대업, 전문·과학기술업, 예술및여가업에서 비정규직이 감소하

였고, 반면, 보건사회복지업, 공공행정업, 가구내고용업, 건설업, 소매업, 운수창고업 등에서는 비정규직이 증가하였다.

임금노동자 전체로 봤을 때 2020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증감 변화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감소하였고, 도소매업과 운수창고업에서는 정규직은 감소, 비정규직은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금융보험업, 사업관리지원임대업, 전문과학기술업, 예술및여가업 등에서는 정규직은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감소하였다. 그리고 보건사회복지업, 공공행정업, 가구내고용업, 건설업 등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감소한 업종은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이다. 숙박음식업(정규직 -7만 명, 비정규직 -7만1천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크게 감소하였으며, 교육서비스업(정규직 -2만 5천명, 비정규직 -4만 2천명), 기타개인서비스업(정규직 -4만 4천명, 비정규직 -5천명), 부동산업(정규직 -2만 5천명, 비정규직 -1만 8천명)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변동이 컸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정규직은 61만 2천명(46.9%)로 전년 동기 대비 7만 명(-0.3%p) 감소하였고, 비정규직은 69만 4천명(53.1%)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만 1천명(+0.2%p) 감소하여 비정규직 비중이 정규직보다 6.2%p 더 높아졌다.

둘째, 정규직은 감소하고 비정규직 증가한 업종은 도소매업과 운수창고업이다. 이들 업종에서는 정규직은 감소하였지만 비정규직이 증가하여 비정규직 비중이 커졌다. 이중 도소매업 정규직은 145만 명(66.8%)으로 전년 동기 대비 9만 7천명(-1.9%p) 감소하여 정규직 감소가 컸고, 비정규직은 72만 2천명(33.2%)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6천명(+1.9%p) 증가하였다.



셋째, 정규직은 증가하고 비정규직 감소한 경우는 제조업, 금융·보험업, 사업관리지원임대업, 전문·과학기술업, 예술·및·여가업이다. 사업관리지원임대업(정규직 +7만 5천명, 비정규직 -4만 2천명), 제조업(정규직 +5만 4천명, 비정규직 -6만 8천명), 금융·보험업(정규직 +1만 3천명, 비정규직 -2만 5천명), 전문·과학기술업(정규직 +5천명, 비정규직 -1만 5천명), 예술·및·여가업(정규직 +4천명, 비정규직 -1만 3천명)에서는 비정규직은 감소하고 정규직이 증가하였다. 특히, 사업관리지원임대업 정규직은 45만 명(35.3%)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만 5천명(+5.1%p)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82만 4천명(64.7%)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2천명(-5.1%p) 감소하였다. 많은 경우 정규직을 보호하고 비정규직을 줄임으로써 경제위기에 대처했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증가한 업종은 보건·사회복지업, 공공행정업, 가구내고용업, 건설업 등이다. 보건·사회복지업(정규직 +5천명, 비정규직 +15만 명), 공공행정업(정규직 +1만 천명, 비정규직 +4만 명), 가구내고용업(정규직 +1만 명, 비정규직 +1만 천명), 건설업(정규직 +2만 7천명, 비정규직 +8천명)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보건·사회복지업 정규직은 120만 명(51.5%)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천명(-3.5%p) 증가하였고, 비정규직은 112만 8천명(48.5%)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만 명(+3.5%p) 증가하였다.

보건·사회복지업과 공공행정업에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했고, 또한 코로나19로 집의 용도가 다양해짐에 따라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과 관련된 건설업에서 고용이 증가하였으며, 가구내고용업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들 일자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비정규직 비중은 숙박·음식업(비정규직 +0.2%p), 부동산업(비정규

직 +0.7%p), 운수창고업(비정규직 +1.5%p), 기타개인서비스업(비정규직 +1.7%p), 공공행정업(비정규직 +1.8%p), 도소매업(비정규직 +1.9%p), 수도하수업(비정규직 +3.4%p), 보건사회복지업(비정규직 +3.5%p), 전기가스·증기업(비정규직 +4.2%p), 광업(비정규직 +19.0%p)으로 전년 동기 대비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였다.

반면, 국제기구업(정규직 +10.1%p), 사업관리지원임대업(정규직 +5.1%p), 가구내고용업(정규직 +5.0%p), 금융보험업(정규직 +2.7%p), 예술및여가업(정규직 +2.4%p), 농림어업(정규직 +1.7%p), 제조업(정규직 +1.7%p), 전문과학기술(정규직 +1.3%p), 교육서비스업(정규직 +0.9%p), 정보통신업(정규직 +0.8%p), 건설업(정규직 +0.6%p)에서는 정규직 비중이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하였다.

비정규직의 변동은 근로형태별로 보면 주로 기간제와 시간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비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보건사회복지업은 전년 동기 대비 기간제(+5.7%p)와 시간제(+2.2%p) 증가가 많았고, 공공행정업 역시 기간제(+2.2%p)와 시간제(+3.6%p)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도소매업은 시간제(+2.6%p) 증가가 컸다.

구체적으로 보건사회복지업 기간제는 89만 5천명(38.4%)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만 4천명(+5.7%p) 증가하였고, 시간제는 71만 6천명(30.8%)으로 전년 동기 대비 9만 5천명(+2.2%p) 증가하였다. 공공행정업 기간제는 39만 9천명(35.2%)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3천명(+2.2%p) 증가하였고, 시간제는 30만 3천명(26.7%)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 4천명(+3.6%p) 증가하였다. 도소매업 기간제는 24만 3천명(11.2%)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9천명(+1.3%p) 증가하였고, 시간제는 37만 3천명(17.2%)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4천명(+2.6%p) 증가하였다.

〈표 5-12〉 산업별 근로형태별 노동자 규모(2020년 8월)

(단위: 천명)

구분	전체	정규직	비 정규직										
				한시적	비		비전형						시간제
					기간제	기간제		파견	용역	특수 근로	일일 근로	가내 근로	
임금노동자	20,446	13,020	7,426	4,608	3,933	675	2,073	164	552	498	896	49	3,252
농림어업	120	46	74	33	27	6	36	0	0	2	35	1	16
광업	11	8	3	2	2	0	1	0	0	0	1	0	0
제조업	3,930	3,330	601	452	376	76	64	3	4	6	42	15	144
전기가스증기	71	57	14	10	10	0	3	0	0	2	0	1	1
수도하수	142	104	37	32	27	5	4	0	1	0	2	1	11
건설업	1,662	803	859	267	194	73	559	13	17	0	545	0	154
도소매업	2,172	1,450	722	333	243	90	147	16	2	97	33	2	373
운수창고	813	582	231	156	136	20	57	2	1	37	22	0	56
숙박음식	1,306	612	694	285	149	136	88	6	4	4	74	2	523
정보통신	771	649	121	99	92	7	12	5	2	3	0	2	29
금융보험	749	493	256	55	44	11	206	1	0	203	2	1	29
부동산업	363	185	178	134	120	14	45	8	22	11	5	0	47
전문·과학기술	986	807	179	142	125	17	12	2	2	3	4	1	47
사업관리지원임대	1,274	450	824	574	531	44	632	88	493	23	67	2	160
공공행정	1,134	721	413	404	399	5	4	0	0	0	2	2	303
교육서비스	1,482	894	588	408	381	27	58	0	3	50	2	3	352
보건사회복지	2,328	1,200	1,128	953	895	58	32	15	2	4	5	6	716
예술및여가	334	152	182	107	79	28	21	1	0	13	6	1	102
기타개인서비스	677	436	241	126	93	33	77	5	0	41	40	0	127
가구내고용 등	103	28	75	30	6	24	17	0	0	0	10	9	59
국제기구	19	14	5	5	3	2	0	0	0	0	0	0	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0.8.

〈표 5-13〉 산업별 근로형태별 노동자 규모(2019년 8월)

(단위: 천명)

구분	전체	정규직	비 정규직										
				한시적	비		비전형						시간제
					기간제	기간제		파견	용역	특수 근로	일일 근로	가내 근로	
임금노동자	20,559	13,078	7,481	4,785	3,799	986	2,045	182	615	528	748	46	3,156
농림어업	123	45	78	45	38	7	32	0	0	2	30	0	17
광업	12	11	1	1	1	0	0	0	0	0	0	0	0
제조업	3,946	3,276	669	515	368	147	84	10	10	4	47	22	175
전기가스증기	71	61	11	11	9	1	0	0	0	0	0	0	1
수도하수	132	101	30	24	17	7	2	1	1	0	0	0	6
건설업	1,627	776	851	369	292	77	481	10	33	0	450	1	128
도소매업	2,253	1,547	706	357	224	133	175	26	1	115	30	5	329
운수창고	808	591	217	151	114	36	58	4	10	26	20	0	51
숙박음식	1,446	682	765	356	220	136	65	6	4	3	52	1	563
정보통신	777	648	129	105	71	34	10	6	0	3	1	1	25
금융보험	761	480	281	79	59	19	215	1	1	210	4	0	40
부동산업	406	210	196	132	100	33	63	8	23	26	7	0	54
전문·과학기술	996	802	194	154	131	23	10	2	1	4	1	2	53
사업관리지원임대	1,241	375	866	608	529	80	642	79	517	25	56	2	165
공공행정	1,079	706	373	361	356	4	1	0	0	0	1	0	249
교육서비스	1,548	919	630	430	369	61	69	2	2	61	3	2	379
보건사회복지	2,173	1,195	978	805	711	95	39	19	11	3	3	4	621
예술및여가	343	148	195	118	95	23	23	6	0	12	5	0	117
기타개인서비스	726	480	246	130	84	46	61	3	0	34	26	2	131
가구내고용 등	81	18	63	32	10	21	14	0	1	1	11	2	50
국제기구	11	7	4	4	1	3	0	0	0	0	0	0	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9.8.

〈표 5-14〉 산업별 근로형태별 노동자수 변화(2019년 대비 증감)

(단위: 천명)

구분	전체	정규직	비 정규직											
				한시적	비		비전형						시간제	
					기간제	기간제		파견	용역	특수 근로	일일 근로	가내 근로		
임금노동자	-113	-58	-55	-177	134	-311	28	-18	-63	-30	148	3	96	
농림어업	-3	1	-4	-12	-11	-1	4	0	0	0	5	1	-1	
광업	-1	-3	2	1	1	0	1	0	0	0	1	0	0	
제조업	-16	54	-68	-63	8	-71	-20	-7	-6	2	-5	-7	-31	
전기가스증기	0	-4	3	-1	1	-1	3	0	0	2	0	1	0	
수도하수	10	3	7	8	10	-2	2	-1	0	0	2	1	5	
건설업	35	27	8	-102	-98	-4	78	3	-16	0	95	-1	26	
도소매업	-81	-97	16	-24	19	-43	-28	-10	1	-18	3	-3	44	
운수창고	5	-9	14	5	22	-16	-1	-2	-9	11	2	0	5	
숙박음식	-140	-70	-71	-71	-71	0	23	0	0	1	22	1	-40	
정보통신	-6	1	-8	-6	21	-27	2	-1	2	0	-1	1	4	
금융보험	-12	13	-25	-24	-15	-8	-9	0	-1	-7	-2	1	-11	
부동산업	-43	-25	-18	2	20	-19	-18	0	-1	-15	-2	0	-7	
전문과학기술	-10	5	-15	-12	-6	-6	2	0	1	-1	3	-1	-6	
사업관리지원업	33	75	-42	-34	2	-36	-10	9	-24	-2	11	0	-5	
공공행정	55	15	40	43	43	1	3	0	0	0	1	2	54	
교육서비스	-66	-25	-42	-22	12	-34	-11	-2	1	-11	-1	1	-27	
보건사회복지	155	5	150	148	184	-37	-7	-4	-9	1	2	2	95	
예술및여가	-9	4	-13	-11	-16	5	-2	-5	0	1	1	1	-15	
기타개인서비스	-49	-44	-5	-4	9	-13	16	2	0	7	14	-2	-4	
가구내고용 등	22	10	12	-2	-4	3	3	0	-1	-1	-1	7	9	
국제기구	8	7	1	1	2	-1	0	0	0	0	0	0	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15〉 산업별 근로형태별 노동자 분포(2020년 8월)

(단위: %)

구분	전체	정규직	비 정규직											
				한시적	비기간		비전형						시간제	
					기간제	제		파견	용역	특수 근로	일일 근로	가내 근로		
임금노동자	100.0	63.7	36.3	22.5	19.2	3.3	10.1	0.8	2.7	2.4	4.4	0.2	15.9	
농림어업	0.6	38.3	61.7	27.5	22.5	5.0	30.0	0.0	0.0	1.7	29.2	0.8	13.3	
광업	0.1	72.7	27.3	18.2	18.2	0.0	9.1	0.0	0.0	0.0	9.1	0.0	0.0	
제조업	19.2	84.7	15.3	11.5	9.6	1.9	1.6	0.1	0.1	0.2	1.1	0.4	3.7	
전기가스증기	0.4	80.3	19.7	14.1	14.1	0.0	4.2	0.0	0.0	2.8	0.0	1.4	1.4	
수도하수	0.7	73.2	26.1	22.5	19.0	3.5	2.8	0.0	0.7	0.0	1.4	0.7	7.7	
건설업	8.1	48.3	51.7	16.1	11.7	4.4	33.6	0.8	1.0	0.0	32.8	0.0	9.3	
도소매업	10.6	66.8	33.2	15.3	11.2	4.1	6.8	0.7	0.1	4.5	1.5	0.1	17.2	
운수창고	4.0	71.6	28.4	19.2	16.7	2.5	7.0	0.2	0.1	4.6	2.7	0.0	6.9	
숙박음식	6.4	46.9	53.1	21.8	11.4	10.4	6.7	0.5	0.3	0.3	5.7	0.2	40.0	
정보통신	3.8	84.2	15.7	12.8	11.9	0.9	1.6	0.6	0.3	0.4	0.0	0.3	3.8	
금융보험	3.7	65.8	34.2	7.3	5.9	1.5	27.5	0.1	0.0	27.1	0.3	0.1	3.9	
부동산업	1.8	51.0	49.0	36.9	33.1	3.9	12.4	2.2	6.1	3.0	1.4	0.0	12.9	
전문과학기술	4.8	81.8	18.2	14.4	12.7	1.7	1.2	0.2	0.2	0.3	0.4	0.1	4.8	
사업관리지원임대	6.2	35.3	64.7	45.1	41.7	3.5	49.6	6.9	38.7	1.8	5.3	0.2	12.6	
공공행정	5.6	63.6	36.4	35.6	35.2	0.4	0.4	0.0	0.0	0.0	0.2	0.2	26.7	
교육서비스	7.3	60.3	39.7	27.5	25.7	1.8	3.9	0.0	0.2	3.4	0.1	0.2	23.8	
보건사회복지	11.4	51.5	48.5	40.9	38.4	2.5	1.4	0.6	0.1	0.2	0.2	0.3	30.8	
예술및여가	1.6	45.5	54.5	32.0	23.7	8.4	6.3	0.3	0.0	3.9	1.8	0.3	30.5	
기타개인서비스	3.3	64.4	35.6	18.6	13.7	4.9	11.4	0.7	0.0	6.1	5.9	0.0	18.8	
가구내고용 등	0.5	27.2	72.8	29.1	5.8	23.3	16.5	0.0	0.0	0.0	9.7	8.7	57.3	
국제기구	0.1	73.7	26.3	26.3	15.8	10.5	0.0	0.0	0.0	0.0	0.0	0.0	10.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0.8.

〈표 5-16〉 산업별 근로형태별 노동자 분포(2019년 8월)

(단위: %)

구분	전체	정규직	비 정규직											
				한시적	비기간		비전형						시간제	
					기간제	제		파견	용역	특수 근로	일일 근로	가내 근로		
임금노동자	100.0	63.6	36.4	23.3	18.5	4.8	9.9	0.9	3.0	2.6	3.6	0.2	15.4	
농림어업	0.6	36.6	63.4	36.6	30.9	5.7	26.0	0.0	0.0	1.6	24.4	0.0	13.8	
광업	0.1	91.7	8.3	8.3	8.3	0.0	0.0	0.0	0.0	0.0	0.0	0.0	0.0	
제조업	19.2	83.0	17.0	13.1	9.3	3.7	2.1	0.3	0.3	0.1	1.2	0.6	4.4	
전기가스증기	0.3	85.9	15.5	15.5	12.7	1.4	0.0	0.0	0.0	0.0	0.0	0.0	1.4	
수도하수	0.6	76.5	22.7	18.2	12.9	5.3	1.5	0.8	0.8	0.0	0.0	0.0	4.5	
건설업	7.9	47.7	52.3	22.7	17.9	4.7	29.6	0.6	2.0	0.0	27.7	0.1	7.9	
도소매업	11.0	68.7	31.3	15.8	9.9	5.9	7.8	1.2	0.0	5.1	1.3	0.2	14.6	
운수창고	3.9	73.1	26.9	18.7	14.1	4.5	7.2	0.5	1.2	3.2	2.5	0.0	6.3	
숙박음식	7.0	47.2	52.9	24.6	15.2	9.4	4.5	0.4	0.3	0.2	3.6	0.1	38.9	
정보통신	3.8	83.4	16.6	13.5	9.1	4.4	1.3	0.8	0.0	0.4	0.1	0.1	3.2	
금융보험	3.7	63.1	36.9	10.4	7.8	2.5	28.3	0.1	0.1	27.6	0.5	0.0	5.3	
부동산업	2.0	51.7	48.3	32.5	24.6	8.1	15.5	2.0	5.7	6.4	1.7	0.0	13.3	
전문과학기술	4.8	80.5	19.5	15.5	13.2	2.3	1.0	0.2	0.1	0.4	0.1	0.2	5.3	
사업관리지원임대	6.0	30.2	69.8	49.0	42.6	6.4	51.7	6.4	41.7	2.0	4.5	0.2	13.3	
공공행정	5.2	65.4	34.6	33.5	33.0	0.4	0.1	0.0	0.0	0.0	0.1	0.0	23.1	
교육서비스	7.5	59.4	40.7	27.8	23.8	3.9	4.5	0.1	0.1	3.9	0.2	0.1	24.5	
보건사회복지	10.6	55.0	45.0	37.0	32.7	4.4	1.8	0.9	0.5	0.1	0.1	0.2	28.6	
예술및여가	1.7	43.1	56.9	34.4	27.7	6.7	6.7	1.7	0.0	3.5	1.5	0.0	34.1	
기타개인서비스	3.5	66.1	33.9	17.9	11.6	6.3	8.4	0.4	0.0	4.7	3.6	0.3	18.0	
가구내고용 등	0.4	22.2	77.8	39.5	12.3	25.9	17.3	0.0	1.2	1.2	13.6	2.5	61.7	
국제기구	0.1	63.6	36.4	36.4	9.1	27.3	0.0	0.0	0.0	0.0	0.0	0.0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9.8.

〈표 5-17〉 산업별 근로형태별 노동자 분포 변화(2019년 대비 증감)

(단위: %p)

구분	전체	정규직	비 정규직	비전형			비전형					시간제	
				한시적 기간제	비기간 제	파견	용역	특수 근로	일일 근로	가내 근로			
임금노동자	0.0	0.1	-0.1	-0.8	0.7	-1.5	0.2	-0.1	-0.3	-0.2	0.8	0.0	0.5
농림어업	0.0	1.7	-1.7	-9.1	-8.4	-0.7	4.0	0.0	0.0	0.1	4.8	0.8	-0.5
광업	0.0	-19.0	19.0	9.9	9.9	0.0	9.1	0.0	0.0	0.0	9.1	0.0	0.0
제조업	0.0	1.7	-1.7	-1.6	0.3	-1.8	-0.5	-0.2	-0.2	0.1	-0.1	-0.2	-0.7
전기가스증기	0.1	-5.6	4.2	-1.4	1.4	-1.4	4.2	0.0	0.0	2.8	0.0	1.4	0.0
수도하수	0.1	-3.3	3.4	4.3	6.1	-1.8	1.3	-0.8	-0.1	0.0	1.4	0.7	3.2
건설업	0.2	0.6	-0.6	-6.6	-6.2	-0.3	4.0	0.2	-1.0	0.0	5.1	-0.1	1.4
도소매업	-0.4	-1.9	1.9	-0.5	1.3	-1.8	-1.0	-0.5	0.1	-0.6	0.2	-0.1	2.6
운수창고	0.1	-1.5	1.5	0.5	2.6	-2.0	-0.2	-0.3	-1.1	1.4	0.2	0.0	0.6
숙박음식	-0.6	-0.3	0.2	-2.8	-3.8	1.0	2.2	0.1	0.0	0.1	2.1	0.1	1.1
정보통신	0.0	0.8	-0.9	-0.7	2.8	-3.5	0.3	-0.2	0.3	0.0	-0.1	0.2	0.6
금융보험	0.0	2.7	-2.7	-3.1	-1.9	-1.0	-0.8	0.0	-0.1	-0.5	-0.2	0.1	-1.4
부동산업	-0.2	-0.7	0.7	4.4	8.5	-4.2	-3.1	0.2	0.4	-3.4	-0.3	0.0	-0.4
전문과학기술	0.0	1.3	-1.3	-1.1	-0.5	-0.6	0.2	0.0	0.1	-0.1	0.3	-0.1	-0.5
사업관리지원임대	0.2	5.1	-5.1	-3.9	-0.9	-2.9	-2.1	0.5	-3.0	-0.2	0.8	0.0	-0.7
공공행정	0.4	-1.8	1.8	2.1	2.2	0.0	0.3	0.0	0.0	0.0	0.1	0.2	3.6
교육서비스	-0.2	0.9	-1.0	-0.3	1.9	-2.1	-0.6	-0.1	0.1	-0.5	-0.1	0.1	-0.7
보건사회복지	0.8	-3.5	3.5	3.9	5.7	-1.9	-0.4	-0.3	-0.4	0.1	0.1	0.1	2.2
예술및여가	-0.1	2.4	-2.4	-2.4	-4.0	1.7	-0.4	-1.4	0.0	0.4	0.3	0.3	-3.6
기타개인서비스	-0.2	-1.7	1.7	0.7	2.1	-1.4	3.0	0.3	0.0	1.4	2.3	-0.3	0.8
가구내고용 등	0.1	5.0	-5.0	-10.4	-6.5	-2.6	-0.8	0.0	-1.2	-1.2	-3.9	6.2	-4.4
국제기구	0.0	10.1	-10.1	-10.1	6.7	-16.8	0.0	0.0	0.0	0.0	0.0	0.0	10.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한편, 숙박음식업은 기간제(-3.8%p)가 감소하고, 일일근로(+2.1%p)가 증가하였으며, 건설업(+5.1%p)과 기타개인서비스업(+2.3%p)에서도 비전형근로인 일일근로가 증가하였다.

숙박음식업의 기간제는 14만 9천명(11.4%)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만 1천명(-3.8%p) 감소하였고, 일일근로는 7만 4천명(5.7%)으로 전년 동기 대비 2



만 2천명(+2.1%p) 증가하였다. 건설업은 일일근로가 54만 5천명(32.8%) 전년 동기 대비 9만 5천명(+5.1%p) 증가하였고, 기타개인서비스업의 일일근로는 4만 명(5.9%)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4천명(+2.3%p) 증가하였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고용 감소는 비정규직의 한계근로자 감소로 이루어졌고, 새로운 고용 창출 역시 비정규직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⑥ 비정규직 고용영향

비정규직 고용은 업종 특성에 따라 활용이 용이하거나 그렇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충격과 같은 위기 시에 비정규직 증감률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먼저, 업종별 비정규직 비중을 보면, 가구내고용업에서 7만 5천명(72.8%)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 사업관리지원임대업 82만 4천명(64.7%), 농림어업 7만 4천명(61.7%), 예술및여가업 18만 2천명(54.5%), 숙박음식업 69만 4천명(53.1%), 건설업 85만 9천명(51.7%) 순으로 이들 업종의 비정규직 비중은 50% 이상이다.

비정규직 비중이 30%~50% 미만 사이인 업종으로는 보건사회복지업 112만 8천명(48.5%), 교육서비스업 58만 8천명(39.7%), 공공행정업 41만 3천명(36.4%), 기타개인서비스업 24만 1천명(35.6%), 금융·보험업 25만 6천명(34.2%), 도소매업 72만 2천명(33.2%)이 해당한다.

한편, 비중이 30% 미만인 업종은 운수창고업 23만 1천명(28.4%), 광업 3천명(27.3%), 국제기구업 5천명(26.3%), 수도하수업 3만 7천명(26.1%), 전기가스증기업 1만 4천명(19.7%), 전문·과학기술업 17만 9천명(18.2%), 정보·통신업 12만 1천명(15.7%), 제조업 60만 1천명(15.3%) 순이다. 업종별로

봤을 때 제조업의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낮다.

2020년 8월 기준, 비정규직 증가율은 광업, 전기가스증기업, 국제기구업, 수도하수업에서 높았다. 광업은 전년 동기 대비 2천명(증가율 200%), 전기가스증기업 3천명(증가율 27.3%), 국제기구업 1천명(증가율 25.0%), 수도하수업 7천명(증가율 23.3%), 가구내고용업 1만 2천명(증가율 19.0%), 보건사회복지업 15만 명(증가율 15.3%), 공공행정업 4만 명(증가율 10.7%), 운수창고업 1만4천명(증가율 6.5%), 도소매업 1만 6천명(증가율 2.3%), 건설업 8천명(증가율 0.9%) 순으로 컸다.

전기가스증기업의 비정규직은 1만 4천명(19.7%)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천명(증가율 27.3%) 증가하였고, 국제기구업은 5천 명(26.3%)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천명(증가율 25.0%) 증가하였으며, 수도하수업은 3만 7천명(26.1%)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천명(증가율 23.3%) 증가하였다. 이 외에 가구내고용업은 7만 5천명(72.8%)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2천명(증가율 19.0%) 증가하였고, 보건사회복지업은 112만 8천명(48.5%)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만 명(증가율 15.3%) 증가하였으며, 공공행정업은 41만 3천명(36.4%)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명(증가율 10.7%) 증가하였다.

반면, 비정규직이 감소한 업종의 감소율은 제조업 6만 8천명(감소율 -10.2%), 숙박음식업 7만 1천명(감소율 -9.3%), 부동산업 1만 8천명(감소율 -9.2%), 금융보험업 2만 5천명(감소율 -8.9%), 전문·과학기술업 1만 5천명(감소율 -7.7%), 교육서비스업 4만 2천명(감소율 -6.7%), 예술및여가업 1만 3천명(감소율 -6.7%), 정보·통신업 8천명(감소율 -6.2%), 농림어업 4천명(감소율 -5.1%), 사업관리지원임대업 4만 2천명(감소율 -4.8%), 기타개인서비스업 5천명(감소율 -2.0%)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8〉 산업별 비정규직 노동자 수 변화

(단위: 천명,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8		2020.8		2019년 대비 증감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증감률
임금노동자	7,481	36.4	7,426	36.3	-55	-0.7
농림어업	78	63.4	74	61.7	-4	-5.1
광업	1	8.3	3	27.3	2	200.0
제조업	669	17.0	601	15.3	-68	-10.2
전기가스증기	11	15.5	14	19.7	3	27.3
수도하수	30	22.7	37	26.1	7	23.3
건설업	851	52.3	859	51.7	8	0.9
도소매업	706	31.3	722	33.2	16	2.3
운수창고	217	26.9	231	28.4	14	6.5
숙박음식	765	52.9	694	53.1	-71	-9.3
정보·통신	129	16.6	121	15.7	-8	-6.2
금융·보험	281	36.9	256	34.2	-25	-8.9
부동산업	196	48.3	178	49.0	-18	-9.2
전문·과학기술	194	19.5	179	18.2	-15	-7.7
사업관리지원업·대	866	69.8	824	64.7	-42	-4.8
공공행정	373	34.6	413	36.4	40	10.7
교육서비스	630	40.7	588	39.7	-42	-6.7
보건사회복지	978	45.0	1,128	48.5	150	15.3
예술·문화·여가	195	56.9	182	54.5	-13	-6.7
기타개인서비스	246	33.9	241	35.6	-5	-2.0
가구내고용 등	63	77.8	75	72.8	12	19.0
국제기구	4	36.4	5	26.3	1	25.0

주: 1) 비정규직 전체 규모와 구성비는 근로형태별 비정규직(한시적 근로, 시간제, 비전형 근로)의 중복 인원을 제외한 순계로 유형별 규모 및 구성비의 합계와 불일치함.

2) 비전형 근로자 전체 규모 및 구성비는 일부 중복되는 각 유형별 근로자를 제외한 순계로, 각 유형별 근로자 규모 및 비중의 합계와 불일치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구체적으로 2020년 8월 기준, 제조업의 비정규직은 60만 1천명(15.3%)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 8천명(감소율 -10.2%) 감소하였고, 숙박·음식업은 69만 4천명(53.1%)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만 1천명(감소율 -9.3%) 감소하였

으며, 금융·보험업은 26만 6천명(34.2%)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천명(감소율 -6.2%) 감소하였고, 교육서비스업은 58만 8천명(39.7%)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2천명(감소율 -6.7%) 감소하였으며, 예술및여가업은 18만 2천명(54.5%)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3천명(감소율 -6.7%) 감소하였다.

### ⑦ 고용안정성

“회사의 폐업이나 고용조정, 혹은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직장에서 계속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로 고용안정성을 측정하였다. 계속근로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임금노동자 비중은 83.7%로 전년 동기(84.5%) 대비 0.8%p 하락하였다. 코로나 위기로 전체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종별로 보면, 고용안정성은 코로나19 충격이 큰 업종에서는 감소하였다. 기타개인서비스업, 공공행정업, 보건사회복지업, 숙박음식업에서 하락하였는데, 특히, 공공행정업의 고용안정성은 5개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숙박음식업과 보건사회복지업의 고용안정성은 2018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월 업종별 고용안정성은 전기·가스·증기업이 98.6%로 가장 높고, 그 다음 금융·보험업(95.3%), 정보·통신업(94.7%), 전문·과학기술업(94.6%), 제조업(94.6%), 광업(92.4%), 운수·창고업(91.2%), 수도·하수업(90.4%), 도소매업(90.3%) 순으로 90%를 넘는다. 대부분 정부투자기관이거나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련된 업종들이다. 반면 농림어업(50.4%), 가구내고용업(54.1%), 건설업(56.1%) 등은 50% 수준으로 매우 낮다.

한편, 공공행정업의 고용안정성은 2020년 8월 기준, 69.1% 수준으로 5개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외에 숙박음식업(75.7%), 보건사회복지업(79.4%)

의 고용안정성도 2018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고용안정성이 크게 떨어진 업종으로는 광업(-7.6%p), 국제기구업(-6.2%p), 기타개인서비스업(-4.9%p), 수도하수업(-4.7%p), 공공행정업(-4.1%p), 보건사회복지업(-3.1%p), 숙박·음식업(-2.8%p), 정보·통신업(-1.3%p), 도소매업(-0.9%p), 금융·보험업(-0.4%p), 운수창고업(-0.3%p)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광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의 고용안정성은 그동안 증가 추세에서 20년 하락으로 돌아섰는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광업의 고용안정성은 92.4%로 전년동기(100.0) 대비 7.6%p 감소하여 가장 크게 떨어졌고, 기타개인서비스업은 81.1%로 전년 동기(86.0%) 대비 4.9%p 하락하였으며, 공공행정업은 69.1%로 전년 동기(73.2%) 대비 4.1%p 하락하였고, 보건사회복지업은 79.4%로 전년 동기(82.5%) 대비 3.1%p 하락하였으며, 숙박·음식업은 75.7%로 전년 동기(78.5%) 대비 2.8%p 하락하였다.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낮은 업종들과 2020년 코로나19로 고용이 증가한 업종에서 대부분 고용안정성이 떨어졌다.

반면, 2020년 8월 가구내고용업, 예술및여가업, 교육서비스업, 사업관리 지원임대업, 전기가스증기업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고용안정성이 높아졌다. 가구내고용업의 고용안정성은 54.1%로 전년 동기 대비 6.8%p 상승하였으며, 예술및여가업의 고용안정성은 77.4%로 전년 동기 대비 2.8%p 상승하였다. 가구내고용업과 예술및여가업의 고용안정성은 최근 4개년 간 계속 감소 추세였으나 2020년 상승으로 돌아서는 변화를 보였다.

〈표 5-19〉 산업별 고용안정성있는 근로자 비중

(단위: %, %p)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85.4	86.4	86.1	84.5	83.7	-0.8
농림어업	43.9	43.4	50.7	49.6	50.4	0.8
광업	87.3	97.7	100.0	100.0	92.4	-7.6
제조업	94.9	95.6	95.6	94.2	94.6	0.4
전기·가스·증기	95.7	96.0	97.4	97.3	98.6	1.3
수도·하수	95.7	93.0	96.2	95.1	90.4	-4.7
건설업	53.6	55.7	55.1	55.7	56.1	0.4
도소매업	90.7	91.2	91.0	91.2	90.3	-0.9
운수·창고	91.2	92.5	93.0	91.5	91.2	-0.3
숙박·음식	77.8	81.1	79.6	78.5	75.7	-2.8
정보·통신	93.9	95.1	95.8	96.0	94.7	-1.3
금융·보험	94.5	95.4	95.7	95.7	95.3	-0.4
부동산업	82.0	89.3	86.6	85.9	86.7	0.8
전문·과학기술	95.6	95.4	96.5	94.6	94.6	0.0
사업관리·지원·임대	78.5	80.2	82.0	79.1	80.7	1.6
공공행정	81.5	79.7	78.7	73.2	69.1	-4.1
교육서비스	86.9	88.2	86.1	83.9	85.7	1.8
보건·사회복지	84.9	85.2	85.0	82.5	79.4	-3.1
예술·문화·여가	79.6	79.0	78.6	74.6	77.4	2.8
기타개인서비스	85.1	87.0	85.6	86.0	81.1	-4.9
가구내고용 등	71.9	69.5	63.5	47.3	54.1	6.8
국제기구	97.0	100.0	100.0	94.7	88.5	-6.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2. 산업별 임금수준 변화

### 1) 산업별 임금수준

업종별 임금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의 월평균 임금은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을 사용하였다. 2020년 6-8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268만 1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8천원(상승률 1.4%) 올랐다.

업종별로 보면, 월평균 임금은 많은 업종에서 하락하였다. 특히, 운수창고업, 공공행정업, 숙박·음식업, 수도·하수업, 전문·과학기술업, 보건·사회복지업, 국제기구업 등 고용 증가 업종에서 하락이 컸다. 이중 숙박·음식업은 156만 6천원으로 3만 8천원(하락률 -2.4%) 감소했고, 보건·사회복지업 204만 2천원으로 1만 5천원(하락률 -0.7%) 감소하여 임금이 낮아졌다. 20년 임금 하락까지 접쳤다.

반면, 전기·가스·증기업은 471만 9천원으로 가장 높는데, 여기에 더해 66만 1천원(상승률 +16.3%) 올라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예술·및·여가업, 가구·내·고용업에서도 월평균 임금이 상승하였다. 예술·및·여가업에서는 195만 2천원으로 11만 7천원(상승률 6.4%), 가구·내·고용업에서는 101만 2천원으로 10만 1천원(상승률 11.1%) 상승하였다.

2020년 8월 기준, 업종별 월평균 임금 수준은 전기·가스·증기업에서 471만 9천원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 금융·보험업 396만원, 전문·과학기술업 366만 8천원, 정보·통신업 363만 9천원, 제조업 311만 6천원, 광업 305만 1

천원 순으로 높다.

한편, 교육서비스업은 288만 2천원, 공공행정업 277만 7천원, 도소매업 240만 5천원, 사업관리지원임대업 224만 3천원, 기타개인서비스업 212만 2천원, 보건사회복지업 204만 2천원 순으로 이들 업종의 월평균 임금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다.

반면, 예술및여가업은 195만 2천원, 농림어업 183만 5천원, 숙박·음식업 156만 6천원이며, 가구내고용업은 101만 2천원으로 가장 적다. 이들 업종은 200만원도 안 된다.

2020년 8월 기준, 월평균 임금 변동은 전기·가스·증기업에서 471만 9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만 1천원(상승률 16.3%) 올라 가장 많이 올랐다. 그다음 금융보험업은 396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만 4천원(상승률 5.2%) 올랐고, 예술및여가업은 195만 2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 7천원(상승률 6.4%), 정보·통신업은 363만 9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 3천원(상승률 3.2%) 올랐으며, 가구내고용업에서 101만 2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 1천원(상승률 11.1%) 올랐다. 가구내고용업, 예술및여가업은 대표적 저임금 업종이지만 2020년 임금 상승률이 높았다.

이외에 부동산업(242만 2천원)은 전년 동기 대비 9만 9천원(상승률 4.3%) 올랐고, 사업관리지원임대업(224만 3천원)은 전년 동기 대비 9만 7천원(상승률 4.5%), 교육서비스업(288만 2천원)은 전년 동기 대비 9만 6천원(상승률 3.4%), 농림어업(183만 5천원)은 전년 동기 대비 8만 5천원(상승률 4.9%), 건설업(276만 1천원)은 전년 동기 대비 6만 7천원(상승률 2.5%), 기타개인서비스업(212만 2천원)은 전년 동기 대비 6만 2천원(상승률 3.0%), 도소매업(240만 5천원)은 전년 동기 대비 3만 8천원(상승률 1.6%), 제조업(311만 6천원)은 전년 동기 대비 3만 1천원(상승률 1.0%) 상승하였다.



반면, 국제기구업, 운수창고업, 광업, 공공행정업, 숙박·음식업, 수도하수업, 전문·과학기술업, 보건사회복지업에서는 2020년 임금 하락을 경험하였다.

〈표 5-20〉 산업별 월평균 임금 수준 변화(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만원,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19.6-8월 평균	'20.6-8월 평균	증감	증감률
임금노동자	264.3	268.1	3.8	1.4
농림어업	175.0	183.5	8.5	4.9
광업	309.8	305.1	-4.7	-1.5
제조업	308.5	311.6	3.1	1.0
전기가스증기	405.8	471.9	66.1	16.3
수도하수	300.7	297.7	-3	-1.0
건설업	269.4	276.1	6.7	2.5
도소매업	236.7	240.5	3.8	1.6
운수창고	276.0	264.6	-11.4	-4.1
숙박음식	160.4	156.6	-3.8	-2.4
정보·통신	352.6	363.9	11.3	3.2
금융보험	376.6	396.0	19.4	5.2
부동산업	232.3	242.2	9.9	4.3
전문·과학기술	369.4	366.8	-2.6	-0.7
사업관리지원임대	214.6	224.3	9.7	4.5
공공행정	282.2	277.7	-4.5	-1.6
교육서비스	278.6	288.2	9.6	3.4
보건사회복지	205.7	204.2	-1.5	-0.7
예술및여가	183.5	195.2	11.7	6.4
기타개인서비스	206.0	212.2	6.2	3.0
가구내고용 등	91.1	101.2	10.1	11.1
국제기구	338.8	290.9	-47.9	-14.1

주: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월평균 임금이 가장 크게 하락한 업종은 국제기구업으로 국제기구업의 월평균 임금은 290만 9천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만 9천원(하락률

-14.1%) 하락하였다. 그 다음 운수창고업은 264만 6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 4천원(하락률 -4.1%) 하락하였고, 광업은 305만 1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7천원(하락률 -1.5%), 공공행정업은 277만 7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5천원(하락률 -1.6%), 숙박·음식업은 156만 6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8천원(하락률 -2.4%), 수도·하수업은 297만 7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원(하락률 -1.0%), 전문·과학기술업은 366만 8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6천원(하락률 -0.7%), 보건·사회복지업은 204만 2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5천원(하락률 -0.7%) 하락하였다. 특히, 숙박·음식업과 보건·사회복지업은 월평균 임금이 낮는데다 2020년 임금 하락까지 겹쳐 코로나 19의 충격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의 시간당 임금은 주된 직장의 평소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노동공급 시간으로 사용하여 “3개월 평균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로 계산한 값이다.

시간당 임금은 숙박·음식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하락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월평균 임금이 증가한 경우 시간당 임금도 증가하였고, 월평균 임금이 감소하였을 때 시간당 임금도 감소하였다. 특히, 국제5기구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업, 공공행정업, 광업, 전문·과학기술업에서는 2020년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이 모두 감소하였고, 보건·사회복지업과 수도·하수업은 월평균 임금은 하락하였지만 시간당 임금은 상승하였고, 가구내고용업과 예술·및·가업은 월평균 임금은 상승하였지만 시간당 임금은 하락하였다.

2020년 8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5,627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353원) 상승하였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증기업에서 26,665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금융·보험업 22,732원, 전문·과학기술업 20,967원, 정보·통신업 20,650원 순으로 2만원이 넘는다.

반면, 가구내고용업에서는 7,628원으로 가장 적고, 그다음 농림어업 9,555원, 숙박·음식업 9,791원 순으로 1만원 보다 적다.

이외에 기타개인서비스업 12,314원, 예술및여가업 12,402원, 사업관리 지원임대업 12,728원, 보건사회복지업 13,048원, 도소매업 13,815원, 부동산업 13,942원, 운수창고업 14,419원, 광업 15,085원, 건설업 15,431원, 수도하수업 16,826원, 공공행정업 17,164원, 국제기구업 17,235원, 제조업 17,291원, 교육서비스업 18,540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시간당 임금 변동을 보면, 업종별로 국제기구업, 가구내고용업, 운수창고업, 예술및여가업, 광업, 숙박·음식업, 전문·과학기술업, 공공행정업에서 하락했다. 이중 국제기구업은 17,23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79원(하락률 -10.3%) 감소해 가장 많이 하락하였고, 그다음 가구내고용업은 7,62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4원(하락률 -6.0%) 감소하였으며, 운수창고업은 14,41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2원(하락률 -0.3%) 떨어졌다.

이외에 예술및여가업 92원(하락률 -0.7%), 전문·과학기술업 57원(하락률 -0.3%), 광업 50원(하락률 -0.3%), 공공행정업 39원(하락률 -0.2%), 숙박·음식업 31원(하락률 -0.3%) 순으로 떨어졌다.

한편, 2020년 8월 기준, 시간당 임금은 전기·가스·증기업에서 26,66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80원(상승률 16.0%) 상승하여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금융·보험업이 22,73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6원(상승률 5.8%) 상승하였으며, 정보·통신업에서 20,65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4원(상승률 4.4%), 부동산업 13,94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5원(상승률 6.4%), 기타개인서비스업 12,314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0원(상승률 6.5%), 사업관리 지원임대업 12,72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3원(상승률 5.4%) 등의 순서로 상승했다.

〈표 5-21〉 산업별 시간당 임금 수준 변화(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원,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19.6-8월 평균	'20.6-8월 평균	증감	증감률
임금노동자	15,274	15,627	353	2.3
농림어업	9,407	9,555	148	1.6
광업	15,135	15,085	-50	-0.3
제조업	16,968	17,291	323	1.9
전기·가스·증기	22,985	26,665	3,680	16.0
수도·하수	16,528	16,826	298	1.8
건설업	14,936	15,431	495	3.3
도소매업	13,317	13,815	498	3.7
운수·창고	14,861	14,419	-442	-3.0
숙박·음식	9,822	9,791	-31	-0.3
정보·통신	19,786	20,650	864	4.4
금융·보험	21,486	22,732	1,246	5.8
부동산업	13,107	13,942	835	6.4
전문·과학·기술	21,024	20,967	-57	-0.3
사업관리·지원·임대	12,075	12,728	653	5.4
공공행정	17,203	17,164	-39	-0.2
교육서비스	18,367	18,540	173	0.9
보건·사회복지	12,837	13,048	211	1.6
예술·문화·여가	12,494	12,402	-92	-0.7
기타개인서비스	11,564	12,314	750	6.5
가구내고용 등	8,112	7,628	-484	-6.0
국제기구	19,214	17,235	-1,979	-10.3

주: 1)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2)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대체적으로 월평균 임금이 상승한 경우 시간당 임금도 상승하였고, 월평균 임금이 하락할 때 시간당 임금도 하락하였다. 그러나 보건·사회복지업과 수도·하수업에서는 월평균 임금은 하락하였지만 시간당 임금은 상승하였고, 가구내고용업과 예술·문화·여가업은 월평균 임금은 상승하였지만 시간당 임금은 하

락하였다. 월평균 임금의 상승에도 시간당 임금이 하락한 것은 이들 업종에서 코로나19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을 분석하였다(〈부표 5-1〉, 〈부표 5-2〉 참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분석 역시 월평균 임금은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상승하였다. 특히 숙박음식업은 2만 7천원(상승률 +1.8%), 예술및여가업은 7만 6천원(상승률 +3.7%) 상승하였고, 반면, 교육서비스업은 263만 7천원으로 2만 9천원(하락률 -1.1%), 보건사회복지업은 234만 4천원으로 7천원(하락률 -0.3%) 하락하였다.

업종별로 월평균 임금은 2020년 전기가스증기업에서 445만 3천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금융보험업이 405만 1천으로 높으며, 전문과학기술업이 380만 9천원, 정보통신업이 378만 5천원 순으로 높았다.

반면, 숙박음식업은 151만 9천원으로 가장 낮으며, 200만원 미만인 유일한 업종이었다. 이외에 예술및여가업 211만원, 기타개인서비스업 220만 7천원, 보건사회복지업 234만 4천원 순으로 낮았다.

2020년 월평균 임금은 광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업종에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다.

금융보험업은 405만 1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만 9천원(상승률 6.3%) 올라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도소매업은 271만 3천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만 5천원(상승률 6.1%) 올랐으며, 기타개인서비스업은 220만 7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만 1천원(상승률 7.3%), 정보통신업은 378만 5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 7천원(상승률 4.0%), 전기가스증기업은 445만 3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 7천원(상승률 3.2%) 상승하였다.

이외에 숙박음식업은 151만 9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7천원(상승률

1.8%), 예술및여가업은 211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만 6천원(상승률 3.7%) 상승하였다. 이들 업종의 임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20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서비스업은 263만 7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9천원(하락률 -1.1%) 하락하였고, 광업은 324만 4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8천원(하락률 -0.9%) 하락하였으며, 보건사회복지업은 234만 4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천원(하락률 -0.3%) 떨어졌다. 특히, 보건사회복지업은 임금수준이 낮는데 20년 임금이 더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부표 5-1〉 참조).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의 2020년 시간당 임금은 17,42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0원(하락률 -5.8%) 감소하였다(〈부표 5-2〉 참조).

시간당 임금은 업종별로 전기·가스·증기업에서 26,563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금융보험업 25,176원, 전문·과학기술업 22,492원, 교육서비스 22,431원, 건설업 20,292원, 정보·통신업 22,272원으로 2만원 이상이다. 이중 교육서비스업은 근로시간을 고려할 때 임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숙박·음식업에서 11,218원으로 가장 낮고, 기타개인서비스업 14,030원, 부동산업 14,176원, 예술및여가업 14,469원으로 1만 5천원 미만이다.

2020년 시간당 임금 변동은 숙박·음식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하락하였다. 이중 숙박·음식업은 시간당 임금이 11,218원으로 가장 낮고, 전년 동기 대비 117원(상승률 1.1%) 상승하였다.

반면, 교육서비스업은 22,43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44원(하락률 -11.6%) 감소하여 가장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 전문·과학기술업은 22,493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3원(하락률 -9.1%) 떨어졌으며, 정보·통신업은

22,27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05원(하락률 -8.6%) 떨어져 이들 업종에서 2,000원 이상 감소하였다.

이외에 제조업은 시간당 임금이 17,29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4원(하락률 -6.4%) 하락하였고, 보건사회복지업은 15,147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5원(하락률 -7.0%), 예술및여가업은 14,46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6원(하락률 -5.9%), 기타개인서비스업은 14,03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2원(하락률 -4.2%), 도소매업은 16,62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8원(하락률 -3.4%), 건설업은 20,29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8원(하락률 -2.3%) 하락하였다. 시간당 임금 하락은 건설업에서 가장 적었다.

## 2) 산업별 임금격차와 저임금 비율

### ① 임금격차

업종별 상대임금 수준과 이에 따른 임금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제조업 (=100)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2020년 상대임금은 전기·가스·증기업에서 상승하고, 보건사회복지업과 숙박음식업에서 더 낮아져 업종 간 임금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월 기준, 업종별 상대임금은 제조업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전기·가스·증기업에서 151.4%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금융보험업 127.1%, 전문·과학기술업 117.7%, 정보·통신업 116.8% 순으로 높다. 이들 업종의 월평균 임금은 제조업의 약 151%~117% 수준이다.

반면, 가구내고용업은 32.5% 순으로 가장 낮고, 숙박음식업은 50.3%로 제조업의 절반 수준이다. 이 외에 농림어업은 58.9%, 예술및여가업은 62.6%, 보건사회복지업은 65.5% 순으로 낮다.

최근 5년간 월평균 상대임금은 농림어업과 부동산업에서 계속 증가하였는데, 농림어업은 2016년 이후 2020년 까지 각각 49.0%, 53.0%, 54.8%, 56.7%, 58.9%로 증가하였고, 부동산업은 2016년 이후 2020년 까지 각각 69.0%, 74.1%, 74.3%, 75.3%, 77.7%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구내고용업은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각각 27.2%, 27.8%, 27.6%, 29.5%로 상승하다 2020년 32.5%로 전년 동기 대비 3.0%p 상승했지만 여전히 매우 낮다.

한편, 공공행정업에서는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각각 110.0%, 103.7%, 96.1%, 91.5%, 89.1%로 계속 하락하였다. 2018년부터는 제조업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외에 광업, 국제기구업, 운수창고업, 보건사회복지업도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중 광업, 국제기구업은 한때 제조업보다 높았으나 현재 제조업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2020년 상대임금이 상승한 업종은 전기가스증기업, 금융보험업, 예술및여가업, 가구내고용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사업관리지원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농림어업, 건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으로 이중 전기가스증기업은 151.4%로 상대임금이 가장 높은데, 전년 동기 대비 19.9%p 상승하여 임금격차를 더 크게 작용하였다.

이 외에도 2020년 상대임금이 상승한 업종으로 예술및여가업(62.6%)에서 전년 동기 대비 3.1%p 상승했으며, 가구내고용업(32.5%)은 전년 동기 대비 3.0%p, 사업관리지원임대업(72.0%)은 전년 동기 대비 2.4%p, 교육서비스업(92.5%)은 전년 동기 대비 2.2%p, 기타개인서비스업(68.1%)은 전년 동기 대비 1.3%p, 도소매업(77.2%)은 전년 동기 대비 0.5%p 상승하였다.

반면, 상대임금이 더 낮아진 업종은 국제기구업(109.8%)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4%p 감소하여 가장 많이 하락하였고, 이 외에 운수창고업(84.9%) 4.6%p, 공공행정업(89.1%) 2.4%p, 수도하수업(95.5%) 2.0%p, 숙박음식



업(50.3%) 1.7%p, 보건사회복지업(65.5%)에서 1.2%p 하락하였다. 특히, 보건사회복지업과 숙박·음식업은 상대임금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최근 더 낮아지는 추세이며, 2020년 코로나19의 충격으로 큰 폭의 임금 하락까지 겹치면서 업종 간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표 5-22〉 연도별 산업별 월 평균 임금 및 격차(제조업=100)(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만원, %)

구분	금액					격차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임금노동자	237.2	243.0	255.8	264.3	268.1	-	-	-	-	-
농림어업	134.7	147.8	164.5	175.0	183.5	49.0	53.0	54.8	56.7	58.9
광업	319.2	328.0	344.1	309.8	305.1	116.1	117.6	114.6	100.4	97.9
제조업	274.9	278.9	300.2	308.5	311.6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기가스증기	410.6	420.2	442.7	405.8	471.9	149.4	150.7	147.5	131.5	151.4
수도하수	255.1	278.8	266.3	300.7	297.7	92.8	100.0	88.7	97.5	95.5
건설업	234.5	244.8	258.8	269.4	276.1	85.3	87.8	86.2	87.3	88.6
도소매업	196.8	203.1	215.7	236.7	240.5	71.6	72.8	71.9	76.7	77.2
운수창고	244.2	254.7	269.7	276.0	264.6	88.8	91.3	89.8	89.5	84.9
숙박음식	132.6	144.7	147.3	160.4	156.6	48.2	51.9	49.1	52.0	50.3
정보통신	320.2	326.0	332.3	352.6	363.9	116.5	116.9	110.7	114.3	116.8
금융보험	342.3	349.6	348.8	376.6	396.0	124.5	125.3	116.2	122.1	127.1
부동산업	189.7	206.7	223.1	232.3	242.2	69.0	74.1	74.3	75.3	77.7
전문·과학기술	344.1	343.5	352.6	369.4	366.8	125.2	123.2	117.5	119.7	117.7
사업관리지원임대	169.9	185.5	198.5	214.6	224.3	61.8	66.5	66.1	69.6	72.0
공공행정	302.4	289.1	288.5	282.2	277.7	110.0	103.7	96.1	91.5	89.1
교육서비스	269.3	266.3	285.8	278.6	288.2	98.0	95.5	95.2	90.3	92.5
보건사회복지	186.6	193.2	201.4	205.7	204.2	67.9	69.3	67.1	66.7	65.5
예술및여가	180.5	186.5	181.7	183.5	195.2	65.7	66.9	60.5	59.5	62.6
기타개인서비스	170.4	184.1	193.2	206.0	212.2	62.0	66.0	64.4	66.8	68.1
가구내고용 등	74.7	77.5	83.0	91.1	101.2	27.2	27.8	27.6	29.5	32.5
국제기구	318.7	368.4	283.0	338.8	290.9	115.9	132.1	94.3	109.8	93.4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제조업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각 산업별 상대임금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시간당 임금 기준 상대임금은 대체적으로 월평균 상대임금이 높은 업종에서 높았다. 2020년 8월 제조업과 비교한 시간당 상대임금은 역시 전기가스증기업에서 가장 높다. 전기가스증기업의 시간당 상대임금은 154.2%로 전년 동기 대비 18.7%p 상승하였고, 그다음 금융보험업이 131.5%로 높으며 전년 동기 대비 4.9% 상승하였다. 한편, 전문과학기술업은 121.3%로 높지만 전년 동기 대비 2.6%p 감소하였다. 이들 업종은 제조업과 비교한 상대임금이 높고 전문과학기술업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20년 시간당 상대임금도 상승하였다.

한편, 교육서비스업의 월평균 상대임금은 제조업에 못 미치지만 시간당 상대임금은 107.2%로 높았다. 반면, 가구내고용업의 시간당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3.7%p 하락하였고, 제조업의 44.1%로 가장 낮다. 그 다음 농림어업(55.3%), 숙박·음식업(56.6%), 기타개인서비스업(71.2%), 예술및여가업(71.7%), 사업관리지원임대업(73.6%), 보건사회복지업(75.5%), 도소매업(79.9%) 순으로 낮았다.

2020년 8월 기준, 시간당 상대임금은 국제기구업(99.7%)에서 전년 동기 대비 13.5%p 떨어져 가장 크게 하락했고, 운수창고업(83.4%) 4.2%p, 가구내고용업(44.1%) 3.7%p, 공공행정업(99.3%) 2.1%p, 광업(87.2%) 2.0%p, 예술및여가업(71.7%) 1.9%p, 숙박·음식업(56.6%) 1.3%p, 보건사회복지업(75.5%) 0.2%p 순으로 하락하였다.

한편, 전기가스증기업(154.2%)에서는 18.7%p로 가장 크게 상승하였고, 금융·보험업(131.5%) 4.9%p, 부동산업(80.6%) 3.4%p, 기타개인서비스업(71.2%) 3.0%p, 정보·통신업(119.4%) 2.8%p 순으로 상승하였다.

〈표 5-23〉 연도별 산업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제조업=100)(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원, %)

구분	금액					격차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임금노동자	13,486	13,754	14,607	15,274	15,627	-	-	-	-	-
농림어업	7,602	8,348	9,279	9,407	9,555	50.2	54.9	56.2	55.4	55.3
광업	17,624	17,881	18,177	15,135	15,085	116.4	117.6	110.2	89.2	87.2
제조업	15,147	15,207	16,501	16,968	17,291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기가스증기	24,144	23,786	24,821	22,985	26,665	159.4	156.4	150.4	135.5	154.2
수도하수	13,907	15,125	14,846	16,528	16,826	91.8	99.5	90.0	97.4	97.3
건설업	12,928	13,302	14,234	14,936	15,431	85.4	87.5	86.3	88.0	89.2
도소매업	10,868	11,248	11,888	13,317	13,815	71.8	74.0	72.0	78.5	79.9
운수창고	12,861	13,511	14,173	14,861	14,419	84.9	88.8	85.9	87.6	83.4
숙박음식	7,539	8,166	8,506	9,822	9,791	49.8	53.7	51.5	57.9	56.6
정보통신	18,172	18,306	18,689	19,786	20,650	120.0	120.4	113.3	116.6	119.4
금융보험	19,402	19,651	19,756	21,486	22,732	128.1	129.2	119.7	126.6	131.5
부동산업	10,709	11,587	13,158	13,107	13,942	70.7	76.2	79.7	77.2	80.6
전문과학기술	19,550	19,458	20,012	21,024	20,967	129.1	128.0	121.3	123.9	121.3
사업관리지원업대	9,570	10,171	11,043	12,075	12,728	63.2	66.9	66.9	71.2	73.6
공공행정	17,863	17,116	17,315	17,203	17,164	117.9	112.6	104.9	101.4	99.3
교육서비스	16,834	16,817	18,107	18,367	18,540	111.1	110.6	109.7	108.2	107.2
보건사회복지	11,243	11,678	12,442	12,837	13,048	74.2	76.8	75.4	75.7	75.5
예술및여가	10,786	11,696	11,693	12,494	12,402	71.2	76.9	70.9	73.6	71.7
기타개인서비스	9560	10,445	10,996	11,564	12,314	63.1	68.7	66.6	68.2	71.2
가구내고용 등	5881	5,235	5,708	8,112	7,628	38.8	34.4	34.6	47.8	44.1
국제기구	18,348	20,992	16,553	19,214	17,235	121.1	138.0	100.3	113.2	99.7

주: 1)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2)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3) 제조업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각 산업별 상대임금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월평균 상대임금이 증가하였을 경우 대체로 시간당 상대임금이 증가하였고, 월평균 상대임금이 감소하였을 경우, 시간당 상대임금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일부 업종에서는 월평균 상대임금은 상승하였지만 시간당 상대임금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예술및여가업, 가구내고용업, 교육서비스업, 농림어업

등에서는 월평균 상대임금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상대임금은 하락하였다. 이중 예술및여가업의 경우 월평균 상대임금은 3.1%p 상승하였고, 시간당 상대임금은 1.9%p 감소하였다. 가구내고용업도 월평균 상대임금은 3.0%p 상승하고, 시간당 상대임금은 3.7%p 감소하였으며, 교육서비스업은 월평균 상대임금은 2.2%p 상승, 시간당 상대임금은 1.0%p 감소하였고, 농림어업은 월평균 상대임금이 2.2%p 상승하고, 시간당 상대임금이 0.1%p 감소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업종별 임금격차를 살펴보았다. 제조업(=100)과 비교한 월평균 상대임금은 전기·가스·증기업 155.0%, 금융·보험업 141%, 전문·과학·기술업 132.6%, 정보·통신업 131.7%, 광업 112.9%, 수도·하수업 105.5%으로 제조업보다 높고, 반면, 숙박·음식업은 52.9%로 제조업의 절반 수준으로 가장 낮고, 이 외에 예술및여가업 73.4%, 기타개인서비스업 76.8% 수준이었다. 건설업에서는 117.3%로 4.9%p 상승하여 가장 많이 올랐고, 교육서비스업은 129.7%로 7.7%p 감소하여 가장 크게 하락하였다.(<부표 5-3> 참조).

구체적으로 전기·가스·증기업은 2016년 161.5%에서 이후 해마다 158.0%, 157.2%, 153.1%로 감소하다가 2020년 155.0%로 전년 동기 대비 1.9%p 상승하였고, 금융·보험업도 2016년 142.6%에서 2017년 이후 각각 140.3%, 136.0%, 135.2%로 감소하다가 2020년 141.0%로 전년 동기 대비 5.8%p 상승하여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이는 곧 업종별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숙박·음식업은 52.9%로 제조업의 절반 수준으로 가장 낮고, 예술및여가업은 73.4%, 기타개인서비스업이 76.8% 수준이다. 이중 숙박·음식업은 ('16년) 50.7%, ('17년) 50.5%, ('18년) 52.1%, ('19년) 52.9%, ('20년)

52.9%로 증가 추세이지만 그 크기는 미미하고, 예술및여가업도 ('16년) 72.3%, ('17년) 75.5%, ('18년) 73.4%, ('19년) 72.2%로 감소하다가 '20년 73.4%로 전년 동기 대비 1.2%p 증가하였지만 증가폭은 적다.

한편, 기타개인서비스업은 2016년 68.8%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9년 72.9%로 상승하였고, 2020년 76.8%로 전년 동기 대비 3.9%p 증가하였다. 하지만 제조업과 비교한 상대임금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외에 2020년 월평균 임금 기준 상대임금 변동이 큰 업종으로 도소매업은 ('16년) 87.7%, ('17년) 90.9%, ('18년) 90.7%, ('19년) 90.7%, ('20년) 94.4%로 전년 동기 대비 3.7%p 상승하였고, 부동산업은 2020년 83.1%로 전년 동기 대비 2.1%p 상승하였다.

반면, 교육서비스업은 ('16년) 96.6%, ('17년) 101.3%, ('18년) 95.8%, ('19년) 94.6%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2020년 91.8%로 전년 동기 대비 2.8%p 하락하였고, 보건사회복지업은 2016년 79.1%에서 2019년 83.4%로 상승하였지만 2020년 81.6%로 전년 동기 대비 1.8%p 감소하였으며, 건설업도 2020년 90.1%로 전년 동기 대비 1.2%p 감소하였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의 2020년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상대임금은 전가·가스·증기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업, 교육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건설업, 광업, 수도·하수업에서 제조업 보다 높았다(〈부표 5-4〉 참조).

이중 건설업은 ('16년) 113.1%, ('17년) 117.5%, ('18년) 114.8%, ('19년) 112.4% 보이다가 ('20년) 117.3%로 전년 동기 대비 4.9%p 상승하여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반면, 교육서비스업은 ('16년) 132.2%, ('17년) 145.0%, ('18년) 136.8%, ('19년) 137.4%를 보이다가 2020년 129.7%로 전년 동기 대비 7.7%p 감소하여 가장 크게 하락하였다.

이 외에 전문·과학·기술업은 2016년 133.0%에서 2020년 130.1%로 전년

동기 대비 3.8%p 하락하였으며, 정보·통신업은 2016년 128.6%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9년 132.0%를 보였으나 2020년 128.8%로 전년 동기 대비 3.2%p 하락하였고, 수도하수업 역시 2016년 96.0%에서 계속 증가하다 2019년 104.6%를 보였으나 2020년 101.8%로 전년 동기 대비 2.8%p 하락하였다.

한편,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사업관리지원업, 농림어업, 보건사회복지업, 예술및여가업, 부동산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숙박·음식업의 시간당 상대임금은 제조업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중 숙박·음식업은 2016년 56.6%에서 계속 상승하여 2020년 64.9%로 전년 동기 대비 4.8%p 상승하였고, 도소매업은 2016년 86.5%에서 2020년 96.1%로 전년 동기 대비 3.0%p 상승하였으며, 개인서비스업은 2016년 74.5%에서 2020년 81.1%로 1.8%p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낮다. 이 외에 부동산업은 82.0%로 전년 동기 대비 1.6%p 상승하였고, 예술및여가업은 83.7%로 전년 동기 대비 0.4%p 상승하였다.

## ② 저임금 및 고임금 비율

임금 관련 분배지표의 하나로 임금 수준별 노동자 규모와 비중 변화를 살펴보았다. 임금노동자의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중위임금의 2/3 미만), 중간임금(중위임금의 2/3 이상~3/2 미만), 고임금(중위임금의 3/2 이상)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중위임금(중간임금)은 해당 연도 임금노동자를 임금 액수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였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노동자의 임금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의 월평균 임금 기준으로 연도별 중위임금은 ('16년) 200만원, ('17년) 200만원, ('18년) 210만원,

(‘19년) 230만원, (‘20년) 240만원이다. 2019년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각 임금 수준별 경계값은 저임금 153만원 미만, 중간임금 153~345만원 미만, 고임금 345만원 이상이고, 2020년은 저임금 160만원 미만, 중간임금 160~360만원 미만, 고임금 360만원 이상이다.

2020년 8월 기준, 임금노동자 전체 저임금 노동자는 433만 9천명(21.2%), 중간임금은 1,187만 3천명(58.1%), 고임금은 423만 4천명(20.7%)이다. 2020년 저임금 노동자는 전년 동기 대비 9만 9천명(-0.4%p) 감소하였고, 고임금 노동자는 전년 동기 대비 50만 4천명(-2.3%p) 감소하여 중간임금층이 두터워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월평균 임금 기준 저임금 노동자는 16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로 20년 고용 증가 업종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하였고, 고용 감소 업종에서 저임금 노동자도 감소하였다.

업종별로 보건사회복지업, 공공행정업, 가구내고용업, 국제기구업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하였고, 반면,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예술및여가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숙박음식업에서 감소하였다. 특히, 숙박음식업과 가구내고용업은 2명 중 1명이 저임금 노동자로 숙박음식업에서 7천명 감소하였지만 비중은 2.4%p 증가하였고, 가구내고용업에서 9천명 증가하였지만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0.8%p 감소하였다.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한 보건사회복지업에서 저임금 노동자는 76만 8천명(33.0%)으로 7만 1천명(0.9%p) 증가하였고, 공공행정업은 31만 7천명(27.9%)으로 4만 명(2.2.%p) 증가하였다. 반면, 교육서비스업의 저임금 노동자는 34만 1천명(23.0%)으로 4만 3천명(-1.8%p) 감소하여 가장 많이 줄었고, 예술및여가업의 저임금 노동자는 12만 3천명(36.9%)으로 2만 7천명(-6.8%p) 감소하여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2020년 8월 저임금 노동자는 가구내고용업에서 8만 1천명(78.6%)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숙박음식업에서 66만 6천명(51.0%)이다. 가구내고용업과 숙박음식업 노동자 2명 중 1명은 16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구내고용업은 저임금 노동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9천명 증가하였지만 비중은 10.8%p 감소하였고, 숙박음식업은 저임금 노동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만 7천명 감소하였지만 비중은 2.4%p 증가하였다.

이외에 농림어업 5만 6천명(46.5%), 예술및여가업 12만 3천명(36.9%), 보건사회복지업 76만 8천명(33.0%), 기타개인서비스업 22만 2천명(32.8%) 수준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30%를 넘고, 공공행정업 31만 7천명(27.9%), 도소매업 51만 1천명(23.5%), 교육서비스업 34만 1천명(23.0%), 사업관리지원임대업 28만 명(22.0%), 부동산업 7만 8천명(2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교육서비스업의 저임금 노동자는 34만 1천명(23.0%)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3천명(-1.8%p) 감소하여 숫적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제조업의 저임금 노동자는 31만 6천명(8.1%)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6천명(-0.8%p) 감소하였다. 예술및여가업의 저임금 노동자는 12만 3천명(36.9%)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7천명(-6.8%p) 감소하여 비중으로는 크게 줄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업의 저임금 노동자는 76만 8천명(33.0%)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만 1천명(+0.9%p) 증가하여 가장 큰 수로 늘었고, 공공행정업 저임금 노동자는 31만 7천명(27.9%)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명(+2.2%p) 증가하였다.

한편, 고임금 노동자는 전기·가스·증기업(64.3%), 금융·보험업(46.2%), 정보·통신업(41.1%), 전문·과학기술업(39.3%), 국제기구업(38.8%), 공공행정업(31.4%), 교육서비스업(28.3%), 제조업(27.5%), 수도·하수업(25.0%), 광



업(24.0%) 순으로 높았다. 이 중 전기·가스·증기업은 고임금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2020년 고임금 노동자가 4만 6천명(64.3%)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천명(+7.0%p) 증가하여 3명 중 2명은 고임금을 받는다.

2020년 8월 전년 동기 대비 고임금 노동자 변동은 전기·가스·증기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농림어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감소하였다. 이 중 제조업은 고임금 노동자가 108만 3천명(27.5%)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만 2천명(-3.8%p) 감소하여 숫적으로 가장 크게 줄었고, 도소매업은 고임금 노동자가 29만 1천명(13.4%)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 7천명(-2.1%p) 감소하였으며, 운수창고업은 고임금 노동자가 13만 7천명(16.9%)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 5천명(-6.8%p) 감소하였다.

이외에 공공행정업은 고임금 노동자가 35만 6천명(31.4%)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4천명(-5.6%p) 감소하였고, 전문·과학기술업은 38만 7천명(39.3%)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8천명(-3.4%p) 감소하였으며, 국제기구업 고임금 노동자는 7천명(38.8%)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천명(-34.2%p) 감소하여 비중으로는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나타난 업종별 임금 수준별 동향에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증가한 업종에서 대부분 고임금 노동자 비중이 감소하였다. 광업, 수도·하수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업, 공공행정업, 보건·사회복지업, 국제기구업에서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증가하고, 고임금 노동자 비중은 감소했다.

국제기구업은 저임금 노동자가 4천명(20.2%)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천명(+20.2%p) 증가하였고, 고임금 노동자는 7천명(38.8%)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천명(-34.2%p) 감소하였다.

공공행정업은 저임금 노동자가 31만 7천명(27.9%)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명(+2.2%p) 증가하였고, 고임금 노동자는 35만 6천명(31.4%)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4천명(-5.6%p) 감소하였다.

보건사회복지업은 저임금 노동자가 76만 8천명(33.0%)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만 1천명(+0.9%p) 증가하였고, 고임금 노동자는 18만 9천명(8.1%)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5천명(-1.7%p) 감소했다. 노동자 규모로 저임금 노동자는 보건사회복지업(7만 1천 명)과 공공행정업(4만 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한편,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기타개인서비스업에서는 저임금 노동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증가했다. 이는 임금 수준 별 노동자 수 증감에 따른 상대적 크기의 상호작용 때문으로 보인다.

숙박음식업은 가구내고용업을 제외하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가장 크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전년 동기 대비 3만 7천명 감소하였지만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오히려 2.4%p 증가하였다. 반면 고임금 노동자(-2만 3천명, -1.4%p)와 중간임금 노동자(-8만 1천명, -1.0%p)는 감소가 더 컸다.

도소매업 역시 저임금 노동자가 51만 1천명(23.5%)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3천명(+0.2%p) 감소하였지만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증가하였고, 중간임금 노동자는 137만 명(63.1%)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1천명(+1.8%p) 감소하였으나 중간임금 노동자 비중은 증가하였다. 반면 고임금 노동자는 29만 1천명(13.4%)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 7천명(-2.1%p) 감소하였다. 고임금 노동자의 감소가 커서 저임금과 중간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타개인서비스업은 저임금과 고임금 노동자 비중이 함께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는 22만 2천명(32.8%)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5천명(+0.2%p) 감소하였지만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증가하였고, 중간임금 노동자는 38만 8천명(57.3%)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1천명(-1.8%p)은 감소한 반면, 고임금 노동자는 6만 7천명(9.9%)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천명(+1.6%p) 증가하였다. 고임금 노동자 수 증가 규모로는 기타개인서비스업에

서 가장 많다. 코로나19 외중에 중간임금 노동자가 고임금 혹은 저임금 노동자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감소하거나 주춤하면서 고임금 노동자 비중이 증가한 업종은 농림어업, 전기·가스·증기업이다. 농림어업은 저임금 노동자가 5만 6천명(46.5%)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천명(-1.9%p) 감소하였고, 중간임금 노동자는 5만 3천명(44.5%)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천명(+0.4%p) 감소하였으며, 고임금 노동자는 1만 1천명(9.0%)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천명(+1.5%p) 증가하였다.

전기·가스·증기업은 대표적 고임금 업종으로 저임금 노동자는 1천명(2.0%)으로 전년 동기 대비 변동 없고, 중간임금 노동자는 2만 4천명(33.7%)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천명(-7.1%p) 감소하였고, 고임금 노동자는 4만 6천명(64.3%)으로 5천명(+7.0%p) 증가하였다. 중간임금 노동자는 감소하고 고임금 노동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저임금 노동자와 고임금 노동자 비중이 함께 감소한 경우이다. 제조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업, 사업관리지원업 대업, 교육서비스업, 예술·문화·여가업이다.

제조업은 저임금 노동자와 고임금 노동자는 감소하고 중간임금 노동자 비중은 증가하였다. 저임금 노동자는 31만 6천명(8.1%)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6천명(-0.8%p) 감소하였고, 고임금 노동자는 108만 3천명(27.5%)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만 2천명(-3.8%p) 감소하였다. 반면, 중간임금 노동자는 253만 1천명(64.4%)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만 2천명(+4.6%p) 증가하였는데, 고임금 노동자가 감소하면서 중간임금 노동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서비스업은 저임금 노동자 수 감소가 가장 큰 업종으로 저임금 노동자는 34만 1천명(23.0%)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3천명(-1.8%p) 감소

하였고, 고임금 노동자는 42만 명(28.3%)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5천명 (-1.1%p) 감소하였으며 업종 중에서 저임금 노동자 규모가 가장 크다.

〈표 5-24〉 산업별 임금수준별 노동자 규모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천명)

구분	2019			2020			증감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임금노동자	4,438	11,383	4,738	4,339	11,873	4,234	-99	490	-504
농림어업	59	54	9	56	53	11	-3	-1	2
광업	0	8	4	0	8	3	0	0	-1
제조업	352	2,359	1,235	316	2,531	1,083	-36	172	-152
전기·가스·증기	1	29	41	1	24	46	0	-5	5
수도·하수	7	90	35	9	97	35	2	7	0
건설업	256	992	379	270	1,054	338	14	62	-41
도소매업	524	1,381	348	511	1,370	291	-13	-11	-57
운수·창고	137	480	192	148	528	137	11	48	-55
숙박·음식	703	694	50	666	613	27	-37	-81	-23
정보·통신	45	403	329	37	417	317	-8	14	-12
금융·보험	82	319	360	73	330	346	-9	11	-14
부동산업	97	254	55	78	241	44	-19	-13	-11
전문·과학·기술	59	512	425	37	562	387	-22	50	-38
사업관리·지원·대	299	833	109	280	885	108	-19	52	-1
공공행정	277	403	400	317	462	356	40	59	-44
교육서비스	384	709	455	341	721	420	-43	12	-35
보건·사회복지	697	1,263	214	768	1,371	189	71	108	-25
예술·및·여가	150	161	32	123	188	22	-27	27	-10
기타·개인서비스	237	429	60	222	388	67	-15	-41	7
가구·내·고용 등	72	9	0	81	22	0	9	13	0
국제기구	0	3	8	4	8	7	4	5	-1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위임금의 2/3 수준 이상~3/2 수준 미만, 고임금은 중위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25〉 산업별 임금수준별 노동자 비중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 %p)

구분	2019			2020			증감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임금노동자	21.6	55.4	23.0	21.2	58.1	20.7	-0.4	2.7	-2.3
농림어업	48.4	44.1	7.5	46.5	44.5	9.0	-1.9	0.4	1.5
광업	0.0	66.5	33.5	3.3	72.7	24.0	3.3	6.2	-9.5
제조업	8.9	59.8	31.3	8.1	64.4	27.5	-0.8	4.6	-3.8
전기가스증기	2.0	40.8	57.3	2.0	33.7	64.3	0.0	-7.1	7.0
수도하수	5.4	68.4	26.3	6.7	68.3	25.0	1.3	-0.1	-1.3
건설업	15.8	61.0	23.3	16.2	63.4	20.3	0.4	2.4	-3.0
도소매업	23.3	61.3	15.5	23.5	63.1	13.4	0.2	1.8	-2.1
운수창고	16.9	59.4	23.7	18.2	64.9	16.9	1.3	5.5	-6.8
숙박음식	48.6	48.0	3.4	51.0	47.0	2.0	2.4	-1.0	-1.4
정보·통신	5.8	51.8	42.4	4.8	54.1	41.1	-1.0	2.3	-1.3
금융보험	10.8	42.0	47.3	9.8	44.1	46.2	-1.0	2.1	-1.1
부동산업	23.8	62.5	13.6	21.5	66.3	12.1	-2.3	3.8	-1.5
전문·과학기술	5.9	51.4	42.7	3.7	57.0	39.3	-2.2	5.6	-3.4
사업관리지원업	24.1	67.1	8.8	22.0	69.5	8.5	-2.1	2.4	-0.3
공공행정	25.7	37.3	37.0	27.9	40.7	31.4	2.2	3.4	-5.6
교육서비스	24.8	45.8	29.4	23.0	48.6	28.3	-1.8	2.8	-1.1
보건사회복지	32.1	58.1	9.8	33.0	58.9	8.1	0.9	0.8	-1.7
예술및여가	43.7	46.9	9.4	36.9	56.4	6.7	-6.8	9.5	-2.7
기타개인서비스	32.6	59.1	8.3	32.8	57.3	9.9	0.2	-1.8	1.6
가내고용 등	89.4	10.6	0.0	78.6	21.5	0.0	-10.8	10.9	0.0
국제기구	0.0	27.0	73.0	20.2	41.0	38.8	20.2	14.0	-34.2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위임금의 2/3 수준 이상~3/2 수준 미만, 고임금은 중위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시간당 임금 기준, 각 연도별 중위임금은 ('16년) 10,822원, ('17년) 11,513원, ('18년) 11,513원, ('19년) 12,434원, ('206년) 13,034원이다. 2020년 8월 기준, 저임금 노동자(8,689원 미만)는 355만 명(17.4%)으로 전

년 동기 대비 30만 8천명(+1.6%p) 증가하였고, 중간임금 노동자(8,689~19,551원 미만)는 1,217만 2천명(59.5%)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만 명(-1.3%p) 감소하였으며, 고임금 노동자(19,551원 이상)는 472만 3천명(23.1%)으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0만 1천명(-0.4%p) 감소하였다.

시간당 임금 기준 저임금 노동자는 355만 명(17.4%)으로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 노동자 433만 9천명(21.2%) 보다 3.8%p 적다. 그러나 고임금 노동자는 472만 3천명(23.1%)으로 월평균 임금 기준의 고임금 노동자 423만 천명(20.7%) 보다 2.4%p 크다. 즉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줄어들고, 고임금 노동자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시간당 8,689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부동산업, 예술및 여가업, 정보·통신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증가하였다. 특히 보건사회복지업, 건설업, 제조업, 공공행정업에서 증가가 컸다.

이중 보건사회복지업의 저임금 노동자는 51만 명(21.9%)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 1천명(+2.1%p) 증가하였고, 건설업의 저임금 노동자는 20만 5천명(12.3%)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2천명(+2.3%p) 증가하였으며, 제조업의 저임금 노동자는 31만 9천명(8.1%)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7천명(+0.9%p) 증가하였고, 공공행정업의 저임금 노동자는 23만 2천명(20.4%)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7천명(+1.4%p) 증가하였다.

한편, 농림어업, 가구내고용업, 국제기구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숙박·음식업 등에서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기타개인서비스업은 저임금 노동자가 21만 6천명(32.0%)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9천명(+4.8%p) 증가하였고, 숙박·음식업은 저임금 노동자가 59만 9천명(45.9%)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천명(+4.8%p) 증가하였으며, 가구내고용업은 저임금 노동자가 6

만 4천명(62.8%)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9천명(+7.5%p) 증가하였다.

2020년 고임금 노동자 변동은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공공행정업에서 감소가 컸다. 제조업 고임금 노동자는 113만 4천명(28.9%)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 2천명(-1.4%p) 감소하였고, 교육서비스업은 53만 5천명(36.1%)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9천명(-0.3%p) 감소하였으며, 도소매업 고임금 노동자는 32만 명(14.7%)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6천명(-0.6%p) 감소하였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업, 기타개인서비스업, 금융·보험업에서 고임금 노동자가 증가하였다. 보건사회복지업 고임금 노동자는 24만 8천명(10.6%)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8천명(0.0%p) 증가하였고, 기타개인서비스업의 고임금 노동자는 7만 6천명(11.3%)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7천명(+3.1%p) 증가하였으며, 이외에 광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19.4%p, 전기·가스·증기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10.5%p 증가하여 고임금 노동자 비중의 증가가 컸다.

업종별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업, 전문과학기술업, 교육서비스업, 공공행정업, 보건사회복지업, 가내고용업, 국제기구업에서는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하고 고임금 노동자는 감소했다.

이중 운수창고업은 저임금 노동자가 16만 2천명(20.0%)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4천명(+2.9%p) 증가한 반면 고임금 노동자는 14만 명(17.2%)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4천 명(-3.0%p) 감소하였다.

숙박·음식업은 저임금 노동자는 증가하고, 중간임금과 고임금 노동자는 감소했는데, 숙박·음식업의 저임금 노동자는 59만 9천명(45.9%)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천명(+4.8%p) 증가하였고, 반면, 고임금 노동자는 3만 1천명(2.4%)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9천 명(-1.1%p) 감소하였으며, 중간임금 노동자는 67

만 6천명(51.8%)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만 5천명(-3.6%p) 감소하였다.

공공행정업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간임금 노동자가 증가하고, 고임금 노동자는 감소했다. 저임금 노동자는 23만 2천명(20.4%)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7천명(+1.4%p) 증가하였으며, 중간임금 노동자는 50만 9천명(44.8%)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 2천명(+2.4%p) 증가하였다. 반면, 고임금 노동자는 39만 4천명(34.7%)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3천명(-3.9%p) 감소했다.

둘째,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업, 수도하수업, 금융보험업, 사업관리지원업대업, 기타개인서비스업에서는 저임금과 고임금 노동자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전기가스증기업 중간임금 노동자는 2만 1천명(298%)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천명(-11.8%p) 감소하였고, 고임금 노동자는 4만 9천명(68.2%)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천명(+10.5%p) 증가하였다.

기타개인서비스업에서는 저임금과 고임금 노동자 모두 증가하였고, 중간임금 노동자는 감소하였는데, 저임금 노동자는 21만 6천명(32.0%)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9천명(+4.8%p) 증가하였고, 고임금 노동자는 7만 6천명(11.3%)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7천명(+3.1%p) 증가하였으며, 중간임금 노동자는 38만 4천명(56.8%)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 5천명(-7.9%p) 감소하였다.

셋째,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예술및여가업에서는 저임금 노동자가 감소하고, 고임금 노동자가 증가했다. 특히, 정보·통신업은 저임금과 중간임금 노동자는 감소하고 고임금 노동자는 증가하였는데, 저임금 노동자는 2만 1천명(2.7%)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천명(-0.7%p) 감소하였고, 중간임금 노동자는 41만 1천명(53.3%)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2천명(-1.2%p) 감소하였으며, 고임금 노동자는 33만 9천명(44.0%)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2천명(+1.9%p) 증가하였다.



〈표 5-26〉 산업별 임금 수준별 노동자 규모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천명)

구분	2019			2020			증감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임금노동자	3,242	12,492	4,824	3,550	12,172	4,723	308	-320	-101
농림어업	52	65	5	65	49	6	13	-16	1
광업	0	11	1	0	8	3	0	-3	2
제조업	282	2,468	1,196	319	2,477	1,134	37	9	-62
전기가스증기	1	30	41	1	21	49	0	-9	8
수도하수	5	95	32	7	96	39	2	1	7
건설업	163	1,115	349	205	1,109	348	42	-6	-1
도소매업	430	1,477	346	453	1,398	320	23	-79	-26
운수창고	138	507	164	162	511	140	24	4	-24
숙박음식	595	801	50	599	676	31	4	-125	-19
정보·통신	27	423	327	21	411	339	-6	-12	12
금융보험	42	353	366	61	310	377	19	-43	11
부동산업	92	252	61	71	233	59	-21	-19	-2
전문·과학기술	34	515	447	36	508	442	2	-7	-5
사업관리지원업	246	879	115	266	880	128	20	1	13
공공행정	205	457	417	232	509	394	27	52	-23
교육서비스	154	830	564	166	781	535	12	-49	-29
보건사회복지	429	1,514	230	510	1,570	248	81	56	18
예술및여가	106	195	43	93	197	45	-13	2	2
기타개인서비스	197	469	59	216	384	76	19	-85	17
가내고용 등	45	33	3	64	36	2	19	3	-1
국제기구	0	3	8	1	8	10	1	5	2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간은 중위임금의 2/3 수준 이상~3/2 수준 미만, 고임금은 중위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27〉 산업별 임금 수준별 노동자 비중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 %p)

구분	2019			2020			증감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임금노동자	15.8	60.8	23.5	17.4	59.5	23.1	1.6	-1.3	-0.4
농림어업	42.4	53.2	4.4	54.1	41.0	4.9	11.7	-12.2	0.5
광업	0.0	91.6	8.4	3.3	68.9	27.8	3.3	-22.7	19.4
제조업	7.2	62.5	30.3	8.1	63.0	28.9	0.9	0.5	-1.4
전기가스증기	0.7	41.6	57.7	2.0	29.8	68.2	1.3	-11.8	10.5
수도하수	3.6	72.4	24.0	5.1	67.6	27.3	1.5	-4.8	3.3
건설업	10.0	68.5	21.5	12.3	66.7	20.9	2.3	-1.8	-0.6
도소매업	19.1	65.6	15.3	20.9	64.4	14.7	1.8	-1.2	-0.6
운수창고	17.1	62.7	20.2	20.0	62.8	17.2	2.9	0.1	-3.0
숙박음식	41.1	55.4	3.5	45.9	51.8	2.4	4.8	-3.6	-1.1
정보·통신	3.4	54.5	42.1	2.7	53.3	44.0	-0.7	-1.2	1.9
금융보험	5.5	46.4	48.1	8.2	41.5	50.3	2.7	-4.9	2.2
부동산업	22.8	62.2	15.1	19.5	64.2	16.4	-3.3	2.0	1.3
전문·과학기술	3.4	51.8	44.9	3.6	51.5	44.8	0.2	-0.3	-0.1
사업관리지원업대	19.9	70.9	9.3	20.9	69.1	10.1	1.0	-1.8	0.8
공공행정	19.0	42.4	38.6	20.4	44.8	34.7	1.4	2.4	-3.9
교육서비스	10.0	53.6	36.4	11.2	52.7	36.1	1.2	-0.9	-0.3
보건사회복지	19.8	69.7	10.6	21.9	67.5	10.6	2.1	-2.2	0.0
예술및여가	30.8	56.8	12.5	27.8	58.9	13.3	-3.0	2.1	0.8
기타개인서비스	27.2	64.7	8.2	32.0	56.8	11.3	4.8	-7.9	3.1
가구내고용 등	55.3	40.5	4.2	62.8	35.4	1.8	7.5	-5.1	-2.4
국제기구	0.0	27.0	73.0	5.1	41.9	53.0	5.1	14.9	-20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임금의 2/3 수준 미만  
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간은 중위임금의 2/3 수준 이상~3/2 수준 미만, 고임금은 중  
위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예술및여가업에서는 저임금 노동자는 크게 감소하고 중간임금과 고임금 노동자는 증가하였다. 저임금 노동자는 9만 3천명(27.8%)으로 전년 동기 대

비 1만 9천명(-3.0%p) 감소하였고, 중간임금 노동자는 19만 7천명(58.9%)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천명(+2.1%p) 증가하였으며, 고임금 노동자는 4만 5천명(13.3%)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천 명(+0.8%p) 증가했다.

### ③ 저임금 규모 및 비율 변화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와 비중 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았다. 해마다 많은 업종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감소와 증가가 반복되고 있지만 2020년 들어 변동이 컸다. 5개년 간 특징을 보면, 월평균 임금 기준, 2017년과 2018년 전년 동기 대비 대부분의 업종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감소하거나 변동이 없었으나 2019년에는 수도하수업, 기타개인서비스업, 국제기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임금기준 저임금 노동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2020년엔 전년 동기 대비 보건사회복지업, 공공행정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수도하수업, 가구내고용업, 국제기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감소하거나 변동이 없었다.

월평균 임금 기준으로 2020년 저임금 노동자 변동은 특히, 보건사회복지업, 공공행정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업, 제조업, 예술및여가업, 가구내고용업, 국제기구업 등에서 컸다. 보건사회복지업, 공공행정업, 국제기구업에서는 저임금 노동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반면,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예술및여가업, 기타개인서비스업에서는 저임금 노동자가 감소가 컸다. 이 중 기타개인서비스업은 최근 5개년 계속 저임금 노동자가 감소하고 있고, 숙박음식업은 저임금 노동자는 감소하였지만 비중은 증가하였고, 가구내고용업은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하였지만 오히려 비중은 감소하였다.

저임금 노동자가 크게 증가한 보건사회복지업의 저임금 노동자는 2016년

이후 각각 60만 명(33.0%), 56만 4천명(30.4%), 57만 명(28.5%), 69만 7천 명(32.1%), 76만 8천명(33.0%)으로 증가하였다. 2019년에 전년 동기 대비 12만 7천명(증가율 22.3%)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20년에 전년 동기 대비 7만 1천명(증가율 10.2%) 증가하였다.

공공행정업 역시 저임금 노동자가 많이 증가했는데, 공공행정업의 저임금 노동자는 2016년 이후 각각 21만 4천명(20.9%), 24만 명(21.8%), 22만 4천 명(19.8%), 17만 7천명(25.7%), 31만 7천명(27.9%)으로 2018년 감소했지만 다시 크게 증가했다. 2018년 전년 동기 대비 1만 6천명(감소율 -6.7%) 감소했고, 2019년 전년 동기 대비 5만 3천명(증가율 23.7%) 증가했으며,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4만 명(증가율 14.4%) 증가했다.

반면, 저임금 노동자 감소가 큰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2016년 이후 각각 33만 7천명(22.6%), 34만 명(22.1%), 27만 2천명(18.1%), 38만 4천명(24.8%), 34만 1천명(23.0%)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다. 2018년 전년 동기 대비 6만 8천명(감소율 -20.0%) 감소하였다가, 2019년 전년 동기 대비 11만 2천명(증가율 41.2%) 증가하여 크게 늘었고, 2020년 다시 전년 동기 대비 7만 1천명(감소율 -11.2%) 감소하였다.

제조업의 저임금 노동자는 2016년 이후 각각 43.8천명(11.0%), 35만 6천 명(8.9%), 23만 2천명(5.9%), 35만 2천명(8.9%), 31만 6천명(8.1%)으로 2017년과 18년 감소하다 2019년 증가하였으나 2020년 다시 감소하였다. 2018년 전년 동기 대비 12만 4천명(감소율 -34.8%) 감소하였고, 2019년 전년 동기 대비 12만 명(증가율 51.7%) 증가하였으나 2020년 다시 전년 동기 대비 3만 6천명(감소율 -10.2%) 감소하였다.

예술및여가업의 저임금 노동자는 2016년 이후 각각 10만 명(38.2%), 11만 3천명(41.5%), 11만 6천명(40.3%), 15만 명(43.7%), 12만 3천명

(36.9%)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40%를 넘는다. 그간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2019년 전년 동기 대비 3만 4천명(증가율 29.3%) 증가하였으나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2만 7천명(감소율 -18.0%) 감소하였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6.8%p 감소했다.

숙박·음식업의 저임금 노동자는 2016년 이후 각각 78만 2천명(52.7%), 67만 2천명(46.5%), 62만 7천명(46.0%), 70만 3천명(48.6%), 66만 6천명(51.0%)으로 절반가량이 저임금 노동자이다. 2017년과 18년 크게 감소하다 2019년 전년 동기 대비 7만 6천명(증가율 12.1%) 증가하였으나 2020년 다시 전년 동기 대비 3만 7천명(감소율 -5.3%) 감소했지만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오히려 2.4%p 증가했다. 중간임금과 고임금 노동자 감소가 커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가구내고용업은 저임금 노동자가 2016년 이후 각각 5만 명(93.2%), 4만 6천명(88.3%), 3만 2천명(82.3%), 7만 2천명(89.4%), 8만 1천명(78.6%)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80~90%에 달한다. 2017년~18년 저임금 노동자가 감소하다가 2019년 전년 동기 대비 4만 명(증가율 125.0%) 증가하였고,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9만 명(증가율 12.5%) 더 증가하였다.

2020년 저임금 노동자 규모와 비중의 업종별 특징은 첫째, 보건사회복지업, 공공행정업, 국제기구업, 수도하수업, 건설업, 운수창고업에서는 저임금 노동자 규모와 비중이 모두 증가하였다. 둘째, 가구내고용업은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은 감소하였다. 셋째, 숙박·음식업, 기타개인서비스업, 광업, 도소매업에서는 저임금 노동자는 감소했으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 넷째,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예술및여가업, 농림어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업, 사업관리지원업에서는 저임금 노동자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하였다.

〈표 5-28〉 연도별 산업별 저임금 노동자 규모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천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규모	증감률
임금노동자	4,699	4,093	3,591	4,438	4,339	-99	-2.2
농림어업	76	63	44	59	56	-3	-5.1
광업	0	0	0	0	0	0	-
제조업	438	356	232	352	316	-36	-10.2
전기가스증기	3	3	1	1	1	0	0.0
수도하수	10	9	12	7	9	2	28.6
건설업	260	186	186	256	270	14	5.5
도소매업	660	590	478	524	511	-13	-2.5
운수창고	123	113	86	137	148	11	8.0
숙박음식	782	672	627	703	666	-37	-5.3
정보통신	33	37	36	45	37	-8	-17.8
금융보험	74	41	57	82	73	-9	-11.0
부동산업	109	89	76	97	78	-19	-19.6
전문·과학기술	68	45	45	59	37	-22	-37.3
사업관리지원임대	458	327	251	299	280	-19	-6.4
공공행정	214	240	224	277	317	40	14.4
교육서비스	337	340	272	384	341	-43	-11.2
보건사회복지	600	564	570	697	768	71	10.2
예술및여가	100	113	116	150	123	-27	-18.0
기타개인서비스	302	259	245	237	222	-15	-6.3
가구내고용 등	50	46	32	72	81	9	12.5
국제기구	0	0	1	0	4	4	-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29〉 연도별 산업별 저임금 노동자 규모 변화(전년 대비 증감률)  
(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전년 동기 대비 규모 변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7	'18	'19	'20	'17	'18	'19	'20
임금노동자	-606	-502	847	-99	-12.9	-12.3	23.6	-2.2
농림어업	-13	-19	15	-3	-17.1	-30.2	34.1	-5.1
광업	0	0	0	0	-	-	-	-
제조업	-82	-124	120	-36	-18.7	-34.8	51.7	-10.2
전기가스증기	0	-2	0	0	0.0	-66.7	0.0	0.0
수도하수	-1	3	-5	2	-10.0	33.3	-41.7	28.6
건설업	-74	0	70	14	-28.5	0.0	37.6	5.5
도소매업	-70	-112	46	-13	-10.6	-19.0	9.6	-2.5
운수창고	-10	-27	51	11	-8.1	-23.9	59.3	8.0
숙박음식	-110	-45	76	-37	-14.1	-6.7	12.1	-5.3
정보·통신	4	-1	9	-8	12.1	-2.7	25.0	-17.8
금융·보험	-33	16	25	-9	-44.6	39.0	43.9	-11.0
부동산업	-20	-13	21	-19	-18.3	-14.6	27.6	-19.6
전문·과학기술	-23	0	14	-22	-33.8	0.0	31.1	-37.3
사업관리지원임대	-131	-76	48	-19	-28.6	-23.2	19.1	-6.4
공공행정	26	-16	53	40	12.1	-6.7	23.7	14.4
교육서비스	3	-68	112	-43	0.9	-20.0	41.2	-11.2
보건사회복지	-36	6	127	71	-6.0	1.1	22.3	10.2
예술및여가	13	3	34	-27	13.0	2.7	29.3	-18.0
기타개인서비스	-43	-14	-8	-15	-14.2	-5.4	-3.3	-6.3
가구내고용 등	-4	-14	40	9	-8.0	-30.4	125.0	12.5
국제기구	0	1	-1	4	-	-	-100.0	-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30〉 연도별 산업별 저임금 노동자 비중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 %p)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23.8	20.5	17.9	21.6	21.2	-0.4
농림어업	59.0	51.5	38.4	48.4	46.5	-1.9
광업	0.0	1.6	0.0	0.0	3.3	3.3
제조업	11.0	8.9	5.9	8.9	8.1	-0.8
전기가스증기	3.6	3.8	1.6	2.0	2.0	0.0
수도하수	9.5	8.6	9.5	5.4	6.7	1.3
건설업	17.6	12.3	11.8	15.8	16.2	0.4
도소매업	29.5	25.4	21.2	23.3	23.5	0.2
운수창고	15.9	14.4	10.9	16.9	18.2	1.3
숙박음식	52.7	46.5	46.0	48.6	51.0	2.4
정보통신	4.6	5.1	4.6	5.8	4.8	-1.0
금융보험	9.6	5.4	7.1	10.8	9.8	-1.0
부동산업	33.7	24.2	21.4	23.8	21.5	-2.3
전문과학기술	7.2	5.0	4.9	5.9	3.7	-2.2
사업관리지원임대	35.4	25.1	21.1	24.1	22.0	-2.1
공공행정	20.9	21.8	19.8	25.7	27.9	2.2
교육서비스	22.6	22.1	18.1	24.8	23.0	-1.8
보건사회복지	33.0	30.4	28.5	32.1	33.0	0.9
예술및여가	38.2	41.5	40.3	43.7	36.9	-6.8
기타개인서비스	41.3	35.9	32.4	32.6	32.8	0.2
가구내고용 등	93.2	88.3	82.3	89.4	78.6	-10.8
국제기구	0.0	3.4	14.6	0.0	20.2	20.2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저임금 노동자 감소율은 업종별로 전문과학기술업에서 2만 2천 명(감소율 -37.3%)으로 가장 컸고, 부동산업 1만 9천명(감소율 -19.6%), 예술및여가업 2만 7천명(감소율 -18.0%), 정보·통신업 8천명(감소율 -17.8%),



교육서비스업 4만 3천명(감소율 -11.2%), 금융·보험업 9천명(감소율 -11.0%), 제조업 3만 6천명(감소율 -10.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한 경우의 증가율은 수도권수업에서 2천명(증가율 28.6%) 증가하여 가장 높았고, 공공행정업 4만 명(증가율 14.4%), 가구 내고용업 9천명(증가율 12.5%), 보건사회복지업 7만 1천명(증가율 10.2%), 운수창고업 1만 1천명(증가율 8.0%), 건설업 1만 4천명(증가율 5.5%) 순으로 컸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20년 저임금 노동자는 전년 동기 대비 30만 8천명(증가율 9.5%) 증가하였고, 비중은 20년 17.4%로 전년 동기 대비 1.6%p 증가하였다. 월평균 임금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저임금 노동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업, 예술및여가업, 정보·통신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2020년 시간당 임금 기준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하였다. 보건사회복지업, 공공행정업, 운수창고업, 건설업, 수도권수업, 가구내고용업에서는 월평균 임금기준이나 시간당 임금 기준 모두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제조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업, 사업관리지원업, 기타개인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에서는 월평균 임금기준으로 봤을 때 저임금 노동자가 크게 감소했지만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하였다.

한편,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예술및여가업은 시간당 임금이나 월평균 임금 기준 모두 저임금 노동자가 감소하였다. 시간당 임금 기준 저임금 노동자 감소율은 부동산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2만 1천명(감소율 -22.8%)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그다음 정보·통신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6천명(감소율 -22.2%), 예술및여가업은 전년 동기 대비 1만 3천명(감소율 -12.3%) 감소하였다.

2020년 저임금 노동자가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보건사회복지업은 2016년 이후 해년마다 49만 5천명(27.3%), 49만 5천명(26.7%), 35만 2천명(17.6%), 42만 9천명(19.8%), 51만 명(21.9%)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 전년 동기 대비 14만 3천명(감소율 -28.9%)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2019년 7만 7천명(+21.9%) 증가한데 이어 2020년에 전년 동기 대비 8만 1천명(증가율 18.9%) 증가하였다. 한편, 보건사회복지업의 저임금 노동자 규모는 월평균 임금 기준 저임금 노동자 규모와 비교해보면,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봤을 때 저임금 노동자가 적게 집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했을 때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한 제조업은 2016년 이후 매년 48만 6천명(12.2%), 44만 6천명(11.1%), 27만 6천명(7.0%), 28만 2천명(7.2%), 31만 9천명(8.1%)으로 증가하였다. 2017년과 2018년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전년 동기 대비 6천명(증가율 2.2%) 증가한데 이어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3만 7천명(증가율 13.1%) 증가하였다. 2019년 이후 시간당 임금 기준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최근 5개년 계속 저임금 노동자의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증가세로 전환된 건설업은 2016년 이후 각각 22만 명(14.9%), 18만 5천명(12.3%), 16만 9천명(10.7%), 16만 3천명(10.0%), 20만 5천명(12.3%)으로 증가하였다. 건설업은 2017년 이후 2019년까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5만 명(감소율 -15.9%), 1만 6천명(감소율 -8.6%), 6천명(감소율 -3.6%) 감소하였으나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4만 2천명(증가율 25.8%)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사업관리지원업대업, 기타개인서비스업에서도 최근 5개년 간 계속 저임금 노동자가 감소하다가 2020년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중 사업관리지원업대업은 2016년 이후 각각 47만 2천명(36.6%), 42만 1천명(32.2%), 25만 7천명(21.6%), 24만 6천명(19.9%), 26만 6천명

(20.9%)으로 증가하였다. 2017년 이후 2019년 까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만 1천명(감소율 -10.8%), 16만 4천명(감소율 -39.0%), 1만 1천명(감소율 -4.3%)으로 감소하다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2만(증가율 8.1%) 증가하였다.

2020년 시간당 임금 기준 저임금 노동자 증가율은 업종별로 금융보험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1만 9천명(증가율 45.2%)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그 다음 가구내고용업 1만 9천명(증가율 42.2%), 수도하수업 2천명(증가율 40.0%)으로 이들 업종에선 증가율이 40%를 넘는다. 이 외에, 교육서비스업 1만 2천명(증가율 7.8%), 전문과학기술업 2천명(증가율 5.9%), 도소매업 2만 3천명(증가율 5.3%), 숙박음식업 4천명(증가율 0.7%) 순으로 낮다.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농림어업, 가구내고용업, 국제기구업, 숙박음식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에서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의 증가가 컸다. 특히, 수도하수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전문과학기술업, 사업관리지원업, 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업에서는 최근 업종 내 저임금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 증가로 전환되었다. 숙박음식업의 2020년 저임금 노동자 증가율은 4천명(증가율 0.7%)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16년 61.0%에서 계속 감소하여 2019년 41.1%까지 떨어졌으나 2020년 45.9%로 전년 동기 대비 4.8%p 상승하였다. 수도하수업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 역시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각각 8.8%, 8.3%, 7.8%, 3.6%로 감소하다가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2천명(증가율 40.0%) 증가하여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20년 5.1%로 전년 동기 대비 1.5%p 상승했다. 가구내고용업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2017년 이후 매년 83.8%, 68.3%, 55.3%로 감소하고 있었으나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1만 9천명(증가율 42.2%) 증가하여 20년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62.8%로 전년 동기 대비 7.5%p 커졌다. 가구내고용업은 월평균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감소했으나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교육서비스업도 월평균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감소했으나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증가했다.

〈표 5-31〉 연도별 산업별 저임금 노동자 규모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규모					'19년 대비 증감	
	'16	'17	'18	'19	'20	규모	증감률
임금노동자	4,589	4,282	3,150	3,242	3,550	308	9.5
농림어업	81	66	47	52	65	13	25.0
광업	0	1	0	0	0	0	-
제조업	486	446	276	282	319	37	13.1
전기가스증기	3	3	0	1	1	0	0.0
수도하수	9	9	10	5	7	2	40.0
건설업	220	185	169	163	205	42	25.8
도소매업	716	657	490	430	453	23	5.3
운수창고	171	176	125	138	162	24	17.4
숙박음식	905	795	596	595	599	4	0.7
정보통신	24	36	23	27	21	-6	-22.2
금융보험	56	40	43	42	61	19	45.2
부동산업	117	118	80	92	71	-21	-22.8
전문과학기술	55	35	34	34	36	2	5.9
사업관리지원업	472	421	257	246	266	20	8.1
공공행정	172	201	157	205	232	27	13.2
교육서비스	181	198	131	154	166	12	7.8
보건사회복지	495	495	352	429	510	81	18.9
예술및여가	90	99	75	106	93	-13	-12.3
기타개인서비스	294	258	257	197	216	19	9.6
가구내고용 등	43	44	27	45	64	19	42.2
국제기구	0	0	1	0	1	1	-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32〉 연도별 산업별 저임금 노동자 규모 변화(전년 대비 증감률)  
(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전년 동기 대비 규모 변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7	'18	'19	'20	'17	'18	'19	'20
임금노동자	-307	-1,132	92	308	-6.7	-26.4	2.9	9.5
농림어업	-15	-19	5	13	-18.5	-28.8	10.6	25.0
광업	1	-1	0	0	-	-100.0	-	-
제조업	-40	-170	6	37	-8.2	-38.1	2.2	13.1
전기가스증기	0	-3	1	0	0.0	-100.0	-	0.0
수도하수	0	1	-5	2	0.0	11.1	-50.0	40.0
건설업	-35	-16	-6	42	-15.9	-8.6	-3.6	25.8
도소매업	-59	-167	-60	23	-8.2	-25.4	-12.2	5.3
운수창고	5	-51	13	24	2.9	-29.0	10.4	17.4
숙박음식	-110	-199	-1	4	-12.2	-25.0	-0.2	0.7
정보·통신	12	-13	4	-6	50.0	-36.1	17.4	-22.2
금융·보험	-16	3	-1	19	-28.6	7.5	-2.3	45.2
부동산업	1	-38	12	-21	0.9	-32.2	15.0	-22.8
전문·과학기술	-20	-1	0	2	-36.4	-2.9	0.0	5.9
사업관리지원임대	-51	-164	-11	20	-10.8	-39.0	-4.3	8.1
공공행정	29	-44	48	27	16.9	-21.9	30.6	13.2
교육서비스	17	-67	23	12	9.4	-33.8	17.6	7.8
보건사회복지	0	-143	77	81	0.0	-28.9	21.9	18.9
예술및여가	9	-24	31	-13	10.0	-24.2	41.3	-12.3
기타개인서비스	-36	-1	-60	19	-12.2	-0.4	-23.3	9.6
가구내고용 등	1	-17	18	19	2.3	-38.6	66.7	42.2
국제기구	0	1	-1	1	-	-	-100.0	-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33〉 연도별 산업별 저임금 노동자 비중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 %p)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23.3	21.4	15.7	15.8	17.4	1.6
농림어업	62.2	54.3	41.0	42.4	54.1	11.7
광업	0.0	3.1	0.0	0.0	3.3	3.3
제조업	12.2	11.1	7.0	7.2	8.1	0.9
전기가스증기	3.6	4.4	0.5	0.7	2.0	1.3
수도하수	8.8	8.3	7.8	3.6	5.1	1.5
건설업	14.9	12.3	10.7	10.0	12.3	2.3
도소매업	32.1	28.3	21.8	19.1	20.9	1.8
운수창고	22.1	22.5	15.8	17.1	20.0	2.9
숙박음식	61.0	54.9	43.8	41.1	45.9	4.8
정보통신	3.4	5.0	2.9	3.4	2.7	-0.7
금융보험	7.2	5.3	5.4	5.5	8.2	2.7
부동산업	36.0	32.1	22.5	22.8	19.5	-3.3
전문과학기술	5.8	3.9	3.7	3.4	3.6	0.2
사업관리지원임대	36.6	32.2	21.6	19.9	20.9	1.0
공공행정	16.8	18.2	13.9	19.0	20.4	1.4
교육서비스	12.1	12.9	8.7	10.0	11.2	1.2
보건사회복지	27.3	26.7	17.6	19.8	21.9	2.1
예술및여가	34.2	36.1	25.8	30.8	27.8	-3.0
기타개인서비스	40.3	35.7	34.0	27.2	32.0	4.8
가구내고용 등	78.6	83.8	68.3	55.3	62.8	7.5
국제기구	0.0	0.0	14.6	0.0	5.1	5.1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한편, 금융보험업은 최근 시간당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증가추세였으며 2020년 더 크게 증가했다. 2016년 7.2%에서 2017년 5.3%로 떨어졌다가 2018년 5.4%, 2019년 5.5%로 증가했다. 2020년엔 전년 동기 대비 1만 9천

명(증가율 45.2%) 증가하여 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저임금 노동자 증가율을 보였으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20년 8.2%로 전년 동기 대비 2.7%p 더 크게 증가하였다.

#### ④ 고임금 노동자 규모 및 비율 변화

2020년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고임금 노동자는 423만 4천명(20.7%)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만 4천명(감소율 -10.6%) 감소하였고, 비중은 20.7%로 전년 동기 대비 2.3%p 감소하였다(〈부표 5-5〉 - 〈부표 5-7〉 참조).

업종별로 봤을 때 월평균기준 고임금 노동자는 360만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로 전기·가스·증기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농림어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감소하였다. 그중 제조업에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제조업의 고임금 노동자는 108만 3천명(27.5%)으로 15만 2천명(-3.8%p) 감소하여 가장 크게 줄었고, 도소매업은 29만 1천명(13.4%)으로 5만 7천명(-2.1%p), 운수창고업은 13만 7천명(16.9%)으로 5만 5천명(-6.8%p), 공공행정업은 35만 6천명(31.4%)으로 4만 4천명(-5.6%p) 감소하였다.

전기·가스·증기업 고임금 노동자는 4만 6천명(64.3%)으로 5천명(+7.0%p) 증가하였고, 3명 중 2명이 고임금 노동자이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의 고임금 노동자는 2016년 이후 각각 145만 6천명(36.5%), 149만 명(37.1%), 135만 명(34.3%), 123만 5천명(31.3%), 108만 3천명(27.5%)으로 2018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감소 규모는 2018년 이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만 명(감소율 -9.4%), 11만 5천명(감소율 -8.5%), 15만 2천명(감소율 -12.3%)이고, 2020년에는 업종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감소하였다.

이 외에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공공행정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숙박·음식업에서 고임금 노동자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중 운수창고업, 공공행정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등에서는 2018년 이후 계속 고임금 노동자가 감소하는 추세였다. 공공행정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는 2018년과 2019년 큰 규모로 감소하였고, 운수창고업과 보건사회복지업에서는 2020년 들어서 감소가 더욱 컸다.

특히, 공공행정업의 경우는 최근 5개년 계속 감소하였다. 2016년 이후 각각 57만 6천명(56.2%), 56만 7천명(51.4%), 48만 7천명(43.0%), 40만 명(37.0%), 35만 6천명(31.4%)으로 계속 감소하였고, 감소율은 2017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천명(감소율 -1.6%), 8만 명(감소율 -14.1%), 8만 7천명(감소율 -17.9%), 4만 4천명(감소율 -11.0%)로 나타났다.

운수창고업의 경우엔 2016년 이후 각각 22만 3천명(28.8%), 26만 3천명(33.6%), 19만 5천명(24.7%), 19만 2천명(23.7%), 13만 7천명(16.9%) 규모로 감소하였다. 2018년, 2019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만 8천명(감소율 -25.9%), 3천명(감소율 -1.5%) 감소하다가 2020년엔 5만 5천명(감소율 -28.6%)이 감소하여 고임금 노동자가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전문·과학기술업 등에서는 2019년 증가에서 2020년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도소매업은 2016년 이후 각각 37만 4천명(16.7%), 41만 1천명(17.7%), 31만 5천명(14.0%), 34만 8천명(15.5%), 29만 1천명(13.4%)으로 2019년 고임금 노동자가 증가하다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5만 7천명(감소율 -16.4%) 감소하였다.

전문·과학기술업은 2016년 이후 50만 6천명(53.3%), 47만 명(52.1%), 40만 명(43.3%), 42만 5천명(42.7%), 38만 7천명(39.3%)으로 계속 감소하



고 있고,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3만 8천명(감소율 -8.9%) 감소하였다.

감소율 크기로 보면, 숙박·음식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2만 3천명(감소율 -46.0%) 감소하여 가장 컸고, 그 다음 예술·문화·여가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1만 명(감소율 -31.3%) 감소하였다.

고임금 노동자 비중 역시 전기·가스·증기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농림어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하락했다. 국제기구업(73.0%)에서 전년 동기 대비 34.2%p 하락하여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사업관리지원업(8.5%)에서 전년 동기 대비 0.3%p 하락하여 가장 적게 감소하였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20년 고임금 노동자는 472만 3천명(23.1%)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 1천명(감소율 -2.1%) 감소하였고, 고임금 노동자 비중은 전년 동기(23.5%) 대비 0.4%p 떨어졌다(〈부표 5-8〉 - 〈부표 5-10〉 참조).

시간당 고임금 노동자는 19,551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로,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공공행정업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그다음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공공행정업 순으로 감소하였다. 2020년 고임금 노동자 감소율은 숙박·음식업에서 38.0%로 가장 높고 그다음 가구내고용업에서 33.3%로 높았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업, 기타개인서비스업, 금융·보험업에서는 시간당 고임금 노동자가 증가하였다.

제조업 고임금 노동자는 2020년 113만 4천명(28.9%)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 2천명(감소율 -5.2%) 감소하여 연이어 감소하는 가운데 20년 감소가 컸고, 교육서비스업은 53만 5천명(36.1%)으로 2만 9천명(-0.3%p), 도소매업은 32만명(14.7%)으로 2만 6천명(-0.6%p) 감소하였고, 공공행정업은 2만 3천명(감소율 -5.5%) 감소하여 고임금 노동자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3.9%p 감소하였다.

한편,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은 최근 고임금 노동자가 증가하다가 2020년 감소하였다. 도소매업의 고임금 노동자는 2018년 이후 증가하고 있었으나 20년 들어 32만 명(14.7%)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6천명(감소율 -7.5%) 감소하였고, 숙박음식업 역시 18년 이후 증가했으나 20년 전년 동기 대비 1만 9천명(감소율 -38.0%) 감소하였으며, 고임금 노동자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1.1%p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문과학기술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건설업, 숙박음식업, 제조업, 가구내고용업, 운수창고업, 공공행정업, 국제기구업에서 고임금 노동자가 감소하였다. 특히 교육서비스업, 공공행정업, 운수창고업은 고임금 노동자 비중이 최근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시간당 고임금 노동자는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그다음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공공행정업에서 많이 감소하였다. 제조업 고임금 노동자는 2019년 119만 6천명(30.3%)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3천명(감소율 -2.7%) 감소하였고, 2020년 113만 4천명(28.9%)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 2천명(감소율 -5.2%) 감소하여 연이어 감소하는 가운데 20년 감소가 컸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도 2019년과 2020년 계속 감소하였다. 2019년 56만 4천명(36.4%)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8천명(감소율 -6.3%) 감소한데 이어, 2020년 53만 5천명(36.1%)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9천명(감소율 -5.1%) 감소하였고, 비중 역시 전년 동기 대비 0.3%p 감소하였다. 공공행정업의 고임금 노동자 비중은 2016년 이후 5개년 동안 각각 55.9%, 43.4%, 43.4%, 38.6%, 34.7%로 16년에는 50%를 넘었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20년 시간당 임금 기준 고임금 노동자는 2만 3천명(감소율 -5.5%) 감소하여 고임금 노동자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3.9%p 감소했다.

한편,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은 최근 고임금 노동자가 증가하다가 2020년 감소하였다. 도소매업의 고임금 노동자는 2018년 이후 각각 28만 6천명(12.7%), 34만 6천명(15.3%)으로 2018년과 2019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만 8천명(증가율 10.9%), 6만 명(증가율 21.0%)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2020년 들어 32만 명(14.7%)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6천명(감소율 -7.5%) 감소하였고, 20년 고임금 노동자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0.6%p 감소하였다.

숙박음식업의 고임금 노동자는 2018년 이후 각각 3만 3천명(2.4%), 5만 명(3.5%), 3만 1천명(2.4%)으로 2018년 이후 전년 동기 대비 3천명(증가율 10.0%) 증가하였고, 2019년 전년 동기 대비 1만 7천명(증가율 51.5%) 증가했으나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1만 9천명(감소율 -38.0%) 감소하였으며, 고임금 노동자 비중도 전년 동기 대비 1.1%p 감소하였다. 2020년 고임금 노동자 감소율은 숙박음식업에서 38.0%로 가장 높고 그다음 가구내고용업에서 33.3%로 높다.

반면, 수도하수업, 사업관리지원임대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전가가스증기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보건사회복지업에서는 고임금 노동자가 증가하였다. 이중 수도하수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사업관리지원임대업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사업관리지원임대업은 증가하고 있지만 2020년 증가 크기가 다소 작아졌다. 한편, 보건사회복지업과 기타개인서비스업은 20년 들어 증가로 전환되었다.

시간당 고임금 노동자 증가율은 기타개인서비스업에서 가장 크고, 그다음 국제기구업, 수도하수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개인서비스업의 고임금 노동자는 2020년 7만 6천명(11.3%)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7천명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28.8%로 업종 중에서 가장 높고, 수도하수업의 고임금 노동자는 3만 9천명(27.3%)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천명 증가하여 증가율은 21.9%를 기

록했다. 한편, 국제기구업의 고임금 노동자는 2020년 1만 명(53.0%)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천명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5.0%였다. 고임금 노동자가 증가했음에도 고임금 노동자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20.0%p 감소하여 가장 크게 줄었다.

### 3. 산업별 노동실태 변화

#### 1) 취업시간

2020년 임금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9.1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시간 감소하였으며, 가구내고용업, 농림어업, 예술및여가업, 전기·가스·증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소하였다. 보건사회복지업, 공공행정업, 교육서비스업은 주당평균 노동시간이 적은 편이지만 20년 들어 더 줄었고, 특히, 보건사회복지업의 노동시간은 2016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2020년 보건사회복지업과 도소매업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가구내고용업, 농림어업, 예술및여가업, 전기·가스·증기업에서는 증가하였는데, 가구내고용업의 2020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2.2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시간 늘었다.

임금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2017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업종별로 보면, 광업에서 46.0시간으로 가장 길고, 그다음 농림어업 43.7시간, 운수창고업 43.4시간, 제조업 41.9시간, 건설업 41.3시간, 사업관리지원 임대업 41.1시간, 부동산업 41.0시간, 정보·통신업 40.5시간, 전문·과학기술업 40.3시간, 금융·보험업 40.1시간, 전기·가스·증기업 41.0시간, 수도하수업 41.0시간으로 이들 업종에서는 40시간을 넘었다.

이중 수도하수업, 운수창고업, 부동산업, 광업 등에서는 2020년 주당평균 노동시간이 1시간 이상 감소하였다. 수도하수업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각각 43.0시간, 43.5시간, 41.2시간, 42.8시간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20년 41.0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시간 감소하였으며, 운수창고업은 2016년 이후 각각 45.9시간, 45.8시간, 45.8시간, 45.0시간으로 최근 계속 감소해 왔으며 2020년 43.4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시간 감소하였다.

한편, 기타개인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국제기구업은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이었으나 최근 들어 40시간 미만으로 떨어졌다. 기타개인서비스업은 2016년 이후 각각 41.5시간, 41.4시간, 41.2시간, 41.3시간이었으나 2020년 39.9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시간 감소하여 2020년에는 40시간 미만이다. 도소매업 역시 2016년 이후 각각 41.9시간, 41.6시간, 41.7시간, 40.9시간으로 40시간이 넘었으나 2020년 39.7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시간 감소하였다. 숙박음식업은 2018년에 39.8시간으로 처음으로 40시간 미만으로 감소하였고, 2019년 38.0시간, 2020년 36.9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시간 감소하였다. 국제기구업은 2020년 37.9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시간 감소하여 가장 크게 줄었다.

보건사회복지업, 공공행정업, 교육서비스업은 주당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적지만 2020년에 더 줄었다. 보건사회복지업의 노동시간은 2016년 이후 각각 37.2시간, 36.7시간, 35.8시간, 35.1시간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2020년 34.0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시간 감소하였다. 공공행정업 역시 2020년 34.1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시간 감소하였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노동시간이 감소한 가운데, 가구내고용업, 농림어업,

예술및여가업, 전기·가스·증기업에서는 2020년 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 가구내고용업의 2020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2.2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시간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지만 노동시간은 가장 짧았다. 노동시간이 가장 긴 광업 보다 약 13.8시간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4〉 연도별 산업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변화

(단위: 시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40.9	40.9	40.4	39.8	39.1	-0.7
농림어업	40.4	40.2	41.0	42.3	43.7	1.4
광업	42.5	43.0	44.8	47.4	46.0	-1.4
제조업	42.9	43.0	42.5	42.3	41.9	-0.4
전기·가스·증기	40.1	40.7	41.2	40.5	41.0	0.5
수도·하수	43.0	43.5	41.6	42.8	41.0	-1.8
건설업	42.7	42.6	42.2	42.0	41.3	-0.7
도소매업	41.9	41.6	41.7	40.9	39.7	-1.2
운수·창고	45.9	45.8	45.8	45.0	43.4	-1.6
숙박·음식	41.0	41.0	39.8	38.0	36.9	-1.1
정보·통신	40.7	40.9	40.9	41.0	40.5	-0.5
금융·보험	40.6	41.2	40.5	40.1	40.1	0.0
부동산업	43.0	43.0	41.8	42.5	41.0	-1.5
전문·과학기술	40.6	40.8	40.5	40.5	40.3	-0.2
사업관리·지원·임대	42.7	43.0	42.3	41.5	41.1	-0.4
공공행정	36.4	36.4	35.9	34.6	34.1	-0.5
교육서비스	36.6	36.6	36.4	35.3	35.3	0.0
보건·사회복지	37.2	36.7	35.8	35.1	34.0	-1.1
예술·및·여가	37.7	36.5	36.1	35.3	35.9	0.6
기타개인서비스	41.5	41.4	41.2	41.3	39.9	-1.4
가구내고용 등	35.6	37.5	35.3	29.9	32.2	2.3
국제기구	40.0	40.4	38.5	41.0	37.9	-3.1

주: 1) 주된 직장(일)의 평소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한편, 농림어업은 2017년 이후 노동시간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에 전년 동기 대비 1.4시간 증가하였으며, 전기가스증기업은 2019년 전년 동기 대비 0.7시간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0.5시간 증가하였다. 예술및여가업의 노동시간은 2016년 이후 37.7시간, 36.5시간, 36.1시간, 35.3시간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 35.9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시간 증가하였다.

임금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15시간 미만, 15-35시간, 36-40시간, 41-44시간, 45-48시간, 49-52시간, 52시간 초과 등 7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분포를 살펴보았다.

2020년 8월 기준, 주당 평균 노동시간 분포를 보면, 가구내고용업과 농림어업, 전기가스증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4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노동시간이 긴 경우 감소도 컸다.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변동을 보면, 숙박음식업에서 23만 명(17.6%)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 6천명(-2.9%p) 감소했지만 여전히 숫적으로 가장 많고, 비중으로는 농림어업의 22.9% 다음으로 많았다. 그 다음 도소매업은 18만 4천명(8.5%)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8천명(-0.5%p) 줄었지만 여전히 많다. 한편, 제조업은 16만 5천명(4.2%)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6천명(-1.2%p) 감소하였고, 사업관리지원임대업은 10만 6천명(8.4%)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4천명(-1.3%p) 감소하였으며, 운수창고업은 10만 3천명(12.6%)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2천명(-4.1%p) 감소하였고, 기타개인서비스업은 7만 7천명(11.4%)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1천명(-3.5%p) 감소하였지만 52시간 초과 노동자 규모가 컸다.

한편, 15시간 미만 노동자의 변동은 보건사회복지업과 도소매업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예술및여가업, 건설업, 사업관리지원임대업, 교육서비스업에서

감소가 컸다. 15시간 미만 노동자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변동을 보면,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보건사회복지업에서 31만 5천명(13.5%)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 명(+1.3%p)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15시간 미만 노동자 규모로는 업종 중에서 가장 크다. 한편, 공공행정업은 15만 9천명(14.0%)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천명(-0.9%p) 감소하였지만 15시간 미만 노동자 규모는 보건사회복지업 다음으로 많고, 15시간 미만 노동자의 비중으로는 업종 중에서 가장 많다. 한편, 도소매업은 9만 8천명(4.5%)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8천명(+1.8%p) 증가하여 보건사회복지업 다음으로 많은 숫자가 증가하였다. 그 다음 숙박음식업은 13만 5천명(10.3%)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천명 감소하였지만 15시간 미만 비중은 0.6%p 증가하였고, 교육서비스업은 12만 1천명(8.2%)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천명(-0.1%p) 감소하였지만 15시간 미만 노동자 규모는 여전히 많다.

15시간 미만 노동자 감소가 가장 많은 예술및여가업의 경우,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2만 4천명(7.1%)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1천명(-3.2%p) 감소하였고, 건설업에서 8천명(-0.5%), 사업관리지원임대업에서 8천명(-0.7%) 감소하였다.

35시간 이하 노동자는 가구내고용업에서 57.6%로 전년 동기 대비 5.3%p 감소하였지만 가장 많고, 그 다음 숙박음식업이 41.0%로 전년 동기 대비 1.2%p 증가하였고, 보건사회복지업 32.0%(+2.6%p), 예술및여가업 31.2%(-4.0%p), 공공행정업 27.5%(+3.8%p), 교육서비스업 26.0%(+0.3%p), 기타개인서비스업 20.6%(+1.8%p)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에서는 35시간 이하 노동자가 20%를 넘었다. 반면, 전기가스증기업 1.8%(-0.2%p), 제조업 4.2%(-0.5%p), 정보통신업 4.3%(+1.0%p)로 이들 업종에서 35시간 이하 노동자의 비중이 낮았다.



〈표 5-35〉 산업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별 노동자 규모 변화

(단위: 천명)

구분	2019.8							2020.8						
	15 미만	15- 35	36- 40	41- 44	45- 48	49- 52	52 초과	15 미만	15- 35	36- 40	41- 44	45- 48	49- 52	52 초과
임금노동자	932	2,422	11,497	438	2,313	1,542	1,414	992	2,569	11,849	410	2,157	1,324	1,145
농림어업	2	22	55	1	16	5	22	4	16	45	1	15	11	27
광업	0	0	5	0	2	2	3	0	0	4	0	4	1	2
제조업	16	171	2,537	75	526	411	211	21	147	2,646	77	509	366	165
전기가스증기	0	1	60	0	9	1	0	0	1	57	2	7	3	0
수도하수	1	7	79	3	19	14	8	2	10	87	6	26	9	2
건설업	16	144	872	29	297	167	102	8	200	886	20	326	145	78
도소매업	60	297	1,121	67	320	186	202	98	323	1,095	42	260	171	184
운수창고	7	52	378	13	102	121	135	8	65	430	12	97	99	103
숙박음식	141	435	300	30	127	118	296	135	400	302	30	111	97	230
정보통신	3	23	606	12	64	57	12	5	28	616	6	69	36	10
금융보험	4	52	589	5	63	42	5	7	36	608	8	53	29	8
부동산업	10	46	213	9	39	31	59	6	50	213	10	34	8	42
전문과학기술	6	47	773	10	83	58	19	10	41	780	14	79	51	11
사업관리지원임대	26	165	664	30	153	84	120	18	174	718	31	145	80	106
공공행정	161	95	730	8	47	22	16	159	153	722	6	44	32	18
교육서비스	129	270	1,018	18	67	29	18	121	263	1,001	8	52	22	15
보건사회복지	265	373	1,062	95	232	91	54	315	430	1,151	103	203	85	42
예술및여가	35	86	130	7	42	26	17	24	81	163	5	26	19	16
기타개인서비스	38	99	285	22	104	71	108	40	99	294	27	90	49	77
가구내교용 등	13	38	13	1	2	6	7	9	50	18	2	6	8	9
국제기구	0	0	9	0	1	1	0	2	0	15	0	2	1	0

주: 1) 주된 직장(일)의 평소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36〉 산업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분포 변화

(단위: %)

구분	2019.8							2020.8						
	15 미만	15-35	36-40	41-44	45-48	49-52	52 초과	15 미만	15-35	36-40	41-44	45-48	49-52	52 초과
임금노동자	4.5	11.8	55.9	2.1	11.3	7.5	6.9	4.9	12.6	58.0	2.0	10.6	6.5	5.6
농림어업	2.0	17.7	45.1	0.9	12.7	3.9	17.7	3.5	13.7	37.5	1.0	12.3	9.2	22.9
광업	0.0	0.0	40.4	2.8	15.4	13.6	27.9	0.0	3.3	39.9	0.0	36.9	5.8	14.2
제조업	0.4	4.3	64.3	1.9	13.3	10.4	5.4	0.5	3.7	67.3	2.0	13.0	9.3	4.2
전기가스증기	0.5	1.5	84.3	0.0	12.6	1.2	0.0	0.0	1.8	80.5	2.6	10.3	4.8	0.0
수도하수	0.4	5.3	60.0	2.3	14.8	10.9	6.3	1.1	7.2	61.3	4.3	18.6	6.2	1.3
건설업	1.0	8.9	53.6	1.8	18.3	10.3	6.3	0.5	12.0	53.3	1.2	19.6	8.7	4.7
도소매업	2.7	13.2	49.8	3.0	14.2	8.3	9.0	4.5	14.9	50.4	1.9	12.0	7.9	8.5
운수창고	0.8	6.4	46.8	1.6	12.7	15.0	16.7	1.0	8.0	52.8	1.5	12.0	12.2	12.6
숙박음식	9.7	30.1	20.7	2.1	8.8	8.2	20.5	10.3	30.7	23.2	2.3	8.5	7.5	17.6
정보통신	0.4	2.9	78.0	1.6	8.2	7.4	1.5	0.6	3.7	79.9	0.8	9.0	4.7	1.3
금융보험	0.5	6.9	77.4	0.7	8.2	5.6	0.7	0.9	4.8	81.2	1.0	7.1	3.9	1.1
부동산업	2.4	11.4	52.4	2.2	9.6	7.6	14.6	1.7	13.9	58.6	2.7	9.2	2.3	11.6
전문과학기술	0.6	4.8	77.7	1.0	8.3	5.8	1.9	1.0	4.2	79.1	1.4	8.0	5.2	1.1
사업관리지원임대	2.1	13.3	53.5	2.4	12.3	6.7	9.7	1.4	13.7	56.4	2.5	11.4	6.3	8.4
공공행정	14.9	8.8	67.6	0.8	4.4	2.0	1.5	14.0	13.5	63.6	0.5	3.8	2.9	1.6
교육서비스	8.3	17.4	65.7	1.2	4.3	1.9	1.2	8.2	17.8	67.5	0.6	3.5	1.5	1.0
보건사회복지	12.2	17.2	48.9	4.4	10.7	4.2	2.5	13.5	18.5	49.4	4.4	8.7	3.6	1.8
예술및여가	10.3	25.1	37.8	2.1	12.1	7.5	5.1	7.1	24.3	48.7	1.4	7.7	5.8	4.8
기타개인서비스	5.2	13.6	39.2	3.1	14.3	9.8	14.9	6.0	14.6	43.4	4.0	13.3	7.3	11.4
가구내교용 등	16.3	46.6	16.5	1.2	3.0	7.4	9.1	9.1	48.5	17.1	2.3	5.6	8.2	9.3
국제기구	0.0	0.0	88.9	0.0	6.3	4.8	0.0	8.3	0.0	80.6	0.0	8.3	2.8	0.0

주: 1) 주된 직장(일)의 평소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37〉 산업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별 노동자 규모 및 분포 변화  
(2019년 대비 증감)

(단위: 천명, %p)

구분	2019.8 대비 규모 증감							2019.8 대비 분포 증감						
	15 미만	15- 35	36- 40	41- 44	45- 48	49- 52	52 초과	15 미만	15- 35	36- 40	41- 44	45- 48	49- 52	52 초과
임금노동자	60	147	352	-28	-156	-218	-269	0.4	0.8	2.1	-0.1	-0.7	-1.0	-1.3
농림어업	2	-6	-10	0	-1	6	5	1.5	-4.0	-7.6	0.1	-0.4	5.3	5.2
광업	0	0	-1	0	2	-1	-1	0.0	3.3	-0.5	-2.8	21.5	-7.8	-13.7
제조업	5	-24	109	2	-17	-45	-46	0.1	-0.6	3.0	0.1	-0.3	-1.1	-1.2
전가가스증기	0	0	-3	2	-2	2	0	-0.5	0.3	-3.8	2.6	-2.3	3.6	0.0
수도하수	1	3	8	3	7	-5	-6	0.7	1.9	1.3	2.0	3.8	-4.7	-5.0
건설업	-8	56	14	-9	29	-22	-24	-0.5	3.1	-0.3	-0.6	1.3	-1.6	-1.6
도소매업	38	26	-26	-25	-60	-15	-18	1.8	1.7	0.6	-1.1	-2.2	-0.4	-0.5
운수창고	1	13	52	-1	-5	-22	-32	0.2	1.6	6.0	-0.1	-0.7	-2.8	-4.1
숙박음식	-6	-35	2	0	-16	-21	-66	0.6	0.6	2.5	0.2	-0.3	-0.7	-2.9
정보통신	2	5	10	-6	5	-21	-2	0.2	0.8	1.9	-0.8	0.8	-2.7	-0.2
금융보험	3	-16	19	3	-10	-13	3	0.4	-2.1	3.8	0.3	-1.1	-1.7	0.4
부동산업	-4	4	0	1	-5	-23	-17	-0.7	2.5	6.2	0.5	-0.4	-5.3	-3.0
전문과학기술	4	-6	7	4	-4	-7	-8	0.4	-0.6	1.4	0.4	-0.3	-0.6	-0.8
사업관리지원임대	-8	9	54	1	-8	-4	-14	-0.7	0.4	2.9	0.1	-0.9	-0.4	-1.3
공공행정	-2	58	-8	-2	-3	10	2	-0.9	4.7	-4.0	-0.3	-0.6	0.9	0.1
교육서비스	-8	-7	-17	-10	-15	-7	-3	-0.1	0.4	1.8	-0.6	-0.8	-0.4	-0.2
보건사회복지	50	57	89	8	-29	-6	-12	1.3	1.3	0.5	0.0	-2.0	-0.6	-0.7
예술및여가	-11	-5	33	-2	-16	-7	-1	-3.2	-0.8	10.9	-0.7	-4.4	-1.7	-0.3
기타개인서비스	2	0	9	5	-14	-22	-31	0.8	1.0	4.2	0.9	-1.0	-2.5	-3.5
가구내고용 등	-4	12	5	1	4	2	2	-7.2	1.9	0.6	1.1	2.6	0.8	0.2
국제기구	2	0	6	0	1	0	0	8.3	0.0	-8.3	0.0	2.0	-2.0	0.0

주: 1) 주된 직장(일)의 평소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한편, 주당 평균 45시간 이상 노동자 비중은 광업에서 56.9%(0.0%p)로 가장 많고, 농림어업 44.4%(+10.1%p), 운수창고업 36.8%(-7.6%p), 숙박·음식업 33.6%(-3.9%p), 건설업 33.3%(-1.9%p), 기타개인서비스업 32.0%(-7.0%p)로 30%를 넘고, 반면, 교육서비스업은 45시간 이상 노동자가 6.0%(-1.4%p)로 가장 적고, 그다음 공공행정업에서 8.3%(+0.4%p)로

낮았다. 종합하면, 가구내고용업, 보건사회복지업, 예술및여가업, 공공행정업, 교육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35시간 이하 노동자가 많고, 45시간 이상 노동자는 광업, 농림어업, 운수창고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숙박·음식업, 건설업 등에서 많았다.

## 2) 근속기간

2020년 8월 기준, 임금노동자의 현 직장 근속은 평균 6년이고, 중위값은 2.6년 이다. 6개월 미만 근속자는 건설업에서 49.2%으로 절반가량이 6개월 미만이고, 숙박음식업 39.4%, 가구내고용업 32.3%, 예술및여가업 30.7%로 이들 업종에서는 3명 중 1명이 근속 6개월 미만이고, 보건사회복지업도 1년 미만 근속자가 39.5%로 높아 단기근속자가 많았다.

한편, 10년 이상 근속자 비중은 전기가스증기업에서 56.9%으로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근속자이었고, 금융보험업은 40.7%였는데, 이는 이들 업종의 높은 임금수준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공행정업(36.3%)과 교육서비스업(34.5%)은 근속은 길지만 임금 수준은 낮는데, 이는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평균 근속은 전기가스증기업에서 15.7년으로 가장 길고, 그다음 국제기구업 14.2년, 금융보험업 10년, 공공행정업 9.4년, 교육서비스업 8.9년 순으로 길었다. 반면, 가구내고용업의 근속은 1.8년으로 가장 짧고, 숙박음식업에서 2.1년, 건설업 3.3년, 예술및여가업은 3.7년으로 대체적으로 짧다. 한편, 근속 중위값은 국제기구업이 16.1년, 전기가스증기업 15.3년, 금융보험업 6.8년, 제조업 4.7년, 교육서비스업 4.6년, 공공행정업 4.3년, 수도하수업에서 4.3년으로 나타났고, 농림어업과 가구내고용업에

서는 1년 미만이었다.

2020년 8월 근속기간별 업종별 특징을 보면, 6개월 미만 근속자 비중은 농림어업에서 6만 2천명(51.4%)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건설업 81만 7천명(49.2%)으로 절반이 6개월 미만이고, 숙박음식업에서 51만 4천명(39.4%), 가구내고용업 3만 3천명(32.3%), 예술및여가업 10만 2천명(30.7%)으로 이들 업종에서는 3명 중 1명이 6개월 미만이다.

한편,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속자는 보건사회복지업에서 44만 4천명(19.1%)으로 가장 많고, 가구내고용업 1만 8천명(17.1%), 공공행정업 17만 명(15.0%), 숙박음식업 19만 2천명(14.7%), 부동산업 4만 4천명(12.1%), 예술및여가업 4만 명(11.9%)으로 나타났다. 1년 미만 근속자 비중은 농림어업에서 58.3%로 가장 높고, 그다음 건설업 56.7%, 숙박음식업 54.1%, 가구내고용업 49.4%로 이들 업종에서 2명 중 1명은 1년 미만 근속자이고, 보건사회복지업도 1년 미만 근속자가 39.5%로 높아 단기근속에 치우쳐 있다.

한편, 10년 이상의 근속자 비중은 국제기구업에서 1만 2천명(60.9%)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 전기가스증기업은 4만 1천명(56.9%)으로 이들 업종에서는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근속자이다. 이외에 금융보험업은 30만 5천명(40.7%), 공공행정업은 41만 2천명(36.3%), 교육서비스업 51만 1천명(34.5%)으로 높다. 특히, 5년 이상 근속자 비중은 전기가스증기업에서 78.6%에 이르고, 국제기구업은 70.3%, 금융보험업은 58.8%, 교육서비스업은 49.4%, 제조업은 48.8%, 공공행정업은 47.7%가 5년 이상 근속자다.

〈표 5-38〉 산업별 평균 근속년수별 노동자 규모 변화

(단위: 천명)

구분		임금 노동자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가 가스 증기	수도 하수	건설 업	도소 매업	운수 창고	숙박 음식	정보 통신	
'20. 08	규모	6개월 미만	4,198	62	1	456	1	14	817	389	142	514	104
		6개월- 1년 미만	2,176	8	1	295	3	15	125	248	68	192	66
		1- 2년 미만	2,592	11	2	401	4	11	182	312	103	235	116
		2-3년 미만	1,808	11	2	349	0	21	90	214	64	120	97
		3-5년 미만	2,229	5	1	509	6	14	110	282	110	102	50
		5-10년 미만	2,994	13	1	748	16	27	133	355	120	79	139
	10년 이상	4,449	10	4	1,172	41	40	205	370	207	64	199	
'19. 08	규모	6개월 미만	4,536	76	2	466	2	13	839	420	133	599	97
		6개월- 1년 미만	2,092	8	1	290	7	8	110	245	81	236	79
		1- 2년 미만	2,661	9	2	437	5	26	129	330	99	247	121
		2-3년 미만	1,685	2	1	341	1	9	110	223	67	113	49
		3-5년 미만	2,250	6	1	482	6	12	103	304	93	103	91
		5-10년 미만	3,069	10	3	796	14	30	149	384	115	92	151
	10년 이상	4,266	13	3	1,135	36	34	186	347	219	57	189	

주: 1) 주된 직장(일)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38〉 산업별 평균 근속년수별 노동자 규모 변화(계속)

(단위: 천명)

구분		금융 보험	부동 산업	전문 과학 기술	사업 관리 지원 임대	공공 행정	교육 서비 스	보건 사회 복지	예술 및여 가	기타 개인 서비 스	가구 내고 용 등	국제 기구	
'20. 08	규모	6개월 미만	55	59	89	290	214	230	475	102	148	33	3
		6개월- 1년 미만	32	44	92	139	170	101	444	40	76	18	0
		1- 2년 미만	72	59	142	192	71	158	358	48	90	23	1
		2-3년 미만	69	38	108	142	51	118	215	30	60	9	0
		3-5년 미만	80	43	138	169	87	148	251	41	73	8	1
		5-10년 미만	135	66	186	190	129	216	306	36	89	10	2
	10년 이상	305	55	231	153	412	511	280	38	140	1	12	
'19. 08	규모	6개월 미만	69	91	146	300	204	279	487	136	136	39	1
		6개월- 1년 미만	29	48	86	149	141	106	329	43	83	11	1
		1- 2년 미만	90	58	129	219	69	183	342	50	103	11	0
		2-3년 미만	55	37	92	120	47	109	193	30	79	8	1
		3-5년 미만	82	64	130	154	84	154	286	22	70	4	0
		5-10년 미만	149	62	187	154	129	212	280	23	123	6	2
	10년 이상	287	45	225	145	406	505	255	40	132	2	6	

주: 1) 주된 직장(일)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대체로 근속은 개인이 지닌 업무 특성이나 임금수준과 관련성이 높다. 즉 높은 수준의 숙련이 요구되는 업무일수록 근속이 긴 경향이 있다. 이와 함께 근속연수와 같은 인적 요소를 기준으로 보수를 정하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경우 근속은 임금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가가스증기업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는데, 여기에는 두터운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가 있었던 것이다. 대체로 근속이 길면 임금이 높고, 임금이 높으면 근속이 길어지기도 한다. 고용안정을 통해 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이다.

〈표 5-39〉 산업별 근속연수 평균값과 계층별 분포 변화

(단위: 년, %)

구분		임금 노동자	농림 어업	광업	제조 업	전가 가스 증기	수도 하수	건설 업	도소 매업	운수 창고	숙박 음식	정보 통신	
'20. 08	근속 연수	평균값	6.0	3.1	7.5	7.8	15.7	7.4	3.3	4.9	6.8	2.1	7.0
		중위값	2.6	0.4	2.8	4.7	15.3	4.3	0.5	2.5	3.4	0.8	3.2
	분포	6개월 미만	20.5	51.4	7.6	11.6	1.9	10.1	49.2	17.9	17.4	39.4	13.5
		6개월- 1년 미만	10.6	6.9	4.6	7.5	4.7	10.4	7.5	11.4	8.4	14.7	8.6
		1- 2년 미만	12.7	9.4	21.6	10.2	5.7	7.8	10.9	14.4	12.7	18.0	15.0
		2-3년 미만	8.8	8.9	22.0	8.9	0.0	14.7	5.4	9.9	7.8	9.2	12.6
		3-5년 미만	10.9	4.0	5.4	13.0	9.0	10.2	6.6	13.0	13.5	7.8	6.5
		5-10년 미만	14.7	11.0	6.9	19.0	21.7	18.7	8.0	16.4	14.8	6.1	18.0
		10년 이상	21.8	8.5	32.0	29.8	56.9	28.1	12.3	17.1	25.4	4.9	25.8
		'19. 08	근속 연수	평균값	5.9	3.3	7.7	7.7	13.4	7.2	3.3	4.8	7.1
중위값	2.5			0.3	3.8	4.6	10.6	4.3	0.4	2.5	3.3	0.8	3.6
분포	6개월 미만		22.1	61.9	14.0	11.8	3.4	9.8	51.6	18.7	16.5	41.4	12.5
	6개월- 1년 미만		10.2	6.2	12.2	7.4	10.4	5.8	6.7	10.9	10.0	16.3	10.1
	1- 2년 미만		12.9	7.1	13.1	11.1	7.2	19.6	8.0	14.7	12.3	17.1	15.6
	2-3년 미만		8.2	1.4	5.9	8.6	1.3	7.0	6.8	9.9	8.4	7.8	6.3
	3-5년 미만		10.9	5.2	8.6	12.2	8.6	9.3	6.3	13.5	11.5	7.1	11.8
	5-10년 미만		14.9	7.9	21.8	20.2	19.0	23.1	9.2	17.0	14.3	6.3	19.4
	10년 이상		20.8	10.3	24.5	28.8	50.2	25.5	11.5	15.4	27.1	4.0	24.4

주: 1) 주된 직장(업)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39〉 산업별 근속년수 평균값과 계층별 분포 변화(계속)

(단위: 년, %)

구분		금융 보험	부동산 업	전문 과학 기술	사업관 리지원 임대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	보건 사회 복지	예술및 여가	기타 개인 서비스	가구 내고용 등	국제 기구	
'19. 08	근속 년수	평균값	10.0	4.8	6.4	4.0	9.4	8.9	4.0	3.7	5.8	1.8	14.2
	중위값	6.8	2.5	3.6	2.1	4.3	4.6	1.6	1.3	2.3	1.0	16.1	
'20. 08	분포	6개월 미만	7.3	16.1	9.0	22.7	18.9	15.5	20.4	30.7	21.9	32.3	16.8
		6개월- 1년 미만	4.3	12.1	9.4	10.9	15.0	6.8	19.1	11.9	11.3	17.1	0.0
		1- 2년 미만	9.6	16.2	14.4	15.1	6.2	10.7	15.4	14.3	13.3	22.8	7.8
		2-3년 미만	9.3	10.5	11.0	11.2	4.5	7.9	9.2	8.9	8.8	8.6	2.0
		3-5년 미만	10.7	11.8	14.0	13.3	7.7	10.0	10.8	12.3	10.8	8.2	3.2
		5-10년 미만	18.1	18.2	18.9	14.9	11.4	14.6	13.2	10.7	13.1	9.8	9.4
		10년 이상	40.7	15.2	23.4	12.0	36.3	34.5	12.0	11.3	20.7	1.2	60.9
'19. 08	근속 년수	평균값	9.5	4.3	6.3	3.8	9.8	8.4	4.0	3.6	5.6	1.7	14.7
	중위값	6.5	2.1	3.4	1.7	4.8	4.3	1.6	0.8	2.5	0.5	16.7	
'19. 08	분포	6개월 미만	9.0	22.5	14.7	24.2	18.9	18.0	22.4	39.8	18.7	48.1	4.8
		6개월- 1년 미만	3.9	11.9	8.7	12.0	13.1	6.9	15.1	12.5	11.5	13.8	13.5
		1- 2년 미만	11.8	14.3	13.0	17.7	6.4	11.8	15.8	14.5	14.2	13.2	4.3
		2-3년 미만	7.3	9.0	9.2	9.7	4.3	7.0	8.9	8.8	10.8	10.0	5.3
		3-5년 미만	10.7	15.8	13.1	12.4	7.8	9.9	13.2	6.3	9.7	5.2	0.0
		5-10년 미만	19.6	15.4	18.8	12.4	12.0	13.7	12.9	6.7	16.9	7.1	14.8
		10년 이상	37.7	11.2	22.6	11.7	37.6	32.6	11.8	11.5	18.2	2.5	57.3

주: 1) 주된 직장(일)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3) 비자발적 취업

비자발적 취업은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분야가 아니거나,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아니거나 경력을 쌓아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또는 육아 및 가사, 취업준비 등과 병행하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은 농림어업(52.7%)에서 가장 높고, 그다음 가구내 고용업(52.6%)으로 2명 중 1명이 비자발적 취업자이며, 숙박음식업



(42.8%), 건설업(41.6%), 사업관리지원임대업(34.5%), 예술및여가업(33.4%) 순으로 30% 이상이었다.

2020년 보건사회복지업, 공공행정업, 국제기구업, 가구내고용업에서는 비자발적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이들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소하였다.

2020년 8월 기준, 임금노동자 중 비자발적 취업자는 502만 7천명(24.6%)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만 3천명(감소율 -8.6%) 감소하였다. 2020년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고용 감소와 더불어 비자발적 취업자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은 농림어업에서 6만 3천명(52.7%)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 가구내고용업에서 5만 4천명(52.6%)으로 이들 업종에서는 2명 중 1명은 비자발적 취업자이다. 이 외에 숙박음식업 55만 9천명(42.8%), 건설업 69만 1천명(41.6%), 사업관리지원임대업 44만 명(34.5%), 예술및여가업 11만 2천명(33.4%) 순으로 이들 업종의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은 30% 이상이다.

반면, 전기·가스·증기업의 비자발적 취업자는 3천명(4.4%)으로 가장 적고, 전문·과학기술업은 6만 4천명(6.5%), 정보·통신업은 5만 7천명(7.4%)으로 10% 미만이다.

2020년 비자발적 취업자는 보건사회복지업, 공공행정업, 국제기구업과 가구내고용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소하였다. 규모로는 도소매업에서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그 다음 숙박음식업, 건설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순으로 감소하였다. 도소매업의 비자발적 취업자는 58만 1천명(26.8%)으로 전년 동기 대비 9만 명(감소율 -13.4%) 감소하여 가장 많은 숫자가 감소하였고, 그다음 숙박음식업이 55만 9천명(42.8%)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 9천명(감소율 -13.7%) 감소하였으며, 건설업은 69만 1천명(41.6%)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만 2천명(감소율 -9.4%p) 감소하였다. 제조업의 비자발적 취업자는 76만 1천명(19.4%)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 9천명(감

소율 -8.3%p) 감소하였지만 비자발적 취업자 규모로는 가장 크다.

〈표 5-40〉 산업별 비자발적 취업자 규모 및 비중 변화

(단위: 천명,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8		2020.8		증감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증감률
임금노동자	5,500	26.8	5,027	24.6	-473	-8.6
농림어업	68	55.8	63	52.7	-5	-7.4
광업	4	29.5	3	26.5	-1	-25.0
제조업	830	21.0	761	19.4	-69	-8.3
전기·가스·증기	4	5.3	3	4.4	-1	-25.0
수도·하수	32	24.1	28	19.9	-4	-12.5
건설업	763	46.9	691	41.6	-72	-9.4
도소매업	671	29.8	581	26.8	-90	-13.4
운수·창고	261	32.3	243	29.8	-18	-6.9
숙박·음식	648	44.8	559	42.8	-89	-13.7
정보·통신	70	9.0	57	7.4	-13	-18.6
금융·보험	103	13.6	91	12.2	-12	-11.7
부동산업	92	22.7	88	24.3	-4	-4.3
전문·과학기술	88	8.8	64	6.5	-24	-27.3
사업관리·지원·임대	469	37.8	440	34.5	-29	-6.2
공공행정	200	18.5	230	20.3	30	15.0
교육서비스	259	16.7	211	14.3	-48	-18.5
보건·사회복지	551	25.3	589	25.3	38	6.9
예술·및·여가	138	40.2	112	33.4	-26	-18.8
기타·개인서비스	196	27.0	155	22.9	-41	-20.9
가구·내·고용 등	53	65.5	54	52.6	1	1.9
국제기구	1	4.8	5	24.2	4	400.0

주: 1) 비자발적 사유는 주된 취업 사유가 ③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④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⑤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⑥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⑦ 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⑧ 학업·학원수강·직업훈련·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⑨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⑩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⑪ 그 외 기타 사유인 응답자 중 취업동기가 비자발적이라고 응답한 경우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한편, 비자발적 취업자 감소율은 주로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이 낮은 업종에서 컸다. 전문과학기술업의 비자발적 취업자는 6만 4천명(6.5%)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4천명(감소율 -27.3%) 감소하여 업종 중에서 감소율이 가장 컸고, 전기·가스·증기업은 3천명(4.4%)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천명(감소율 -25.0%) 감소하였고, 정보통신업은 5만 7천명(7.4%)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3천명(감소율 -18.6%) 감소하여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이외에도 광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1천명(감소율 -25.0%) 감소하였고, 기타개인서비스업 4만 1천명(감소율 -20.9%), 예술및여가업 2만 6천명(감소율 -18.8%), 교육서비스업 4만 8천명(감소율 -18.5%) 순으로 감소율이 컸다.

2020년 대부분의 업종에서 비자발적 취업자가 감소한 가운데 보건사회복지업, 공공행정업, 국제기구업, 가구내고용업에서는 비자발적 취업자가 증가하였다. 이중 공공행정업의 비자발적 취업자는 23만 명(20.3%)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명(증가율 15.0%) 증가하였으며, 보건사회복지업의 비자발적 취업자는 58만 9천명(25.3%)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8천명(증가율 6.9%p) 증가하였다. 이 외에 국제기구업의 비자발적 취업자는 4천명(증가율 400%) 증가하여 증가율이 가장 컸고, 가구내고용업이 1천명(증가율 1.9%) 증가하였다.

#### 4. 산업별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 변화

##### 1) 사회보험 가입률

2020년 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69.8%, 건강보험 76.7%, 고용보험 67.5% 수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3%p, 1.0%p,

1.7%p씩 증가하였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직장을 통한 가입자를 집계한 것이다.

업종별로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문·과학기술업, 전기·가스·증기업에서 가장 높고, 정보·통신업, 제조업도 높은 편이며 반면, 숙박·음식업, 농림어업 등에서 낮고 가구내고용업은 매우 취약하였다.

2020년 부동산업, 예술및여가업, 건설업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가구내고용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에서도 미미하지만 증가하였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문·과학기술업 90.7%로 3.2%p 상승하여 유일하게 90%를 넘었고, 반면, 가구내고용업 1.4%(+0.8%p), 공공행정업 22.7%(+2.9%p), 농림어업 29.9%(+1.7%p), 교육서비스업 31.5%(+2.2%p), 숙박·음식업 46.7%(+2.8%p)였다.

2020년 국민연금 가입률 변동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국민연금 가입률은 전기·가스·증기업에서 94.2%로 전년 동기 대비 1.0%p 증가하여 가장 높고, 그다음 정보·통신업은 93.4%로 전년 동기 대비 1.9%p 감소하였지만 90% 이상이다. 전문·과학기술업은 89.2%로 전년 동기 대비 0.2%p 감소하였으며, 제조업은 86.5%로 전년 동기 대비 0.2%p 증가하였다. 이들 업종에서는 80% 이상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가구내고용업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0.4%에 불과하여 가장 낮는데, 이는 2019년 0%에서 2020년 0.4%로 늘어난 것이다. 그다음 농림어업은 22.0%로 전년 동기 대비 -0.1%p 감소하였고, 숙박·음식업은 41.5%로 전년 동기 대비 0.5%p 증가하였지만 국민연금 가입률은 50%에 못 미친다. 이외에 광업 59.2%(-24.8%p), 건설업 50.8%(+3.4%p), 부동산업 55.7%(+4.1%p), 예술및여가업 55.3%(+6.3%p), 기타개인서비스업 51.1%

(+0.5%p)은 50%대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업은 2020년 59.2%로 전년 동기(84.0%) 대비 24.8%p 감소하여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국제기구업과 수도하수업에서도 2020년 국민연금 가입률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국제기구업은 71.8%로 전년 동기 대비 -13.8%p 감소하였고, 수도하수업은 75.6%로 전년 동기 대비 -10.3%p 감소하여 10%p 이상씩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예술및여가업, 부동산업, 건설업 등에서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크게 상승하였다. 예술및여가업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55.3%로 전년 동기 대비 6.3%p 증가하였고, 부동산업은 55.7%로 전년 동기 대비 4.1%p, 건설업은 50.8%로 전년 동기 대비 3.4%p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가입률은 낮은 편이다. 2020년 국민연금 가입률은 대체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업종에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률은 전기·가스·증기업 96.0%(-0.6%p), 정보·통신업 95.2%(-1.8%p), 전문·과학기술업 95.2%(+1.7%p), 광업 92.4%(-4.7%p), 제조업 92.4%(+1.2%p), 수도하수업 91.2%(-5.7%p) 순으로 높았다. 수도하수업과 광업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7%p, 4.7%p씩 크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건강보험 가입률 역시, 숙박·음식업 45.4%(+1.3%p), 농림어업 32.6%(+2.6%p), 가구내고용업 1.4%(+1.4%p)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p, 2.6%p, 1.4%p씩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낮다.

건강보험 가입률이 크게 증가한 업종으로 부동산업은 2020년 82.9%로 전년 동기 대비 8.9%p로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했고, 예술및여가업은 59.3%로 전년 동기 대비 4.3%p, 교육서비스업은 75.0%로 전년 동기 대비 4.1%p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가입률을 보면, 전문·과학기술업에서 90.7%로 전년

동기(87.5%) 대비 3.2%p 상승하여 유일하게 90%를 넘었고, 반면, 가구내고용업 1.4%(+0.8%p), 공공행정업 22.7%(+2.9%p), 농림어업 29.9%(+1.7%p), 교육서비스업 31.5%(+2.2%p), 숙박·음식업 46.7%(+2.8%p)로 대부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낮다. 이 외에 건설업 57.0%(+4.5%p), 예술및여가업 52.2%(+2.7%p), 기타개인서비스업 54.4%(+1.8%p)으로 50% 수준을 보였다.

고용보험 가입률 변동은 부동산업(68.0%)에서 전년 동기 대비 8.1%p 상승하였고, 건설업(57.0%)에서 4.5%p 상승하여 상승률이 높은 편이고, 반면, 국제기구업(70.1%), 광업(86.6%), 전기가스증기업(89.4%)에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2%p, -10.5%p, -4.1%p씩 감소하여 크게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문과학기술업, 전기가스증기업에서 가장 높고, 정보통신업, 제조업도 높은 편이다. 반면, 숙박음식업, 농림어업 등에서 낮고 가구내고용업은 매우 취약하였다. 한편, 2020년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제기구업, 광업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국제기구업은 국민연금(-13.8%p), 건강보험(-18.2%p), 고용보험(-13.2%p) 등 모든 사회보험의 감소율이 가장 컸다. 이 외에 수도하수업은 국민연금(-10.3%p), 건강보험(-5.7%p) 가입률이 크게 감소하였고, 정보통신업은 국민연금(-1.9%p), 건강보험(-1.8%p), 고용보험(-1.4%p) 모두 감소하였고, 보건사회복지업도 국민연금(-3.8%p), 건강보험(-2.6%p), 고용보험(-1.5%p) 등 모든 사회보험 가입률이 감소하였다.

반면, 부동산업은 국민연금(+4.1%p), 건강보험(+8.9%p), 고용보험(+8.1%p) 가입률 모두 증가하였고, 예술및여가업도 국민연금(+6.3%p), 건강보험(+4.3%p), 고용보험(+2.7%p) 가입률이 증가하였으며, 이 외에 건설업, 가구내고용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에서도 모든 사회보험 가입률이 미미하지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1〉 산업별 사회보험 가입률 변화

(단위: %, %p,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 8			2020.8			'19년 대비 증감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임금노동자	69.5	75.7	65.8	69.8	76.7	67.5	0.3	1.0	1.7
농림어업	22.1	30.0	28.2	22.0	32.6	29.9	-0.1	2.6	1.7
광업	84.0	97.1	97.1	59.2	92.4	86.6	-24.8	-4.7	-10.5
제조업	86.3	91.2	87.7	86.5	92.4	89.7	0.2	1.2	2.0
전기가스증기	93.2	96.6	93.5	94.2	96.0	89.4	1.0	-0.6	-4.1
수도하수	85.9	96.9	83.0	75.6	91.2	83.2	-10.3	-5.7	0.2
건설업	47.4	51.9	52.5	50.8	55.7	57.0	3.4	3.8	4.5
도소매업	70.8	73.4	71.3	70.3	73.3	71.9	-0.5	-0.1	0.6
운수창고	73.0	86.2	83.2	73.5	84.9	82.1	0.5	-1.3	-1.1
숙박음식	41.0	44.1	43.9	41.5	45.4	46.7	0.5	1.3	2.8
정보·통신	95.3	97.0	86.7	93.4	95.2	85.3	-1.9	-1.8	-1.4
금융보험	69.4	70.8	68.3	69.6	71.0	70.3	0.2	0.2	2.0
부동산업	51.6	74.0	59.9	55.7	82.9	68.0	4.1	8.9	8.1
전문·과학·기술	89.4	93.5	87.5	89.2	95.2	90.7	-0.2	1.7	3.2
사업관리지원업	59.0	81.9	71.1	59.8	83.2	71.1	0.8	1.3	0.0
공공행정	73.0	77.9	19.8	72.1	77.6	22.7	-0.9	-0.3	2.9
교육서비스	67.5	70.9	29.3	70.5	75.0	31.5	3.0	4.1	2.2
보건·사회복지	75.1	82.9	76.3	71.3	80.3	74.8	-3.8	-2.6	-1.5
예술·문화·여가	49.0	55.0	49.5	55.3	59.3	52.2	6.3	4.3	2.7
기타개인서비스	50.6	56.2	52.6	51.1	55.8	54.4	0.5	-0.4	1.8
가구내·고용 등	0.0	0.0	0.6	0.4	1.4	1.4	0.4	1.4	0.8
국제기구	85.6	95.2	83.3	71.8	77.0	70.1	-13.8	-18.2	-13.2

주: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지역가입자, 의료수급권자 및 직장가입피부양자는 제외)

2) 국민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포함

3) 고용보험의 경우 통계청은 2010년부터 특수 직역연금 대상(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을 제외한 고용보험가입률을 발표하고 있어 수치의 차이가 존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2) 근로복지 수혜율

2020년 8월 기준, 임금노동자의 근로복지 수혜율은 퇴직급여 73.2% (-0.8%p), 시간외수당 50.0%(+1.8%p), 유급휴일(휴가) 64.7%(+1.8%p), 상여금 68.8%(0.0%p), 교육훈련경험 52.2%(-1.7%p) 수준이다. 퇴직급여와 교육훈련 수혜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고, 시간외수당과 유급휴일 수혜율은 증가하였으며, 상여금 수혜율은 변동 없었다.

가장 관심이 가는 업종별 유급휴일(휴가) 수혜율은 전기가스증기업이 91.3%(-2%p), 정보·통신업이 90.2%(0.0%p)로 90% 이상인 반면, 가구내고용업 1.8%(-2.0%p), 농림어업 15.9%(+0.9%p), 숙박음식업 27.3%(+0.1%p)에서는 30% 미만이다. 유급휴일 수혜율이 증가한 업종으로 부동산업은 63.8%로 전년 동기 대비 9.8%p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예술및여가업 45.4%(+4.5%p), 건설업 40.7%(+4.2%p), 교육서비스업 68.8%(+3.9%p) 순으로 상승하였다.

한편, 교육훈련 수혜율은 공공행정업이 95.3%(+2.3%p)로 전년 동기 대비 2.3%p 상승하였고, 유일하게 90% 이상이다.

각 수혜율을 구체적으로 보면, 퇴직급여 수혜율은 수도하수업에서 93.6%로 전년 동기 대비 1.7%p 증가하였으며 업종 중에서 가장 높고, 그다음 전기가스증기업 92.7%(-3.9%p), 전문·과학기술업 92.6%(+0.3%p), 광업 92.4%(-7.6%p), 정보·통신업 92.0%(-3.6%p), 제조업 91.0(+0.1%p) 순으로 퇴직급여 수혜율이 90%를 넘었다. 이중 수도하수업, 전문·과학기술업, 제조업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퇴직급여 수혜율이 상승한 반면, 전기가스증기업, 광업, 정보·통신업에서는 감소하였다. 한편, 가구내고용업의 퇴직급여 수혜율은 1.1%(-0.4%p)로 가장 낮고, 그다음 농림어업 36.1%(4.9%p), 숙박



음식업 41.1%(-2.5%p), 건설업 49.3%(+1.2%p), 예술및여가업 49.6%(0.0%p) 순으로 나타났으며, 숙박음식업과 가구내고용업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여 더 낮아졌다. 이 외에 공공행정업 67.7%(-3.5%p), 보건사회복지업 75.2%(-4.9%p), 사업관리지원임대업 76.1%(-2.5%p), 운수창고업 82.3%(-2.3%p), 국제기구업 83.8%(-11.0%p)로 이들 업종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퇴직급여 수혜율이 감소한 반면, 부동산업 78%(+5.7%p), 교육서비스업 73.2%(+3.3%p)로 이들 업종에서는 퇴직급여 수혜율이 상승하였다.

시간외 수당 수혜율은 국제기구업 76.7%(-14.0%p), 제조업 70.7%(+0.4%p), 전기가스증기업 70.4%(-5.0%p)로 70% 이상이고, 반면, 가구내고용업 8.0%(+0.2%p), 농림어업 14.8%(+2.5%p), 숙박음식업 28.3%(+0.8%p), 기타개인서비스업 29.1%(+2.4%p)로 30% 미만이다. 한편, 가구내고용업은 8.0%로 전년 동기 대비 0.2%p 상승했지만 가장 낮고, 기타개인서비스업, 숙박음식업, 농림어업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낮다. 2020년 시간외 수당 수혜율은 국제기구업, 전기가스증기업, 정보통신업, 공공행정업,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상승하였는데, 부동산업이 34.6%로 전년 동기 대비 6.3%p 상승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건설업 34.7%(+5.9%p), 사업관리지원임대업 46.9%(+5.5%p) 순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국제기구업이 76.7%로 전년 동기 대비 14.0%p 감소하여 가장 많이 떨어졌고, 전기가스증기업이 70.4%로 전년 동기 대비 5.0%p 감소하였지만, 제조업 70.7%(+0.4%p)을 포함해 70%가 넘는 높은 수준이다.

유급휴일(휴가) 수혜율은 전기가스증기업이 91.3%(-2%p), 정보통신업이 90.2%(0.0%p)로 90% 이상이고, 반면, 가구내고용업 1.8%(-2.0%p), 농림어업 15.9%(+0.9%p), 숙박음식업 27.3%(+0.1%p)로 30% 미만이었다. 2020년 변동은 국제기구업이 81.9%로 전년 동기 대비 13.0%p 감소하여 가

장 큰 감소를 보였고, 이외에 광업 79.3%(-6.0%p), 수도하수업 82.1%(-3.0%p)로 이들 업종에서 전년 동기 대비 하락이 컸다. 한편, 유급휴일 수혜율이 증가한 업종으로 부동산업은 63.8%로 전년 동기 대비 9.8%p 증가하였고, 예술및여가업 45.4%(+4.5%p), 건설업 40.7%(+4.2%p), 교육서비스업 68.8%(+3.9%p)를 보이며 이들 업종에서는 상승하였다.

상여금 수혜율은 수도하수업이 87.6%(-0.0%p)로 가장 높고, 그다음 정보통신업이 86.6%(0.0%p)로 높다. 한편, 광업은 84.2%로 전년 동기 대비 13.0%p 감소하였지만 높은 편이고, 국제기구업도 83.5%로 전년 동기 대비 7.0%p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 가구내고용업 21.0%(-1.0%p), 농림어업 32.5%(+2.0%p), 숙박음식업 42.5%(+1.0%p), 건설업 47.7%(0.0%p), 예술및여가업은 48.4%(+1.0%p)로 50% 미만이다. 이외에 부동산업 72.9%(+4.0%p), 교육서비스업 72.2%(+4.0%p)로 이들 업종에서는 증가하였고, 전기·가스·증기업 83.6%(-3.0%p), 공공행정업 67.1%(-4.0%p), 기타개인서비스업 58.1%(-3.0%p)로 이들 업종에서는 감소하였다.

교육훈련 수혜율은 공공행정업이 95.3%(+2.3%p)로 전년 동기 대비 2.3%p 상승하였고, 유일하게 90% 이상이었다. 그다음 금융·보험업 79.9%(-2.4%p), 전기·가스·증기업 79.7%(-3.3%p), 교육서비스업 72.6%(+3.4%p)로 70% 수준이었다. 2020년 교육훈련 수혜율은 교육서비스업, 수도하수업, 공공행정업, 예술및여가업, 농림어업, 건설업 등에서 상승하였는데, 이중 교육서비스업은 72.6%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p 상승하였고, 수도하수업은 52.0%로 전년 동기 대비 3.0%p 상승하였으며, 공공행정업은 95.3%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p 상승하였다. 반면, 국제기구업은 69.3%로 전년 동기 대비 20.0%p 감소하였으며, 이외 정보통신업 57.9%(-8.1%p), 전문·과학기술업 58.0%(-6.6%p), 도소매업 32.5%(-4.6%p)로 감소가 컸다.

〈표 5-42〉 산업별 근로복지 수혜율 변화

(단위: %, %p,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 8					2020. 8					2019년 대비 증감				
	퇴직 급여	시간외 수당	유급 휴일 (휴가)	상여금	교육 훈련 경험	퇴직 급여	시간외 수당	유급 휴일 (휴가)	상여금	교육 훈련 경험	퇴직 급여	시간외 수당	유급 휴일 (휴가)	상여금	교육 훈련 경험
임금노동자	74.0	48.2	62.9	68.8	53.9	73.2	50.0	64.6	68.8	52.2	-0.8	1.8	1.7	0.0	-1.7
농림어업	31.2	12.3	15.0	30.9	19.9	36.1	14.8	15.9	32.5	21.8	4.9	2.5	0.9	2.0	1.9
광업	100.0	58.1	85.7	97.6	62.2	92.4	60.4	79.3	84.2	59.6	-7.6	2.3	-6.0	-13.0	-2.6
제조업	90.9	70.3	80.6	85.1	56.2	91.0	70.7	82.0	84.9	53.0	0.1	0.4	1.4	-0.0	-3.2
전기·가스·증기	96.6	75.0	93.3	86.9	83.0	92.7	70.4	91.3	83.6	79.7	-3.9	-5.0	-2.0	-3.0	-3.3
수도·하수	91.9	65.9	85.4	88.2	49.0	93.6	66.1	82.1	87.9	52.0	1.7	0.2	-3.0	-0.0	3.0
건설업	48.1	28.8	36.5	47.9	31.9	49.3	34.7	40.7	47.7	33.4	1.2	5.9	4.2	-0.0	1.5
도소매업	72.2	37.5	58.5	68.4	37.1	71.4	38.5	59.8	68.4	32.5	-0.8	1.0	1.3	0.0	-4.6
운수·창고	84.6	52.3	66.9	76.2	60.9	82.3	54.6	68.9	74.0	58.6	-2.3	2.3	2.0	-2.0	-2.3
숙박·음식	43.6	27.5	27.2	41.5	19.8	41.1	28.3	27.3	42.5	17.6	-2.5	0.8	0.1	1.0	-2.2
정보·통신	95.6	62.5	90.2	86.4	66.0	92.0	59.8	90.2	86.6	57.9	-3.6	-3.0	0.0	0.0	-8.1
금융·보험	69.2	53.3	66.5	73.3	82.3	69.3	52.1	68.5	73.3	79.9	0.1	-1.0	2.0	0.0	-2.4
부동산업	72.3	28.3	54.0	69.0	34.3	78.0	34.6	63.8	72.9	32.8	5.7	6.3	9.8	4.0	-1.5
전문·과학기술	92.3	49.5	85.4	83.4	64.6	92.6	53.4	87.4	83.6	58.0	0.3	3.9	2.0	0.0	-6.6
사업관리·지원업	78.6	41.4	61.2	63.1	49.8	76.1	46.9	64.3	64.6	47.0	-2.5	5.5	3.1	1.0	-2.8
공공행정	71.2	67.1	73.1	71.1	93.0	67.7	65.1	71.8	67.1	95.3	-3.5	-2.0	-1.0	-4.0	2.3
교육서비스	69.9	55.3	64.9	68.3	69.2	73.2	57.5	68.8	72.2	72.6	3.3	2.2	3.9	4.0	3.4
보건·사회복지	80.1	42.3	64.4	67.0	70.9	75.2	44.1	63.3	65.2	67.2	-4.9	1.8	-1.0	-2.0	-3.7
예술·문화·여가	49.6	33.0	40.9	47.0	30.9	49.6	33.2	45.4	48.4	33.1	0.0	0.2	4.5	1.0	2.2
기타개인서비스	58.8	26.7	44.8	60.8	40.9	57.5	29.1	44.3	58.1	39.6	-1.3	2.4	-1.0	-3.0	-1.3
가구내고용 등	1.5	7.8	3.7	22.0	4.7	1.1	8.0	1.8	21.0	2.2	-0.4	0.2	-2.0	-1.0	-2.5
국제기구	95.2	90.9	95.2	90.9	89.4	83.8	76.7	81.9	83.5	69.3	-11.0	-14.0	-13.0	-7.0	-20.0

- 주: 1) 퇴직급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2) 시간외 수당은 수당의 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시간외 수당은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체에만 적용됨.  
 3) 유급휴일(휴가)은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산전후휴가) 중 한 개 이상 수혜 대상인 경우. 유급휴가는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체에만 적용됨.  
 4)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법정임금은 아님.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5. 산업별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와 조직률 변화

2020년 8월 기준, 임금노동자 중 노동조합 조합원 수(조직률)은 251만 3천명(12.3%)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7천명 감소했고 조직률은 전년과 동일했다.

업종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기·가스·증기업에서 3만 3천명(46.0%)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 국제기구업 8천명(42.0%), 운수창고업 26만 7천명(32.8%), 금융·보험업 21만 7천명(29.0%), 공공행정업 30만 9천명(27.2%)으로 이들 업종에서는 20% 이상이었다.

한편, 노동조합 조직률은 운수창고업에서 26만 7천명(32.8%)으로 3만 7천명(-4.8%p) 감소하여 조직률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반면, 사업관리지원 임대업은 10만 9천명(8.6%)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6천명(+1.9%p) 증가하여 조직률이 상승하였다.

구체적으로 업종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기·가스·증기업이 3만 3천명(46.0%)로 가장 높고, 국제기구업 8천명(42.0%), 운수창고업 26만 7천명(32.8%), 금융·보험업 21만 7천명(29.0%), 공공행정업 30만 9천명(27.2%)로 20% 이상이다. 이외에 수도하수업 2만 6천명(18.4%), 교육서비스업 25만 7천명(17.3%), 정보·통신업 12만 3천명(16.0%), 제조업 58만 명(14.8%) 순이다. 이외에 농림어업(3.5%), 건설업(4.5%), 부동산업(4.7%), 도소매업(5.6%) 등에서는 많이 낮았다.

〈표 5-43〉 산업별 노동조합 조합원 수 변화

(단위: 명)

규모	2019. 8.				2020. 8.				증감			
	노조있음			노조 없음	노조있음			노조 없음	노조있음			노조 없음
	가입	미가입	가입 대상 아님		가입	미가입	가입 대상 아님		가입	미가입	가입 대상 아님	
임금노동자	2,530	1,238	1,475	15,316	2,513	1,368	1,454	15,111	-17	130	-21	-205
농림어업	6	2	3	111	4	0	1	115	-2	-2	-2	4
광업	1	1	1	10	1	0	0	10	0	-1	-1	0
제조업	603	212	289	2,842	580	264	275	2,811	-23	52	-14	-31
전기가스증기	36	5	14	17	33	4	16	19	-3	-1	2	2
수도하수	22	9	11	90	26	7	13	96	4	-2	2	6
건설업	51	47	56	1,473	75	46	58	1,482	24	-1	2	9
도소매업	129	83	99	1,942	121	99	80	1,871	-8	16	-19	-71
운수창고	304	58	64	383	267	68	81	397	-37	10	17	14
숙박음식	23	19	25	1,380	20	17	20	1,249	-3	-2	-5	-131
정보통신	134	57	63	523	123	56	65	526	-11	-1	2	3
금융보험	212	53	100	396	217	48	100	385	5	-5	0	-11
부동산업	21	4	7	374	17	6	7	334	-4	2	0	-40
전문·과학기술	108	74	87	726	84	75	118	709	-24	1	31	-17
사업관리지원업	83	47	54	1,057	109	54	68	1,042	26	7	14	-15
공공행정	277	126	245	431	309	123	246	457	32	-3	1	26
교육서비스	268	305	211	765	257	359	171	696	-11	54	-40	-69
보건사회복지	174	111	111	1,777	188	113	96	1,931	14	2	-15	154
예술및여가	36	10	31	266	30	13	22	269	-6	3	-9	3
기타개인서비스	37	14	4	670	43	15	16	603	6	1	12	-67
가구내고용 등	0	0	0	81	0	0	0	103	0	0	0	22
국제기구	5	1	1	4	8	1	2	7	3	0	1	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44〉 산업별 노동조합 가입률 변화

(단위: %)

규모	2019. 8.				2020. 8.				증감			
	노조있음			노조 없음	노조있음			노조 없음	노조있음			노조 없음
	가입	미가입	가입 대상 아님		가입	미가입	가입 대상 아님		가입	미가입	가입 대상 아님	
임금노동자	12.3	6.0	7.2	74.5	12.3	6.7	7.1	73.9	0.0	0.7	-0.1	-0.6
농림어업	5.1	1.7	2.9	90.4	3.5	0.3	0.5	95.6	-1.6	-1.4	-2.4	5.2
광업	6.3	8.0	4.9	80.9	6.2	3.6	3.8	86.4	-0.1	-4.4	-1.1	5.5
제조업	15.3	5.4	7.3	72.0	14.8	6.7	7.0	71.5	-0.5	1.3	-0.3	-0.5
전기가스증기	50.7	6.4	19.5	23.5	46.0	6.0	22.1	26.0	-4.7	-0.4	2.6	2.5
수도하수	16.7	7.2	8.1	68.0	18.4	4.8	9.2	67.7	1.7	-2.4	1.1	-0.3
건설업	3.1	2.9	3.5	90.5	4.5	2.8	3.5	89.2	1.4	-0.1	0.0	-1.3
도소매업	5.7	3.7	4.4	86.2	5.6	4.6	3.7	86.2	-0.1	0.9	-0.7	0.0
운수창고	37.6	7.1	7.9	47.4	32.8	8.3	10.0	48.8	-4.8	1.2	2.1	1.4
숙박음식	1.6	1.3	1.8	95.4	1.6	1.3	1.5	95.7	0.0	0.0	-0.3	0.3
정보통신	17.2	7.3	8.1	67.3	16.0	7.3	8.5	68.2	-1.2	0.0	0.4	0.9
금융보험	27.9	7.0	13.1	52.0	29.0	6.4	13.3	51.4	1.1	-0.6	0.2	-0.6
부동산업	5.2	0.9	1.6	92.2	4.7	1.6	1.8	92.0	-0.5	0.7	0.2	-0.2
전문·과학기술	10.9	7.5	8.8	72.9	8.5	7.6	12.0	72.0	-2.4	0.1	3.2	-0.9
사업관리지원업	6.7	3.8	4.3	85.2	8.6	4.3	5.3	81.8	1.9	0.5	1.0	-3.4
공공행정	25.7	11.7	22.7	39.9	27.2	10.9	21.7	40.3	1.5	-0.8	-1.0	0.4
교육서비스	17.3	19.7	13.6	49.4	17.3	24.2	11.5	46.9	0.0	4.5	-2.1	-2.5
보건사회복지	8.0	5.1	5.1	81.8	8.1	4.9	4.1	82.9	0.1	-0.2	-1.0	1.1
예술및여가	10.5	3.0	9.0	77.6	9.0	3.8	6.6	80.7	-1.5	0.8	-2.4	3.1
기타개인서비스	5.2	1.9	0.6	92.3	6.4	2.2	2.3	89.1	1.2	0.3	1.7	-3.2
가구내고용 등	0.0	0.0	0.0	100.0	0.0	0.0	0.0	100.0	0.0	0.0	0.0	0.0
국제기구	44.2	13.5	5.3	37.0	42.0	7.8	11.5	38.7	-2.2	-5.7	6.2	1.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노동조합 조직률 변동은 운수창고업이 26만 7천명(32.8%)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7천명(-4.8%p) 감소하여 가장 크게 떨어졌고, 그다음 전기가스증기업에서 3만 3천명(46.0%)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천명(-4.7%p) 감소하였으며, 전문·과학기술업은 8만 4천명(8.5%)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4천명(-2.4%p) 감소하였고, 국제기구업은 8천명(42.0%)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천명(-2.2%p) 감소하였다. 대체적으로 조직률이 높은 업종에서 감소율도 컸다.

반면, 사업관리지원임대업은 10만 9천명(8.6%)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6천명(+1.9%p) 증가하여 조직률이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 이 외에 수도하수업 18.4%(+1.7%p), 공공행정업 27.2%(+1.5%p), 건설업 4.5%(+1.4%p), 기타개인서비스업 6.4%(+1.2%p), 금융·보험업 29.0%(+1.1%p), 보건사회복지업 8.1%(+0.1%p)로 이들 업종에서는 상승하였다. 이중 금융·보험업, 공공행정업, 수도하수업은 조직률이 높은 편이고,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기도 했다.

대체적으로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업종의 근로조건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특히, 가구내고용업, 숙박·음식업, 농림어업 등은 매우 열악하였는데, 이들 업종은 조직률이 매우 낮다. 공공행정업, 보건사회복지업도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노동조합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깊은 고민이 요구된다.

## 제3절 기업규모별 고용과 노동실태에 미친 영향

### 1. 기업규모별 고용 영향

#### 1) 기업규모별 규모 변화

사업체 규모별로는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0년 고용 감소는 대부분 10인 미만(27만 2천명 감소) 규모에서 일어났다.

2020년 8월 기준, 임금노동자의 사업체 규모별 고용변동을 보면, 10인 미만 규모에서 고용 감소가 컸다. 1-4인 규모의 임금노동자는 364만 8천명(17.8%)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 5천명(감소율 -3.6%) 감소하여,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0.6%p 감소하였고, 5-9인 규모는 351만 1천명(17.2%)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 7천명(감소율 -3.8%) 감소하여 비중은 0.5%p 감소하였다.

반면, 10-99인과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증가하였는데, 특히 30-99인 규모는 399만 7천명(19.6%)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 1천명(증가율 2.6%) 증가하여 비중이 0.6%p 증가했으며, 300인 이상 규모는 270만 명(13.2%)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9천명(증가율 1.5%) 증가하였다.

2019년 상황을 보면, 10인 미만 규모에서 고용 증가가 컸었다. 특히, 1-4인 규모에서 25만 5천명(증가율 7.2%) 증가하였고, 5-9인 규모에서 10만 4천명(증가율 2.9%)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10인 미만 규모에서 큰 폭의 고용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5-45〉 임금노동자의 기업규모별 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규모					비중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임금노동자	19,743	20,006	20,045	20,559	20,446	100.0	100.0	100.0	100.0	100.0
1-4인	3,554	3,584	3,528	3,783	3,648	18.0	17.9	17.6	18.4	17.8
5-9인	3,529	3,543	3,544	3,648	3,511	17.9	17.7	17.7	17.7	17.2
10-29인	4,454	4,549	4,588	4,581	4,611	22.6	22.7	22.9	22.3	22.6
30-99인	3,790	3,847	3,891	3,896	3,997	19.2	19.2	19.4	19.0	19.6
100-299인	1,973	2,016	1,959	1,989	1,979	10.0	10.1	9.8	9.7	9.7
300인 이상	2,443	2,466	2,534	2,661	2,700	12.4	12.3	12.6	12.9	13.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46〉 임금노동자의 기업규모별 노동자 수 변화 및 증감률

(단위: 천명, %)

구분	전년 동기 대비 규모 변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7	'18	'19	'20	'17	'18	'19	'20
임금노동자	263	39	514	-113	1.3	0.2	2.6	-0.5
1-4인	30	-56	255	-135	0.8	-1.6	7.2	-3.6
5-9인	14	1	104	-137	0.4	0.0	2.9	-3.8
10-29인	95	39	-7	30	2.1	0.9	-0.2	0.7
30-99인	57	44	5	101	1.5	1.1	0.1	2.6
100-299인	43	-57	30	-10	2.2	-2.8	1.5	-0.5
300인 이상	23	68	127	39	0.9	2.8	5.0	1.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47〉 임금노동자의 기업규모별 규모 및 비중 변화

(단위: 천명, %, %p,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8		2020.8		증감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임금노동자	20,559	100.0	20,446	100.0	-113	0.0
1-4인	3,783	18.4	3,648	17.8	-135	-0.6
5-9인	3,648	17.7	3,511	17.2	-137	-0.5
10-29인	4,581	22.3	4,611	22.6	30	0.3
30-99인	3,896	19.0	3,997	19.6	101	0.6
100-299인	1,989	9.7	1,979	9.7	-10	0.0
300인 이상	2,661	12.9	2,700	13.2	39	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2) 기업규모별 특성별 고용변화

### ① 성별 고용영향

사업체 규모별로 봤을 때, 10인 미만 규모에서 남녀 모두 감소하였지만, 성별 차이를 보면 여성 감소가 남성의 2배 가량 더 많았고, 한편, 300인 이상 규

모에서 남성은 -3만 6천명 감소한 것에 비해 여성은 7만 5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고용이 컸던 보건사회복지업의 고용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00이상 규모에서 남성의 비중은 67.8%로 여전히 월등하게 높다.

2020년 임금노동자의 고용 감소는 여성에게 더 컸고, 사업체 규모별 고용 변동은 남녀 간에 차이가 있었다. 10인 미만 규모에서 남녀 모두 감소하였고, 30-99인 규모에서 남녀 모두 증가하였으며, 100-299인 규모에서 여성은 감소하였지만 남성은 증가하였고, 10-29인과 300인 이상 규모에서 남성은 감소했지만 오히려 여성은 증가하였다.

1-4인 규모에서 남성은 162만 9천명(44.7%)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만 5천명(-0.3%p) 감소하였으며, 여성은 201만 9천명(55.4%)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 1천명(+0.4%p) 감소하였지만 여성 비중은 남성보다 10.7%p 더 증가했다. 규모별 성별 비중을 보면, 대체로 모든 규모에서 남성 비중이 높지만 1-4인 규모에서만 여성 비중이 남성보다 컸다.

5-9인 규모의 경우, 남성은 189만 4천명(54.0%)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4천명(+1.4%p) 감소하였으며, 여성은 161만 7천명(46.1%)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 3천명(-1.3%p) 감소하여, 5-9인 규모의 여성 비중은 남성보다 7.9%p 더 적었다.

한편, 300인 이상 규모에서 남성은 183만 2천명(67.8%)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6천명(-2.4%p) 감소했는데, 여성은 86만 8천명(32.2%)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7만 5천명(+2.4%p) 증가하여 여성 비중은 2.4%p 증가하였다. 300인 이상 규모에서 남녀 비중 차이는 2019년의 40.4%p에서 2020년 35.6%p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남성이 월등하게 많다.

사업체 규모별 성별 비중에 나타난 특징을 보면, 첫째, 여성 비중은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많다는 것이다. 둘째, 1-4인 규모를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남성 비중이 여성보다 크다. 그리고 셋째,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남녀 간 비중의 차이가 커진다는 것이다.

〈표 5-48〉 기업규모별 성별 규모 변화

(단위: 천명,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8		2020.8		증감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임금노동자	9,163	11,396	9,085	11,361	-78	-35
1-4인	2,080	1,704	2,019	1,629	-61	-75
5-9인	1,730	1,918	1,617	1,894	-113	-24
10-29인	2,027	2,554	2,093	2,518	66	-36
30-99인	1,771	2,125	1,796	2,201	25	76
100-299인	762	1,227	691	1,287	-71	60
300인 이상	793	1,868	868	1,832	75	-3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49〉 기업규모별 성별 비중 변화

(단위: %, %p,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8		2020.8		증감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임금노동자	44.6	55.4	44.4	55.6	-0.2	0.2
1-4인	55.0	45.0	55.4	44.7	0.4	-0.3
5-9인	47.4	52.6	46.1	54.0	-1.3	1.4
10-29인	44.2	55.8	45.4	54.6	1.2	-1.2
30-99인	45.5	54.6	44.9	55.1	-0.6	0.5
100-299인	38.3	61.7	34.9	65.1	-3.4	3.4
300인 이상	29.8	70.2	32.2	67.8	2.4	-2.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② 연령계층별 고용영향

연령계층을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으로 재분류하여 사업체 규모별 연령계층별 변동을 살펴보았다.

2020년 규모별 연령별 고용 변동 특징은 첫째,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청년층 고용 감소가 많고, 규모가 클수록 고연령층의 고용이 증가하여 사업체 규모와 연령별로 뚜렷한 대칭성을 보였다. 특히, 15-29세는 1-4인 규모에서 전년 동기 대비 8만 명(-1.5%p) 감소하였고, 5-9인 규모에서 10만 2천명(-2.0%p) 감소하였으며, 10-29인 규모에서 4만 6천명(-1.2%p) 감소하였고, 30-99인 규모에서 1만 명(-0.3%p) 증가하였지만 비중은 감소하였고, 10-299인 규모에서 7천명(-0.3p) 감소하였다. 반면 300인 이상에서는 15-29세가 4만 1천명(+1.4%p) 증가하였다.

둘째, 사업체 규모가 작고 연령이 낮을수록 고용 감소폭이 컸고, 60세 이상은 모든 규모에서 증가하였지만 60세 이상의 증가는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작았다.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299인, 300인 이상 규모에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만 3천명(+3.6%p), 3만 5천명(+1.6%p), 9만 4천명(+1.9%p), 4만 2천명(+0.7%p), 1만 1천명(+0.7p), 1만 명(+0.4%p) 씩 증가하였다.

셋째, 300이상 규모에서 유일하게 15-29세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300이상 규모의 15-29세는 46만 명(17.1%)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1천명(+1.4%p) 증가하였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4인 규모에서는 고연령층의 비중이 컸고,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15-29세의 감소가 컸다. 구체적으로 1-4인 규모의 15-29세는 70만 6천명(19.3%)으로 전년 동기 대

비 80만 명(-1.5%p) 줄어 큰 감소를 보였고, 30대는 55만 6천명(15.3%)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 2천명(-0.8%p), 40대는 73만 9천명(20.3%)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 1천명(-0.9%p), 50대는 80만 1천명(22.0%)으로 4만 4천명(-0.3%p) 감소하였다. 반면, 60세 이상은 84만 7천명(23.2%)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 3천명(+3.6%p) 증가하였다. 1-4인 규모의 60세 이상은 규모와 연령을 고려했을 때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5-9인 규모에서는 40대의 비중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 50대가 많았다. 한편 5-9인 규모의 15-29세는 모든 규모와 연령층을 망라하여 가장 큰 규모로 감소하였다. 5-9인 규모의 15-29세는 66만 9천명(19.1%)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 2천명(-2.0%p) 감소하였고, 30대는 67만 6천명(19.2%)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천명(+0.7%p) 증가하였으며, 40대는 81만 4천명(23.2%)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 6천명(-0.6%p) 감소하였고, 50대는 73만 3천명(20.9%)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6천명(+0.3%p) 감소였지만 비중은 증가하였고, 60세 이상은 61만 9천명(17.6%)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5천명(+1.6%p) 증가하였다.

10-29인 규모는 50대, 40대, 30대 순으로 많았으며, 40대 이하에서는 감소하였고, 50대 이상에서는 증가하였다. 10-29인 규모의 15-29세는 74만 7천명(16.2%)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6천명(-1.2%p) 감소하였고, 30대는 96만 8천명(21.0%)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5천명(-1.1%p) 감소하였으며, 40대는 105만 명(22.7%)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천명(-0.3%p) 감소하였다. 50대는 104만 9천명(22.8%)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명(+0.6%p) 증가하였으며 60세 이상은 79만 8천명(17.3%)으로 전년 동기 대비 9만 4천명(1.9%p) 증가하였다.

30-99인 규모는 40대, 50대, 30대의 비중이 많았으며, 30대를 제외한 모

든 연령층에서 증가하였다. 30-99인 규모의 15-29세는 64만 2천명(16.0%)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명(-0.3%p) 증가하였지만 비중은 감소하였고, 30대는 90만 2천명(22.5%)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명(-1.4%p) 감소하였으며, 40대는 102만 명(25.5%)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9천명(-0.2%p) 증가하였지만 역시 비중은 감소하였고, 50대는 95만 1천명(23.8%)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 2천명(+1.0%p) 증가하였고, 60세 이상은 48만 3천명(12.1%)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2천명(+0.7%p) 증가하였다.

100-299인 규모는 40대, 30대, 50대 순으로 많았으며 60세 이상 비중이 크게 줄었으며, 30대 이하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고, 40대 이상은 증가하였다. 100-299인 규모의 15-29세는 33만 9천명(17.2%)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천명(-0.3%p) 감소하였고, 30대는 51만 1천명(25.9%)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7천명(-1.2%p) 감소하였으며, 40대 52만 6천명(26.6%)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천명(+0.2%p) 증가하였고, 50대 44만 2천명(22.4%)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3천명(+0.8%p) 증가하였으며, 60세 이상은 16만 1천명(8.2%)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1천명(+0.7%p) 증가하였다.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30대의 비중이 규모와 연령을 고려했을 때 가장 많고, 40대, 50대, 15-29세 순으로 많았으며, 60세 이상은 매우 적었다. 한편, 전년 동기 대비 30대 연령층만 감소하였고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는 증가하였다. 300이상 규모의 15-29세는 46만 명(17.1%)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1천명(+1.4%p) 증가하였으며, 유일하게 15-29세의 비중 역시 증가하였다. 30대는 86만 9천명(32.2%)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 5천명(-2.6%p) 감소하여 큰 비중으로 감소하였고, 40대는 75만 3천명(27.9%)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3천명(+0.5%p) 증가하였고, 50대는 52만 3천명(19.4%)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1천명(+0.5%p) 증가하였으며, 60세 이상은 9만 4천명(3.5%)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명(+0.4%p) 증가하였다.

〈표 5-50〉 기업규모별 연령계층별 규모 변화

(단위: 천명)

구분		임금 노동자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20. 08	15-19세	164	59	52	26	16	6	4
	20-24세	1,182	346	251	228	181	77	99
	25-29세	2,217	301	366	493	445	256	357
	30-34세	2,186	255	345	486	433	239	429
	35-39세	2,295	301	331	482	469	272	440
	40-44세	2,347	360	358	505	507	253	365
	45-49세	2,553	379	456	545	513	273	388
	50-54세	2,413	407	409	560	488	239	308
	55-59세	2,088	394	324	489	463	203	215
	60-64세	1,399	368	278	351	257	88	57
65세 이상	1,603	479	341	447	226	73	37	
전체	20,446	3,648	3,511	4,611	3,997	1,979	2,700	
'19. 08	15-19세	194	76	62	31	14	7	3
	20-24세	1,235	366	278	238	160	91	101
	25-29세	2,320	344	431	524	458	248	315
	30-34세	2,208	267	331	494	416	258	441
	35-39세	2,482	341	343	519	516	280	483
	40-44세	2,384	369	436	463	490	263	363
	45-49세	2,594	431	434	589	511	262	367
	50-54세	2,378	439	382	546	495	231	284
	55-59세	2,057	406	367	473	394	198	218
	60-64세	1,288	319	271	335	236	82	46
65세 이상	1,418	425	313	369	205	68	38	
전체	20,559	3,783	3,648	4,581	3,896	1,989	2,661	
증감	15-19세	-30	-17	-10	-5	2	-1	1
	20-24세	-53	-20	-27	-10	21	-14	-2
	25-29세	-103	-43	-65	-31	-13	8	42
	30-34세	-22	-12	14	-8	17	-19	-12
	35-39세	-187	-40	-12	-37	-47	-8	-43
	40-44세	-37	-9	-78	42	17	-10	2
	45-49세	-41	-52	22	-44	2	11	21
	50-54세	35	-32	27	14	-7	8	24
	55-59세	31	-12	-43	16	69	5	-3
	60-64세	111	49	7	16	21	6	11
65세 이상	185	54	28	78	21	5	-1	
전체	-113	-135	-137	30	101	-10	3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51〉 기업규모별 연령계층별 비중 변화

(단위: %, %p)

구분	임금 노동자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20. 08	15-19세	0.8	1.6	1.5	0.6	0.4	0.3	0.2
	20-24세	5.8	9.5	7.2	4.9	4.5	3.9	3.7
	25-29세	10.8	8.2	10.4	10.7	11.1	13.0	13.2
	30-34세	10.7	7.0	9.8	10.5	10.8	12.1	15.9
	35-39세	11.2	8.3	9.4	10.5	11.7	13.8	16.3
	40-44세	11.5	9.9	10.2	10.9	12.7	12.8	13.5
	45-49세	12.5	10.4	13.0	11.8	12.8	13.8	14.4
	50-54세	11.8	11.2	11.7	12.2	12.2	12.1	11.4
	55-59세	10.2	10.8	9.2	10.6	11.6	10.3	8.0
	60-64세	6.8	10.1	7.9	7.6	6.4	4.5	2.1
65세 이상	7.8	13.1	9.7	9.7	5.7	3.7	1.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 08	15-19세	0.9	2.0	1.7	0.7	0.4	0.4	0.1
	20-24세	6.0	9.7	7.6	5.2	4.1	4.6	3.8
	25-29세	11.3	9.1	11.8	11.5	11.8	12.5	11.8
	30-34세	10.7	7.1	9.1	10.8	10.7	13.0	16.6
	35-39세	12.1	9.0	9.4	11.3	13.2	14.1	18.2
	40-44세	11.6	9.8	11.9	10.1	12.6	13.2	13.6
	45-49세	12.6	11.4	11.9	12.9	13.1	13.2	13.8
	50-54세	11.6	11.6	10.5	11.9	12.7	11.6	10.7
	55-59세	10.0	10.7	10.1	10.3	10.1	10.0	8.2
	60-64세	6.3	8.4	7.4	7.3	6.1	4.1	1.7
65세 이상	6.9	11.2	8.6	8.1	5.3	3.4	1.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증감	15-19세	-0.1	-0.4	-0.2	-0.1	0.0	-0.1	0.1
	20-24세	-0.2	-0.2	-0.4	-0.3	0.4	-0.7	-0.1
	25-29세	-0.5	-0.9	-1.4	-0.8	-0.7	0.5	1.4
	30-34세	0.0	-0.1	0.7	-0.3	0.1	-0.9	-0.7
	35-39세	-0.9	-0.7	0.0	-0.8	-1.5	-0.3	-1.9
	40-44세	-0.1	0.1	-1.7	0.8	0.1	-0.4	-0.1
	45-49세	-0.1	-1.0	1.1	-1.1	-0.3	0.6	0.6
	50-54세	0.2	-0.4	1.2	0.3	-0.5	0.5	0.7
	55-59세	0.2	0.1	-0.9	0.3	1.5	0.3	-0.2
	60-64세	0.5	1.7	0.5	0.3	0.3	0.4	0.4
65세 이상	0.9	1.9	1.1	1.6	0.4	0.3	0.0	
전체	-	-	-	-	-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종합하면, 10인 미만 규모에서 50대 이하는 감소하였고, 60세 이상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10-29인 규모에서는 40대 이하는 감소하고, 50대 이상은 증가하였다. 30-99인 규모에서는 30대만 감소하였고, 50대 이상의 증가가 컸으며, 100-299인 규모에서는 30대 이하는 감소하고, 40대 이상은 증가하였다. 한편,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30대만 감소하고, 다른 연령층은 증가하였는데, 이중 15-29세 증가가 컸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저연령층의 감소가 컸고, 반대로 규모가 클수록 고연령층이 증가하였다.

### ③ 종사상 지위별 고용영향

사업체 규모별로 봤을 때 전체 임시직의 65.1%, 일용직의 74.4%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감소하였다.

사업체 규모별 종사상 지위별 특징은 첫째,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상용직 비중이 높고, 임시·일용직은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많았다. 특히 1-4인 규모는 상용직보다 임시·일용직 비중이 60% 이상으로 많았다. 둘째, 20년 고용감소는 임시·일용직 위주로 이루어졌다. 99인 이하 모든 규모에서 임시직과 일용직이 모두 감소했고, 100-299인 규모에서는 임시직은 증가하고, 일용직은 감소하였으며, 300인 이상에서는 일용직은 증가하고 임시직은 감소하였다. 셋째, 1-4인과 100-299인 규모에서는 상용직이 감소하였다. 특히 1-4인 규모는 상용직이 감소했지만 비중은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4인 규모에서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모두 감소하였으며, 임시직 감소는 모든 규모에서 가장 컸다. 1-4인 규모의 상용직은 142만 명(38.9%)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3천명(+1.0%p) 감소하였지만 비중은 증가하였고, 일용직 역시 63만 1천명(17.5%)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만 9천명(+0.1%p) 감소하지만 비중은 증가하였다. 한편, 임시직은 159만 6천명(43.8%)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 5천명(-1.2%p) 감소하였다. 임시직이 큰 규모로 감소하면서 상용직과 일용직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5-9인 규모에서는 상용직은 증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감소하였다. 5-9인 규모의 상용직은 213만 7천명(60.9%)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천명(+2.4%p) 증가하였지만 상용직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고, 임시직은 99만 2천명(28.3%)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 2천명(-1.7%p) 감소하였으며, 일용직은 38만 2천명(10.9%)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9천명(-0.6%p) 감소하였다.

10-29인 규모 역시 상용직은 증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감소하였다. 10-29인 규모의 상용직은 335만 7천명(72.8%)으로 전년 동기 대비 9만 1천명(+1.5%p) 증가하였고, 임시직은 103만 3천명(22.4%)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1천명(-1.1%p) 감소하였으며, 일용직은 22만 1천명(4.8%)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9천명(-0.4%p) 감소하였다.

30-99인 규모에서 상용직은 증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감소하였다. 30-99인 규모의 상용직은 335만 2천명(83.9%)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만 3천명(+1.8%p) 증가하여 상용직 증가 규모로는 가장 컸고, 임시직은 57만 1천명(14.3%)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 1천명(-1.7%p) 감소하였으며, 일용직은 7만 3천명(1.8%)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천명(-0.1%p) 감소하였다.

100-299인 규모에서 상용직은 175만 9천명(88.9%)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3천명(-0.2%p) 감소하였고, 일용직은 1만 8천명(0.9%)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천명(-0.2%p) 감소한 반면, 임시직은 20만 2천명(10.2%)으로 5천명(+0.3%p) 증가하였는데, 임시직 증가는 100-299인 규모에서 유일했다.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상용직과 일용직은 증가하고, 임시직은 감소하였다. 300인 이상 규모의 상용직은 254만 4천명(94.2%)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만 명(+0.9%p) 증가하였고, 일용직은 1만 2천명(0.4%)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천명(+0.1%p) 증가한 반면, 임시직은 14만 4천명(5.3%)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5천명(-1.1%p) 감소하였다.

〈표 5-52〉 기업규모별 종사상 지위별 규모 변화

(단위: 천명,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8			2020.8			증감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임금노동자	14,288	4,857	1,415	14,570	4,539	1,337	282	-318	-78
1-4인	1,433	1,701	650	1,420	1,596	631	-13	-105	-19
5-9인	2,134	1,094	421	2,137	992	382	3	-102	-39
10-29인	3,266	1,074	240	3,357	1,033	221	91	-41	-19
30-99인	3,199	622	75	3,352	571	73	153	-51	-2
100-299인	1,772	197	21	1,759	202	18	-13	5	-3
300인 이상	2,484	169	8	2,544	144	12	60	-25	4
전체	14,288	4,857	1,415	14,570	4,539	1,337	282	-318	-7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53〉 기업규모별 종사상 지위별 분포 변화

(단위: %, %p,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8			2020.8			증감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임금노동자	69.5	23.6	6.9	71.3	22.2	6.5	1.8	-1.4	-0.4
1-4인	37.9	45.0	17.2	38.9	43.8	17.3	1.0	-1.2	0.1
5-9인	58.5	30.0	11.5	60.9	28.3	10.9	2.4	-1.7	-0.6
10-29인	71.3	23.5	5.2	72.8	22.4	4.8	1.5	-1.1	-0.4
30-99인	82.1	16.0	1.9	83.9	14.3	1.8	1.8	-1.7	-0.1
100-299인	89.1	9.9	1.1	88.9	10.2	0.9	-0.2	0.3	-0.2
300인 이상	93.3	6.4	0.3	94.2	5.3	0.4	0.9	-1.1	0.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④ 산업별 고용영향

2020년 사업체 규모와 업종별 고용 동향을 보면, 10인 미만 규모에서 정보·통신업, 공공행정업, 보건사회복지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경우 10인 미만 규모에서 전체 감소 인원의 86.4%(12만 1천명)가 줄었고, 도소매업에서도 10인 미만 규모(5만 3천명)에서만 절반 이상이 감소하였으며, 교육서비스업은 전체 감소 규모(6만 6천명) 모두 29인 이하 규모에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10인 미만 규모에서 정보·통신업, 공공행정업, 보건사회복지업 등의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 동기 대비 고용 감소가 컸다. 특히, 건설업(1-9인), 교육서비스업(1-29인), 기타개인서비스업(1-99인)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에서는 감소하고, 그 이상의 규모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한편,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은 100인 이상 규모에서 고용이 감소하였고, 반면 건설업, 사업관리지원임대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에서는 증가하였다.

2020년 8월, 1-4인 규모에서 숙박·음식업 5만 7천명(-0.9%p), 기타개인서비스업 4만 6천명(-1.0%p), 사업관리지원임대업 3만 5천명(-0.7%p), 교육서비스업 2만 5천명(-0.5%p), 건설업 2만 1천명(-0.3%p), 도소매업에서 1만 명(+0.5%p) 감소하였다. 특히, 도소매업은 다른 규모에서 감소가 커서 1-4인 규모의 고용이 감소했음에도 비중은 증가했다. 반면, 1-4인 규모에서 보건사회복지업 2만 8천명(+1.0%p), 가구내고용업 2만 2천명(+0.7%p), 농림어업 9천명(+0.3%p), 제조업 8천명(+0.5%p), 공공행정업 7천명(+0.3%p), 정보·통신업에서 5천명(+0.2%p)이 증가하였다.

5-9인 규모에서는 숙박·음식업 6만 4천명(-1.4%p), 도소매업 4만 3천명

(-0.7%p), 교육서비스업 3만 4천명(-0.8%p), 건설업 3만 1천명(-0.3%p), 부동산업 2만 7천명(-0.6%p), 기타개인서비스업에서 1만 4천명(-0.2%p) 감소하였다. 반면, 사업관리지원임대업 3만 4천명(+1.2%p), 정보·통신업 2만 명(+0.7%p), 공공행정업 2만 명(+0.6%p), 전문·과학기술업 1만 8천명(+0.7%p), 금융·보험업 4천명(+0.1%p), 예술및여가업에서 4천명(+0.2%p)이 증가하였다.

100-299인 규모에서 도소매업 2만 6천명(-1.4%p), 숙박·음식업 9천명(-0.4%p) 감소하였고, 300인 이상에서 도소매업 1만 2천명(-0.5%p), 숙박·음식업 1만 4천명(-0.5%p), 제조업 1만 1천명(-0.8%p)이 감소하였다. 반면 300인 이상 규모에서 보건·사회복지업은 4만 9천명(+1.7%p)이 증가하였다.

2020년 업종 전체 가장 감소가 컸던 숙박·음식업(-14만 명)은 30-99인을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감소하였고, 두 번째로 감소가 컸던 도소매업(-8만 1천명)은 1-4인 규모에서 1만 명(+0.5%p) 감소하였지만 비중은 증가하였고, 5-9인 규모에서는 4만 3천명(-0.7%p)이 감소하였고, 10-29인 규모에서는 8천명(+0.1%p)이 증가하였고, 30-99인 규모에서 1천명(-0.1%p)이 증가했지만 비중은 감소했고, 100-299인 규모에서 2만 6천명(-1.4%p) 감소하였고, 300인 이상에서 1만 2천명(-0.5%p) 감소하였다.

그다음 감소가 많았던 교육서비스업(-6만 6천명)은 전년 동기 대비 1-4인 규모에서 2만 5천명(-0.5%p), 5-9인 규모에서 3만 4천명(-0.8%p), 10-29인 규모에서 2만 명(-0.5%p)이 감소하여 1-29인 이하에서는 모두 감소하였고, 반면 30-99인 규모에서 1천명(-0.4%p) 증가하였지만 비중은 감소하였고, 100-299인 5천명(+0.2%p), 300인 이상 규모에서 7천명(+0.1%p)이 증가하였다. 기타개인서비스업(-4만 9천명)도 전년 동기 대비 1-4인 규모에서 4만 6천명(-1.0%p), 5-9인 규모 1만 4천명(-0.2%p), 10-29인 규모 2천명

(0.0%p), 30-99인 규모에서 2천명(-0.1%p)이 감소하여 99인 이하에서는 감소하였고, 반면, 100-299인 규모에서 8천명(+0.4%p), 300인 이상 규모에서 6천명(+0.3%p)이 증가하였다.

전체 고용이 증가한 건설업(+3만 5천명)은 1-4인 규모에서 2만 1천명(-0.3%p), 5-9인 규모에서 3만 1천명(-0.3%p)이 감소하여 1-9인 이하에서는 감소하였고, 반면, 10-29인 규모에서 3만 2천명(+0.6%p), 30-99인 규모에서 3만 2천명(+0.7%p), 100-299인 규모에서 2만 1천명(+1.1%p), 300인 이상 규모에서 2천명(0.0%p)이 증가하였다.

한편, 보건사회복지업과 공공행정업, 가구내고용업에서는 1-4인 규모에서도 고용이 증가하였다. 이중 보건사회복지업은 1-4인 규모에서 30만 7천명(8.4%)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8천명(+1.0%p) 증가하였고, 공공행정업은 1-4인 규모에서 9만 5천명(2.6%)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천명(+0.3%p) 증가하였으며, 가구내고용업은 1-4인 규모에서 10만 3천명(2.8%)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2천명(+0.7%p)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업(+15만 5천명)과 공공행정업(+5만 5천명)에서 증가가 많았다.

업종 전체로 고용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소규모 업체에서는 감소하여, 사업관리지원임대업은 업종 전체로 보면 총고용이 3만 3천명 증가하였지만 1-4인 규모에서 3만 5천명 감소하고 30인 이상에서는 증가하였고, 건설업 역시 10인 미만 규모에서 5만 2천명 감소하였지만 10인 이상 규모에서 증가하였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업, 공공행정업, 가구내고용업, 제조업은 1-4인 규모에서도 증가하였다. 특히 보건사회복지업은 대체로 모든 규모에서 증가하였다.

〈표 5-54〉 기업규모별 산업별 노동자 수 변화

(단위: 천명, 전년 동기 대비)

구분	임금 노동자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가 가스 증기	수도 하수	건설업	도소매 업	운수 창고	숙박 음식	정보 통신	
'20. 08	1-4인	3,648	59	1	264	0	9	319	809	80	601	51
	5-9인	3,511	36	2	448	3	18	490	454	65	405	79
	10-29인	4,611	16	6	838	8	58	479	448	160	199	178
	30-99인	3,997	6	1	945	19	43	224	242	222	69	154
	100-299인	1,979	2	0	608	14	11	90	118	157	17	142
	300인 이상	2,700	0	1	828	27	2	60	100	129	15	166
	전체	20,446	120	11	3,930	71	142	1,662	2,172	813	1,306	771
'19. 08	1-4인	3,783	50	1	256	0	11	340	819	81	658	46
	5-9인	3,648	48	1	450	2	18	521	497	74	469	59
	10-29인	4,581	13	5	882	8	48	447	440	158	203	183
	30-99인	3,896	9	3	909	26	40	192	241	218	61	181
	100-299인	1,989	2	0	610	14	12	69	144	161	26	139
	300인 이상	2,661	0	1	839	22	2	58	112	116	29	168
	전체	20,559	123	12	3,946	71	132	1,627	2,253	808	1,446	777
증감	1-4인	-135	9	0	8	0	-2	-21	-10	-1	-57	5
	5-9인	-137	-12	1	-2	1	0	-31	-43	-9	-64	20
	10-29인	30	3	1	-44	0	10	32	8	2	-4	-5
	30-99인	101	-3	-2	36	-7	3	32	1	4	8	-27
	100-299인	-10	0	0	-2	0	-1	21	-26	-4	-9	3
	300인 이상	39	0	0	-11	5	0	2	-12	13	-14	-2
	전체	-113	-3	-1	-16	0	10	35	-81	5	-140	-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54〉 기업규모별 산업별 노동자 수 변화(계속)

(단위: 천명, 전년 동기 대비)

구분	금융보험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	사업관리자원임대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예술및여가	기타개인서비스	가구내고용등	국제기구	
'20. 08	1-4인	34	106	118	209	95	119	307	96	268	103	0
	5-9인	53	111	178	295	74	144	475	59	122	0	1
	10-29인	255	87	189	335	223	254	621	93	163	0	1
	30-99인	220	34	155	249	183	664	429	48	79	0	9
	100-299인	72	13	102	96	145	125	203	29	32	0	2
	300인 이상	115	12	244	90	415	176	294	9	12	0	5
	전체	749	363	986	1,274	1,134	1,482	2,328	334	677	103	19
'19. 08	1-4인	36	112	125	244	88	144	279	100	314	81	0
	5-9인	49	138	160	261	54	178	476	55	136	0	0
	10-29인	264	91	204	346	192	274	570	84	165	0	1
	30-99인	226	38	160	215	169	663	399	61	81	0	3
	100-299인	78	10	95	90	163	120	205	25	24	0	2
	300인 이상	107	17	252	84	413	169	245	17	6	0	4
	전체	761	406	996	1,241	1,079	1,548	2,173	343	726	81	11
증감	1-4인	-2	-6	-7	-35	7	-25	28	-4	-46	22	0
	5-9인	4	-27	18	34	20	-34	-1	4	-14	0	1
	10-29인	-9	-4	-15	-11	31	-20	51	9	-2	0	0
	30-99인	-6	-4	-5	34	14	1	30	-13	-2	0	6
	100-299인	-6	3	7	6	-18	5	-2	4	8	0	0
	300인 이상	8	-5	-8	6	2	7	49	-8	6	0	1
	전체	-12	-43	-10	33	55	-66	155	-9	-49	22	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55〉 기업규모별 산업 분포 변화

(단위: %, %p, 전년 동기 대비)

구분	임금 노동자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가 가스 증기	수도 하수	건설업	도소매 업	운수 창고	숙박 음식	정보 통신	
'20. 08	1-4인	17.8	1.6	0.0	7.3	0.0	0.3	8.7	22.2	2.2	16.5	1.4
	5-9인	17.2	1.0	0.1	12.8	0.1	0.5	14.0	12.9	1.9	11.5	2.3
	10-29인	22.6	0.4	0.1	18.2	0.2	1.3	10.4	9.7	3.5	4.3	3.9
	30-99인	19.5	0.1	0.0	23.6	0.5	1.1	5.6	6.1	5.6	1.7	3.9
	100-299인	9.7	0.1	0.0	30.7	0.7	0.5	4.6	5.9	8.0	0.9	7.2
	300인 이상	13.2	0.0	0.0	30.7	1.0	0.1	2.2	3.7	4.8	0.6	6.2
	전체	100.0	0.6	0.1	19.2	0.4	0.7	8.1	10.6	4.0	6.4	3.8
'19. 08	1-4인	18.4	1.3	0.0	6.8	0.0	0.3	9.0	21.7	2.1	17.4	1.2
	5-9인	17.7	1.3	0.0	12.4	0.1	0.5	14.3	13.6	2.0	12.9	1.6
	10-29인	22.3	0.3	0.1	19.3	0.2	1.1	9.8	9.6	3.4	4.4	4.0
	30-99인	19.0	0.2	0.1	23.3	0.7	1.0	4.9	6.2	5.6	1.6	4.7
	100-299인	9.7	0.1	0.0	30.7	0.7	0.6	3.5	7.3	8.1	1.3	7.0
	300인 이상	12.9	0.0	0.1	31.5	0.8	0.1	2.2	4.2	4.4	1.1	6.3
	전체	100.0	0.6	0.1	19.2	0.3	0.6	7.9	11.0	3.9	7.0	3.8
증감	1-4인	-0.6	0.3	0.0	0.5	0.0	0.0	-0.3	0.5	0.1	-0.9	0.2
	5-9인	-0.5	-0.3	0.1	0.4	0.0	0.0	-0.3	-0.7	-0.1	-1.4	0.7
	10-29인	0.3	0.1	0	-1.1	0.0	0.2	0.6	0.1	0.1	-0.1	-0.1
	30-99인	0.5	-0.1	-0.1	0.3	-0.2	0.1	0.7	-0.1	0.0	0.1	-0.8
	100-299인	0.0	0.0	0.0	0.0	0.0	-0.1	1.1	-1.4	-0.1	-0.4	0.2
	300인 이상	0.3	0	-0.1	-0.8	0.2	0.0	0.0	-0.5	0.4	-0.5	-0.1
	전체	0.0	0.0	0.0	0.0	0.1	0.1	0.2	-0.4	0.1	-0.6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55〉 기업규모별 산업 분포 변화(계속)

(단위: %, %p, 전년 동기 대비)

구분	금융 보험	부동산 업	전문 과학 기술	사업관 리지원 임대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	보건 사회 복지	예술및 여가	기타 개인 서비스	가구내 고용 등	국제 기구	전체	
'20. 08	1-4인	0.9	2.9	3.2	5.7	2.6	3.3	8.4	2.6	7.3	2.8	0.0	100.0
	5-9인	1.5	3.2	5.1	8.4	2.1	4.1	13.5	1.7	3.5	0.0	0.0	100.0
	10-29인	5.5	1.9	4.1	7.3	4.8	5.5	13.5	2.0	3.6	0.0	0.0	100.0
	30-99인	5.5	0.9	3.9	6.2	4.6	16.6	10.7	1.2	2.0	0.0	0.2	100.0
	100-299인	3.6	0.7	5.2	4.9	7.3	6.3	10.3	1.5	1.6	0.0	0.1	100.0
	300인 이상	4.3	0.5	9.0	3.3	15.4	6.5	10.9	0.3	0.5	0.0	0.2	100.0
	전체	3.7	1.8	4.8	6.2	5.6	7.3	11.4	1.6	3.3	0.5	0.1	100.0
'19. 08	1-4인	0.9	3.0	3.3	6.4	2.3	3.8	7.4	2.7	8.3	2.1	0.0	100.0
	5-9인	1.4	3.8	4.4	7.2	1.5	4.9	13.1	1.5	3.7	0.0	0.0	100.0
	10-29인	5.8	2.0	4.5	7.6	4.2	6.0	12.5	1.8	3.6	0.0	0.0	100.0
	30-99인	5.8	1.0	4.1	5.5	4.3	17.0	10.2	1.6	2.1	0.0	0.1	100.0
	100-299인	3.9	0.5	4.8	4.5	8.2	6.1	10.3	1.3	1.2	0.0	0.1	100.0
	300인 이상	4.0	0.6	9.5	3.2	15.5	6.4	9.2	0.7	0.2	0.0	0.2	100.0
	전체	3.7	2.0	4.8	6.0	5.2	7.5	10.6	1.7	3.5	0.4	0.1	100.0
증감	1-4인	0.0	-0.1	-0.1	-0.7	0.3	-0.5	1.0	-0.1	-1.0	0.7	0.0	0
	5-9인	0.1	-0.6	0.7	1.2	0.6	-0.8	0.4	0.2	-0.2	0.0	0.0	0
	10-29인	-0.3	-0.1	-0.4	-0.3	0.6	-0.5	1.0	0.2	0.0	0.0	0.0	0
	30-99인	-0.3	-0.1	-0.2	0.7	0.3	-0.4	0.5	-0.4	-0.1	0.0	0.1	0
	100-299인	-0.3	0.2	0.4	0.4	-0.9	0.2	0.0	0.2	0.4	0.0	0.0	0
	300인 이상	0.3	-0.1	-0.5	0.1	-0.1	0.1	1.7	-0.4	0.3	0.0	0.0	0
	전체	0.0	-0.2	0.0	0.2	0.4	-0.2	0.8	-0.1	-0.2	0.1	0.0	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⑤ 근로형태별 고용영향

정규직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증가하였고, 비정규직은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많았다. 비정규직의 근로형태인 한시적 근로, 비전형 근로, 시간제근로도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많았다.

사업체 규모별 근로형태별 변동을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감소는 대부분 10인 미만 규모에서 이루어졌고, 10인 이상 규모에서는 대부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30-99인 규모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증가가 가장 많았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4인 규모에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고,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23.6%), 비전형 근로(16.9%), 시간제 근로(34.4%)로 시간제 근로의 비중이 가장 컸다. 1-4인 규모의 정규직은 165만 명(45.2%)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 명(-1.3%p) 감소하였고, 비정규직은 199만 8천명(54.8%)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5천명(+1.3%p) 감소하였지만 정규직 감소가 더 커서 1-4인 규모의 비정규직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한편, 1-4인 규모의 비정규직 감소는 주로 기간제와 파견제 및 용역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시적 근로인 기간제가 8만 명(-1.6%p) 감소하였고, 비전형 근로인 파견제는 2만 2천명(-0.5%p) 감소하였으며, 용역직은 3만 9천명(-0.9%p) 감소하였다. 대신 일일근로가 7만 4천명(+2.4%p) 증가하였다.

5-9인 규모에서 정규직은 196만 2천명(55.9%)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 명(-0.1%p) 감소하였고, 비정규직은 154만 9천명(44.1%)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 6천명(+0.1%p) 감소하여, 비정규직 감소 규모로는 전 규모에서 가장 컸다. 5-9인 규모의 비정규직 감소는 기간제 3만 9천명(-0.3%p), 비기간제 6만 4천명(-1.6%p)이 감소하면서 비정규직 감소를 야기했고, 일일근로가 4만 4천명(+1.6%p) 증가하였다.

10-29인 규모에서 정규직은 283만 4천명(61.5%)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4천명(-0.1%p) 증가하였지만 정규직 비중은 감소하였다. 한편, 비정규직은 177만 7천명(38.5%)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6천명(+0.1%p) 증가하였다. 비정규직 중 비기간제가 10만 2천명(-2.2%p)명 감소하여 가장 많은 비

기간제가 감소하였고, 대신 기간제가 12만 8천명(+2.6%p) 증가하였고, 비전형 근로형태인 용역이 1만 6천명(-0.3%p), 특수근로가 1만 4천명(-0.4%p)이 감소하고, 대신 일일근로가 2만 5천명(+0.5%p) 증가하였다. 시간제도 가장 많이 증가하여 4만 명(+1.3%p)이 증가하였다. 10-29인 규모는 비정규직 내부에서 근로형태 간 변동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30-99인 규모에서 정규직은 278만 9천명(69.8%)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만 9천명(+0.2%p) 증가하여 가장 큰 규모의 증가를 보였고, 비정규직은 120만 8천명(30.2%)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2천명(-0.3%p) 증가하였지만 정규직 증가가 커서 비정규직 비중은 감소하였다. 30-99인 규모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증가 규모가 가장 컸다.

100-299인 규모에서 정규직은 150만 9천명(76.3%)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천명(+0.7%p) 증가하였고, 비정규직은 47만 명(23.8%)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5천명(-0.6%p) 감소하였다. 10인 이상 규모에서 비정규직 감소로는 유일했다.

300인 이상 규모에서 정규직은 227만 7천명(84.3%)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6천명(+0.1%p) 증가하였고, 비정규직은 42만 4천명(15.7%)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천명(-0.1%p) 증가하였지만 비중은 감소하였다. 300인 이상 규모의 비정규직 근로형태는 한시적 근로(14.1%), 비전형 근로(1.2%), 시간제 근로(3.7%)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5-56〉 기업규모별 근로형태별 노동자 규모 변화

(단위: 천명)

구분	전체	정규직	비 정규직											
				한시적	비기간제		비전형						시간제	
					기간제	비기간제		파견	용역	특수 근로	일일 근로	가내 근로		
20. 08	임금노동자	20,446	13,020	7,426	4,608	3,933	675	2,073	164	552	498	896	49	3,252
	1-4인	3,648	1,650	1,998	859	592	267	616	25	102	115	385	30	1,255
	5-9인	3,511	1,962	1,549	893	735	158	518	37	156	53	293	4	711
	10-29인	4,611	2,834	1,777	1,198	1,070	128	528	47	169	158	162	7	702
	30-99인	3,997	2,789	1,208	898	823	75	292	33	81	141	40	1	362
	100-299인	1,979	1,509	470	378	348	30	86	16	33	26	10	2	122
	300인 이상	2,700	2,277	424	381	365	16	33	6	11	6	5	5	101
19. 08	임금노동자	20,559	13,078	7,481	4,785	3,799	986	2,045	182	615	528	748	46	3,156
	1-4인	3,783	1,760	2,023	937	672	266	607	47	141	121	311	27	1,240
	5-9인	3,648	2,042	1,605	995	774	222	471	33	154	44	249	4	693
	10-29인	4,581	2,820	1,761	1,172	942	230	533	43	185	172	137	6	662
	30-99인	3,896	2,710	1,186	894	743	151	318	37	96	152	36	5	353
	100-299인	1,989	1,504	485	399	325	74	82	13	25	32	12	2	125
	300인 이상	2,661	2,241	420	387	343	44	35	9	14	8	2	2	82
증감	임금노동자	-113	-58	-55	-177	134	-311	28	-18	-63	-30	148	3	96
	1-4인	-135	-110	-25	-78	-80	1	9	-22	-39	-6	74	3	15
	5-9인	-137	-80	-56	-102	-39	-64	47	4	2	9	44	0	18
	10-29인	30	14	16	26	128	-102	-5	4	-16	-14	25	1	40
	30-99인	101	79	22	4	80	-76	-26	-4	-15	-11	4	-4	9
	100-299인	-10	5	-15	-21	23	-44	4	3	8	-6	-2	0	-3
	300인 이상	39	36	4	-6	22	-28	-2	-3	-3	-2	3	3	1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57〉 기업규모별 근로형태별 노동자 분포 변화

(단위: %)

구분	전체	정규직	비 정규직											
				한시적	기간제		비전형						시간제	
					기간제	비기 간제		파견	용역	특수 근로	일일 근로	가내 근로		
20. 08	임금노동자	100.0	63.7	36.3	22.5	19.2	3.3	10.1	0.8	2.7	2.4	4.4	0.2	15.9
	1-4인	17.8	45.2	54.8	23.6	16.2	7.3	16.9	0.7	2.8	3.2	10.6	0.8	34.4
	5-9인	17.2	55.9	44.1	25.4	20.9	4.5	14.8	1.1	4.4	1.5	8.4	0.1	20.3
	10-29인	22.6	61.5	38.5	26.0	23.2	2.8	11.5	1.0	3.7	3.4	3.5	0.2	15.2
	30-99인	19.6	69.8	30.2	22.5	20.6	1.9	7.3	0.8	2.0	3.5	1.0	0.0	9.1
	100-299인	9.7	76.3	23.8	19.1	17.6	1.5	4.4	0.8	1.7	1.3	0.5	0.1	6.2
	300인 이상	13.2	84.3	15.7	14.1	13.5	0.6	1.2	0.2	0.4	0.2	0.2	0.2	3.7
19. 08	임금노동자	100.0	63.6	36.4	23.3	18.5	4.8	9.9	0.9	3.0	2.6	3.6	0.2	15.4
	1-4인	17.6	46.5	53.5	24.8	17.8	7.0	16.0	1.2	3.7	3.2	8.2	0.7	32.8
	5-9인	17.7	56.0	44.0	27.3	21.2	6.1	12.9	0.9	4.2	1.2	6.8	0.1	19.0
	10-29인	22.9	61.6	38.4	25.6	20.6	5.0	11.6	0.9	4.0	3.8	3.0	0.1	14.5
	30-99인	19.4	69.6	30.5	22.9	19.1	3.9	8.2	0.9	2.5	3.9	0.9	0.1	9.1
	100-299인	9.8	75.6	24.4	20.1	16.4	3.7	4.1	0.7	1.3	1.6	0.6	0.1	6.3
	300인 이상	12.6	84.2	15.8	14.6	12.9	1.7	1.3	0.4	0.5	0.3	0.1	0.1	3.1
증감	임금노동자	0.0	0.1	-0.1	-0.8	0.7	-1.5	0.2	-0.1	-0.3	-0.2	0.8	0.0	0.5
	1-4인	-0.6	-1.3	1.3	-1.2	-1.6	0.3	0.9	-0.5	-0.9	0.0	2.4	0.1	1.6
	5-9인	-0.5	-0.1	0.1	-1.9	-0.3	-1.6	1.9	0.2	0.2	0.3	1.6	0.0	1.3
	10-29인	0.3	-0.1	0.1	0.4	2.6	-2.2	-0.1	0.1	-0.3	-0.4	0.5	0.1	0.7
	30-99인	0.6	0.2	-0.3	-0.4	1.5	-2.0	-0.9	-0.1	-0.5	-0.4	0.1	-0.1	0.0
	100-299인	0.0	0.7	-0.6	-1.0	1.2	-2.2	0.3	0.1	0.4	-0.3	-0.1	0.0	-0.1
	300인 이상	0.3	0.1	-0.1	-0.5	0.6	-1.1	-0.1	-0.2	-0.1	-0.1	0.1	0.1	0.6

주: 1) 각 근로형태별 근로자 중 해당 규모에 속하는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⑥ 비정규직 고용영향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많고, 규모가 클수록 적다. 1-4인 규모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은 54.8%로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고, 300인 이상 규모의 비정규직 비중은 15.7%이다. 2020년 비정규직 변동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10인 미만 규모에서 많이 감소하였고, 10인 이상 규모에서는 대체로 비정규직이 증가하였다.

사업체 규모별로 비정규직은 1-9인 규모와 100-299인 규모에서 감소하였다. 1-4인 규모에서 비정규직은 199만 8천명(54.8%)으로 2만 5천명(감소율 -1.2%) 감소하였고,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1.3%p 증가하였다. 5-9인 규모에서는 154만 9천명(44.1%)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 6천명(감소율 -3.5%) 감소하여 감소율이 크지만 비정규직 비중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0.1%p 증가하였다. 한편, 100-299인 규모에서는 1만 5천명(감소율 -3.1%)이 감소하였다.

〈표 5-58〉 기업규모별 비정규직 노동자 수 변화

(단위: 천명, %, %p,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8		2020.8		증감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증감률	비중
임금노동자	7,481	36.4	7,426	36.3	-55	-0.7	-0.1
1-4인	2,023	53.5	1,998	54.8	-25	-1.2	1.3
5-9인	1,605	44.0	1,549	44.1	-56	-3.5	0.1
10-29인	1,761	38.4	1,777	38.5	16	0.9	0.1
30-99인	1,186	30.5	1,208	30.2	22	1.9	-0.3
100-299인	485	24.4	470	23.8	-15	-3.1	-0.6
300인 이상	420	15.8	424	15.7	4	1.0	-0.1

주: 1) 비정규직 전체 규모와 구성비는 근로형태별 비정규직(한시적 근로, 시간제, 비전형 근로)의 중복 인원을 제외한 순계로 유형별 규모 및 구성비의 합계와 불일치함.

2) 비전형 근로자 전체 규모 및 구성비는 일부 중복되는 각 유형별 근로자를 제외한 순계로, 각 유형별 근로자 규모 및 비중의 합계와 불일치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반면, 10-99인과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비정규직이 증가하였다. 10-29인 규모에서 비정규직은 177만 7천명(38.5%)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6천명(증가율 0.9%) 증가하였고, 30-99인에서 120만 8천명(30.2%)으로 2만 2천

명(증가율 1.9%)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300인 이상 규모의 비정규직은 42만 4천명(15.7%)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천명(증가율 1.0%) 증가하였다. 2020년 업종 내 비정규직 비중은 30인 이상 규모에서 대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⑦ 고용안정성

사업체 규모별 고용안정성은 규모가 작을수록 낮았다. 사업체 규모와 고용안정성의 관계가 보여주는 특징은 첫째, 고용안정성은 사업체 규모와 비례하여,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안정성이 낮고 규모가 클수록 고용안정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안정성은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 것이다.

〈표 5-59〉 기업규모별 고용안정성있는 근로자 비중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 대비 증감			
						'17	'18	'19	'20
임금노동자	85.4	86.4	86.1	84.5	83.7	1.0	-0.3	-1.6	-0.8
1-4인	75.3	76.9	76.6	73.2	70.6	1.6	-0.3	-3.4	-2.6
5-9인	78.2	79.5	78.9	78.2	77.3	1.3	-0.6	-0.7	-0.9
10-29인	85.8	87.0	85.6	85.0	84.0	1.2	-1.4	-0.6	-1.0
30-99인	91.4	91.7	91.9	89.9	89.9	0.3	0.2	-2.0	0.0
100-299인	93.2	93.5	94.3	92.8	92.0	0.3	0.8	-1.5	-0.8
300인 이상	94.3	95.0	95.0	94.3	93.9	0.7	0.0	-0.7	-0.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19년 대비 2020년 대부분의 규모에서 고용안정성이 떨어졌다. 1-4인 규모의 고용안정성은 70.6%로 전년 동기 대비 2.6%p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300인 이상 규모의 고용안정성은 93.9%로 전년 동기 대비 0.4%p 감소



하였다.

최근 임금노동자 고용안정성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29인 이하 규모의 고용안전성은 3년 연속 계속 감소하고 있다.

## 2. 기업규모별 임금 수준 변화

### 1) 기업규모별 임금 수준

기업규모별 월평균 임금은 300인 이상 규모에서 412만 2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만 6천원(증가율 +7.6%) 상승한 것에 비해, 1-4인 규모는 월평균 임금이 170만 9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원(증가율 +0.6%) 올랐지만 여전히 200만원에 못 미친다. 한편, 규모가 클수록 임금 상승률이 크고, 규모가 작을수록 상승률이 작아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8월 기준,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68만 1천원(증가율 1.4%p)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8천원 인상되었다. 기업규모별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규모별로, 월평균 임금은 300이상 규모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고, 30-99인 규모에서 가장 작게 올랐다. 구체적으로 300인 이상 규모에서 임금노동자의 20년 6~8월 월평균 임금은 412만 2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만 6천원(증가율 7.6%) 올라 가장 크게 상승했고, 유일하게 400만원 이상 었다. 이에 반해 30-99인 규모의 월평균 임금은 289만 5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천원(증가율 0.1%) 오르는데 그쳤다.

한편, 1-4인 규모에서는 월평균 임금이 170만 9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원(증가율 0.6%) 올랐지만 여전히 200만원 미만으로 가장 적다. 한편,

5-9인 규모에서는 220만 2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4천원(증가율 1.6%) 올라 300인 이상 규모 다음으로 증가액과 증가율이 컸지만 300인 이상 규모의 절반 수준이다.

**<표 5-60> 기업규모별 월평균 임금수준 변화(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만원,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19.6-8월 평균	'20.6-8월 평균	증감	증감률
임금노동자	264.3	268.1	3.8	1.4
1-4인	169.9	170.9	1.0	0.6
5-9인	216.8	220.2	3.4	1.6
10-29인	250.8	253.3	2.5	1.0
30-99인	289.3	289.5	0.2	0.1
100-299인	324.8	326.7	1.9	0.6
300인 이상	404.6	412.2	7.6	1.9

주: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8월 기준,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5,627원(증가율 2.3%)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3원 올랐다.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업체 규모별로 임금수준과 인상액에 차이가 있음을 보인다.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시간당 임금이 높고, 인상액이 크며,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시간당 임금이 작다.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역시 300인 이상 규모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300인 이상 규모에서 2020년 6~8월 시간당 임금은 23,43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9원(증가율 2.8%) 올라 가장 큰 액수로 인상되었다. 반면, 100-299인 규모의 시간당 임금은 18,41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원(증가율 0.4%) 올라 인상액이 가장 적었다. 한편, 1-4인 규모에서 시간당 임금은 10,89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0원(증가율 2.1%) 올랐고, 5-9인 규모에서 13,003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3원(증가율 3.4%) 올라 인상률로는 가장 컸다.

〈표 5-61〉 기업규모별 시간당 임금 수준 변화(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원,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19.6-8월 평균	'20.6-8월 평균	증감	증감률
임금노동자	15,274	15,627	353	2.3
1-4인	10,675	10,895	220	2.1
5-9인	12,570	13,003	433	3.4
10-29인	14,471	14,729	258	1.8
30-99인	16,504	16,628	124	0.8
100-299인	18,339	18,415	76	0.4
300인 이상	22,810	23,439	629	2.8

주: 1)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2)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의 사업체 규모 구분은 1-4인, 5-29인, 30-299인, 300인 이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와 규모별 비교는 1-4인 규모와 300인 이상 규모만 가능하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임금은 300이상 규모에서 391만 6천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 8천원(증가율 3.9%) 올랐고, 월평균 임금 수준과 임금 상승률 모두 모든 규모 중에서 가장 크다(〈부표 5-11〉 참조).

반면, 30-299인 규모의 월평균 임금은 292만 7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6천원(증가율 1.2%)로 올라 가장 적게 상승했다. 인상률로는 5-29인 규모에서 271만 5천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 9천원(증가율 4.2%) 올라 가장 인상이 컸다. 한편, 30-299인 규모의 월평균 임금은 300인 이상 규모 보다 약 100만원 가량 적었고, 1-4인 규모와 300인 이상 규모의 월평균 임금의 차이는 약 190만원으로 1-4인 규모에서 약 200만원 가량 더 적었다.

한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의 시간당 임금을 살펴보면, 모든 규모에서 전년 동기 대비 시간당 임금이 하락하였다(〈부표 5-12〉 참조). 2020년 월력상 근로 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0년 시간당 임금 변동은 30-299인 규모에서 17,93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2원(감소율 -7.7%)으로 가장 많이 하락하였고, 1-4인 규모에서 13,84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9원(감소율 -3.9%) 감소하여 가장 적게 하락했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1-4인 규모와 300인 이상 규모의 시간당 임금 차이는 10,422원으로 1-4인 규모에서 시간당 약 1만원 정도 적다.

## 2)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와 저임금 비율

### ① 임금격차

사업체 규모별 상대임금과 이에 따른 임금 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300인 이상(=100) 규모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300인 이상(=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인 규모의 상대임금 수준은 41.5%로 300인 이상 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 2016년 36.1%에서 2017년-19년 각각 39.5%, 40.7%, 42.0%로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 하락으로 돌아섰다.

2020년 8월 기준, 월평균 임금 기준 사업체 규모별 상대임금은 모든 규모에서 더 낮아져 사업체 규모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규모의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30-99인 규모의 상대임금은 70.2%로 전년 동기 대비 1.3%p 하락하여 임금 격차가 가장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1-4인 규모의 월평균 상대임금은 41.5%로 300인 이상(=100)

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이에 더해 전년 동기 대비 0.5%p 감소하여 더 낮아졌다. 최근 추이를 보면, 1-4인 규모의 상대임금은 2016년 36.1%로 40%에도 못 미치다가 2017년-19년 각각 39.5%, 40.7%, 42.0%로 상승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2020년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다.

5-9인 규모에서도 2016년 이후 각각 48.1%, 51.5%, 52.6%, 53.6%, 53.4%로 최근 4개년 간 상대임금이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 감소로 돌아섰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인다.

**〈표 5-62〉 연도별 기업규모별 월 평균 임금 및 격차(300인 이상=100)**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만원, %)

구분	금액					격차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임금노동자	237.2	243.0	255.8	264.3	268.1	-	-	-	-	-
1-4인	138.5	149.8	159.4	169.9	170.9	36.1	39.5	40.7	42.0	41.5
5-9인	184.5	195.2	205.8	216.8	220.2	48.1	51.5	52.6	53.6	53.4
10-29인	227.0	233.9	241.0	250.8	253.3	59.1	61.7	61.6	62.0	61.5
30-99인	264.0	268.1	286.7	289.3	289.5	68.8	70.7	73.3	71.5	70.2
100-299인	299.6	298.4	318.5	324.8	326.7	78.0	78.7	81.4	80.3	79.3
300인 이상	383.9	379.1	391.2	404.6	412.2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300인 이상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각 종사자규모별 상대임금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시간당 임금을 가지고 300인 이상(=100) 규모를 기준으로 한 사업체 규모별 상대임금 격차는 5-9인 규모를 제외한 규모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5-9인 규모에서 시간당 임금 기준 상대임금은 55.5%로 전년 동기 대비 0.4%p 증가하여 격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100-299인 규모에서 시간당 상대임금은 78.6%로 전년 동기 대비 1.8%p 감소하여 격차가 가장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1-4인 규모의 시간당 상대임금은 46.5%로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상대임금(41.5%) 보다 다소 높지만 여전히 300인 이상 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전년 동기 대비 0.3%p 감소하여 가장 적게 감소하였다.

시간당 상대임금 추이를 보면, 5-9인 규모에서는 2016년 이후 각각 47.5%, 51.5%, 53.4%, 55.1%, 55.5%로 300인 이상 규모와 비교한 상대임금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1-4인 규모에서도 2016년 이후 각각 37.6%, 42.2%, 44.0%, 46.8%로 증가하다가 2020년 46.5%로 감소하였다. 한편 10-20인 규모에서는 2016년 이후 각각 57.9%, 61.5%, 62.3%, 63.4%로 증가하다가 2020년 62.8%로 감소하였다.

**〈표 5-63〉 연도별 기업규모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300인 이상=100)**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원, %)

구분	금액					격차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임금노동자	13,486	13,754	14,607	15,274	15,627	-	-	-	-	-
1-4인	8,260	8,991	9,694	10,675	10,895	37.6	42.2	44.0	46.8	46.5
5-9인	10,434	10,976	11,752	12,570	13,003	47.5	51.5	53.4	55.1	55.5
10-29인	12,727	13,106	13,720	14,471	14,729	57.9	61.5	62.3	63.4	62.8
30-99인	14,908	15,135	16,260	16,504	16,628	67.9	71.0	73.9	72.4	70.9
100-299인	16,843	16,676	17,830	18,339	18,415	76.7	78.2	81.0	80.4	78.6
300인 이상	21,968	21,316	22,013	22,810	23,439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2)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3) 300인 이상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각 종사자규모별 상대임금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월평균 임금 기준 상대임금(300인 이상=100)은 5-29인 규모에서 상승하였고, 1-4인 규모와 30-299인 규모에서는 감소하였다. 1-4인 규모의 상대임금은 51.7%로 0.2%p 감소하였고, 30-299인 규모는 74.7%로 2.0%p 감소하여 격차를 확대하는 방향

으로 작용하였다(〈부표 5-13〉 참조).

5-29인 규모에서 상대임금은 69.3%로 전년 동기 대비 0.2%p 증가하여 300인 이상 규모와 임금 격차가 미미하게나마 줄었고, 30-299인 규모에서 상대임금은 74.7%로 전년 동기 대비 2.0%p 감소하여 임금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1-4인 규모에서는 51.7%로 전년 동기 대비 0.2%p 감소하여 미미하지만 격차를 확대한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2020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시간당 임금 기준 상대임금(300인 이상=100)은 1-4인 규모에서 상승하였고, 5-29인과 30-299인 규모에서 감소하였다(〈부표 5-14〉 참조).

1-4인 규모에서 시간당 상대임금은 57.0%로 전년 동기 대비 0.8%p 증가하여 300인 이상 규모와 비교하여 임금격차가 줄었고, 5-29인 규모에서는 상대임금이 70.7%로 전년 동기 대비 0.1%p 감소하였고, 30-299인 규모에서 시간당 상대임금은 73.9%로 전년 동기 대비 2.0%p 감소하여 임금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30-299인 규모는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 기준에서 모두 큰 폭으로 상대임금이 감소하여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다.

## ② 저임금 및 고임금 비율

임금노동자의 각 연도별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저임금(중위임금의 2/3 미만), 중간임금(중위임금의 2/3이상~3/2미만), 고임금(중위임금의 3/2 이상)별 규모와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의 연도별 월평균 중위임금은 ('16년) 200만원, ('17년) 200만원, ('18년) 210만원, ('19년) 230만원, ('20년) 240만원이다.

사업체 규모와 임금 수준별 임금노동자 규모와의 관계는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저임금 노동자가 많고,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고임금 노동자가 많은 것이다. 중간임금 노동자는 5-99인 규모에서 많았고, 사업체 규모가 작거나 클 경우 적었으며, 특히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많이 적었다.

사업체 규모별 임금 수준별(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분포를 보면, 1-4인 규모에서 저임금과 중간임금 노동자는 95.0%이고,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중간임금과 고임금 노동자가 96.1%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저임금 노동자가 많고,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고임금 노동자가 많았다. 특히 1-4인 규모에서 저임금 노동자는 46.5%, 고임금 노동자는 5.0%인데 비해 300인 이상 규모의 저임금 노동자는 3.9%, 고임금 노동자는 53.0%로 규모별 임금격차가 컸다.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저임금 노동자는 1-4인(-5만 3천명), 5-9인(-6만 9천명), 100-299인(-2만 5천명), 300인 이상(-4천명) 규모에서 감소하였고, 10-29인(+3만 명)과 30-99인(+2만 3천명) 규모에서는 증가하였다.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고임금 노동자는 모든 규모에서 감소하였는데, 30-99인(-13만 1천명) 규모에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그다음 10-29인(-10만 1천명), 300인 이상(-8만 7천명), 5-9인(-8만 7천명), 100-299인(-6만 7천명), 1-4인(-2만 9천명) 순으로 1-4인 규모에서 가장 적게 감소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2020년 8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저임금 노동자는 1-9인과 100인 이상 규모에서 감소하였고, 10-99인 규모에서는 증가하였으며, 중간임금 노동자는 1-4인 규모에서만 감소하고 다른 규모에서는 모두 증가하였다. 한편, 고임금 노동자는 모든 규모에서 감소하였는데, 특히, 10-99인 규모에서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1-4인 규모에서 저임금과 중간임금 노동자는 95.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고임금 노동자는 5.0%에 불과하다. 2020년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노



동자 모두 감소하였으며, 고임금 노동자 비중은 감소하고, 저임금과 중간임금 노동자 비중은 더 늘었다. 1-4인 규모의 저임금 노동자는 169만 8천명(46.5%)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 3천명(+0.2%p) 감소하였으나 비중은 증가하였고, 중간임금 노동자는 176만 9천명(48.5%)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 3천명(+0.3%p) 감소하였으나 역시 비중은 증가하였고, 고임금 노동자는 18만 1천명(5.0%)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9천명(-0.6%p) 감소하였다.

5-9인 규모에서 저임금 노동자는 26.7%로 1-4인 규모에 비해 19.8%p 감소해 크게 줄었고, 대신 중간임금 노동자가 15.3%p 늘었다. 이는 5인 미만 규모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조건이 특히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5-9인 규모의 저임금 노동자는 93만 8천명(26.7%)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 9천명(-0.9%p) 감소하였고, 중간임금 노동자는 223만 9천명(63.8%)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명(+3.0%p) 증가하였으며, 고임금 노동자는 33만 5천명(9.5%)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 7천명(-2.1%p) 감소하였다.

10-29인 규모에서 중간임금 노동자는 64.0%로 다른 규모에 비해 가장 많다. 2020년 중간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저임금 노동자 증가가 가장 컸다. 10-29인 규모의 저임금 노동자는 92만 8천명(20.1%)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명(+0.5%p) 증가하여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하였고, 중간임금 노동자는 294만 9천명(64.0%)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 1천명(+1.8%p) 증가하였으며, 고임금 노동자는 73만 4천명(15.9%)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 1천명(-2.3%p) 감소하였다.

30-99인 규모에서는 저임금과 중간임금 노동자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중간임금 노동자가 증가가 컸고, 고임금 노동자가 역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30-99인 규모의 저임금 노동자는 51만 8천명(13.0%)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3천명(+0.3%p) 증가하였고, 중간임금 노동자는 253만 6천명(63.4%)으

로 전년 동기 대비 20만 8천명(+3.6%p) 증가하여 규모로는 가장 크게 늘었다. 한편, 고임금 노동자는 94만 3천명(23.6%)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 1천명(-4.0%p) 감소하여 역시 가장 크게 줄었다.

100-299인 규모에서 저임금 노동자는 10% 미만이고, 고임금 노동자는 30% 이상이다. 100-299인 규모의 저임금 노동자는 15만 2천명(7.7%)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5천명(-1.2%p) 감소하였고, 중간임금 노동자는 121만 5천명(61.4%)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 2천명(+4.4%p) 증가하였으며, 고임금 노동자는 61만 2천명(30.9%)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 7천명(-3.3%p) 감소하였다.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고임금 노동자 비중이 53.0%로 2명 중 1명은 고임금 노동자이고, 중간임금과 고임금 노동자가 96.1%에 달한다. 300인 이상 규모에서 저임금 노동자는 10만 6천명(3.9%)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천명(-0.3%p) 감소하였고, 중간임금 노동자는 116만 5천명(43.1%)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만 2천명(+4.3%p) 증가하였으며, 고임금 노동자는 143만명(53.0%)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 7천명(-4.0%p) 감소하였다.

사업체 규모별 임금 수준별 분포를 보면, 1-4인 규모에서는 저임금과 중간임금 노동자가 95.0%에 이르고,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중간임금과 고임금 노동자가 96.1%에 이른다. 이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상당함을 시사한다. 2020년 저임금 노동자는 1-4인(-5만 3천명), 5-9인(-6만 9천명), 100-299인(-2만 5천명), 300인 이상(-4천명) 규모에서 감소하였고, 10-29인(+3만명)과 30-99인(+2만 3천명) 규모에서 증가하였다. 고임금 노동자는 모든 규모에서 감소하였는데, 30-99인(-13만 1천명) 규모에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그다음 10-29인(-10만 1천명), 300인 이상(-8만 7천명), 5-9인(-8만 7천명), 100-299인(-6만 7천명), 1-4인(-2만 9천명) 규모 순으로 1-4인 규모에서 가장 적게 감소하였다. 한편, 중간임금 노동자는 1-4인(-5만 3천명) 규모에서만 감소하고 다른 모든 규모에서는 증가하였다. 특히, 10-29인(+10

만 1천명), 30-99인(+20만 8천명) 증가하여, 대부분 10-99인 규모에서 증가가 컸다.

〈표 5-64〉 기업규모별 임금 수준별 노동자 규모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천명)

구분	2019			2020			증감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임금노동자	4,438	11,383	4,738	4,339	11,873	4,234	-99	490	-504
1-4인	1,751	1,822	210	1,698	1,769	181	-53	-53	-29
5-9인	1,007	2,219	422	938	2,239	335	-69	20	-87
10-29인	898	2,848	835	928	2,949	734	30	101	-101
30-99인	495	2,328	1,074	518	2,536	943	23	208	-131
100-299인	177	1,133	679	152	1,215	612	-25	82	-67
300인 이상	110	1,033	1,517	106	1,165	1,430	-4	132	-87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위임금의 2/3 수준 이상~3/2 수준 미만, 고임금은 중위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65〉 기업규모별 임금수준별 노동자 비중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 %p)

구분	2019			2020			증감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임금노동자	21.6	55.4	23.0	21.2	58.1	20.7	-0.4	2.7	-2.3
1-4인	46.3	48.2	5.6	46.5	48.5	5.0	0.2	0.3	-0.6
5-9인	27.6	60.8	11.6	26.7	63.8	9.5	-0.9	3.0	-2.1
10-29인	19.6	62.2	18.2	20.1	64.0	15.9	0.5	1.8	-2.3
30-99인	12.7	59.8	27.6	13.0	63.4	23.6	0.3	3.6	-4.0
100-299인	8.9	57.0	34.2	7.7	61.4	30.9	-1.2	4.4	-3.3
300인 이상	4.2	38.8	57.0	3.9	43.1	53.0	-0.3	4.3	-4.0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위임금의 2/3 수준 이상~3/2 수준 미만, 고임금은 중위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의 연도별 시간당 임금의 중위임금은 ('16년) 10,822원, ('17년) 11,513원, ('18년) 11,513원, ('19년) 12,434원, ('20년) 13,034원이다.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 저임금 노동자는 모든 규모에서 증가하였고, 저임금 노동자 증가는 대체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컸다. 특히, 1-4인 규모에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증가하고 중간임금과 고임금 노동자는 감소하였는데, 1-4인 규모는 고임금 노동자가 적기 때문에 중간임금 노동자 감소가 크고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가 큰 것으로 보인다. 중간임금 노동자는 규모가 작을수록 감소가 컸고, 규모가 클수록 증가하였다.

한편, 고임금 노동자는 300인 이상 규모를 제외하고 모든 규모에서 감소하였는데, 특히, 300인 이상 규모에서 저임금과 중간임금 노동자 비중은 증가하였고, 고임금 노동자는 2만 명 증가하였지만 비중은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1-4인 규모의 저임금 노동자는 144만 명(39.5%)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 1명(+3.6%p) 증가하여 증가율이 가장 컸고, 중간임금 노동자는 196만 7천명(53.9%)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만 5천명(-3.5%p) 줄어 감소가 가장 컸으며, 한편, 고임금 노동자는 24만 1천명(6.6%)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2천명(-0.1%p) 감소하였다. 고임금 노동자가 적어 중간임금 노동자 감소가 크고 저임금 노동자 증가가 큰 것으로 보인다.

5-9인 규모의 저임금 노동자는 78만 9천명(22.5%)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6천명(+2.1%p) 증가하였고, 중간임금 노동자는 232만 6천명(66.2%)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만 2천명(-1.7%p) 감소하였고, 고임금 노동자는 39만 6천명(11.3%)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1천명(-0.4%p) 감소하였다.

10-29인 규모의 저임금 노동자는 70만 9천명(15.4%)으로 전년 동기 대비 9만 8천명(+2.0%p) 늘어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하였고, 중간임금 노동자는

306만 9천명(66.6%)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9천명(-1.3%p) 감소하였고, 고임금 노동자는 83만 3천명(18.1%)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8천명(-0.7%p) 감소하였다.

30-99인 규모의 저임금 노동자는 41만 4천명(10.4%)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만 7천명(+1.7%p) 증가하였고, 중간임금 노동자는 251만 4천명(62.9%)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 7천명(-0.2%p) 증가하였지만 비중은 감소하였고, 고임금 노동자는 106만 9천명(26.8%)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3천명(-1.5%p) 감소하였다.

100-299인 규모의 저임금 노동자는 12만 명(6.1%)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천명(+0.2%p) 증가하였고, 중간임금 노동자는 120만 8천명(61.1%)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천명(+0.5%p) 증가하였으며, 고임금 노동자는 65만 명(32.9%)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7천명(-0.6%p) 감소하였다.

300인 이상 규모의 저임금 노동자는 7만 8천명(2.9%)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천명(+0.1%p) 증가하였고, 중간임금 노동자는 108만 8천명(40.3%)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6천명(0.0%p) 증가하였고, 고임금 노동자는 153만 4천명(56.8%)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명(-0.1%p) 증가하였지만 비중은 감소하였다.

1-4인 규모에서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노동자는 각각 39.5%, 53.9%, 6.6%이고, 300인 이상 규모에서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노동자는 각각 2.9%, 40.3%, 56.0%이다. 1-4인 규모는 저임금과 중간임금 노동자가 93.4%에 이르고, 300인 이상 규모는 중간임금과 고임금 노동자가 97.1%에 이른다.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표 5-66〉 기업규모별 임금수준별 노동자 규모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천명)

구분	2019			2020			증감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임금노동자	3,242	12,492	4,824	3,550	12,172	4,723	308	-320	-101
1-4인	1,359	2,172	253	1,440	1,967	241	81	-205	-12
5-9인	743	2,478	427	789	2,326	396	46	-152	-31
10-29인	611	3,108	861	709	3,069	833	98	-39	-28
30-99인	337	2,457	1,102	414	2,514	1,069	77	57	-33
100-299인	117	1,205	667	120	1,208	650	3	3	-17
300인 이상	75	1,072	1,514	78	1,088	1,534	3	16	20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간은 중위임금의 2/3 수준 이상~ 3/2 수준 미만, 고임금은 중위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67〉 기업규모별 임금 수준별 노동자 비중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 %p)

구분	2019			2020			증감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저임금	중간	고임금
임금노동자	15.8	60.8	23.5	17.4	59.5	23.1	1.6	-1.3	-0.4
1-4인	35.9	57.4	6.7	39.5	53.9	6.6	3.6	-3.5	-0.1
5-9인	20.4	67.9	11.7	22.5	66.2	11.3	2.1	-1.7	-0.4
10-29인	13.4	67.9	18.8	15.4	66.6	18.1	2.0	-1.3	-0.7
30-99인	8.7	63.1	28.3	10.4	62.9	26.8	1.7	-0.2	-1.5
100-299인	5.9	60.6	33.5	6.1	61.1	32.9	0.2	0.5	-0.6
300인 이상	2.8	40.3	56.9	2.9	40.3	56.8	0.1	0.0	-0.1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간은 중위임금의 2/3 수준 이상~ 3/2 수준 미만, 고임금은 중위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③ 저임금 규모 및 비율 변화

월평균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는 2017~18년 전년 동기 대비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감소하였고, 2019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모든 규모에서 증가로 돌아섰다. 연도별로 주어진 특징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20년엔 사업체 규모별로 증감의 차이를 보였다.

2020년 저임금 노동자는 10인 미만과 100인 이상 규모에서는 감소하였고, 특히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감소가 컸다. 반면, 10-99인 규모에서는 증가하였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사업체 규모별로 다르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 임금 기준, 2016년 대비 2020년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사업체 규모별로 각각 5.2%p, 4.9%p, 1.8%p, 0.2%p, 1.4%p, 0.0%p 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인 규모에서 5.2%p 감소하여 가장 감소가 컸고,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그간 변동은 있었지만 비중은 2020년과 2016년이 동일했다.

1-4인 규모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는 2016년 183만 7천명(51.7%)으로 50% 이상이었으나 2017년 163만 7천명(45.7%), 2018년 143만 6천명(40.7%)으로 40.7%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9년 175만 1천명(46.3%)으로 증가로 돌아섰고, 2020년에 169만 8천명(46.5%)으로 감소하였지만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0.2%p 증가하였다.

10-29인 규모에서는 2016년 97만 3천명(21.9%), 2017년 82만 7천명(18.2%), 2018년 78만 3천명(17.1%)으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 89만 8천명(19.6%)으로 증가로 돌아섰고, 2020년에 더 증가하여 92만 8천명(20.1%)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전년 동기 대비 3만 명 늘었고,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0.5%p 더 커졌다.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저임금 노동자가 극히 적다. 2016년 9만 5천명

(3.9%)으로 비중이 3.9%였고, 2017년 8만 9천명(3.6%), 2018년 8만 명(3.2%)으로 감소하였다가 2019년 11만 명(4.2%)으로 4.2%로 올랐으나 2020년 10만 6천명(3.9%)으로 다시 3.9%로 떨어졌다.

사업체 규모별로 저임금 노동자 증감률을 보면, 2020년 저임금 노동자는 1-4인 규모에서 전년 동기 대비 5만 3천명(감소율 -3.0%) 감소하였고, 5-9인 규모에서 6만 9천명(감소율 -6.9%) 감소하였으며, 100-299인 규모에서 2만 5천명(감소율 -14.1%)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고,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4천명(감소율 -3.6%) 감소하였다.

반면, 10-29인 규모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3만 명(증가율 3.3%) 증가하였으며, 30-99인 규모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2만 3천명(증가율 4.6%) 증가하였다.

〈표 5-68〉 연도별 기업규모별 저임금 노동자 규모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규모	증감률
임금노동자	4,699	4,093	3,591	4,438	4,339	-99	-2.2
1-4인	1,837	1,637	1,436	1,751	1,698	-53	-3.0
5-9인	1,115	922	832	1,007	938	-69	-6.9
10-29인	973	827	783	898	928	30	3.3
30-99인	500	457	351	495	518	23	4.6
100-299인	180	162	110	177	152	-25	-14.1
300인 이상	95	89	80	110	106	-4	-3.6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69〉 연도별 기업규모별 저임금 노동자 비중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 %p)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23.8	20.5	17.9	21.6	21.2	-0.4
1-4인	51.7	45.7	40.7	46.3	46.5	0.2
5-9인	31.6	26.0	23.5	27.6	26.7	-0.9
10-29인	21.9	18.2	17.1	19.6	20.1	0.5
30-99인	13.2	11.9	9.0	12.7	13.0	0.3
100-299인	9.1	8.0	5.6	8.9	7.7	-1.2
300인 이상	3.9	3.6	3.2	4.2	3.9	-0.3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임금 노동자는 2017~18년에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 증가로 돌아섰고, 2020년 역시 모든 규모에서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는 2017년에 1-29인 규모에서 감소하고, 30인 이상 규모에서는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모든 규모에서 감소하였으며, 2019년에는 10-29인 규모를 제외한 다른 규모에서는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모든 규모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20년 비중을 보면, 사업체 규모별로 각각 11.3%p, 9.5%p, 5.8%p, 1.9%p, 2.6%p, 0.1%p 씩 감소하였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저임금 노동자 감소폭이 컸다.

5-9인 규모의 경우, ('16년) 112만 8천명(32.0%)명으로 32.0%였고, ('17년) 100만 6천명(28.4%), ('18년) 70만 5천명(19.9%)으로 감소했다가 ('19년) 74만 3천명(20.4%)으로 증가하였고, ('20년) 78만 9천명(22.5%)으로 전년 동기 대비 비중이 2.1%p 증가하였다. 30-99인의 규모에서는 ('16년) 46만 8천명(12.3%), ('17년) 47만 1천명(12.3%), ('18년) 28만 9천명(7.4%)으

로 감소했다가('19년) 33만 7천명(8.7%)으로 증가했고, ('20년) 41만 4천명(10.4%)으로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1.7%p 늘었다.

2020년 시간당 임금 기준 저임금(중위임금의 2/3 미만)은 8,689원 미만이다. 1-4인 규모의 시간당 저임금 노동자는 전년 동기 대비 8만 1천명(증가율 6.0%) 증가하였으며, 비중은 1-4인 규모에서 전년 동기 대비 3.6%p 늘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5-9인 규모에서 4만 6천명(증가율 6.2%) 증가하였으며, 10-29인 규모에서 9만 8천명(증가율 16.0%) 증가하였고, 30-99인 규모에서 7만 7천명(증가율 22.8%)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100-299인 규모에서 3천명(증가율 2.6%) 증가하였고, 300인 이상 규모에서 역시 3천명(증가율 4.0%) 증가하였다.

〈표 5-70〉 연도별 기업규모별 저임금 노동자 규모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규모					'19년 대비 증감	
	'16	'17	'18	'19	'20	규모	증감률
임금노동자	4,589	4,282	3,150	3,242	3,550	308	9.5
1-4인	1,807	1,639	1,297	1,359	1,440	81	6.0
5-9인	1,128	1,006	705	743	789	46	6.2
10-29인	942	895	691	611	709	98	16.0
30-99인	468	471	289	337	414	77	22.8
100-299인	172	192	108	117	120	3	2.6
300인 이상	73	78	60	75	78	3	4.0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71〉 연도별 기업규모별 저임금 노동자 비중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 %p)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23.3	21.4	15.7	15.8	17.4	1.6
1-4인	50.8	45.7	36.8	35.9	39.5	3.6
5-9인	32.0	28.4	19.9	20.4	22.5	2.1
10-29인	21.2	19.7	15.1	13.4	15.4	2.0
30-99인	12.3	12.3	7.4	8.7	10.4	1.7
100-299인	8.7	9.5	5.5	5.9	6.1	0.2
300인 이상	3.0	3.2	2.4	2.8	2.9	0.1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④ 고임금 노동자 규모 및 비율 변화

고임금 노동자는 최근 감소하는 추세이다. 월평균 임금 기준, 고임금 노동자는 2017년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는데, 2018년 이후 모든 규모에서 고임금 노동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월평균 고임금 노동자 감소폭이 커서, 사업체 규모별로 2016년~20년에 각각 0.7%p, 3.9%p, 7.5%p, 10.7%p, 12.5%p, 13.9%p 씩 감소하였다(〈부표 5-15〉, 〈부표 5-16〉 참조).

구체적으로 1-4인 규모의 경우, 2016년 이후 2020년 까지 각각 20만 2천명(5.7%), 24만 9천명(7.0%), 18만 3천명(5.2%), 21만 명(5.6%), 18만 1천명(5.0%)으로 2016년에 비해 2020년에 0.7%p 감소하였다.

30-99인 규모에서는 2016년 이후 각각 130만 1천명(34.3%), 138만 7천명(36.0%), 121만 5천명(31.2%), 107만 4천명(27.6%), 94만 3천명

(23.6%)으로 2016년에 비해 2020년 10.7%p 감소하였다.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2016년 이후 각각 163만 5천명(66.9%), 165만 2천명(67.0%), 148만 7천명(58.7%), 151만 7천명(57.0%), 143만 명(53.0%)으로 2016년에 비해 2020년 13.9%p 감소하였다.

2020년 월평균 임금 기준 고임금(중위임금의 3/2 이상)은 360만 원 이상으로 고임금 노동자는 모든 규모에서 감소하였다. 규모로는 30-99인에서 13만 1천명이 감소하여 가장 큰 규모로 감소하였고, 비중으로는 30-99인과 300인 이상 규모에서 각각 4.0%p 씩 감소하여 고임금 노동자 비중 감소가 컸으며, 감소율로는 5-9인 규모에서 -20.6%로 가장 컸다.

사업체 규모별로 2020년 월평균 고임금 노동자 감소율을 보면, 1-4인 규모에서 전년 동기 대비 2만 9천명(감소율 -13.8%) 감소하였고, 5-9인 규모에서 8만 7천명(감소율 -20.6%) 감소하여 감소율이 가장 컸고, 10-29인 규모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10만 1천명(감소율 -12.1%) 감소하였으며, 30-99인 규모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13만 1천명(감소율 -12.2%) 감소하였다. 한편, 100-299인 규모에서 6만 7천명(감소율 -9.9%) 감소하였고,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8만 7천명(감소율 -5.6%) 감소하였다.

한편, 시간당 임금 기준, 고임금 노동자는 월평균 임금과 달리 2017년 모든 규모에서 감소하였고, 2018년에는 모든 규모에서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10인 미만 규모에서만 증가하였고, 이 외의 모든 규모에서는 감소하였다. 2020년 역시 모든 규모에서 감소하였다(〈부표 5-17〉-〈부표 5-18〉 참조). 특히 300인 이상 규모에서 시간당 고임금 노동자는 2019년과 20년에 증가하였지만 고임금 노동자 비중은 2개년 모두 감소하였다.

사업체 규모별로 2016년 대비 2020년 시간당 고임금 노동자 비중을 보면, 1-4인 규모에서만 증가하였고, 이 외의 규모에서는 모두 감소하였다. 구체적

으로 1-4인 규모에서 1.4%p 증가, 5-9인 0.3%p 감소, 10-29인 3.7%p 감소, 30-99인 5.8%p 감소, 100-299인 8.2%p 감소, 300인 이상 규모에서 9.0%p 감소하여, 1-4인 규모를 제외하고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감소폭이 컸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4인 규모의 시간당 임금 고임금 노동자는 2016년 이후 각각 18만 6천명(5.2%), 17만 명(4.7%), 21만 6천명(6.1%), 25만 3천명(6.7%), 24만 1천명(6.6%)으로 매우 낮지만 16년 5.2%에서 20년 6.6%로 5년간 1.4%p 증가하였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16년 대비 2020년 고임금 노동자가 증가한 것으로는 1-4인 규모가 유일했다.

30-99인 규모의 시간당 임금 고임금 노동자는 2016년 이후 각각 123만 5천명(32.6%), 107만 1천명(27.8%), 118만 4천명(30.4%), 110만 2천명(28.3%), 106만 9천명(26.8%)으로 2016년 대비 20년에 5.8%p 감소하였다.

300인 이상 규모의 시간당 임금 고임금 노동자는 2016년 이후 각각 160만 8천명(65.8%), 104만 4천명(56.9%), 145만 8천명(57.5%), 151만 4천명(56.9%), 153만 4천명(56.8%)으로 2016년 65.8%였으나 2020년 56.8%로 9.0%p 감소하였다.

2020년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고임금은 19,551원 이상이다. 시간당 임금 기준 고임금 노동자는 300인 이상을 제외한 규모에서 모두 감소하였으며, 비중은 모든 규모에서 감소하였다. 300인 이상에서는 고임금 노동자가 153만 4천명(56.8%)으로 2만 명(-0.1%p) 증가하였으나 고임금 노동자 비중은 감소하였다.

2020년 시간당 임금 기준 고임금 노동자 변동률을 보면, 1-4인 규모에서 전년 동기 대비 1만 2천명(감소율 -4.7%) 감소하였고, 5-9인 규모에서 3만 1천명(감소율 -7.3%) 감소하여 감소율이 가장 컸으며, 10-29인 규모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2만 8천명(감소율 -3.3%) 감소하였고, 30-99인 규모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3만 3천명(감소율 -3.0%) 감소하였으며, 100-299인 규모에서 1만 7천명(감소율 -2.5%) 감소하였다. 한편,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2만 명(증가율 1.3%) 증가하였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시간당 임금 기준 고임금 노동자 감소율이 컸다.

### 3. 기업규모별 노동실태 변화

#### 1) 취업시간

임금노동자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평소 1주 근로시간으로 계산되었다. 취업 시간은 최근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시간 감소가 컸다. 1-4인 규모(35.8시간)에서 전년 동기 대비 1.2시간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고, 20-99인(40.3시간)과 300인 이상(40.6시간)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3시간씩 감소했다.

임금노동자 전체 2016년 평균 40.9시간에서 2020년 39.1시간으로 5개년 동안 약 1.8시간 가량 감소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4인 규모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2016년 이후 각각 39.0시간, 38.6시간, 38.1시간, 37.0시간, 35.8시간으로 40시간 미만이며 꾸준히 감소하여 2016년 대비 3.2시간 감소하였다. 100-299인 규모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2016년 이후 각각 41.9시간, 42.4시간, 41.8시간, 41.5시간, 41.2시간으로 2016년 대비 20년 0.7시간 감소했다. 300인 이상 규모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2016년 이후 각각 41.0시간, 41.3시간, 41.3시간, 41.1시간, 40.6시간으로 2016년 대비 2020년 0.4시간 감소했다.

사업체 규모별 특징을 보면, 첫째, 규모가 작을수록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짧고, 규모가 클수록 길다. 2020년 1-4인 규모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5.8 시간이고, 주당 노동시간이 가장 긴 100-299인 규모에서는 평균 41.2 시간으로 1-4인 규모와 비교하면 100-299인 규모에서 약 5.4시간 길다. 한편,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평균 40.6시간으로 300인 이상 규모에서 1-4인 규모보다 약 4.8시간 많다. 둘째, 주당 평균 노동시간 감소는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감소가 크고, 규모가 클수록 작았다. 1-4인 규모에서 2016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0.0시간이고, 2020년 35.8 시간으로 5년 사이 3.2시간 감소했고, 300인 이상 규모에서 2016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1.0으로 2020년 40.6 시간에 비해 약 0.4시간 감소했다. 셋째, 2020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모든 규모에서 감소했는데, 1-4인 규모에서 35.8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시간 감소해 가장 크게 감소했고, 20-99인(40.3시간) 규모와 300인 이상(40.6시간) 규모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3시간씩 감소해 가장 적게 감소했다. 2020년 역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시간 감소가 컸다.

〈표 5-72〉 연도별 기업규모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변화

(단위: 시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40.9	40.9	40.4	39.8	39.1	-0.7
1-4인	39.0	38.6	38.1	37.0	35.8	-1.2
5-9인	41.4	41.3	40.5	39.7	38.8	-0.9
10-29인	41.4	41.3	40.6	39.9	39.0	-0.9
30-99인	41.3	41.3	41.0	40.6	40.3	-0.3
100-299인	41.9	42.4	41.8	41.5	41.2	-0.3
300인 이상	41.0	41.3	41.3	41.1	40.6	-0.5

주: 1) 주된 직장(업)의 평소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사업체 규모별 주당 평균노동시간별 노동자 규모와 분포를 살펴보았다. 2020년 8월 기준, 사업체 규모별 노동시간별 분포의 특징은 대부분의 규모에서 36-40시간대가 가장 많고,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36-40시간대는 적고 35시간 이하와 41시간 이상이 많았다. 즉, 1-4인 규모에서 36-40시간은 125만 3천명(34.4%)으로 3명 중 1명이고, 35시간 이하 노동자는 134만 8천명(37.0%)으로 이보다 더 많으며, 41시간 이상은 104만 7천명(28.7%)이다. 이에 비해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36-40시간 노동자가 214만 1천명(79.3%)으로 대부분 36-40시간대에 집중되어 있고, 35시간 이하는 11만 3천명(4.2%)으로 적고, 41시간 이상은 44만 7천명(16.4%)이다.

사업체 규모별로 1-4인 규모에서 40시간 이하 노동자는 감소하고, 41시간 이상 노동자는 증가하였는데, 이중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40만 명(11.0%)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9천명(+1.5%p) 증가하였고, 15-35시간 노동자는 94만 8천명(26.0%)으로 9천명(+1.2%p) 증가하였으며, 36-40시간 노동자는 125만 3천명(34.4%)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천명(+1.3%p) 증가하였다. 반면 41-44시간, 45-48시간, 49-52시간, 52시간 초과는 각각 7천명(-0.1%p), 6만 9천명(-1.4%p), 4만 6천명(-1.0%p), 6만 3천명(-1.3%p) 감소하여 41시간 이상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다.

한편, 5-9인 규모에서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21만 4천명(6.1%)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명(0.0%p) 감소했는데, 2020년 15시간 미만 노동자가 감소한 것으로는 5-9인 규모에서 유일했지만 다른 노동시간대 감소도 커서 비중의 변화는 없었다.

30-99인 규모에서는 36-40시간대 증가가 컸다. 30-99인 규모의 36-40시간 노동자는 271만 2천명(67.9%)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 9천명(+2.1%p) 증가하였는데, 모든 규모 중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300인 이상 규모 역시 36-40시간 증가가 많았고, 45-52시간 초과는 감소했다. 36-40시간 노동자는 214만 1천명(79.3%)으로 전년 동기 대비 9만 2천명(+2.3%p) 증가했고, 45-48시간, 49-52시간, 52초과는 각각 4천명(-0.3%p) 감소, 5만 8천명(-2.3%p) 감소, 1만 8천명(-0.7%p) 감소하여 36-40시간대로 더욱 집중되고 있다.

〈표 5-73〉 기업규모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별 노동자 규모

(단위: 천명)

구분	2019.8							2020.8						
	15 미만	15-35	36-40	41-44	45-48	49-52	52 초과	15 미만	15-35	36-40	41-44	45-48	49-52	52 초과
임금노동자	932	2,422	11,497	438	2,313	1,542	1,414	992	2,569	11,849	410	2,157	1,324	1,145
1-4인	361	939	1,252	106	437	279	410	400	948	1,253	99	368	233	347
5-9인	224	510	1,716	98	457	285	359	214	564	1,731	68	410	229	296
10-29인	203	501	2,601	94	549	333	300	218	558	2,689	104	534	290	218
30-99인	91	298	2,563	71	414	270	190	97	305	2,712	64	394	255	169
100-299인	25	113	1,317	33	230	173	98	29	116	1,322	35	229	172	76
300인 이상	29	61	2,049	37	227	202	57	35	78	2,141	41	223	144	39

주: 1) 주된 직장(일)의 평소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74〉 기업규모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분포

(단위: %)

구분	2019.8							2020.8						
	15 미만	15-35	36-40	41-44	45-48	49-52	52 초과	15 미만	15-35	36-40	41-44	45-48	49-52	52 초과
임금노동자	4.5	11.8	55.9	2.1	11.3	7.5	6.9	4.9	12.6	58.0	2.0	10.6	6.5	5.6
1-4인	9.5	24.8	33.1	2.8	11.5	7.4	10.8	11.0	26.0	34.4	2.7	10.1	6.4	9.5
5-9인	6.1	14.0	47.1	2.7	12.5	7.8	9.8	6.1	16.1	49.3	1.9	11.7	6.5	8.4
10-29인	4.4	10.9	56.8	2.1	12.0	7.3	6.6	4.7	12.1	58.3	2.3	11.6	6.3	4.7
30-99인	2.3	7.6	65.8	1.8	10.6	6.9	4.9	2.4	7.6	67.9	1.6	9.9	6.4	4.2
100-299인	1.3	5.7	66.2	1.7	11.6	8.7	4.9	1.5	5.9	66.8	1.8	11.6	8.7	3.8
300인 이상	1.1	2.3	77.0	1.4	8.5	7.6	2.1	1.3	2.9	79.3	1.5	8.2	5.3	1.4

주: 1) 주된 직장(일)의 평소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75〉 기업규모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별 노동자 규모 및 분포 변화  
(2019년 대비 증감)

(단위: 천명, %p)

구분	2019.8 대비 규모 증감							2019.8 대비 분포 증감						
	15 미만	15- 35	36- 40	41- 44	45- 48	49- 52	52 초과	15 미만	15- 35	36- 40	41- 44	45- 48	49- 52	52 초과
임금노동자	60	147	352	-28	-156	-218	-269	0.4	0.8	2.1	-0.1	-0.7	-1.0	-1.3
1-4인	39	9	1	-7	-69	-46	-63	1.5	1.2	1.3	-0.1	-1.4	-1.0	-1.3
5-9인	-10	54	15	-30	-47	-56	-63	0.0	2.1	2.2	-0.8	-0.8	-1.3	-1.4
10-29인	15	57	88	10	-15	-43	-82	0.3	1.2	1.5	0.2	-0.4	-1.0	-1.9
30-99인	6	7	149	-7	-20	-15	-21	0.1	0.0	2.1	-0.2	-0.7	-0.5	-0.7
100-299인	4	3	5	2	-1	-1	-22	0.2	0.2	0.6	0.1	0.0	0.0	-1.1
300인 이상	6	17	92	4	-4	-58	-18	0.2	0.6	2.3	0.1	-0.3	-2.3	-0.7

주: 1) 주된 직장(일)의 평소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0년 사업체 규모별 노동시간별 노동자 분포에서 나타난 특징은 첫째, 대부분 규모에서 40시간 이하 노동자는 증가하였고, 41시간 이상 노동자는 감소하였다. 특히, 1-99인 규모에서 40시간 이하는 증가하고 41시간 이상은 감소하였고, 100인 이상 규모에서는 44시간 이하는 증가하고 45시간 이상은 감소하여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업체 규모가 작고 노동시간이 짧은 노동자는 증가했고, 반대로 사업체 규모가 작고 노동시간이 긴 노동자는 감소했다. 대체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시간 분포가 넓게 퍼져 있었던 관계로 사업체 규모가 작으면서 노동시간이 짧았던 노동자의 증가가 컸고, 사업체 규모가 작고 노동시간이 길었던 노동자의 감소 역시 컸다. 이는 2020년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자 변동이 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셋째, 사업체 규모별로 봤을 때, 100-299인 규모에서 변동이 가장 미미했다.

## 2) 근속기간

2020년 8월 기준, 임금노동자의 현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6년이고, 중위값은 2.6년이다. 사업체 규모별 평균 근속기간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길었다. 1-4인 규모의 평균 근속은 3.2년이고, 300인 이상 규모의 평균 근속은 10.6년으로 1-4인 규모에 비해 약 3배가량 길었다. 1-4인 규모의 1년 미만 근속자는 49.1%로 2명 중 1명이 근속 1년 미만이고, 1-2년 미만 근속자는 48만 7천명(13.4%)으로 11만 1천명(-2.4%p) 감소해 가장 큰 비중으로 감소했다. 중위값은 1-4인 규모에서 1년이고, 300인 이상 규모에서 8년으로 역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중위값도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별 근속년수는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단기 근속자가 많고,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장기 근속자가 많았다. 근속년수 분포를 보면, 1-29인 규모의 경우, 6개월 미만 근속자 비중이 가장 크고,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10년 이상 근속자 비중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6개월 미만 근속자 비중은 1-4인, 5-9인, 10-29인 규모의 경우, 각각 35.4%, 28.6%, 19.8%로 각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으며, 10년 이상 근속자는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규모에서 각각 27.1%, 29.0%, 43.1%로 가장 많았다.

사업체 규모별로 1-4인 규모에서 6개월 미만 근속자는 129만 3천명(35.4%)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2천명(+0.1%p) 감소했지만 6개월 미만 근속자 비중은 증가했고, 6개월-1년 미만 근속자는 50만 명(13.7%)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1천명(+1.6%p) 증가하였다. 1-4인 규모에서 1년 미만 근속자는 49.1%로 2명 중 1명이 근속 1년 미만 노동자이다. 한편, 1-2년 미만 근속자는 48만 7천명(13.4%)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 1천명(-2.4%p) 감소해 가장 큰 비중으로 감소했고, 2-3년 미만 근속자는 33만 5천명(9.2%)으로 전

년 동기 대비 3만 5천명(+1.3%p) 증가했으며, 3-5년 미만 근속자는 31만 6천명(8.7%)으로 4만 1천명(-0.7%p) 감소하였고, 5-10년 미만 근속자는 35만 2천명(9.7%)으로 3만 8천명(-0.6%p) 감소하였고, 10년 이상 근속자는 36만 5천명(10.0%)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명(+0.9%p) 증가하였다. 1-4인 규모에서 근속년수별 변동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표 5-76〉 기업규모별 평균 근속년수별 노동자 규모 변화

(단위: 천명)

구분	임금노동자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이상	
'20.08	6개월 미만	4,198	1,293	1,003	912	549	232	210
	6개월- 1년 미만	2,176	500	447	554	380	156	140
	1- 2년 미만	2,592	487	522	634	478	233	238
	2-3년 미만	1,808	335	313	439	351	171	200
	3-5년 미만	2,229	316	409	532	484	245	243
	5-10년 미만	2,994	352	373	721	674	368	506
	10년 이상	4,449	365	444	820	1,081	574	1,164
'19.08	6개월 미만	4,536	1,335	1,128	1,009	593	247	225
	6개월- 1년 미만	2,092	459	436	525	354	177	142
	1- 2년 미만	2,661	598	511	630	480	214	226
	2-3년 미만	1,685	300	344	424	331	147	138
	3-5년 미만	2,250	357	400	564	437	235	257
	5-10년 미만	3,069	390	432	673	677	377	520
	10년 이상	4,266	345	397	755	1,024	593	1,153
증감	6개월 미만	-338	-42	-125	-97	-44	-15	-15
	6개월- 1년 미만	84	41	11	29	26	-21	-2
	1- 2년 미만	-69	-111	11	4	-2	19	12
	2-3년 미만	123	35	-31	15	20	24	62
	3-5년 미만	-21	-41	9	-32	47	10	-14
	5-10년 미만	-75	-38	-59	48	-3	-9	-14
	10년 이상	183	20	47	65	57	-19	11

주: 1) 주된 직장(일)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77〉 기업규모별 근속년수 평균값과 계층별 분포 변화

(단위: 년, %)

구분		임금노동자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이상	
'20.08	근속년수	평균값	6.0	3.2	3.8	5.3	7.2	7.9	10.6
		중위값	2.6	1.0	1.5	2.4	3.8	4.5	8.0
	분포	6개월 미만	20.5	35.4	28.6	19.8	13.8	11.7	7.8
		6개월-1년 미만	10.6	13.7	12.7	12.0	9.5	7.9	5.2
		1-2년 미만	12.7	13.4	14.9	13.8	12.0	11.8	8.8
		2-3년 미만	8.8	9.2	8.9	9.5	8.8	8.6	7.4
		3-5년 미만	10.9	8.7	11.7	11.5	12.1	12.4	9.0
5-10년 미만	14.7	9.7	10.6	15.6	16.9	18.6	18.7		
10년 이상	21.8	10.0	12.7	17.8	27.1	29.0	43.1		
'19.08	근속년수	평균값	5.9	3.2	3.7	5.0	7.1	8.0	10.8
		중위값	2.5	1.1	1.4	2.3	3.6	4.6	8.3
	분포	6개월 미만	22.1	35.3	30.9	22.0	15.2	12.4	8.4
		6개월-1년 미만	10.2	12.1	11.9	11.5	9.1	8.9	5.3
		1-2년 미만	12.9	15.8	14.0	13.8	12.3	10.8	8.5
		2-3년 미만	8.2	7.9	9.4	9.3	8.5	7.4	5.2
		3-5년 미만	10.9	9.4	11.0	12.3	11.2	11.8	9.7
5-10년 미만	14.9	10.3	11.8	14.7	17.4	18.9	19.5		
10년 이상	20.8	9.1	10.9	16.5	26.3	29.8	43.3		
증감	분포	6개월 미만	-1.6	0.1	-2.3	-2.2	-1.4	-0.7	-0.6
		6개월-1년 미만	0.4	1.6	0.8	0.5	0.4	-1.0	-0.1
		1-2년 미만	-0.2	-2.4	0.9	0.0	-0.3	1.0	0.3
		2-3년 미만	0.6	1.3	-0.5	0.2	0.3	1.2	2.2
		3-5년 미만	0.0	-0.7	0.7	-0.8	0.9	0.6	-0.7
		5-10년 미만	-0.2	-0.6	-1.2	0.9	-0.5	-0.3	-0.8
		10년 이상	1.0	0.9	1.8	1.3	0.8	-0.8	-0.2

주: 1) 주된 직장(일)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한편, 5-9인 규모에서 6개월 미만 근속자는 100만 3천명(28.6%)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만 5천명(-2.3%p) 감소해 모든 근속년수별 규모별을 포함해 가장 큰 규모로 감소하였다.

300인 이상 규모에서 6개월 미만 근속자는 21만 명(7.8%)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5천명(-0.6%p) 감소했고, 6개월-1년 미만 근속자는 14만 명(5.2%)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천명(-0.1%p) 감소하였다. 한편, 1-2년 미만 근속자는 23만 8천명(8.8%)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2천명(+0.3%p) 증가했고, 2-3년 미만 근속자는 20만 명(7.4%)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 2천명(+2.2%p) 증가했으며, 3-5년 미만 근속자는 24만 3천명(9.0%)으로 1만 4천명(-0.7%p) 감소하였고, 5-10년 미만 근속자는 50만 6천명(18.7%)으로 1만 4천명(-0.8%p) 감소하였으며, 10년 이상 근속자는 116만 4천명(43.1%)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1천명(-0.2%p) 증가했지만 비중은 감소하였다. 주로 1년 미만과 3년 이상 근속자는 감소하고 1-3년 미만 근속자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8월 기준, 6개월 미만 근속자는 모든 규모에서 감소하였는데, 특히, 5-9인 규모에서 가장 감소가 컸고, 대체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감소가 많았다. 1-4인 규모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4만 2천명(+0.1%p) 감소했으나 비중은 증가했고, 5-9인 규모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12만 5천명(-2.3%p)이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다. 이 외에 10-29인 규모에서 9만 7천명(-2.2%p), 30-99인 규모에서 4만 4천명(-1.4%p), 100-299인 규모에서 1만 5천명(-0.7%p), 300인 이상 규모에서 1만 5천명(-0.6%p) 씩 감소했다. 한편, 6개월-1년 미만 근속자는 1-99인 규모에서는 증가하고, 100인 이상 규모에서 감소하였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단기 근속자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1년 미만 근속자 비중은 사업체 규모별로 각각 49.1%, 41.3%, 31.8%, 23.3%, 19.6%, 13.0%로 나타나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1년 미만 근속자가 많았다. 이와 달리 5년 이상 근속자는 사업체 규모별로 각각 19.7%, 23.3%, 33.4%, 44.0%, 47.6%, 61.8%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5년 이상 근속자가 증가했고, 10년 이상 근속자 역시 사업체 규모별로 각각

9.1%, 10.9%, 16.5%, 26.3%, 29.8%, 43.3%로 300인 이상 규모에서 가장 많았다.

### 3) 비자발적 취업

비자발적 취업은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분야가 아니거나,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아닌 경우, 또는 경력을 쌓은 후 다른 직장으로 이동을 위해, 육아 및 가사, 취업준비 등과 병행하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취업하고 있는 경우이다.

비자발적 취업자는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많고, 규모가 클수록 적었다. 2020년 8월 기준, 1-4인 규모의 비자발적 취업자는 41.2%이고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6.7%로 1-4인 규모에서 300인 이상 규모에 비해 34.5%p 많았으며, 1-4인 규모 취업자의 약 절반 가까이가 비자발적 취업자이다. 2020년 비자발적 취업자는 모든 규모에서 감소했으나 특히,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자발적 취업자의 감소가 컸다.

사업체 규모별로, 1-4인 규모에서 비자발적 취업자는 150만 3천명(41.2%)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 5천명(감소율 -8.2%) 감소하여, 감소 규모로는 가장 컸다. 5-9인 규모의 비자발적 취업자는 113만 1천명(32.2%)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 9천명(감소율 -8.8%) 감소했고, 30-99인 규모에서 비자발적 취업자는 70만 8천명(17.7%)으로 전년 동기 대비 9만 명(감소율 -11.3%) 감소하여 감소율이 가장 컸다. 한편, 300인 이상에서 비자발적 취업자는 18만 1천명(6.7%)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7천명(-0.7%p) 감소했으며, 감소율은 8.6%였다.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비자발적 취업자 수 감소는 줄었다.

〈표 5-78〉 기업규모별 비자발적 취업자 규모 및 비중 변화

(단위: 천명, %, %p,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8		2020.8		증감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증감률	비중
임금노동자	5,500	26.8	5,027	24.6	-473	-8.6	-2.2
1-4인	1,638	43.3	1,503	41.2	-135	-8.2	-2.1
5-9인	1,240	34.0	1,131	32.2	-109	-8.8	-1.8
10-29인	1,299	28.4	1,206	26.2	-93	-7.2	-2.2
30-99인	798	20.5	708	17.7	-90	-11.3	-2.8
100-299인	327	16.4	298	15.1	-29	-8.9	-1.3
300인 이상	198	7.4	181	6.7	-17	-8.6	-0.7

주: 1) 비자발적 사유는 주된 취업 사유가 ③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④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혹은 ⑤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인 경우가거나, 주된 취업 사유가 ⑥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⑦ 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⑧ 학업·학원수강·직업훈련·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⑨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⑩ 근무시간을 신중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⑪ 그 외 기타 사유인 응답자 중 취업동기가 비자발적이라고 응답한 경우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4. 기업규모별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 변화

##### 1) 사회보험 가입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을 통한 가입자를 집계한 것이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사업체 규모별로 차이가 컸다. 각 규모별 사회보험 수혜율은 1-4인 규모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이 각각 37.9%, 44.1%, 41.1%로 모든 사회보험 가입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반면, 300인 이상 규모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률은 각각 94.3%, 96.5%이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78.3%로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20년 임금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5-9인과 30-99인 규모를 제외하고 다른 규모에서 모두 하락했고, 건강보험 가입률은 200-299인 규모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으며, 고용보험 가입률은 모든 규모에서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1-4인 규모에서 국민연금 가입률은 37.9%로 전년 동기 대비 0.2%p 하락했고, 건강보험 가입률은 44.1%로 0.9%p 상승했으며, 고용보험 가입률은 41.1%로 1.1%p 상승했다. 1-4인 규모에서 국민연금 가입률은 하락했지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상승했다.

5-9인 규모에서 국민연금 가입률은 60.4%로 전년 동기 대비 1.2%p 상승했으며, 건강보험 가입률은 68.8%로 2.1%p 상승했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65.4%로 3.0%p 상승했다. 모든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승했으며, 상승폭에 있어서도 모든 규모를 통틀어 가장 컸다. 30-99인 규모에서도 모든 사회보험 가입률이 증가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2%p, 0.6%p, 1.3%p 상승했다.

한편, 100-299인 규모에서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87.4%로 전년 동기 대비 1.0%p 하락했고, 건강보험 가입률은 93.4%로 전년 동기 대비 0.4%p 하락했으며, 고용보험 가입률은 81.5%로 1.1%p 상승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하락하고 고용보험 가입률만 상승했다.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94.3%로 전년 동기 대비 0.1%p 하락했고, 건강보험 가입률은 96.5%로 전년 동기 대비 0.2%p 상승했으며, 고용보험 가입률은 78.3%로 0.5%p 상승했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하락하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상승했으나 감소폭과 증가폭은 가장 낮았다.

〈표 5-79〉 기업규모별 사회보험 가입률 변화

(단위: %, %p,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 8			2020.8			증감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임금노동자	69.5	75.7	65.8	69.8	76.7	67.5	0.3	1.0	1.7
1-4인	38.1	43.2	40.0	37.9	44.1	41.1	-0.2	0.9	1.1
5-9인	59.2	66.7	62.4	60.4	68.8	65.4	1.2	2.1	3.0
10-29인	71.2	79.1	71.8	70.5	79.4	73.0	-0.7	0.3	1.2
30-99인	80.8	88.3	71.4	81.0	88.9	72.7	0.2	0.6	1.3
100-299인	88.4	93.8	80.4	87.4	93.4	81.5	-1.0	-0.4	1.1
300인 이상	94.4	96.3	77.8	94.3	96.5	78.3	-0.1	0.2	0.5

주: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지역가입자, 의료수급권자 및 직장가입피부양자는 제외)

2) 국민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포함

3) 고용보험의 경우 통계청은 2010년부터 특수 직역연금 대상(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률을 발표하고 있어 수치의 차이가 존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2) 근로복지 수혜율

사업체 규모별 임금노동자의 근로복지(퇴직급여, 시간외 수당, 유급휴일, 상여금, 교육훈련 경험) 수혜율을 살펴보았다. 사업체 규모별 근로복지 수혜율은 규모가 작을수록 낮고, 규모가 클수록 높아 300인 이상 규모에서 시간외수당을 제외하면 모두 90% 이상으로 높다. 특히, 교육훈련 수혜율은 99.1%로 매우 높으며,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모든 항목에서 증가했다. 반면, 1-4인 규모에서는 근로복지 수혜율도 낮고 20년 모든 항목의 근로복지 수혜율이 하락하여 사업체 규모에 따른 근로복지 수혜율의 차이가 컸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4인 규모에서 퇴직급여 수혜률은 41.0%로 전년 동기 대비 2.1%p 하락하였고, 시간외 수당 수혜율은 18.5%로 전년 동기 대비 1.0%p 하락하였으며, 유급휴일 수혜율은 28.4%로 0.1%p 하락하였고,

상여금 수혜율은 42.5%로 2.0%p 하락하였으며, 교육훈련 경험 수혜율은 20.6%로 2.4%p 하락하였다. 2020년 모든 항목의 근로복지 혜택이 감소하였다.

반면,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퇴직급여 94.8%(+0.4%p), 시간외 수당 80.9%(+2.9%p), 유급휴일 93.6%(+0.8%p), 상여금 90.3%(+0.8%p), 교육훈련 경험 99.1%(+0.7%p) 등 모든 항목의 근로복지 수혜율이 증가했다.

〈표 5-80〉 기업규모별 근로복지 수혜율 변화

(단위: %, %p,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 8					2020. 8					증감				
	퇴직 급여	시간외 수당	유급 휴일 (휴가)	상여금	교육 훈련 경험	퇴직 급여	시간외 수당	유급 휴일 (휴가)	상여금	교육 훈련 경험	퇴직 급여	시간외 수당	유급 휴일 (휴가)	상여금	교육 훈련 경험
임금노동자	74.0	48.2	62.9	68.8	53.9	73.2	50.0	64.6	68.8	52.2	-0.8	1.8	1.7	0.0	-1.7
1-4인	43.1	19.7	28.5	44.5	23.0	41.0	18.5	28.4	42.5	20.6	-2.1	-1.0	-0.1	-2.0	-2.4
5-9인	65.0	30.0	48.5	59.6	34.9	64.1	35.9	51.5	60.4	33.3	-0.9	5.9	3.0	0.8	-1.6
10-29인	76.6	47.5	63.3	69.3	50.1	75.2	47.8	65.3	69.8	47.1	-1.4	0.3	2.0	0.5	-3.0
30-99인	86.2	61.7	77.3	78.9	65.0	85.6	62.6	78.4	77.7	63.2	-0.6	0.9	1.1	-1.2	-1.8
100-299인	91.7	71.0	85.9	83.7	74.8	89.9	70.3	86.1	82.6	69.2	-1.8	-1.0	0.2	-1.1	-5.6
300인 이상	94.4	78.0	92.8	89.5	98.4	94.8	80.9	93.6	90.3	99.1	0.4	2.9	0.8	0.8	0.7

주: 1) 퇴직급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2) 시간외 수당은 수당의 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시간외 수당은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체에만 적용됨.(?)

3) 유급휴일(휴가)는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산전후휴가) 중 한 개 이상 수혜 대상인 경우. 유급휴가는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체에만 적용됨.

4)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법정임금은 아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한편, 5-9인 규모에서는 퇴직급여 64.1%(-0.9%p)와 교육훈련 경험 33.3%(-1.6%p) 수혜율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고, 시간외 수당 35.9%(+5.9%p), 유급휴일 51.5%(+3.0%p), 상여금 60.4%(+0.8%p) 수혜율은 하락하였다. 100-299인 규모에서는 유급휴일 86.1%(+0.2%p)만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고, 퇴직급여 89.9%(-1.8%p), 시간외 수당 70.3%(-1.0%p),

상여금 82.6%(-1.1%p), 교육훈련 경험 69.2%(-5.6%p) 수혜율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하락하였다.

항목별로 보면, 퇴직급여와 교육훈련 경험 수혜율은 300인 이상 규모를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하락하였고, 유급휴일(휴가) 수혜율은 1-4인 규모에서만 하락하고 이외 다른 규모에서는 모두 상승하였다. 이외에 시간외 수당, 상여금 수혜율은 5-29인 규모를 중심으로 상승하였다.

## 5. 기업규모별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와 조직률 변화

2020년 8월 임금노동자 중 노동조합 가입자는 251만 3천명(12.3%)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7천명 감소하였고,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년 동기 대비 변화가 없었다. 사업체 규모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대체적으로 규모가 클수록 높았지만, 노조 없음 비율은 1-4인 규모에서 96.5% 매우 높고, 노조 미가입(0.4%), 노조가입(0.9%) 비율은 매우 낮았다.

2020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0-29인 규모를 제외하고 전년 동기 대비 대부분 규모에서 하락하였다. 1-4인 규모에서 조합원수(조직률)은 3만 1천명(0.9%)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6천명(-0.4%p) 하락하였고, 5-9인 규모에서 조합원수는 7만 8천명(2.2%)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명(-0.2%p) 감소하였고, 30-99인 규모에서 64만 3천명(16.1%)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5천명(-0.8%p) 감소하였으며, 100-299인 규모에서는 48만 4천명(24.5%)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명(-0.8%p) 감소했다.

반면, 10-29인 규모의 조합원 수는 37만 2천명(8.1%)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1천명 증가하여 노동조합 조직률이 0.7%p 상승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상승한 유일한 규모였다. 이외에, 300인 이상 규모에서 조합원 수는 90만 4

천명(33.5%)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1천명 증가하였지만 조직률은 변동 없었다.

〈표 5-81〉 기업규모별 노동조합 조합원 수 변화

(단위: 명)

규모	2019. 8.				2020. 8.				증감			
	노조 있음			노조 없음	노조 있음			노조 없음	노조 있음			노조 없음
	가입	미가입	가입 대상 아님		가입	미가입	가입 대상 아님		가입	미가입	가입 대상 아님	
임금노동자	2,530	1,238	1,475	15,316	2,513	1,368	1,454	15,111	-17	130	-21	-205
1-4인	47	20	71	3,645	31	14	82	3,521	-16	-6	11	-124
5-9인	88	42	93	3,425	78	57	93	3,283	-10	15	0	-142
10-29인	341	153	249	3,838	372	167	252	3,821	31	14	3	-17
30-99인	658	417	299	2,522	643	438	298	2,617	-15	21	-1	95
100-299인	504	204	251	1,031	484	194	230	1,070	-20	-10	-21	39
300인 이상	893	402	511	855	904	498	499	799	11	96	-12	-5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82〉 기업규모별 노동조합 가입률 변화

(단위: %)

규모	2019. 8.				2020. 8.				증감			
	노조 있음			노조 없음	노조 있음			노조 없음	노조 있음			노조 없음
	가입	미가입	가입 대상 아님		가입	미가입	가입 대상 아님		가입	미가입	가입 대상 아님	
임금노동자	12.3	6.0	7.2	74.5	12.3	6.7	7.1	73.9	0.0	0.7	-0.1	-0.6
1-4인	1.3	0.5	1.9	96.3	0.9	0.4	2.3	96.5	-0.4	-0.1	0.4	0.2
5-9인	2.4	1.2	2.6	93.9	2.2	1.6	2.6	93.5	-0.2	0.4	0.0	-0.4
10-29인	7.4	3.3	5.4	83.8	8.1	3.6	5.5	82.9	0.7	0.3	0.1	-0.9
30-99인	16.9	10.7	7.7	64.7	16.1	11.0	7.5	65.5	-0.8	0.3	-0.2	0.8
100-299인	25.3	10.2	12.6	51.8	24.5	9.8	11.6	54.1	-0.8	-0.4	-1.0	2.3
300인 이상	33.5	15.1	19.2	32.1	33.5	18.4	18.5	29.6	0.0	3.3	-0.7	-2.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제4절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코로나19 위기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그 어느 때의 위기와 사뭇 다른 양상이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감염병이 가져온 위기라는 점에서 그동안 경험했던 경제 위기와는 다소 차이점이 있다. 감염병 방역을 위해 각국이 이동제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경제가 봉쇄(lockdown)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과정에서 외식, 여가, 오락, 여행, 교육 등 대인대면 서비스업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는 업종의 노동수요가 크게 감소하였고, 이들 업종의 특성상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체라는 측면에서 코로나19 위기는 대면 서비스업의 영세 중소기업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코로나19 위기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발생했던 외환위기와 한국 경제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회적 재난이나 경제적 위기를 거치고 나면 그 후유증은 취약계층에게 더욱 크게 남는다. 최근 두 차례의 위기를 거치면서 취약계층 범위는 더욱 두터워졌고, 양극화가 강화되었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욱 견고해졌다. 2020년 코로나19 충격은 이들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여, 많은 여성, 청년 및 고령자,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미숙련 노동자들이 2차 노동시장으로 내몰리고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영세 대면서비스업종 중에서 가장 타격이 심한 곳은 숙박음식업이었다. 2020년 8월 기준, 임금노동자 중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130만 6천명(6.4%)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 명(감소율 -9.7%) 감소하였는데, 여성(-6만 5천명)과 남성(-7만 5천명) 모두 크게 감소하였고, 연령별로는 20대 후반이 15만 6천명(11.9%)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8천명(-2.2%p) 감소하여 청년층

의 감소가 가장 많았다. 사업체 규모로는 10인 미만 영세 소규모에서 -12만 1천명이 감소하였는데, 전체 감소 인원의 86.4%가 10인 미만 규모의 종사자였다. 한편,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1만 1천명)과 임시·일용직(-12만 9천명) 모두 감소하였지만 임시·일용직 감소가 92.1%에 달하고, 근로형태별로는 정규직(46.9%) 7만 명(-0.3%p), 비정규직(53.1%) 역시 7만 1천명(+0.2%p) 감소하여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더 높아졌다.

2020년 숙박·음식업의 월평균 임금은 156만 6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8천원(하락률 -2.4%) 하락하여, 월평균 임금이 낮은 상태에서 더 하락하여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였다. 업종별 상대임금을 보면, 숙박·음식업은 50.3%로 제조업(=100)의 절반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숙박·음식업 종사자 중 저임금(월평균 160만원 미만) 노동자는 66만 6천명(51.0%)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7천명 감소하였지만 중간임금(-8만 1천명)과 고임금(월평균 360만원 이상, -2만 3천명) 노동자의 감소가 커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4%p 증가하였다.

한편, 35시간 이하 근로 노동자는 41.0%로 1.2%p 증가하여 단시간 노동자 비중은 더욱 커졌고, 평균 근속은 2.1년으로 가구내고용업 다음으로 짧았다. 비자발적 취업자 역시 55만 9천명(42.8%)으로 8만 9천명 감소하였다.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가입률은 41.5%(+ 0.5%p)로 50%에도 못 미치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46.7%로 2020년 2.8%p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2명 중 1명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다. 2020년 정부의 고용대책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조치가 있었지만 유급휴일(휴가) 수혜율은 27.3%로 전년 동기 대비 0.1%p 증가하는데 그쳤다. 코로나19 위기로 외식, 여가, 여행 등 집합금지 업종이 되면서 대표적 영세 사업장인 숙박·음식업 종사자의 고용 감소와 임금 하락이 특히 심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 정책이 확대 시행되었음에도 숙박·음식업 종사자의 53.3%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고용유지, 실업 대책 등 정부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숙박·음식업의 고용 및 임금 상황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함을 대변하고 있다.

한편, 2020년 보건사회복지업과 공공행정업, 건설업, 사업관리지원임대업, 가구내고용업, 운수창고업 등에서는 고용이 증가하였다. 특히 보건사회복지업(+15만 5천명)과 공공행정업(+5만 5천명)에서 증가가 컸는데, 이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기회제공 사업의 결과로 보인다. 보건사회복지업 고용 증가 현황을 보면, 전체 15만 5천명(증가율 +7.1%)으로 이중 여성(+13만 명)의 증가가 남성(+2만 5천명) 보다 많아 보건사회복지업의 여성 비중은 더욱 커졌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43만 8천명(18.8%)으로 9만 7천명(+3.1%p) 증가하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6만 9천명) 보다 임시·일용직(+8만 7천명) 증가가 컸고, 비정규(+15만명) 증가가 정규직(+5천명)의 3배가량 많았다. 비정규직 일자리는 대부분 기간제와 시간제 증가로 채워졌다.

보건사회복지업은 물론 공공행정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업, 수도하수업, 전문과학기술업, 국제기구업 등은 2020년 임금 하락을 경험하였는데, 보건사회복지업의 월평균 임금은 204만 2천원으로 1만5천원(하락률 -0.7%) 하락하여 임금하락이 컸다. 보건사회복지업의 저임금 노동자는 76만 8천명(33.0%)으로 7만 1천명(0.9%p) 증가하여 가장 큰 수로 늘었다. 한편,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2020년 더 줄어 15시간 미만(+5만명) 노동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비자발적 취업자는 58만 9천명(25.3%)으로 3만 8천명(증가율 6.9%p) 증가하였다.



공공행정업의 고용 역시 113만 4천명(5.6%)으로 5만 5천명(증가율 5.1%) 증가하였는데, 대부분 여성(+5만 4천명)이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6천명) 보다 임시·일용직(+4만 9천명)이 월등히 많았고, 정규직(+1만 5천명) 보다 비정규직(+4만명) 증가가 많았다. 공공행정업의 2020년 월평균 임금은 277만 7천원으로 4만 5천원(하락률 -1.6%) 하락하였고, 저임금 노동자는 31만 7천명(27.9%)으로 4만 명(2.2%p) 증가하였고, 고임금 노동자는 35만 6천명(31.4%)으로 4만 4천명(-5.6%p) 감소하였다. 공공행정업의 비자발적 취업자는 23만 명(20.3%)으로 3만 명(증가율 15.0%) 증가하였으며, 고용보험 가입률은 22.7%로 20년 2.9%p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매우 낮다.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장에 가해진 충격은 특히,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었다.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영세 대면서비스업에서 주로 여성, 청년층,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 감소를 가져왔고, 보건사회복지업과 공공행정업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여성과 고연령층, 임시·일용직의 고용 증가를 가져왔다. 이 결과 여성 일자리가 기존의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대인대면 서비스업에서 보건사회복지업, 공공행정업 분야의 단기적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대체 확대 되었다는 측면에서 여성 고용의 양과 질은 더욱 악화되었다. 한편, 고용변동이 심했던 청년층의 고용은 더욱 불안해졌고,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일자리와 공공근로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임시방편 일자리가 확대되었다.

종사상 지위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고용 조정이 주로 임시·일용직 감소로 이뤄져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의 임시·일용직이 감소하는 대신 보건사회복지업과 공공행정업, 가구내고용업의 임시·일용직으로 확대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의 고용충격은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한 고용 감소를 가져와 업종 전체로 고용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소규모 업체에서는 고용이 감

소하였다.

한편, 숙박·음식업과 보건·사회복지업 등에서는 임금이 낮은 상태에서 2020년 큰 폭의 임금 하락까지 겹치면서 업종 내 고임금 노동자는 감소하고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하였으며, 임시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일자리 상실 및 소득 손실에 크게 노출되었으며,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여성, 청년,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 종사 비율이 높은 영세 대면서비스업종은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 정부의 고용대책의 사각지대에 있고, 사회보험과 근로복지 수혜율도 낮은 상태이다. 이들 업종은 또한 대체로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 조직률도 낮다.

현재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디지털·비대면 산업의 확산과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비상시의 여러 제한 조치를 완화하며 뉴노멀 시대로 진입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영세 대면서비스업의 저임금 근로자는 향후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 손실을 겪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 이들의 장기 실업이 고착화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할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위기 시에 국민이 의지할 곳은 조직적 힘을 갖는 정부밖에 없다. 영세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는 산업정책과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 보호와 임금 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지속적으로 보완 확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하고 대대적인 지원에서 산업과 기업 규모 및 근로자의 처한 조건에 따라 지원을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한국 노동시장과 사회보장 제도 및 사회 전체의 회복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노동시장의 안정과 사회통합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

# 제6장

## 코로나19위기와 정책과제

### 제1절 머리말

우리나라의 경제 및 고용 지표는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취업자를 감소시키고, IMF 이후 처음으로 임금노동자의 고용을 감소시켰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국 정부들이 실직 방지를 위해 사회보호 확대와 피해업종에 대한 일시적 임금보조금 지급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보호 조치를 취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노동자에게 중요한 지원책이 되었지만 경제 재건과 완전고용 실현에는 불충분한 듯하다(ITUC, 2021).

향후 경제가 과거보다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2020년에 이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산업생태계와 노동시장에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고용회복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긴급한 위기대응에서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고용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구조적 문제로 고착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고용유지 및 생계안정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이에 기인한 불평등 및 격차를 해소하고 산업구조 변화를 통한 고용 창출 및 고용의 질을 제고하는 장기적 시각의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취약노동계층을 인적 속성(성별, 연령계층별)과 일자리 속성(종사상 지위, 근로형태별, 기업규모별, 산업별)에 따라 분류하고, 코로나19 충격이 고용규모, 임금수준상대적 임금격차저임금 노동자 규모 및 비중, 노동실태와 사회보험 및 근로복지 수혜, 노동조합 조합원 수 및 가입률 등에 미친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앞에서의 분석에 기초하여 취약노동계층 특성별로 일자리 유지 및 소득 지원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 양질의 일자리 촉진정책, 이해대변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현황을 살펴보고 정책과제를 모색한다.

## 제2절 종사상지위 및 고용형태별 취약노동계층과 정책과제

### 1. 불안정노동계층과 고용유지정책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으로 고용과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고용감소 최소화 정책으로 대응하였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에서 45조 원 이상의 고용안정대책과 20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등 생활안정대책을 추진했다.

2020년 정부의 고용안정대책으로 고용유지 지원, 취약계층 생계안정, 일자리 기회 확대가 추진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2019년 대비 33배 규모인

2조 3천억원을 지원했으며,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 2차)을 통해 211만 명 지원, 청년 특별구직활동지원금으로 18만 5천명 지원, 법인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8만명 지원,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29만명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기회 확대 사업을 통해 공공민간 일자리 155만개 창출을 지원했다(고용노동부, 2021).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나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년 사업장 7만 2천개 소 노동자 77만여명(연인원 228만)에게 2조 2,779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 대비 3,304% 증가한 액수이다. 올 해에도 8월 말까지 사업장 38,747개 소, 노동자 295,431명(연인원 889,140명)에게 9,349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다.<sup>29)</sup>

2020년 취업자 중 일시휴직자가 전년 대비 43만명(105.7%)이 증가한 83만 7천명에 이르는 것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노동시장의 실제 상황은 취업자 수 21만 9천명 감소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충격이 컸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전년 대비 33배에 달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의 급격한 증가를 통해 실직하거나 해고될 수 있는 노동자의 고용관계를 유지시킴으로써 고용지표상 취업자 수의 감소 규모를 줄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으로 인해 휴·폐업 위기에 처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기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 조치가 없었다면 훨씬 더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 충격 완화에 일정 정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수혜 대상의 제한이 있

29)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9.16.),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30일 추가연장」

어 고용유지의 실효성에 제약이 있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수급요건·절차 완화, 지원수준 상향, 지원기간 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대상자의 확대, 무급휴직 신청으로 유도하여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의 신설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 방식, 사업장 규모, 지원 수준의 제약으로 인해 소규모영세사업장, 사내하청 노동자, 파견 및 용역 노동자 등 대다수 불안정 노동자들이 고용유지지원 제도의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나 사업주의 제도 활용 미흡으로 대다수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 파견 및 용역 노동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요건 충족의 어려움과 휴업수당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으로 신청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위기시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간접고용 사업장이나 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신청 요건을 설정하거나 사용자사업주의 신청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유인하기 위하여 사업주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고용유지제도는 노동이동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일정 정도의 부담을 지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기 시에는 부작용이 크지 않으므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오상봉, 2020).

우리나라는 고용유지지원금이 2019년 669억원이 지급되었으나 2020년 크게 증가하여 2조2천881억원이 지출됐다. 그런데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본예산에는 1조 3천 728억원이 반영됐고, 기재부는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올해 대비 절반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적극적인 재정 활용은 세계 각국의 공통된 흐름이다. 전례없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은 적극적 재정지원을 통해 방역, 치료, 고용유지,

실업자 지원, 긴급생계 지원 등을 유지하면서 방역위기, 경제위기, 고용위기, 금융-경제위기의 악화가 누적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다(ITUC, 2021). 또한 IMF는 질서있는 회복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 및 피해 취약기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별 특화 지원방안 마련 등과 같은 재정적 처방을 권고하고 있다(IMF, 2020). 즉 정부는 팬데믹 현상이 지속되는 동안 폐업 위험에 처한 기업에 대한 임금보조를 통해 총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연쇄적인 파산과 대량 해고를 방지하여 향후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피해 취약 기업 및 계층(중소기업, 소상공인, 실업자, 일시휴직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대상별 특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 위기 시에는 지원의 신속성과 적절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고, 종식되더라도 경제적 파장은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일자리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지속함으로써,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휴·폐업하지 않도록 하는 지속적인 고용유지 정책으로 고용시장 충격 완화에 주력해야 한다.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임금보전 비중을 높여 신청과 수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조정, 고용위기 시 한시적으로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환급, 사용자사업주의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제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개선,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등을 통해 현재의 지원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원금 지급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대량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등 다양한 노동형태를 포괄하는 좀더 확대된 고용유지 방안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고용유지를 위해 주요국들이 노동시간단축제도(short-time work)를 비정규직까지 확대·지원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우수한 재정여력을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 기조 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 2. 불안정노동계층의 소득지원정책

고용위기는 취약노동계층의 고용 및 소득에 더 크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불평등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임시직·일용직과 비정규직, 특히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했다. 그리고 임금 감소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상승 등 임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임시직·일용직과 비정규직에게 더 크게 나타남에 따라 상용직과 임시직·일용직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 수혜율의 하락과 상용직과 임시직·일용직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복지 수혜율의 격차는 이들 간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들 취약노동계층의 대다수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존재한다.

코로나19위기 속에서 광범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응한 임시대응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되었는데, 이는 일시적 실업부조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해 생계곤란에 직면한 특고·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긴급히 신설되었다.<sup>30)</sup> 이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받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돼 있지 않은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무급휴직

30)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한 영세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50인 미만 기업 종사)가 대상이다.



자(실업급여 가입대상 제외), 자영업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올 해까지 4차례 지원금 시행을 통해 현재까지 총 179만 2천명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3.4조원을 지원했다.<sup>31)</sup>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175만 6천명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순으로 신청을 많이했고, 전체 수급자의 46%가 소득 하위 20%에 분포했으며, 여성·중장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 교육관련종사원, 서비스관련종사원 순으로 비율이 높았고, 소득하위 20% 비율은 대리기사·방문교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월 소득 6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4차 지원현황

사업	지원 대상	지원 인원	지원 금액
1차 (‘20.6.~9.)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149.7만명	150만원
2차 (‘20.9.~12.)	특고·프리랜서	61.3만명 *기수급자: 47.2만명 신규: 14.1만명	기수급자: 50만원 신규: 150만원
3차 (‘21.1.~3.)	특고·프리랜서	68.2만명 *기수급자: 57.1만명 신규: 11.1만명	기수급자: 50만원 신규: 100만원
4차 (‘21.3.~5.)	특고·프리랜서	71.5만명 *기수급자: 67.2만명 신규: 4.3만명	기수급자: 50만원 신규: 100만원

주: 2차 사업부터 영세자영업자는 중소기업부에서 지원하고, 무급휴직자는 완화된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021.5.27).

이러한 정책이 없었다면 고통은 더욱 커지고,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

31)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021.5.27),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 등 71.5만명 지급 완료」

으면서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되어 있는 특수고용근로·프리랜서에게 충분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공적이전을 통해 소득감소를 보전한 적절한 대응정책으로 판단된다.<sup>32)</sup>

위기 시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실질적 적용이 불가능한 취약노동자의 소득과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특별고용안정대책으로 실시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수준과 기간을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고용 위기 시 비자발적 휴업 상태에 있는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고용유지 지원금에 준하는 소득과 고용안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 3. 불안정노동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정책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속에서 취약노동계층에게 일자리 손실과 소득 감소가 먼저 일어나는데 비해 이들 대다수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등 공적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어있다. 2020년 임금노동자의 고용보험가입률은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으나 상용직이 84.7%인데 임시직은 30.4%, 일용직은 5.7%에 불과하고, 정규직은 79.9%인데, 비정규직은 4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는 62.5%, 파견근로 72.6%, 용역근로 81.0%로 상대적으로 높는데 비해 시간제는 27.5%, 특수형태근로 7.6%, 일일근로 6.5%, 가정내 근로는 2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안전망의 핵심척도인 실업급여수급률이 OECD 회원국 평균이 6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0%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의

32) 나아가 박진화·정재현(2021)에 의하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경험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66%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임시적으로 집중 지원을 하였다. 미국, 핀란드, 프랑스 등이 실업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한데 비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직접 현금을 지원했다. 코로나19위기 속 넓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응한 임시대응으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이라는 일시적 실업부조를 활용했다.

해외 많은 국가들이 실업급여 지원 대상자 확대·기간 연장·소득대체율 인상 등으로 실업자 지원을 강화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기존의 실업급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소득 실업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 지원 등 상대적으로 소극적 대응을 하였다.

향후에도 주기적 경제위기, 자연적 재난, 감염병 출현 등으로 인해 경제·사회적 위기가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보장제도 정비를 통해 불안정 노동계층을 비롯한 취약노동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튼튼하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등 고용보험 확대정책과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최적결합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불안정노동계층을 고려하여 소득파악과 보험료 부과가 보다 쉬운 계층과 집단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단계적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취약노동계층은 실업부조를 통해 소득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병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일상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안전망의 정비가 필요하다. 일상적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제대로 갖춰진 사회안전망은 다양한 경제·사회적 위기 시의 대비

책이기도 하다.

#### 4. 일자리창출 및 양질의 일자리 촉진 정책<sup>33)</sup>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2020년 임금노동자를 비롯하여 취업자가 감소하였으며, 고용불안정성이 높고, 임금 및 노동조건이 열악한 일일근로 종사자, 기간제 및 시간제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했다.

향후 정부는 강력하고 회복력이 빠르며 포용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 개선 등 양질의 일자리 촉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과거의 경제위기와 금융위기 기간 중 많은 정부들이 채택했던 실패한 일자리 창출 전략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전략은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노동자 권리를 악화시켰다.<sup>34)</sup> 이들 국가들은 보건, 의료 및 기타 필수 서비스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팬데믹에 대비하지 못했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ITUC, 2021).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일자리 창출 및 인프라 개발, 친환경 부문 및 돌봄 경제 등 주요 영역에 대한 공공투자 강화 등의 적극적인 정부정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정부는 권리와 적정임금 및 노동조건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

33) 이하의 내용은 ITUC(2021), 「Creating jobs: what can governments do? just jobs campaign brief: Just Jobs」에 주로 기초하고 있다.

34) ITUC는 과거 위기의 경험에 기초해 실패 또는 잘못된 일자리 창출전략으로 세 가지 전략을 꼽고 있다. 첫째, 기업의 신규 노동자 채용을 장려하는 수단으로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임금 삭감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전략은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둘째, 소위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줄임으로써 일자리를 촉진하기 위해 단체교섭 분권화와 기업의 단체협약 불이행 허용을 통해 단체교섭을 약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ILO는 이러한 전략이 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임금과 노동조건 하강압력을 행사하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전략은 생산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역효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용자의 노동비용을 줄이고 고용을 촉진한다는 논거로 사용자의 사회보장 부담금 납부의무 유예나 절감을 채택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흔히 노동자들이 사회보장 부담금 증가분을 납부함으로써 노동자 스스로가 부족분을 벌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를 창출해야 하며, 인센티브와 적절한 강제조치의 조합을 통해 비공식경제를 공식화해야 한다. 또한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통해 노동자들이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차지할 준비를 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범위한 노동 시장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들 전략은 정부의 광범위한 산업정책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즉 정부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s)을 관리하고, 국내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 방향 및 조정(coordination)을 제공하는데 선제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와 사회적 대화에 초점을 맞춰 살펴본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일자리 창출 및 인프라 개발, 친환경 부문 및 돌봄경제 등 주요 영역에 대한 공공투자 강화 등의 적극적인 정부정책이 요구된다. 공공투자 확대는 일자리 창출과 전체 고용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공공투자가 사회적 생산기반(infrastructure)이나 돌봄과 같은 노동집약적 부문에 집중되는 경우에 그 영향이 크다. 녹색 사회적 생산기반(green infrastructure)에 대한 투자를 비롯한 기후친화부문에 대한 투자는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다. 특히 돌봄경제에 대한 투자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효과가 있고,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강력한 상승효과를 가지고 있다.<sup>35)</sup> 이러한 다양한 투자의 효과적인 조합을 통해 정부는 경제위기 시 일자리 감소에 대처하고, 노동시장과 전체 경제의 광범위한 구조적 변화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최대 사용자인데, 특히 위기 시 공공부문에서의 고용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실업감소의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고, 경기침체기 동안의 공공부문 확대는 일자리 안정효과를 제공한다. 또

35) 이는 주로 돌봄서비스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가능하게 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 공공부문 고용은 민간서비스 등 경제의 다른 부문에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공공부문 확대와 함께 공공고용프로그램(PEPs: public employment programmes)은 강력한 일자리 창출 수단이 될 수 있다.<sup>36)</sup>

둘째, 정부는 권리와 적정임금 및 노동조건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인센티브와 적절한 강제조치의 조합을 통해 비공식경제를 공식화해야 한다. 일자리의 질 개선과 비공식경제의 공식고용으로의 전환 지원은 총수요 진작, 세수 확대, 경제회복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자리의 질 보장은 고용보호 등과 같은 중요한 규제 중에서 최저생활임금, 노동기본권 및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존중, 노동시간 제한 등 적절한 규제에 기초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사업 프로그램 및 공공서비스 확대 시 적정한 임금 및 노동조건 설정을 통해 이러한 일자리들의 질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이는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공공조달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 사용자에게 정리해고 회피 또는 제한, 기업 내 순일자리 창출(net job creation) 확보, 적정임금과 노동조건(정규 노동시간 포함)으로 노동자 고용, 장기 및(또는) 무기계약 보장 등의 지원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조달전략을 통해 일자리 및 양질의 노동을 촉진할 수 있는데, 공공조달 시 지역 공급업체, 제조업체,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그들이 제공하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명확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조달전략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이나 대표성이 낮은 집단을 고용하라는 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공정한 조달

36) 이러한 프로그램은 구조적인 실업기간 동안 노동자들에게 '최후 수단'의 사용자(employer of last resort)로 기능한다. 이는 정부가 공공 재정지원으로 시행하는 장기 투자 프로그램으로, 공공 서비스(civil services)의 확대를 통해서가 아닌 높은 노동 집약도를 가진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직접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입은 시장 기반 고용 기회가 부족해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전략은 조달이 많이 사용되는 기후조치(climate action)와 관련된 모든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는데 특히 중요하다.

플랫폼 사업 등 비표준적 노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공식경제의 공식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인센티브와 강제조치를 동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ILO권고 204호). 인센티브 조치로는 신용과 자기자본 등 통합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사업자등록비용 절감 및 준수비용 인하, 세금과 사회보장분담금 등록절차 간소화,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훈련 및 숙련 향상 조치,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비공식성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근로감독 강화, 보다 효율적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의제기 및 탄원 절차, 불이행에 대한 국내법의 행정·민사·형사상 제재가 적절하고 적정하며 엄격히 집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비전형 일자리(non-standard forms of work)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관련 요분류를 줄이고, 사용자가 피고용인을 등록하고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비공식성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상당수 국가들이 고용관계의 추정을 법에 명시하고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셋째, 모든 일자리 창출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다. 일자리창출 조치를 개발하는데 노동자의 직접적 대표로서 노동조합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노동조합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영향을 받게 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가장 잘 이해하고, 결정된 조치에 대해 강력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 5. 노동조합과 취약노동계층의 이해대변 및 대표성 강화

임시직·일용직과 비정규직에게 고용 및 임금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이들의 노동기본권, 고용과 임금 및 노동조건을 보호하고 교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노동조합 가입률이 매우 낮고, 조합원 수가 감소하였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12.3%에 불과하고, 불안정 노동계층의 노조 조직률은 이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 그리고 낮은 단체협약 적용률과 기업별 교섭구조로는 원청대기업, 정규직 등 지배력과 교섭력있는 조직 부문과 여타 부문의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 그리고 노동조합 내에서의 낮은 대표성은 취약노동계층의 이해를 실현시키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2020년 종사상 지위별 노조 가입률을 살펴보면 상용직이 17.0%인데 비해, 임시직은 0.8%, 일용직은 0.1%에 불과하다. 고용형태별 노조 가입률을 살펴보면, 정규직이 17.6%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3.0%이다.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 3.9%, 시간제 1.4%, 파견근로 7.2%, 용역근로 3.7%, 특수형태근로 0.4%에 불과하다. 전체 조합원 구성을 살펴보면, 상용직이 98.5%(251만 3천명), 정규직이 91.2%(229만 1천명)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임시직은 0.4%(3만 5천명), 일용직은 0.1%(2천명), 비정규직은 8.8%(22만 1천명)에 불과하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임시직의 고용이 가장 크게 감소했는데, 조합원 수 또한 임시직에서 감소규모가 가장 컸고, 비정규직의 감소율이 더 컸다. 낮은 노조조직률과 노조 내 소수인 상황은 교섭력과 이해대변기능의 취약성으로 이어져 이들의 권리와 이해는 제대로 보호받거나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규모 및 종사상지위·고용형태 등에 따른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



는 노조 조직률 및 단체협약 적용률 확대,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체계를 통한 산업·업종 등 초기업단위의 교섭과 협의, 조정의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노조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은 임금분산을 형성하는 노조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인데, 노조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의 하락은 임금불평등이 빠르게 확대되는 데 기여해왔다. 교섭구조 또한 임금격차 축소에 영향을 미치는데, 조정된 단체교섭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호주)은 분산적 교섭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영국, 미국)보다 불평등도가 낮다.

파편화된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을 연대와 참여가 가능한 통합적 노사관계 시스템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기업단위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재정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산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하청·중소기업, 비정규직,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 등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조직체계이다.

이와 더불어 광범위한 미조직 비노조부문의 노동자대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상황에서 2차 노동시장 취약계층 미조직 노동자 이해대변을 위해 한국형 노동회의소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장에서의 낮은 지불여력과 취약한 교섭력 및 이해대변기능에 따라 양극화극복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공공정책 및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 제3절 여성 및 취약연령계층 정책과 과제

ILO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여성의 고용은 5,400만 개(-4.2%)가 감소하고 남성은 6,000만 개(-3%)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2019년 대비 2021년 여성 고용은 전 세계적으로 1,300만 명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남성 고용은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2021년 고용률은 여성 43.2%, 남성 68.6%로 여성이 25.4%p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ILO, July 2021).<sup>37)</sup>

[그림 6-1] 성별 고용 증감(2006-2021) 및 고용률(2021)



Source: ILO calculations based on ILOSTAT, ILO modelled estimates.

자료: ILO Policy Brief(July 2021), Women’s rights to work and at work at the core of the COVID-19 recovery.

2021년 여성 일자리 수 증가가 남성을 초과하더라도 여성 고용 수준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는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여성일자리 회복을 위한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ILO, July 2021).

첫째, 돌봄 노동에 대한 투자: 여성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보건, 사회 복지, 교육에 대한 투자, 가정내 여성과 남성의 가사와 육아의 평등한 배분을 위한

37) ILO Policy Brief(July 2021). Building Forward Fairer: Women’s rights to work and at work at the core of the COVID-19 recovery

돌봄 휴가 정책과 유연한 근무 제도의 돌봄 경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 보호 커버리지에서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편적 접근: 비공식 경제를 공식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세금 지원 혜택과 사회 보험의 결합을 통하여 소년과 소녀, 여성과 남성이 평생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째,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실현: 코로나 위기로 여성들에 의해 수행되는 저평가된 돌봄 경제 분야 노동의 가치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드러났다. 임금 투명성을 포함한 포괄적 입법 및 사회적 파트너와의 긴밀한 상호 작용과 같은 조치는 여성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폭력 및 괴롭힘 예방, 해결, 제거: 팬데믹으로 가정 폭력과 직장 폭력과 괴롭힘은 더욱 악화되어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를 저해했다. 6월 25일 발효된 ILO 폭력 및 괴롭힘 협약(2019, 제190호)은 예방에서 보호, 집행 및 구제, 훈련 및 인식 제고에 이르는 일터의 폭력과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하고 유용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다섯째, 의사 결정 지위에 여성 참여 촉진: 리더 역할의 여성 참여와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서 의사 결정 기관, 사회적 대화 및 사회적 파트너 기관에서 다양한 여성 그룹의 참여와 대표성을 높이는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ILO가 제시한 돌봄 경제 투자, 보편적 사회 보호를 위한 조치,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폭력 및 괴롭힘 예방 및 제거, 의사 결정에 여성 참여 촉진은 비단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때만이 아니라 노동 시장의 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들은 여성일자리 회복을 위하여 제안된 정책이지만 코로나19로 고용 타격을 크게 받은 청년, 중고령층의 고용 회복을 위한 정책에도 적용 가능하다.

본 절에서는 코로나19로 고용 변화가 컸던 여성, 청년, 중고령층 등 고용 취

약 계층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자녀 돌봄과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개선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충격은 여성이 훨씬 컸는데, 남성은 3만 5천명 (-0.3%), 여성은 7만 8천명(-0.9%) 감소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이 감소하였다. 특히 35-39세 여성의 일자리가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9만 1천명 (-9.5%)이 감소하여 여성일자리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상 한국 노동시장에서 35-39세 여성은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발생하여 연령별 여성 고용률이 가장 낮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학교폐쇄와 어린이집 폐쇄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은 자녀 돌봄을 위해 여성들이 일자리를 떠나게 만들었다.

실제로 2020년 여성 취업자는 전년 대비 13만 7천명이 감소했는데, 이중 미혼이 3만 1천명, 기혼이 10만 6천명으로 여성 취업자 감소를 기혼여성이 주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감소한 기혼 여성 취업자 10만 6천명을 연령별로 보면 35-39세가 6만 6천명으로 전체 기혼 여성 취업자 감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통상 35-39세는 기혼 여성의 고용률이 급감하는 연령대로 코로나19가 아니라도 여성 취업자 감소가 발생하는 연령이나 2020년은 코로나19로 35-39세 워킹 맘들이 더 많이 일자리를 떠났다. 2018년 대비 2019년 35-39세 기혼 여성 취업자는 2만명이 감소하였다. 2019년 대비 2020년 감소 6만 6천명과 비교하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5-39세 기혼 여성 취업자 감소 규모가 2019년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부표 6-1〉 참조).

〈표 6-2〉 연령별 혼인상태별 여성 취업자 수 규모 및 증감(2019년, 2020년)

(단위: 천명, %)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전체	미혼	기혼	전체	미혼	기혼	전체	미혼	기혼
전체	11,660	2,955	8,705	11,523	2,924	8,599	-137	-31	-106
15~19세	107	107	0	90	90	0	-17	-17	0
20~24세	747	731	16	697	683	14	-50	-48	-2
25~29세	1,170	1,004	166	1,150	977	173	-20	-27	7
30~34세	1,006	467	539	1,002	498	503	-5	31	-36
35~39세	1,161	291	870	1,090	285	805	-72	-6	-66
40~44세	1,181	141	1,040	1,163	157	1,006	-18	16	-34
45~49세	1,484	118	1,366	1,421	118	1,302	-63	0	-64
50~54세	1,446	51	1,395	1,414	62	1,352	-32	11	-43
55~59세	1,323	26	1,297	1,279	32	1,247	-44	6	-49
60~64세	901	11	890	971	16	955	70	5	65
65세이상	1,133	8	1,125	1,246	7	1,240	113	-1	11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코로나19 초기에는 학교와 어린이집을 전면 폐쇄했으나 학생들의 학습 능력 저하와 어린이들의 사회성 부족 등의 역효과 나타나면서 올해에는 전면 폐쇄는 없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돌봄 문제에 대해 돌봄의 사회화 논의가 활발해 진 것은 고무적이다. 학교와 어린이집은 필수 기관으로 폐쇄하기보다는 일부 등교나 등원 등을 유지하고 정부는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방역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2020년부터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의 사유 개선이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 규모별로 2022년

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8.27.)을 통해 도입).<sup>38)</sup> 사업체 규모별로 2020년 1월 공공 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체를 시작으로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체, 2022년 1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된다.

현재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이다. ‘가족돌봄’ 사유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가 해당되는데 여기에 ‘자녀의 학업’을 위한 돌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공백은 30-40대 임금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의 일 중단을 초래했다. 현행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8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사용 가능하다. 자녀 연령이 8세를 초과하거나 8세 이하 자녀가 있더라도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소진한 경우 코로나19 발생 초기처럼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장기간 폐쇄되는 경우 돌봄 공백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육아 부담이 가중되는 한국 정서상 워킹 맘의 경력단절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도 발생했다.

현재 ‘가족돌봄’ 사유의 일환으로 아픈 자녀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녀 돌봄은 신청할 수 없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들이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되는 연령보다 나이가 많은 9세 이상 자녀의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사유에 자녀 돌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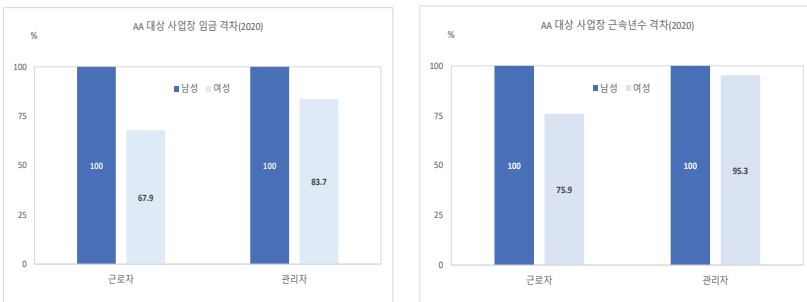
38)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보도자료(2020. 9. 28).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2. 성별 임금 격차 축소를 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성별 격차는 비단 코로나19로 두드러진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ILO(2021)에서 여성일자리 회복을 위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실현을 대책으로 제안한 것과 같이 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2018년 실시를 약속한 ‘성평등 임금공시’를 도입하여 임금 투명성 확보로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야 한다. 기업의 임금 정보는 주권상장법인<sup>39)</sup>은 금융감독원 DART, 공공기관은 알리오, 지방공사 및 공단은 클린아이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2020년부터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 이하 AA)대상 사업체는 남녀근로자 직급별 직종별 현황 외에 남녀 근로자 직급별 직종별 평균 임금과 평균 근속년수를 제출하고 있다. ILO(2021)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충격받은 여성일자리 회복 대책으로 임금 투명성을 제안한 바와 같이 현재 대상별로 산재해 있는 기업의 임금 정보를 모아서 공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 6-2] AA 대상 사업체 임금 및 근속년수 격차



주: 1) 남성 100기준

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보도자료(2021.5.28.), 2021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재구성

39)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매매시장에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임금을 공시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AA 대상 사업체의 AA 사이트를 별도로 구축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대상 개별 사업체의 남녀 근로자 정보와 임금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있다. AA 대상 사업체 중에는 이미 알리오, 클린아이, DART를 통해 임금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대상 사업체에는 공공기관이 모두 포함되며 2018년부터는 지방공사 및 공단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DART에 사업 보고서를 공시하는 민간 기업 중 500인 이상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공시대상 기업 집단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대상 사업체이다. 두 번째 안으로는 2014년에 시작된 300인 이상 대상 사업체의 근로자 정보가 제공되는 고용형태별 공시제 사이트에 남녀 임금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다.

### 3.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 확대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65세 이상 임금노동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로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20년 8월 기준 65세 이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17.4%로 전체 임금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비율 67.5%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2020년 8월 기준 65세 이상 노동자 중 현재 직장 근속년수가 6개월-1년 미만 노동자는 42만 4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만 4천명이 증가하였다. 증가한 전체 65세 이상 노동자 18만 5천명 중 6개월 미만-1년 미만이 65세 이상 임금노동자 증가를 주도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코로나19에도 일자리가 증가한 근속기간 6개월-1년 미만의 65세 이상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면 일자리 상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일자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중에도 6개월 미만보다 6개월 이상에서 주로 증가하였고,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일자리 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인 65세 이상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2020년 8월 기준 50만 6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7천명이 증가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 의무 가입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표 6-3〉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p>①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실업급여(법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법 제5장) 적용 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19.1.15시행)</p> <p>②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p> <p>③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 가능(실업급여만 적용) *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별정직·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입 불가)</p> <p>④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p> <p>⑤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나,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 임의,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p> <p>⑥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p>
--

자료: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102Info.do>

**4.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여성 집중 돌봄 일자리 개편**

코로나19로 전체 일자리가 감소한 가운데 보건사회복지업은 코로나19 이전보다 15만 5천명이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업 일자리 증가는 전년 동기 대


비 13만명 증가한 여성과 9만 7천명 증가한 65세 이상 노동자들이 주도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 주도 돌봄서비스 확대로 보건사회복지업에서 노동자 수가 매년 증가해 왔고, 코로나19 고용충격 속에서도 일자리가 증가하였다. 여성 중장년층 취업 비율이 높은 돌봄 일자리는 대표적인 여성노동 저평가 저임금 일자리로 보건사회복지업 일자리 증가는 여성 고용률 상승에는 기여하였으나 노동 시장에서 남성보다 낮은 여성의 일자리 지위 개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번 분석을 통하여 보건사회복지업 일자리 증가가 65세 이상 고령자 일자리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 고령 여성뿐만 아니라 고령 여성들의 유입이 확대되고 있는 돌봄 일자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설립하였다. 2019년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한 이후 코로나 19 팬데믹을 계기로 설립이 확대되고 있다. 2019년 서울, 대구, 경기, 경남, 2020년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남에 설립되는 등 11개 지역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운영 중에 있다.<sup>40)</sup>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하였는데 지자체별 사회서비스원 마다 운영 방식이 상이하고 직접 고용을 하는 돌봄 노동자의 범위와 대상이 다르다. 정가원 외(2020)<sup>41)</sup>는 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하여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확대는 고무적인 상황이나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운영방식으로 인해 지역별로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

40)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https://www.pass.or.kr/social-servicecenter-introduction-state/index/sido>(접속일 2021.9.29)

41) 정가원·김난주·김효주·권도연(2020), 「보건복지분야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성평등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보건복지부

[그림 6-3] 사회서비스원 기본 방향



### 기본방향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최우선 목적으로 운영

- 지역·시설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사회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
- 사업운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로 서비스 품질향상 및 이용자 신뢰도 확보
- 사회서비스 종사자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통해 일자리 안정성 및 근무환경 개선
- 민간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지원하는 역할 수행

---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운영

- 사회서비스원은 정부정책에 우선 협력하며, 지역사회 내 선도적인 서비스 제공주체로서 역할을 수행

자료: 사회서비스원 중앙지원단. <https://www.pass.or.kr/introduction-aboutus-purpose>

한편 2021년 9월 노인·아동 돌봄 등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되어 2022년 3월부터 시행된다. 「사회서비스원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42)</sup>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기회로 자치단체별로 이미 설립되었거나 설립 예정인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자치단체별 자율성을 허용하는 부분과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회서

42)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서비스원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AC%ED%9A%8C%EC%84%9C%EB%B9%84%EC%8A%A4%EC%9B%90%EB%B2%95%#undefined>

비스윈 운영 가이드라인을 법을 통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제4절 산업 및 기업규모별 취약노동계층 정책과 과제

### 1. 영세 대면서비스업의 고용유지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전 세계적으로 몰아닥친 코로나 19 팬데믹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외환 위기와 다르고, 금융위기 때와도 다른 양상으로 노동시장에 충격을 가하고 있다. 감염병이라는 위기의 성격이 가진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 등의 조치를 수반하면서 코로나19 충격은 기존의 생활 방식 변경과 생활 반경을 좁혔다. 이에 따라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특히, 대면서비스와 관련된 업종과 그 종사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 노동시장은 사회보장 제도와 함께 시험대에 올랐다.

코로나19 충격 이후 정부는 고용 유지를 통한 노동시장 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유럽 여러 국가들과 유사하게 기존의 휴업지원 제도를 보완 확대하였다. 즉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유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특례를 신설했다(고용노동부, 2020.03.25.). 또한 코로나 영향이 심각한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용노동부, 2020.03.16.).

그 주된 내용은 기존에 67%(대기업 50%)를 지원하던 휴업·휴직수당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모든 업종에 대해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것

이다.<sup>43)</sup> 이 조치는 경영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유급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의 1일 상한이 6.6만원이므로 휴업수당이 월 198만원(=6.6만원×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만큼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그 외 금액은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중소기업중앙회, 2020). 노동계의 요청에 의해 올해부터는 원청이 휴업·휴직할 경우 파견용역업체 근로자도 고용유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고용노동부, 2020.12.22.).

이 같은 정부 조치는 사업주의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을 낮춰 실직 위험이 높은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유지시킴으로써 취업자 감소폭을 줄이고 실업자 증가를 줄이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최소 1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지원율은 높였지만 지원금 상한액은 기존 금액과 동일해 임금보상 수준 상한이 낮아져 현장에서는 지원율 확대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평가다(오상봉, 2020).

그럼에도 2021년 8월 기준, 총 11만개 사업장의 105만 9천명이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용노동부, 2021. 08.11.).<sup>44)</sup>

고용유지 지원금 활용률은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3.8% 수준('20년 12월 말 기준, 이창근, 2021)으로 뉴질랜드 66%, 프랑스 33%, 이탈리아 45%, 독일 30%, 스페인 18% 등 많은 OECD 국가들이 과감한 고용유지 조치로 사실상 실직 상태에 있는 취업자의 고용관계를 유지시키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의 활용률은 높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20년 5월말 기준, OECD 2020; 한국은행 2020 재인용).

43) 한시적으로 3개월간(2020.4~6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했다.

44) 고용노동부(202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실적) '20년 77.3만명, 7.2만개 사업장, 2.3조원 지원(전년 대비 3.304% 증가), '21년 28.6만명, 3.8만개 사업장, 8,692억원 지원, 제15차 고용위기대응반 회의 자료(2021.08.11.).

한편, 지난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혜택을 받은 사업장은 83.3%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23.6%, 도소매업 20.8%, 숙박·음식업 12.7%, 여행업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0.4% 등으로 집계됐다(고용노동부, 2021.09.16).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요건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함에도 10인 미만 사업장이 많다는 것은 코로나19 피해가 주로 영세 대면 사업체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서비스업의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숙박·음식업, 도소매업에서의 활용률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숙박·음식업(14만명, 감소율 -9.7%)은 2020년 고용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을 반증하듯 고용유지 지원금 활용률은 12.7%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의 견고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려는 정부대책 수혜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0년 8월 기준 숙박음식업의 유급휴일(휴가) 수혜률은 전년 동기 대비 0.1%p 증가하였지만 임금노동자 평균에 훨씬 못 미친 27.3%에 그치고 있고, 1-4인 규모의 유급휴일(휴가) 수혜률은 2020년 오히려 0.1%p 감소한 28.4% 수준이다(20년 8월 기준).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6.7%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53.3%에 이른다. 숙박·음식업 종사자 2명 중 1명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고용유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 자리를 잃은 실업자 대책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숙박·음식업과 같이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업종과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는 그 혜택이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상당수가 단시간 노동자이거나 일일노동자이며,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다. 2020년 8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중 15

시간 미만 노동자는 99만 2천명에 달한다. 대체로 공공행정업(14.0%), 보건 사회복지업(13.5%), 숙박음식업(10.3%), 교육서비스업(8.2%), 예술및여가업(7.1%), 기타개인서비스업(6.0%)에 15시간 미만 노동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일일근로 노동자(89만 6천명) 역시 건설업(32.8%)과 농림어업(29.2%)에 많고, 기타개인서비스업(5.9%), 숙박음식업(5.7%), 사업관리지원임대업(5.3%)에 많다. 5인 미만 영세사업체 종사자(364만 8천명)도 도소매업(22.2%), 숙박음식업(16.5%), 건설업(8.7%), 보건사회복지업(8.4%), 기타개인서비스업(7.3%), 제조업(7.3%), 사업관리지원임대업(5.7%)에 76.1%가 분포하고 있다. 이들 업종은 대체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업종들이고, 소규모 업체 비율이 높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법상 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무급휴가 또는 권고사직 가능성이 높다.<sup>45)</sup> 현재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정책은 실업을 일시 휴직으로 전환시켜 놓은 상태로 고용유지 지원이 끝나면 언제든지 실업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들 중소기업종종사자들의 경우는 실직하면 이후 장기 실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시장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포괄하는 고용보험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즉, 실업 위험이 높고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많은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보험의 법적 적용 범위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전 국민을 포괄하는 고용보험이 되도록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중이다. 고용보험이 모든 국민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제도로 속히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이다.

45) 5인 미만 영세사업체 노동자의 58.9%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다('20년 8월 기준).

한편, 고용보험 적용 범위와 실질 가입률을 개선하더라도 당장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급격히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위기 국면에 한하여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도 정부 지원이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고용유지대책도 필요하다(이창근, 2020).

일본은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고용조정 보조금의 적용 대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의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이라는 조건을 삭제하여 가입기간이 짧은 노동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지원 대상을 넓혔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정부 지원을 받도록 한시적으로 고용보험 수급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영세 사업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 상한액을 높여 사업주 부담분을 크게 줄이고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 덴마크는 노동시간 단축이나 휴업에 대해 실업수당이 아닌 평상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정부가 급여의 7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했는데, 특히 시급제의 경우는 정부가 90%(3,500유로 한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렸고, 독일은 기존 조업단축(Kurzarbeit) 수당 제도의 수급자 요건을 파견노동자까지 확대 적용하여 고용유지 지원 대상을 넓혀서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였다(이승우외, 2020). 정부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 2.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원 강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고용충격은 산업별로 매우 이질적이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제한 등의 조치로 사람 간의 접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외식, 여가, 오락, 여행, 교육 등과 관련된 업종의 노동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일부 업종에서는 코로나19에도 고용이 증가하거나 혹은 작게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전면적 봉쇄조치를 취한 미국, 영국 등의 노동시장 반응과 유사한 형태였다.

실제 2020년 8월 기준, 숙박·음식업(-14만명, -9.7%), 도소매업(-8천 1천명, -3.6%), 기타개인서비스업(-4만9천명, -6.7%), 예술및여가업(-9천명, -2.6%), 교육서비스업(-6만6천명, -4.3%) 등에서 고용이 크게 감소하였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고용충격이 컸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고용위기는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가해졌다.

반면, 공공행정업(5만5천명, 5.1%), 보건사회복지업(+15만5천명, 7.1%), 운수창고업(+5천명, 0.6%), 건설업(+3만5천명, 2.2%), 사업관리임대지원업(+3만3천명, 2.7%), 가구내고용(+2만2천명, 27.2%) 등에서는 고용이 증가하였다. 일부는 운수창고업, 건설업, 가구내고용업 등에서 코로나19위기로 생활조건이 변화하면서 나타난 노동수요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또 다른 부분은 공공행정업과 보건사회복지업에서 정부의 공공부문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결과로 보인다.

대면서비스업 고용충격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업, 항공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였다.<sup>46)</sup>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몇 차례 추가 지정과 기간 연장 과정을 거쳐 현재 15개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였고, 적용기간을 2022년 3월 31까지로 늘렸다(고용노동부, 2021.03.17.).

정부의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유급 휴업·휴직에 대해 기업규모

46)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이상 2020.3.16. 지정),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차·국제회의업, 공항버스(이상 2020.4.27. 지정), 영화업, 노선버스, 항공기 부품 제조,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수련시설(이상 2021. 3. 지정) 등 15개 업종.

에 따라 휴업·휴직 수당의 90%(중소기업), 67%~75%(대기업, 노동시간 단축률 50% 이상일 경우 75%)으로 책정되어 최대 90%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지원금 상한액(중소기업 7만 원, 대기업 6만 6천원)도 다소 높아진다. 그리고 지원기간도 늘어난다. 정부는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한 270일에서 지난 9월 16일 30일을 추가 연장하였다(고용노동부, 2021.09.16.).

한편,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추가 90일은 월 50만원(총 150만원) 정액 지원하도록 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의 신설 조치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하게 되면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의 지원금 월50만원은 실업급여 하한 액보다 낮아 고용유인책으로 실효성이 낮고, 또한 사업주가 의무적인 사전 유급휴업조치를 피할 수 있어 악용 가능성이 있다(이창근, 2020).

이 외에도 사업주는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자는 생활안정 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 2천만원→3천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훈련비 지원액 인상 300→400만원 및 자부담률 인하 15~55%→0~20%)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률을 보면, 공항버스 90.9%, 면세점 76%, 여행업 47.7%, 항공기부품 제조업 30.9%, 카지노 30.4%, 유원시설 17.5%, 수련시설 16.1%, 노선버스 10.7% 등이었다. 이는 전체 평균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사회적 이동과 오락, 여가 등 대면서비스를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는 업종의 고용위기가 심각함을 보여준다(고용노동부, 2021.03.17.).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응급조치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빈 부분이 있다며 추가 지원과 지원기간 연장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히, 항공산업 노조는 코로나19 위기 종료 후 복귀를 조건으로 절반 가까이 이미 정리하고 대상이 된 상태라며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되면 항공산업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심각할 수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매일경제, 2020.09.01.). 또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1일 한도 상향과 휴업·휴직 중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2021).

노동계가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지난 1일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명분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일시 증가한 사업의 규모와 지원 수준 등을 조정하고 내년까지 1조 6,000억 원을 감축한다고 밝히고 있어 그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업종의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큰 상황이다(고용노동부, 2021.09.01.).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우리 경제의 산업 생태계 불균형과 업종별 불평등 심화와 같은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관련 업종의 경제 활동이 많은 부분 위축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19에 의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의 목표가 산업과 경제의 안정적 균형 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용위기 극복과 생계 안정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기존 부분 실업제도(Activité partielle)를 통해 임금 지급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고용유지를 꾀하는 한편, 특히, 건설업, 제조업, 배달업 등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업종과 서비스업 등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업종에 대해서는 부분 실업 프로그램 적용을 간소화하고 강화했다. 즉, 사용자가 임금 총액의 70%(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100%)를 지급하

면, 정부는 최저임금의 4.5배 한도로 지급액의 100%를 보상하여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여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더 많은 자원을 할애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항공업, 도소매업, 식품서비스업, 운송서비스 부문의 고용유지를 위해 코로나 19로 인한 가동 중지 혹은 휴업기간 동안 재훈련을 통해 업무 기량을 높이는 재배치 프로그램을 강화(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였다(이승우외, 2020).

코로나19로 심한 타격을 받은 업종의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이들 업종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을 매개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기업 규모별 격차 완화

위기 시에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는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2020년 고용감소는 대부분 10인 미만(27만 2천명 감소) 규모에서 일어났는데, 특히 5인 미만 규모에서 전년 동기 대비 13만 5천명(감소율 -3.6%)이 감소하였고, 고용안정성이 역시 5인 미만 규모에서 70.6%로 전년 동기 대비 2.6%p 떨어져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중소기업 고용유지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럽위원회(EU)는 코로나19로 인한 위험 직종 3개 중 최소 2개가 중소기업이며, 위험 직종의 30% 이상이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중소기업 일자리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이를 위해 긴급 상황에서 실업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지원(European Unemployment

Reinsurance Scheme, SURE)으로 급여보조금이나 실업보험제도 확충 등 고용대책에 대하여 각 회원국에 총 1000억유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였다(신경희, 2020).

중소기업 고용유지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은 보조금 성격이 가미된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대출 제도를 시행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도모하였다. 특히,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할 때 급여보호 대출자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여 정기적 임금, 휴가 및 병가 지급, 의료보험료, 퇴직급여, 임대료, 공공요금, 급여세, 채무에 대한 이자지불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고용유지에 따른 세금 공제(Employment Retention Credit, ERC) 제도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 명령으로 사업이 중단된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세금공제 비율을 임금의 50%에서 70%로 늘리고, 지원한도를 연 5천 달러에서 연 2만 8천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중소기업 사용자는 두 지원 제도 중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은 이들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고용유지를 위한 대출금 사용처의 제한, 대출 기간 동안 기존 단체협약 유지, 노조 활동 중립, 외주화 및 해외위탁 금지, 임원 급여 인상 제한<sup>47)</sup> 등의 조항을 추가로 내걸었는데, 이러한 조치는 기업 편향을 넘어 친노동적 성격이 강한 대책이라 하여 코로나19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신경희, 2020).

한국도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많은 5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대출과 임금 지급에 대한 세금 공제 제도를 확대하는 등 고용유지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상황이 이렇함에도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를 명분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47) 연봉 425,000달러 이상 받는 고용주는 대출기간 및 대출 종료 이후 12개월 간 2019년 연봉을 넘어서는 인상 금지, 연봉 300,000달러의 고용주는 300,000달러를 초과한 금액의 50% 이상을 받을 수 없다.

사업의 규모와 지원 수준 등을 조정할 것이라고 하여 향후 이들 업종의 고용 대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용노동부, 2021.09.01.).

한편, 임금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0년 8월 기준, 300인 이상(=100)을 기준으로 한 5인 미만 규모의 상대임금 수준은 41.5%로 300인 이상 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그 간 상승 추세에서 2020년 하락으로 돌아섰다. 임금 수준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비중은 5인 미만에서 46.5%로 높는데, 이에 비해 300인 이상에서는 3.9%로 낮고, 고임금 노동자는 5인 미만이 5.0%로 낮는데 비해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53.0%로 높아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가 큼을 보여준다.

사회보험 수혜율 역시 5인 미만 규모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이 각각 37.9%, 44.1%, 41.1%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반면,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각각 94.3%, 96.5%, 78.3%로 높다.

근로복지 수혜율의 경우도 규모가 작을수록 낮고, 규모가 클수록 높아 300인 이상 규모에서 시간외수당을 제외하면 모두 90% 이상으로 높고, 특히, 교육훈련 수혜율은 99.1%로 매우 높은 반면, 5인 미만 규모는 근로복지 수혜율도 낮고 2020년 모든 항목의 근로복지 수혜율이 하락하여 사업체 규모에 따른 근로복지 수혜율의 차이가 컸다.

이러한 기업 규모별 근로조건 격차는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견고히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대기업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병존하고,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청년층의 실업률을 높이고, 더 나아가 근로소득 격차로 인한 소득 불평등을 낳고 있다. 기업규모 간 격차 완화로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업규모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저임금근로자가 많은 소규모 사업체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강화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성재민, 2021).

#### 4. 양과 질을 담보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위기를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대응하고자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000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으로 4만8000명, 신규 직접 일자리 55만개+ $\alpha$  등 공공부문 일자리 156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동안 코로나19로 보류했던 노인일자리 등 약 60여만개 일자리를 비대면·야외작업으로 전환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시험을 재개해 4만 8000천명에 대해서는 연기됐던 채용절차를 재개했다(기획재정부, 2020.05.14.).

한편, 신규 직접 일자리 55만개는 공공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개와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 민간부문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sup>48)</sup> 5만개, 청년 일경험 지원<sup>49)</sup> 5만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개로 구성해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가 40만개, 민간부문 신규일자리 15만개를 계획하였다.

이중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실업자를 채용하게 되면 최대 600만원(월 100만원\*6개월, 중견기업은 480만원=월 80만원\*6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고용촉

48)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올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최대 6만 명까지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한다.

49)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올해 최대 5만명까지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을 단기 채용해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기업에 월 최대 80만 원의 인건비와 관리비 1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로 인해 기업의 채용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기업에 단기 채용 여력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진장려금을 확대하였다.

공공일자리 30만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생활방역과 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공공일자리 성격이 강했다. 주로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이며, 일자리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이 적고 기간도 짧으며 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수준이었다.

지난 해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22만 6천개 사업장에서 총 671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20년 11월 기준, 3·4차 추경사업 제외). 이중 총 80만 4천명의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조 및 일경험 기회가 제공(19년에 비해 11만 2천명 증가)됐고, 이외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용노동부, 2021.07.05.).

그러나 지난해 33조 6000억원이 투입된 재정 일자리사업의 평가는 초라했다. 10곳 중 3곳은 개선이나 예산 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평가됐다. 특히, 민간부문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와 청년 일경험 지원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단기 일자리 지원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향후 정규직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었지만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지원을 받아 민간기업 취업에 성공한 경우는 10명 중 4명에 그쳤고, 그나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신산업 분야와의 미스매칭은 여전했다(고용노동부, 2021.06.09.).

또한, 정부가 만든 일자리는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일자리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만든 일자리 가운데 최소 9만 8천개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8,720원) 이하이고, 근로기간도 최대 6개월로 너무 짧았다.

한편, 정부는 공공일자리 53만개(20년 기준)를 만들어 공공일자리 목표의 95.7%를 달성했지만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일자리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임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20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에 의하면 공공행정업의 임시직 비중은 32.6%로 전년 동기 대비 3.2%p 증가하였고, 저임금 노동자는 월평균 임금기준으로 31만 7천명 (27.9%)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명(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는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위기대응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일회적, 임시방편적 대응이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용노동부, 2021. 07.08.).

이러한 일자리 정책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우리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지난 해 정부는 일자리 숫자를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한국사회 구조 개혁 대안과 연결시키는 데 미흡했다. 국가의 일자리 사업은 변화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고려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계층간 불평등 완화와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려는 목표 하에 중장기적 전략 속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사회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를 예상하고, 성장산업과 쇠퇴산업 간의 인력 대체와 보완관계를 고려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보상 정책이 담겨있어야 한다.

비대면 생활과 비대면 산업의 확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적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 주요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일하는 방식과 산업 및 고용 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하는 방식뿐만 생산, 유통, 서비스까지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에 있다. 디지털·비대면 산업은 그 특성상 고용 없는 성장(jobless recovery)을 낳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인력수요를 고려한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자리는 생계를 유지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

이다. 위기 시에 국민이 의지할 곳은 조직적 힘을 갖는 정부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에게 일자리의 양과 질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

## 5. 초기업적 노조운동으로 위기 극복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타격을 받은 노동자들 대부분이 조합원이 아니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영세사업체의 개별화된 노동자들 이다보니 기존의 노동조합이 설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가 집중된 업종의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면, 숙박음식업 1.6%, 도소매업 5.6%, 기타개인서비스업 6.4% 등으로 대부분 조직률이 낮고, 중소기업 사업장이거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업종들이다. 급기야 지난 1월 자영업자들이 모여 한국자영업자노조가 출범하기도 하였다(매일노동뉴스, 2021.01.26.).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기업별 노조 수준이 아닌 적어도 산업별 혹은 총 노동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코로나19로 노동조합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계층이 심한 타격을 받음에 따라 대기업 정규직 위주의 기업별노조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 노조운동의 한계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더 나아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노조운동이 노동조합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거나 전체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노동조합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역할을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변화하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사회 개혁의 의제를 발굴하고 조직하는 것을 활동 목표이자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노동조합 총연맹은 초기업적 노조운

동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아 노동자 연대의 틀을 만드는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은 기업, 산업, 업종, 지역을 넘나드는 다양한 차원의 연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연대와 타협에 기초하여 고용, 소득 등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야 한다.

노동조합은 이미 “노동조합”이라는 강력한 조직을 도구로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딛고 우리사회 개혁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 참고문헌

권영준(2009.6), 「취약계층 노동자의 정의 및 국내 실태」,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 1』.

고용노동부(2020.03.16.),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2020.03.25.), 「사상 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보도자료(2020. 9. 28),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보도자료(2021.5.28.), 2021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2020.12.22.),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2021.03.17.),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기존 업종 지원기간 연장 결정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2021.07.05.), 「빠르고 강한 회복, 포용적 회복을 위해 평가체계 강화. 적용」,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2021.06.09.), 「일자리사업, 코로나 고용충격 완화 기여...노동시장 회복 집중지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2021.07.08.), 「임시직 비중 증가, 코로나 고용위기 대응 일자리 정책 등에 따른 것」,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고용노동부(2021.08.11.), 「제15차 고용위기대응반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2021.09.01.),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2021.09.16.),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고용 유지지원금 지원기간 30일 추가 연장」,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2020.05.14), 「공공일자리 156만개 긴급 제공…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재개, 청년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55만개+ $\alpha$ ' 추가 마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노대명(2006),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장애인고용』, 16(1): 115-146.
- 매일경제(2021.09.01.), 「항공산업 노조 16곳, "4분기 고용유지지원금 연장해주세요"」.
- 매일노동뉴스(2021.01.26.), 「코로나19 타격 자영업자들 노조 만들었다」.
- 박진희·정재현(2021), 「최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특성과 증가원인 분석」, 『계간 고용이슈』 2021 여름호, 한국고용정보원.
- 성재민(2021), 「사업체 규모 간 임금 격차 추이와 몇 가지 원인 분석」, 『월간 노동리뷰』 2021-7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신경희(2020), 「코로나19 관련 해외의 중소기업(SMEs) 지원정책 동향」, 『자본시장 포커스』 2020-15호, 자본시장연구원.
- 오상봉(2020),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개편방안」, 『고용·노동브리프』 제99호, 한국노동연구원.

이승우·류미경·정경은(2020), 「코로나19 대응 해외 사례 분석」, 『이슈페이퍼』  
2020-03, 민주노동연구원.

이재성·정한나·안준기·김하영(2016),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  
구』, 한국고용정보원.

이창근(2020),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용·실업대책 개선 방향」, 『이슈페이퍼』  
2020-06호, PPIP사회공공연구원.

이창근(2021), 「코로나 1년, 고용·실업대책 실적 분석」, 『이슈페이퍼』  
2021-04, 민주노동연구원.

정가원·김난주·김효주·권도연(2020), 「보건복지분야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성  
평등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보건복지부.

조민수(2021.1), 「지역 고용동향 심층분석-지역별 임금불평등의 변화」, 『지  
역 고용동향 브리프』 2020년 겨울호, 한국고용정보원.

중소기업중앙회(2020),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지원대책」, KBIZ중소기  
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2021.04.02.), 「특별고용지원업종 中企 60% 소득세·법인  
세감면 원해」, 중기중앙회 보도자료.

한국은행(2020),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  
『국제경제리뷰』, 한국은행 조사국 미국유럽경제팀.

ILO Policy Brief(July 2021), “Building Forward Fairer: Women’s  
rights to work and at work at the core of the COVID-19  
recovery”.

R., Joyce, and X. Xu (2020), “Sector shutdowns during the coronavirus crisis: which workers are most exposed?”, IFS Briefing Note, No. BN278,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London.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2006), *Protecting vulnerable workers, supporting good employers*,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UK.

OECD(2020a), *Employment Outlook 2020 : Worker Security and the COVID-19 Crisis*.

OECD(2020b), “Job retention schemes during the Covid-19 lockdown and beyond”, Updated 2020.10.12.

OECD(2020c),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COVID-19)(2020d), “*Women at the core of the fight against COVID-19 crisis*”, 2020.4.1.

## 인터넷 사이트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retrieveEi0102Info.do>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https://www.pass.or.kr/social-servicecenter-introduction-state/index/sido>

## <부록>

### <2장 부표>

<부표 2-1> 경제성장률과 주요 고용지표 연도별 추이(1965~2020)

(단위: 천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1	고용률 1	실업률	경제 활동 참가율 2	고용률 2	경제 성장률
		소계	취업자	실업자							
1965	15,367	8,754	8,112	642	6,613	52.8	-	-			7.3
1966	15,753	8,957	8,325	632	6,796	56.9	52.8	7.1			12
1967	16,121	9,180	8,624	556	6,941	56.9	53.5	6.1			9.1
1968	16,456	9,541	9,061	480	6,915	58.0	55.1	5.0			13.2
1969	16,852	9,747	9,285	462	7,105	57.8	55.1	4.7			14.6
1970	17,468	10,062	9,617	445	7,407	57.6	55.1	4.4			10.1
1971	18,118	10,407	9,946	461	7,711	57.4	54.9	4.4			10.5
1972	18,819	10,865	10,379	486	7,954	57.7	55.2	4.5			7.2
1973	19,490	11,389	10,942	447	8,101	58.4	56.1	3.9			14.9
1974	20,187	11,900	11,421	479	8,287	58.9	56.6	4.0			9.5
1975	20,918	12,193	11,691	501	8,726	58.3	55.9	4.1			7.8
1976	21,630	12,911	12,412	499	8,718	59.7	57.4	3.9			13.2
1977	22,407	13,316	12,812	504	9,090	59.4	57.2	3.8			12.3
1978	23,130	13,849	13,412	437	9,281	59.9	58.0	3.2			11
1979	23,787	14,142	13,602	540	9,646	59.5	57.2	3.8			8.7
1980	24,463	14,431	13,683	748	10,032	59.0	55.9	5.2			-1.6
1981	25,100	14,683	14,023	660	10,417	58.5	55.9	4.5			7.2
1982	25,638	15,032	14,379	654	10,605	58.6	56.1	4.4			8.3
1983	26,212	15,118	14,505	613	11,094	57.7	55.3	4.1			13.4
1984	26,861	14,997	14,429	568	11,865	55.8	53.7	3.8			10.6
1985	27,553	15,592	14,970	622	11,961	56.6	54.3	4.0			7.8
1986	28,225	16,116	15,505	611	12,109	57.1	54.9	3.8			11.3
1987	28,955	16,873	16,354	519	12,082	58.3	56.5	3.1			12.7
1988	29,602	17,305	16,869	435	12,298	58.5	57.0	2.5			12
1989	30,265	18,023	17,560	463	12,242	59.6	58.0	2.6			7.1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1	고용률 1	실업률	경제 활동 참가율 2	고용률 2	경제 성장률
		소계	취업자	실업자							
1990	30,887	18,539	18,085	454	12,348	60.0	58.6	2.4			9.9
1991	31,535	19,109	18,649	461	12,426	60.6	59.1	2.4			10.8
1992	32,020	19,499	19,009	490	12,521	60.9	59.4	2.5			6.2
1993	32,526	19,806	19,234	571	12,720	60.9	59.1	2.9			6.9
1994	33,046	20,353	19,848	504	12,693	61.6	60.1	2.5			9.3
1995	33,659	20,845	20,414	430	12,814	61.9	60.6	2.1			9.6
1996	34,274	21,288	20,853	435	12,986	62.1	60.8	2.0			7.9
1997	34,851	21,782	21,214	568	13,070	62.5	60.9	2.6			6.2
1998	35,347	21,428	19,938	1,490	13,919	60.6	56.4	7.0			-5.1
1999	35,757	21,665	20,291	1,374	14,092	60.6	56.7	6.3			11.5
2000	36,192	22,086	21,173	913	14,107	61.0	58.5	4.1	64.5	61.5	9.1
2001	36,608	22,458	21,614	844	14,151	61.3	59.0	3.8	64.9	62.2	4.9
2002	37,014	22,939	22,232	708	14,075	62.0	60.1	3.1	65.6	63.4	7.7
2003	37,410	23,002	22,222	781	14,408	61.5	59.4	3.4	65.5	63.0	3.1
2004	37,772	23,497	22,682	815	14,275	62.2	60.0	3.5	66.3	63.8	5.2
2005	38,120	23,665	22,831	834	14,454	62.1	59.9	3.5	66.3	63.7	4.3
2006	38,632	23,980	23,188	791	14,652	62.1	60.0	3.3	66.4	64.0	5.3
2007	39,180	24,302	23,561	740	14,878	62.0	60.1	3.0	66.4	64.1	5.8
2008	39,775	24,507	23,775	732	15,269	61.6	59.8	3.0	66.2	64.0	3
2009	40,301	24,522	23,688	834	15,780	60.8	58.8	3.4	65.5	63.0	0.8
2010	40,825	24,868	24,033	835	15,956	60.9	58.9	3.4	65.9	63.4	6.8
2011	41,387	25,293	24,527	767	16,094	61.1	59.3	3.0	66.2	63.9	3.7
2012	41,857	25,683	24,955	728	16,174	61.4	59.6	2.8	66.5	64.3	2.4
2013	42,304	26,021	25,299	721	16,283	61.5	59.8	2.8	66.8	64.6	3.2
2014	42,795	26,733	25,897	836	16,062	62.5	60.5	3.1	68.0	65.6	3.2
2000	36,192	22,151	21,173	978	14,041	61.2	58.5	4.4	64.5	61.5	9.1
2001	36,608	22,511	21,614	898	14,097	61.5	59.0	4.0	64.9	62.2	4.9
2002	37,014	22,982	22,232	751	14,032	62.1	60.1	3.3	65.6	63.4	7.7
2003	37,410	23,043	22,222	821	14,368	61.6	59.4	3.6	65.5	63	3.1
2004	37,772	23,544	22,682	862	14,228	62.3	60.0	3.7	66.3	63.8	5.2
2005	38,120	23,718	22,831	887	14,401	62.2	59.9	3.7	66.3	63.7	4.3
2006	38,632	24,024	23,188	836	14,608	62.2	60.0	3.5	66.4	64	5.3
2007	39,180	24,351	23,561	790	14,829	62.2	60.1	3.2	66.4	64.1	5.8

## 484 | 코로나19 위기와 노동시장 충격-취약노동계층에 미친 영향과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1	고용률 1	실업률	경제 활동 참가율 2	고용률 2	경제 성장률
		소계	취업자	실업자							
2008	39,775	24,551	23,775	776	15,225	61.7	59.8	3.2	66.2	64	3.0
2009	40,301	24,582	23,688	894	15,719	61.0	58.8	3.6	65.5	63	0.8
2010	40,825	24,956	24,033	924	15,868	61.1	58.9	3.7	65.9	63.4	6.8
2011	41,387	25,389	24,527	863	15,998	61.3	59.3	3.4	66.2	63.9	3.7
2012	41,857	25,781	24,955	826	16,076	61.6	59.6	3.2	66.5	64.3	2.4
2013	42,304	26,108	25,299	808	16,196	61.7	59.8	3.1	66.8	64.6	3.2
2014	42,795	26,836	25,897	939	15,959	62.7	60.5	3.5	68.0	65.6	3.2
2015	43,239	27,153	26,178	976	16,086	62.8	60.5	3.6	68.4	65.9	2.8
2016	43,606	27,418	26,409	1,009	16,187	62.9	60.6	3.7	68.7	66.1	2.9
2017	43,931	27,748	26,725	1,023	16,183	63.2	60.8	3.7	69.2	66.6	3.2
2018	44,182	27,895	26,822	1,073	16,287	63.1	60.7	3.8	69.3	66.6	2.9
2019	44,504	28,186	27,123	1,063	16,318	63.3	60.9	3.8	69.5	66.8	2.2
2020	44,785	28,012	26,904	1,108	16,773	62.5	60.1	4.0	68.6	65.9	-0.9

- 주: 1) 경제활동참가율1=(경제활동인구/15세이상 인구)\*100, 경제활동참가율2(15~64세)  
 2)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2000년 이전 실업자, 실업률은 구직기간 1주기준임.  
 3) 고용률1=(취업자/15세이상 인구)\*100, 고용률2: OECD기준(15~64세) 고용률  
 4) 경제성장률=국내총생산증감률(GDP). 2015년 기준년 계열임. 2020년은 잠정치임.  
 5) 실업자의 구직기준이 1주에서 4주로 변경됨에 따라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두 개의 실업자(실업률)와 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참가율)를 병행 제공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2021.04.09. 추출).

e-나라지표 일반고용동향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494&stts\\_cd=149406&freq=Y](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494&stts_cd=149406&freq=Y)) : 경제활동참가율2, 고용률2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연도: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부표 2-2> 주요 고용지표 증감 추이(1966~2020)

(단위: 천 명, %)

구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규모	증감률	증감규모	증감률	증감규모	증감률
1966	213	2.6	-10	-1.6	183	2.8
1967	299	3.6	-76	-12.0	145	2.1
1968	437	5.1	-76	-13.7	-26	-0.4
1969	224	2.5	-18	-3.8	190	2.7
1970	332	3.6	-17	-3.7	302	4.3
1971	329	3.4	16	3.6	304	4.1
1972	433	4.4	25	5.4	243	3.2
1973	563	5.4	-39	-8.0	147	1.8
1974	479	4.4	32	7.2	186	2.3
1975	270	2.4	22	4.6	439	5.3
1976	721	6.2	-2	-0.4	-8	-0.1
1977	400	3.2	5	1.0	372	4.3
1978	600	4.7	-67	-13.3	191	2.1
1979	190	1.4	103	23.6	365	3.9
1980	81	0.6	208	38.5	386	4.0
1981	340	2.5	-88	-11.8	385	3.8
1982	356	2.5	-6	-0.9	188	1.8
1983	126	0.9	-41	-6.3	489	4.6
1984	-76	-0.5	-45	-7.3	771	6.9
1985	541	3.7	54	9.5	96	0.8
1986	535	3.6	-11	-1.8	148	1.2
1987	849	5.5	-92	-15.1	-27	-0.2
1988	515	3.1	-84	-16.2	216	1.8
1989	691	4.1	28	6.4	-56	-0.5
1990	525	3.0	-9	-1.9	106	0.9
1991	564	3.1	7	1.5	78	0.6
1992	360	1.9	29	6.3	95	0.8
1993	225	1.2	81	16.5	199	1.6
1994	614	3.2	-67	-11.7	-27	-0.2
1995	566	2.9	-74	-14.7	121	1.0

486 | 코로나19 위기와 노동시장 충격-취약노동계층에 미친 영향과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구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규모	증감률	증감규모	증감률	증감규모	증감률
1996	439	2.2	5	1.2	172	1.3
1997	361	1.7	133	30.6	84	0.6
1998	-1,276	-6.0	922	162.3	849	6.5
1999	353	1.8	-116	-7.8	173	1.2
2000	882	4.3	-461	-33.6	15	0.1
2001	441	2.1	-69	-7.6	44	0.3
2002	618	2.9	-136	-16.1	-76	-0.5
2003	-10	0.0	73	10.3	333	2.4
2004	460	2.1	34	4.4	-133	-0.9
2005	149	0.7	19	2.3	179	1.3
2006	357	1.6	-43	-5.2	198	1.4
2007	373	1.6	-51	-6.4	226	1.5
2008	214	0.9	-8	-1.1	391	2.6
2009	-87	-0.4	102	13.9	511	3.3
2010	345	1.5	1	0.1	176	1.1
2011	494	2.1	-68	-8.1	138	0.9
2012	428	1.7	-39	-5.1	80	0.5
2013	344	1.4	-7	-1.0	109	0.7
2014	598	2.4	115	16.0	-221	-1.4
2000	-	-	-	-	-	-
2001	441	2.1	-80	-8.2	56	0.4
2002	618	2.9	-147	-16.4	-65	-0.5
2003	-10	0.0	70	9.3	336	2.4
2004	460	2.1	41	5.0	-140	-1.0
2005	149	0.7	25	2.9	173	1.2
2006	357	1.6	-51	-5.7	207	1.4
2007	373	1.6	-46	-5.5	221	1.5
2008	214	0.9	-14	-1.8	396	2.7
2009	-87	-0.4	118	15.2	494	3.2
2010	345	1.5	30	3.4	149	0.9
2011	494	2.1	-61	-6.6	130	0.8
2012	428	1.7	-37	-4.3	78	0.5

구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규모	증감률	증감규모	증감률	증감규모	증감률
2013	344	1.4	-18	-2.2	120	0.7
2014	598	2.4	131	16.2	-237	-1.5
2015	281	1.1	37	3.9	127	0.8
2016	231	0.9	33	3.4	101	0.6
2017	316	1.2	14	1.4	-4	0.0
2018	97	0.4	50	4.9	104	0.6
2019	301	1.1	-10	-0.9	31	0.2
2020	-219	-0.8	45	4.2	455	2.8

주: 1) 전년 대비 증감률=(금년도/전년도)\*100-100, 또는 {(금년도-전년도)/전년도}\*100  
 2) 실업자의 구직기준이 1주에서 4주로 변경됨에 따라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두 개의 실업자와 경제활동인구가 병행 제공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2021.04.09. 추출).

〈부표 2-3〉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별 추이(2000~2020)

(단위: 천 명, %)

	구분	계	육아	가사	통학 <sup>1)</sup>	연로	심신 장애	기타 <sup>2)</sup>	고용보조지표		
									쉬었음	구직 단념자 <sup>3)</sup>	취업 준비자 <sup>4)</sup>
규모	2000	14,041	1,771	4,992	4,335	1,328	331	1,285		164	
	2001	14,097	1,679	5,123	4,182	1,287	379	1,448		116	
	2002	14,032	1,565	5,240	4,092	1,279	414	1,443		69	
	2003	14,368	1,509	5,154	3,982	1,649	452	1,621	909	90	346
	2004	14,228	1,513	5,184	3,814	1,512	468	1,737	1,032	101	382
	2005	14,401	1,510	5,155	3,828	1,450	471	1,988	1,228	124	458
	2006	14,608	1,516	5,195	3,973	1,429	467	2,029	1,267	121	532
	2007	14,829	1,510	5,304	4,093	1,400	447	2,075	1,313	108	554
	2008	15,225	1,573	5,402	4,237	1,492	439	2,081	1,353	119	608
	2009	15,719	1,609	5,569	4,295	1,587	451	2,210	1,475	162	600
	2010	15,868	1,486	5,771	4,314	1,664	445	2,188	1,419	220	632
	2011	15,998	1,487	5,874	4,278	1,604	419	2,338	1,608	212	582
	2012	16,076	1,486	5,976	4,264	1,737	393	2,220	1,551	196	563
	2013	16,196	1,483	5,984	4,301	1,811	403	2,214	1,544	173	569
	2014	15,959	1,439	5,861	4,222	1,903	424	2,110	1,455	394	556
	2015	16,086	1,442	5,815	4,082	2,013	437	2,297	1,594	463	603
	2016	16,187	1,363	5,866	4,032	2,122	447	2,359	1,628	448	624
	2017	16,183	1,266	5,873	3,941	2,203	431	2,469	1,736	481	669
	2018	16,287	1,191	5,949	3,835	2,218	428	2,667	1,855	524	693
	2019	16,318	1,175	5,812	3,708	2,221	427	2,976	2,092	533	748
2020	16,773	1,188	5,966	3,616	2,257	442	3,304	2,374	605	791	
비중	2000	100.0	12.6	35.6	30.9	9.5	2.4	9.2	0.0	1.2	0.0
	2001	100.0	11.9	36.3	29.7	9.1	2.7	10.3	0.0	0.8	0.0
	2002	100.0	11.2	37.3	29.2	9.1	3.0	10.3	0.0	0.5	0.0
	2003	100.0	10.5	35.9	27.7	11.5	3.1	11.3	6.3	0.6	2.4
	2004	100.0	10.6	36.4	26.8	10.6	3.3	12.2	7.3	0.7	2.7
	2005	100.0	10.5	35.8	26.6	10.1	3.3	13.8	8.5	0.9	3.2
	2006	100.0	10.4	35.6	27.2	9.8	3.2	13.9	8.7	0.8	3.6
	2007	100.0	10.2	35.8	27.6	9.4	3.0	14.0	8.9	0.7	3.7
	2008	100.0	10.3	35.5	27.8	9.8	2.9	13.7	8.9	0.8	4.0
	2009	100.0	10.2	35.4	27.3	10.1	2.9	14.1	9.4	1.0	3.8
	2010	100.0	9.4	36.4	27.2	10.5	2.8	13.8	8.9	1.4	4.0
	2011	100.0	9.3	36.7	26.7	10.0	2.6	14.6	10.1	1.3	3.6
	2012	100.0	9.2	37.2	26.5	10.8	2.4	13.8	9.6	1.2	3.5
	2013	100.0	9.2	36.9	26.6	11.2	2.5	13.7	9.5	1.1	3.5

	구분	계	육아	가사	통학 <sup>1)</sup>	연로	심신 장애	기타 <sup>2)</sup>	고용보조지표		
									쉬었음	구직 단념자 <sup>3)</sup>	취업 준비자 <sup>4)</sup>
	2014	100.0	9.0	36.7	26.5	11.9	2.7	13.2	9.1	2.5	3.5
	2015	100.0	9.0	36.1	25.4	12.5	2.7	14.3	9.9	2.9	3.7
	2016	100.0	8.4	36.2	24.9	13.1	2.8	14.6	10.1	2.8	3.9
	2017	100.0	7.8	36.3	24.4	13.6	2.7	15.3	10.7	3.0	4.1
	2018	100.0	7.3	36.5	23.5	13.6	2.6	16.4	11.4	3.2	4.3
	2019	100.0	7.2	35.6	22.7	13.6	2.6	18.2	12.8	3.3	4.6
	2020	100.0	7.1	35.6	21.6	13.5	2.6	19.7	14.2	3.6	4.7
증감	2000	-	-	-	-	-	-	-	-	-	-
	2001	56	-92	131	-153	-41	48	163	0	-48	0
	2002	-65	-114	117	-90	-8	35	-5	0	-47	0
	2003	336	-56	-86	-110	370	38	178	909	21	346
	2004	-140	4	30	-168	-137	16	116	123	11	36
	2005	173	-3	-29	14	-62	3	251	196	23	76
	2006	207	6	40	145	-21	-4	41	39	-3	74
	2007	221	-6	109	120	-29	-20	46	46	-13	22
	2008	396	63	98	144	92	-8	6	40	11	54
	2009	494	36	167	58	95	12	129	122	43	-8
	2010	149	-123	202	19	77	-6	-22	-56	58	32
	2011	130	1	103	-36	-60	-26	150	189	-8	-50
	2012	78	-1	102	-14	133	-26	-118	-57	-16	-19
	2013	120	-3	8	37	74	10	-6	-7	-23	6
	2014	-237	-44	-123	-79	92	21	-104	-89	221	-13
	2015	127	3	-46	-140	110	13	187	139	69	47
	2016	101	-79	51	-50	109	10	62	34	-15	21
	2017	-4	-97	7	-91	81	-16	110	108	33	45
	2018	104	-75	76	-106	15	-3	198	119	43	24
	2019	31	-16	-137	-127	3	-1	309	237	9	55
2020	455	13	154	-92	36	15	328	282	72	43	
증감률	2000	-	-	-	-	-	-	-	-	-	-
	2001	0.4	-5.2	2.6	-3.5	-3.1	14.5	12.7	-	-29.3	-
	2002	-0.5	-6.8	2.3	-2.2	-0.6	9.2	-0.3	-	-40.5	-
	2003	2.4	-3.6	-1.6	-2.7	28.9	9.2	12.3	-	30.4	-
	2004	-1.0	0.3	0.6	-4.2	-8.3	3.5	7.2	13.5	12.2	10.4
	2005	1.2	-0.2	-0.6	0.4	-4.1	0.6	14.5	19.0	22.8	19.9
	2006	1.4	0.4	0.8	3.8	-1.4	-0.8	2.1	3.2	-2.4	16.2
	2007	1.5	-0.4	2.1	3.0	-2.0	-4.3	2.3	3.6	-10.7	4.1
	2008	2.7	4.2	1.8	3.5	6.6	-1.8	0.3	3.0	10.2	9.7

구분	계	육아	가사	통학 <sup>1)</sup>	연로	심신 장애	기타 <sup>2)</sup>	고용보조지표			
								쉬었음	구직 단념자 <sup>3)</sup>	취업 준비자 <sup>4)</sup>	
2009	3.2	2.3	3.1	1.4	6.4	2.7	6.2	9.0	36.1	-1.3	
2010	0.9	-7.6	3.6	0.4	4.9	-1.3	-1.0	-3.8	35.8	5.3	
2011	0.8	0.1	1.8	-0.8	-3.6	-5.8	6.9	13.3	-3.6	-7.9	
2012	0.5	-0.1	1.7	-0.3	8.3	-6.2	-5.0	-3.5	-7.5	-3.3	
2013	0.7	-0.2	0.1	0.9	4.3	2.5	-0.3	-0.5	-11.7	1.1	
2014	-1.5	-3.0	-2.1	-1.8	5.1	5.2	-4.7	-5.8	127.7	-2.3	
2015	0.8	0.2	-0.8	-3.3	5.8	3.1	8.9	9.6	17.5	8.5	
2016	0.6	-5.5	0.9	-1.2	5.4	2.3	2.7	2.1	-3.2	3.5	
2017	0.0	-7.1	0.1	-2.3	3.8	-3.6	4.7	6.6	7.4	7.2	
2018	0.6	-5.9	1.3	-2.7	0.7	-0.7	8.0	6.9	8.9	3.6	
2019	0.2	-1.3	-2.3	-3.3	0.1	-0.2	11.6	12.8	1.7	7.9	
2020	2.8	1.1	2.6	-2.5	1.6	3.5	11.0	13.5	13.5	5.7	

- 주: 1)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수강,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등을 포함  
 2) 학원·기관 수강 외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대기, 쉬었음 등을 포함  
 3)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를 의미함. 고용보조지표 작성을 위해 구직단념자의 조건 중 취업희망과 취업가능성의 개념을 확대·변경하게 되어 2014년 이전 자료와 비교시 유의  
 4) '재학수강 등' 중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과 '기타' 중 학원·기관 수강 외 취업준비의 합계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2021.09.13. 추출).



<부표 2-4> 일시휴직자 추이(1980~2020)

(단위: 천 명, %)

구분	규모			증감			증감률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1980	42	32	10	-	-	-	-	-	-
1981	31	25	6	-11	-7	-4	-26.2	-21.9	-40.0
1982	18	15	3	-13	-10	-3	-41.9	-40.0	-50.0
1983	39	30	9	21	15	6	116.7	100.0	200.0
1984	64	44	20	25	14	11	64.1	46.7	122.2
1985	61	45	17	-3	1	-3	-4.7	2.3	-15.0
1986	75	51	24	14	6	7	23.0	13.3	41.2
1987	109	77	32	34	26	8	45.3	51.0	33.3
1988	101	69	31	-8	-8	-1	-7.3	-10.4	-3.1
1989	122	80	41	21	11	10	20.8	15.9	32.3
1990	105	65	40	-17	-15	-1	-13.9	-18.8	-2.4
1991	121	74	48	16	9	8	15.2	13.8	20.0
1992	156	92	64	35	18	16	28.9	24.3	33.3
1993	135	79	56	-21	-13	-8	-13.5	-14.1	-12.5
1994	139	75	64	4	-4	8	3.0	-5.1	14.3
1995	140	73	67	1	-2	3	0.7	-2.7	4.7
1996	149	80	69	9	7	2	6.4	9.6	3.0
1997	178	97	81	29	17	12	19.5	21.3	17.4
1998	239	146	93	61	49	12	34.3	50.5	14.8
1999	225	125	99	-14	-21	6	-5.9	-14.4	6.5
2000	208	114	94	-17	-11	-5	-7.6	-8.8	-5.1
2001	226	125	101	18	11	7	8.7	9.6	7.4
2002	241	126	115	15	1	14	6.6	0.8	13.9
2003	286	148	138	45	22	23	18.7	17.5	20.0
2004	314	161	153	28	13	15	9.8	8.8	10.9
2005	332	175	156	18	14	3	5.7	8.7	2.0
2006	321	165	155	-11	-10	-1	-3.3	-5.7	-0.6
2007	331	156	175	10	-9	20	3.1	-5.5	12.9
2008	351	161	190	20	5	15	6.0	3.2	8.6
2009	367	177	190	16	16	0	4.6	9.9	0.0

492 | 코로나19 위기와 노동시장 충격-취약노동계층에 미친 영향과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구분	규모			증감			증감률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2010	375	167	208	8	-10	18	2.2	-5.6	9.5
2011	424	181	243	49	14	35	13.1	8.4	16.8
2012	414	168	245	-10	-13	2	-2.4	-7.2	0.8
2013	414	163	251	0	-5	6	0.0	-3.0	2.4
2014	413	167	246	-1	4	-5	-0.2	2.5	-2.0
2015	406	158	248	-7	-9	2	-1.7	-5.4	0.8
2016	413	154	259	7	-4	11	1.7	-2.5	4.4
2017	382	136	246	-31	-18	-13	-7.5	-11.7	-5.0
2018	403	159	244	21	23	-2	5.5	16.9	-0.8
2019	407	163	244	4	4	0	1.0	2.5	0.0
2020	837	338	499	430	175	255	105.7	107.4	104.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2021.09.11. 추출).

〈부표 2-5〉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추이(1963~2020)

(단위: 천 명)

구분	취업자 전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소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소계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1963	7,563	2,383	-	-	963	5,178	2,817	-	-	2,361
1964	7,698	2,363	-	-	861	5,334	2,848	-	-	2,486
1965	8,112	2,609	-	-	844	5,500	2,984	-	-	2,516
1966	8,325	2,780	-	-	908	5,543	3,009	-	-	2,534
1967	8,624	3,040	-	-	943	5,582	3,124	-	-	2,458
1968	9,061	3,400	-	-	1,037	5,659	3,184	-	-	2,475
1969	9,285	3,547	-	-	1,015	5,736	3,238	-	-	2,498
1970	9,617	3,746	-	-	1,018	5,872	3,286	-	-	2,586
1971	9,946	3,923	-	-	1,046	6,024	3,396	-	-	2,628
1972	10,379	4,005	-	-	1,153	6,377	3,554	-	-	2,823
1973	10,942	4,153	-	-	1,160	6,789	3,780	-	-	3,009
1974	11,421	4,444	-	-	1,101	6,979	4,007	-	-	2,972
1975	11,691	4,751	-	-	1,123	6,940	4,008	-	-	2,932
1976	12,412	5,140	-	-	1,139	7,273	4,258	-	-	3,015
1977	12,812	5,714	-	-	1,426	7,099	4,287	-	-	2,812
1978	13,412	6,242	-	-	1,454	7,171	4,445	-	-	2,726
1979	13,602	6,479	-	-	1,421	7,124	4,571	-	-	2,553
1980	13,683	6,464	-	-	1,300	7,220	4,651	643	4,008	2,569
1981	14,023	6,605	-	-	1,231	7,420	4,735	649	4,086	2,685
1982	14,379	6,839	-	-	1,256	7,541	4,910	689	4,221	2,631
1983	14,505	7,170	-	-	1,162	7,335	4,897	776	4,121	2,438
1984	14,429	7,631	-	-	1,295	6,798	4,578	800	3,778	2,220
1985	14,970	8,104	-	-	1,390	6,866	4,679	845	3,834	2,187
1986	15,505	8,433	-	-	1,454	7,072	4,868	890	3,978	2,204
1987	16,354	9,191	-	-	1,528	7,164	4,994	973	4,021	2,170
1988	16,869	9,610	-	-	1,496	7,260	5,093	1,023	4,070	2,167
1989	17,560	10,390	5,690	2,973	1,727	7,171	5,051	1,084	3,967	2,119
1990	18,085	10,950	5,938	3,171	1,840	7,135	5,068	1,168	3,900	2,067
1991	18,649	11,699	6,497	3,362	1,840	6,950	4,977	1,291	3,686	1,974
1992	19,009	11,911	6,838	3,301	1,772	7,097	5,169	1,370	3,800	1,928
1993	19,234	11,944	7,033	3,193	1,718	7,290	5,258	1,364	3,895	2,032

구분	취업자 전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소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소계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소계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1994	19,848	12,479	7,225	3,475	1,779	7,370	5,376	1,463	3,913	1,994
1995	20,414	12,899	7,499	3,598	1,802	7,515	5,569	1,520	4,049	1,946
1996	20,853	13,200	7,499	3,907	1,794	7,653	5,710	1,605	4,105	1,943
1997	21,214	13,404	7,282	4,236	1,886	7,810	5,901	1,639	4,262	1,908
1998	19,938	12,296	6,534	4,042	1,720	7,641	5,616	1,392	4,225	2,025
1999	20,291	12,663	6,135	4,254	2,274	7,628	5,703	1,351	4,351	1,925
2000	21,173	13,356	6,397	4,602	2,357	7,817	5,876	1,455	4,421	1,941
2001	21,614	13,659	6,717	4,722	2,220	7,955	6,071	1,548	4,523	1,884
2002	22,232	14,206	6,879	4,891	2,436	8,026	6,212	1,614	4,598	1,814
2003	22,222	14,449	7,301	5,015	2,133	7,773	6,066	1,630	4,436	1,707
2004	22,682	14,936	7,651	5,092	2,194	7,746	6,161	1,677	4,484	1,585
2005	22,831	15,186	7,923	5,059	2,205	7,645	6,141	1,656	4,486	1,503
2006	23,188	15,608	8,248	5,163	2,197	7,580	6,109	1,630	4,479	1,471
2007	23,561	16,095	8,715	5,202	2,178	7,467	6,048	1,567	4,481	1,419
2008	23,775	16,357	9,105	5,122	2,130	7,418	6,005	1,538	4,467	1,413
2009	23,688	16,586	9,479	5,134	1,973	7,102	5,749	1,532	4,217	1,352
2010	24,033	17,111	10,178	5,107	1,826	6,922	5,643	1,515	4,127	1,279
2011	24,527	17,596	10,786	5,045	1,765	6,930	5,657	1,526	4,132	1,273
2012	24,955	17,921	11,250	5,032	1,639	7,034	5,768	1,570	4,199	1,266
2013	25,299	18,365	11,847	4,919	1,600	6,934	5,703	1,533	4,169	1,232
2014	25,897	18,959	12,319	5,069	1,570	6,939	5,720	1,581	4,139	1,219
2015	26,178	19,402	12,716	5,114	1,572	6,776	5,622	1,609	4,013	1,153
2016	26,409	19,669	13,062	5,124	1,483	6,740	5,614	1,584	4,030	1,126
2017	26,725	19,934	13,428	4,992	1,514	6,791	5,682	1,608	4,074	1,110
2018	26,822	20,084	13,772	4,851	1,460	6,739	5,638	1,651	3,987	1,101
2019	27,123	20,440	14,216	4,795	1,429	6,683	5,606	1,538	4,068	1,077
2020	26,904	20,332	14,521	4,483	1,328	6,573	5,531	1,372	4,159	1,042

주: 1)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하였음.

2) 취업자=비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3)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4)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 임금근로자=상용근로자+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2021.09.06. 추출).

<부표 2-6>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1963~2020)

(단위: 천 명)

구분	취업자 전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소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소계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소계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1963	-	-	-	-	-	-	-	-	-	-
1964	135	-20	-	-	-102	156	31	-	-	125
1965	414	246	-	-	-17	166	136	-	-	30
1966	213	171	-	-	64	43	25	-	-	18
1967	299	260	-	-	35	39	115	-	-	-76
1968	437	360	-	-	94	77	60	-	-	17
1969	224	147	-	-	-22	77	54	-	-	23
1970	332	199	-	-	3	136	48	-	-	88
1971	329	177	-	-	28	152	110	-	-	42
1972	433	82	-	-	107	353	158	-	-	195
1973	563	148	-	-	7	412	226	-	-	186
1974	479	291	-	-	-59	190	227	-	-	-37
1975	270	307	-	-	22	-39	1	-	-	-40
1976	721	389	-	-	16	333	250	-	-	83
1977	400	574	-	-	287	-174	29	-	-	-203
1978	600	528	-	-	28	72	158	-	-	-86
1979	190	237	-	-	-33	-47	126	-	-	-173
1980	81	-15	-	-	-121	96	80	-	-	16
1981	340	141	-	-	-69	200	84	6	78	116
1982	356	234	-	-	25	121	175	40	135	-54
1983	126	331	-	-	-94	-206	-13	87	-100	-193
1984	-76	461	-	-	133	-537	-319	24	-343	-218
1985	541	473	-	-	95	68	101	45	56	-33
1986	535	329	-	-	64	206	189	45	144	17
1987	849	758	-	-	74	92	126	83	43	-34
1988	515	419	-	-	-32	96	99	50	49	-3
1989	691	780	-	-	231	-89	-42	61	-103	-48
1990	525	560	248	198	113	-36	17	84	-67	-52
1991	564	749	559	191	0	-185	-91	123	-214	-93
1992	360	212	341	-61	-68	147	192	79	114	-46
1993	225	33	195	-108	-54	193	89	-6	95	104

구분	취업자 전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소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소계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소계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1994	614	535	192	282	61	80	118	99	18	-38
1995	566	420	274	123	23	145	193	57	136	-48
1996	439	301	0	309	-8	138	141	85	56	-3
1997	361	204	-217	329	92	157	191	34	157	-35
1998	-1,276	-1,108	-748	-194	-166	-169	-285	-247	-37	117
1999	353	367	-399	212	554	-13	87	-41	126	-100
2000	882	693	262	348	83	189	173	104	70	16
2001	441	303	320	120	-137	138	195	93	102	-57
2002	618	547	162	169	216	71	141	66	75	-70
2003	-10	243	422	124	-303	-253	-146	16	-162	-107
2004	460	487	350	77	61	-27	95	47	48	-122
2005	149	250	272	-33	11	-101	-20	-21	2	-82
2006	357	422	325	104	-8	-65	-32	-26	-7	-32
2007	373	487	467	39	-19	-113	-61	-63	2	-52
2008	214	262	390	-80	-48	-49	-43	-29	-14	-6
2009	-87	229	374	12	-157	-316	-256	-6	-250	-61
2010	345	525	699	-27	-147	-180	-106	-17	-90	-73
2011	494	485	608	-62	-61	8	14	11	5	-6
2012	428	325	464	-13	-126	104	111	44	67	-7
2013	344	444	597	-113	-39	-100	-65	-37	-30	-34
2014	598	594	472	150	-30	5	17	48	-30	-13
2015	281	443	397	45	2	-163	-98	28	-126	-66
2016	231	267	346	10	-89	-36	-8	-25	17	-27
2017	316	265	366	-132	31	51	68	24	44	-16
2018	97	150	344	-141	-54	-52	-44	43	-87	-9
2019	301	356	444	-56	-31	-56	-32	-113	81	-24
2020	-219	-108	305	-312	-101	-110	-75	-166	91	-35

주: 1)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하였음.

2) 취업자=비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3)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4)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 임금근로자=상용근로자+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2021.09.06. 추출).

〈부표 2-7〉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1963~2020)

(단위: %)

구분	취업자 전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소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소계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1964	1.8	-0.8	-	-	-10.6	3.0	1.1	-	-	5.3
1965	5.4	10.4	-	-	-2.0	3.1	4.8	-	-	1.2
1966	2.6	6.6	-	-	7.6	0.8	0.8	-	-	0.7
1967	3.6	9.4	-	-	3.9	0.7	3.8	-	-	-3.0
1968	5.1	11.8	-	-	10.0	1.4	1.9	-	-	0.7
1969	2.5	4.3	-	-	-2.1	1.4	1.7	-	-	0.9
1970	3.6	5.6	-	-	0.3	2.4	1.5	-	-	3.5
1971	3.4	4.7	-	-	2.8	2.6	3.3	-	-	1.6
1972	4.4	2.1	-	-	10.2	5.9	4.7	-	-	7.4
1973	5.4	3.7	-	-	0.6	6.5	6.4	-	-	6.6
1974	4.4	7.0	-	-	-5.1	2.8	6.0	-	-	-1.2
1975	2.4	6.9	-	-	2.0	-0.6	0.0	-	-	-1.3
1976	6.2	8.2	-	-	1.4	4.8	6.2	-	-	2.8
1977	3.2	11.2	-	-	25.2	-2.4	0.7	-	-	-6.7
1978	4.7	9.2	-	-	2.0	1.0	3.7	-	-	-3.1
1979	1.4	3.8	-	-	-2.3	-0.7	2.8	-	-	-6.3
1980	0.6	-0.2	-	-	-8.5	1.3	1.8	-	-	0.6
1981	2.5	2.2	-	-	-5.3	2.8	1.8	0.9	1.9	4.5
1982	2.5	3.5	-	-	2.0	1.6	3.7	6.2	3.3	-2.0
1983	0.9	4.8	-	-	-7.5	-2.7	-0.3	12.6	-2.4	-7.3
1984	-0.5	6.4	-	-	11.4	-7.3	-6.5	3.1	-8.3	-8.9
1985	3.7	6.2	-	-	7.3	1.0	2.2	5.6	1.5	-1.5
1986	3.6	4.1	-	-	4.6	3.0	4.0	5.3	3.8	0.8
1987	5.5	9.0	-	-	5.1	1.3	2.6	9.3	1.1	-1.5
1988	3.1	4.6	-	-	-2.1	1.3	2.0	5.1	1.2	-0.1
1989	4.1	8.1	-	-	15.4	-1.2	-0.8	6.0	-2.5	-2.2
1990	3.0	5.4	4.4	6.7	6.5	-0.5	0.3	7.7	-1.7	-2.5
1991	3.1	6.8	9.4	6.0	0.0	-2.6	-1.8	10.5	-5.5	-4.5
1992	1.9	1.8	5.2	-1.8	-3.7	2.1	3.9	6.1	3.1	-2.3
1993	1.2	0.3	2.9	-3.3	-3.0	2.7	1.7	-0.4	2.5	5.4
1994	3.2	4.5	2.7	8.8	3.6	1.1	2.2	7.3	0.5	-1.9

구분	취업자 전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소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소계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소계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1995	2.9	3.4	3.8	3.5	1.3	2.0	3.6	3.9	3.5	-2.4
1996	2.2	2.3	0.0	8.6	-0.4	1.8	2.5	5.6	1.4	-0.2
1997	1.7	1.5	-2.9	8.4	5.1	2.1	3.3	2.1	3.8	-1.8
1998	-6.0	-8.3	-10.3	-4.6	-8.8	-2.2	-4.8	-15.1	-0.9	6.1
1999	1.8	3.0	-6.1	5.2	32.2	-0.2	1.5	-2.9	3.0	-4.9
2000	4.3	5.5	4.3	8.2	3.6	2.5	3.0	7.7	1.6	0.8
2001	2.1	2.3	5.0	2.6	-5.8	1.8	3.3	6.4	2.3	-2.9
2002	2.9	4.0	2.4	3.6	9.7	0.9	2.3	4.3	1.7	-3.7
2003	0.0	1.7	6.1	2.5	-12.4	-3.2	-2.4	1.0	-3.5	-5.9
2004	2.1	3.4	4.8	1.5	2.9	-0.3	1.6	2.9	1.1	-7.1
2005	0.7	1.7	3.6	-0.6	0.5	-1.3	-0.3	-1.3	0.0	-5.2
2006	1.6	2.8	4.1	2.1	-0.4	-0.9	-0.5	-1.6	-0.2	-2.1
2007	1.6	3.1	5.7	0.8	-0.9	-1.5	-1.0	-3.9	0.0	-3.5
2008	0.9	1.6	4.5	-1.5	-2.2	-0.7	-0.7	-1.9	-0.3	-0.4
2009	-0.4	1.4	4.1	0.2	-7.4	-4.3	-4.3	-0.4	-5.6	-4.3
2010	1.5	3.2	7.4	-0.5	-7.5	-2.5	-1.8	-1.1	-2.1	-5.4
2011	2.1	2.8	6.0	-1.2	-3.3	0.1	0.2	0.7	0.1	-0.5
2012	1.7	1.8	4.3	-0.3	-7.1	1.5	2.0	2.9	1.6	-0.5
2013	1.4	2.5	5.3	-2.2	-2.4	-1.4	-1.1	-2.4	-0.7	-2.7
2014	2.4	3.2	4.0	3.0	-1.9	0.1	0.3	3.1	-0.7	-1.1
2015	1.1	2.3	3.2	0.9	0.1	-2.3	-1.7	1.8	-3.0	-5.4
2016	0.9	1.4	2.7	0.2	-5.7	-0.5	-0.1	-1.6	0.4	-2.3
2017	1.2	1.3	2.8	-2.6	2.1	0.8	1.2	1.5	1.1	-1.4
2018	0.4	0.8	2.6	-2.8	-3.6	-0.8	-0.8	2.7	-2.1	-0.8
2019	1.1	1.8	3.2	-1.2	-2.1	-0.8	-0.6	-6.8	2.0	-2.2
2020	-0.8	-0.5	2.1	-6.5	-7.1	-1.6	-1.3	-10.8	2.2	-3.2

주: 1)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하였음.

- 2) 취업자=비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 3)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 4)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5) 임금근로자=상용근로자+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2021.09.06. 추출).



<부표 2-8> 성별 취업자 추이(1963~2020)

(단위: 천 명, %)

구분	규모		증감		증감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963	4,930	2,633	-	-	-	-
1964	5,024	2,674	94	41	1.9	1.6
1965	5,273	2,839	249	165	5.0	6.2
1966	5,425	2,901	152	62	2.9	2.2
1967	5,609	3,015	184	114	3.4	3.9
1968	5,809	3,253	200	238	3.6	7.9
1969	6,024	3,261	215	8	3.7	0.2
1970	6,104	3,513	80	252	1.3	7.7
1971	6,305	3,641	201	128	3.3	3.6
1972	6,578	3,801	273	160	4.3	4.4
1973	6,832	4,110	254	309	3.9	8.1
1974	7,198	4,223	366	113	5.4	2.7
1975	7,431	4,261	233	38	3.2	0.9
1976	7,668	4,744	237	483	3.2	11.3
1977	8,068	4,744	400	0	5.2	0.0
1978	8,315	5,097	247	353	3.1	7.4
1979	8,383	5,219	68	122	0.8	2.4
1980	8,462	5,222	79	3	0.9	0.1
1981	8,679	5,345	217	123	2.6	2.4
1982	8,757	5,622	78	277	0.9	5.2
1983	8,819	5,686	62	64	0.7	1.1
1984	8,894	5,535	75	-151	0.9	-2.7
1985	9,137	5,833	243	298	2.7	5.4
1986	9,339	6,165	202	332	2.2	5.7
1987	9,741	6,613	402	448	4.3	7.3
1988	10,099	6,771	358	158	3.7	2.4
1989	10,409	7,152	310	381	3.1	5.6
1990	10,709	7,376	300	224	2.9	3.1
1991	11,120	7,529	411	153	3.8	2.1
1992	11,369	7,639	249	110	2.2	1.5

500 | 코로나19 위기와 노동시장 충격-취약노동계층에 미친 영향과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구분	규모		증감		증감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993	11,490	7,745	121	106	1.1	1.4
1994	11,829	8,020	339	275	3.0	3.6
1995	12,147	8,267	318	247	2.7	3.1
1996	12,351	8,502	204	235	1.7	2.8
1997	12,483	8,731	132	229	1.1	2.7
1998	11,847	8,090	-636	-641	-5.1	-7.3
1999	11,954	8,337	107	247	0.9	3.1
2000	12,401	8,772	447	435	3.7	5.2
2001	12,609	9,005	208	233	1.7	2.7
2002	12,988	9,243	379	238	3.0	2.6
2003	13,090	9,131	102	-112	0.8	-1.2
2004	13,276	9,406	186	275	1.4	3.0
2005	13,323	9,508	47	102	0.4	1.1
2006	13,481	9,707	158	199	1.2	2.1
2007	13,712	9,849	231	142	1.7	1.5
2008	13,835	9,940	123	91	0.9	0.9
2009	13,840	9,847	5	-93	0.0	-0.9
2010	14,041	9,992	201	145	1.5	1.5
2011	14,333	10,193	292	201	2.1	2.0
2012	14,568	10,387	235	194	1.6	1.9
2013	14,745	10,554	177	167	1.2	1.6
2014	15,057	10,840	312	286	2.1	2.7
2015	15,156	11,022	99	182	0.7	1.7
2016	15,241	11,168	85	146	0.6	1.3
2017	15,368	11,356	127	188	0.8	1.7
2018	15,372	11,450	4	94	0.0	0.8
2019	15,463	11,660	91	210	0.6	1.8
2020	15,381	11,523	-82	-137	-0.5	-1.2

주:1)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2021.09.11. 추출).

<부표 2-9> 연령별 취업자 추이(1963~2020)

(단위: 천 명)

구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1963	916	2,010	1,878	1,528	906	326
1964	980	2,010	1,902	1,544	941	321
1965	1,075	2,051	2,032	1,664	969	321
1966	1,046	2,047	2,219	1,679	1,003	331
1967	1,002	2,092	2,414	1,693	1,045	378
1968	1,015	2,092	2,534	1,860	1,135	425
1969	1,089	2,103	2,621	1,863	1,124	484
1970	1,287	2,051	2,645	2,063	1,133	438
1971	1,181	2,110	2,810	2,086	1,239	520
1972	1,376	2,215	2,865	2,117	1,298	508
1973	1,482	2,344	2,973	2,192	1,380	571
1974	1,452	2,497	3,034	2,331	1,495	612
1975	1,388	2,716	3,061	2,396	1,533	598
1976	1,436	3,002	3,140	2,557	1,574	703
1977	1,457	3,070	3,373	2,781	1,538	593
1978	1,346	3,242	3,463	3,030	1,668	663
1979	1,178	3,360	3,494	3,117	1,731	722
1980	1,035	3,512	3,468	3,188	1,766	716
1981	908	3,665	3,473	3,338	1,862	779
1982	821	3,950	3,566	3,295	1,940	809
1983	723	3,987	3,697	3,338	1,937	822
1984	654	4,002	3,714	3,337	1,902	822
1985	634	4,068	3,990	3,366	2,034	879
1986	631	4,201	4,212	3,380	2,133	946
1987	679	4,311	4,529	3,527	2,257	1,051
1988	598	4,313	4,731	3,677	2,461	1,091
1989	612	4,398	4,848	3,813	2,690	1,200
1990	580	4,442	5,060	3,910	2,816	1,277
1991	568	4,928	5,616	3,644	2,667	1,226
1992	528	4,893	5,779	3,716	2,761	1,332
1993	477	4,802	5,973	3,836	2,787	1,358

## 502 | 코로나19 위기와 노동시장 충격-취약노동계층에 미친 영향과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구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1994	456	4,892	6,151	4,020	2,842	1,486
1995	421	5,022	6,238	4,272	2,858	1,604
1996	400	5,021	6,345	4,512	2,863	1,712
1997	385	4,964	6,396	4,713	2,923	1,832
1998	331	4,401	6,018	4,644	2,786	1,757
1999	351	4,340	6,018	4,888	2,829	1,865
2000	388	4,493	6,145	5,285	2,902	1,961
2001	356	4,472	6,185	5,572	2,964	2,064
2002	311	4,510	6,246	5,872	3,097	2,196
2003	271	4,374	6,233	6,050	3,161	2,133
2004	258	4,352	6,253	6,241	3,310	2,268
2005	241	4,244	6,207	6,307	3,507	2,324
2006	205	4,126	6,251	6,442	3,740	2,424
2007	205	4,062	6,188	6,561	3,987	2,560
2008	189	3,950	6,133	6,630	4,255	2,618
2009	179	3,813	5,912	6,620	4,473	2,692
2010	207	3,724	5,920	6,655	4,789	2,739
2011	228	3,679	5,880	6,718	5,145	2,877
2012	233	3,605	5,883	6,748	5,416	3,071
2013	225	3,504	5,840	6,771	5,704	3,256
2014	245	3,556	5,805	6,896	5,947	3,448
2015	245	3,619	5,729	6,892	6,068	3,625
2016	244	3,664	5,672	6,832	6,150	3,848
2017	247	3,660	5,643	6,783	6,302	4,090
2018	205	3,699	5,582	6,666	6,346	4,324
2019	198	3,747	5,529	6,504	6,444	4,701
2020	162	3,601	5,364	6,346	6,356	5,076

주:1)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2021.09.11. 추출).

<부표 2-10>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1964~2020)

(단위: 천 명)

구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1964	64	0	24	16	35	-5
1965	95	41	130	120	28	0
1966	-29	-4	187	15	34	10
1967	-44	45	195	14	42	47
1968	13	0	120	167	90	47
1969	74	11	87	3	-11	59
1970	198	-52	24	200	9	-46
1971	-106	59	165	23	106	82
1972	195	105	55	31	59	-12
1973	106	129	108	75	82	63
1974	-30	153	61	139	115	41
1975	-64	219	27	65	38	-14
1976	48	286	79	161	41	105
1977	21	68	233	224	-36	-110
1978	-111	172	90	249	130	70
1979	-168	118	31	87	63	59
1980	-143	152	-26	71	35	-6
1981	-127	153	5	150	96	63
1982	-87	285	93	-43	78	30
1983	-98	37	131	43	-3	13
1984	-69	15	17	-1	-35	0
1985	-20	66	276	29	132	57
1986	-3	133	222	14	99	67
1987	48	110	317	147	124	105
1988	-81	2	202	150	204	40
1989	14	85	117	136	229	109
1990	-32	44	212	97	126	77
1991	-12	486	556	-266	-149	-51
1992	-40	-35	163	72	94	106
1993	-51	-91	194	120	26	26
1994	-21	90	178	184	55	128

## 504 | 코로나19 위기와 노동시장 충격-취약노동계층에 미친 영향과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구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1995	-35	130	87	252	16	118
1996	-21	-1	107	240	5	108
1997	-15	-57	51	201	60	120
1998	-54	-563	-378	-69	-137	-75
1999	20	-61	0	244	43	108
2000	37	153	127	397	73	96
2001	-32	-21	40	287	62	103
2002	-45	38	61	300	133	132
2003	-40	-136	-13	178	64	-63
2004	-13	-22	20	191	149	135
2005	-17	-108	-46	66	197	56
2006	-36	-118	44	135	233	100
2007	0	-64	-63	119	247	136
2008	-16	-112	-55	69	268	58
2009	-10	-137	-221	-10	218	74
2010	28	-89	8	35	316	47
2011	21	-45	-40	63	356	138
2012	5	-74	3	30	271	194
2013	-8	-101	-43	23	288	185
2014	20	52	-35	125	243	192
2015	0	63	-76	-4	121	177
2016	-1	45	-57	-60	82	223
2017	3	-4	-29	-49	152	242
2018	-42	39	-61	-117	44	234
2019	-7	48	-53	-162	98	377
2020	-36	-146	-165	-158	-88	375

주:1)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2021.09.11. 추출).

<부표 2-11> 연령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1964~2020)

(단위: %)

구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1963	-	-	-	-	-	-
1964	7.0	0.0	1.3	1.0	3.9	-1.5
1965	9.7	2.0	6.8	7.8	3.0	0.0
1966	-2.7	-0.2	9.2	0.9	3.5	3.1
1967	-4.2	2.2	8.8	0.8	4.2	14.2
1968	1.3	0.0	5.0	9.9	8.6	12.4
1969	7.3	0.5	3.4	0.2	-1.0	13.9
1970	18.2	-2.5	0.9	10.7	0.8	-9.5
1971	-8.2	2.9	6.2	1.1	9.4	18.7
1972	16.5	5.0	2.0	1.5	4.8	-2.3
1973	7.7	5.8	3.8	3.5	6.3	12.4
1974	-2.0	6.5	2.1	6.3	8.3	7.2
1975	-4.4	8.8	0.9	2.8	2.5	-2.3
1976	3.5	10.5	2.6	6.7	2.7	17.6
1977	1.5	2.3	7.4	8.8	-2.3	-15.6
1978	-7.6	5.6	2.7	9.0	8.5	11.8
1979	-12.5	3.6	0.9	2.9	3.8	8.9
1980	-12.1	4.5	-0.7	2.3	2.0	-0.8
1981	-12.3	4.4	0.1	4.7	5.4	8.8
1982	-9.6	7.8	2.7	-1.3	4.2	3.9
1983	-11.9	0.9	3.7	1.3	-0.2	1.6
1984	-9.5	0.4	0.5	0.0	-1.8	0.0
1985	-3.1	1.6	7.4	0.9	6.9	6.9
1986	-0.5	3.3	5.6	0.4	4.9	7.6
1987	7.6	2.6	7.5	4.3	5.8	11.1
1988	-11.9	0.0	4.5	4.3	9.0	3.8
1989	2.3	2.0	2.5	3.7	9.3	10.0
1990	-5.2	1.0	4.4	2.5	4.7	6.4
1991	-2.1	10.9	11.0	-6.8	-5.3	-4.0
1992	-7.0	-0.7	2.9	2.0	3.5	8.6
1993	-9.7	-1.9	3.4	3.2	0.9	2.0

## 506 | 코로나19 위기와 노동시장 충격-취약노동계층에 미친 영향과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구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1994	-4.4	1.9	3.0	4.8	2.0	9.4
1995	-7.7	2.7	1.4	6.3	0.6	7.9
1996	-5.0	0.0	1.7	5.6	0.2	6.7
1997	-3.8	-1.1	0.8	4.5	2.1	7.0
1998	-14.0	-11.3	-5.9	-1.5	-4.7	-4.1
1999	6.0	-1.4	0.0	5.3	1.5	6.1
2000	10.5	3.5	2.1	8.1	2.6	5.1
2001	-8.2	-0.5	0.7	5.4	2.1	5.3
2002	-12.6	0.8	1.0	5.4	4.5	6.4
2003	-12.9	-3.0	-0.2	3.0	2.1	-2.9
2004	-4.8	-0.5	0.3	3.2	4.7	6.3
2005	-6.6	-2.5	-0.7	1.1	6.0	2.5
2006	-14.9	-2.8	0.7	2.1	6.6	4.3
2007	0.0	-1.6	-1.0	1.8	6.6	5.6
2008	-7.8	-2.8	-0.9	1.1	6.7	2.3
2009	-5.3	-3.5	-3.6	-0.2	5.1	2.8
2010	15.6	-2.3	0.1	0.5	7.1	1.7
2011	10.1	-1.2	-0.7	0.9	7.4	5.0
2012	2.2	-2.0	0.1	0.4	5.3	6.7
2013	-3.4	-2.8	-0.7	0.3	5.3	6.0
2014	8.9	1.5	-0.6	1.8	4.3	5.9
2015	0.0	1.8	-1.3	-0.1	2.0	5.1
2016	-0.4	1.2	-1.0	-0.9	1.4	6.2
2017	1.2	-0.1	-0.5	-0.7	2.5	6.3
2018	-17.0	1.1	-1.1	-1.7	0.7	5.7
2019	-3.4	1.3	-0.9	-2.4	1.5	8.7
2020	-18.2	-3.9	-3.0	-2.4	-1.4	8.0

주:1)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2021.09.11. 추출).



<부표 2-12> 기업규모별 취업자 추이(1963~2020)

(단위: 천 명, %)

구분	규모				증감				증감률			
	1-4인	5-299인	1-299인	300인 이상	1-4인	5-299인	1-299인	300인 이상	1-4인	5-299인	1-299인	300인 이상
2004	9,901	10,952	20,853	1,829	-	-	-	-	-	-	-	-
2005	9,932	10,989	20,921	1,910	31	37	68	81	0.3	0.3	0.3	4.4
2006	10,039	11,248	21,287	1,901	107	259	366	-9	1.1	2.4	1.7	-0.5
2007	10,071	11,632	21,703	1,858	32	384	416	-43	0.3	3.4	2.0	-2.3
2008	10,042	11,846	21,888	1,887	-29	214	185	29	-0.3	1.8	0.9	1.6
2009	9,596	12,087	21,683	2,005	-446	241	-205	118	-4.4	2.0	-0.9	6.3
2010	9,565	12,501	22,066	1,967	-31	414	383	-38	-0.3	3.4	1.8	-1.9
2011	9,703	12,813	22,516	2,011	138	312	450	44	1.4	2.5	2.0	2.2
2012	9,898	12,986	22,884	2,071	195	173	368	60	2.0	1.4	1.6	3.0
2013	9,928	13,189	23,117	2,182	30	203	233	111	0.3	1.6	1.0	5.4
2014	10,060	13,532	23,592	2,305	132	343	475	123	1.3	2.6	2.1	5.6
2015	9,878	13,912	23,790	2,388	-182	380	198	83	-1.8	2.8	0.8	3.6
2016	9,733	14,200	23,933	2,476	-145	288	143	88	-1.5	2.1	0.6	3.7
2017	9,809	14,442	24,251	2,474	76	242	318	-2	0.8	1.7	1.3	-0.1
2018	9,723	14,576	24,299	2,524	-86	134	48	50	-0.9	0.9	0.2	2.0
2019	9,957	14,572	24,529	2,594	234	-4	230	70	2.4	0.0	0.9	2.8
2020	9,799	14,432	24,231	2,673	-158	-140	-298	79	-1.6	-1.0	-1.2	3.0

주:1)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2021.09.11. 추출).

〈부표 2-13〉 산업별 취업자 추이(2013~2020)

(단위: 천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농림어업	1,513	1,446	1,337	1,273	1,279	1,340	1,395	1,445
광업	16	13	14	19	23	19	15	13
제조업	4,307	4,459	4,604	4,584	4,566	4,510	4,429	4,376
전기가스증기	74	69	79	76	72	70	68	74
수도하수	93	105	106	113	115	127	135	153
건설업	1,780	1,829	1,854	1,869	1,988	2,034	2,020	2,016
도소매업	3,694	3,834	3,816	3,754	3,795	3,723	3,663	3,503
운수창고	1,428	1,429	1,429	1,426	1,405	1,407	1,431	1,482
숙박음식	1,985	2,118	2,195	2,291	2,288	2,243	2,303	2,144
정보통신	697	718	774	784	783	837	861	847
금융보험	878	852	799	803	794	840	800	778
부동산업	437	454	462	483	540	528	556	517
전문·과학기술	1,029	1,034	1,055	1,101	1,092	1,096	1,157	1,164
사업관리지원임대	1,228	1,243	1,331	1,391	1,374	1,311	1,312	1,347
공공행정	976	970	948	1,004	1,058	1,110	1,076	1,112
교육서비스	1,766	1,830	1,835	1,862	1,907	1,847	1,883	1,798
보건사회복지	1,566	1,709	1,781	1,861	1,921	2,046	2,206	2,336
예술및여가	394	398	428	407	428	445	495	496
기타개인서비스	1,261	1,257	1,232	1,224	1,222	1,236	1,233	1,189
가구내고용 등	173	116	82	70	64	48	75	98
국제기구	8	14	19	16	12	7	12	17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변경에 따라 2013년 이후는 제10차 분류기준에 따름.

2) 2012년 이전과 2013년 이후는 시계열 연결이 안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2021.09.11. 추출).

〈부표 2-14〉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2013~2020)

(단위: 천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농림어업	-	-67	-109	-64	6	61	55	50
광업	-	-3	1	5	4	-4	-4	-2
제조업	-	152	145	-20	-18	-56	-81	-53
전기가스증기	-	-5	10	-3	-4	-2	-2	6
수도하수	-	12	1	7	2	12	8	18
건설업	-	49	25	15	119	46	-14	-4
도소매업	-	140	-18	-62	41	-72	-60	-160
운수창고	-	1	0	-3	-21	2	24	51
숙박음식	-	133	77	96	-3	-45	60	-159
정보통신	-	21	56	10	-1	54	24	-14
금융보험	-	-26	-53	4	-9	46	-40	-22
부동산업	-	17	8	21	57	-12	28	-39
전문·과학기술	-	5	21	46	-9	4	61	7
사업관리지원업대	-	15	88	60	-17	-63	1	35
공공행정	-	-6	-22	56	54	52	-34	36
교육서비스	-	64	5	27	45	-60	36	-85
보건사회복지	-	143	72	80	60	125	160	130
예술및여가	-	4	30	-21	21	17	50	1
기타개인서비스	-	-4	-25	-8	-2	14	-3	-44
가구내고용 등	-	-57	-34	-12	-6	-16	27	23
국제기구	-	6	5	-3	-4	-5	5	5

주:1)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2021.09.11. 추출).

〈부표 2-15〉 산업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2013~2020)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농림어업	-	-4.4	-7.5	-4.8	0.5	4.8	4.1	3.6
광업	-	-18.8	7.7	35.7	21.1	-17.4	-21.1	-13.3
제조업	-	3.5	3.3	-0.4	-0.4	-1.2	-1.8	-1.2
전기가스증기	-	-6.8	14.5	-3.8	-5.3	-2.8	-2.9	8.8
수도하수	-	12.9	1.0	6.6	1.8	10.4	6.3	13.3
건설업	-	2.8	1.4	0.8	6.4	2.3	-0.7	-0.2
도소매업	-	3.8	-0.5	-1.6	1.1	-1.9	-1.6	-4.4
운수창고	-	0.1	0.0	-0.2	-1.5	0.1	1.7	3.6
숙박음식	-	6.7	3.6	4.4	-0.1	-2.0	2.7	-6.9
정보통신	-	3.0	7.8	1.3	-0.1	6.9	2.9	-1.6
금융보험	-	-3.0	-6.2	0.5	-1.1	5.8	-4.8	-2.8
부동산업	-	3.9	1.8	4.5	11.8	-2.2	5.3	-7.0
전문과학기술	-	0.5	2.0	4.4	-0.8	0.4	5.6	0.6
사업관리지원임대	-	1.2	7.1	4.5	-1.2	-4.6	0.1	2.7
공공행정	-	-0.6	-2.3	5.9	5.4	4.9	-3.1	3.3
교육서비스	-	3.6	0.3	1.5	2.4	-3.1	1.9	-4.5
보건사회복지	-	9.1	4.2	4.5	3.2	6.5	7.8	5.9
예술및여가	-	1.0	7.5	-4.9	5.2	4.0	11.2	0.2
기타개인서비스	-	-0.3	-2.0	-0.6	-0.2	1.1	-0.2	-3.6
가구내고용 등	-	-32.9	-29.3	-14.6	-8.6	-25.0	56.3	30.7
국제기구	-	75.0	35.7	-15.8	-25.0	-41.7	71.4	41.7

주:1)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2021.09.11. 추출).

〈부표 2-16〉 임금소득분배추이(2003~2020)(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단위: 천 원/월, 배)

구분	임금수준		지니계수	분위수 배율			평균임금	
	평균값	중위값		P90/50	P50/10	P90/10	증감	증가율
2003	1,466	1,200	0.335	2.33	2.18	5.09	-	-
2004	1,542	1,300	0.335	2.31	2.17	5.00	76	5.2
2005	1,593	1,300	0.339	2.31	2.17	5.00	51	3.3
2006	1,656	1,450	0.339	2.07	2.42	5.00	63	4.0
2007	1,746	1,500	0.345	2.13	2.42	5.16	90	5.4
2008	1,847	1,500	0.339	2.33	2.14	5.00	101	5.8
2009	1,855	1,500	0.349	2.33	2.31	5.38	8	0.4
2010	1,950	1,600	0.351	2.25	2.29	5.14	95	5.1
2011	2,033	1,700	0.349	2.24	2.43	5.43	83	4.3
2012	2,109	1,800	0.346	2.22	2.57	5.71	76	3.7
2013	2,189	1,800	0.342	2.22	2.25	5.00	80	3.8
2014	2,240	1,900	0.34	2.11	2.38	5.00	51	2.3
2015	2,304	2,000	0.338	2.10	2.50	5.25	64	2.9
2016	2,372	2,000	0.341	2.25	2.50	5.63	68	3.0
2017	2,430	2,000	0.329	2.25	2.50	5.63	58	2.4
2018	2,558	2,100	0.329	2.16	2.33	5.04	128	5.3
2019	2,643	2,300	0.325	2.09	2.58	5.39	84	3.3
2020	2,681	2,400	0.325	2.08	3.00	6.25	38	1.5

주: 1) 중위값(median) = 근로자를 임금수준의 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P50과 동일함.

2) 지니계수 = 소득분배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수치가 작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것을 나타냄. 월소득 기준임.

3) 분위수 배율은 대표적인 분위수를 배수화한 수치로 P90/10의 경우 하위 10%의 임금 대비 상위 90%의 임금의 비율을 의미함. 수치가 작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것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21 KLI 노동통계』: 65-66.

〈부표 2-17〉 임금소득분배추이(2008~2020)(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단위: 천 원/월, 배)

구분	임금수준		지니계수	분위수 배율			평균임금		
	평균값	중위값		P90/50	P50/10	P90/10	증감	증가율	
10인 이상	1980	170	126	0.375	2.56	2.00	5.12	-	-
	1981	206	155	0.370	2.48	2.00	4.96	36	21.2
	1982	245	185	0.372	2.47	2.06	5.09	39	18.9
	1983	271	211	0.361	2.39	2.09	4.99	26	10.6
	1984	295	232	0.352	2.33	2.02	4.70	24	8.9
	1985	314	248	0.350	2.29	2.01	4.60	19	6.4
	1986	345	275	0.342	2.25	1.96	4.42	31	9.9
	1987	379	300	0.337	2.25	1.91	4.29	34	9.9
	1988	447	359	0.328	2.22	1.90	4.22	68	17.9
	1989	525	434	0.313	2.12	1.91	4.04	78	17.4
	1990	616	515	0.307	2.08	1.91	3.96	91	17.3
	1991	734	620	0.301	2.05	1.90	3.91	118	19.2
	1992	866	758	0.286	1.91	1.91	3.66	132	18.0
	1993	955	843	0.287	1.91	1.98	3.78	89	10.3
	1994	1,047	941	0.277	1.85	1.97	3.64	92	9.6
	1995	1,194	1,065	0.278	1.87	1.96	3.67	147	14.0
	1996	1,351	1,189	0.286	1.93	1.97	3.79	157	13.1
	1997	1,474	1,311	0.283	1.88	1.99	3.74	123	9.1
	1998	1,494	1,323	0.287	1.90	2.01	3.83	20	1.4
	1999	1,539	1,361	0.292	1.91	2.03	3.86	45	3.0
2000	1,702	1,483	0.305	1.96	2.08	4.08	163	10.6	
2001	1,813	1,561	0.305	2.00	2.05	4.10	111	6.5	
2002	1,956	1,683	0.308	2.03	2.09	4.24	143	7.9	
2003	2,123	1,794	0.317	2.08	2.09	4.35	167	8.5	
2004	2,260	1,899	0.319	2.13	2.08	4.43	137	6.5	
2005	2,439	2,063	0.323	2.12	2.12	4.49	179	7.9	
2006	2,587	2,145	0.325	2.17	2.10	4.55	148	6.1	
2007	2,698	2,228	0.332	2.21	2.15	4.75	111	4.3	
2008	2,859	2,346	0.335	2.23	2.13	4.75	161	6.0	
2009	2,837	2,360	0.329	2.18	2.13	4.65	-22	-0.8	

구분	임금수준		지니계수	분위수 배율			평균임금		
	평균값	중위값		P90/50	P50/10	P90/10	증감	증가율	
1인 이상	2010	2,913	2,432	0.328	2.18	2.12	4.63	76	2.7
	2011	3,051	2,507	0.334	2.25	2.12	4.77	138	4.7
	2012	3,143	2,599	0.330	2.19	2.11	4.63	92	3.0
	2013	3,281	2,702	0.333	2.22	2.11	4.69	138	4.4
	2014	3,406	2,739	0.344	2.31	2.08	4.81	125	3.8
	2015	3,451	2,774	0.345	2.28	2.07	4.71	45	1.3
	2016	3,522	2,854	0.340	2.26	2.04	4.60	71	2.1
	2017	3,629	2,958	0.335	2.25	2.00	4.49	107	3.0
	2018	3,775	3,070	0.327	2.23	1.89	4.23	146	4.0
	2019	3,908	3,177	0.322	2.20	1.80	3.94	133	3.5
	2020	3,915	3,183	0.323	2.21	1.77	3.90	7	0.2
2008	2,276	1,747	0.375	2.55	2.2	5.61	-	-	
2009	2,269	1,776	0.373	2.5	2.24	5.6	-7	-0.3	
2010	2,315	1,803	0.374	2.52	2.3	5.79	46	2.0	
2011	2,413	1,868	0.380	2.55	2.35	5.98	98	4.2	
2012	2,511	1,976	0.377	2.48	2.39	5.92	98	4.1	
2013	2,621	2,033	0.381	2.52	2.36	5.95	110	4.4	
2014	2,695	2,054	0.392	2.6	2.57	6.67	74	2.8	
2015	2,734	2,083	0.391	2.57	2.57	6.62	39	1.4	
2016	2,823	2,186	0.385	2.52	2.53	6.37	89	3.3	
2017	2,882	2,250	0.380	2.49	2.65	6.59	59	2.1	
2018	3,008	2,360	0.373	2.44	2.62	6.41	126	4.4	
2019	3,115	2,476	0.366	2.38	2.54	6.07	107	3.6	
2020	3,161	2,500	0.370	2.40	2.75	6.59	46	1.5	

주: 1) 중위값(median) = 근로자를 임금수준의 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P50과 동일함.  
 2) 지니계수 = 소득분배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수치가 작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것을 나타냄. 월소득 기준임.  
 3) 분위수 배율은 대표적인 분위수를 배수화한 수치로 P90/10의 경우 하위 10%의 임금 대비 상위 90%의 임金的 비율을 의미함. 수치가 작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것을 나타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21 KLI 노동통계』: 64.

<3장 부표>

<부표 3-1> 연도별 종사상지위별 고임금 노동자 규모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변화	
						증감	증감률
임금노동자	5,508	5,845	4,964	4,738	4,234	-504	-10.6
상용직	5,191	5,484	4,762	4,495	4,063	-432	-9.6
임시직	251	286	154	192	140	-52	-27.1
일용직	66	75	48	51	31	-20	-39.2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고임금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부표 3-2> 연도별 종사상지위별 고임금 노동자 규모 변화(전년 대비 증감률)  
(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전년 동기 대비 규모 변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7	'18	'19	'20	'17	'18	'19	'20
임금노동자	337	-881	-226	-504	6.1	-15.1	-4.6	-10.6
상용직	293	-722	-267	-432	5.6	-13.2	-5.6	-9.6
임시직	35	-132	38	-52	13.9	-46.2	24.7	-27.1
일용직	9	-27	3	-20	13.6	-36.0	6.3	-39.2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부표 3-3> 연도별 종사상지위별 고임금 노동자 비중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 %p)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27.9	29.2	24.8	23.0	20.7	-2.3
상용직	39.8	40.6	34.5	31.5	27.9	-3.6
임시직	4.8	5.7	3.2	3.9	3.1	-0.8
일용직	4.5	5.2	3.5	3.6	2.3	-1.3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고임금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부표 3-4> 연도별 종사상지위별 고임금 노동자 규모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규모					'19년 대비 변화	
	'16	'17	'18	'19	'20	증감	증감률
임금노동자	5,223	4,416	4,840	4,824	4,723	-101	-2.1
상용직	4,862	4,119	4,521	4,438	4,406	-32	-0.7
임시직	300	249	258	312	261	-51	-16.3
일용직	61	48	60	75	55	-20	-26.7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고임금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부표 3-5〉 연도별 종사상지위별 고임금 노동자 규모 변화(전년 대비 증감률)  
(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전년 동기 대비 규모 변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7	'18	'19	'20	'17	'18	'19	'20
임금노동자	-807	424	-16	-101	-15.5	9.6	-0.3	-2.1
상용직	-743	402	-83	-32	-15.3	9.8	-1.8	-0.7
임시직	-51	9	54	-51	-17.0	3.6	20.9	-16.3
일용직	-13	12	15	-20	-21.3	25.0	25.0	-26.7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고임금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부표 3-6〉 연도별 종사상지위별 고임금 노동자 비중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 %p)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26.5	22.1	24.1	23.5	23.1	-0.4
상용직	37.3	30.5	32.8	31.1	30.2	-0.9
임시직	5.8	4.9	5.3	6.4	5.8	-0.6
일용직	4.1	3.3	4.3	5.3	4.1	-1.2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고임금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부표 3-7>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수준 변화(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단위: 만원, %)

구분	2019	2020	증감	증감률
임금노동자				
특수형태 제외	265.4	272.3	6.9	2.6
특수형태 포함	265.4	272.7	7.3	2.8
정규직	300.6	311.6	11	3.7
비정규직				
특수형태 제외	154.6	152.9	-1.7	-1.1
특수형태 포함	173.0	175.3	2.3	1.3
-기간제	217.4	223.7	6.3	2.9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	123.6	130.8	7.2	5.8
-단시간	91.9	93.2	1.3	1.4
-파견/용역	188.2	195.9	7.7	4.1
-파견	185.8	209.9	24.1	13.0
-용역	188.8	193.9	5.1	2.7
-특수형태근로	265.2	279.8	14.6	5.5
-일일근로	156.4	148.1	-8.3	-5.3
-재택/가내근로	149.1	152.2	3.1	2.1

- 주: 1) 임금근로자 1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대상임.  
 2) 매년 6월급여 계산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된 월급여를 말하며 임금은 정액급여만을 대상으로 함.  
 3)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부문,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부표 3-8〉 근로형태별 시간당 임금수준 변화(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단위: 원, %)

구분	2019	2020	증감	증감률
임금노동자				
특수형태 제외	18,410	17,349	-1,061	-5.8
특수형태 포함	18,500	17,420	-1,080	-5.8
정규직	19,433	18,210	-1,223	-6.3
비정규직				
특수형태 제외	15,191	14,734	-457	-3.0
특수형태 포함	15,819	15,156	-663	-4.2
-기간제	14,777	13,913	-864	-5.8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	11,304	11,485	181	1.6
-단시간	14,306	13,479	-827	-5.8
-파견/용역	12,426	12,003	-423	-3.4
-파견	13,526	13,061	-465	-3.4
-용역	12,178	11,846	-332	-2.7
-특수형태근로	22,368	22,165	-203	-0.9
-일일근로	18,299	18,507	208	1.1
-재택/가내근로	13,329	13,582	253	1.9

- 주: 1) 임금근로자 1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대상임.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시간 등이 파악되지 않아 시간당 임금 분석에서 제외되므로 전체 노동자 및 비정규직에는 특수형태노동자가 제외된 값임.  
 3) 시간당 임금 = 월정액급여/소정실근로시간  
 4) 매년 6월급여 계산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된 월급여를 말하며 임금은 정액급여만을 대상으로 함.  
 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부문,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부표 3-9> 연도별 근로형태별 월 평균 임금 및 격차(정규직=10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단위: 만원, %)

구분	금액					격차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임금노동자										
특수형태 제외	234.7	241.9	254.2	265.4	272.3	87.8	87.6	87.8	88.3	87.4
특수형태 포함	235.9	242.7	254.4	265.4	272.7	88.2	87.9	87.9	88.3	87.5
정규직	267.4	276.1	289.4	300.6	311.6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특수형태 제외	133.8	140.3	148.7	154.6	152.9	50.0	50.8	51.4	51.4	49.1
특수형태 포함	155.3	159.3	167.1	173.0	175.3	58.1	57.7	57.7	57.6	56.3
-기간제	188.1	199.7	215.2	217.4	223.7	70.3	72.3	74.4	72.3	71.8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	127.1	136.1	128.3	123.6	130.8	47.5	49.3	44.3	41.1	42.0
-단시간	73.9	79.2	87.4	91.9	93.2	27.6	28.7	30.2	30.6	29.9
-파견/용역	157.6	175.2	175.7	188.2	195.9	58.9	63.5	60.7	62.6	62.9
-파견	179.0	177.5	184.4	185.8	209.9	66.9	64.3	63.7	61.8	67.4
-용역	152.6	174.7	173.8	188.8	193.9	57.1	63.3	60.1	62.8	62.2
-특수형태근로	260.6	258.4	259.8	265.2	279.8	97.5	93.6	89.8	88.2	89.8
-일일근로	138.3	143.4	155.1	156.4	148.1	51.7	51.9	53.6	52.0	47.5
-재택/가내근로	113.9	126.1	150.0	149.1	152.2	42.6	45.7	51.8	49.6	48.8

- 주: 1) 임금근로자 1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대상임.  
 2) 매년 6월급여 계산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된 월급여를 말하며 임금은 정액급여만을 대상으로 함.  
 3)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부문,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음.  
 4)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각 비정규직 형태별 상대임금 수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부표 3-10> 연도별 근로형태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정규직=10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단위: 원, %)

구분	금액					격차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임금노동자										
특수형태 제외	14,690	15,391	17,368	18,410	17,349	93.9	94.6	94.2	94.7	95.3
특수형태 포함	14,762	15,506	17,505	18,500	17,420	94.3	95.3	95.0	95.2	95.7
정규직	15,648	16,275	18,434	19,433	18,21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특수형태 제외	11,739	12,760	14,181	15,191	14,734	75.0	78.4	76.9	78.2	80.9
특수형태 포함	12,452	13,558	15,059	15,819	15,156	79.6	83.3	81.7	81.4	83.2
-기간제	11,238	12,089	13,894	14,777	13,913	71.8	74.3	75.4	76.0	76.4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	8,885	9,154	9,957	11,304	11,485	56.8	56.2	54.0	58.2	63.1
-단시간	11,159	12,148	13,241	14,306	13,479	71.3	74.6	71.8	73.6	74.0
-파견/용역	9,236	10,291	11,580	12,426	12,003	59.0	63.2	62.8	63.9	65.9
-파견	11,090	10,885	12,625	13,526	13,061	70.9	66.9	68.5	69.6	71.7
-용역	8,807	10,158	11,345	12,178	11,846	56.3	62.4	61.5	62.7	65.1
-특수형태근로	16,388	18,128	21,483	22,368	22,165	104.7	111.4	116.5	115.1	121.7
-일일근로	14,690	15,769	17,157	18,299	18,507	93.9	96.9	93.1	94.2	101.6
-재택/가내근로	10,151	10,745	12,263	13,329	13,582	64.9	66.0	66.5	68.6	74.6

- 주: 1) 임금근로자 1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대상임.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시간 등이 파악되지 않아 시간당 임금 분석에서 제외되므로 전체 노동자 및 비정규직에는 특수형태노동자가 제외된 값임.  
 3) 시간당 임금 = 월정액급여/소정실근로시간  
 4) 매년 6월급여 계산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된 월급여를 말하며 임금은 정액급여만을 대상으로 함.  
 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부문,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음.  
 6)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각 비정규직 형태별 상대임금 수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표 3-11〉 연도별 근로형태별 고임금노동자 규모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변화	
						증감	증감률
임금노동자	5,508	5,845	4,964	4,738	4,234	-504	-10.6
정규직	4,953	5,187	4,488	4,221	3,794	-427	-10.1
비정규직 전체	556	658	477	517	440	-77	-14.9
•한시적 근로자	387	454	361	365	343	-22	-6.0
-기간제	309	329	252	250	304	54	21.6
-비기간제	79	124	110	115	39	-76	-66.1
•시간제	33	47	35	45	27	-18	-40.0
•비전형근로자	166	190	105	142	100	-42	-29.6
-파견/용역	37	33	24	33	29	-4	-12.1
-파견근로	21	15	12	14	12	-2	-14.3
-용역근로	16	17	12	19	17	-2	-10.5
-특수형태근로	83	104	48	79	48	-31	-39.2
-일일근로	48	59	34	30	23	-7	-23.3
-가정내근로	2	2	1	1	2	1	100.0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고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3-12〉 연도별 근로형태별 고임금노동자 규모 변화(전년 대비 증감률)  
(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전년 동기 대비 규모변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7	'18	'19	'20	'17	'18	'19	'20
임금노동자	337	-881	-226	-504	6.1	-15.1	-4.6	-10.6
정규직	234	-699	-267	-427	4.7	-13.5	-5.9	-10.1
비정규직	102	-181	40	-77	18.3	-27.5	8.4	-14.9
•한시적 근로	67	-93	4	-22	17.3	-20.5	1.1	-6.0
-기간제	20	-77	-2	54	6.5	-23.4	-0.8	21.6
-비기간제	45	-14	5	-76	57.0	-11.3	4.5	-66.1
•시간제	14	-12	10	-18	42.4	-25.5	28.6	-40.0
•비전형 근로	24	-85	37	-42	14.5	-44.7	35.2	-29.6
-파견근로	-4	-9	9	-4	-10.8	-27.3	37.5	-12.1
-용역근로	-6	-3	2	-2	-28.6	-20.0	16.7	-14.3
-특수형태근로	1	-5	7	-2	6.3	-29.4	58.3	-10.5
-일일근로	21	-56	31	-31	25.3	-53.8	64.6	-39.2
-가정내근로	11	-25	-4	-7	22.9	-42.4	-11.8	-23.3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고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3-13〉 연도별 근로형태별 고임금노동자 비중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 %p)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27.9	29.2	24.8	23.0	20.7	-2.3
정규직	37.3	38.6	33.4	32.3	29.1	-3.2
비정규직 전체	8.6	10.0	7.2	6.9	5.9	-1.0
•한시적 근로자	10.6	12.2	9.4	7.6	7.4	-0.2
-기간제	10.5	11.2	8.4	6.6	7.7	1.1
-비기간제	10.8	15.7	13.4	11.6	5.8	-5.8
•시간제	1.3	1.8	1.3	1.4	0.8	-0.6
•비전형근로자	7.4	9.0	5.1	6.9	4.8	-2.1
-파견/용역	4.1	3.7	3.1	4.2	4.1	-0.1
-파견근로	10.4	8.0	6.4	7.9	7.6	-0.3
-용역근로	2.3	2.5	2.0	3.1	3.0	-0.1
-특수형태근로	16.4	21.0	9.6	14.9	9.6	-5.3
-일일근로	5.5	7.4	4.3	4.0	2.6	-1.4
-가정내근로	6.0	6.5	1.0	1.6	4.6	3.0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고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3-14〉 연도별 근로형태별 고임금노동자 규모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규모					'19년 대비 변화	
	'16	'17	'18	'19	'20	증감	증감률
임금노동자	5,223	4,416	4,840	4,824	4,723	-101	-2.1
정규직	4,565	3,856	4,193	4,087	4,038	-49	-1.2
비정규직 전체	658	560	646	737	686	-51	-6.9
•한시적 근로자	424	353	427	450	446	-4	-0.9
-기간제	340	270	313	336	399	63	18.8
-비기간제	84	83	114	114	47	-67	-58.8
•시간제	194	205	244	293	254	-39	-13.3
•비전형근로자	169	128	123	181	141	-40	-22.1
-파견/용역	36	29	25	33	30	-3	-9.1
-파견근로	21	17	13	16	10	-6	-37.5
-용역근로	16	11	11	17	20	3	17.6
-특수형태근로	88	69	53	91	69	-22	-24.2
-일일근로	43	33	46	55	42	-13	-23.6
-가정내근로	4	2	2	4	5	1	25.0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고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부표 3-15> 연도별 근로형태별 고임금노동자 규모 변화(전년 대비 증감률)  
(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전년 동기 대비 규모변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7	'18	'19	'20	'17	'18	'19	'20
임금노동자	-807	424	-16	-101	-15.5	9.6	-0.3	-2.1
정규직	-709	337	-106	-49	-15.5	8.7	-2.5	-1.2
비정규직	-98	86	91	-51	-14.9	15.4	14.1	-6.9
•한시적 근로	-71	74	23	-4	-16.7	21.0	5.4	-0.9
-기간제	-70	43	23	63	-20.6	15.9	7.3	18.8
-비기간제	-1	31	0	-67	-1.2	37.3	0.0	-58.8
•시간제	11	39	49	-39	5.7	19.0	20.1	-13.3
•비전형 근로	-41	-5	58	-40	-24.3	-3.9	47.2	-22.1
-파견근로	-7	-4	8	-3	-19.4	-13.8	32.0	-9.1
-용역근로	-4	-4	3	-6	-19.0	-23.5	23.1	-37.5
-특수형태근로	-5	0	6	3	-31.3	0.0	54.5	17.6
-일일근로	-19	-16	38	-22	-21.6	-23.2	71.7	-24.2
-가정내근로	-10	13	9	-13	-23.3	39.4	19.6	-23.6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고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부표 3-16〉 연도별 근로형태별 고임금노동자 비중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 %p)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26.5	22.1	24.1	23.5	23.1	-0.4
정규직	34.4	28.7	31.2	31.3	31.0	-0.3
비정규직 전체	10.2	8.5	9.8	9.9	9.2	-0.7
•한시적 근로자	11.6	9.5	11.2	9.4	9.7	0.3
-기간제	11.6	9.2	10.4	8.8	10.1	1.3
-비기간제	11.5	10.4	13.9	11.6	7.0	-4.6
•시간제	7.8	7.7	9.0	9.3	7.8	-1.5
•비전형근로자	7.5	6.1	6.0	8.9	6.8	-2.1
-파견/용역	4.0	3.3	3.1	4.2	4.1	-0.1
-파견근로	10.2	9.2	7.1	8.8	5.9	-2.9
-용역근로	2.2	1.6	1.9	2.8	3.6	0.8
-특수형태근로	17.6	13.9	10.5	17.3	13.9	-3.4
-일일근로	5.0	4.2	5.7	7.4	4.6	-2.8
-가정내근로	9.1	6.9	4.2	8.7	11.1	2.4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고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4장 부표>

<부표 4-1> **성별 월평균 임금수준 변화(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단위: 만원,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	2020	증감	증감률
임금노동자	265.4	272.7	7.3	2.8
남성	303.9	313.6	9.7	3.2
여성	213.3	217.2	3.9	1.8

- 주: 1) 임금근로자 1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대상임.  
 2) 매년 6월급여 계산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된 월급여를 말하며 임금은 정액급여만을 대상으로 함.  
 3)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부문,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부표 4-2> **성별 시간당 임금수준 변화(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단위: 원,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	2020	증감	증감률
임금노동자	18,410	17,349	-1,061	-5.8
남성	20,701	19,490	-1,211	-5.8
여성	15,184	14,302	-882	-5.8

- 주: 1) 임금근로자 1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대상임.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시간 등이 파악되지 않아 시간당 임금 분석에서 제외되므로 전체 노동자 및 비정규직에는 특수형태노동자가 제외된 값임.  
 3) 시간당 임금 = 월정액급여/소정실근로시간  
 4) 매년 6월급여 계산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된 월급여를 말하며 임금은 정액급여만을 대상으로 함.  
 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부문,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부표 4-3〉 연도별 성별 월 평균 임금 및 격차(남성=10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단위: 만원, %)

구분	금액					격차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임금노동자	235.9	242.7	254.4	265.4	272.7	86.4	86.5	87.0	87.3	87.0
남성	273.1	280.6	292.4	303.9	313.6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성	182.9	189.7	202.6	213.3	217.2	67.0	67.6	69.3	70.2	69.3

- 주: 1) 임금근로자 1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대상임.  
 2) 매년 6월급여 계산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된 월급여를 말하며 임금은 정책급여만을 대상으로 함.  
 3)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부문,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음.  
 4) 남성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여성의 상대임금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부표 4-4〉 연도별 성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남성=10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단위: 원, %)

구분	금액					격차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임금노동자	14,690	15,391	17,368	18,410	17,349	87.3	87.7	88.3	88.9	89.0
남성	16,819	17,553	19,673	20,701	19,490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성	11,507	12,237	14,089	15,184	14,302	68.4	69.7	71.6	73.3	73.4

- 주: 1) 임금근로자 1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대상임.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시간 등이 파악되지 않아 시간당 임금 분석에서 제외되므로 전체 노동자 및 비정규직에는 특수형태노동자가 제외된 값임.  
 3) 시간당 임금 = 월정액급여/소정근로시간  
 4) 매년 6월급여 계산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된 월급여를 말하며 임금은 정책급여만을 대상으로 함.  
 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부문,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음.  
 6) 남성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여성의 상대임금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부표 4-5> 연도별 성별 고임금노동자 규모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규모	비율
임금노동자	5,508	4,515	4,964	4,738	4,234	-504	-10.7
남성	4,413	3,631	3,934	3,815	3,411	-404	-10.6
여성	1,095	885	1,030	925	822	-103	-11.1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고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부표 4-6> 연도별 성별 고임금노동자 비중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 %포인트)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27.9	22.6	24.8	23.0	20.7	-2.3
남성	38.7	32.5	35.2	33.6	30.0	-3.5
여성	12.0	10.0	11.6	10.2	9.1	-1.1
여성-남성	-26.7	-25.5	-23.6	-23.4	-20.9	2.4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고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부표 4-7> 연도별 성별 고임금노동자 규모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16	'17	'18	'19	'20	'19년 대비 증감	
						규모	비율
임금노동자	5,223	4,416	4,840	4,824	4,723	-101	-2.1
남성	4,063	3,396	3,667	3,670	3,613	-57	-1.6
여성	1,159	1,019	1,172	1,153	1,111	-42	-3.6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고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부표 4-8> 연도별 성별 고임금노동자 비중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26.5	22.1	24.1	23.5	23.1	-0.4
남성	35.7	32.8	32.2	32.2	31.8	-0.4
여성	12.6	13.2	12.6	12.6	12.2	-0.4
여성-남성	-23.1	-19.6	-19.6	-19.6	-19.6	0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고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부표 4-9> 연령별 월평균 임금수준 변화(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단위: 만원,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	2020	증감	증감률
임금노동자	265.4	272.7	7.3	2.8
29세이하	193.4	195.1	1.7	0.9
30~39세	276.7	283.9	7.2	2.6
40~49세	305.2	316.4	11.2	3.7
50~59세	288.3	295.4	7.1	2.5
60세이상	216	226.2	10.2	4.7

주: 1) 임금근로자 1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대상임.  
 2) 매년 6월급여 계산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된 월급여를 말하며 임금은 정액급여만을 대상으로 함.  
 3)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부문,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부표 4-10> 연령별 시간당 임금수준 변화(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단위: 원,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	2020	증감	증감률
임금노동자	18,410	17,349	-1,061	-5.8
29세이하	13,818	12,912	-906	-6.6
30~39세	18,793	17,403	-1,390	-7.4
40~49세	20,845	19,659	-1,186	-5.7
50~59세	20,001	18,959	-1,042	-5.2
60세이상	16,119	15,765	-354	-2.2

- 주: 1) 임금근로자 1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대상임.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시간 등이 파악되지 않아 시간당 임금 분석에서 제외되므로 전체 노동자 및 비정규직에는 특수형태노동자가 제외된 값임.  
 3) 시간당 임금 = 월정액급여/소정실근로시간  
 4) 매년 6월급여 계산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된 월급여를 말하며 임금은 정책급여만을 대상으로 함.  
 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부문,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부표 4-11> 연도별 연령별 월 평균 임금 및 격차(40-49세=10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단위: 만원, %)

구분	금액					격차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임금노동자	235.9	242.7	254.4	265.4	272.7	86.3	86.3	86.8	87.0	86.2
29세이하	166.1	170.8	183.1	193.4	195.1	60.7	60.8	62.4	63.4	61.7
30~39세	249.5	256.9	267.2	276.7	283.9	91.2	91.4	91.1	90.7	89.7
40~49세	273.5	281.1	293.2	305.2	316.4	100.0	100.0	100.0	100.0	100.0
50~59세	252.5	261.7	273.3	288.3	295.4	92.3	93.1	93.2	94.5	93.4
60세이상	184.5	192.7	207.3	216.0	226.2	67.5	68.6	70.7	70.8	71.5

- 주: 1) 임금근로자 1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대상임.  
 2) 매년 6월급여 계산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된 월급여를 말하며 임금은 정책급여만을 대상으로 함.  
 3)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부문,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음.  
 4) 40-49세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각 연령별 상대임금 수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부표 4-12〉 연도별 연령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40-49세=10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단위: 원, %)

구분	금액					격차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임금노동자	14,690	15,391	17,368	18,410	17,349	87.2	87.2	87.5	88.3	88.2
29세이하	10,667	11,180	12,835	13,818	12,912	63.3	63.4	64.7	66.3	65.7
30~39세	15,248	15,915	17,903	18,793	17,403	90.5	90.2	90.2	90.2	88.5
40~49세	16,845	17,643	19,853	20,845	19,659	100.0	100.0	100.0	100.0	100.0
50~59세	15,840	16,701	18,704	20,001	18,959	94.0	94.7	94.2	96.0	96.4
60세이상	12,290	13,119	14,909	16,119	15,765	73.0	74.4	75.1	77.3	80.2

- 주: 1) 임금근로자 1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대상임.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시간 등이 파악되지 않아 시간당 임금 분석에서 제외되므로 전체 노동자 및 비정규직에는 특수형태노동자가 제외된 값임.  
 3) 시간당 임금 = 월정액급여/소정실근로시간  
 4) 매년 6월급여 계산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된 월급여를 말하며 임금은 정책급여만을 대상으로 함.  
 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부문,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음.  
 6) 40-49세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각 연령별 상대임금 수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부표 4-13> 연도별 연령별 고임금노동자 규모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규모	비율
임금노동자	5,508	4,515	4,964	4,738	4,234	-504	-10.6
15-19세	1	2	1	4	0	-4	-100.0
20-24세	33	16	16	15	8	-7	-46.7
25-29세	239	128	214	153	149	-4	-2.6
30-34세	680	523	496	477	402	-75	-15.7
35-39세	1,000	818	908	810	638	-172	-21.2
40-44세	1,064	838	874	834	735	-99	-11.9
45-49세	998	875	956	914	842	-72	-7.9
50-54세	794	687	731	777	723	-54	-6.9
55-59세	552	496	586	550	544	-6	-1.1
60-64세	118	104	146	160	153	-7	-4.4
65세 이상	29	29	36	45	40	-5	-11.1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고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부표 4-14〉 연도별 연령별 고임금노동자 비중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27.9	22.6	24.8	23.0	20.7	-2.3
15-19세	0.5	0.8	0.5	2.1	0.0	-2.1
20-24세	2.7	1.2	1.3	1.2	0.6	-0.5
25-29세	11.4	5.9	9.5	6.6	6.7	0.1
30-34세	30.8	23.1	22.7	21.6	18.4	-3.2
35-39세	40.3	32.8	35.8	32.6	27.8	-4.8
40-44세	42.5	34.7	37.4	35.0	31.3	-3.7
45-49세	38.5	33.2	36.3	35.2	33.0	-2.2
50-54세	33.4	30.8	32.7	32.7	30.0	-2.7
55-59세	29.5	25.1	29.1	26.7	26.1	-0.7
60-64세	9.2	9.6	12.4	12.4	10.9	-1.5
65세 이상	2.1	2.5	2.9	3.2	2.5	-0.7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고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부표 4-15> 연도별 연령별 고임금노동자 규모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규모					'19년 대비 증감	
	'16	'17	'18	'19	'20	규모	비율
임금노동자	5,223	4,416	4,840	4,824	4,723	-101	-2.1
15-19세	3	4	3	4	1	-3	-75.0
20-24세	36	29	24	26	26	0	0.0
25-29세	236	182	202	183	207	24	13.1
30-34세	647	540	478	496	472	-24	-4.9
35-39세	935	790	878	799	694	-105	-13.2
40-44세	998	785	828	843	815	-28	-3.3
45-49세	925	820	929	910	908	-2	-0.2
50-54세	756	627	714	775	760	-15	-2.0
55-59세	519	484	561	544	589	45	8.2
60-64세	119	108	166	170	179	9	5.3
65세 이상	47	47	57	74	71	-3	-4.1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고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부표 4-16〉 연도별 연령별 고임금노동자 비중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26.5	22.1	24.1	23.5	23.1	-0.4
15-19세	1.1	1.7	1.8	1.9	0.5	-1.3
20-24세	2.6	2.2	1.9	2.1	2.2	0.1
25-29세	11.3	8.4	8.9	7.9	9.4	1.5
30-34세	27.5	23.9	21.7	22.4	21.6	-0.8
35-39세	39.2	31.7	35.4	32.2	30.2	-2.0
40-44세	39.8	32.5	35.4	35.4	34.7	-0.6
45-49세	36.5	31.2	35.8	35.1	35.6	0.5
50-54세	34.0	28.1	30.0	32.6	31.5	-1.1
55-59세	27.7	24.5	27.9	26.4	28.2	1.8
60-64세	11.5	9.9	12.9	13.2	12.8	-0.4
65세 이상	4.2	4.0	4.0	5.2	4.4	-0.7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고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5장 부표>

<부표 5-1> 산업별 월평균 임금수준 변화(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단위: 만원,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	2020	증감	증감률
임금노동자	265.4	272.7	7.3	2.8
농림어업	250.9	256.2	5.3	2.1
광업	327.2	324.4	-2.8	-0.9
제조업	281.9	287.3	5.4	1.9
전기가스증기	431.6	445.3	13.7	3.2
수도하수	298.2	303.1	4.9	1.6
건설업	257.4	258.9	1.5	0.6
도소매업	255.8	271.3	15.5	6.1
운수창고	271.7	280.8	9.1	3.3
숙박음식	149.2	151.9	2.7	1.8
정보통신	363.8	378.5	14.7	4.0
금융보험	381.2	405.1	23.9	6.3
부동산업	228.3	238.7	10.4	4.6
전문과학기술	370.7	380.9	10.2	2.8
사업관리지원임대	249.0	254.0	5.0	2.0
공공행정	-	-	-	-
교육서비스	266.6	263.7	-2.9	-1.1
보건사회복지	235.1	234.4	-0.7	-0.3
예술및여가	203.4	211.0	7.6	3.7
기타개인서비스	205.6	220.7	15.1	7.3
가구내고용 등	-	-	-	-
국제기구	-	-	-	-

주: 1) 임금근로자 1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대상임.  
 2) 매년 6월 급여 계산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된 월급여를 말하며 임금은 정액급여만을 대상으로 함.  
 3)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부문,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 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부표 5-2〉 산업별 시간당 임금수준 변화(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단위: 원,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	2020	증감	증감률
임금노동자	18,500	17,420	-1,080	-5.8
농림어업	17,264	15,978	-1,286	-7.4
광업	20,591	18,852	-1,739	-8.4
제조업	18,466	17,292	-1,174	-6.4
전기·가스·증기	27,824	26,563	-1,261	-4.5
수도·하수	19,308	17,596	-1,712	-8.9
건설업	20,760	20,292	-468	-2.3
도소매업	17,199	16,621	-578	-3.4
운수·창고	17,898	16,852	-1,046	-5.8
숙박·음식	11,101	11,218	117	1.1
정보·통신	24,377	22,272	-2,105	-8.6
금융·보험	27,005	25,176	-1,829	-6.8
부동산업	14,845	14,176	-669	-4.5
전문·과학기술	24,735	22,492	-2,243	-9.1
사업관리·지원업	17,161	16,044	-1,117	-6.5
공공행정	-	-	-	-
교육서비스	25,375	22,431	-2,944	-11.6
보건·사회복지	16,292	15,147	-1,145	-7.0
예술·문화·여가	15,375	14,469	-906	-5.9
기타개인서비스	14,642	14,030	-612	-4.2
가구내고용 등	-	-	-	-
국제기구	-	-	-	-

- 주: 1) 임금근로자 1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대상임.  
 2)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근로시간 등이 파악되지 않아 시간당 임금 분석에서 제외되므로 전체 노동자 및 비정규직에는 특수형태노동자가 제외된 값임.  
 3) 시간당 임금 = 월정액급여/소정실근로시간  
 4) 매년 6월 급여 계산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된 월급여를 말하며 임금은 정액급여만을 대상으로 함.  
 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부문,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 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부표 5-3> 연도별 산업별 월 평균 임금 및 격차(제조업=10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단위: 만원, %)

구분	금액					격차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임금노동자	235.9	242.7	254.4	265.4	272.7	-	-	-	-	-
농림어업	231.4	225.5	245.5	250.9	256.2	92.1	88.8	91.5	89.0	89.2
광업	306.1	301.4	321.5	327.2	324.4	121.8	118.7	119.8	116.1	112.9
제조업	251.3	253.9	268.4	281.9	287.3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기가스증기	405.9	401.2	421.8	431.6	445.3	161.5	158.0	157.2	153.1	155.0
수도하수	246.9	262.0	283.2	298.2	303.1	98.2	103.2	105.5	105.8	105.5
건설업	231.7	241.1	253.3	257.4	258.9	92.2	95.0	94.4	91.3	90.1
도소매업	220.5	230.9	243.4	255.8	271.3	87.7	90.9	90.7	90.7	94.4
운수창고	240.8	251.8	260.2	271.7	280.8	95.8	99.2	96.9	96.4	97.7
숙박음식	127.3	128.2	139.9	149.2	151.9	50.7	50.5	52.1	52.9	52.9
정보통신	316.6	326.3	346.7	363.8	378.5	126.0	128.5	129.2	129.1	131.7
금융보험	358.3	356.1	365.1	381.2	405.1	142.6	140.3	136.0	135.2	141.0
부동산업	200.8	210.8	223.7	228.3	238.7	79.9	83.0	83.3	81.0	83.1
전문과학기술	330.3	344.5	355.0	370.7	380.9	131.4	135.7	132.3	131.5	132.6
사업관리지원업대	211.6	221.5	236.7	249.0	254.0	84.2	87.2	88.2	88.3	88.4
공공행정	-	-	-	-	-	-	-	-	-	-
교육서비스	242.7	257.1	257.0	266.6	263.7	96.6	101.3	95.8	94.6	91.8
보건사회복지	198.9	214.1	224.7	235.1	234.4	79.1	84.3	83.7	83.4	81.6
예술및여가	181.6	191.6	196.9	203.4	211.0	72.3	75.5	73.4	72.2	73.4
기타개인서비스	172.8	182.8	193.9	205.6	220.7	68.8	72.0	72.2	72.9	76.8
가구내고용 등	-	-	-	-	-	-	-	-	-	-
국제기구	-	-	-	-	-	-	-	-	-	-

주: 1) 임금근로자 1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대상임.  
 2) 매년 6월 급여 계산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된 월급여를 말하며 임금은 정액급여만을 대상으로 함.  
 3)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부문,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음.  
 4) 제조업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각 산업별 상대임금 수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부표 5-4〉 연도별 산업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제조업=10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단위: 원, %)

구분	금액					격차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임금노동자	14,762	15,506	17,505	18,500	17,420	-	-	-	-	-
농림어업	14,533	14,250	16,611	17,264	15,978	96.9	93.1	95.5	93.5	92.4
광업	18,085	17,884	20,063	20,591	18,852	120.6	116.9	115.4	111.5	109.0
제조업	14,994	15,305	17,393	18,466	17,292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기가스증기	24,002	23,812	27,182	27,824	26,563	160.1	155.6	156.3	150.7	153.6
수도하수	14,396	15,598	17,977	19,308	17,596	96.01	101.91	103.36	104.56	101.76
건설업	16,960	17,987	19,959	20,760	20,292	113.1	117.5	114.8	112.4	117.3
도소매업	12,976	14,012	15,908	17,199	16,621	86.5	91.6	91.5	93.1	96.1
운수창고	14,398	15,243	17,006	17,898	16,852	96.0	99.6	97.8	96.9	97.5
숙박음식	8,492	8,980	10,193	11,101	11,218	56.6	58.7	58.6	60.1	64.9
정보통신	19,289	19,862	23,183	24,377	22,272	128.6	129.8	133.3	132.0	128.8
금융보험	21,497	21,704	25,843	27,005	25,176	143.4	141.8	148.6	146.2	145.6
부동산업	11,246	12,320	14,361	14,845	14,176	75.0	80.5	82.6	80.4	82.0
전문과학기술	19,937	20,983	23,491	24,735	22,492	133.0	137.1	135.1	133.9	130.1
사업관리지원업대	13,225	13,782	16,120	17,161	16,044	88.2	90.0	92.7	92.9	92.8
공공행정	-	-	-	-	-	-	-	-	-	-
교육서비스	19,822	22,197	23,787	25,375	22,431	132.2	145.0	136.8	137.4	129.7
보건사회복지	12,378	13,474	15,206	16,292	15,147	82.6	88.0	87.4	88.2	87.6
예술및여가	12,616	13,603	15,325	15,375	14,469	84.1	88.9	88.1	83.3	83.7
기타개인서비스	11,173	11,990	13,597	14,642	14,030	74.5	78.3	78.2	79.3	81.1
가구내고용 등	-	-	-	-	-	-	-	-	-	-
국제기구	-	-	-	-	-	-	-	-	-	-

- 주: 1) 임금근로자 1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대상임.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시간 등이 파악되지 않아 시간당 임금 분석에서 제외되므로 전체 노동자 및 비정규직에는 특수형태노동자가 제외된 값임.  
 3) 시간당 임금 = 월정액급여/소정실근로시간.  
 4) 매년 6월 급여 계산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된 월급여를 말하며 임금은 정액급여만을 대상으로 함.  
 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부문,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 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음.  
 6) 제조업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각 산업별 상대임금 수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부표 5-5〉 연도별 산업별 고임금 노동자 규모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규모	증감률
임금노동자	5,508	5,845	4,964	4,738	4,234	-504	-10.6
농림어업	8	12	6	9	11	2	22.2
광업	9	14	10	4	3	-1	-25.0
제조업	1,456	1,490	1,350	1,235	1,083	-152	-12.3
전기가스증기	55	54	51	41	46	5	12.2
수도하수	28	37	26	35	35	0	0.0
건설업	397	438	374	379	338	-41	-10.8
도소매업	374	411	315	348	291	-57	-16.4
운수창고	223	263	195	192	137	-55	-28.6
숙박음식	46	70	41	50	27	-23	-46.0
정보통신	344	374	340	329	317	-12	-3.6
금융보험	391	408	358	360	346	-14	-3.9
부동산업	44	69	61	55	44	-11	-20.0
전문과학기술	506	470	400	425	387	-38	-8.9
사업관리지원임대	100	137	95	109	108	-1	-0.9
공공행정	576	567	487	400	356	-44	-11.0
교육서비스	574	586	522	455	420	-35	-7.7
보건사회복지	240	281	230	214	189	-25	-11.7
예술및여가	39	47	28	32	22	-10	-31.3
기타개인서비스	86	105	72	60	67	7	11.7
가구내고용 등	0	0	0	0	0	0	-
국제기구	12	12	2	8	7	-1	-12.5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고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부표 5-6〉 연도별 산업별 고임금 노동자 규모 변화(전년 대비 증감률)  
(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전년 동기 대비 규모 변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7	'18	'19	'20	'17	'18	'19	'20
임금노동자	337	-881	-226	-504	6.1	-15.1	-4.6	-10.6
농림어업	4	-6	3	2	50.0	-50.0	50.0	22.2
광업	5	-4	-6	-1	55.6	-28.6	-60.0	-25.0
제조업	34	-140	-115	-152	2.3	-9.4	-8.5	-12.3
전기가스증기	-1	-3	-10	5	-1.8	-5.6	-19.6	12.2
수도하수	9	-11	9	0	32.1	-29.7	34.6	0.0
건설업	41	-64	5	-41	10.3	-14.6	1.3	-10.8
도소매업	37	-96	33	-57	9.9	-23.4	10.5	-16.4
운수창고	40	-68	-3	-55	17.9	-25.9	-1.5	-28.6
숙박음식	24	-29	9	-23	52.2	-41.4	22.0	-46.0
정보통신	30	-34	-11	-12	8.7	-9.1	-3.2	-3.6
금융보험	17	-50	2	-14	4.3	-12.3	0.6	-3.9
부동산업	25	-8	-6	-11	56.8	-11.6	-9.8	-20.0
전문과학기술	-36	-70	25	-38	-7.1	-14.9	6.3	-8.9
사업관리지원임대	37	-42	14	-1	37.0	-30.7	14.7	-0.9
공공행정	-9	-80	-87	-44	-1.6	-14.1	-17.9	-11.0
교육서비스	12	-64	-67	-35	2.1	-10.9	-12.8	-7.7
보건사회복지	41	-51	-16	-25	17.1	-18.1	-7.0	-11.7
예술및여가	8	-19	4	-10	20.5	-40.4	14.3	-31.3
기타개인서비스	19	-33	-12	7	22.1	-31.4	-16.7	11.7
가구내고용 등	0	0	0	0	-	-	-	-
국제기구	0	-10	6	-1	0.0	-83.3	300.0	-12.5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고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부표 5-7> 연도별 산업별 고임금 노동자 비중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 %p)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27.9	29.2	24.8	23.0	20.7	-2.3
농림어업	6.0	9.7	5.6	7.5	9.0	1.5
광업	47.9	57.9	56.2	33.5	24.0	-9.5
제조업	36.5	37.1	34.3	31.3	27.5	-3.8
전기가스증기	74.7	80.9	71.5	57.3	64.3	7.0
수도하수	25.7	34.7	21.3	26.3	25.0	-1.3
건설업	26.9	28.9	23.6	23.3	20.3	-3.0
도소매업	16.7	17.7	14.0	15.5	13.4	-2.1
운수창고	28.8	33.6	24.7	23.7	16.9	-6.8
숙박음식	3.1	4.9	3.0	3.4	2.0	-1.4
정보통신	48.4	52.1	43.4	42.4	41.1	-1.3
금융보험	50.4	53.8	44.6	47.3	46.2	-1.1
부동산업	13.5	18.8	17.2	13.6	12.1	-1.5
전문과학기술	53.3	52.1	43.3	42.7	39.3	-3.4
사업관리지원임대	7.7	10.5	7.9	8.8	8.5	-0.3
공공행정	56.2	51.4	43.0	37.0	31.4	-5.6
교육서비스	38.5	38.1	34.7	29.4	28.3	-1.1
보건사회복지	13.2	15.1	11.5	9.8	8.1	-1.7
예술및여가	14.8	17.3	9.8	9.4	6.7	-2.7
기타개인서비스	11.8	14.5	9.5	8.3	9.9	1.6
가구내고용 등	0.0	0.0	0.0	0.0	0.0	0.0
국제기구	70.5	88.0	24.8	73.0	38.8	-34.2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고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부표 5-8〉 연도별 산업별 고임금 노동자 규모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규모					'19년 대비 증감	
	'16	'17	'18	'19	'20	규모	증감률
임금노동자	5,223	4,416	4,840	4,824	4,723	-101	-2.1
농림어업	6	6	8	5	6	1	20.0
광업	8	11	7	1	3	2	200.0
제조업	1,319	1,058	1,229	1,196	1,134	-62	-5.2
전기가스증기	57	46	50	41	49	8	19.5
수도하수	27	23	27	32	39	7	21.9
건설업	331	267	345	349	348	-1	-0.3
도소매업	326	258	286	346	320	-26	-7.5
운수창고	176	169	164	164	140	-24	-14.6
숙박음식	48	30	33	50	31	-19	-38.0
정보통신	343	319	327	327	339	12	3.7
금융보험	388	331	363	366	377	11	3.0
부동산업	50	50	65	61	59	-2	-3.3
전문과학기술	496	400	407	447	442	-5	-1.1
사업관리지원임대	90	73	91	115	128	13	11.3
공공행정	573	479	491	417	394	-23	-5.5
교육서비스	632	568	602	564	535	-29	-5.1
보건사회복지	241	208	245	230	248	18	7.8
예술및여가	33	41	32	43	45	2	4.7
기타개인서비스	64	70	67	59	76	17	28.8
가내고용 등	2	0	0	3	2	-1	-33.3
국제기구	12	10	2	8	10	2	25.0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고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부표 5-9> 연도별 산업별 고임금 노동자 규모 변화(전년 대비 증감률)  
(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천명.%)

구분	전년 동기 대비 규모 변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7	'18	'19	'20	'17	'18	'19	'20
임금노동자	-807	424	-16	-101	-15.5	9.6	-0.3	-2.1
농림어업	0	2	-3	1	0.0	33.3	-37.5	20.0
광업	3	-4	-6	2	37.5	-36.4	-85.7	200.0
제조업	-261	171	-33	-62	-19.8	16.2	-2.7	-5.2
전기가스증기	-11	4	-9	8	-19.3	8.7	-18.0	19.5
수도하수	-4	4	5	7	-14.8	17.4	18.5	21.9
건설업	-64	78	4	-1	-19.3	29.2	1.2	-0.3
도소매업	-68	28	60	-26	-20.9	10.9	21.0	-7.5
운수창고	-7	-5	0	-24	-4.0	-3.0	0.0	-14.6
숙박음식	-18	3	17	-19	-37.5	10.0	51.5	-38.0
정보통신	-24	8	0	12	-7.0	2.5	0.0	3.7
금융보험	-57	32	3	11	-14.7	9.7	0.8	3.0
부동산업	0	15	-4	-2	0.0	30.0	-6.2	-3.3
전문과학기술	-96	7	40	-5	-19.4	1.8	9.8	-1.1
사업관리지원임대	-17	18	24	13	-18.9	24.7	26.4	11.3
공공행정	-94	12	-74	-23	-16.4	2.5	-15.1	-5.5
교육서비스	-64	34	-38	-29	-10.1	6.0	-6.3	-5.1
보건사회복지	-33	37	-15	18	-13.7	17.8	-6.1	7.8
예술및여가	8	-9	11	2	24.2	-22.0	34.4	4.7
기타개인서비스	6	-3	-8	17	9.4	-4.3	-11.9	28.8
가구내고용 등	-2	0	3	-1	-100.0	-	-	-33.3
국제기구	-2	-8	6	2	-16.7	-80.0	300.0	25.0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고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부표 5-10〉 연도별 산업별 고임금 노동자 비중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 %p)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26.5	22.1	24.1	23.5	23.1	-0.4
농림어업	4.8	4.7	7.3	4.4	4.9	0.5
광업	42.6	44.3	39.5	8.4	27.8	19.4
제조업	33.1	26.3	31.2	30.3	28.9	-1.4
전기가스증기	78.6	68.8	69.9	57.7	68.2	10.5
수도하수	25.1	21.7	21.8	24.0	27.3	3.3
건설업	22.4	17.7	21.8	21.5	20.9	-0.6
도소매업	14.6	11.1	12.7	15.3	14.7	-0.6
운수창고	22.7	21.5	20.7	20.2	17.2	-3.0
숙박음식	3.3	2.1	2.4	3.5	2.4	-1.1
정보·통신	48.4	44.4	41.7	42.1	44.0	1.9
금융·보험	49.9	43.8	45.1	48.1	50.3	2.2
부동산업	15.3	13.7	18.2	15.1	16.4	1.3
전문·과학기술	52.2	44.4	44.0	44.9	44.8	-0.1
사업관리지원임대	7.0	5.6	7.7	9.3	10.1	0.8
공공행정	55.9	43.4	43.4	38.6	34.7	-3.9
교육서비스	42.3	36.9	40.0	36.4	36.1	-0.3
보건사회복지	13.3	11.2	12.3	10.6	10.6	0.0
예술및여가	12.4	14.9	11.1	12.5	13.3	0.8
기타개인서비스	8.8	9.6	8.9	8.2	11.3	3.1
가구내고용 등	4.3	0.0	0.0	4.2	1.8	-2.4
국제기구	70.5	74.4	24.8	73.0	53.0	-20.0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고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부표 5-11> 기업규모별 월평균 임금수준 변화(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단위: 만원,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	2020	증감	증감률
임금노동자	265.4	272.7	7.3	2.8
1-4인	195.5	202.5	7.0	3.6
5-29인	260.6	271.5	10.9	4.2
30-299인	289.1	292.7	3.6	1.2
300인 이상	376.8	391.6	14.8	3.9

- 주: 1) 임금근로자 1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대상임.  
 2) 매년 6월 급여 계산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된 월급여를 말하며 임금은 정액급여만을 대상으로 함.  
 3)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부문,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 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부표 5-12> 기업규모별 시간당 임금수준 변화(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단위: 원,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	2020	증감	증감률
임금노동자	18,500	17,420	-1,080	-5.8
1-4인	14,400	13,841	-559	-3.9
5-29인	18,121	17,158	-963	-5.3
30-299인	19,433	17,931	-1,502	-7.7
300인 이상	25,606	24,263	-1,343	-5.2

- 주: 1) 임금근로자 1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대상임.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시간 등이 파악되지 않아 시간당 임금 분석에서 제외되므로 전체 노동자 및 비정규직에는 특수형태노동자가 제외된 값임.  
 3) 시간당 임금 = 월정액급여/소정실근로시간  
 4) 매년 6월 급여 계산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된 월급여를 말하며 임금은 정액급여만을 대상으로 함.  
 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부문,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 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부표 5-13〉 연도별 기업규모별 월 평균 임금 및 격차(300인 이상=10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단위: 만원, %)

구분	금액					격차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임금노동자	235.9	242.7	254.4	265.4	272.7	-	-	-	-	-
1-4인	174.8	177.4	187.3	195.5	202.5	50.4	50.3	52.9	51.9	51.7
5-29인	227.1	236.7	250.1	260.6	271.5	65.5	67.1	70.7	69.2	69.3
30-299인	254.1	263.4	279.6	289.1	292.7	73.2	74.7	79.0	76.7	74.7
300인 이상	346.9	352.7	353.8	376.8	391.6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1) 임금근로자 1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대상임.  
 2) 매년 6월 급여 계산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된 월급여를 말하며 임금은 정액급여만을 대상으로 함.  
 3)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부문,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 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음.  
 4) 300인 이상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각 규모별 상대임금 수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부표 5-14〉 연도별 기업규모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300인 이상=10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단위: 원, %)

구분	금액					격차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임금노동자	14,762	15,506	17,505	18,500	17,420	-	-	-	-	-
1-4인	11,225	12,115	13,742	14,400	13,841	51.3	54.1	56.8	56.2	57.0
5-29인	14,087	14,858	16,922	18,121	17,158	64.4	66.3	69.9	70.8	70.7
30-299인	15,654	16,373	18,600	19,433	17,931	71.6	73.1	76.9	75.9	73.9
300인 이상	21,868	22,408	24,196	25,606	24,263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1) 임금근로자 1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대상임.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시간 등이 파악되지 않아 시간당 임금 분석에서 제외되므로 전체 노동자 및 비정규직에는 특수형태노동자가 제외된 값임.  
 3) 시간당 임금 = 월정액급여/소정실근로시간  
 4) 매년 6월 급여 계산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된 월급여를 말하며 임금은 정액급여만을 대상으로 함.  
 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부문,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 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음.  
 6) 300인 이상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각 규모별 상대임금 수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부표 5-15> 연도별 기업규모별 고임금노동자 규모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규모	증감률
입금노동자	5,508	5,845	4,964	4,738	4,234	-504	-10.6
1-4인	202	249	183	210	181	-29	-13.8
5-9인	474	554	426	422	335	-87	-20.6
10-29인	1,041	1,154	918	835	734	-101	-12.1
30-99인	1,301	1,387	1,215	1,074	943	-131	-12.2
100-299인	855	849	733	679	612	-67	-9.9
300인 이상	1,635	1,652	1,487	1,517	1,430	-87	-5.7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고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부표 5-16> 연도별 기업규모별 고임금 노동자 비중 변화(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 %p)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입금노동자	27.9	29.2	24.8	23.0	20.7	-2.3
1-4인	5.7	7.0	5.2	5.6	5.0	-0.6
5-9인	13.4	15.6	12.0	11.6	9.5	-2.1
10-29인	23.4	25.4	20.0	18.2	15.9	-2.3
30-99인	34.3	36.0	31.2	27.6	23.6	-4.0
100-299인	43.4	42.1	37.4	34.2	30.9	-3.3
300인 이상	66.9	67.0	58.7	57.0	53.0	-4.0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고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부표 5-17> 연도별 기업규모별 고임금 노동자 규모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규모					'19년 대비 증감	
	'16	'17	'18	'19	'20	규모	증감률
임금노동자	5,223	4,416	4,840	4,824	4,723	-101	-2.1
1-4인	186	170	216	253	241	-12	-4.7
5-9인	410	345	394	427	396	-31	-7.3
10-29인	973	790	890	861	833	-28	-3.3
30-99인	1,235	1,071	1,184	1,102	1,069	-33	-3.0
100-299인	811	636	697	667	650	-17	-2.5
300인 이상	1,608	1,404	1,458	1,514	1,534	20	1.3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고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부표 5-18> 연도별 기업규모별 고임금 노동자 비중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 %p)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9년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26.5	22.1	24.1	23.5	23.1	-0.4
1-4인	5.2	4.7	6.1	6.7	6.6	-0.1
5-9인	11.6	9.7	11.1	11.7	11.3	-0.4
10-29인	21.8	17.4	19.4	18.8	18.1	-0.7
30-99인	32.6	27.8	30.4	28.3	26.8	-1.5
100-299인	41.1	31.6	35.6	33.5	32.9	-0.6
300인 이상	65.8	56.9	57.5	56.9	56.8	-0.1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3)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고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6장 부표>

<부표 6-1> 35-39세 기혼여성 취업자 규모 및 변화(2018-2020)

(단위: 천명)

구분	2018	2019	2020	'18년 대비 '19년 증감	'19년 대비 '20년 증감	'18년 대비 '20년 증감
규모 및 변화	890	870	805	-20	-66	-8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